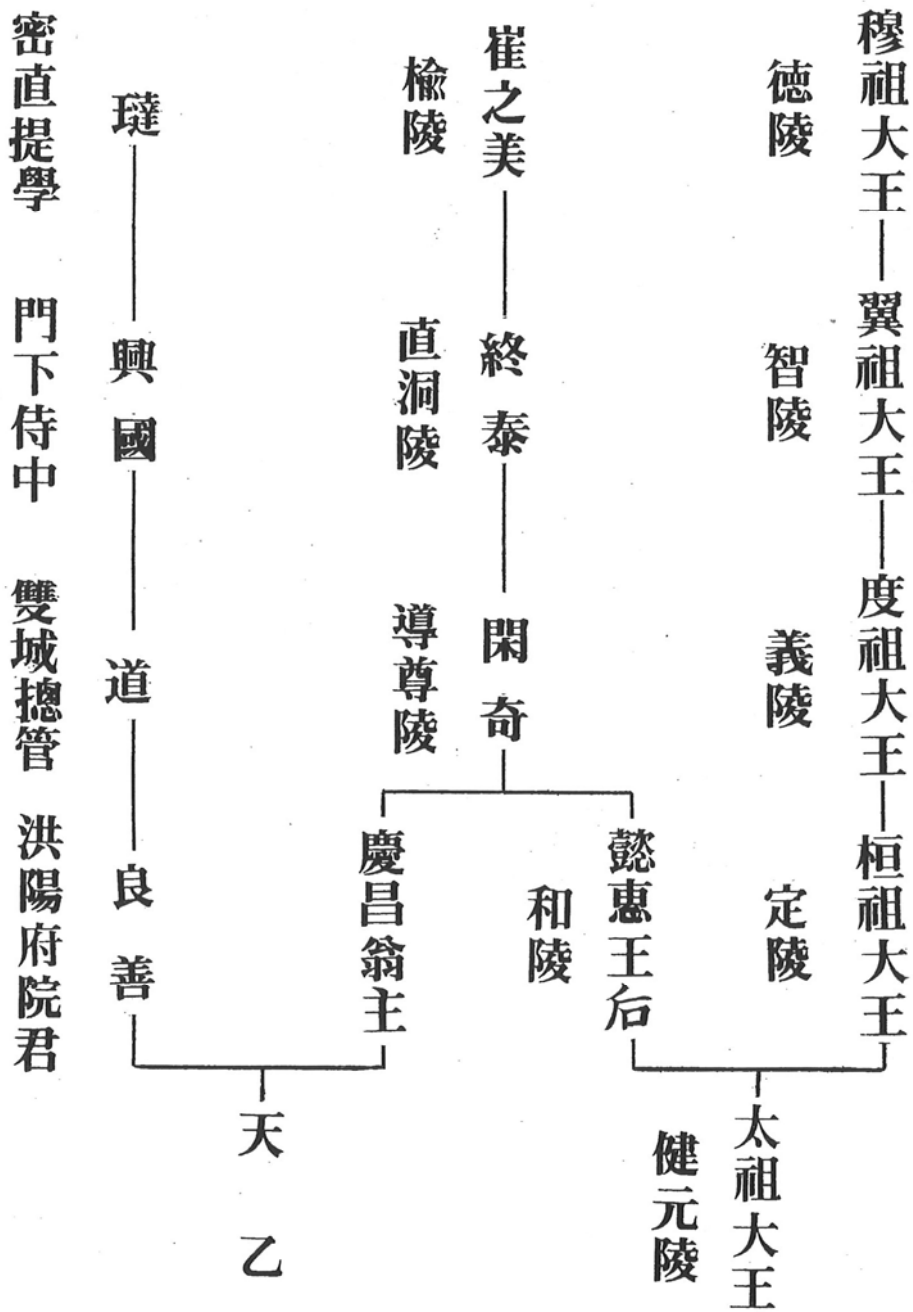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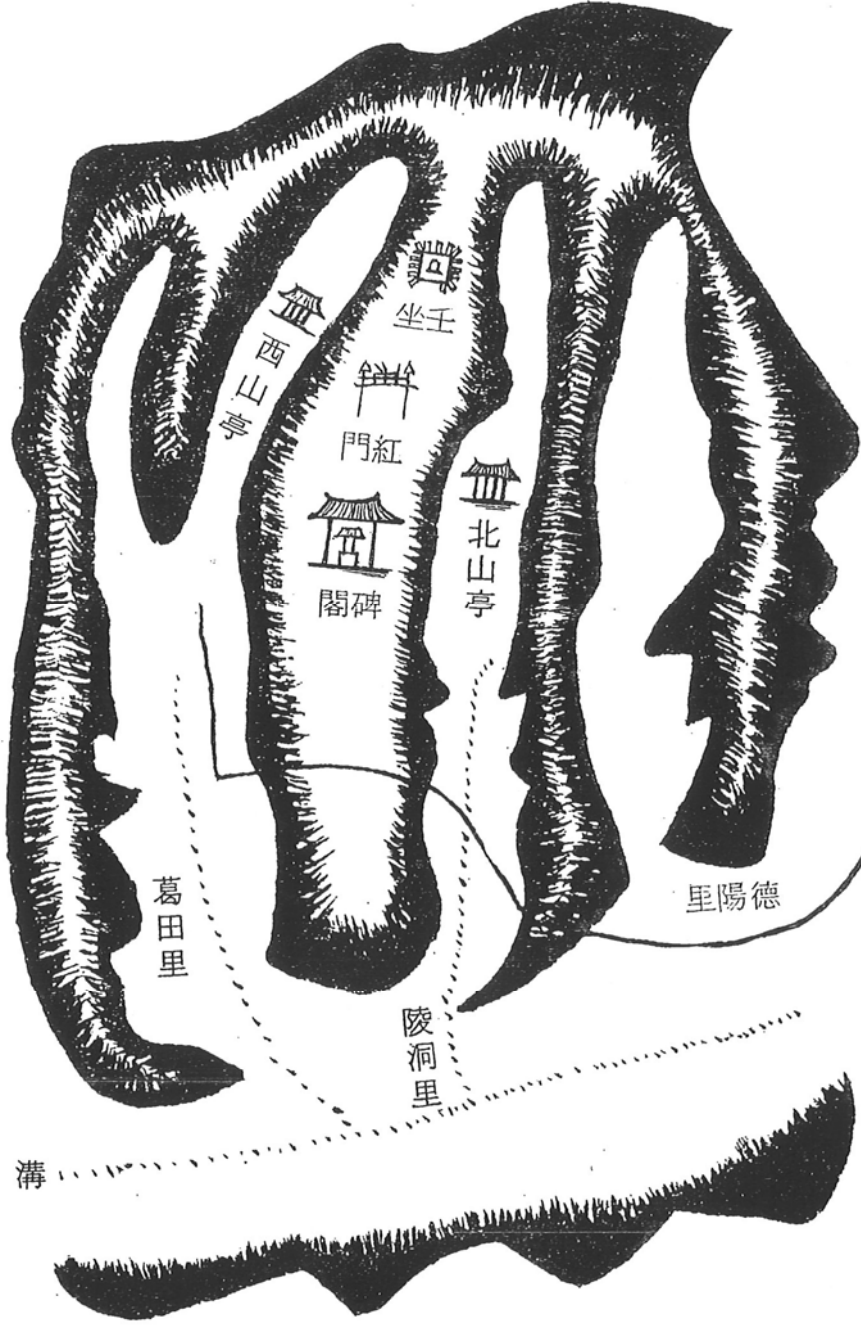
李太祖及洪城直君外四代系合圖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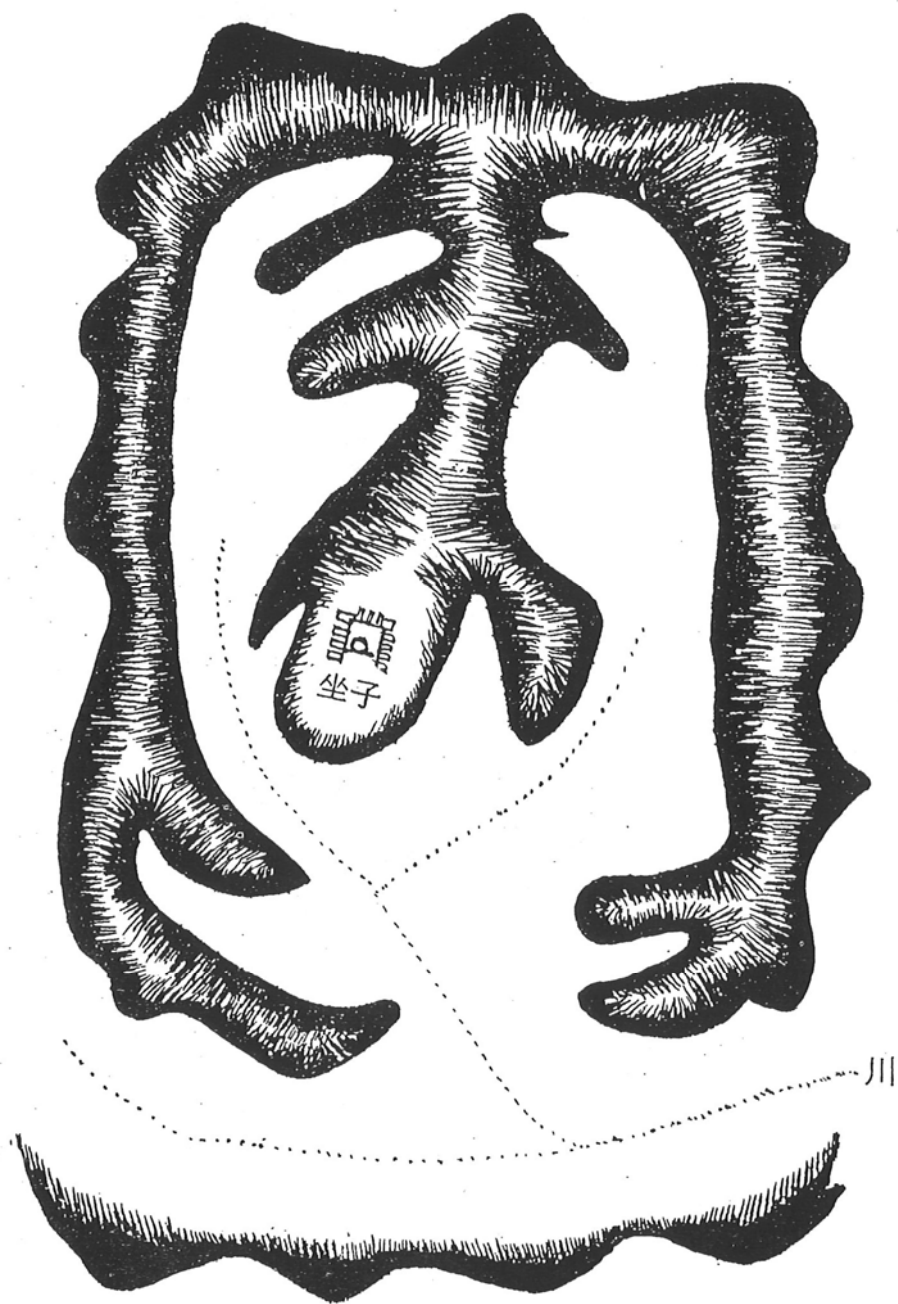
永興郡 順寧面 陵洞里 永興伯靖孝公導尊陵圖

永興郡 順寧面 陵洞里



洪陽府院君諱良善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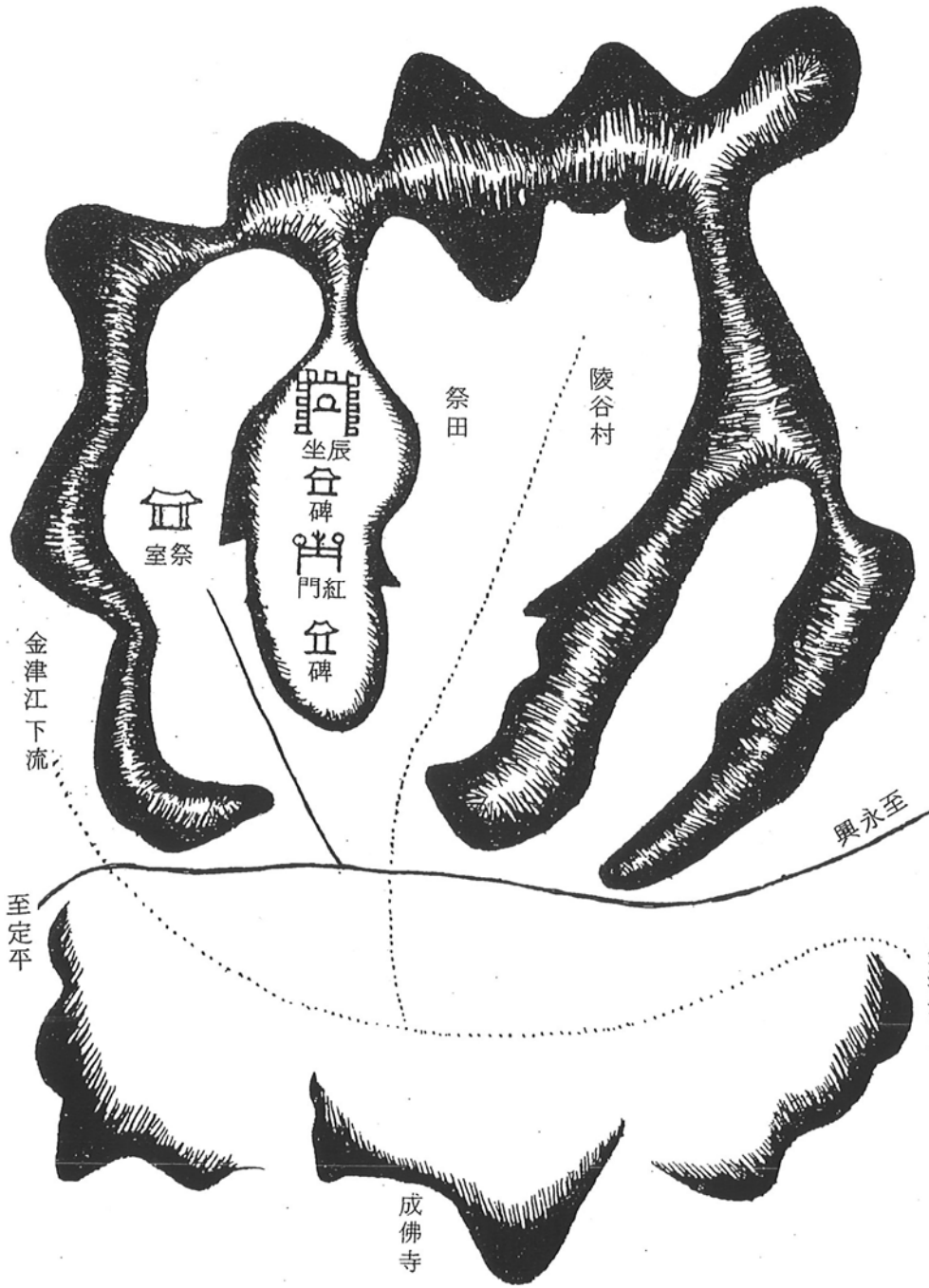
永興郡 長興面 東下里 (舊院垞洞)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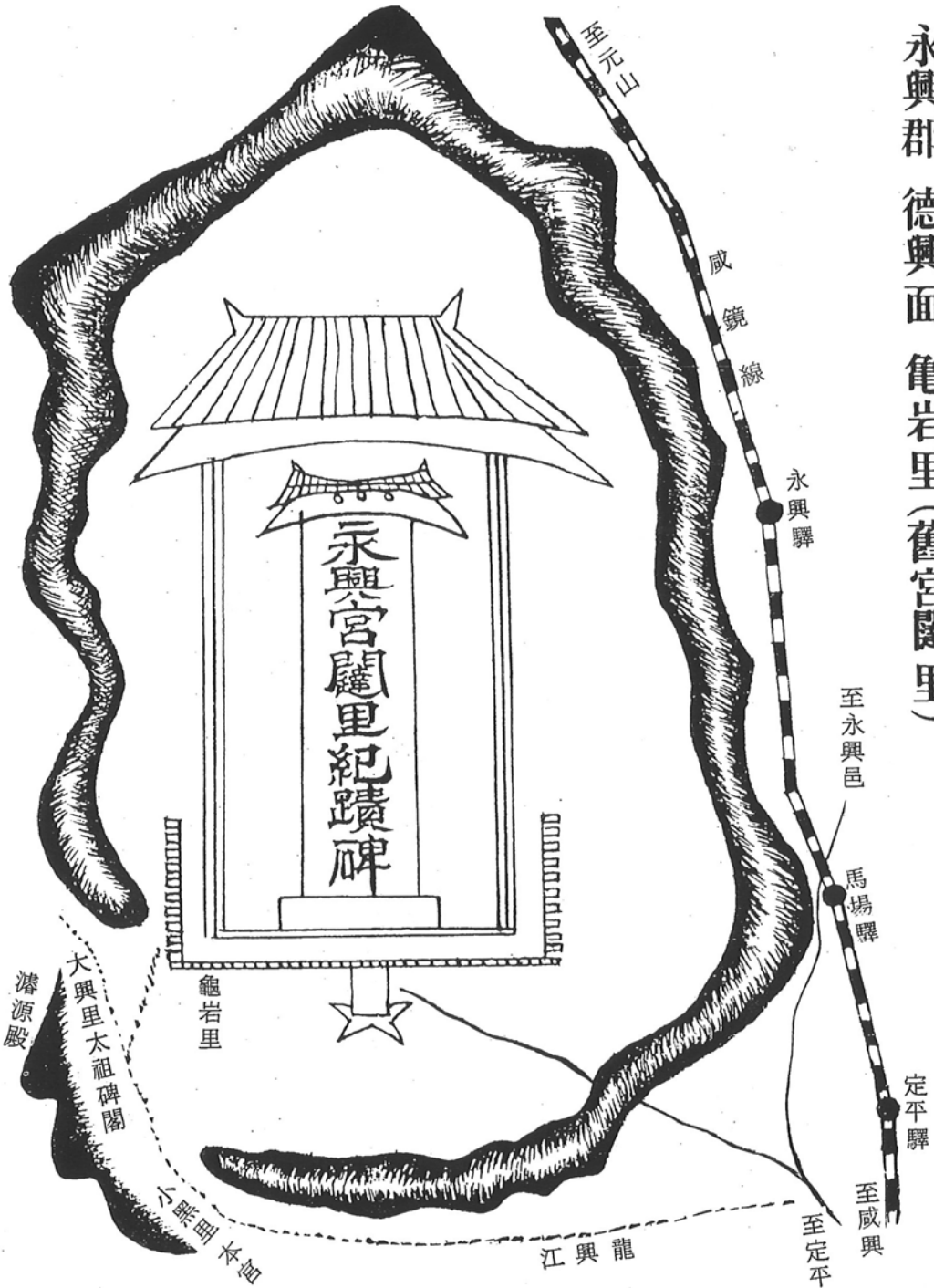
慶昌翁主崔氏陵圖

定平郡 草原面 東溪里(舊早田洞)



慶昌翁主崔氏宮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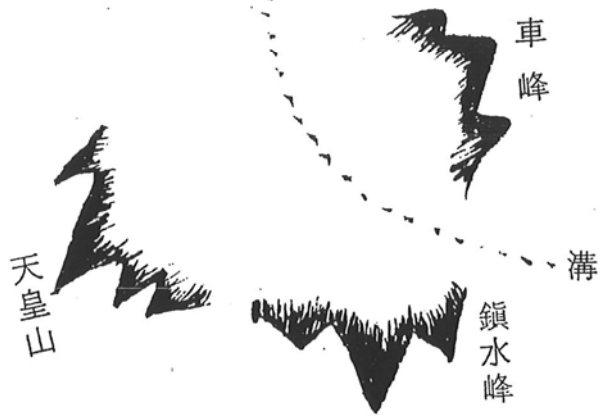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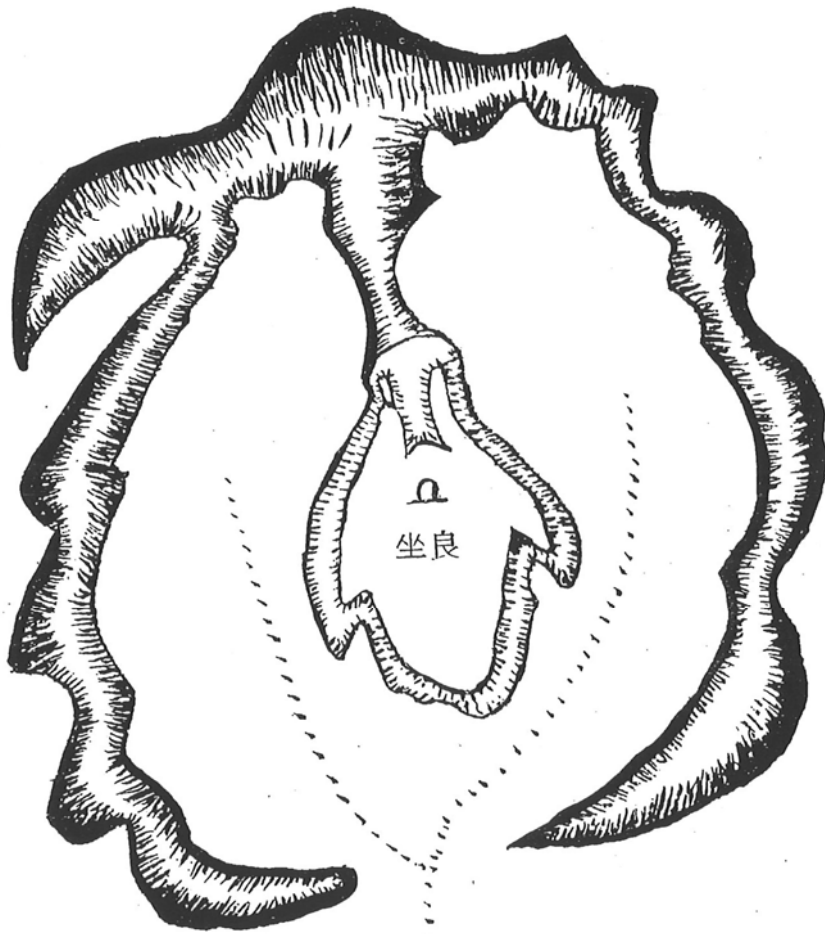
永興郡 德興面 龜岩里(舊宮閣里)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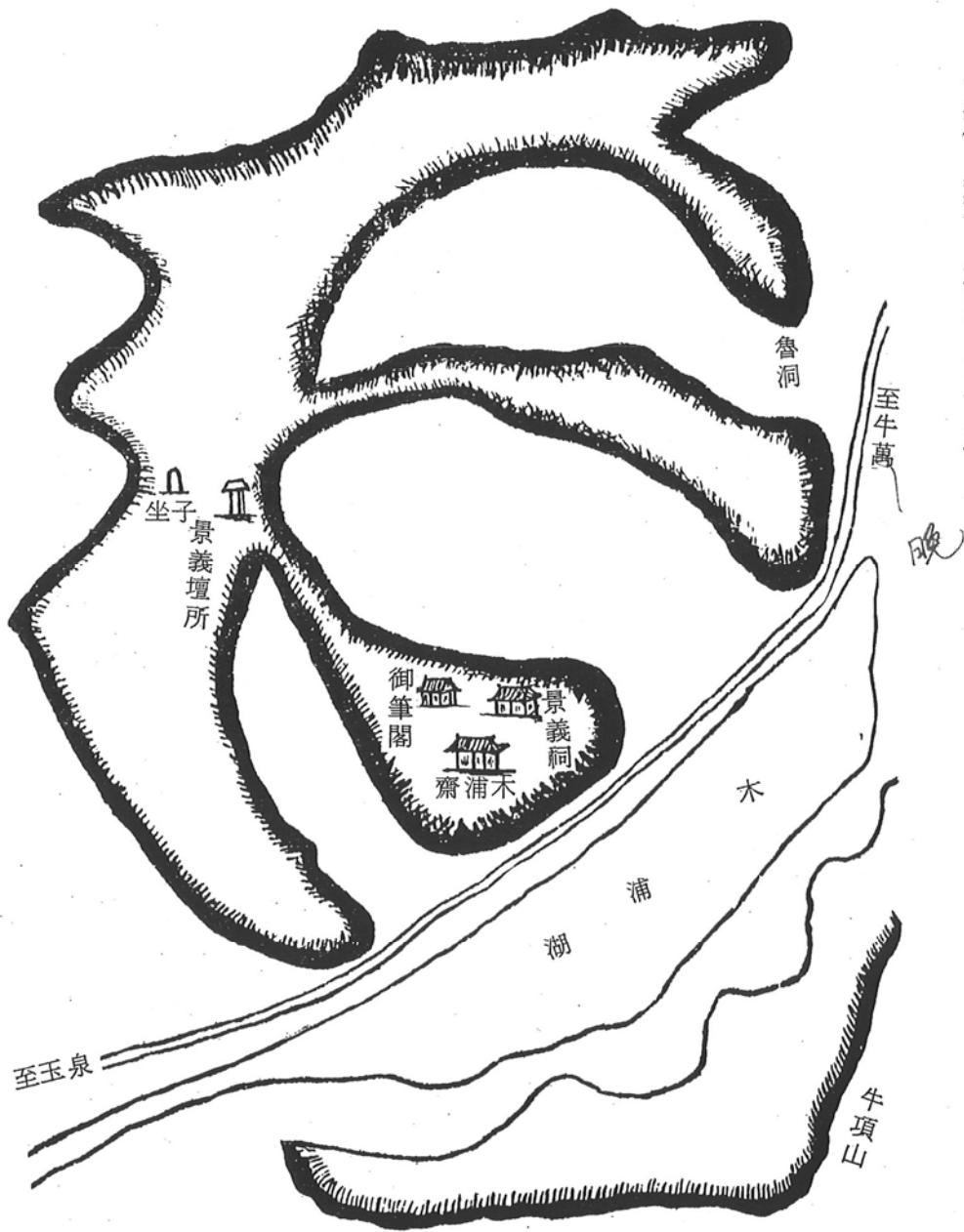
通訓大夫洪城君墓圖

永興郡 鎮坪面 寶幕洞 鶴峴



昌寧郡木浦齋圖

昌寧郡梨房面玉泉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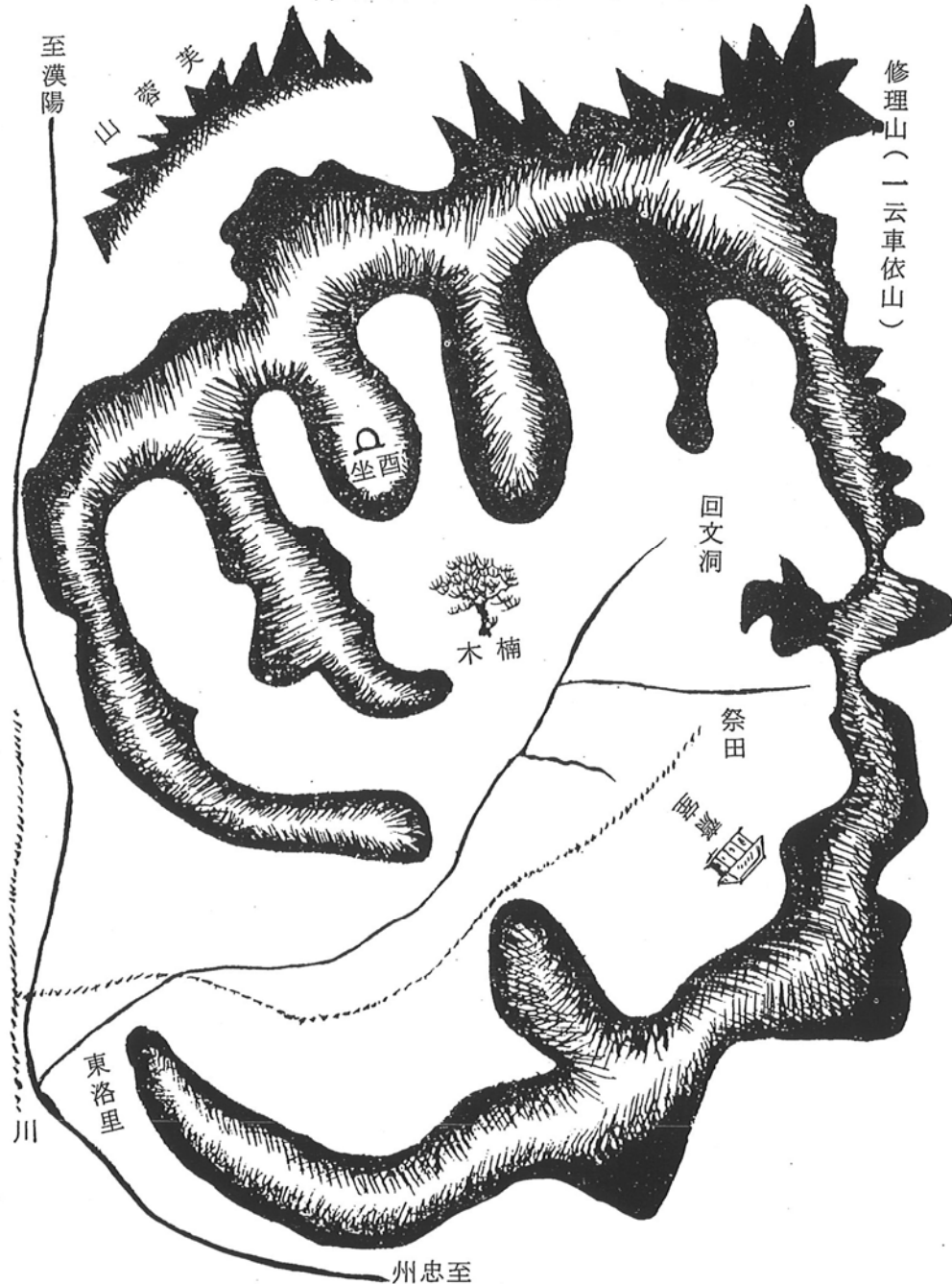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贊成諱汝明壇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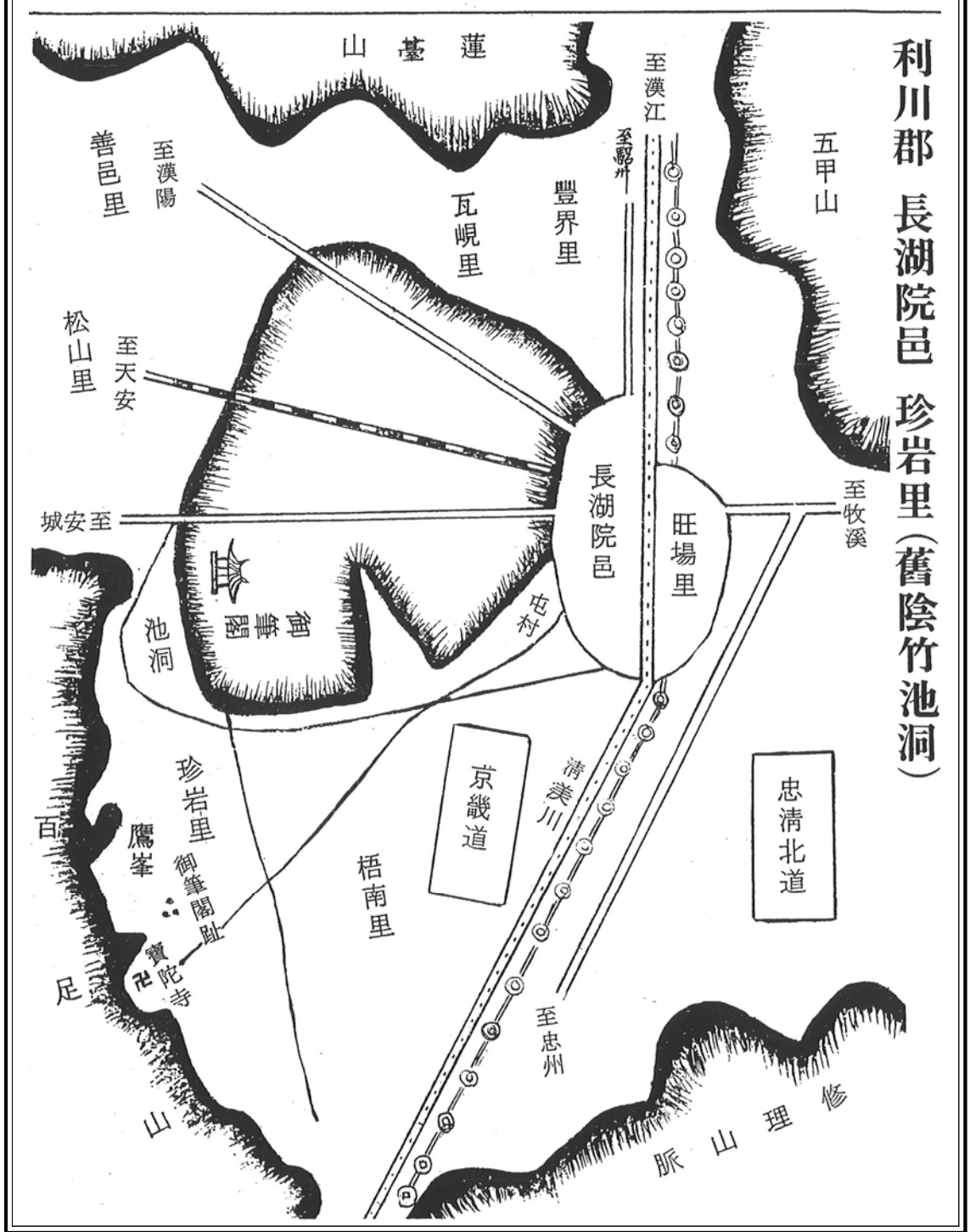
文樂里山二十二番地 二野林六畝
(甲辰十一月二十三日買入)

中原郡 薪尼面 文樂里 (舊忠州回文洞)



御筆閣附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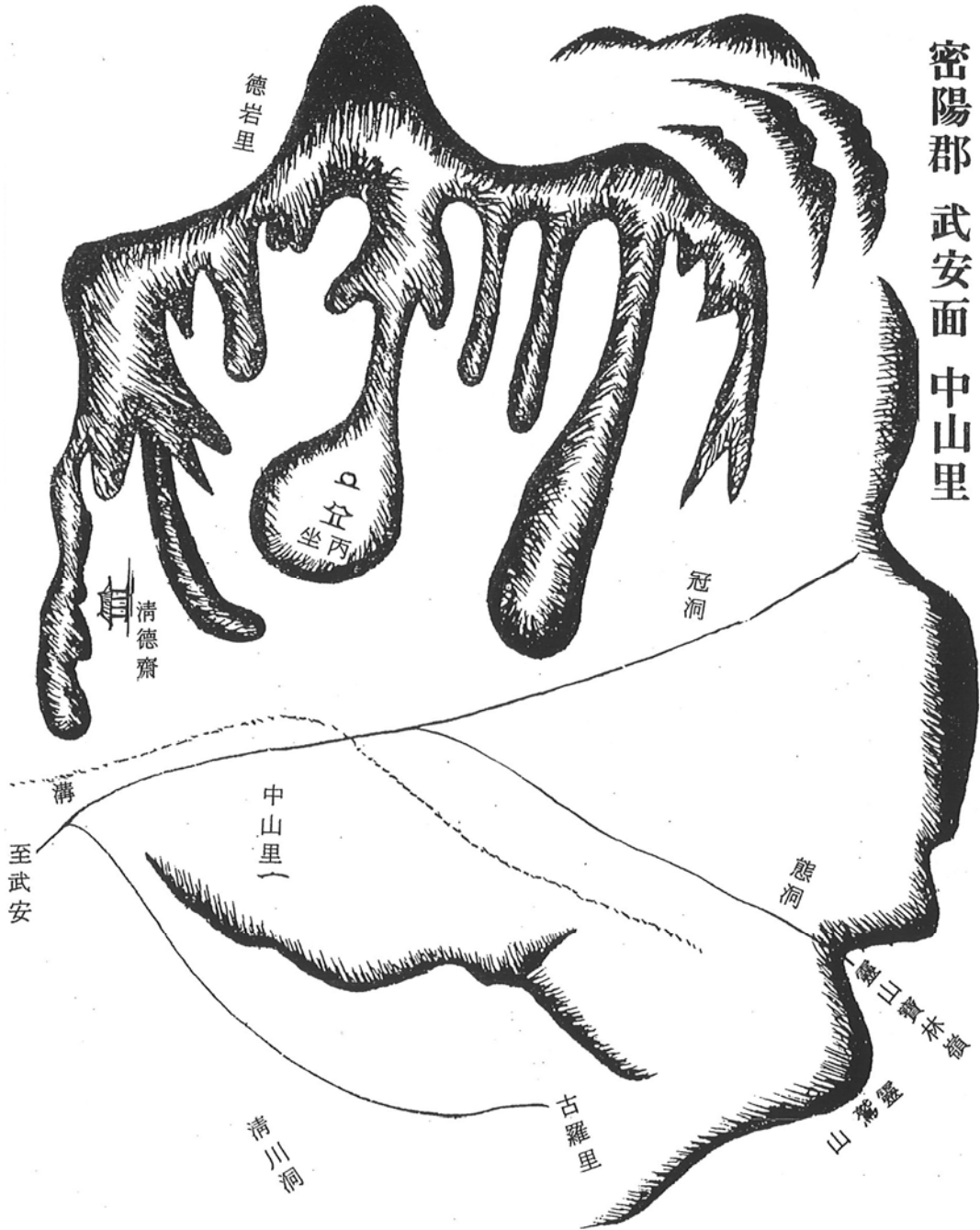
利川郡 長湖院邑 珍岩里 (舊陰竹池洞)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吏曹參議成玉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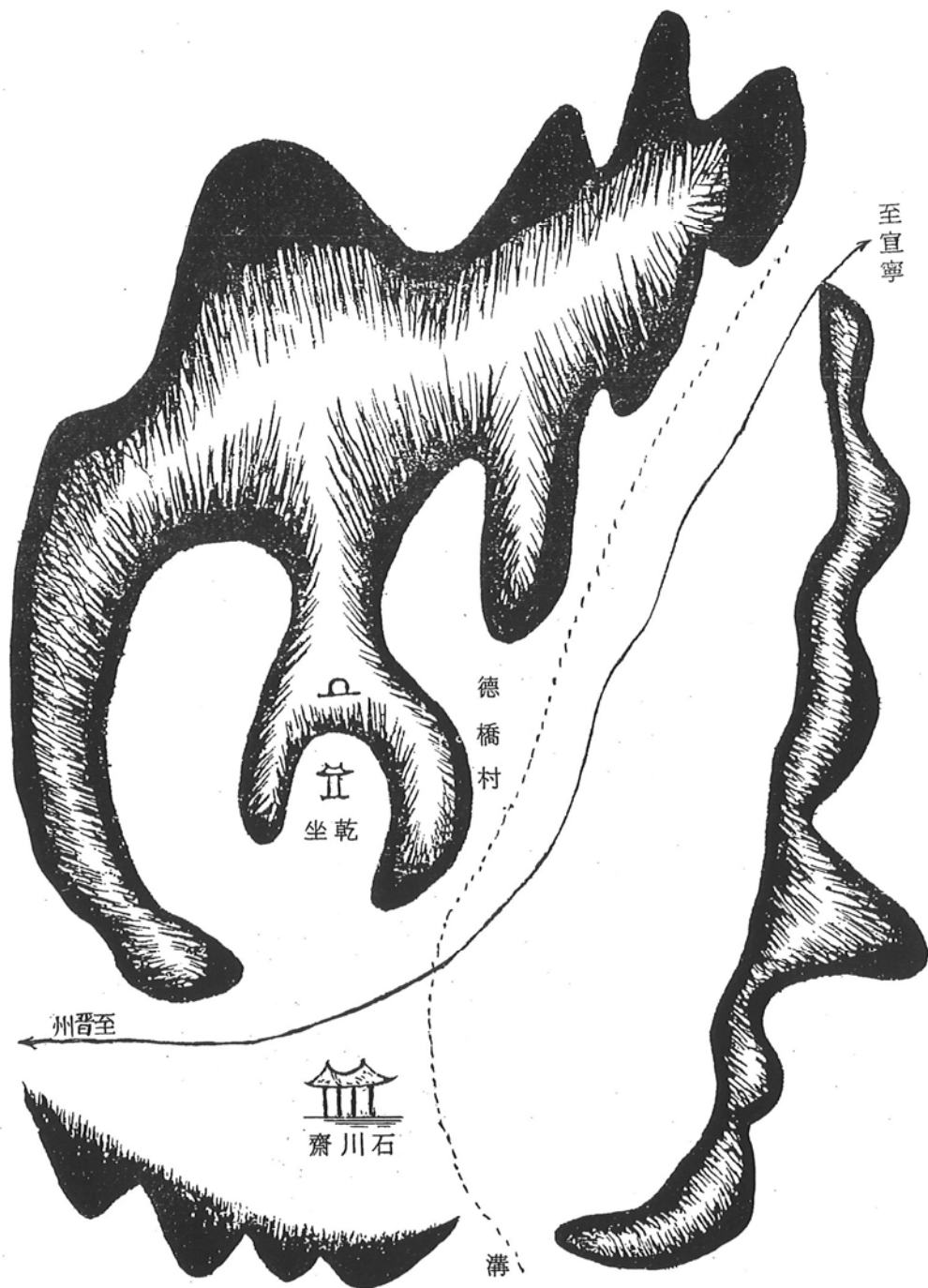
密陽郡 武安面 中山里



圖墓珍斯諱公使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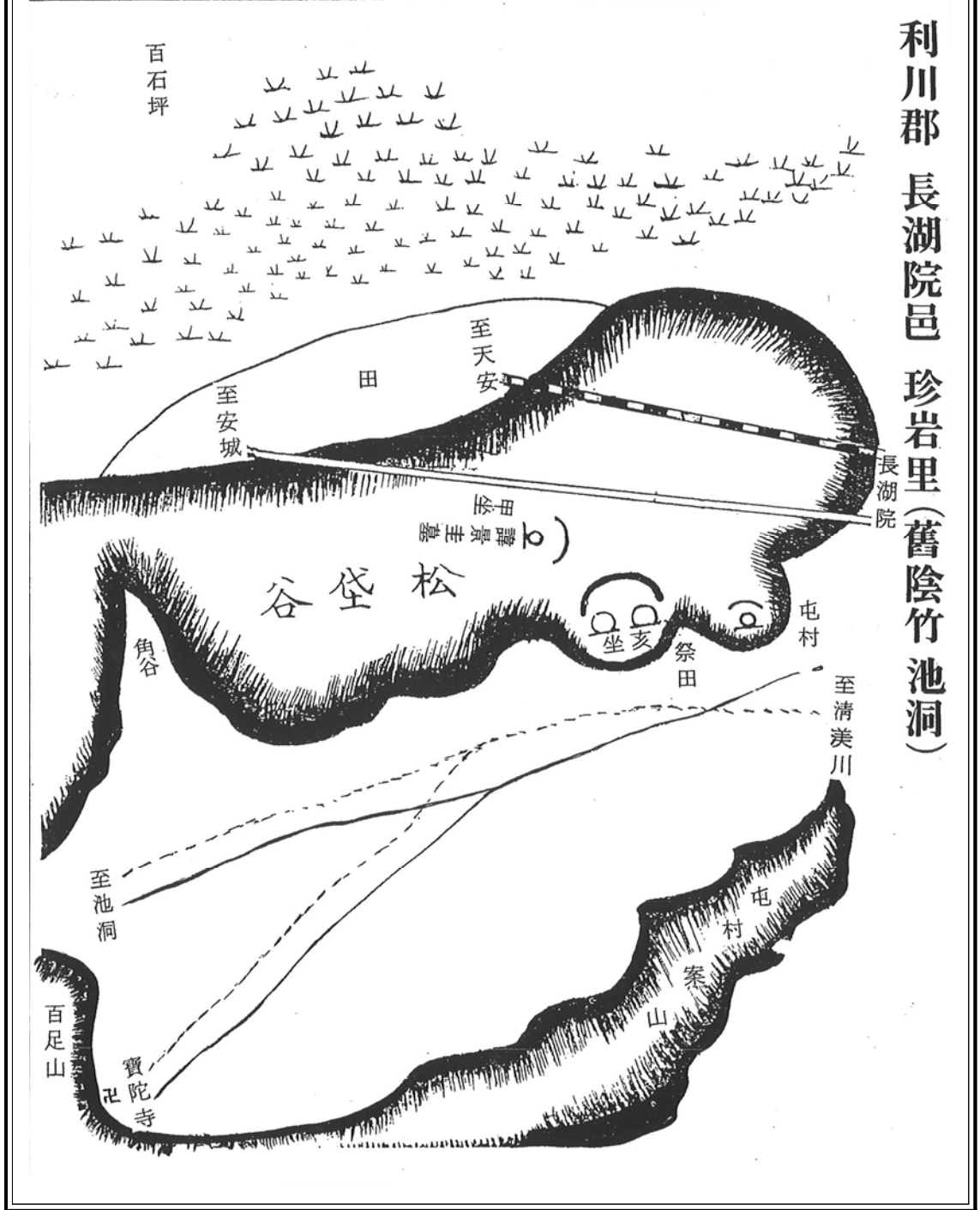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宜寧郡 華井面 德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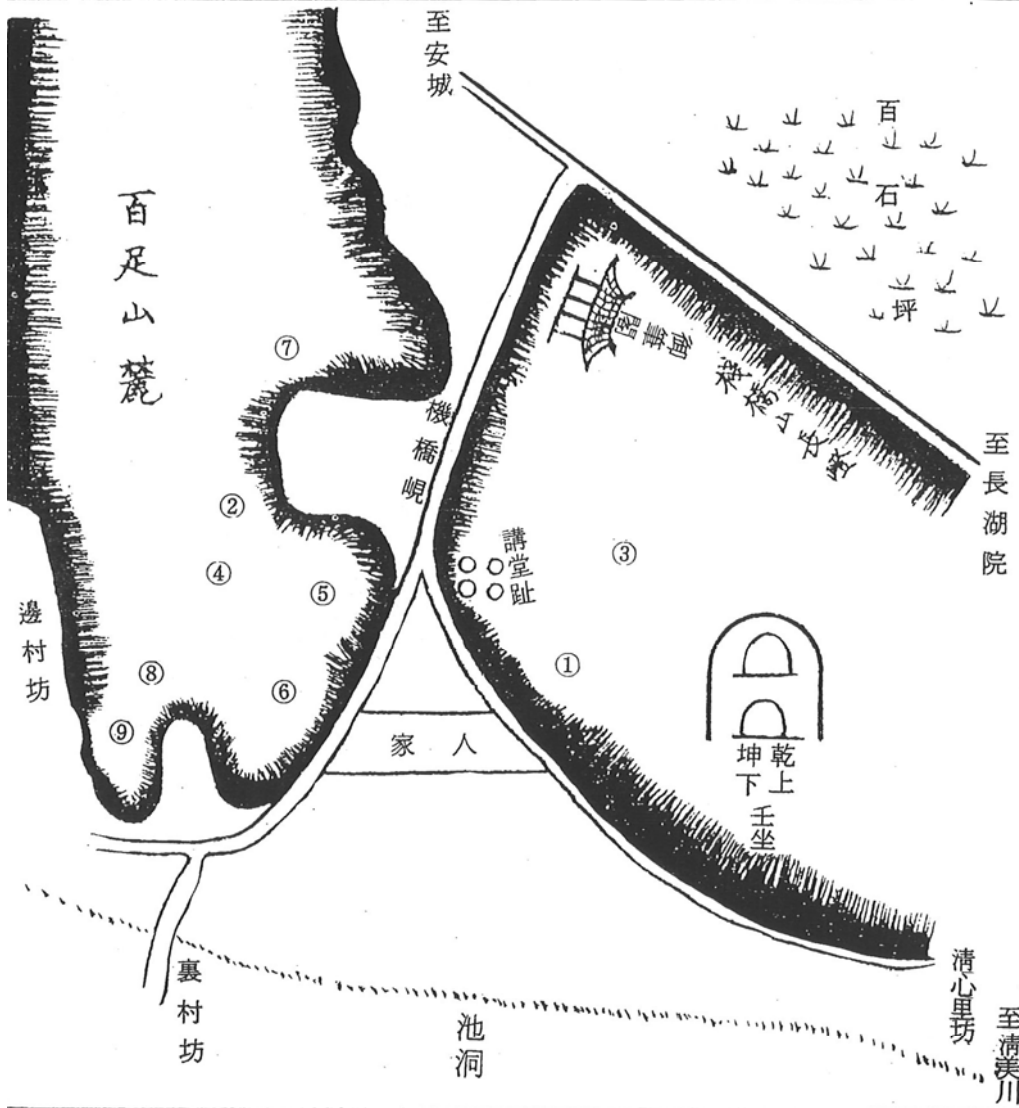
陽城縣監諱墓圖

利川郡 長湖院邑 珍岩里(舊陰竹池洞)



同知中樞府事諱東鎮墓附近圖

利川郡 長湖院邑 珍岩里 池洞



墓表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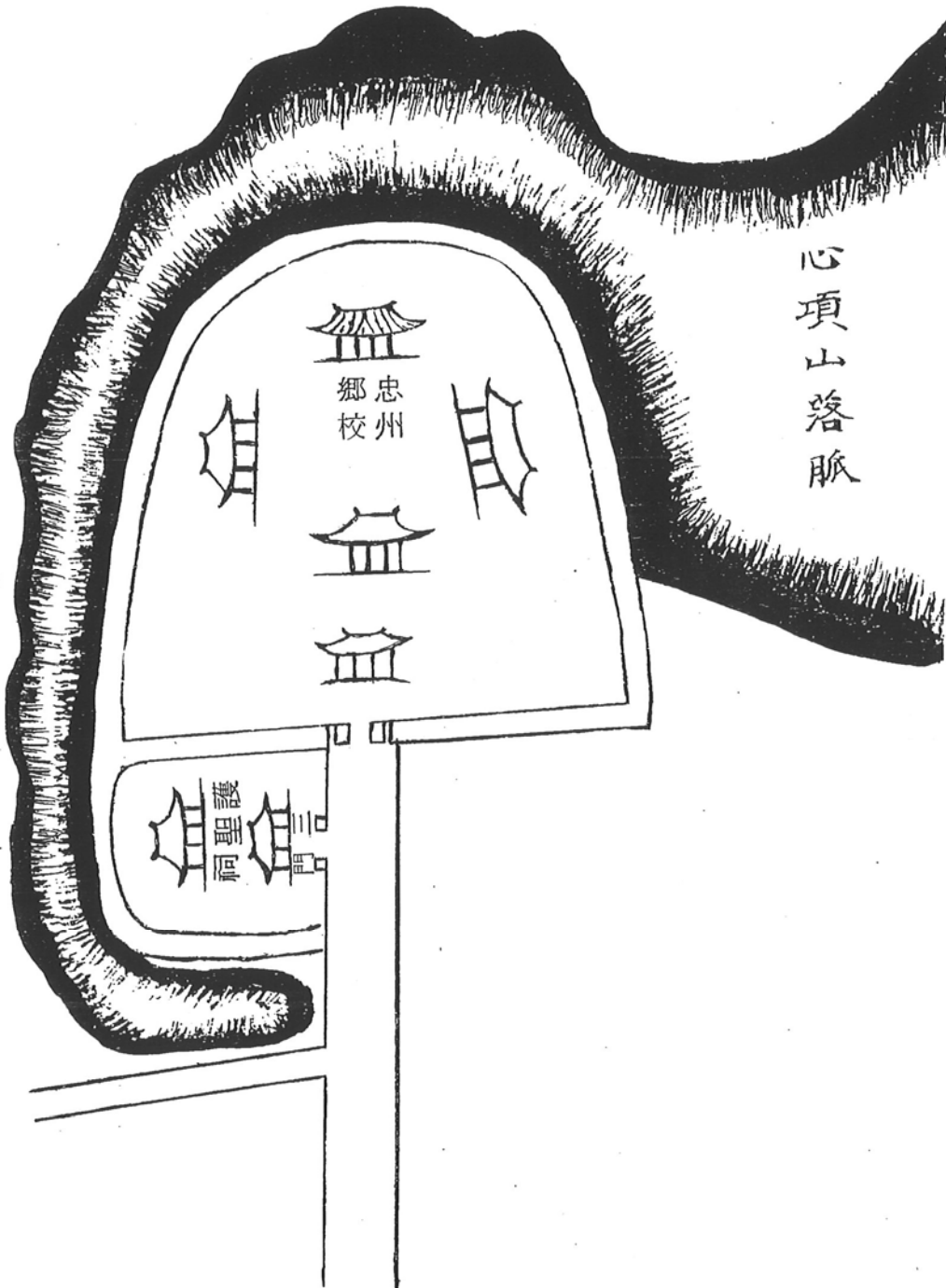
- ① 諱南徵
- ② 諱南徵配濟州高氏
- ③ 諱思玳
- ④ 諱思玳配密陽孫氏
- ⑤ 諱載翼
同配慶州李氏合兆
- ⑥ 諱鎮教
- ⑦ 諱鎮教配密陽朴氏
- ⑧ 諱斑準
同配全義李氏合兆
- ⑨ 諱敬準
同配河濱李氏合兆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護聖祠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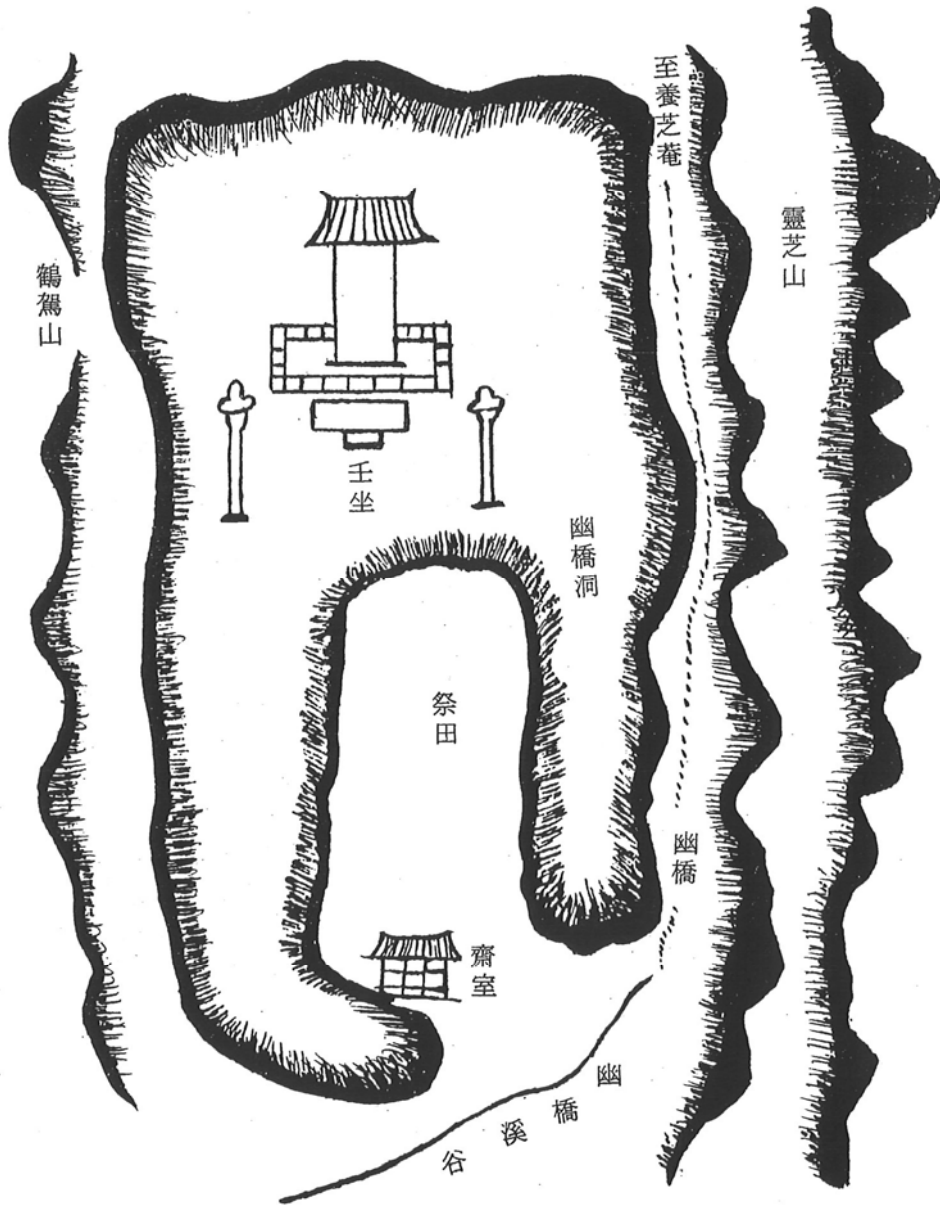
忠州市校峴洞

心項山落脈



處士公環之壇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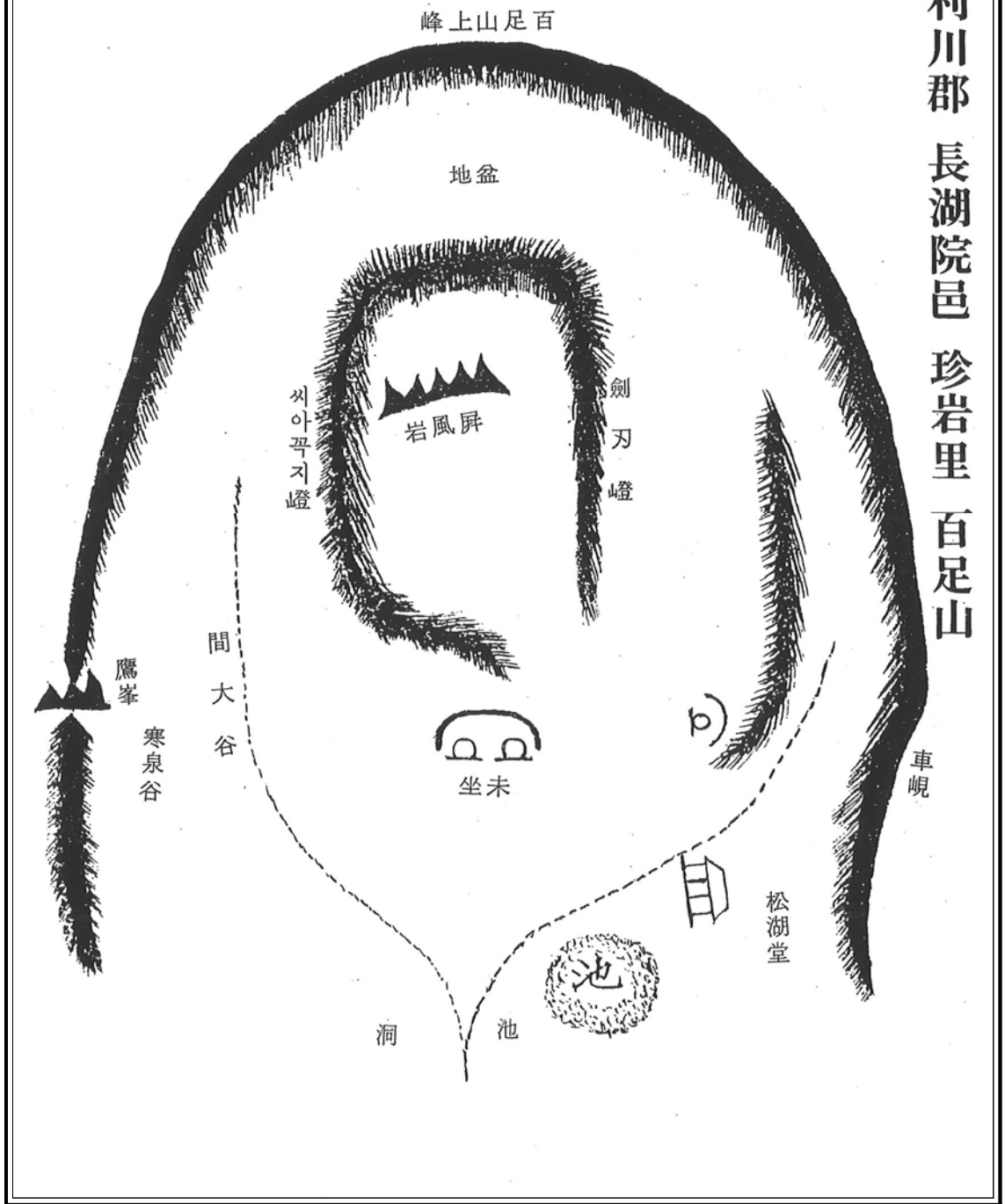
榮州郡平恩面江東里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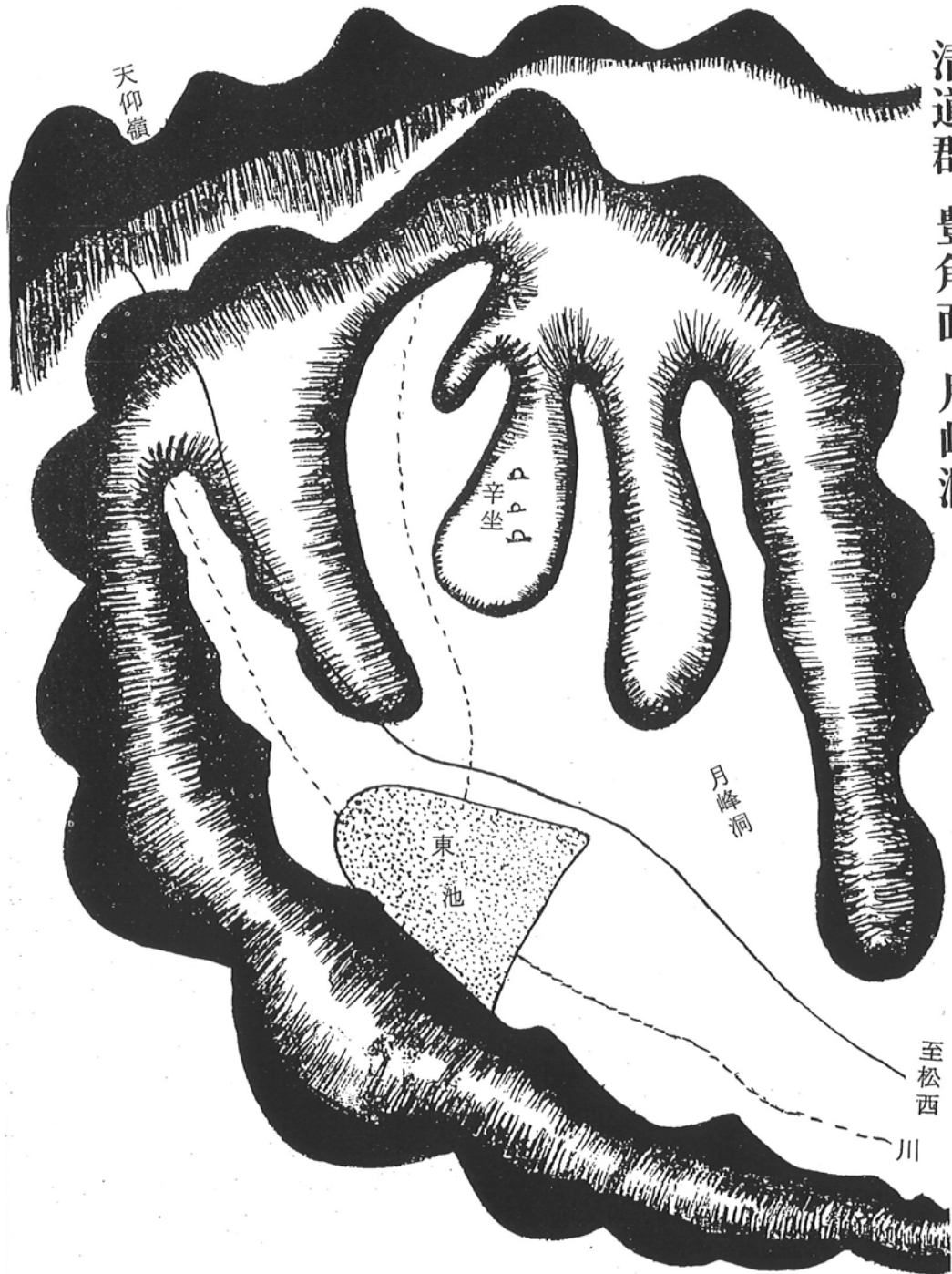
圖墓義崇諱公山號

利川郡 長湖院邑 珍岩里 百足山



號雲圃諱汝信墓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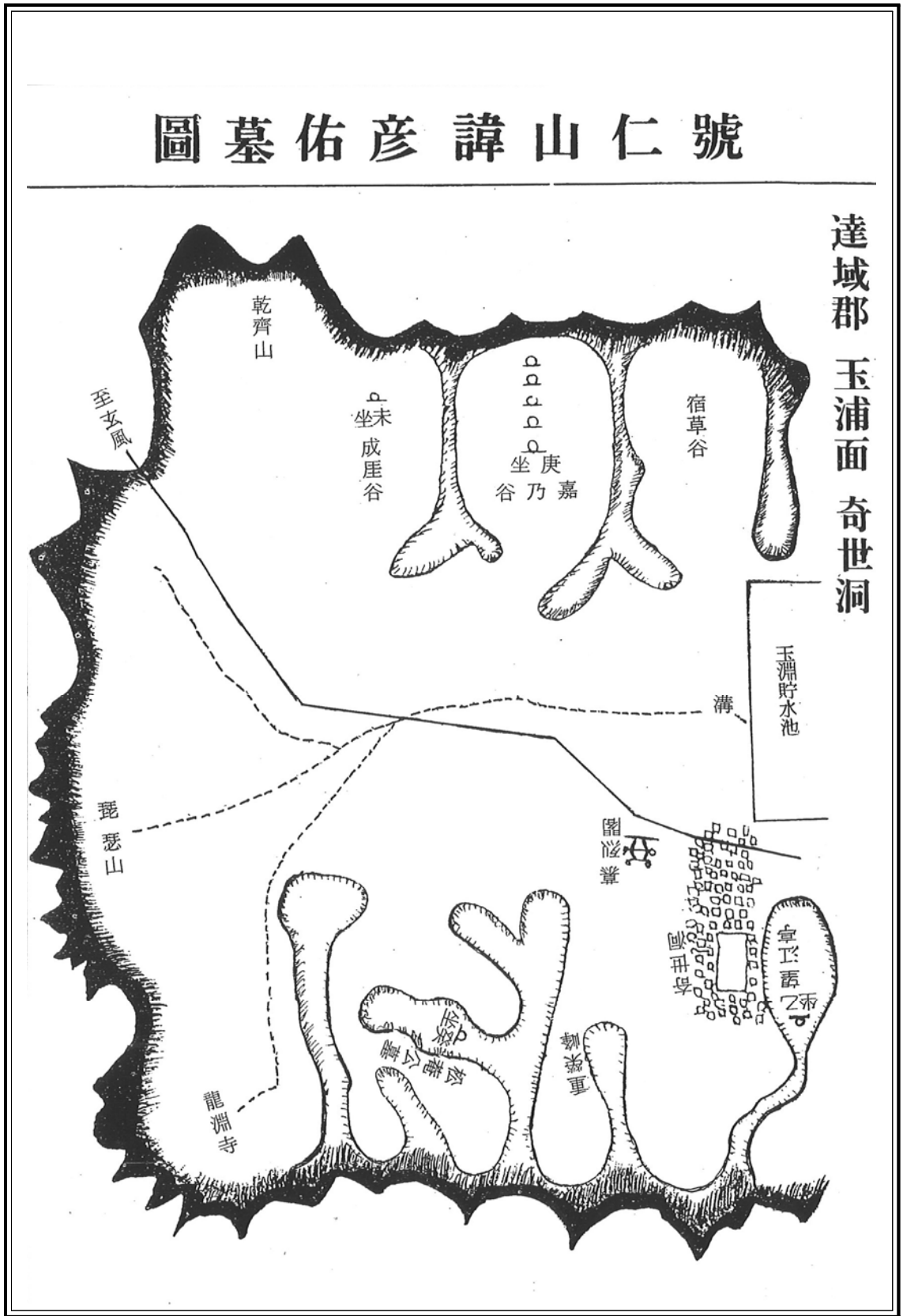
清道郡 豐角面 月峰洞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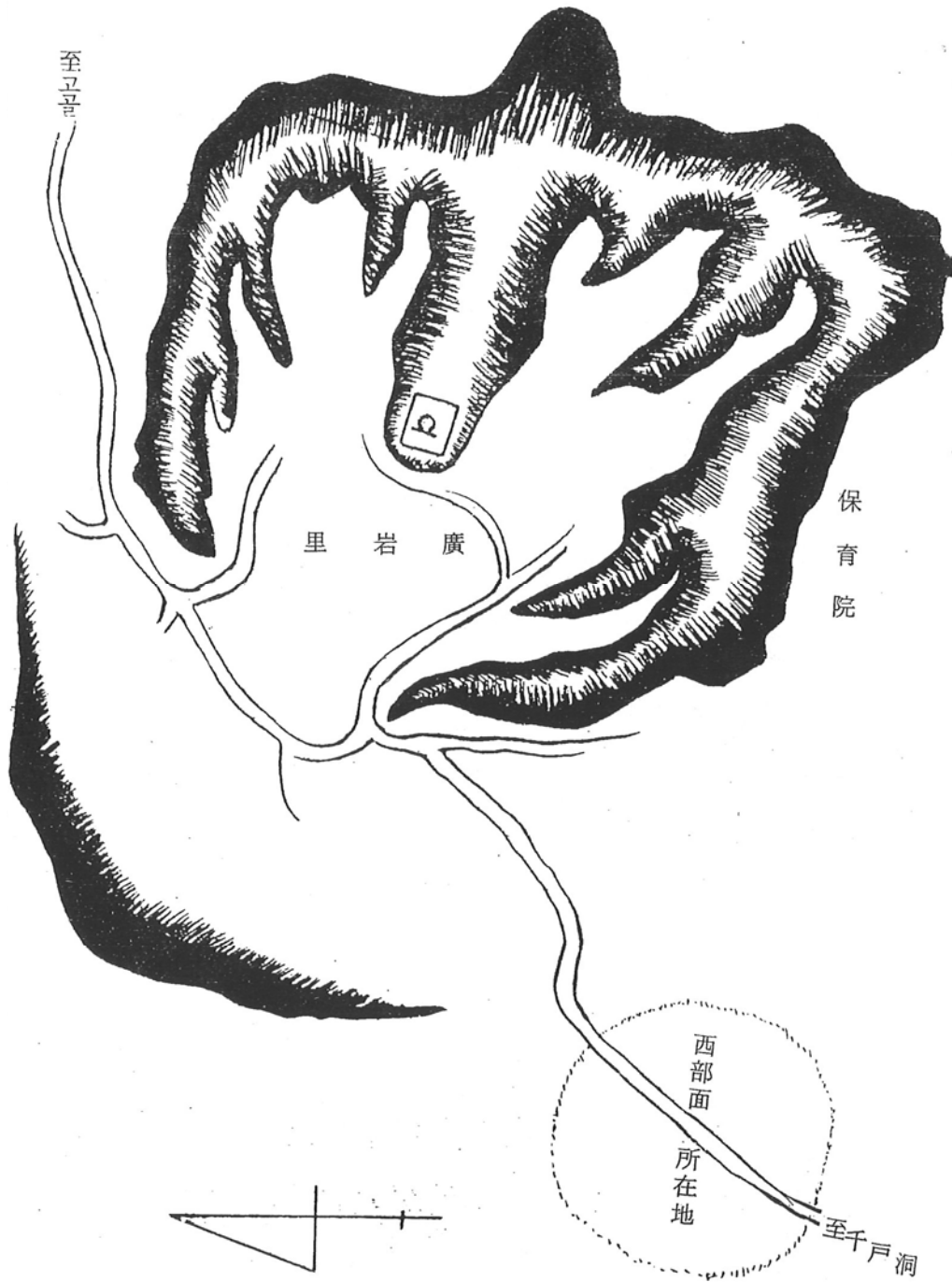
號仁山諱彦佑墓圖

達域郡 玉浦面 奇世洞



通政大夫諱天龍墓圖

廣州郡 西部面 廣岩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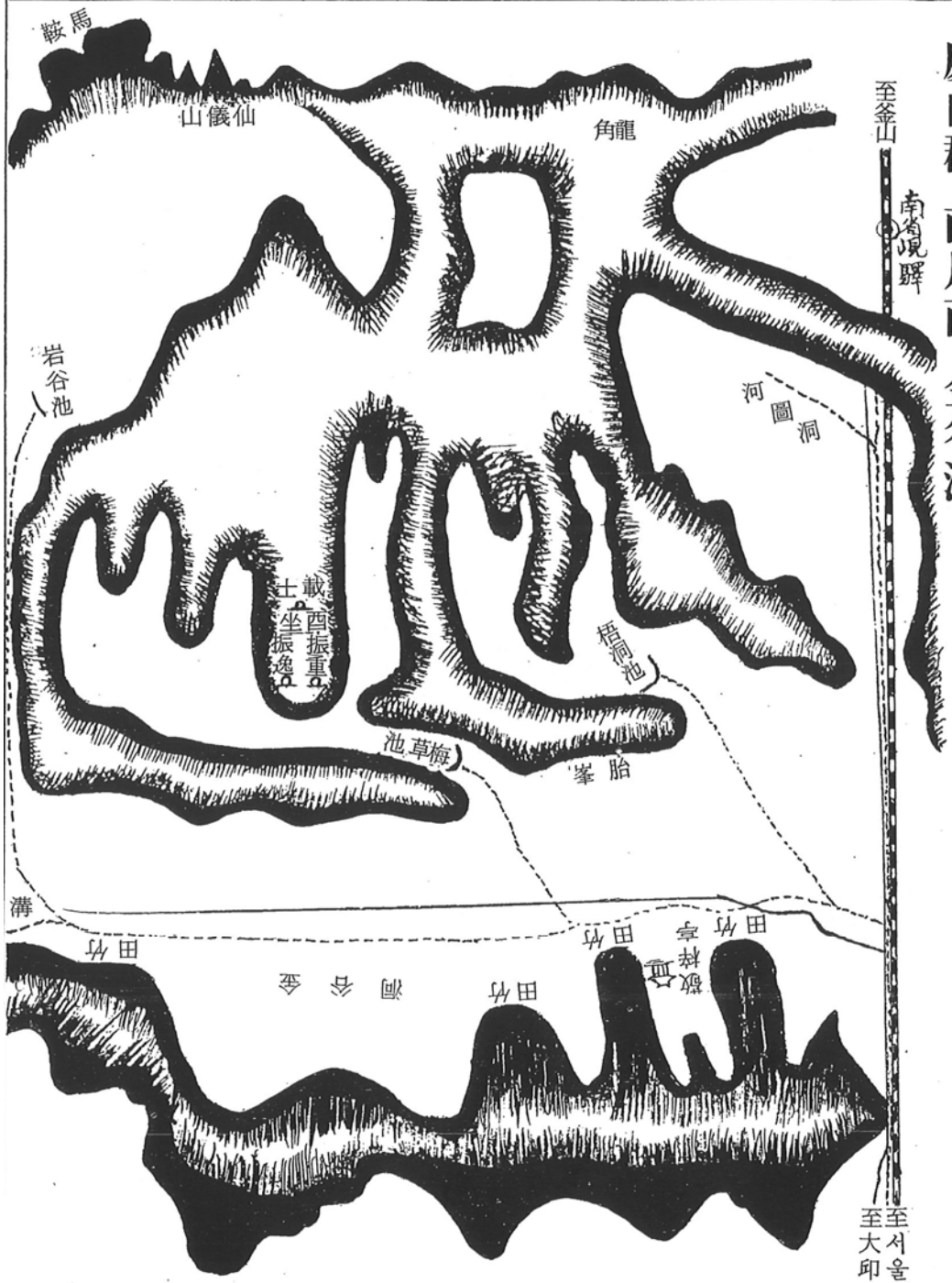


忠州洪州石氏遺文彙錄

號秀巖諱載士墓圖

慶山郡 南川面 金谷洞

至釜山
南省驛



至大邱

忠州洪州石氏始祖 上將軍 藥城君 諱鄰 追慕遺跡

公諱鄰號芳齊封號藥城君 蓋封號則自公下世 甲子再周 麗末鮮初 以諸孫功勳爲追贈矣 其上祖 宋朝紹興年間 自中原之廣陵 移居于高麗 以上系譜不明 然而可知西晉石崇之後裔 抑南北朝時 後趙之石王朝之傍系後孫 或其前代 則孔子弟子中一人矣 當時中原 邪正益淆 朝家愈亂 民不安業 多爲流民 散於列國 是時率家東渡也 公生而容貌端正 氣像溫雅 長而武藝絕倫 志氣強盛 毅宗庚寅之亂 擢以郎將 樹勳 明宗丙申年 以平西京趙位寵亂功 陞上將軍 爲西北兵馬使 當時上將軍則二軍六衛之首將 而燿於軍閥豪族與王室之軋轢 嗚呼痛矣 俄而貴其志節 上下其功焉 公之後二世諱靖三世諱堉爲密直提學 四世諱興國爲門下侍中 五世諱道爲判決事兼雙城摠管雙城令 六世諱良善爲永興伯靖孝公崔閑奇之女婿 卽朝鮮李太祖父桓祖大王之同婿也 太祖生而纔五月 蚤喪母夫人懿惠王后 乳養於諱良善妻崔氏 太祖登極 以乳養恩 封崔氏爲慶昌翁主 諱良善追封洪陽府院君也 太祖癸酉 以七世諱天乙 召致大殿 特賜宸奎 各色徭役 一併免給 以爲安集奠居之地 違命官吏則罷之 今也其寫本藏於昌寧景義司 七世諱天乙 亦封洪城君 八

世諱汝明號花園也 擢第于麗末恭讓王甲寅 至門下注書 夫朝代易姓 世事亦變 以不事二君之節 不能奉身而退 精於學問 誘掖後進 太宗丙申 特拜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 然而能守罔僕之節 入于忠州守義山回文洞 草根木皮 安分令終焉 後贈崇祿大夫左贊成 後裔築壇設齋其地 行時祭於每歲十月初三日也 諱汝明之兄八世諱壽明 官至漢城判尹 而昭悼之變後 從太祖往咸興 其後孫暫分貫於洪州 未幾復合譜焉 自始祖至八世諱壽明 墳墓多在咸鏡道永興 其後裔設位於昌寧木浦齋景義司 每歲二月十七日 享之 又奉安高麗忠臣之位 京畿道坡州之高麗統一大殿 奉安始祖諱鄰與諱汝明先祖之位也 鼻祖公歿今歷八百五十年 世事滄桑 回頭渺茫 寓慕叵涯矣 其間數次 編纂大同譜 殘孫不敏 而公之遺蹟 未聞于世 久矣 茲敢編纂己亥譜 能酌史書 掇拾見聞所及 以圖垂不朽 近來吾門青氈舊物 八世諱汝明王旨 合謀諸宗 寄贈於忠州博物館 祖先之赫然功業 顯於世 祖先陰德 格于旻蒼 雲仍吉康 永傳萬世 勿墜家聲 遂辦綿力也 具象影本與遺文 載於己亥譜 庸寓景仰之忱矣

大韓民國建國二己亥仲夏

忠州洪州石氏後孫 大宗孫二十七世均成 謹撰

충주흥주석씨 시조 상장군 예성군 휘 린의 유적을 추모하며

공(公)은 휘가 린(鄰)이고 호는 방재(芳齊)이며 봉호(封號)는 예성군(藥城君)이다. 봉호는 공 사후(死後) 百二十년의 지난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후손들의 공훈으로 추증되었을 것이다. 상조는 송(宋)나라 소흥(紹興) 연간에 증원(中原)의 광릉(廣陵)으로부터 고려로 옮겨와 살았다. 그 이상의 계보(系譜)는 명확치 않으니 서진(西晉)의 석송가나 남북조 시대 석왕조 후손의 방계일 가능성과 그 전대로 공자 제자七十二현(賢) 중 한 후손을 추측할 따름이다. 당시 증원이 사(邪)와 정(正)이 더욱 뒤섞이고 조정이 더욱 혼란하여 백성들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유민(流民)이 되어 열국(列國)으로 흩어졌으니, 이때에 가족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공(公)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기상이 온아하였으며, 자라서는 무예가 출중하고 지기(志氣)가 강하고 왕성하였다. 의종(毅宗) 정인년(一一七〇) 난리에 낭장(郎將)으로 발탁되어 공을 세우고, 또 명종(明宗) 병신년(一一七六) 서경(西京)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상장군의 이르러서 부병마사가 되었다. 당시 상장군은 이군(二軍)과 육위(六衛)의 수장인데, 구별 호족과 왕실간의 갈등의 희생되었으니, 아, 애통(哀痛)한 일이다. 얼마 뒤 지조와 절개를 귀하게 여겨 그 공

을 재평가하였다.

공(公)의 후손二世 휘 정(靖)과三世 휘 달(達)은 밀직제학, 四세 휘 흥국(興國)은 문하시중, 五세 휘 도(道)는 판결사 겸 쌍성총관 쌍성령이 되었다. 六세 휘 양선(良善)이 영흥백(永興伯) 정효공(靖孝公) 최한기(崔閑奇)의 사위가 되었으니, 조선이 태조의 아버지인 환조대왕(桓祖大王)과 동서(同壻)가 된다. 태조가 태어난 지 겨우 다섯 달 만에 모부인(母夫人) 의혜왕후(懿惠王后)를 잃고 휘 양선(良善)의 아내 최씨의 젖을 먹고 자랐다. 태조가 등극하여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씨를 경창옹주(慶昌翁主)에 봉하고 휘 양선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追封)하였다.

태조 계유년(一一三九)에는 七세 휘 천을(天乙)을 대전(大殿)으로 불러서 특별히 어필(御筆)을 내렸으니, 각종 요역(徭役)을 모두 면제하여 안주(安住)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였고, 명을 어기는 관리는 파직(罷職)하게 하였다. 지금도 그 사본(寫本)이 창녕(昌寧) 경의사(景義司)에 보관되어 있다. 七세 천을(天乙) 또한 홍성군(洪城君)에 봉해 졌다.

八세 휘 여명(汝明)은 호가 화원(花園)이다. 고려 말 공양왕(恭讓王) 갑인년(一一三七)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하주서(門下注書)가 되었다. 왕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또한 변하자 두 임무를 겸임하지 않았다는 절의로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학문에 정진하며 후

진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다. 태종 병신년(一四一六)에 특명으로 가선대부 검교 한성윤 집현전 제학에 제수 되었으나, 망부의 절의(節義)를 지켜 충주 수의산(守義山) (회문동) (回文洞)으로 들어가 초근목피로 분수를 지키며 살다가 생을 마쳤다. 뒤에 승록대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후손들이 그 곳에 제단(祭壇)을 쌓고 재사(齋舍)를 세워 매년十月三日에 시제(時祭)를 올린다.

八세 휘 여명(汝明)의 형인 휘 수명(壽明)은 한성부 판윤에 이르렀는데 왕자의 난 뒤에 태조를 따라 함흥(咸興)으로 가서 그 후손이 잠시 홍주(洪州)로 분관(分貫)하였다가 얼마지 않아 다시 함보(含譜)하였다. 시조로부터 八세 휘 수명(壽明)까지의 묘소가 대부분 함경도 영흥(永興) 지방에 있기에 그 후손들이 창녕(昌寧) 목포재(木浦齋) 정의사(景義司)에 위패를 모시고 매년二月十七일에 제향을 올린다. 또 고려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경기도 파주의 고려통일대전(高麗統一大殿)에 시조 휘 린(鄰)과 휘 여명(汝明) 선조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다.

시조 공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八百五十年이 지나 세상일 변화도 많았고 돌아보지 못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 그 사이 몇 차례 대동보를 편찬하면서 후손들이 총명하지 못하여 공의 유적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이에 감히 기해보(己亥譜)를 편찬하면서 사서(史書)를 참작하고 견문(見聞)이 미치는 대로 모아서 길어 전하려 한다.

은래에 우리 문종에서 으뜸가는 선대의 유물인 八世 여명(汝明)의 왕지(王旨)를 여러 종친들과 의논하여 충주박물관에 기증하고 우리 선조(先祖)의 험험한 공업(功業)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선조의 음덕이 하늘에 닿아서 후손들 평안하고 만세에 길(吉)이 전하여 집안의 명성(名聲)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부족한 힘을 보태어 영정을 구상(具象)하여 유문(遺文)과 함께 기해보(己亥譜)에 실어 경모하고 우리르느 전(前)성(性)을 표한다.

대한민국 건국 두 번째 기해년(二〇一九) 음력 五月

충주홍주석씨 후손 대종손 二十七世 균성(均成) 삼가 짓다.

서 문(序文)

족보(族譜)란 가문(家門)의 혈통(血統)과 역사(歷史)의 기록(記錄)입니다. 뿌리와 기록(記錄)이 없는 공동체(共同體)와 역사(歷史)는 없습니다. 우리 문중(門中)과 나의 정체성(正體性)의 근간(根幹)이 됩니다. 고려(高麗) 상장군(上將軍)隣(린)(字)자(자) 시조(始祖)로 부터 八百五十年(年間)의 충주흥주석씨(忠州洪州石氏) 문중(門中)의 역사(歷史)와 혈통(血統)을 선조(先祖)분들의 수고로 수차례(數次例) 편찬(編纂) 보정(補整)하여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一九八三年 제해보(癸亥譜)를 마지막으로 三十五年(이 지나서 새로운 대동보(大同譜)의 편찬(編纂)이 필요(必要)한 때에 마침 제가 대종회장(大宗會長)에 취임(就任)하였고 문중(門中)의 여러 어른들께서도 이런 취지(趣旨)와 필요성(必要性)을 언(言)及(하였)습니다. 또 이미 일부(一部) 진행(進行)이 되었다는 보고(報告)가 있었기에 저의 취임사(就任辭)에서 족보편찬사업(族譜編纂事業)을 주요사업과제(主要事業課題)의 하나로 말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확인(確認)한 바 그 실체(實體)가 없었으므로 사무총장(事務總長)에게 부탁하여 그 현황(現況)을 다시 조사(調査)하게 하고 계획(計劃)을 수립(樹立)하여 二〇一六年 하반기(下半年) 이사회(理事會)

결의(決議)와 二〇一七년초(年初)에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를 구성(構成)하여 대동보(大同譜) 편찬사업(編纂事業)을 시작(始作)하였습니다。 종훈정신(宗訓精神)에 충실(充實)하고 디지털 정보시대(情報時代)에 맞추어 인터넷 전자족보(電子族譜)와 서책족보(書冊族譜)를 병행(竝行)하고 내용(內容)이나 형태(形態)를 보다 현대적(現代的) 개념(概念)으로 디자인하고 정확(正確)하게 하여 되도록 많이 참여(參與)하도록 목표(目標)를 정(定)하고 그 방법(方法)과 프로세스를 설정(設定)하여 석씨 문중(石氏 門中)의 전통(傳統)과 명예(名譽)에 걸맞은 훌륭한 대동보(大同譜)가 탄생(誕生)함으로써 조상(祖上)들에게는 영광(榮光)이, 후손(後孫)들에게는 자존심(自尊心)이 되기를 소망(所望)했습니다。 효율적(效率的)이고 공정(公正)하고 투명(透明)하게 진행(進行)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各種) 행사(行事)나 교육(教育)을 통(通)하여 편찬내용(編纂內容)을 알리고 독려(督勵)도 하였습니다。

우리 문중(門中)은 역사적(歷史的)으로 전통명가(傳統名家)이고 많은 훌륭한 족적(足跡)을 남긴 선조(先祖)들이 많고 이를 증거(證據)하는 유물(遺物)과 유적(遺跡)·사료(史料)들이 많이 전(傳)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새 족보(族譜)에 보완 정리(補完整理)하고 한 세대(世代) 간(間)에 변동(變動)된 자손록(子孫錄)도 보다

세세(細細)하게 정리(整理)를 하였습니다. 승조봉선(崇祖奉先)과 족의돈복(族誼敦睦)의 종훈정신(宗訓精神)을 함양(涵養)하고 실천(實踐)하는 토대(土臺)가 될 것이고 문중(門中)의 화합(和合)과 미래(未來) 발전(發展)을 위(爲)한 문중(門中)의 보첩(譜牒)이 될 것입니다. 전자족보(電子族譜)와 병행(竝行) 제작(製作)되어 주기적(週期的)으로 변동(變動) 사항(事項)을 등재(登載)할 수가 있고 대종회(大宗會) 앱(App)과 연결(連結)하여 소통(疏通)의 매체(媒體)가 될 것입니다. 석대봉(石大鳳)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을 위시한 편찬위(編纂委)의 석권균(石權均) 사무총장(事務總長)과 석창식(石昌植) 간사(幹事)와 각(各) 문중편찬위원(門中編纂委員) 및 수단위원(收單委員)의 수고에 깊은 감사(感謝)를 드리고 특별(特別)히 적극적(積極的)으로 참여(參與)한 문중(門中) 집안과 헌성금(獻誠金)을 내어 주신 종친(宗親)님들에게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중(門中)의 족보편찬(族譜編纂)을 위(爲)하여 각별(各別)한 정성(精誠)으로 협조(協助)하여 주신 대보사(大寶社) 박도규(朴道圭) 사장(社長)님과 박종우(朴鍾佑) 상무(常務)님, 김형선(金炯善) 서울본부장님 외 많은 직원(職員)분들께도 감사(感謝)한 마음을 전(傳)합니다. 충주홍주석씨(忠州洪州石氏) 대종회(大宗會) 일가(一家) 종원(宗員) 모두의 건강(健康)과 가정(家庭)에 평안(平安)과 만복(萬福)이 깃들기를 축원(祝願)합니다.

二〇一九年 하절(夏節)에

충주홍주석씨대종회(忠州洪州石氏大宗會) 二十六、二十七代 회장(會長)

二十九世 병사공파(兵使公派) 준호(俊溟) 本名 國澄) 근서(謹書)

발간사(發刊辭)

존경하는 국내 총주홍주석씨(忠州洪州石氏) 종친(宗親)님들과 해외(海外)에 계시는 동포(同胞)와 북한(北韓)에 계시는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중(門中)에서는 지난 一九八三년도 제해보(癸亥譜) 발행 이후 三十六年 만에 석씨문중 최초의 족보인 기축보(己丑譜) 이후 열 번째 대동보인 二〇一九년도 기해보(己亥譜)를 성공적으로 간행(刊行)하게 된 것을 경축(慶祝)하면서

먼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과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그리고 우리 선조(先祖)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근본(根本)을 알지 못함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문중의 족보(族譜)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석씨들과 지난 三十여년 간에 태어난 후손(後孫)들을 위해 족보편찬(族譜編纂)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대동보(大同譜)에는 서책족보(書冊族譜)와 정보화시대(情報化時代)에 걸맞는 전자족보(電子族譜)를 병행(竝行)하였고, 젊은 후손들이 보기 쉽게 한글과 한문(漢文)을 병기(竝記)하고 딸「女息」과 사위, 외손(外孫)까지 수록(收錄)하였습니다. 디자인과 컬러도 좀 더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二〇一七年 一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수보대의 (修譜大義)라는 시작의 용기(勇氣)를 주신 대동종친회(大同宗親會)의 준호(俊溟) 회장과 동현(東炫) 변호사의 기초자금 헌성(獻誠)으로 개소식(開所式)을 하였고 무료봉사(無料奉仕)를 자청(自請)하여 총무(재무)를 맡은 권균(權均) 대종회사무총장과 창식(昌植) 간사(幹事)의 솔선(수범)率先垂範)으로 수단응사(受單有司)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파종 문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 一만二천 명의 수단목표(收單目標)와 서책 二천四백 권 이익잉여금 八천여만 원을 계획하였고 비용(費用)을 최대한 절약(節約)하여 잉여금(剩餘金)이 생기면 대종회 숙원사업(宿願事業)인 사무실확보(事務所確保)에 충당(充當)하기로 계획한 것이 거의 달성(達成)된 듯합니다. 기간도 三년도 채 걸리지 않아 다 문종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중 몇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잘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여 잘 해결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권균(權均) 사무총장의 집념(執念)으로 오래도록 끔꾸어 오던 방재(芳齋) 휘(諱) 린(鄰) 시조(始祖)님의 초상화(肖像畫)를 완성(完成)한 것과 윗대의 역사적(歷史的)인 기록(記錄)과 선대족보(先代族譜)들을 종합탐구(綜合探究)하여 상계(上

系)를 보완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기록된 역사와 계해보 이후의 후손들의 승조보선 노력들을 추가하여 유문록(遺文錄)을 보완(補充)하였음은 크나큰 업적(業績)이라 할 것이며 후대(後代)에 길이 빛날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천(變遷)과 물질문명(物質文明)의 고조(高調)로 말미암아 민족고유의 역사의식(歷史意識)과 혈통관념(血統觀念)에서 벗어나 차츰 망본 개인주의(忘本個人主義)로 치달거나 애타(慨嘆)되는 이즈음 선인들의 뜻을 받들어 경조사상(敬祖思想)을 일깨우고 미풍양속(美風良俗) 앙양(昂揚)에 일조(一助)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들 집행부와 더불어 저는 생의 마지막 봉사(奉仕)라는 일념(一念)으로 오늘까지 2년 이상 몰두(沒頭)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문종의 파종회장(派宗會長)들과 전국 지역문종(地域門中) 및 족보편찬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헌성(獻誠)과 특히 준호(俊昊) 회장의 셀 수 없는 회식(會食)제공과 원로종친들의 격려(激勵)는 한층 이내심(忍耐心)을 갖게 해주셨고 지치지 않는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선조(先祖)님들의 위적수훈(偉績垂勳)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볼 수 있도록 명문 기해보(名門己亥譜)가 발간(發刊)되었으니 모든 종친들께서는 승조보선

(崇祖奉先)하고 족의돈목(族宜敦睦)하여 무궁(無窮)한 종족사(宗族史)에 빛이 되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책이 완성되면 앱(Applicatio)으로 만들어 SNS로 편리하게 공유하는 시스템도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본보(本譜)간행(刊行)을 맡아 진력(盡力)을 다해주신 대구 대보사(大邱大譜社)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深甚)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에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게 협력하고 지원해 주신 五만여 종친(宗親)들께 족보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발간사(發刊辭)로 갈음하겠습니다.

二〇一九년 기해(己亥)

시조 二十六世손 · 통덕랑공파 · 二十二 ~ 二十三代 前대종회장

족보편찬위원장(族譜編纂委員長) 대봉(大鳳) 근서(謹書)

발 문(跋文)

자연(自然)으로 흐르는 물이 수원(水源)없이 흐를 수가 없고 사람도 족보(族譜)를 수보(修譜)하지 않으면 사람이 출생(出生)해도 뿌리가 없는 가지와 같을 것이다. 세대(世代)가 분명(分明)치 않으면 항렬(行列)도 몰라 일가(一家)라 해도 남과 다를 바 없으니 이 어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石氏의 수보사(修譜史)를 살펴보면 최초(最初) 기축보(己丑譜)·一七六九年) 二권, 갑자보(甲子譜)·一八六四年) 六권, 경인보(庚寅譜)·一八九〇年) 九권, 日帝下에 병진보(丙辰譜)·一九一六年) 九권, 기묘대동보(己卯大同譜)·一九三九年) 十四권을 발간(發刊)하고 一九四五年 광복(光復) 以後 정유총보(丁酉總譜)·一九六七年), 제축대동보(癸丑大同譜)·一九七三年), 제해세보(癸亥世譜)·一九八三年) 五권 등 여러 차례(次例) 발간(發刊)하였으나 나라가 南北으로 분단(分斷)되어 한반도(韓半島) 전체(全體) 石氏들의 동참(同參)이 불가능(不可能)하여 안타깝기 한이 없다. 기해대동보(己亥大同譜)를 만들자는 논의(論議)가 수년전(數年前)부터 各門中에서 시작되어 본격적(本格的)인 파종별(派宗別) 열의(熱意)로 이어진 바 제해대동보(癸亥大同譜)以後 三十三年 만인 二〇一六년에 이사회(理事會)와 총회(總會)의 의결(議決)을 거

처 二〇一七年 一月 편찬위(編纂委)를 구성(構成)하고 초단(初單)을 수단(收單)하
 기 시작(始作)하여 미국(美國)을 위시(爲始)한 세계 각국(世界各國)에 거주(居住)하
 는 우리 石氏의 초단(初單)으로 약 一만명이 새로이 등재(登載)되어 누계입보(累
 計入譜)가 약 五만三천명이 되었고 특히 디지털 정보시대(情報時代)에 부응(副應)
 한 인터넷 전자족보(電子族譜)와 병행(竝行)함으로써 족보(族譜)에 접근(接近)과
 등록수정(登錄修正)이 용이(容易)하게 되었다. 三년도 안 되는 기간(期間)에 서
 책족보(書冊族譜)까지 완성(完成)하여 二〇一九年 기해충주화원선조시향제(己亥忠
 州花園先祖時享祭)에 고유제(告由祭)로 올려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 石氏 문중(門
 中)의 경사(慶事)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에서 도입
 (導入)되었지만 우리의 씨족문화(氏族文化)와 인간윤리문화분야(人間倫理文化分野)
 의 최첨단(最尖端)으로 발전(發展)된 것이라 서양각국(西洋各國)의 지식층(知識層)
 에서도 우리의 족보문화(族譜文化)를 극찬(極讚)하면서 본을 받아야겠다고 연구
 (研究)中이라고 하니 차제(此際)에 우리 충주홍주석씨 기해보(忠州洪州石氏 己亥
 譜)가 세계만방(世界萬方)으로 뻗어 나가리라 생각되어 무척 고무적(鼓舞的)이고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 수 없다. 알고 있기로는 새로 보완(補完)된 시조유문
 (始祖遺文)과 영정(影幀)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추가(追加)된 화보(畫報)가 보다 현

대적 개념(現代的 概念)으로 편집제작(編輯 製作)하였다고 하니 기대보(己亥譜)에 대한 기대(期待)가 더욱 크다.

끝으로 이번 기대대동보(己亥大同譜) 서책주문량(書冊注文量)도 목표(目標)인二千四百卷이 넘었다고 하니 무척 감사(感謝)하다. 우리 石氏들은 족보(族譜)를 집집마다 소장(所藏)하여 자자손손(子子孫孫) 잘 보존(保存)하여 가문(家門)의 전통(傳統)과 선조(先祖)의 영광(榮光)된 유적(遺跡)들을 잘 기억(記憶)하고 傳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各門中의 대표(代表)들께서 일일이 발문(跋文)을 쓸 만한 인품(人品)과 수고와 열정(熱情)이 있었지만 족보(族譜)란 혈통(血統)의 계보(系譜)와 역사(歷史)임에 후손(後孫)인 산자의 기술(記述)을 최대한(最大限) 줄이고자 하여 여기에 各 派宗(派宗)과 門中을 대표(代表)하여 연명(連名)하여 발문(跋文)에 갈음하고자 한다.

二〇一九年 己亥年 夏節

忠州洪州石氏

고문(顧問) 鍾潤(鍾潤) 문수(文洙)

판관(判尹) 한섭(翰燮)

참판(叅判) 균필(均弼) 영철(永哲) 정갑(正甲)

참의(叅議) 희경(熙璟) 지균(智均) 창순(昌淳)

모정(茅亭) 희선(熙善)

병사(兵使) 병언(炳彦) 천호(泉浩) 동현(東炫)

통덕(通德) 희소(熙昭)

대표(代表) 하여 二十七代 후손 지균(智均) 근발(謹跋)

目次

寫真編 一

墓圖編 七一

忠州洪州石氏始祖 上將軍 藥城君 諱鄰 追慕遺跡 九一

序文 九七

發刊辭 一〇一

跋文 一〇五

凡例(譜規) 一一一

舊譜序・跋文編 一一六

判尹公編 一六五

叅判公編 一八六

叅議公編 二四一

茅亭公編 六〇七

兵使公編 六二八

通徳郎公編 七八九

文武烈士錄編	八二九
司馬榜錄編	八四二
學行錄編	八四四
孝行錄編	八四八
孝婦錄編	八五三
烈行錄編	八五五
先祖闡揚錄	八五七
參考資料		
回文洞 祭壇 享祀 笏記	八五八
己亥譜編纂經過現況	八七五
忠州洪州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名單	八八一
大宗會歷代會長 名單	八八六
忠州洪州石氏 世系分派圖	九〇〇
忠州洪州石氏 子孫錄(始祖~二十一世)		
年代對照表		
索引簿		

凡 例(譜規)

◎ 개요(概要)

一、본(本) 족보(族譜)는 충주홍주석씨대종회(忠州洪州石氏大宗會)가 二〇一七년 두(頭)에 시작(始作)하여 二〇一九년 三월에 발간(發刊)하는 충주홍주석씨대동보(忠州洪州石氏大同譜) 기해보(己亥譜)를 말한다.

一、이 족보는 충주홍주석씨 인터넷 전자족보(電子族譜)와 병행(竝行) 제작(製作)되어 뿌리와 내용(內容)이 같고 다만 표현형식(表現形式)과 수정(修正) 보완(補完) 등 관리방법(管理方法)이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別途)로 규정(規定)하고 범례(凡例)로 둔다.

一、이 족보는 종훈(宗訓) 정신(精神)에 충실(充實)하며 종친(宗親)의 뿌리와 역사(歷史)를 공유(共有)하여 혈족간(血族間)의 대동단결(大同團結)을 도모(圖謀)하고 현대적(現代的)인 감각과 개념(概念)으로 디자인 한다.

一、이 족보는 一九八三년 편찬(編纂)된 기존(既存) 대동보(大同譜)인 계해보(癸亥譜)와 二〇一七년 一월 一일부터 수보(收譜)한 수단(收單) 신청서(申請書)에 의거(依據)하여 전자족보(電子族譜) 전문(專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보(入譜)

를 하고 수정(修訂)을 하였다.

◎ 기술(記述)

一、가급적 한문(漢文)과 한글을 병행(竝行)하여 이해(理解)와 해독(解讀)을 쉽게 하였다.

一、편집구성(編輯構成)은 六단(段) 九자(字)로 구성(構成)한다.

◎ 등록 기준(登錄基準)

一、세대(世代)의 표기(表記)는 시조(始祖)「린(鄰)字」로부터 一世로 표기(表記)한다.

一、자녀(子女)의 차서(次序)는 남자(男子) 연장자순(年長者順)으로, 여자(女子) 연장자순으로 표기(標記)한다.

一、출가(出嫁)한 여자(女子) 종친(宗親)경우 배우자(配偶者)와 자녀까지만 등재(登載)한다.

一、생년월일(生年月日)은 구보(舊譜)와 마찬가지로 하되, 현대(現代)의 양력(陽曆) 생년월일(生年月日)인 경우는 양력(陽曆) 표기와 간지(干支)는 신청(申請)한 경우에만 기록(記錄)한다.

一、여(女)의 배우자(配偶者)만 표기할 경우는 서(胥)로 하고, 여(女)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女의 이름을 표기한다。

一、배우자(配偶者)의 표기는 자(子)의 경우는 배(配), 여(女)는 부(夫)로 표기한다。

一、외손(外孫)의 경우(宗주홍주석씨가 아닌 경우), 모두 자(子)로 표기하든, 자(子) 또는 여(女)로 세분(細分)하든 무관(無關)하다。

一、배우자는 가급적 본관(本貫), 이름과 부명(父名)을 등재(登載)하며, 중요한 관직(官職)을 역임(歷任)한 경우나 현직(現職)인 경우는 표기한다。

一、딸의 남편(사위)도 다음 열(列)에 본관(本貫)과 성명(姓名)·父名 포함(을) 기재(記載)하며, 외손(外孫)의 경우는 성명(姓名)만을 기재한다。

一、양자(養子)의 경우, 입양(入養) 출처(出系)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一、선대(先代) 미상(未詳)의 종원(宗員)은 별보(別譜)로 관리(管理)하며, 연구결과(研究結果)를 통해 선계(先系)가 밝혀지면 선계(先系)의 계대(系代)를 잇는다。

一、묘소(墓所)는 소재지(所在地)의 지번(地番)과 묘(墓)의 좌향(坐向)까지 기재하며, 졸일(卒日)도 기재한다。

과거(過去)의 지명(地名)과 지번(地番)은 그대로 유지(維持)하여 지명변화(地

名變化)를 파악(把握)할 수 있도록 한다.

一、족보의 관직(官職) 등재기준(登載基準)은 족보의 기재(記載) 범위(範圍)가 방대(尙大)해졌으므로 본인(本人)이 희망(希望)하는 내용(內容)의 경력(經歷)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학력(學歷) 경력(經歷) 등이 구체적(具體的)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등재가 제한(制限)된다.

◎ 구성(構成)

一、본 족보의 구성(構成)은 화보(晝報) 서문(序文) 발간사(發刊辭) 발문(跋文)·後記(文獻錄) 자손록(子孫錄) 각종 편찬자료(編纂資料) 편찬위원단(編纂委名單) 참고문헌(參考文獻)의 순서로 되어 있고, 전(前) 발간(發刊) 족보(族譜) 계해보(癸亥譜)를 기준(基準)하여 보정(補正) 보완(補完) 신규추가(新規追加)하여 총(總) 一~五권(卷)으로 한다. 구보(舊譜) 계해보(癸亥譜)의 수록(首卷) 문헌록(文獻錄)인 서문(序文)~참고문헌(參考文獻)까지를 一권에 수록(收錄)한다.

一、서문(序文)과 발간사(發刊辭) 작성은 편찬위원장(編纂委員長) 혹은 추천(推薦)된 원로(元老)가 하고 발문(跋文)·後記(後記)는 편찬을 총괄(總括)한 자(者)가 하고

여러 건(件)을 수록할 수 있고 가끔씩 현대 문어체(文語體)로 한다.

一、화보(畫報)는 시조부터 세수(世數) 순(順)으로 하고 화보(畫報)의 주요 내용은 영정(影幀)、묘역(墓域)、유적(遺跡)、문적류(文籍類)로 하고 수록대상(收錄對象)은 편찬위가 선정(選定)한 편찬(編纂)하고 一쪽 二매 수록(收錄) 百쪽 二百매 이내로 하고 등재비(登載費)는 매당 十五만 원을 기준 한다. 전(全)쪽 또는 앞쪽의 수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헌성금(獻誠金)을 지불(支拂)하며 화보 수록의 지원량(支援量)이 많으면 문종별(文宗別) 임보인원(入譜人員)과 헌성(獻誠) 기여도(寄與度)에 의해 배정(配定)한다.

一、문헌록(文獻錄)은 세수(世數) 순(順) 연대가 먼저인 문헌부터 하고 원문(原文)만 있는 경우는 번역문(翻譯文)을 게재(揭載)하고 주석(註釋)을 달아 이해가 더욱 용이(容易)하도록 한다. 다른 보(譜)의 문헌록을 발취(拔萃) 사용(使用)할 수 있다.

一、열사록(烈士錄)은 공신창의(功臣倡義) 원사안(院祠案) 과거급제(科擧及第) 열행(烈行) 학행(學行) 효행(孝行) 효부(孝婦) 선조천양(先祖闡揚) 세수(世數) 순으로 하고 고인(故人)이 된 경우에 한(限)한다.

【舊譜序·跋文編】

계해보 유문회록발간사(癸亥譜遺文彙錄發刊辭)

존경(尊敬)하는 전국(全國) 석민(石氏) 종친(宗親) 여러분 이번 문헌록(文獻錄)을 편찬(編纂)하여 간행(刊行)하게 된 것을 침중(僉宗) 여러분과 같이 경하(慶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당초(當初) 계해보(癸亥譜) 편찬(編纂)을 위한 회의석상(會議席上)에서는 문헌록(文獻錄) 간행건(刊行件)은 결정(決定)하지 않았고 예정보채(豫定譜冊代金)에서도 예산(豫算)이 빠져 있었는데 막대(莫大)한 금액(金額)을 들여서 편찬(編纂)하게 된 전후사정(前後事情)을 먼저 기록(記錄)하겠습니다. 금반(今般) 계해보(癸亥譜) 편찬(編纂)을 시작(始作)한 이래(以來) 정식(正式) 회의(會議)를 대전(大田)에서 금년(今年) 正月二十八日 三月二十七日 七月六日 도합(都合) 삼차(三次) 개최(開催)한 바 있습니다. 기회의(其會議) 석상(席上)에서 각(各) 지방 대표(地方代表) 여러분과 본부임원(本部任員) 전원(全員)이 합의(合意)하여 만난(萬難)을 무릅쓰고 아석씨(我石氏) 광영(光榮)을 위(爲)하여 기꺼이 유문회록(遺文彙錄) 편찬(編纂)을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결정(決定)하였습니다. 기축보(己丑譜) 이후(以後) 여러 차례 수보(修譜)한 바 있으나 제반사정(諸般事情)이 유(有)하였으

리라 믿습니다마는 전국적(全國的)으로 총괄(總括)하여 집대성(集大成)한 문헌록
 (文獻錄)을 간행(刊行)한 바가 없고 선조추모(先祖追慕)를 위(爲)한 자랑스러운 묘
 소(墓所)、재실(齋室)、어필각(御筆閣)、비각(碑閣)、묘비(墓碑) 등(等) 귀중(貴重)
 한 역사적(歷史的)인 전경(全景)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나타낸 바가 없었습니다
 다。 이러한 점(點)을 통탄(痛嘆)하여 이번 문헌록(文獻錄)에 적극(積極) 노력(努
 力)하여 빠짐없이 수록(收錄)하였습니다。 금반(今般) 계해보(癸亥譜)가 처음 예정
 (豫定)에는 전반(前般) 계축대동보(癸丑大同譜)가 이권일질(二卷一帙)로 되어 있는
 데 누보자수룩상(漏譜者收錄上) 삼권일질(三卷一帙)로 완성(完成)할 것을 예정(豫
 定)하고 보책대금(譜冊代金)도 그대로 예산(豫算)을 정(定)했는데 의외(意外)로 누
 보자(漏譜者)가 많았고 과거전보(過去前譜)에 수록(收錄)되지 않았던 부록(附錄)
 一二八쪽[頁]을 수록(收錄)하고 보니 만부득이(萬不得已) 수권(首卷) 一권(卷)이
 증가(增加)되었고 문헌록(文獻錄)은 전(全)혀 고려(考慮)되지도 않았고 약속(約束)
 하지도 않았던 차(次)에 전국침종(全國僉宗) 여러분의 간절(懇切)한 요망(要望)에
 의(依)하여 편찬(編纂)케 되니 미리 미리 예정(豫定)한 바도 없고 예산(豫算)에도 계상
 (計上)된 바가 없는 중대사업(重大事業)을 추진(推進)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
 (結果的)으로 예정(豫定) 외의 책자(冊字)가 二권(卷) 증가(增加)되어 당초(當初)

삼권일질(三卷一帙) 계획(計劃)이 오권일질(五卷一帙)로 수정(修正) 완성(完成)된 것입니다. 다음 이번 문헌(文獻)이 보책(譜冊) 사권(四卷)과 동시(同時) 완성(完成)되지 못하고 근삼개월(近三個月) 후(後)에 완성(完成)되어 전체보책(全體譜冊) 분질(分帙)상 막대(莫大)한 지장(支障)을 초래(招來)케 됨을 심(甚)히 미안(未安)하게 생각하는 동시(同時) 유감지사(遺憾之事)로 사료(史料)하면서 기경로(其經路)를 말씀드립니다. 문헌록(文獻錄)을 편찬(編纂)하는 데는 수록(收錄)할 문헌(文獻)과 사진(寫眞) 등(等)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자료(資料)가 수집(收集)되어야만 하는데 회의석상(會議席上)에서나 서면상(書面上) 수차(數次) 연락(連絡)하여도 기일내(期日內)로 모이지 않고 독촉(督促)을 거듭하면서 직접(直接) 본부임원(本部主任員)이 출장(出張)을 가서 사진(寫眞)도 촬영(撮影)하고 기문(記文)、비문(碑文) 등(等)을 모아온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역사적(歷史的)인 사업(事業)을 일시적(一時的)인 사정(事情)으로 후회(後悔)있는 우(愚)를 범(犯)하지 않으려고 노력(努力)하면서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였으나 마침내 같이 출간(出刊)하지 못하고 별도로(別途)로 완성(完成)하여 분질(分帙)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寫眞)도 칼라로 한다고 약속(約束)은 하였으나 흑백(黑白)으로 하는 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리라 믿었던 것이 놀랍게도 이백수십만(二百數十萬)원 차액(差額)이 있어 재고

(再考)까지 하였으나 거칠월육일(去七月六日) 회의석상(會議席上)에서 예산(豫算) 증가(增加)를 무릅쓰고 칼라로 하자는 결정(決定)에 따라 그대로 시행(施行)하였습니다. 이상(以上)과 같은 사정(事情)과 고충(苦衷)을 깊이 양찰(諒察)하시기 바라오며 보책(譜冊) 분질상(分帙上) 당초(當初) 약속(約束)한 예정예산(豫定豫算)이 증도(中途)에 상회조정(上廻調整)된 것도 모두 기(其) 원인결과(原因結果)가 상기(上記)와 같습니다. 금반(今般) 문헌록(文獻錄)은 재론(再論)할 필요(必要)조차 없습니다마는 오석씨(吾石氏)를 위(爲)한 빛나는 금석지문(金石之文)이 기원문(其原文)과 해석(解釋)한 글이 병기(併記)되어 있는 점(點) 자라나는 후손(後孫)들의 승조지정신(崇祖之精神)을 교육상(教育上) 크나큰 살아있는 교본(教本)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疑心)치 않습니다. 이번 문헌(文獻) 간행전(刊行前)에는 특수인사(特殊人士)를 제외(除外)하고는 자기자신(自己自身)이 거주(居住)하는 지방(地方)의 조상(祖上) 재실(齋室) 상량문(上樑文)이나 기문(記文) 또는 비문(碑文)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공통(共通)된 사실(事實)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世上)이 진일보(進一步)하여 교통(交通)이 발달(發達)되어 누구나 연(年)一·二회(回) 관광(觀光)이나 휴가(休暇)를 위(爲)한 여행(旅行)을 하는 것이 통례(通例)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本人)이 아는 바에는 전국(全國) 유명성씨(有名姓

氏)는 각자(各自)의 상조(上祖)나 현조(顯祖)의 묘소(墓所)나 재실(齋室) 등 기념(記念)할 수 있는 장소(場所)를 자주 찾는 것을 가장 즐겁고 자랑스러운 행사(行事)로 알고 있고 실제(實際)로 세향(歲享)에는 수천명(數千名)이 참배(參拜)하는 것을 목견(目見)하였습니다. 존경(尊敬)하는 전국(全國) 석씨(石氏) 참종(參宗) 여러분 원(願)하던 좋은 일은 배우고 나쁜 일은 버려야 될 줄 압니다. 애국사상(愛國思想)이 강(強)한 국가(國家)일수록 그 나라는 강(強)해지고 승조지심(崇祖之心)이 강(強)한 씨족(氏族)이 조상(祖上)의 기념사업(記念事業)도 많이 하고 기자손중(其子孫中)에 저명인사(著名人士)나 부호(富豪)가 많은 것은 역력(歷歷)히 현실(現實)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時間)이 허용(許容)하는대로 문헌(文獻)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우리 조상(祖上)의 빛나는 업적(業績)을 먼저 알고 다같이 승조사업(崇祖事業)에 적극참여(積極參與)할 것을 바랍니다. 장호원지동(長湖院池洞)에 있는 어필각(御筆閣)에 봉안(奉安)하고 있는 어필(御筆)은 이조초(李朝初)의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어필(御筆)인데 문공부(文公部)에 구백구십호(九伯九十號)로 등록(登錄)되어 있는 귀중(貴重)한 역사적(歷史的)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료(資料)이기에 조심스럽게 사본(寫本)하여 분질(分帙)과 동시(同時)에 배분(配分)하였습니다. 오니 자랑스럽게 모시기 바랍니다. 본(本) 문헌(文獻) 편찬(編纂)을 위(爲)하

여 많은 원문(原文) 중 순한문(純漢文)과 나문(難文)을 알기 쉽게 해석(解釋)하신 동곡(東谷)정대부(東谷字楨大夫)의 공로(功勞)는 길이 빛날 것이며 끝까지 문헌(文獻)을 전국(全國) 각지(各地)에서 모아서 편찬(編纂)하는 데 중심(中心) 역할(役割)을 맡은 총무(總務) 시백씨(是伯氏)와 측면(側面)에서 조력(助力)을 아끼지 않았던 명봉씨(明奉氏)의 노고(勞苦)에 다같이 감사(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전국(全國) 각지(各地)의 임원(任員) 여러분의 협조(協助)와 노력(努力)에도 다시 한번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입니다. 이미 세보(世譜) 서문(序文)에서 찬성공(贊成公·汝明) 재실건립모금(齋室建立募金)을 상당액(相當額) 마련하여 전국적(全國的)으로 적극(積極)추진(推進)할 것을 다짐한 바 있으나 정신일도(精神一到) 하사불성(何事不成)이라는 말이 있으니 전국(全國) 오석문중(吾石門中) 각자(各自)가 힘을 모으면 단시일(短時日)에 소원성취(所願成就)되리라고 기약(期約)하면서 앞서 헌성(獻誠)하실 것을 재삼(再三) 간절(懇切)히 요망(要望)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本) 유문(遺文) 휘록(遺文彙錄) 편찬(編纂)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으로 다하였지만 미흡(未洽)한 점(點)이 허다(許多)하였으리라 짐작됨을 금(禁)할 길이 업습니다. 전국(全國) 석씨(石氏) 여러분의 가정(家庭)마다 행복(幸福)과 건강(健康)이 함께 깃들고 무한(無限)한 발전(發展)을 기원(祈願)하면서 유문(遺文)휘록(遺文彙錄) 간

행사(刊行辭)를 갈음합니다。

一九八三年 癸亥(癸亥) 八月 三十日

석씨유문회록편찬위원장(石氏遺文彙錄編纂委員長)

후손(後孫) 경수(敬洙) 근기(謹記)

己丑譜 序文

嗚呼水萬派而一源木千條而一本 見其派而溯其源卽其本而推其條則凡在一譜者孰非吾之同胞而其可畦町彼此不爲仁同乎世多知其有己而不知其有人者未必不由於一本之義未知的也寧不爲識者之惻然哉噫惟我石氏自麗訖今千載之間代系之相承枝派蕃衍者其數不億此豈非由於我 祖先積貝德之厚深仁之報歟萬曆龍蛇之後譜乘無傳諸宗之散處京鄉者孰不懼然而惕念哉吾宗三嘉文表甫慨然有志於合譜使相視楚越之人復知 祖先餘慶之所由夙宵一念未嘗小彌而財力彈簿不克成就者久矣於歲丁亥克踵前武誕告八路用集派系付之剗劂余并且慶使從孫振調相其役且曰惟孝厚于宗姓是惟譜族之本意自我親推之祖自我祖推之始 祖譜厥繼序俾我孝悌

之心油而生實由斯譜凡我宗姓暨厥宗族既有其初克念哉圖惟厥終崇禎紀元後三己丑清和節不肖後孫天極謹識

흐르느 냇물이 만 갈래라도 그 수원의 맥은 하나요 나무의 가지가 천 개라해도 등치는 하나이다。 무릇 보첩을 함께 하는데 있어 누가 나의 한겨레가 아니라하며 다같이 앞다투어 돕지 아니하라。 세상에 자기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근본의 의를 바르게 알지 못함이니 어찌 식자의 칙언 할 바가 아니라。 오직 우리 석씨가문이 선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년사이에 대계의 계승과 지파의 번영함이 그 수효가 적지 아니하니 곧 조상님의 후한덕이요, 어진 마음의 깊음이 아니겠는가。 만력 임진나리 뒤에 보첩의 전함이 없으니 정향간 산재한 종족들이 누구인들 간절한 생각이 없으랴。 우리 일가에 삼가(三嘉) 그들의 문표씨가 개연히 함보에 뜻이 있어 초월(楚越)같이 보는 이로 하여금 선조의 여경(餘慶)을 밝아온 바 그것을 알림이 조선일념으로 해이함이 없이 바랐으나 재력이 탄박하여 오랫동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해년에 이르러 다시 이어 팔도각지에 두루 알리고 각파의 파계를 모아 인쇄에 부치니 내가 크게 즐겁기에 축하하고 종손 진조로 하여금 그 역사를 돕기로 하고 또한 한말에 이르면 오직 후대로 종족의 사이를 두터이함의 족보의 근본의지이니 나의 아버님으로부터 할아버님까지 미루니 할아버님으로부터 시

조까지 미루어 서자로 계보하여 나로 하여금 효제의 마음이 유연히 나게 함은 오직 이 보첩으로 말미암음이니 무릇 우리 종족들은 이미 그 시작이 있으니 오직 그 마침을 힘쓸지이다.

승정기원후 세 번째 기축년 늦은 봄 후손 천극 삼가 이 글을 씀

跋文

惟我忠州之譜牒無傳源派莫徵宗門諸族咸以是病之久矣余慨然有志於合族修譜廣集京外之私記考其世數之次第派分類別泝源知流歷數載而成之豈非吾門之幸耶三派諸宗並爲合譜以成卷某祖之所自出某派之所由來一開卷而瞭然若指掌而數十代宗系之派井井不紊可以與古之風俗通氏族志并傳世豈非宗門之大幸耶窮鄉僻邑散處之人或不無見漏之歎而耳目無所及不得同收而載之日後追補刊行之舉亦豈無其人哉工告訖姑識而跋之尾如此

崇禎紀元後三己丑清和節後孫文表謹跋

오직 우리 충주석씨의 보첩의 전함이 없어 그 전원(傳源)과 종족(宗族)의 내력을 증거할 수 없어 일가 여러분이 다같이 이 일들을 걱정하지 오래지라 내가 개연히 합족 수보하는데 뜻이 있어 경향 각파의 가정을 모아 그 세대 집례로 살피 파벌을 나누어 본원을 알리고 만류를 알라 오랜 세월을 거쳐 성취하였으니 어찌 우리 문중의 다행함이 아니겠는가. 삼파의 종족 여러분이 한가지로 합보하여서 두권의 책자로 이뤘음에 어느 조상의 내력과 어떤 파계의 내력을 한번 책을 펴내어보니 명료하기도 손바닥을 가르침과 같아 수십대 종계 파벌이 정정(井井)하여 힐난치 아니함으로 가히 옛적 풍속(風俗)이 씨족을 통하는 의지로 도우려 세상에 전하면 어찌 종문의 큰 행운이 아니겠는가. 궁향벽읍에 흠어져 사는 일가가 후 빠진 한(歎)이 없지 않을 것이나 이목(耳目)이 미친 바가 없어서 재록치 못하니 후일에 후가로 보책을 간행하는 이가 어찌 없겠는가. 인쇄역을 마친다 하기에 발문을 이와같이 함.

승정기원후 세 번째 기축년 모춘 후손 문표 삼가 발문을 씀

甲子譜 序文

生之謂性錫之謂姓性與姓與生俱生是爲生人之本也然性天生之姓人錫之西銘之言

同胞吾與易之言類族辨物不能無分也雖然一極而萬形萬人而一身是造化極精神處非容人爲於其間也自夫錫土爲姓於夏時而氏族之辨肇自周官歷代仍之志變爲譜我東尤尚地閥古家世族莫不有譜各祖其祖不忘其所自生尊祖重宗之義仁民親親之序並寓於其中豈可以末俗之文勝而混淆病之哉石氏貫忠州以麗朝上將軍諱鄰爲鼻祖歷幾世至資憲諱文守縣監文賢藥城君諱文成分爲三派代有聞人赤烏絰組而其後中替不振知其先者惜之二去己丑始修爲二卷今又繼刊各派式繁井葉比舊加倍其積累種德源遠流長可知也余病臥山亭日石氏三人踵門而請弁文一居夏山二居本州鄰比而素歎也辭不獲略書姓之所以得名之源委譜之所以繼刊之顛末俾書于卷空

闕逢困敦風雩節前叅判星山李源祚書

갑자보 서문

하늘의 평평함을 반야(反牙)라 하고 성품이라 이르니 석도보(石道保)를 반야(反牙)라 성시라 이름하니 성품과 성씨(姓氏)는 더 붙어나고 함께 사는 것이 생인(生人)의 근본(根本)이라. 그러나 성품은 하늘에 타고나며 성씨(姓氏)는 사람이 주는 것이니라. 서명(西銘)에 말하기를 동포는 내가 도우려 한다고 하고 주역에 말하기를 유족(類族)은 유족(類族)의

라하니 능히 분별(分別)이 없지는 아니하느니라. 비록 그러나 천지에 지극한 도수에 만형(萬形)이 생기고 만인이 원래 한 몸이니까 조물주의 정신을 다하는 것이요 사람의 사함이 그 사이에 용납되지 아니하느니라. 석토위 심함이 옛적 하우시조대로부터 되었고 씨족의 분별이 처음으로 주(周)나라로부터 되어서 역대(歷代)로 내려오며 시행하여 그 뜻이 변하여 족보가 됨이니라. 우리나라는 더욱이 지별(地閥)을 숭상하여 고가세족(古家世族)들의 보첩이 있지 아니하니 가없어 제각기 할아버님을 알아 그의 소자생(所自生)을 잊지 않음이 바로 할아버님을 높이니 일가를 소중히 여기는 의와 백성(百姓)을 어질게 하고 친한 이를 친하는 차례가 그 중에 있는 것이니 어찌 가히 말속(末俗)의 혼호(混淆)한 병이 되겠는가. 석씨관(石氏貫) 총주(忠州)는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 휘는 린(鄰)자를 비조(鼻祖)로 삼고 밑대로 지나자헌(資憲) 휘는 문수(文守), 현감(縣監) 휘 문현(文賢), 예성군 휘 문성(文成)이 세 분이 난 후 삼파(三派)가 되어 대대로 더러는 난 사람과 벼슬자리가 있었으나 그 후에 침체되어 떨치지 못하니 그 선대로 아는 이는 애석히 여기더라. 두 번 지난 기축년(己丑年)에 처음으로 두 권(二卷)의 책자 보첩(譜牒)을 감수 편집하였는데 이제 또한 이어 간행하니 각파(各派)의 정엽(井葉)이 감절이나 더하니 그 크나큰 덕을 심어 그 근원이 멀고 말이 가히 짐작하여 알지어다. 내가 병으로 산정(山亭)에 누웠더니 어느 날 석씨 삼인(石氏三人)이 찾아와서 서문(序文)을 칭하는 이

가 한분은 창녕(昌寧)에 사는 분이요, 두분은 본고을에 사는 만큼 이웃에서 본래 부터 친한 이라 사양해도 아니 되어 대략 써서 성의 이름을 얻은 바 건원과 보첩 (譜牒)은 말아 이어 간행할 전말을 이와 같이 함이니라。

갑자 모춘 전참판 성산 이원조 씀

跋 文

夫譜者普記其氏族也自子而父上以溯之自父而子下以沿之蔓延百代其初兄弟也兄弟其初一人之身則傳所謂山祖於崑水宗於海者古人之深戒而今日之昭鑑也是知周禮不衰而九族親蘇譜始成而五姓明苟有秉彝之性者曷敢有越厥志惟我石氏系出於忠原之後粵在麗末國初忠孝焉勲德焉焜耀于簡冊行義也文章也炳烺如日星此真史家正筆儒門格論雖曰季葉或替而謂之左海希僻者非的言也昔我密陽三嘉老成諸公晚生於兵燹蕩掃之餘躬設譜論鳩財鉸梓以壽百世其慕先敦族之誠力實出於吾宗氣數之所使字字而證其本支章章而成其金石吾石之文獻備徵長沙陶氏云人易而世疎理似然矣而程子曰管攝人心莫如修譜此豈非擬人以倫愈疎而愈親之大義也歟且昨

年癸亥修譜通章輪回左右響應不獨愚余之慶且抃也遠近諸宗孝而知重譜愛而欲厚族不謀詢同用續己丑舊本然顧念淺學膚見猥添重任不無具眼者貽笑而其紹先啓後之道累辭不獲茲敢略叙顛末謹附于後

崇禎紀元後四甲子仲夏下澣後孫鎮鼎謹跋

발문

대개 족보라는 것은 그 씨족을 두루 기록함을 이르는 바이다. 아들로부터 아버님으로 하여 위로 올라가고 아버님으로부터 아들로 해서 위와 백대로 만연하다라도 그 처음만은 형제(兄弟)간이요, 형제의 그 처음만은 한 분인즉 이른바 산은 곤음산으로 조종을 하고 물은 동해바다로 조종을 한 다함은 옛 사람의 깊은 경계의며 오늘날날의 명감이니라. 주(周)나라 예법이 쇠퇴하지 아니하면 구족(九族)이 다 친(親)하고 소(蘇)씨의 족보가 처음으로 이루어짐에 오성이 밝아지니 진실로 인륜의 성품이 있는 분이면 어찌 감히 그런 뜻을 넘길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석씨의 계통은 충주에서 근원이 시출함이다. 그러므로부터 한조초에 충효이며 후덕이 간책에 소소하고 행의(行義)이며 문장이 하나 불과 같이 명량하니 참으로 역사가의 정필이요, 유림의 구본이라. 비록 중세의 명치하였다도 동구의 드문 성씨라함은

적실한 말이 아니니라。 옛적 우리 밀양삼가(밀양삼가) 그을에 노성(老成)한 여러분 이 나리를 소탕한 나머지 보첩을 제창 인쇄하여 백세로 오래 전하였으니 그 선조(先祖)를 사모(思慕)하고 종족(宗族)을 돈독히 한 지성의 힘ियो, 우리 종족의 기수로 하심이니라。 글자마다 증지를 증명하였고 장장이 그 금석(金石)을 이루어 우리 석씨(石氏)의 문헌(文獻)을 같이 지켜하시니라。 장사(長沙) 도씨(陶氏)가 이리기를 사람이 바뀌면 대수가 소원한다 하니 이치는 그럴듯하나 정자(程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심을 관섭(管攝)하는 데는 족보가 제일이라 하니 이가 어찌 윤리로서 사람에게 적용하되 더욱 소원할수록 더욱 친절하다는 크나큰 의가 아니겠는가。 작년 제해년에 수보통장(修譜通章)이 윤회(輪回)를 하되 좌우가 다같이 향응(響應)하니 다만 정축함이 아니고 원근(遠近)에 사는 종족(宗族)이 효도로서 보첩 증한 것을 알고 이내로서 일가에 두터이 하여 의가 없이 이론이 동일하여 기추구보(己丑舊譜)로 속간하나 나의 천학(淺學)으로 증대(重大)한 책임에 이소(貽笑)하는 이가 없지 아니할지언정 선대(先代)를 잇고 후세로 계전하는 도리에 여러 번 사양하다가 감히 대략 기록하여 삼가 전말에 부침이니라。

승정기원후 四갑자 중하(仲夏) 하한(下澣)에 후손 진정 삼가 발문을 씀。

庚寅譜序文

書曰惟天地萬物父母惟人萬物之靈物也者飛潛動植林葱芸藪充塞兩間者皆是也人也者亦萬物之一而特以所性之稍慧知他物之所不能知行他物之所不能行也故能巍然抗兩儀之尊據三才之列他物莫敢望焉夫受氣賦形之初人與物固無間然而物也不靈不能自知其所自出之源如水之泡自起而自滅也如草樹之花葉春自芽而秋自脫也人也最靈無所不知故自其所由生之父若祖以上筭記詳悉以及乎昆季伯仲之宗支序次母黨妻黨姑姨姊妹之姻姬遠近一舉目瞭然而譜牒之名於是乎出譜成而後知其所當尊而尊之知其所當愛而愛之父母乎斯孝兄弟乎斯悌族乎斯睦戚乎斯婣而人之道備矣嗟呼人之所以異於他物他物之所以不敢幾及人者其源顧不在是歟茲非所以爲萬物之靈歟余考其石氏家乘蓋東方石氏之先出於中華而其始祖藥城君有功於麗朝逮建于本朝有洪陽府院君慶昌翁主之崇封其後繼有集賢殿提學而太宗大王親筆其職帖其春遇官爵之榮如彼而以後累世綿綿焉后裔蕃衍其麗不億茲非其積累種德之餘蔭也歟余病淹藥城石君鎮泰請余弁其譜畧書歸之而特人道之始一段事也繼此而求知其所當知行其所當行早劫暮勗以期有終也則子孫之昌熾門閭之高大顧不自

斯譜始歟

上之二十八年辛卯二月上澣正憲大夫前行刑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同知

成均館事一善金益容謹撰

정인보 서문

상서에 이르되 오직 천지(天地)는 만물(萬物)의 부모(父母)요 오직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만물은 낳고 기고 동물과 식물이 천지의 사이에 가득히 차 있나니 그리고 사람도 또한 만물의 한 종류이나 특별히 상품이 초혜(稍慧)하므로 다른 식동물(植動物)등이 행하지 못하는 바를 행하는 고로 능히 천지의 높음과 같은 처지인 삼재(三才)의 명의를 대열하되 타물은 감히 왕망치 못함이나라. 대개가 천지의 기운을 받아 처음 낳는 때는 사람과 만물이 진실로 차이가 없으나 타의 물체들은 신령치 못하여 능히 자신의 소자출의 근원을 몰라 물결에 거품이 스스로 일어났다 스스로 없어짐과 초목은 꽃과 잎사귀가 봄에 싹이 터 났다가 가을에 떨어짐을 알지 못함이 나라. 사람은 가장 신령하여 알지 못할 바가 없는 고로 그 소위생으로부터 부조이 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마지와 증간 끝의 종지서차와 모당 처당 고모 이모 자매 인아의 원수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효도하며 형제간의 우애하며 종족의 돈복하며 천당

에 화합하여 사람의 도가 구비함이니라。 사람이 타물과 다른 점과 타물이 감히 사람에 미치지 못함은 그 근원이 이에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않겠는가。 내가 석씨(石氏)의 가정을 고찰하여 보니 대개 동방석씨(東方石氏)의 선대(先代)가 중화(中華)에서 나왔고 그 시조(始祖)인 예성군이 여조(麗朝)에 공(功)이 있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서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정창옹주(慶昌翁主)의 승봉이 있었고 그 뒤에 집현전 제학이 있어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그 직첩에 친필로 쓰시어 그 총우한 영화가 저와도 같고 그 뒤에도 누세로 계승하였으며 그 후에가 적지 않으니 수인만흠선세의 종덕(種德)의 여음(餘蔭)이 아니겠는가。 내가 병으로 침음한데 예성석군 진태가 나에게 그 보첩 서문을 청하기를 대략 써서 들리니 특별히 처음 일단의 일이니 이로 이어 그 마땅히 알바를 구해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행하여 일찍이나 저무나 그은 자자하게 마침이 이심을 기약하면 자손의 창치함과 문란이 높고 그름이 이면 보첩으로부터 비롯함이 아니겠는가。

상지二十八년 신묘二月 상한에 정헌대부 전행 형조판서 겸지 경원춘추관사 동지성윤관사 일선 김의용 삼가히 씀。

識

余嘗觀蘇氏譜序曰蘇氏出於高陽又曰眉之有蘇氏是知蘇氏之始祖出於高而蘇氏之一子留于眉則州眉之蘇本高陽之蘇而惟我洪州之石本忠州之石也忠州古號卽藥城而藥城君乃吾石之始祖也洪陽君亦吾石之中祖也藥城君樹勲之業實基於麗朝洪陽君阿保之功已彰於國初洪陽君之孫有二派一曰判尹公二曰提學公也判尹公之子孫散居於關西關北而分貫洪州提學公之子孫遍在於畿湖嶺南而仍貫忠州然究厥本源則忠洪之宗均是我鼻祖之耳孫也安可岐貳於其間哉粵在己甲兩年惟我平永之譜不及者以其親盡而路脩也亦以面晦音絕也何幸今年庚春天佑吾宗畿嶺之通章不遠千里而至宗族之輪議不謀一時而同是以不憚勞苦而裹足於千里不計親疎而會面於一時譜始大同昭穆咸序前日未遑之事於今而始成焉惟我石氏之分忠洪此其非在昔蘇氏之分高眉也哉顧余不肖猥相其任畧叙顛末云爾

崇禎五辛卯季春下浣裔孫處洪處鉉等謹識

내가 일찍이 소씨의 족보 서문을 읽어봄에 소씨(蘇氏)가 고양(高陽)에서 나왔다 하
 고 또한 미주(眉州)에 소씨가 있었다 하니 소씨의 시조(始祖)가 고양에서 나와서 소
 씨의 한 아들이 미주에 머물러 있었음인즉 미주 소씨는 근본이 고양소씨이다. 오직
 우리 홍주의 석씨는 근원이 충주 석씨이니라. 충주 옛호가 예성이니 예성군은 우
 리 석씨의 시조이시고 홍양군(洪陽君)은 우리 석씨의 종조(中祖)이시다. 예성군의
 공후만이니 고려조에 있고 홍양군의 아보(阿保)의 공(功)은 국초(國初)에 드러남이니
 라. 홍양군의 손자의 세대에 두 파(二派)로 되어 있으니 일파(一派)는 관운공(判尹
 公)이요 또한 파는 제학공(提學公)인데 관운공 후손은 관서(關西) 관북(關北)에 주
 로 나뉘어 살며 홍주로 부관하여 내려오니 그 근본의 근원을 탐구하여 보건대 충흥의 종족은
 있어 충주로 인관하여 내려오니 그 근본의 근원을 탐구하여 보건대 충흥의 종족은
 같은 예성군의 후손이라 어찌 그 사이에 이설할 하였는가. 지나간 기축(己丑) 갑
 자(甲子) 양년(兩年)에는 오직 우리 평산 영흥 양파가 족보를 같이 못함이니 친히 다
 하여야 하나 서로의 길의 멀니 안면도 모르니 음신도 상통이 없니 까닭이라. 다 행
 하계도 음경인년 봄에 황천의 우리 종중을 도모인가. 기령(畿嶺)의 통장(通章)이
 천리(千里)도 멀다 여기지 않으니 도찰함으로 우리 홍주 종족이 회면(會面)을 들리어
 일시에 합동할 하니 이럼으로서 노그를 무릅쓰고 수천리(數千里)를 보행(步行)하여
 일시 일석의 대면하고 족보로서 처음으로 대동모호하여 소문을 밝히니 지난날 이루

지 못한 일들을 지금에 와서 이루니 오직 우리 석씨의 충주 홍주는 소(蘇)씨의 고양 미주(高陽眉州)가 아니겠는가。 불초정이 위남이 그 파임에 담담하여 그 전말을 대략 이름이니라。

승정 五신묘 계춘 하완에 예손 처흥 처현 삼가히 씀。

庚寅譜 序文

幸茲己譜始剏甲系續成瞭然若昏衢之明燭可謂吾石之千載一運而先蔭未盡祖靈冥佑今年辛春譜又大同有若一本之本并茁乎千枝一脉之源分裂于萬派則吾宗敦睦之風於斯復興矣然則吾譜之作此其非向所謂蘇明允以著代之意程夫子不忘本之義耶顧余不肖再忝其任先人之未發後生敢發之前日之未詳今日亦詳之庶幾免罪於先稱而亦或無愧於後世也哉敢以是勉夫

崇禎五辛卯暮春後孫通政大夫行敦寧府都正鎮泰謹識

庚寅譜 序文

古己丑分系也先君子未遑今甲子上系也後雲仍之永歎而何幸己丑冬竹南鎮泰甫請問譜紀之如何余使族親周楨千里三踵頌此全系實是千宗顯蹟百世斷案諸宗章甫一議贊成辛卯元譜可謂千枝花發萬派源清顧余不肖甲校刊正庚任總理事雖詳熟盧或短淺二載攻苦千里三復然後會同于星山之西而自己庚屆辛春事已告功不可無文忘拙而謹序云爾

崇禎紀元後五辛卯季春下澣裔孫致斗謹序

丙辰譜序文

今之法無善於古者惟譜近之世之言譜者每稱蘇氏然蘇氏之爲譜也親盡不及子得書而孫不得書吾之所自出則詳而尊之而非所自出則不然是其法猶有未備者近世之譜大率有二例其舉一姓而盡合之者曰大譜或勢有未及則從其所自分而別之者曰派譜二者之所爲固有全偏之殊然親之盡不盡無不及生者之子與孫無不得書所自出者之與非所自出者無詳不詳尊不尊之異蓋譜法之備極矣石氏之有譜自英祖己丑始然一國之姓未有以合也至太上元年甲子而又修之則舉一國鮮不同者是可以爲大譜

矣二十八年辛卯又重修之(平永派始入)大略如己丑之爲後又二十六年嶺之石氏謀曰譜不可不修而居遠者勢不可以同之則無寧合近者而爲之於是設役於琵琶之山寺數月而告功然非從其所自分而別之是又不得爲派譜矣或者以譜之無例病之夫以蘇氏之錄近而遺遠詳己而略人猶足以爲譜况斯譜也雖有未同而其法之備猶故也是豈不足爲善譜乎而奚例之足問石氏自藥城君始著於吾邦至洪陽府院君以其配慶昌翁主鞠養聖祖之功得蒙封爵之典朝家之崇報至矣而後承綿綿賢且貴者累形於譜是又安得以無赫赫之勢榮少之哉盛衰微顯之數相尋於無窮則後日之赫赫又安知不在於石氏惟修己以俟之而已譜成吾鄉人名鎬立者以諸宗人之命來請余序之

歲丙辰三月上旬昌山曹兢燮序

병진보 서문

지금의 법(法)이 옛적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오직 보첩만은 근사하다。 세상에 보첩을 말하는 자가 거의 소씨(蘇氏)로 일컬어지니 소씨의 보첩은 친(親)히 다하면 미치지 못하여 아들은 기재하되 손자는 기재치 못하고 나의 난 곳을 자상히 하고 존중하되 나의 소자출이 아니면 그렇지 않으니 그 법이 오히려 미비함이 있는 것이

다. 근세(近世)의 보첩(譜牒)은 두 가지 법례가 있으니 한 성씨(姓氏)가 다같이 함하여 하는 것을 대보(大譜)라 하고 후세대가 미치지 못함이 있어 자손(子孫)의 남을 분별하여 이름이 파보(派譜)이니 대보 파보의 범위가 넓고 좁은 것은 다름이 없으되 친히 다하던 다하지 아니하던 간에 미치지 아니함이 없고 아들과 손자를 기재 못함이 없고 소자출이던 아니던 간에 자세히 하고 자세히 아니함과 높이고 높이지 않는 차이가 없이 일체로 하니 족보의 법이 지극히 구비하였는지라. 석씨(石氏)의 족보(族譜)가 영조기축(英祖己丑)으로부터 비롯하였으나 일국(一國)의 석씨가 다 합동(合同)은 못함이라. 태상원년갑자(太上元年甲子)에 또한 수보를 하였음에 일국에서 한가지로 아니한 사람이 적으니 가히 大譜라 할 수 있으리라. 二十八年 신묘(辛卯)년에 거듭 수보를 하였고「평영파(平永派) 새로 입보 뒤에」 또한 二十六年에 영남의 석씨들이 상의하여 가로대 보첩을 가히 뒤지 아니하지는 못하되 멀리 있어 같은 보첩으로도 이루지 못할 형편이면 차라리 가까운대로 합하여 할 수밖에 없다 하여 이에 비실산 절에 보소를 마련하여 수개월 만에 공영을 마쳤으나 또한 그 소자출만 분별함이 아니라 이가 또한 파보(派譜)가 될 수도 없고 대보도 될 수 없음 인즉 후 사람들이 보첩의 법례가 없음을 병폐로 여기니 대개 소씨(蘇氏)의 가까운 기록하고 먼 곳은 버리고 소자출에는 자세하고 소자출이 아닌 데는 소략하게 하되 오히려 족히 보첩이라 하거늘 하물며 석씨의 보첩은 비록 대동인 아니나 법만인

구비하였으니 어찌 족히 좋은 보첩이 되지 않았겠는가. 어찌 법례만 물어리요. 석씨가 예성군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드러났고 홍양부원군에 이르러 그 배위 정창응주(慶昌翁主)가 성조의 국양공으로 봉작의 은전을 입었으니 조가의 승보함이 지극함이니라. 뒤이어 현달하니까 어러면 보첩에 나타나시니 이 또한 현현한 세영이었음으로 전계 여기겠는가. 성희미현의 수는 무궁한데서 찾아볼진대 후일에 현혁함이 석씨들인 잊지 않음을 줄 알겠느냐. 오직 몸만 닦아 기대할 따름이다. 보법을 이뤘음에 우리 고향 후림(鎬立)이란 분이 모든 종인(宗人)의 명으로 나에게 청하기를 이에 서문을 함이니라.

세(歲) 병진년 三月 상순 창산 조응섭 씀.

跋 文

程子曰敦宗族厚風俗莫如明譜蘇氏曰觀吾譜者油然生孝悌之心蓋自祖先而視之祖先一人之身精神血脉布流於子孫千萬人之身自子孫而究之子孫千萬人精神血脉皆由於祖先一人之身所謂萬殊一本之理也譜之作也使知尊祖重本之義爲民彝扶世教大矣惟我忠州氏之譜自己譜始刊而疏略甲譜雖正權輿猶未得全至庚寅譜統緒俱明

可徵百世得免杞宋之議矣遽經二紀則噫當日纂輯之長老舉皆零謝而世緒之當系名字之追錄卽今日居存者之責也況今彝倫攸斃類族幾夷則譜牒不可不修也故乙卯春南北道老少僉宗齊會於埋炭書室諸謀詢同發文於各道州邑同年秋始役於奇世書室移於龍淵寺迄于丙辰春工告斷手至或路夏而自退單晚而未及者實深慨嘆然此世此等事不得經年遲滯而然也列仕錄墓碣銘凡例依舊規而孝烈行蹟昭著者錄附焉則哀合爲九卷也於戲吾石自麗以來文章德行載在史乘而其麗不億何莫非祖宗深仁厚澤之流乎爲吾雲仍者以忠孝爲政以詩禮爲業則將有熾昌之會矣盍相勉焉哉不佞猥忝再任畧書所感于中以勗來后云爾

丙辰二月旬日裔孫炳岐謹記

발 문

정자(程子)께서 이르시되 종족(宗族)을 두렵게 하고 풍속(風俗)을 두터이 함은 보첩(譜牒)을 밝힘만 같음이 없이 소씨(蘇氏)는 가로되 나의 보첩을 보는 이는 효제(孝悌)의 마음이 유연히 되리라하니 대개 조상선대(祖上先代)로부터 보면 조상의 한 몸이 정신과 혈맥이 자손만인의 몸에 피로 이어 흐르고 자손으로부터 응유하면 자손천만인(子孫千萬人)의 정신 혈맥이 다 선조 한 몸으로 말미암이니 이른바 만가

지 다름이 한 가지 근본의 이치라 한다. 보첩을 작성함으로 할아버님을 높이 고
 본을 소중히 여기는 의를 알리니 백성에 윤리로 함과 세상을 가르침이 크나큰 바
 이다. 오직 우리 충주석씨(忠州石氏)의 족보(族譜)는 기축보(己丑譜)로부터 처음 간
 행(刊行)하되 소략하고 갑자보(甲子譜)에 비록 대략 엮은 바라 하되 원만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인보(庚寅譜)에 이르러서 통서가 함께 밝아서 가히 백세(百世)에 증거
 (證據)하여 기송의 기통을 면(冕)할지라. 어느덧 이 세기를 지나감에 당일에 보첩
 에 이른 분들도 거의 돌아가지고 세세대(世系代)를 이음과 명자(名字)의 추록만은
 끊임까지 생존하여 있는 이의 책임이요, 이론(彝倫)이 나날이 무너지는 이 때에 보
 첩을 가히 뒤지 아니하지 못하리라. 을묘년(乙卯年) 봄에 남북각지(南北各地)에 사
 는 노소간(老少間) 여러 종족들이 매탄 서실에 모여 의론이 일치되어 각 고을에 통
 문을 내어 알리고 같은해 가을에 기세 서실에서 보소(譜所)로 시작하였다가 용연사
 절로 옮기어 병진년(丙辰年) 봄을 맞아 혹은 길에 멀어서 자퇴하고 단자(單子)가 늦
 어 미처 못하니 참으로 깊은 개탄이 되나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을 하자니 감히 지책
 할 수 없었음이라. 열사록 묘갈명 범례(列士錄 墓碣銘 凡例)만은 옛 규정과 다름이
 없고 효열행적(孝烈行蹟)이 뚜렷한 이는 부록으로 합하여 아홉권의 보책으로 이름
 이니라. 우리 석씨가 여조로부터 내려옴으로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이 사승(史
 乘)에 나타나니 그 수가 적지 않아 우리 조상님의 거룩한 유덕이 아니겠는가. 우

리 조상님의 후손(後孫)들이니 충(忠)과 효(孝)로서 가정(家庭)을 다스리고 시(詩)와 예(禮)로서 업(業)으로 하면 장차 창성할 기회가 오리라. 내가 두 번이나 보소증임(譜所重任)을 맡아 감격한 바로서 래후(來後)를 위하여 이름이니라.

병진 二월 申일 예손 병기 삼가히 씀.

己卯大同譜 序文

事有言殊而義一者若石氏之貫忠州洪州是也石以藥城君諱鄰爲最祖藥卽忠之舊也直曰氏忠州宜矣而方域內姓族合始一譜而篇首第一行列書忠州洪州字其下合之曰石氏大同譜假使不識裏面者觀之孰不曰二氏而同一譜也蓋藥城固石氏闔族之籍而藥城君之五世孫諱良善爲桓王姬親故太祖封爲洪陽院君錫土祭之在府院君後承之義不能不御勝國采號而用國朝嘉錫則於是而忠之氏分而爲洪矣然則忠自襲藥而祖號可全也洪不外忠而王恩不忘也篇首雙貫豈不綽綽然有由哉歲己卯石氏諸宗謀所以收族親親有作而言曰吾石之爲忠若洪者派錄則各有一再而合卷大同未也人皆可以派譜吾石不可爲貫籍中分僉曰唯唯遂索單問任董其役於京都於是昔之分者合疎

者密數十世氣脈不億若雲合而影從遣忠派后人鳳基責其弁於不佞曰母敢飾邪實以
 叙事宗鎬辭謝既復之曰昔先藥城君之單身去國萬里渡溟立大勳於王麗樹風聲於百
 代天也非人也所以綿延姓孫布濩全域雅望徽烈之富高困長綬之盛在在相望世不乏
 人此天所以報也非偶也然近覲石氏羣孫祿履餉旺之實維持承守之責未必不遜於曩
 昔何哉乘除數也剝復理也莫是藥城氏敦倫之實不逮於當日諸賢之世者歟苟欲天彝
 之全而人道之修孰若廣其譜而同其族推而上之一身而兄弟也傍而比之遠邇而血黨
 也一開卷而辨昭穆法祖宗敬年德子少幼孝慈之心油然而自不能禁則石氏未艾之運
 天必眷顧而維新人物中興之理門戶張大之慶此其所以除者乘而剝者還復也余
 將執契以俟焉

己卯小滿節西原鄭宗鎬謹序

기묘대동보 서문

말은 다름이 있었되 뜻만은 동일함은 석씨(石氏)의 충주 홍주(忠州 洪州)라 함이
 다. 석씨(石氏)가 예성군 휘는 린(鄰)을 시조(始祖)로 모심에 예성이 곧 충주(忠州)
 의 구호라 즉 충주(忠州)가 마땅한지라. 전국(全國)의 석씨전부(石氏全部)가 처음

으로 절합하여 한 보첩(譜牒)을 함에 책 첫머리 한 줄에 갈라서 충주 홍주라 쓰고 그 아래 석씨 대동보(石氏 大同譜)라 하니 가령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보건대 두 성씨가 한 보첩을 엮은 것이라 아니하리오. 대개 예성은 석씨 전부의 관직인데 예성군의 오세손(五世孫) 휘 양선(良善)이 한왕과 아친이 되는 것으로 태조(太祖)가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을 봉(封)하시고 사패지로 죽어 제사를 지내게 하니 부원군 후승에 있으니 의가 능히 승국(勝國)의 채호(采號)를 벗지 아니할 수 없어 국조의 성호를 섬긴 즉 이에 충주 관향을 나누어 홍주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충주는 조후로 가이 온전히 함이요, 홍주는 충주로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니 책머리에 두 관향을 섬겨 어찌 명량하고 밝음에 유래가 있지 않느냐 기묘년(己卯年)에 석씨(石氏)의 모든 종족이 한 곳에서 돈종수족의 친의로 말하기를 우리 석씨의 충주 홍주가 파보인즉 몇분씩 하였으되 대동보로 못함인즉 다른 성씨들은 모두 파보로 하여도 종지만은 우리 석씨만은 파보로서 중간에서 나눌 수 없다 하니 룡이 일처되어 드디어 단자를 받고 책임을 파정하여 서울에 보소를 차리니 이에 옛적에 나누어 합하여지고 서로가 소원하던 것이 친밀하게 되어 여러 대 혈족들이 구름같이 구름같이 합(合)하고 그림자 같이 상종되어 충주파의 봉기를 보내어 나에게 서문을 청하며 말하되 사실대로 쓰라 하기에 사양하다가 다시 말을 돌려 가로되 옛적에 나누어 합하여지고 서로가 소원하던 것이 친밀하게 되어 여러 대 혈족들이 구름같이

이 합(合)하고 그림자 같이 상종되어 충주파의 봉기를 보내어 나에게 서문을 청하며 말하되 사실대로 쓰라 하기에 사양하다가 다시 말을 돌려 가로되 옛적 선조에 성군께서 만리(萬里)로 나와 패수로 건너 큰 공을 완을 왕령에 세우고 그 명예와 세도를 백대에 심음은 하늘의 힘이지 사람의 힘이니 아닐 것이요, 후손들이 천후에 포호하고 재조 재야에 아망 해열이 재재 상망하니 곧 하늘의 상응이요, 우연한 일이니 아니니라. 그러나 은래에 선씨 모든 이가 부록을 누리니 부귀(富貴)를 누리려 체승한 책임이 옛적과 다르니 어찌된 일인가. 승제는 수이고 박복은 이치이니 아마도 예성선씨의 유년기를 돌돌함의 당일의 어진 행음이 세상에 미치지 못함인가. 진실로 천륜을 온전히 하고 인도로 닦음이 그 보첩을 널리 하고 그 존중을 같이 하여 미루어 올라가면 일신이며 형제요, 절의로 천주어 보면 머나 가까우나 혈당이라. 한번 책을 펼쳐보면 소문을 본별하여 조종을 범을 삼고 연덕(年德)을 공경하고 소우를 예쁘게 여겨 효자의 마음 능히 금치 못하며 선씨(石氏)의 미애한 유수를 하나 권고 하여서 유신인들을 의중의 이치와 문후의 장대한 정사는 이가 바로 승제 박복의 수란한 이치라. 내가 꼭 그렇다고 맹서하고 매듭을 짓노라.

기묘 소만절에 서원 정응호 삼가히 씀.

跋文

凡人之祖先勿論何族元自天地肇判以後至今繼而記之者罕得聞矣吾宗石氏亦在朝鮮溯究其原始祖之發祥果枉何處而只在何時代難可詳悉也然自七百餘年前至于今三十餘代間之系譜證諸先祖之記錄詳且明焉今日之爲子孫者孰不恐惶獻感哉我朝鮮之有石氏自藥城君諱鄰始公自中華來于高麗佐毅宗明宗建大功陞上將軍遂封藥城君六傳而諱良善公娶李朝太祖姨母慶昌翁主永興崔氏有乳養聖躬之功覃恩及於公進洪陽府院君等事皆載於李朝國史及我譜而不須贅言厥後子孫散處四方派分數十而間曾有三四回修譜之舉然難謂完合今者嶠南諸宗率先唱導畿湖咸平不日贊集克成大同之譜美哉此事也追考歷代先祖出則立於廟堂之上盡忠建功列於麟閣之班處則居於鄉黨之間修身齊家得孝悌之稱焉後生之榮且福非由於列先祖之蔭德豈有之哉今日之後生後日之先祖也依宗憲而盡忠齊家垂蔭德於後生後生之榮且福必矣枝葉之茂由於固根江漢之闢源於細流非固根豈敢望枝葉之茂無細流豈能成江漢之闢人亦如此不樹德之門難見餘慶不修學之家難見其昌唯吾宗樹德修學追先報答做業致產爲後垂蔭後生之繁且榮必可期也勉之哉勉之哉是役也嶠南諸宗之賢勞實多

矣而如余則何敢居焉

己卯秋後孫前法部叅書官鎮衡謹識

발문

무릇 사람의 조상(祖上)은 어느 씨족(氏族)을 물론(勿論)하고 천지(天地) 조판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기록하는 자는 얻어 듣기가 드문지라。 우리 석씨(石氏)가 또한 조선(朝鮮)에 있어서 그 근원을 소구하면 시조(始祖)의 발상지(發祥地)가 과연 어느 곳이며 어느 시대(時代)인지 가히 상상할 수 없으되 그러나 칠백여년 전(七百餘年前)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삼십여대간(三十餘代間)에 계보(系譜)가 선조(先祖)들의 기록(記錄)이 자세하고 밝은지라 오늘날의 자손(子孫)된 자들이 누가 공황(惶恐)한감하지 않았는가。 우리 조선(朝鮮)의 석씨성(石氏姓)은 예성군 휘는 린(鄰)으로부터 처음하였으니라。 공(公)이 중화(中華)로부터 고려(高麗)와 예종(明宗)을 도와 큰 공(功)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드디어 예성군을 봉(封)하다 여섯 번 전(傳)하여 휘 양선(良善)이 취이조태조(娶李朝太祖)의 이모 경창옹주(慶昌翁主) 영흥최씨(永興崔氏)에게 장가가 성양은 유약한 공이 있는 고로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등사가 다 이조국사(李朝國史)와 우리 보첩(譜牒)에 실렸으니 모름이 취언할 바 아니라 그 뒤에 자손(子孫)이 사방(四方)에 산재하여 파(派)가 수십파(數十

派)로 나뉘져 있으며, 三, 四회(回) 수보함이 있으며 완합(完合)하다고 이르기는 어려운지라 이제 고남 제종(諸宗)이 술선 창도하여 기호 함평이 불일 찬집하여 능히 대동보(大同譜)를 이루니 아름답다 할 일이며 역대선조(歷代先祖)를 추고한즉 나와 묘당위에 서서 충성을 다하고 공을 세워 세워 인가의 반열에 이르고 처하면 향당간(鄉黨間)에 거하여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효제(孝悌)의 일컬음을 얻음이라. 후생(後生)의 영차복(榮且福)이 선조(先祖)의 음덕(蔭德)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어찌 있었겠는가. 음일의 후생(後生)이 뒷날의 조선(祖先)이 되는지라. 종헌(宗憲)에 의지하여 충성(忠誠)을 다하고 집안을 가꾸름이하여 음덕을 후생에 드리우면 후생의 영차복(榮且福)이 반드시 할 것이다. 가지의 성함은 뿌리가 실한데 말미암음이요, 강한(江漢)이 넓은음은 세류(世流)에 근원(根源)함이라. 고근이 아니면 감히 지엽(枝葉)의 성함을 바람이요, 세류가 없으면 어찌 능히 강한(江漢)의 넓은음을 이루겠는가. 사람도 또한 이같이니 덕(德)을 심지 않으니 문(門)은 여경(餘慶)을 보기가 어렵고 학문(學文)을 닦지 아니한 집은 그 창성함을 보기 어려우니라. 오직 우리 종중은 덕을 심고 학문(學文)을 닦아 선조(先祖)를 생각해 보답하고 주업 치산하여 뒤에 음덕을 지치면 후생(後生)의 번창함을 반드시 기약하리라. 힘쓰고 힘쓸지어다. 이연에 고남(嶠南)의 제종(諸宗)이 현로(賢勞)함이 많은지라. 나같은 자가 어찌 감히 거하리요.

丁未總譜 序文

忠州石氏將修其譜其族之彥宇楨相憲踵門而告不佞曰吾譜始於英祖己丑續修者至今凡六而今則以疆域之分人民之散有未能盡收而合之是爲可恨且有貫邑異同之說有不可以不辨者願得一言之重以冠其篇不佞辭不獲乃按其譜石氏之始祖曰鄰宋高宗時始東來于麗以軍功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今忠州子姓因貫焉六傳至良善以其配永興崔氏爲我 太祖從母有乳養恩封慶昌翁主因封公洪陽府院君後有汝明以高麗注書 太宗特旨累召不就因安置于忠州守義山而終公嘗居于松京子男山下花園故因號花園此其譜系所錄而近世所行典古之編乃去藥城君而以汝明爲石氏始祖以花園爲貫籍而謂星州屬縣則與此大相逕庭不知其何據豈不考乎石譜而徒憑傳說之誤歟此則自有任其咎者而又有壽峴公之珩一派以星山爲貫而其所作姓無二本之說以石卽星之類爲言則其說尤爲無稽而全昧於受封分貫之義者也豈典古編之錄亦因此派之說而轉輾差謬以至於此歟宜忠州氏之欲辨以明之也夫上而尋統緒下而分

派別譜之義也統緒昧而其本迷矣派別混而其末紊矣未有本迷而未之不紊者也今忠州氏之斤斤於統緒之明者其亦有見於此而深得譜之義歟若其收合之有未盡則蓋因時勢之不得已而苟統緒之明派別之分則前之未收者可收於後今日之未合者可合於他日固不必多恨惟蓋盡惇睦之誼以求其收合之道焉而已爾

歲丁未孟夏花山權龍鉉序

정미보 서문

충주석씨(忠州石氏)가 장차 그 보첩을 닦을재 우정(宇楨)과 상헌(相憲) 두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족보를 영조기축년(英祖己丑年)에 처음으로 닦고 그대로 내려서 五、六차(次) 닦았으니 이제는 강역[疆土]이 나뉘지고[分斷] 인민[同族]이 이산함으로서 능히 다 거두어 합하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한탄이 되고 또한 본관(本貫)이 같으니 다르니 하는 말이 있으니 가히 불편치는 못하나 바라건대 한말의 증함을 얻어 보첩서문(譜牒序文)으로 원(願)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이에 그 보첩(譜牒)을 상고하여 보니 석씨(石氏)의 시조(始祖) 휘는 린(鄰)이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에 처음 동으로부터 고려(高麗)에 와서 전란에 큰 공(功)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에 오르시고 예성군으로 봉하심을 받으시니 예성군은 지금의 충주(忠州)라. 그러므로

로 충주(忠州)로 본관(本貫)을 하느니라. 육세에 이르러 휘는 양선(良善)이 그 배위(配位) 영흥최씨(永興崔氏)가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종모(從母)로서 대왕을 양양하신 크신 은혜(恩惠)가 있었으므로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시고 공(公)으로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봉하시다. 뒤에「其後」휘는 여명(汝明) 고려주서(注書)이니 태조대왕께서 특지(特旨)를 내려 부르시되 나아가지 않으므로 충주 수의산(忠州 守義山)에 안치하여 돌아가셨다. 일찍이 송경(宋景) 자남산하(松京子男山下花園)에 제신고로 호(號)를 화원(花園)이라 함은 보첩상에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근세에 나온 전고(典古)편에 예성군은 기재함이 없고 휘는 여명(汝明)으로 석씨 시조(石氏始祖)로 하고 화원(花園)으로 본관을 하여 성주(星州) 속현이라 함은 즉 그 어디를 증거하여 하였는지는 모르나 어찌 석씨의 족보는 상고치 않고 한낱 전설(傳說)의 그릇됨만을 빙자함인가. 이는 그 잘못의 책임이 있거니와 또한 수현공 일파(壽峴公一派)가 성산(星山)으로 관향함이 있고 그 글에 성이 두 가지 근본이 없다는 말에 석(石)은 즉 성(星)류라 함은 더욱이나 수봉분관(守封分貫)한 의(義)에 매몰함이라. 전고(典古)의 편이 수현공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전전 착오함이 아니겠는가. 충주석씨의 마땅히 부변소저 함이니라. 대개 위로 통서(統緒)를 찾고 아래로 파별(派別)을 나눔이 족보의 의라 통서가 어두우면 그 근본이 아득하고 파별이 혼동하면 그것이 어질러지느니라. 이제 충주석씨가 통서 밝힘에 그 근본이 깊어 보서

(譜書)의 의(義)를 얻음인가。 그 수합(收合)의 미진함이 있음인지 대개 시세(時勢)의 부득이함을 인함이나。 진실로 통서만 밝히고 파별만 분간하면 앞에 거두지 못한 이는 가히 뒤에 거둘 것이요, 음일에 합하지 못함은 가히 다음날 합할 것이니 진실로 많이 한탄하지 않나 오직 의(義)를 다하여 그 수합의 도리만 구할 따름이 나。

정미년 맹하에 화산 권영현 씀

跋文

孝而知敬祖悌而知敦宗敬敦之義莫善於修譜也譜修然後統緒明而孝悌之心油然而感發矣故先於英祖己丑畿之陰竹嶺之密陽三嘉三派先公首議譜論輪告八域十載鐫心千里繭足刊成二篇以傳于後凡在吾宗孰不欽仰哉伊後續修譜者五六回則昭穆之序宗支之分井井明明矣際茲疆域兩分俗尚侈糜世不世人不人倫常掃地如也京族相憲氏嘗慨然于此奮發譜修論始於陰竹再於密陽贊否兩論各主己見延拖時日消耗經濟我三嘉派亦贊論之一耳雖然炳忠族祖不幸中途長逝鎮洪君久在床褥刀圭無日歎何及之顧念先公己丑剏始之功不敢怠於他派故台基族叔與族弟鎮元巡回堂欄勸論之

無一人漏落孝悌之風自我三嘉派先起歟支派之或携貳不從小勿掛念須盡其惇睦之
 誼焉而已爾越三年而譜成不揆僭妄謹書于篇末

歲丁未重陽節後孫鎮佑謹識

발문

호도함으로 선조를 공경할 줄 알고 공영함으로 일가를 두렵게 할 줄 아는 것이니
 공경하고 두렵게 하는 의(義)는 족보 다음만 같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
 저 영조기 추년(英祖己丑年)에 서울의 음죽(陰竹)과 영남(嶺南)의 밀양삼가(密陽三嘉)
 등 삼파(三派)의 선대(先代)분들께서 먼저 보첩에 대한 의론을 갖고 팔도에 두루 알
 리고 열해도 마음에 간직하고 천리 길을 보행하여 발이 부르트면서 두 권의 보첩을
 엮어 후세에 전하니 무릇 우리 종족으로 그 누가 흠양치 않았겠는가. 뒤에 이어 오
 류차를 수보하여 소록의 서차와 종문 갈래의 불별이 뚜렷이 밝게 한 것이니라. 지
 금에 강역(疆域)이 양분(兩分)되고 속상(俗尙)이 치미(侈靡)하여 세상이 세상이 같지 않
 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되었으니 서울에 있는 상헌
 씨(相憲氏)가 개연히 여겨 분발하여 처음으로 음죽(陰竹)에서 두 번째는 밀양(密陽)
 에서 수보의 의론을 가진바 찬반 양론으로 차일피일 지연되고 경비만 소비하니 우

리 삼가과도 찬성하는 데 한몫된 셈이라. 그러나 한편 병충(炳忠) 족조(族祖)께서 불행히도 증도에 작고하시고 진홍군(鎭洪君)도 오랫동안 병석에서 왜유가 망망하니 한스럽기 끝이 있으라. 선공의 기추 창세의 공로를 생각하면 감히 탄파와 연타할 수 없는고로 태기 족숙(族叔)이 족제 진원(鎭元)을 도우려 온 집안을 순방하여 권유 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였으니 효제의 성심이 우리 삼가과(三嘉派)로부터 먼저 일게 하니 지파(支派)의 후의의를 들어 종지 않음은 조곰이라도 개념치 말고 모름 지기 돈복의 의만 다할 따름이니라. 삼년(三年)이 지난 뒤에 보첩을 이뤘음에 참 망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 이 보편(譜扁) 끝에 기록을 남기노라.

정미년 중양절 후손 진우 삼가 씀.

癸丑譜 序文

石氏本出中州而在高麗明宗時有兵馬使諱鄰有功於平亂西京陞上將軍而食塚藥城吾邦之有石氏肇於此而歷世躋華膴至洪陽府院君諱良善配曰慶昌翁主爲從母於朝鮮太祖而兼有鞠養之功以是而夫婦俱膺異數特蒙封爵復覃恩於其子中郎將諱天乙有賜御製一詩之親筆而贈封洪城天眷既重疊而亦負時望以牖來謨其長子曰漢城判

尹諱壽明仕當朝贊襄治化季子曰門下注書諱汝明爲其出身於勝國拒本朝之召命竟遭譴斥以終而後贈左贊成昆季之出處雖異無不各隨其地而審其所處之義則豈非所謂易地皆然者耶自是而遺澤不斬屈乎中葉而聲徽相繼本支寔繁散布列省而各成門戶其冒貫有忠州洪州之不同然實因先世採鄉之前後有異各據其一而爲稱更未有分封受貫而異其所蒙也以是常通兩貫而合譜其始修也在於英祖己丑而其後續修者亦數次矣卽今生齒日繁懼其分系之久而或紊復張其役而地根重均來余而言曰吾族之譜事方始慮其遺漏自幾處巨派專擔經費而更不徵歛於個人遠近樂從事將就緒幸子之惠以弁言也余聞而爲之有所欽歎焉夫譜之所以爲貴者以其尊祖愛族也自俗之澆漓而世之所以爲譜者類多籍是而濟其利欲之私至其甚則生釁起鬧而同室荷戈者往往有之如其觀於石氏諸公之用誠於尊祖愛族之實務在事之就緒而不愒其損費已貲者豈不赅然泚其顙矣乎(自己卯譜荷戈者汗不乾乎泉下矣)吾知是舉之其效也不止於事之就緒而已止上世之隆顯吾且執左契以竢之

癸丑仲秋節道州金弼鎬謹序

석씨가 본래 증화로부터 건너왔으니 고려 명종때에 병마사를 지낸 휘는 린(鄰)이
 계셨으니 서경의 난에 공이 놀람기에 상장군에 오르시고 예성군으로 봉하시니 우리
 나라의 석씨가 이에 처음하여 대대로 지내음이 높으니 관직에 오르니 홍양부원군 휘
 양선공의 배위가 경창옹주이시며 태종대왕의 이모로서 태조를 양육하신 공이 있는
 내외분이다. 특별히 봉작의 이수를 입히고 다시 은혜가 그 아드님 중랑장(中郎
 將) 휘는 천을(天乙)에 미쳐서 한 수절을 친히 써서 하사하시고 홍성군으로 봉하
 시니 하늘같이 은혜가 이미 증첩으로 더하시고 또한 후손의 길도 열어주시니 그의
 장자 한성판윤(漢城判尹) 휘는 수명(壽明)은 당조(堂朝)의 관직에 복권하여 치화(治
 化)에 찬양하고 문하 주서(註書) 휘는 여명(汝明)은 여조 출신이라 해서 본조(本朝)의
 의 소명에 끌내 항거하여 마침내 그친함을 만나 세상을 마치시되 뒤에 좌찬성(左贊
 成)으로 증직하셨다. 찬양함과 항거함의 출처는 비록 다르나 각각 그 지위를 따르
 지 아니함이 없었음이라. 그 소처(所處)의 의(義)를 살펴보면 만약에 지위가 밝게 되
 었으면 다 그렇지 않으니 이때부터 유택(遺澤)이 떨어짐이 없어 증세에 이르러 명
 성이 서로 계승이 되고 종문의 줄기가 번성하여 천주에 흠어져 각기 문호를 이루어
 관직이 총주 홍주로 갈지 않음이 있으니 사실은 선대의 봉작이 전후가 다름이로 인
 함을 각기 인식하고 다시 분봉수관(分封受貫)하여 소몽이 다름이 있지 않음으로 항
 상 두 관향이 통하여 합보함이 영조기축(英祖己丑)으로부터 여러차례 하였느니라.

현세는 날로 후손(後孫)이 번성함에 세월 나뉘어 오래가면 후세(後世)에 착란이 될
 까 염려하여 다시 수보의 역을 펴고 지근중균(地根重均)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족보를 뒤아 역요법에 누락이 있을까 염려하여 몇몇 큰 파에서 정비를 전담하고
 다시 개인에게선 징념치 아니하니 온 일가들이 즐겨 맞으며 일이 장차 두서가 있으
 니 자네의 서문 한편을 원함인즉 내가 듣고 고맙게 여긴 바이다. 대개 족보를 귀
 중히 여김은 그 조상을 높이고 그 종족을 아끼고 사랑함인즉 말세의 풍속이 야박하
 여 짐으로부터 세상에 족보를 하는 이가 이를 빙자하여 사욕(私欲)을 취(取)함이 많
 으며 심하면 탐을 내고 분쟁을 일으켜 한 집안에서 창을 메고 날뛰는 이가 있든 이
 때에 석씨(石氏) 여러분이 조상(祖上)을 높이고 종족(宗族)을 애호하여 일의 상취의
 만 힘쓰며 그 재물의 손비(損費)됨을 아끼지 않았음을 보면 어찌 보는 이가 일날이
 붙어지지 않았으며 이마에 땀이 나지 않았는가. 내가 석씨(石氏)의 이번 보첩의 효
 흠 깨닫는 이 루어짐에 그치지 않고 상세의 융현(隆顯)함일 일임으로 알겠노라.

계축 증주절 도주 김필호 삼가 씀

高麗上將軍 藥城君 石公 行蹟

石氏之先有諱鄰是爲忠州洪州氏之始祖也按高麗史毅宗時公始補禁軍鄭仲夫亂從李義方立功擢拜郎將明宗丙申西京(今清州)留守趙位寵叛王以尹鱗瞻爲元帥杜景升爲兵馬副使舉兵討之公與李義旼從杜景升破賊孟州斬首四百位寵獻馘餘兵尚在公爲東西北兵馬使殲滅無遺及還王喜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忠州古號也公勇力絕倫累立大功爲上所恃愛而用性太强與世寡合齟齬者衆竟不得令終何其惜哉有一子靖後孫今爲六千餘戶而走千里訪余請爲文者是伯也

癸亥六月八日黃州邊時淵撰

고려상장군 예성군 석공 행적

석씨 선대에 휘(諱) 린(鄰)이 유하니 이분이 충주(忠州) 홍주(洪州) 석씨의 시조(始祖)이시다。 고려사(高麗史)를 안찰하여 보니 예종(睿宗)때에 공이 금주의 보(補)로써 정중부란(亂)에 이의방을 쫓아 공(功)을 세움에 발탁되어 낭장(郎將)을 배(拜)하고 명종(明宗) 병신(丙申)에 서경(西京)·지금 충주(忠州) 유수(留守) 조위총이 모반(謀叛)하니 왕이 윤인침(尹鱗瞻)으로써 원수(元帥)를 삼고 두경승(杜景升)으로 병마

부사로 하여 군사들 일으켜 토벌할새 공(公)이 이의민과 같이 두경수를 쫓아 적(賊)을 맹주에서 파하여 백백이나 참수하고 위충의 목을 끊어 좌이(左耳)를 드리되 남은 군사가 오히려 있음에 공(公)이 동서북 병마사가 되어 선별하여 남김이 없고 몇돌아옴에 왕(王)이 크게 기뻐하여 상장군(上將軍)에 올리고 예성군(藥城君)을 봉(封)하니 예성(藥城)은 지금(至今) 충주(忠州)의 고후(古號)이니라. 공(公)의 용력(勇力)이 절륜(絶倫)하여 여러번 전공(戰功)을 세우심에 임금이 믿고 사랑한바 컸으니 되 성품이 태강(太强)함으로 세상과 함함이 적고 험뜯는 자가 많아 마침내 시러금 잘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어져 애석(哀惜)지 않으니라. 일자(一子)의 정(靖)이 유(有)하고 후손(後孫)이 이제 육칠천호에 달(達)하니 천리(千里)길을 달려와서 나를 찾아 글「文」을 청(請)하는 이는 시백(是伯)이니라.

계해 유월 팔일 황주 변시연은 찬함.

高麗判開城府事襲封藥城君石公行蹟

公諱文成姓石氏貫忠州上將軍藥城君鄰后也高麗恭愍王甲辰六月倭寇海豊罕梁等地時公判開城府事與密直副使邊公安烈領兵禦之以功封藥城君乙巳辛旽用事附己

者擢之異己者排之贊成事李龜壽評理梁伯益判密直司事朴椿晋原府院君金壽萬府院君李寧陽川君許猷典工判書邊光秀判事洪仁桂典理判書許瑞僉議評理金貴上護軍梁濟大護軍李仁壽護軍洪承老贊成事李仁復密直趙希吉洪師範崔孟孫領都僉議李公遂侍中慶天興判三司事李壽山贊成事宋卿密直韓公義政堂元公壽知密直王重貴或罷或竄公亦不得免爲流于長岩辛亥晄伏誅拜公三司右使崔瑩大破倭寇於鴻山王遣公賜衣酒鞍馬倭又寇江華公爲元師崔瑩爲都統使以禦之禍王六年庚申五月卒墓失傳配延安李氏考據麗史叙其行蹟如右

癸亥六月八日

黃州 邊時淵 撰

고려 판개성부사 襲封 예성군 석공행전

공(公)의 휘(諱)는 문성(文成)이요 성(姓)은 石氏요 관(貫)은 충주(忠州)이시니 상장군(上將軍) 예성군(藥城君) 린(鄰)의 후(後)라. 고려 공민왕 갑진유월(甲辰六月)에 왜구가 해풍(海豊)과 착양등지에 입부하거늘 그시(其時)에 공이 개성부사(開城府事)로서 밀직부사 변안렬을 도와 군사를 거느려 이를 막으니 그 공으로 예성군을 봉함이라. 을사(乙巳)에 신돈(辛旽)의 용사에 부기자는 채용을 하고 이기자는 배척

을 하니 찬성사 이구수(贊成事李龜壽) 평리양 백익판 밀직사사 박춘 진원부원군 김수만 부원군 이영양 천군허유전공판서 변광수판사 흥인계 전리판서 허서침의평리 김귀상 호군양재대호군 이인수 호군 홍승노 찬성사 이인복 밀직 조히길 홍사범 최맹손 영도침침의 이공수 시증경천흥판 삼사사 이수산 찬성사 송경 밀직 한공의 정당원공수지 밀직왕중귀 등 여러 중신(重臣)이 혹은 파직(破職)하고 혹은 귀양을 보내니 공도 또한 시러금 면하지 못하여 장암(長岩) 유찬함이라. 신혜예 신돈(辛旽)이 복수(伏誅)함에 공(公)을 삼사우사(三司右使)로 배(拜)하니라. 최영(崔瑩) 왜구(倭寇)를 홍산(鴻山)에서 대파(大破)함에 왕(王)이 공(公)을 보내 의주(衣酒)와 안마(鞍馬)를 하사(下賜)하니라. 왜구가 또 강화(江華)에 입구(入寇)하거늘 공(公)이 원수(元帥)가 되고 최영(崔瑩)이 도통사(都統使)되어서 방어(防禦)함이다. 우왕(禑王) 유년(六年) 경신(庚申) 오월에 졸(卒)하고 묘(墓)는 실전하고 배(配)는 연안이씨(延安李氏)이다. 고려사기를 고거하여 그 행적(기行蹟)을 서차함이 여우(如右)와 같음이라。

계해유기월팔일

황주 변시연 찬

表誠碑文

事有無於古而爲於今者以其時異而事殊也子孫而追慕祖先固出於秉彝之不容己者則所當各盡其誠是道之常也何表於有惟今世入滄桑人紀盡壞背祖忘先者踵相接焉于斯時而能盡慕先之誠者是人紀之所賴而可不知表乎况同一祖先同一子孫而其誠有至有不至則此可以卜其人之賢否而誠之至者自其人言則只自盡其誠而已豈求人譽哉自其諸族言則獨至於他人所不至而可不彰其至以勵其不至者耶此又春秋勸懲之義也惟我先祖花園先生忠州石氏顯祖也而姑無齋室歷世之齋恨耳以故癸亥世譜頒帙後期欲立多小資金而排金外別鑿誠金表其優劣揭於石而名曰表誠碑盖衰世之意而亦以寓勸懲於無窮也因畧其意如此云

後孫癸亥世譜編纂副委員長 允鎮 謹識

總 務 是伯

표성비문

일이 옛적에는 없었는데 이제 하는 것은 그때가 다르고 일이 다름이니라。 자손이고 조상을 추모(追慕)함은 진실로 병의 지심에서 나와 응납지 아니함에 나옴인즉

마땅히 그 정성을 다함이 땀땀한 도리어거늘 어찌 표(表)함이 있으리요。 오직 현세대(現代)가 창상에 들어 인기(人記)가 다 무너져 할아버지를 등지고 선대(先代)를 잊은 채 발끝이 서로 닿으리라。 이때에 능히 모선(慕先)의 정성을 다하는 자는 이 인기(人記)의 힘입은 바이니 가히 표(表)함을 알지 못할 것이요, 하물며 동일자손(同一子孫)이 그 정성의 이름이 있고 없었음은 가히 그 사람의 어질고 아니 어짐을 짐할 것이라。 정성이 지극(至極)한 자(者)는 그 사람을 말할진대 다만 스스로 그 정성을 다할 따름이니 어찌 사람의 칭찬을 구(求)하라。 그러나 그 제족(諸族)으로부터 말함은 즉 홀로만 사람이 이루지 못한 바에 이르되 가히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그 이루지 아니한 자(者)를 짐해하겠는가。 이가 또한 춘추의 권하고 짐해하는 의라 오직 우리 선조 화원선생(花園先生)은 충주석씨(忠州石氏)의 현조이신데 아직 재실(齋室)이 없으니 역세(歷世)의 재한(齋恨)이라。 그러므로 계해세보(癸亥世譜) 분질(分質) 후(後)에 기어코 다스의 자금(資金)이라도 세우고 배금외(排金外)에 별 거성금(誠金)하여 표기(表記) 우열하며 돌에 새기고 이름해 가로되 표성비(表誠碑)라 하니 대개 세시의 뜻이나 또한 권하고 짐해함을 무궁한대「永遠」토록 부침이라。 인하여 대략 그 뜻이 이 같다고 이름이라。

후손 계해세보편찬 부위원장 윤진근 지

총 무 시 백

【判尹公編】

始祖藥城君諱鄰

按麗史明宗十七年從杜景升討趙位寵有功累陞上將軍東西北兵馬使西海道按察使康用儒不從將軍公感之因被誣訴請免其職王不聽公憤怒瞋目張拳厲聲曰吾不復仕矣遂解帶投地而出王遣內豎留之再三不從又命兵部尚書梁翼京留之翼京挽袖臂解之乃入內殿王溫言慰諭與之飲詔罷用儒以解其怒公退還收其詔公數日不起王累遣使就職封

藥城君

諱靖大匡輔國崇祿大夫兼密直提學

諱璣資憲大夫行密直提學

諱興國嘉善大夫行門下侍中

諱道嘉善大夫行判決事兼雙城摠管因居焉雙城今永興也府

藥城君事實

藥城君姓石氏諱鄰卽聖門七十二賢成紀侯石作蜀之後裔宋高宗朝官工部尚書來于高麗是爲東國石氏始祖也 毅宗庚寅及 明宗丙申亂討平有功擢郎將歷西北兵馬使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忠州

洪陽府院君實錄

洪陽府院君姓石氏諱良善貫忠州配慶昌翁主崔氏卽我 太祖康獻大王姨母也 太祖之外祖永興伯靖孝崔公諱閒奇無男三女長適學生全碩次卽 桓祖大王妃懿惠王后也次卽慶昌翁主也 懿惠王后至元元年乙亥十月十一日誕 太祖而生甫五朔至翌年丙子二月二十四日昇遐慶昌翁主因爲乳養 太祖保護及長當黃河千一之清應天受命垂億萬年無疆之休運以冲齡鞠養之功拜異姓三寸石良善爲洪陽府院君封姨母崔氏爲慶昌翁主因其舊基改築別宮於永興府東德興社龜巖里地卽今永興宮闈里是也翁主指示御胎所藏之地因建殿卽今 濬源殿是也翁主享年八十五

捐宮一依 國陵例葬于永興府北三十五里定平郡草原面早田洞辰坐原事載陵殿誌與永興邑誌焉永興邑誌卽雙城誌

慶昌翁主墓奉祀事實

慶昌翁主只有一男一女男卽石天乙也 女卽適安齡也太祖封陵之初外祖靖孝公葬于永興導尊陵而靖孝公素無男子故以外孫石天乙定爲奉祀其後石氏奉祀于導尊陵者良以是也天乙卽翁主之獨子也而是以不得兩家奉祀故 太祖傳教內翁主墓奉祀亦以外裔安齡子孫定爲奉祀 濬源殿故事錄及永興邑誌有曰翁主墓舊有安姓人奉祀矣今沒無嗣廢其祀云

慶昌翁主墓像設

坐向則辰坐戌向也像設則曲牆牀石魂遊石長明燈臺石文武石左右屏風石前後磚石三層階牀石之下鼓石墓前二十步許龜臺硖石及碑冠馬石等物皆與諸陵墓像設

少無差等而曲牆牀石長明臺石文武石屏風石磚石三層階龜臺硖石今皆依舊存焉
 碑冠與馬石爲安氏之所打碎埋於墓前故去己丑相訟時營關據定平府使摘奸之日
 探得至今埋安焉

刑曹判書啓目

云云今八月二十五日 幸行教是時衛外擊錚人原情段依定式後錄是白在果卽考
 其原情則永興幼學石承律等其先祖洪陽府院君良善配慶昌翁主內外墓所迄今立
 碑封築給復位土子孫叅於鄉案雖支庶遠裔永令勿侵烟役事府院君內外勲業昭載
 國乘有不可泯默其墓所令本道定界立碑封築位土祭需給復守護等節使之從厚磨
 鍊之意 分付道臣何如

甲子八月二十八日前同副承旨臣宋熙正次知 啓依允事

因啓下刑曹關文

刑曹爲相考事節 啓下教曹 啓目內今八月二十五日 幸行教是時衛外擊錚人以

下至 啓依允事判下教是置判付內辭意奉審施行爲是矣同原情段關後錄相考施
爲祿舉行形止卽爲 啓聞之地宜當向事錄後上言辭意九月二十一日關文付于巡營

禮曹啓目

云云前洪陽府院君慶昌翁主墓所定界封築墓祭享需旣自本道一依安川府院君例
磨鍊而忌辰祭需等節令禮曹稟處亦爲白有臥乎所洪陽府院君內外忌辰祭需一例
安川府院君內外祭需磨鍊施行何如

乙亥八月十二日前右副承旨臣朴海哲次知 啓依允事

慶昌翁主墓祭享需磨鍊節目

爲永久遵行事因禮曹 啓下關節到付巡營內節 啓下教前前咸鏡監司金有淵狀啓
臥同副承臣旨宋熙正次知事臥定平府使具然泓牒呈果永興府使李鍾浩牒呈果右
副承旨臣朴海哲次知事帖聯啓聞是乎則 啓下爲有置慶昌翁主內外忌辰祭需自
京司磨鍊題給如是乎墓祭享需一依安川府院君內外祭需例造米四石田米十六石

自墓在邑定平府會減是遣造米四石田米十六石自本孫所居邑永興府俱以會付穀上下後會減施行

丙子十二月 日都巡使行下永興府使

禮曹完文

禮曹完文爲成給事卽接咸鏡道永興地導尊陵奉祀孫石宗顯石擎浩石擎天等呈狀則俱是洪陽府院君石良善配慶昌翁主之芮裔而翁主卽我 太祖大王鞠養姨母也太祖登極後外祖靖孝公崔閒奇旣無嗣孫故府院君子石天乙定爲奉祀定置墓軍祭器祭服依 四祖大王陵例舉行子孫雖支庶遠裔勿侵諸役事奉承受 教祇奉香火爲四百年之久而近來人心不古不有受 教橫侵雜役奉祀殘裔不得奠接云誠如狀辭則宜其稱冤一依本道完文施行之意茲以完文成給爲去乎依此永久遵行宜當事

庚戌二月 日

慶昌翁主宮基及墓所事實

宮闈里在府東十里 太祖異姓三寸石良善配慶昌翁主崔氏宮基石井石砌以熟石爲之今猶依舊世傳 太祖幼時鞠於其宮卽位後翁主指示 御胎所藏地因立濬源殿云

翁主墓在府北三十五里入定平地舊有安姓人奉祀今歿無嗣遂廢其祭云見濬源殿古

事錄

慶昌翁主墓在府北三十五里定平地界早田洞而舊有安姓奉祀今廢不祀見雙城誌

英廟朝啓下關文

啓下關據禮曹關內慶昌翁主崔氏卽石良善之配而 太祖大王姨母也其宮基在於龍興江北與 濬源殿相距六七里是如載於陵殿誌如是乎舊基形止別定伶俐鄉所將校眉審牒報爲稱翁主墓在永興府北三十五里定平地是如爲去乎亦爲別定鄉所將校眉審後排設形止守護與否圖形牒報爲乎矣石良善果有姓孫

此示中石良善如有子是去等系派及姓名身段一體牒報次

己卯八月 日

宮基立碑事實

府東十里許德興社宮闈里卽 太祖幼時鞠於姨母慶昌翁主崔氏家而長養遊藝之地也三歲石城石狀之戲畫射夜讀之工皆肇於此矣卽位後特念鞠養之誼陞封慶昌翁主拜良善爲洪陽府院君因舊基改築宮于丁向之地宮前二百二十步許有一奇峯太祖幼時聚石遊戲處故北巡時登峰上命名曰望思臺云至壬丙火燹宮室毀壞不復改築只有名矣至 純祖朝二十九年己丑安邊儒生元重赫以此上書豎碑紀蹟焉

永興府宮闈里紀蹟碑

自永興府東去十里曰德興社有稱宮闈里者居民相傳以爲我 太祖大王幼時鞠養於姨母崔氏家旣 御極改其里爲今名云去年戊子秋安邊儒生元重赫上言請倣黑石里立碑而其紀蹟於是廟堂重其事飭道臣徃審之觀察使金箕殷回達言臣進詣永興府宮闈里問言基環數三村家皆民田其或有山麓而宮基不可尋按 陵殿誌云宮基尚在而石井石砌皆依舊邑誌亦云基井猶依俵而今則石砌已埋沒井亦湮不可

徵惟 陵殿誌有曰宮闈里在龍興江北與殿相距六七里 殿卽指 濬源殿也 殿距里果是七里許宮基之只在此里無疑大臣言聖蹟不可湮晦乃就龍興江北與 殿相望處立碑焉謹稽 陵殿誌故承旨魏昌祖所撰昌祖北人也其書儘有攷證在英廟時得刊行而於其誌稱宮闈里以及於井砌則是必有所據者矣夫羹牆

慶昌翁主墓所節目

- 一、墓本齋直一名改八處齋室而使之舉行是矣位田三日耕之禾利水砧一坐之收稅屬之齋直是遣每年祭享時參祭諸賓之供饋酒草等節牛馬料依例擔當事
- 一、守護軍三名段擇定於附近里使之守護是矣每名番米一斗依他陵墓例備納于祭享時事
- 一、墓上禁草掃雪養松之節齋直守護軍等一併舉行事
- 一、齋直及守護軍輩萬或有不善舉行是去乃有闕額之弊則卽爲報官更正事
- 一、墓上曲牆及紅箭與諸般像設隨毀隨理是矣一一稟官卽卽舉行事
- 一、墓所定界內若有犯斫松楸之弊當者隨現捉報官嚴處是遣不善申飭諸齋直守護

等亦稟官定罪事

一、齋所留置之諸般器什物萬或有不時破傷闕失之弊使諸齋直擔當修備事

一、墓祭祀忌辰祭祀當其時獻官及諸執事段置各派分定成稟目報官出帖施行是矣
依一導尊陵例舉行

祭需膽錄

自乙丑二月春秋判下

粘米二斗	酒米三斗	荏子六斗	造清米四斗
木米三升	黃粟一升	眞末五斗	曲子二斗
清蜜九升	小豆一升	麥芽二升	造泡太一斗
生梨四箇	乾柿三帖	大棗一升	栢子二升
晚葺二升	穀菜二斤	芹菜二斤	芝草二合
石葺二斤	甘藷一注之	薇菜二斤	祝張紙一張
厚白紙五張	黃燭二雙	香一封	

祭器

祝板一坐

禮服五領

仰帳一笠

祭服圍一坐

祭器圍一坐

鍤鉢一介

鍤匙一介

笏三介

笏記一件

蘆簾一立

床面紙二張

鍤果器五介

鍤燭臺一坐

鍤盞具臺三坐

大釜一坐

麵簞一坐

鍤香爐一坐

木大接五介

鍤陞器十介

小釜一坐

木燭臺三坐

致胙櫃一坐

火銀子一坐

行步蓆四件

純宗大王北 幸時致祭文

維歲次丁巳三月癸巳朔二十七日己未

王遣典祀鄭萬朝

致祭于

故洪陽府院君石良善

故慶昌翁主永興崔氏之靈念我

高皇早違

慈聖養于姨氏導就德性賢淑相配洪陽古姓歷列朝來崇報其盛歲供祀典百世之永
北路拜陵遠懷愈夙遙望遺

瑩薦此酌洞慰茲曠感

靈其有省

慶昌翁主崔氏墓碑銘 并序

高宗元年甲子儒生石昌龍石昌俊石承律等自關北之永興間關蹕千里來 控于輦路
言十八代祖妣慶昌翁主墓失其傳已數三百年今幸而因觀察使暨知府別陳訟徵遺獻
獲訪茲瑩然儀觀不完罔以賁幽請改封樹碑置田給戶并準始葬時 王函允之命于官
以相其事斯蓋出於繼述之 王意也况翁主忠勤著勞實在於 太祖大王龍興之日生而

優渥歿而崇報于古，尠倫而今。其諱諱之兆，適會神孫御極之初，將以舉累十世旣墜之典事之顯晦，固有其數而不偶然者歟。石承律等仍以墓道之刻，囑之不佞不佞，豈其人也。而亦嘗出守于永親，歷乎翁主宮居故址，暇讀邑誌及陵殿誌，得所載翁主事頗詳。是何敢終辭謹按翁主姓崔氏，籍于永興元朝，宣授千戶。本朝贈判門下永興伯諡靖孝公諱閒奇女我懿惠王后之妹也。以皇慶二年癸丑三月三日生，及長歸于洪陽府院君石公諱良善。至元乙亥太祖誕降甫五閱朔而懿惠王后昇遐，翁主因爲之乳養焉。撫護王躬克殫厥誠，至至正辛卯太祖有行，翁主夜得異夢語太祖曰：當獲賢輔以濟大業，是行果遇李公豆蘭壬申。太祖開國後五年丙子，翁主告御胎所藏地，遂建濬源殿。自太祖始卽位，特軫阿保恩，賜翁主號慶昌進石公府院君，爲築宮于府東德興社之龜巖，俗稱宮闈里是也。六年丁丑九月十三日，翁主卒，壽八十有五。太祖命以國陵例治葬，葬定平府長谷社早田洞辰坐原，距永興邑治爲三十五里，嗚呼。君王之受命也，非惟豪傑名世者出而爲用，亦或積慶累仁之家託之葭莩，皆足以承末光而展偉庸。此天之所必然，而觀翁主始終福履之隆，又豈無所以也哉。中葉以來，兵燹屢作，翁主宮基與墓所俱不可記。英祖三十五年己卯，命眉審形址，且未得。純祖二十八年戊子，安邊人元重赫上書言宮基以王命立碑而閣之，墓爲安姓人所偷，占廬其表石，諸裔力辦之，至是竟得驗焉。曲牆狀石及

文武長明二石猶無恙殆亦神理之所呵護也翁主育一男一女男天乙女適安齡靖孝公無嗣太祖今天乙奉其祀子孫世遵焉洪陽與翁主異窆在府北長興社東下院負子之岡銘曰

於皇 太祖鞠于慶昌慶昌維姨實左右 王異姓之叔亦惟洪陽有渙隆誥既壽而藏居以華宮祔以殊章列朝曠感琢辭載揚積湮復顯屹彼遺藏而疇不式我詔無彊

歲甲子季秋前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宗親府宗正卿李承輔謹撰

경창옹주 묘비명

태상왕 원년갑자(元年甲子)에 유생 석창룡(石昌龍) 석창준(石昌俊) 석승율(石承律) 등이 관복 영효(永孝)로부터 천리길을 보행(步行)으로 와서 임묘(임묘)의 거동(거동)하는 연(年)로 에 말을 아뢰되 十八대(代) 조비(祖妣) 경창옹주(慶昌翁主)의 묘소(墓所) 실전(失傳)함이 수삼백년(數三百年) 되었다니 이제 다행히도 관찰사(觀察使) 및 군수가 무은(無恩) 송사를 바로 채택하여 바로잡고 빠진 대문을 증거하여 묘소(墓所)만 찾았으니 모든 것이 완전(完全)치 못하오니 봉영도(封榮道) 고치고 비석(碑石)도 갈아 세워 치전(智田)을 모두 처음 장사(葬事) 때로 비준하여 하사(下賜) 하신(下賜)을 청(請)하거늘 임묘(임묘)에서 곧 윤(潤)하시다. 증(證)각(各)생(生)략(略)

영조(英祖) 三十五年 기묘에 명을 내리사 실상을 찾아보라 하셨으나 찾지 못했고 순조(純祖) 二十八년 무자(戊子)에 안빈(安賓) 사람인 원종혁이 상서하여 궁의 기지에 임금의 명(命)으로 비(碑)도 세우고 비각(碑閣)도 지었으나 묘소만은 안가(安哥) 사람이 이 투점하여 표석(表石)을 숨김으로 후손(後孫)들이 힘껏 분별하여 마침내 기함을 얻음인지 곡장과 문무장명(文武長命)이 비석이 그대로 있었으니 이 또한 신의 기묘한 바이니라. 옹주(翁主)께서 일남 일녀(一男一女)를 양육(養育)하시니 아드님은 휘(諱) 천을(天乙)이요, 따님은 안령(安齡) 정효공(靖孝公)의 아내이라. 태조(太祖)께서 천을(天乙)로 하여금 정효공(靖孝公)의 제사(祭祀)를 받들게 명(命)하시니 자손이 대대로 봉사(奉祀)하느니라. 이 큰 임금 태조(太祖)께서 경창(慶昌)의 길음이라. 경창(慶昌)이 임금님의 이모가 되어 실제로 임금님들을 두루 살피 도우시다. 성(姓)이 다른 숙(叔)이 또한 홍양(洪陽)이라. 덕(德)이 높으시고 가르침이 있어 이 미우래도록 강적임이라. 종은 궁실로서 거하시고 종은 의장으로 장사하셨다. 열 성조가 광감(曠感)되어 문사를 새겨 찬양함이라. 오래도록 인몰되었다가 다시 드러남이여. 저 기묘한 유택이 높았도다. 그 누가 공경하지 않거나 내 말이 결이 없노라.

해 갑자 제추전 가선대부 행 홍문관 부제학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선관 증친부 종정경 이승보 삼가 씀.

慶昌翁主崔氏改葬紀蹟碑

距永治北三十五里定平界陵洞有一古蹟卽我太祖鞠養姨母洪陽府院君石良善配慶昌翁主崔氏之幽宅也粵開國後六年丁丑御葬以陵例治之翁主只有一子一女而子天乙以國令奉外祖靖孝公女安齡亦以國令奉翁主世傳壬丙兵燹後絕嗣闕享故邑誌曰舊有安姓人奉祀今廢不祀 殿錄曰舊有安姓人奉祀今歿無嗣遂廢不祀 英祖己卯下教曰翁主墓所排設形址守護與否圖形牒報云則墓所之失傳推可測也方其時冒托之安投間抵隙拔去本碑改豎碑刻楊州牧使安公之墓八字而暗然作俑於是乎血孫崛起探得碑冠泣訴于府營掘驗誌石而終未達矣己去甲子始得捷科自 朝家致祭立碑定界封築一遵舊例矣不幸時代交革典禮板蕩頑彼安隻提起訟端累度掘檢二歷審理不啻十八號證書明確耳病院醫師之於骸骨工學博士之於誌物道廳參官之於族譜誠確鑑定毫無可疑爲翁主墓云而則此神理之所不可誣而非人力之可及也然苟非辨護士李珍雨李鍾聲及崔鍾徹之血眼爭點則亦何以能致此乎嗚呼 君王之生實非偶然也而 王躬保養者亦非凡然也前後機會何若是相符也故葬于國初改葬于國末此與國家相終始也矧茲本年癸丑卽翁主降世之十週甲也使遺骸復見天日可謂死而生幽

而顯可爲本孫雪寃亦可使安隻破疑云爾

癸丑八月九日後孫斗鍊謹撰

경창옹주 최씨 개장 기적 비문

영행 북쪽 三十五리(里) 정평(定平) 계릉동(界陵洞)에 한 옛 자취가 있었으니 흥양부원군(洪陽府院君) 석양선(石良善)공의 배위(配位) 경창옹주(慶昌翁主) 최씨(崔氏)의 유택이시니 곧 태조대왕(太祖大王)의 국양(鞠養) 이모이다. 개국(開國) 후 六年 정축(丁丑)에 나라의 능예(陵例)로 장사함이라. 옹주(翁主)께서 다만 일남 일녀(一男一女)를 두셨으니 아드님 휘 천을(天乙)은 국명(國命)으로 외조부(外祖父) 정효공(靖孝公)을 받들고 일녀(一女) 안령(安齡)이 또한 나라의 명(命)으로 옹주(翁主)를 받들어 세전(世傳)함이니라. 임병(壬兵)난리 뒤에 절사가 되어 권향이 된고로 읍지(邑誌)에 가로되 옛적에 안가(安哥) 사람의 봉사(奉祀)가 있었으니 이제 폐하고 제사를 안한다 하였고 전록에 가로되 옛적에 안가(安哥)사람이 있어 봉사 하였더니 이제 이음이 없어 드디어 피하고 제사를 앎는다 하매 영조(英祖) 기묘(己卯)에 하교(下敎)하시어 가로되 묘소의 실상 형태와 수호 여부를 도형하여 올리라 하셨으니 묘소(墓所)의 실전(失傳)은 가히 추측할 수 있다. 그때 전자 안씨(安氏)에 모략한

이가 그런 틈을 타서 본비는 빼어 숨기고 다시 고쳐 비를 세우고 양주목사(楊州牧使) 안공(安公)의 묘(墓)란 여덟 자를 새겨 가만히 멋대로함으로 이에 혈손(血孫)들이 일어나 비관(碑冠)을 찾아 부영(府營)에 호소(呼訴)하고 지석(誌石)을 파서 기흙 하되 마침내 달하지 못하였더니 지나간 갑자(甲子)에 처음으로 첩과를 얻어 조가(朝家)로부터 제립비(祭立碑)로 이루어 하고 정제 봉축을 한결같이 전례에 따르기로 하되 불행(不幸)이도 시대(時代)가 바뀌고 전례까 판량이 되어 완악한 전자 안(安)가가 송단(訟端)을 제기하여 여러번 굴검(掘檢)과 두 번의 심리(審理)로 심팔호증서(十八號證書)가 명확(明確)할 뿐 아니라 병원 의사와 해골공학 박사(誌物)과 도청참관(道廳叅官)의 족보(族譜)에 대한 성실과 확실성을 감정(鑑定)하여 응주(翁主)의 묘소(墓所)임에 조금도 의심이 없으니 신의 의리를 속이지 못함이요, 인력(人力)으로 가이 미치지 못함이라. 변호사 이진우 이종성 및 최종철이 피는물 나는 박함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제 능이 이뤄졌으리. 슬프도다. 군왕(君王)의 나심도 실제로 우연함의 아니요. 왕명을 보양하리 인도 또한 명연함의 아니니라. 전후기 회가 어찌 이같이 부합(符合)하는가. 그러므로 국초(國初)에 장사하고 국말(國末)에 개장(改葬)하니 나라와도 시종(始終)을 같이 함이라. 하물며 이 본년(本年) 癸丑(은) 응주(翁主)의 강세(降世)하신 십주갑(十周甲)이라 유해로 하여금 하늘과 해를 다시 봄은 죽었다가 살고 아득하였다가 드러나니 가히 본손에 설원도 되고 저

안(安)가로 하여금 의심도 깨우쳤느니라。

계축 八월 九일에 후손 두련 삼가 씀。

書慶昌翁主崔氏改葬紀蹟碑文後

韓社屋安氏中日憲兵補助員幾人拔扈濫用權利以慶昌翁主墓爲楊州牧使安天寄之墓對石氏七十二人石瓊律斗鍊則斗鈺父兄墓地返還訴訟提起于咸興地方法院三歷掘檢延施七年日月焉矣于時諸般文泰保管于大宗中謄寫一本委於從子采源斗鍊長男家乘則藏於斗鎮家焉矣爾今疆域中分不知存亡月朝北望不覺涕淚沾衽謹記當時目睹現況使南下族以備不可忘之資焉

全釵環佩物收納于李王職所送琉璃瓶中改封時埋藏古錢遺失

依高麗時王族葬例式以角石略尺築造穴內四壁以角石六個爲天盖厚一尺幅三尺長六尺遺骸則有黃色之潤至於手足細骨俱

歲癸亥暮春後孫斗鈺泣血謹書

경창옹주최씨 개장 기적 비문 뒤에 씀

한국사적이 마침에 안씨증 일본헌병(安氏中 日本憲兵) 보조원 몇 사람이 에워싸

고 권리를 남용하여 경창옹주(慶昌翁主)의 묘(墓)로 하여금 양주목사 안천기(楊州牧使 安天寄)의 묘라 하여 석씨(石氏) 七十二인[석정을 두련 두 옥의 부와 형] 등이 묘지 반환 소송을 함응 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삼력굴검(三歷掘檢)에 七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그때 제반 문권은 대종증(太宗中)에 보관(保管)이 되고 등사한 일본(日本)은 종자(從子) 채원(采源)·두련의 장남(長男)에 맡기고 가정만은 두진의 집에 전장함이 라. 이제 남북이 갈리어 존망을 알지 못하여 북녘을 바라볼 때 알지 못하는 사이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삼가 유연때에 형님 두연씨를 따라 묵모한 현향을 기록하여 남하 종족으로 하여금 가이 잊지 못할 자료로 갖춤이 나라.

제해 모춘 후손 두옥은 피난물들을 흘리면서 삼가히 씀.
경창옹주의 비문을 보고 한 구절의 말을 삼가히 기록합니다.

半千載後掘起體魄使天下耳目知其翁主之爲太祖從母而有乳養功是何理也未嘗不
三復驚難恐列聖朝以不北人登用竟爲海氓故歟

癸亥譜成日忠州後孫是伯謹識

반천년(半千年)을 지낸 뒤에 체백을 파 일구어 천하(天下) 이목(耳目)으로 하여금
옹주(翁主)께서 태조(太祖)의 종모(從母)가 되고 유양(乳養)의 공(功)이 있음을 알게

하니 이것이 무슨 이치인고。 일찍이 반반복으로 생각하되 경탄치 아니치는 못하리
라。 하건대 열성조(列聖朝)가 지내음으로서 부인을 드용치 아니하고 마침내 해명
하여 바람인가。

계해년 보첩을 이룬 날에 충주 후손 시백 삼가 씀

太祖大王御筆奉寫

石天乙

同乳兄弟誼 如山如海恩

【叅判公編】

太宗大王御筆奉寫

王旨

石汝明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者

永樂十四年六月初二日西紀一九七二年三月三日文公部登第九九八號

御筆事實亦載於採訪史朝鮮史編纂委員會發行 第二回編

御筆閣重建記

忠州治西陰竹池花園石先生 御筆閣成矣日其後孫奎業甫過壩於基州之桂陽山房袖示小識其略曰先祖花園先生生於麗季以巖廊之材慷慨有大志 恭愍王甲寅以成均生員英年擢桂晋道方亨可以有爲於世而及麗運垂訖不樂仕進自放於江湖寂莫之濱韜光鏤彩漁釣以托志葩藻以遣興未嘗沽銜於世我 太祖龍興以門下

注書累徵不起以遂罔僕之節 太宗十六年丙申六月初二日以

御筆特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不就遜于忠州回文洞修理山以終老焉其

清名卓節與冶隱耘谷齊美 太宗獎其忠義褒

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偉乎大哉日月宸章熙臨下土可知眷注之隆曠絕古今先生如在之靈想必感泣於九泉之下矣仍建一閣於陰竹池洞虔奉御筆於閣中今距先生之世五百有餘禩矣世級迭遷累經兵燹先生衣履之藏與貞敬夫人權氏之墓深目無徵未驗其端的設壇於回文舊墟以寓春秋霜露之感閣隨而頽圯還奉 御筆於宗宅而星霜已累遷矣荒原敗礫使人有殘山剩水之歎其爲雲仍之感益復何如哉於是乎 太宗王之親墨手澤暨先生之扶綱守節復明有還是歲甲辰春後孫相憲承相哲命惕然發慮爲文通諭于湖嶺散處僉宗遠通同聲傾飭儲撤屋材舍舊址而定新占重建閣於池洞左阿積歲月功秦以成棟宇飛騰溪山改觀丹雘煒煌行路停筇移奉御筆於斯閣俾來者聳觀如承風範神彩於千載隔晨之下而 聖主所以崇獎節義寵錫而發揮以重一區泉石之勝與天壤相終始何其偉哉詩曰聿修厥德無忝爾祖今天地閉矣赤子化爲禽獸矣今先生之後裔能自拔於風氣旣死之後仰答 聖王之洪恩邁追烈祖之盛德可謂有後嗣不棄其基而亦可謂肯構肯堂矣噫有替則有興氣數之運

有晦則有顯天道之常抑未知天佑德門山川毓精使其子孫講習詩禮之訓復率先祖攸行因文入道復繼前轍者乎余以是深有望於花園先生子姓其各勉旃哉奎業以不佞且諳事實請爲之記自顧毫荒重以不文何敢當是寄旋念以區區之言托名於楣端粗伸曠世高景之忱實爲徵分之榮幸敢忘穢佛之誚畧叙顛趾依樣畫葫以塞慈孫之請朝鮮開國九甲辰秋九月重陽節通仕郎權知承文院副正字箕城黃壙拜手謹記

御筆閣上樑文

天道無常竊憂滄桑之旣變先蔭有裕聿賭棟宇之復新軀制得宜感格于神恭惟先祖贊成府君特蒙 太宗王之恩旨達于三尊家勢以之丕聞源於百行庭訓爲之申休先靈之依憑復見洋洋其上後孫之瞻謁恒切惕惕于中屹然龜螭卜千世之榮耀美哉輪奐闡一區之深幽遂爲重建之僉謀幸是先隴之前局避凶而趨吉實賴諸宗之誠勞舍舊而就新若有神明之助護斧彼鉅彼不幾日而成功棟之椽之齊一門而協力彫棟劃桶宛然對峯巒之高臨飛甍層棟足以庇風雨之侵剝休云基址之僻左莫如體勢之全安遂道鳩財之方工師有喜更成暈飛之制隣比生光背向之稍移一山內而從勢子姓

之共聚千里外而殫誠誰敢怠荒而緩期更相戒飾之敦事宜與善頌助舉修樑兒郎偉
 拋樑東三芋彩旭散盜蓬三尊孝旭分明照遙憶先公感我衷拋樑西參差驛樹影垂低
 新庄物色非常事上有哺烏任意啼拋樑南入望鷹峯滴翠嵐一境諸宗皆得壽此間應
 有菊花潭拋樑北蓮臺山勢來無極地靈鍾處閣閭高多子多孫麗不億拋樑上蒼穹陰
 騰每依仰煌煌寶墨起祥雲於億千年深感愴拋樑下漢水洋洋流不舍爲學當時如取
 斯真工應必入儒雅伏願上樑之後門祚旺休士風興作入則孝出則悌構前修爲立依
 歸立於禮興於詩俾後人知其矜式花樹共會叙天倫之悅豫菟裘相傳期地闕之蕃衍
 己至歲月愈久庶幾棟樑之完堅

檀紀四千二百九十六年癸卯五月二十七日後孫相憲謹撰

御筆閣碑銘 并序

閣在今利川郡長湖院之珍巖里而度前韓 太宗御筆一度卽賜贈花園先生忠州石公
 者也盖公當高麗 恭愍王甲寅以成均生員登乙科官至門下注書未幾前韓 太祖膺天
 受命而麗運見訖公之先公與 太祖爲娣兄弟因綠始出仕路而公則自以出身麗朝矢

志罔僕及 太宗御極素重公加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特降恩旨而召之此御筆之所以賜也公守義旣堅不爲恩眷之崇而少回其意以此觸上怒而安置于忠州守義山回文洞竟未宥還而終上始雖怒其拒命而終乃嘉其守義贈崇祿大夫左贊成以褒之盖召命褒贈俱屬殊典而親降宸翰尤爲貴重此所以爲閣尊安者也閣在中間嘗經頽圯而後因縟儀之舉復爲閣於廟傍及 高宗戊辰廟宇因邦禁而見廢則閣亦隨毀者至近百年之久矣其間屢謀興復而至頃年甲辰始克成之閣制一復其舊實由於相哲相憲甫之積歲經紀也旣有年將立石閣庭以叙其事宇楨鎮洪奎業甫來徵其文于余余惟公早蒙拔擢而遽遭社屋如無恩命之降則雖守義自靖而無由以知其不爲榮寵所撓禁錮所沮之貞忠卓節也安可任是閣之廢而不爲興復也哉或謂公之蹟適足以見先公之欠節也是有不然者先公旣不臣於麗朝則雖出仕路而固無譏於清議也若在公則所處之地已自不同不能出於一途也按公諱汝明字胤立其號花園以居松京子男山下花園故稱之也系出忠州始祖諱鄰自宋東來仕高麗毅明兩朝以軍功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忠州後有諱靖諱璉俱密直提學至諱興國門下侍中卽公高祖曾祖諱道判決事雙城摠管祖諱良善 太祖二年癸酉封洪陽府院君配永興崔氏封慶昌翁主考諱天乙仕韓爲中郎將封洪城君盖世類旣懿知公承襲之有自而皆賢曰文守禮曹叅判曰文賢利川

縣監曰文成直提學亦可見義方所暨云係以銘曰新朝降旨雲章玲瓏舊臣守志風節隆
崇不惟至寶光起騰空想望千載激勵懦衷

歲丁未暮春 瑞興金熙達謹撰 預受碑文

真城李寬鎬謹書

告由文

守義山兮萃嶽且青回文洞兮溪水澄清先生退兮勝國之光遺風凜烈山水與長西山蕨
薇粟里松菊入我 太宗恩旨降赫命以漢尹贈而贊成煌煌濡渥寶墨丁寧于時州郡尊
閣奉安桑瀾累劫棟宇敗殘裔孫移益亦既有世詢謀多年經營乃始審勢定基可構可堂
長湖之上珍巖之陽卜日告落丹艧更輝衿紳奔趨兩湖嶺畿五五十年風氣再闢聲光所
被草本生色迺設神座釋菜奠危陟降如在歆斯顧斯

丙午六月戊寅朔二日己卯 叅議公後孫一楨謹題

于時獻官陽城李根弼

어필각 비면

어필각이 지금의 경기도 인천군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으니 전한 태종대왕(前韓太宗大王)의 어필한 장의 글씨는 곧 화원선생(花園先生) 석공에 하사함이라. 대개공(公)이 고려 공민왕 갑인년(高麗 恭愍王 甲寅年)에 성균생원(成均生員)으로 을(乙)과에 올라 벼슬이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올랐는데 얼마되지 않아 전한 태조(前韓太祖)가 하늘을 우러러 명을 받으시고 고려의 국운(國運)이 다함에 공(公)의 선공(先公)이 태조(太祖)와 더불어 이종형제가 되어 그 인연으로 비로소 벼슬길에 나가 되 공(公)이 즉 스스로 고려 출신임으로 망부의 뜻을 품었으니 아래 태종이 위에 있었음에 본래의 공(公)을 중하게 여겨 가선대부 검교 한성윤 제학(嘉善大夫 檢校漢城尹 提學)으로 특별히 은지(恩旨)로 내려 부르시니 이가 곧 어필을 하사한 바이다. 공의 지킴이 이미 전고하여 은혜(恩惠)의 높음에도 조그맣도 그 뜻을 돌리지 아니하니 이로써 임금님의 성내심을 저축하여 충주 수의산 회문동(忠州 守義山 回文洞)에 안치하여 마침내 유환(宥還)치 못하고 세상을 마치시니 임금님이 처음은 그 명(命)을 거역함에 노하셨으니 되 마침내는 그의 의지를 아름답게 여겨 승록대부 좌찬성(崇祿大夫 左贊成)의 직을 주어 더러 내심이라. 대개 소명(召命)과 포증(褒贈) 음승(隆崇)하되 친히 써서 주심은 더욱이나 귀중(貴重)함이라. 그러므로 각을 지어

존만함이라. 각이 중간에 퇴폐되었다가 묘우를 지을 때 각을 다시 묘우(廟宇)결에
 세웠으니 고종 무진(高宗戊辰)에 묘우가 나라의 금함으로 인하여 철폐하는 동시에
 각(閣) 또한 따라 퇴폐되지 근백년(近百年)이나 되었는지라. 여러번 회복하기를 상
 의하다가 경년 갑진(頃年甲辰)년에 비로소 이뤄짐에 각(閣)의 제도는 옛전과 다름없
 으니 실제로 상철상헌(相哲相憲) 두분이 오랜 세월을 두고 버려들 것이나 하며 각
 의 뜰에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루할새 우정 진흥 보(宇楨 鎭洪 奎業甫)가
 와서 그 문자를 나한데 문자들 내가 생각하던대 공(公)이 일찍이 발탁(拔擢)을 입었
 다가 문득 국운(國運)의 다함을 만나매 만약 은혜의 명(命)이 내림이 없으면 비록
 대의(大義)를 지키고 자정함이 그 영종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금고에도 저해받지
 아니한 것을 충심과 절개로써 말미암아 알음이었을 것이니 어찌 각(閣)의 폐
 퇴됨을 그대로 임치하여 두고 흥복(興復)하지 않겠나. 후인 말하기를 공의 행적이
 선공의 흠절(欠節)에 보인다 하니 이는 그렇지 않음이다. 선공께서는 고려조에 신
 함이 없으니(臣下) 노릇도 않고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도 청백의 의논에 거동함의
 없었음이라. 공으로서도 그 처지의 자리 같지 않으니 능히 한길로 나아가지 못하리
 라. (세대 계열은) 증략함(명(銘)을 지어 가로되 새 조정에서 은지를 내리니 구름같
 은 문장이 영롱 찬란함이라. 옛 신하가 뜻을 지키니 풍절(風節)이 응승(隆崇)함이
 니라. 오직 지극한 보배만이 아니라 광채가 이러해 공까지 날아 환히 밝으리라.

천재(千載)로 상망하여 보면 나부의 충심도 적동하여 장려 하리라。(懦夫의 衷心도 激動하고 獎勵하리라)

갑진 모춘 서흥 김희달 삼가 찬함

진성 이관호 삼가 씀

어필각 이건기(御筆閣移建記)

어필각(御筆閣)은 지금의 이천시(利川市) 장호원읍(長湖院邑) 진암리(珍巖里)에 있었는데, 본시(本時) 이곳에 모신 왕지(王旨)는 조선조(朝鮮朝) 태종대왕(太宗大王)께서 우리 중시조(中始祖) 화원(花園) 여명(汝明) 선조(先祖)를 중(重)히 여겨 「가선대부검교한성윤집현전제학(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에 특명(特命)으로 부르신 어필(御筆)로서, 귀중(貴重)하게 보존(保存)하기 위해 갑진(甲辰)·一九六四年) 모춘(暮春)에 지은 각(閣)이었다.

화원(花園) 선조(先祖)는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갑인년(甲寅年)에 성균(成均) 생원(生員)으로 을과(乙科)에 올라 벼슬이 문하(門下) 주서(注書)였는데, 고려조(高麗朝)에 대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단심(丹心)으로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은

지(恩旨)을 받지 아니함으로 노(怒)하신 태종대왕(太宗大王)이 그를 충주(忠州) 회문동(回文洞) 수의산(守義山)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함으로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延命)하다 세상(世上)을 마치니, 대왕(大王)이 마침내는 화원(花園) 선조(先祖)의 충절(忠節)을 아름답게 여겨 「승록대부의정부좌찬성(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에 증직(贈職)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내심이라.

이와 같은 충의고신(忠義孤臣) 화원(花園) 선조(先祖)에게 하사(下賜)된 왕지(王旨)를 우리 후손(後孫)들이 귀하게 보존(保存)코저 상철(相哲) 상헌(相憲) 두 형제(兄弟)가 오랫동안 참판공(參判公) 종원(宗員)들과 상의(相議)하였고, 정진갑신(庚辰甲辰)에야 비로소 이루어져 각(閣)을 짓고 비석(碑石)을 세워 관리하여 왔었다. 그 후 관리(管理)가 소홀(疏忽)하고 종원(宗員)들 간의 구설(口舌)이 빈번(頻頻)하여 위 두 분의 종손(宗孫) 균필(均弼) 종원(宗員)이 수차 회문동(回文洞)으로 이건(移建)을 제안(提案)하여 대동종친회(大同宗親會) 결의(決議)로 복원추진위원회(復元推進委員會)가 구성되었고, 전국(全國) 종원(宗員)들이 헌성금(獻誠金)을 모아 충주시(忠州市) 신이면(新尼面) 문락리(文樂里)·회문동(回文洞) 화원(花園) 선조(先祖) 단소(壇所) 정내(境內) 신도비(神道碑) 옆에 새롭게 각(閣)을 옮겨 짓고 보덕(寶墨)을 영구(永久) 보존(保存)하도록 하였다.

기왕(既往)에 경상남도(慶尙南道) 창녕군(昌寧郡) 이방면(梨房面) 옥천리(玉泉里) 경의사(慶義祠) 어필각(御筆閣)에는 태조(太祖) 二年 계유년(癸酉年) 정월(正月) 초하루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동유형제의(同乳兄弟誼) 여산여해은(如山如海恩)」을 기려 화원(花園) 선조(先祖)의 선공(先公) 향산선조(香山先祖)에게 내리신 어필(御筆)과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왕지(王旨)가 같이 모셔져 내려왔음으로, 금번(今番) 회문동(回文洞)에 옮겨 짓는 어필각(御筆閣)에도 두 보묵(寶墨)을 나란히 보전(保傳)하는 사적(事績)을 행(行)하는 것은 우리 후손(後孫)들의 번영(繁榮)에는 이런 선조(先祖)들의 영광(榮光)이 있었음을 두루 알려 우리의 근본(根本)을 알게 하려 함이고, 이 소중(所重)한 가르침을 후손(後孫) 만대(萬代)에 영구(永久)히 전(傳)하는 것 또한 우리 당대(當代) 자손(子孫)들이 해야 할 의무(義務)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모든 후손(後孫)들이 열(熱)과 성(誠)을 다하여 향산(香山) 화원(花園) 두 분 선조(先祖)의 보묵(寶墨)을 받들어 모심에 있어 천지(天地)가 감동(感動)하고 사물(事物)이 감응(感應)하여 비바람과 미물(微物)에 의한 훼손(毀損)을 방지(防止)함으로써 여기 회문동(回文洞) 수의산(守義山)에 선조(先祖)의 영광(榮光)과 후손(後孫)의 번영(繁榮)이 영원(永遠)히 함께 하고자 함이다.

신묘년(辛卯年) 九月 중양절(重陽節)

후손(後孫) 호용(鎬容) 쓰고 복원공동추진위원장(復元共同推進委員長)

호근(鎬瑾) 대봉(大鳳)이 삼가 고(告)함

어필각 상량문(御筆閣上樑文)

오랜 세월(歲月)이 흘렀음에도 하늘에 뜻이 있고 조상(祖上)님들의 음덕(陰德)이 있어 조선(朝鮮) 태조대왕(太祖大王)과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어필(御筆)을 갈은 곳에 봉안(奉安)할 전각(殿閣)을 오늘 이곳 충주시(忠州市) 신이면(新尼面) 문락리(文樂里), 일찍이 화원선조(花園先祖)의 충절지심(忠節之心)을 기려 수의산(守義山)이라 일컬어지는 차의산록(車依山麓)에 세우게 되었음을 향산(香山) 화원(花園) 양위(兩位) 선조(先祖)님들께 아뢰게 되었나이다.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향산선조(香山先祖)에게 내리신 어필(御筆)·석천을(石天乙) 동유형제의(同乳兄弟誼) 여산여해은(如山如海恩)과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왕지(王旨)·석여명(石汝明) 가선대부검교한성윤집현전제학(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을 이곳에 나란히 모심에 있어 비록 두 분 선조(先祖)님의 광명(光名)에 비하면 너무나 비좁고 응졸(雍拙)하기 그지없사오나 저희 후손(後孫)들의 정성(精誠)과 노력(努力)을 모아 비

로 소 작은 각(閣)을 짓게 되었다.

터는 화원선조(花園先祖) 신도비(神道碑) 좌측에 잡고 후손(後孫)들의 뜻과 헌성(獻誠)을 모아 뛰어난 목공(木工) 장인(匠人)들의 도움과 모든 종친(宗親)들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하고 공리한 끝에 지금의 품새로 지어져 오늘날 상량(上樑)을 하게 되었다.

화원재(花園齋)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청룡(靑龍)이 내달리는 기세(氣勢)가 화원선조(花園先祖)의 문채(文彩)를 나타내듯 붉은 해가 금새 떠오르는 것 같아 외로운 충신(忠臣) 여명(汝明) 선조(先祖)의 인(仁)과 충(忠)이 거듭나는 모습이며, 개울 건너 서쪽의 백호지상(白虎之相)은 향산(香山) 선조(先祖)의 무용(武勇)과 의(義)와 효(孝)를 보는 듯하옵나이다.

남쪽으로 넉넉한 곡량(穀糧)을 거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어 저희들 후손(後孫)들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도 풍류(風流)롭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음덕지(陰德之地)로서 저희 후손들에게의 풍요(豐饒)로운 삶이 베풀어진 듯 느껴지며, 북쪽 단소(壇所) 뒤로 이어지는 수의산(守義山)의 빼어난 기상(氣象)이 하늘에 다다름을 보노라면 두분 대왕(大王)님과 향산(香山) 화원(花園) 양위분(兩位分) 조상(祖上)님들 사이 三代에 걸친 돈독(敦篤)한 우애(友愛)와 신의(信義)에

저희들 후손(後孫)들은 숙연(肅然)해 짐을 금할 수 없나이다.

우를 상량(上樑)을 올리게 됨으로써 양위분 유묵(遺墨)을 모시는 일을 중시삼아 우리 족친(族親)들이 더욱 좋은 말로 서로서로써 아껴 칭송(稱誦)하고 안으로 효도(孝道)하고 밖으로는 문중(門中)의 위상(位相)과 자공심(自矜心)을 드높이며 살아가도록 하여 천륜(天倫)의 기쁨을 더불어 나누면서 조상(祖上)을 더욱 견고(堅固)히 받들어 모시는 상징(象徵)의 곳이 되기를 원(願)하고 원(願)하나이다.

二〇一一年 辛卯年 중추(中秋)

후손(後孫) 만산(曼山) 대봉(大鳳) 아림

화원선생(花園先生) 증주석공(忠州石公) 어필비(御筆碑)

이전안치기(移轉安置記)

공(公)은 휘(諱)가 여명(汝明)이요 호(號)는 화원(花園)이다. 忠州洪州石氏 八世이다. 상장군(上將軍) 예성군(藥城君) 린(鄰)이 공(公)의 시조(始祖)이고 六世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양선(良善)이 조부(祖父)요 七世 홍성군(洪城君) 천을(天乙)

이 아버지이다。 고려말(高麗末)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여 문하주서(門下注書)로 봉직(奉職)중 왕조망업(王朝妄業)을 당하며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충절(忠節)로 사직(辭職)하고 후학(後學)을 양성(養成) 중에 태종(太宗)의 어필왕지(御筆王旨)로써 검교한성윤집현전제학(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을 제수(提受)받았으나 사의(辭意)하고 충주(忠州) 수의산(守義山)으로 들어가 초근목피(草根木皮)타가 졸(卒)하시니 애통(哀痛)하다。 後에 조정(朝廷)에서는 공(公)을 승록대부좌찬성(崇祿大夫左贊成)에 추봉(追封)하다。 후손(後孫)들이 그곳에 공(公)의 묘단(墓壇)과 齋室(재실)을 건립(建立)하고 每年 十月 초사흘에 제(祭)를 올린다。 공(公)의 역사(歷史)와 유족(遺跡) 충의(忠義)에 대하여는 유문(遺文)과 행장(行狀)등 여러 모양(模樣)의 기사(記事)들이 많으나 장호원 어필각(長湖院 御筆閣) 기록(記錄)은 이러하고 보수이전안치(補修移轉安置)에 즈음하여 함안문중의 현덕회장(咸安門中 鉉德會長)의 友인 경성대(慶星大) 한문학과(漢文學科) 정경주교수(鄭景柱教授)께 부탁하여 새로운 병서(竝書)를 얻었다。

화원석공 어필각비(花園石公 御筆閣碑)

화원선생 충주석공 어필각비명 병서(花園先生 忠州石公 御筆閣碑銘 竝書)

二〇一八年十二月

정성대(慶星大) 한문학과(漢文學科) 정경주교수(鄭景柱教授) 書

비각은 지금 이천군 장호원의 진암리에 있다. 전한(前韓)·조선(太宗)의 어필(御筆) 한 통을 보관하였는데 곧 화원선생 충주 석공에게 하사한 것이다. 대개 공은 고려 공민왕 갑인년(一三七四)에 성균생원(成均生員)으로 을과(乙科)에 올라 관직에 문하주서(門下注書)에 이르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전한(前韓) 태조가 천명을 받아 고려의 운이 끝나자, 공의 선공(先公)은 태조(太祖)와 이종형제인 인연으로 비로소 벼슬길에 나갔는데, 공은 스스로 고려조에 벼슬길에 나갔기에 망복(罔僕)의 뜻을 지켰다. 태종(太宗)이 즉위하자 평소 공을 중시하여 가선대부검교한성윤집현전제학(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을 없어 특별히 은혜로운 명을 내려 불렀으니 이것이 어필(御筆)을 하사한 이유이다.

공은 이미 의리를 굳게 지켜, 은혜로운 돌보심의 응송함에도 조금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이 때문에 사면 받지 못하고 생애를 마쳤다. 임금께서는 처음에는 비록 그 왕명에 거역한 데 노하였으나, 끝에는 그의 리를 지키는 뜻을 가상하게 여겨 승록대부좌찬성(崇祿大夫左贊成)의 관직을 증직하여 포상하였다. 대개 불려들인 왕명과 증직으로 포상한 것은 모두 특별한 은전이지만, 친히 신

한(宸翰: 왕의 글씨)을 내린 것은 더욱 귀중하기에, 이것이 각을 지어 존중하여 봉안한 이유이다. 어필각은 종간의 일찍이 무너졌으나, 뒤에 향사(享祀)를 거행함으로써 인하여 다시 묘우(廟宇)의 절에 복원하였다가 고종(高宗) 무진년(一八六八)에 묘우가 국가의 음령(禁令)으로 인하여 폐하게 되자, 어필각 또한 따라서 훼손되어 최근까지 백년이나 되었다. 그 사이 여러 번 다시 일찍이 키자도 모하다가, 지난 갑진년(一九六四)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져 어필각의 체제가 한결같이 그 예전대로 복구되었는데, 실로 상철(相哲) 상헌(相憲)씨가 여러 해 정영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고서 몇 년 만에 장차 어필각의 마당에 비석을 세워 그 일기를 서술하려고 우정(宇禎) 진홍(鎭洪) 규업(奎業)씨가 와서 그 비문을 나에게 청하였 다. 내가 생각건대 규업(奎業)의 발탁의 은혜를 입었기에, 예로든 왕명(王命)이 내 리는 일이 없었다면 비록 의리를 지켜 자정(自靖) 스스로 부수를 지킴)하였더라도 영예로운 은총에 흔들리거나 금니(禁錮)에 저지되지 않았던 정충(貞忠) 탁절(卓節)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니, 어찌 이 어필각을 폐기된 채로 그냥 두고 복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후자는 공의 선공(先公)께서 이미 한조(韓朝) 조선(朝鮮)에 벼슬 하러 나갔으니, 공의 사적을 드러내는 것이 선공의 절개의 흠을 드러내기 위함일 따지고 한다.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 선공께서는 이미 고려조에 신하가 되지

않았으니 비록 벼슬길에 나가더라도 공이 청의(淸議)에 비나받음 것이 없거나
와, 공에게 있어서의 처한 처지가 이미 절로 같지 않았으니 같은 길로 나갈 수
가 없었던 것이다.

살펴보건대 공의 휘(諱)는 여명(汝明)이요, 자(字)는 윤립(胤立)이다. 그 호 화
원(花園)은 송경(松京)의 자남산(子男山) 아래 화원(花園)에 살았으므로 일컬은 것
이다. 보계(譜系)는 충주(忠州) 석씨에서 나왔는데 뒤에 휘정(靖)과 휘달(璫)이
있어 모두 밀직제학(密直提學)이었고, 휘흥국(興國)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니
공의 그 조부이다. 증조부의 휘는 도(道)로 판결사(判決事) 쌍성총관(雙城總
管)이었고, 조부의 휘는 양선(良善)인데, 태조二年(937)에 홍양부원군
에 책봉되었고 배위 영흥최씨(永興崔氏)는 영창옹주(慶昌翁主)로 책봉되었으며,
고(考)의 휘는 천을(天乙)인데 조선에 벼슬하여 중랑장(中郎將)이 되었다. 대개
가문의 이미 훌륭하였으니 공이 전해 받들어 미더운 유래가 있거나와 세 아들을
두어 모두 현달(顯達)하여 문수(文守)는 예조참판(禮曹參判)이고, 문현(文賢)은 이
천현감(利川縣監)이고, 문성(文成)은 직제학이니, 또한 의방(義方)의 가정교육이
파급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명(銘)을 붙인다.

새 왕조에서 왕명을 내리고 은장(雲章)이 영릉(永陵)하였고 구 왕조의 신하 지조를

지켜 풍절(風節)이 융숭하였다. 지극한 보배의 광채가 공중에 치솟을 뿐 아니라. 생각건대 천년토록 후인 적려하리라.

一九六七年 丁未年 正月

서흥(瑞興) 김희달(金熙達) 근찬(謹撰)

세상(世上)과 환경(環境)이 바뀌어 주변(周邊)이 개발(開發)되고 후손(後孫)들이 미련(未練)하여 공(公)의 장막(帳幕)이 훼손(毀損)되어 비를 초야(草野)에 묻어 두고 十年 풍상(風霜)을 맞게 하였으니 후손(後孫)들은 차마 면목(面目)이 없다. 마침 二〇一八年 말경(末境)에 조상(祖上)의 은덕(恩德)과 공(公)의 계시(啓示)로 비석(碑石)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感謝)하고 다행(多幸)한 일이며 후손(後孫)들에게 위로(慰勞)가 아닌가. 천호 수석부회장(泉浩 首席副會長) 근호 화원재보존위원장(根浩 花園齋保存委員長) 균광 홍보(均光 弘報) 권균 사무총장(權均 事務總長)의 수고와 각 파종(派宗) 문중(門中)에서 정성(精誠)을 모아 두 차례(次例)에 걸쳐 상처(傷處)를 메우고 復元하여 二〇一一年에 미리 이 건준비(移建準備)해 둔 원래(原來)의 자리인 수의산 화원재 어필각(守義山 花園齋 御筆閣)에 안치(安置)하오니 공(公)께서 하해(河海) 같은 용서(容恕)로써 저희를 돌보소서. 또한 같은 날에 공(公)의 역사(歷史)인 왕지(王旨)를 충주시장(忠州市長) 및 관계자(關

係者) 박물관장(博物館長) 향사(鄕土) 유림(儒林)들과 우리 문중(門中)의 많은 종친(宗親)들이 참석(參席) 헌성(獻誠)하고 공중파방송(空中波放送) 三사가 증계(中繼)하는 가운데 향토 박물관(鄕土 博物館)에 기증(寄贈)하여 공(公)의 영광(榮光)을 높이고 석씨가문(石氏家門)의 전통(傳統)과 명예(名譽)를 널리 알렸다.

二〇一九年 己亥年 하절(夏節)에

忠州洪州石氏 二十九世 준호(俊昊) 근찬(謹撰)

花園齋記文

昔在麗氏之亡而鮮朝之興也忠義之士矢志罔僕者或殺身而成仁或隱遯而自靖其跡雖殊其義一也如世稱杜門諸賢者實爲東方之伯夷而其外之或雖名不列於其間而實同其義者亦多其人則豈可以跡之顯晦有所差殊觀耶于時有門下注書花園先生石公諱汝明嘗與桑村金公自粹爲同榜同志而屋社之後又同其守義 太宗累以親書授以檢校漢城尹而召之終不應 太宗怒其拒命遂安置于忠州以卒至今名其所居山曰守義者以其爲公守義畢命地也後有左贊之贈者所以褒其義也惟衣履之藏世久失守則

子姓設壇於其山以奉歲一之享而又築齋其下爲齊明之所以公之扁號揭之以花園者所以寓羹墻之思也以舊未有記其事者其宗任一楨以闔宗意謁余文爲記且曰公之遺蹟世久多散佚不能無杞宋之歎而惟 太宗親書者至今尚傳於家是亦足以徵矣但稱述文字及時多未備殆將泯泯矣則是所恨也願有以發揮也余謂公之不貳之節卽杜門諸賢之義而至其竄謫而不悔則又諸賢之所無也豈不偉哉惟當日諸賢所守之義則同而或名顯於當世或沈泯而無傳者不能無異則是固可慨也然自古忠臣義士只求其心之所安而非以爲名則名之顯晦不足爲輕重况公之義之可徵者有宸翰之傳褒贈之典則不患其不顯也稱述之無多又何足多恨哉惟以是揭諸楣而寓仰止思所以嗣守無忝者是爲子姓之責而不可不知也是爲記

歲庚申陽復節花山權龍鉉記

화원재 기문

옛적 고려(高麗)가 망(亡)하고 선한(鮮韓)의 조정이 일어남에 충정절의 의로운 인사가 망복을 [忠臣義士의 罔僕之心을] 맹서하는 이가 후 살신성인(殺身成仁) 함도 있고 후은 뒤로 피하는 이도 있으니 그 자체는 비록 다름망정 그의 절망의 동은 함이라.

마치 세상에 일컬은바 두문(杜門)동 제현(諸賢)이 동구의 백이 숙제이고 그 밖에도
 후 이름은 칠십이 현중에 참열이 안되었으니 실제로 그 충의만은 동일한 사람이 많
 은즉 어찌 가이 자취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음으로서 차등으로 볼 바가 있겠는
 가. 그 때에 문하 주서 화원선생 석공(門下 註書 花園先生 石公)의 휘여명(汝明)
 이 있어 일찍이 상촌 김공 자수(桑村 金公 自粹)로 도우려 동방동지(同榜同志)가 되
 었고 나라 복조가 읍김에 또한 그의 절(義節) 지킴을 같이 함에 태종이 여러번 친
 서를 써서 검교 한성윤(檢校 漢城尹)을 주어 부르시되 마침내 불응(不應)하니 태종
 (太宗)이 그 명(命)을 함거함에 노하여 드디어 충주(忠州)에 안치(安置)시키시어 일
 생(一生)을 마치시니 지금까지 공(公)이 계시던 산이름을 수의산(守義山)이라 함은
 공의 의절(義節)을 지키며 여생(餘生)을 바쳤다 함이니라. 뒤에 좌찬성(左贊成)의
 지품을 내리심으로서 그의 절(義節)을 표현 바이라. 오직 그 옷과 신발을 가진한
 자리가 대수(代數)가 오래도록 지킴을 이뤘음에 후손(後孫)들이 그 산(山)에 단(壇)
 을 베풀고 해마다 한번씩 향례를 받들고 또한 그 아래 재실(齋) 지어 재계하는 바
 를 하고 공의 號로써 현판하여 화원재(花園齋)라 함은 개장(羹牆)의 생각을 부친바
 라. 옛적에 그 사실을 기록한 이가 없으므로 그 종임(宗任) 일절(宗任) 一楨(이 온 일)가
 의 의사(意思)로 나에게 기문하기로 청하고 또한 말하기를 공의 유적이 대가 오래
 되어 흠어지기만 하여 그 기송(杞宋)의 한탄이 능히 없지 아니하되 오직 태종(太宗)

의 친서(親書)가 지금까지 집에 전하니 이것이 족히 증거가 될까。 다만 칭술문자(稱述文字)가 미비함이 많아 장차 빠짐이 되면 이것이 한이 될 바이다。 발휘(發揮)함이 있었음을 원함이다。 내가 이르기를 공(公)의 한철갈(汗)은 절개는 곧 두문동(두문어지신)과 아들과 동일(同一)한 의견(意見)이요, 그가 귀양을 감에 있어 뒤우치지 아니하심이니 또한 두문동의 예 없느니라 어찌 거룩하고 장하지 않느냐。 오직 당일의 모든 어진 이와 지키는 의절만(義節)과 동일(同一)하되 후 이름이 당세에 드러나고 후 침민(沈泯)하여 전(傳)함이 없느니라 능히 다름이 없지는 아니하니 진실로 가이 개탄이 되나마 옛적으로부터 충신(忠臣)의 사(士)가 자못 그 마음에 편할바만 구하고서 명의를 위함이 아니나 만(萬)명의 의(義) 원(元)물(勿)로 추(追)히 영(永)종(宗)이 되지 않(不)을 것이요, 하물며 공(公)의 의절(義節)이 가히 증거됨이니 어필의 전함과 포증(褒贈)의 전칙(典則)이 있으니 그보다 나지 않(不)음을 그 심할 것이 아니라 칭술(稱述)의 마음이 없다하여 어찌 족히 많(多)리나 그 심(心)을 하(何)리요。 이로써 미안(愧)에 걸(걸)고 우러러 생각함에 부처(佛) 이어 지킴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이가 후손의 책임이 됨을 가히 잊지 못하리라。 이로써 기록함 이니라。

정신년 구월

화산 권룡현 씀

花園齋上樑文

先祖有日星炳然之節樹百世風聲
後孫寓羹墻愛如之誠築數間齋舍

功成不日
事待有時

恭惟花園先生石公

高麗注書 生
藥城華胄 長

而穎悟稟淑氣於地靈
而義忠順良知於天賦

與桑村而同榜登第聲名已重於英齡
聯治隱而清班比肩道義相劇於平日

迨李朝之昇奠 志在
注麗運之不來 事何

致君澤民置國家於盤石
反經逆理見宗社之丘墟

杜門洞星辰與諸賢相別
萬壽山月夜携家屬偕亡

太宗有知以親書而命召 朝廷
罔僕矢志牢關扃而不應 先生

怒拒其徵遂安置於忠邑
益堅其節竟賤死於藥城

時人景仰高風名其畢命之山曰守義
後王褒彰貞節贈其崇秩之職曰贊成

在邦典樹之名教
凡民彝好是懿德

口碑如昨何恨稱述無多
宸翰傳今尚能文獻有證

惟斧堂失守嘆無今世深目紫髯
奉香火綠由恨切後仍誠心丹血

乃設壇於遺躅行歲時之
又築齋於前基為齊宿之

虔 山呈祥而水毓秀何年秘蓄翳之區
所 士敦事而工獻圖不日成輪奐之室

雲車來往神理攸安
世人觀瞻輿情允愜

英靈如在想高標於當
禮度無愆振嚴模於後

年 亂臣賊子聞之足以沮喪 脩樑將舉 拋樑東 扶桑旭日升天赤
日 墨客騷人過者莫不咏嘆 偉唱斯陳 茫茫蒼海接青空 正似孤忠一片衷

拋樑西

身死百番那可忘

拋樑南

先生心事澄如許

拋樑北

舊國松京在彼西

與同魂夢往來捷

青天明月照清潭

俯仰乾坤無羞慚

義山秀

至今高景風猷存

拋樑上

千秋人紀賴維持

拋樑下

色叅天極

觀感襲芬宜勉力

神氣洋洋如在像

嗟我後來疇不仰

無邊禾黍登平

野 雲仍歲歲享薦時 各盡精誠供盛飴

伏願上樑之後

地靈蔭護 門祚熾昌

惟義惟忠無忝祖 先崇高之節 曰詩曰禮多得家世 紹述之賢

癸亥季春碧珍孝興中謹撰

화원재 사랑문

선조(先祖)께서 일성(日星)같은 절개가 있어 백세(百世)의 풍성을 심고 후손이 개
장(羹牆)의 애연한 정성을 불여 수가(數間)의 재사(齋舍)를 지음이라. 공이(功)이
름이(名) 날이 속하고 일이 때있음을 기다림이라 공손히 생각건대 화원선생 석공(花園
先生石公)은 고려주서(高麗註書)요 예성의 화주(華胄)에 나시어(出生해서) 영유하여

숙기를 지령에 품수(稟受)하였고 장성함에 의충(義忠)하여 양지(良知)를 천부(天賦)에 순수(順受)하였다. 상촌(桑村)으로 더불어 동방(同榜)에 문과(文科)로 명성(名聲)이 이미 소년 시절부터 높으시고 약은(冶隱)과 함께 어깨로 전자(道義)로서로 평일(平日)에 탁마(琢磨)함이라. 이조의 등극(登極)만은 여조의 윤이 다함이라. 뜻이 치군택민(致君澤民)에 있어 국가를 반석(盤石)에 두고 일이 어찌 대경대의(大經大의)에 어긋남이며 종사(宗社)의 구허(丘墟)를 들이리오. 두문동(두문동) 새벽밤에 제현을 더불어 상별(相別)하고 만수산(萬壽山) 달밤에 가족(家屬)을 이끌어 한가지 도망함이라. 태종이 알음이 있어 친서(親書)로서 불으시되 망복(罔僕)의 뜻을 맹서하여 바라 지문(연문)을 글게 잠그시고 응하지 아니함이라. 조정에서 그 부름에 항거함을 성내어(怒하여) 드디어 충주(忠州)에 안치(安置)를 하였고 선생(先生)이 더욱 그 절개(節介)를 글게 하여 마침내 죽음을 예성(藥城)에서 친히 마쳤다. 시인(詩人)이 고풍(高風)을 경앙(景仰)하여 終身한 山을 名하여 수의산(守義山)이라 하고 뒤 임금 이공은 절개를 표창하여 직품(職品)을 승진(昇進)시켜 찬성(贊成)이라 함이라. 나라 법전에 있어 명교(名敎)를 심이고 무릇 백성에 이룬(彝倫)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다 구비(口碑)가 어제 같음에 어찌 칭송이 많지 않음을 한하며(稱述)이 없다 恨하리오(임금의 친서(親書)가 지금에 전(傳)함이 오히려 문헌(文獻)에 증거함이 있음이라. 오직 분묘(墳墓)를 수호(守護)함에 이르매 이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이 없으

니 한탄이요, 향화 받음이 연유가 있었음에 한이 후손들의 성심 단혈(丹血)이 가절함
 이라. 이에 다음을 유추지에 베풀어 세시(歲時)의 정성(精誠)을 행하고 또한 재실(齋
 室)을 옛터에 세워 제숙의 장소함이라. 산이 상서를 올리고 물이 유수함에 어떤
 해에 이 좋은 지역(地域)을 비추하였으며 선배가 일들을 돈독케 하시고 공인의 현도하여
 속한 날에 운환(輪奐) 지엄을 일음이라. 운차(雲車)가 내왕(來往)함에 신리의 편의한
 바요, 세인이 관참(觀瞻)을 함에 인정에 운협(允愜)함이라. 영영(英英)케 신덕함에
 높고 거동의 다년(多年)을 생각하되 예도(禮度)가 어스남이 없음이 엄정(嚴正)한 규
 模(模) 후일에 떨침이라.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들으면 죽어서 기백을 이을터요,
 묵객소인(墨客騷人)의 지낸 자가 영탄(詠嘆)하지 않음이 없음이라. 양송(樑頌)
 을 들어 위창(偉唱)을 이에 베풀음이어. 포량동하니 망망창해(茫茫蒼海)가 푸른 하
 늘에 달히더라. 부상(扶桑)의 아침날이 하늘에 올라 불그스름이 정히 외로운 충신(忠
 臣) 한조각 단종(丹衷)과 같이라. 포량서하니 옛나라 송도 서울이 서쪽에 있었음의
 라. 봄이 한백면 죽더라도 어찌 있어 질것인가. 훈몽(訓蒙)을 더불어 왕래함이 있디
 라. 포량남하니 푸른 하늘 밝히 달이 맑은 못에 비침이라. 선생(先生)의 심사(心
 事)가 맑기가 이와 같으니 건곤(乾坤)의 부양(俯仰)을 함에 부끄러움이 없음이라.
 포량북하니 수의산(守義山) 빼어난 빛이 하늘에 다다랐더라. 지금에 이르러 경양
 (景仰)을 함에 풍류(風流)가 있으니 관감습분(觀感襲芬)이 마땅히 힘들을 쓰지어다.

포량상하니 신기(神氣)가 양순하여 잇는 듯한 기상(氣象)이더라. 천추(千秋) 사람이 의 기강을 힘입어 유지를 하니 슬프다. 우리 뒷사람이 누가 우러러 보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포량하하니 갖이 없는 화서(禾黍)가 평야(平野)에 올랐네. 자손들이 해마다 세사시(歲祀時) 각각 정성을 다하여 성찬을 받치니라. 복원 상량뒤에 지령(地靈)이 음호하고 문조(門祚)가 치상하여 오직 이와 같이 충성하여 조선이 숭고한 절개를 더럽힘이 없고 시와 예대로 말하니 가세의 소슬한 어진 언음을 원하고 원한 바이다.

계해 계춘 벽진 이흥중 근찬

通訓大夫陽城縣監石公墓碣銘 并序

故通訓大夫行陽城縣監兼水原鎮管兵馬節制度尉石公諱岈其先忠州人自中世居利川郡之長湖院邑珍岩里里之松岱谷負亥而雙封畢如者卽其衣履之藏而淑人全氏附焉元有數尺短碣而至今勦泐後孫相憲君謀於諸族將伐珉改豎更懲其辭于余舊碣旣不可識而家藏文蹟亦委灰燼於是只據可徵者而書之曰公以 成宗辛卯六月十日生負氣軒昂接物寬洪有大人器度用蔭途起家出知陽城縣監時年三十五盡心字牧化行

俗移民懷其惠比其去而立石以頌功德自後家食優遊三十有年至 中宗丙申享年六十六而竟卒于十二月三日噫公之才略既著於治縣自是階陞進而亨途方啓乃未及強仕之年而卷懷潛藏未能盡宣其利民澤物之効而終老林下是可慨也然古之尚論者必論其世公之出仕當燕山昏朝其莅陽城在甲子年間而適丁士禍之熾烈今距公雖遠據其世而究其去就可知其所處之義豈非所謂旣明且哲以保其身者歟石氏本中國人高麗 毅宗時宋工部尚書鄰始東來仕至上將軍以功封藥城君藥城卽忠州後有曰良善洪陽府院君其配永興崔氏慶昌翁主曰汝明號花園以麗朝注書矢志罔僕我 太宗特下 恩旨徵以集賢殿提學煌煌 御筆奉安於長湖院 御筆閣及卒褒其忠 贈左贊成是生文守禮曹叅判於公四世曾祖曰正鑑定州牧使祖曰擎白進士考曰環護義興衛軍妣慶州李氏士人德滿女配全淑人旌善人聖德女二子曰崇仁崇義崇仁一男嶺叅奉絕嗣崇義二男懷琛訓導襲奉宗祀懷瑾檢律曾玄以降漸致繁昌至今分奠列邑各成門閨人謂公之遺蔭所暨云爲之銘曰

簿試牛刀將展驥足遭時之枳遺榮遠辱自樂閒放永矢弗告爲鑱我辭以警澆俗道州金弼鎬謹撰

禮曹 受教(護聖公事實)

禮曹爲謄給事丙辰八月十九日禮曹判書臣閔鍾顯 入侍時 下教曰
宣廟朝壬辰 聖廟功臣石鑑天壽扶三綱於鋒鏑之下抱
五聖於烈焰之中其血誠大義昭乎日月崑乎泰山其功也盛矣今次石鑑天壽之功與他
勲臣自別今該曹各別申飭 聖廟功臣石鑑天壽之後裔東西斑叙用而雖遐方賤庶良
置勿侵軍役之意 聖教如是嚴峻是白置道臣守令各別惕念 奉教施行爲乎矣如此
受教之後復踵前習或侵軍丁等事呼冤京司則道臣爲先推考是遣守令罷職斷不饒貸
另念舉行爲乎矣近來人心日乖風化漸頹官吏弄法忠勲節義之子孫勒侵新役未蒙
聖允不能支撐則尊賢賞仁之 教褒忠獎義之 恩何謂金石之典乎此棠守令等不勤
奉教之致君臣之道果何如哉此後段乙良謹奉 聖上褒仁獎義之盛典 聖廟功臣石
鑑天壽後孫無論嫡孫支庶雖至百世勿役軍保雜役事嚴明申飭惟我 聖上報功之德
至大至重之意奉審施行爲如良

兵曹 受教

兵曹爲依 受教考準謄給事天下之義莫大於君臣天下之教莫大乎 孔孟無義無忠
 則君不君臣不臣也無教無化則人不人國不國矣然則義國之大源教化人之綱領然而
 雖操學識理之士臨危險難則爲其全體保妻子之計後爲其主者何謂忠義歟固知飭行
 外面者也奮拔挺立知其君父而不知有其身知國家之安危而不知其身之有禍福甘心
 折首而卒乃保主者出於本心之所由此誠忠義之士也是故爲功爲法於後世莫善於祖
 宗有斯文莫善於先賢其功也盛矣故報功之典蔭及後裔其功善也惟我 宣廟朝當壬
 辰亂兵燹搶揚州郡村閭盡入灰燼則忠州士人石鑑天壽蹈刃冒焰抱 五聖位版匿於
 心項山古寺昇平後還爲奉案則其豐功偉烈卓卓於當代大義芳名炳炳於後世則蔭及
 子孫百世可宥與天地同盟是白置石鑑天壽之後裔東西班叙用而雖殘孫賤庶並只勿
 侵軍保之意 聖教丁寧如是乎依 受教施行爲乎矣今虬獨扶綱常功蓋我東天理復
 明文風大興是去乙其子孫輪番宿衛不敢閑遊者豈不寃乎春兩潤木自根滋榮 聖人
 崇德念先卹後恩莫重於 聖典功莫重於後昆是去乎近來道臣守令不遵 聖教勲臣
 節義之子孫勒侵雜役心甚慨然分叱除良帶勵神盟昭載國乘而 聖教若是嚴截則石

鑑天壽之子孫雖殘孫賤庶並只勿定軍保而東西班叙用事既蒙 聖允是白置褒功賞賢之德至大至重自今以後敬奉 聖旨七般之勿侵事依 受教施行爲如良

護聖祠告由文

往在龍蛇狂胡搶入狼奔豕突烈火四急大東州郡三百六十灰燹之慘靡所不及巍巍聖廟舉被凶鋒保護神位獨有我忠維忠人士忘念厥功維石二公維公叔侄一門併挺處雖閒士義則素秉主屹失守賊奴攔境膏山血海維殺是逞憐鋒虐焰至及校宮簇刃如霜漲火連空猗歟石公血憤弼中挺身痛哭以死相從爲夫子死死亦有榮赴火蹈刃遑恤其生迺護祠版背負手擎郡胡環立氣沮色驚萬古斯文擔在身上鄒魯日月廓然昭朗心項古寺旣潔且爽門墻刊侍儼若亟丈旣奉旣安不震不驚晨夜守護一心虔誠狂氛旣掃文廟重營寔奉以還厥功用成義重忘生功存護聖風聲永垂士林相慶州郡申聞貽贈有命凡在儒冠孰不欽敬世代寢遠義烈愈彰春秋舍菜矜紳盈堂有恤聖廟俎豆孔將維公之功曷云其忘衛 聖之忠昭人耳目立祠泮水芬苾有馥義在報施樹風旌淑闕典未舉嗟我州人士夫齊聲旣謀旣詢如欲永酬宜饗厥神州庠之測爰剏新祠堂宇旣淨丹雘相輝日

既卜吉享亦有儀齋生并萃肅然興思吁嗟慕 聖民彝所同維公卓節維義與忠凜凜烈
風百世聞風禮有斟酌報宜加隆

충주 호성사 고구암

옛적 임란에 강호가 창립함에 열화가 급한지라。 대동주군 三百六十의 회선(恢
燹)한 참변이 곳곳에 미친지라。 외외(巍巍)한 성묘가 다 흉봉(凶鋒)을 임은지라 신
위를 보호함이 오직 우리 충주에 있느니라。 충주의 인사가 그 공을 잊을 수가 없
어서 석씨의 이공이 일문에서 한 가지 남이라。 처지는 비록 한가하나의(義)인즉
큼이라 군수(郡守)가 지키지 못함에 적노(賊奴)가 사경에 피담함이라。 산과 들이
피바다가 됨에 잠봉학도(潛鋒虐焰)이 교궁(校宮)에까지 미친지라。 화살과 칼날이
서로 갖고 모진 불이 공중에 연한지라。 장한 선공의 몸을 날려 통곡하여 죽음도
뜻없음이라。 부자를 위해 죽으면 죽음이 또한 영화가 있었음이라。 불에 달고 칼날로
밟아 그 생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판(祠版)을 옹호하여 등에 지고 손을 받들어
만고사문(萬古斯文)이 부담 신상에 있고 추로일월(鄒魯日月)이 광연(廓然)이 받들어
심항고사(心項古寺)에 정결(精潔)함이라。 임이 받들고 임이 평안함이 불진불경(不
震不驚)하더라。 신야(晨夜)로 수호(守護)하여 일심(一心)으로 정성을 들임이라。

광분(狂氛)을 임(旣)이 실(掃)매 문묘를 거듭 경영함이라. 이에 받들어서 돌아오매 그 공이 대단함이라. 의(義)가 무겁고 공(功)이 호성(護聖)한데 있어 풍성(風聲)을 길유니 사람(士林)이 상경(相慶)하더라. 주군이 정소를 하니 증직의 명이 있었음이라. 우리 사람들이 누가 흠정(欽敬) 아니할까. 세대(世代)가 침원(寢寢)함에 의열(義烈)이 더욱 빛남이라. 춘추사채(春秋舍菜)에 응신(矜紳)이 영당(盈堂)함이라. 그 성묘(聖廟)에 조두(俎豆)를 잠음에 공(公)의 그 공(功)을 어찌 있었는가. 위성지충(衛聖之忠)은 사람의 이목에 소연(昭然)함이라. 반수(泮水)에 사당(祠堂)을 세워 분필(芬苾)이 향기가 있었음이라. 의(義)는 보시(報施)한데 있고 바람을 심음이 정수(淸水)에 있었거늘 포전을 들지 아니하니 차아주인(嗟我州人)이 사부제성(士夫齊聲)에 기모기순(既謀既詢)이라. 마땅히 그 신(神)을 향(饗)할 것이니라. 이에 세 사당(祠堂)을 창건(創建)하여 단학이 서로 빛남이라. 종은 날을 택하여 또한 예의(禮義)가 있었음이라.

우직(五職)의 높으니 절개는 의(義)와 충성(忠誠)이라. 늠름(凜凜)한 열풍(烈風)은 백세(百歲)의 문풍(聞風)함이라. 예(禮)가 짐작(斟酌)함이 있었음에 값음이 마땅히 더 높음이라.

通政大夫忠州石公墓碣銘

公諱壽命字麟瑞姓石氏貫忠州而家懷德自大父以來世爲獨子又艱於衣食而至公之世有所成立致富累巨萬人稱其居村楸洞曰石崇金谷而後有捨文就武者不安厥居又徙沃川五垞里而其號則隨稱焉庚戌國耻後政籍該五垞里洞守誤以石城入記子孫仍襲未革其衰替不振可知矣今其後孫方治貞珉將豎于阡道九世孫明奉奉忠州舊譜而請文於余余在同宗誼不敢辭遂銓次世系如左惟我石氏遠有代序聖門高弟成紀侯作蜀之後有諱鄰避遼金來東仕高麗明宗十七年討平趙位寵亂於西京(至今清州)升上將軍食采藥城卽忠州子姓仍貫焉連世簪組入鮮洪陽府院君諱良善配慶昌翁主永興崔氏爲韓太祖從母而兼有乳養功故夫婦俱膺異數特蒙封爵之典又覃恩於其子中郎將 諱天乙封洪城君生諱汝明以恭愍朝文科注書矢志罔僕牢拒太宗親書召喚竟遭譴斥而卒于忠州守義山配所後有諱鑑壬燹負五聖位板入心項寺避亂旣靖贈兵叅享護聖祠於間公七代曾祖曰得國祖曰萬哲考曰重玉妣曰綾城具氏公生于甲子正月九日卒于庚午十月一日距其生甲子享六十七受通政啣而自不居卒葬于懷德開物山甲原配淑夫人漢陽趙氏生丁卯卒壬申祔同原一子曰道圭秉節校尉一孫曰東淳嘉善曾

孫曰相宗相春相培向下不錄公之事行必有可書者多而世遠莫徵可恨也已繼之爲銘
曰

開物有封其崇四尺在忠爲忠居德尚德片石堪語不磨不泐

壬戌菊秋宗人宇楨撰

통정대부 충주석공의 묘갈명

공의 휘는 수명(壽命)이요 자는 린서(麟瑞)요 성은 석씨(石氏)요 관은 충주(貫은
忠州)이며 집(家)은 회덕(懷德)이라. 할아버님으로부터 대대로 독자(獨子)가 되고
또 의식(衣食)에 곤란(困難)하였는데 공(公)의 대에 이르러 성립(成立)한바 있어 치
부루거만(致富累巨萬)하니 사람이 사는 마을을 추동이라 일컬어 가로대 석송(石松)곡
(石崇金谷)이라 하였으나 후에 글(文)은 버리고 무(武)에 나간자 있어 그 마을을 편
하게 여기지 않고 또 옥천(沃川) 오대리(五岱里)로 옮기되 그 호를 따라서 일컬음이
니라. 경술국치(庚戌國恥) 후(後) 개적(改籍)을 함에 해오대리 동수가 석성으로 그
릇되게 입기하였으니 자손이 인습하고 미혁(未革)하니 그 쇠체부진(衰替不振)함을
가히 알 것이라. 이제 그 후손(後孫)이 좋은 돌을 다스려 묘(墓)에 세울 제 구세손
명봉(明奉)이 충주 구보를 받들어 나에게 글을 청하기를 내가 동종에 있어 의로 감

히 사양하지 못하고 드디어 세계 전차(銓次)함을 여좌(如左)하니 오직 우리 석씨가
 멀리 세대가 있어 성문(聖門)의 고제 성기(高弟 成紀) 후 작축(作蜀) 지후에 휘린(諱
 鄰)이 있어 오금(遼金)을 피하여 동(東)에와 고려(高麗)에 벼슬하고 명종(明宗) 십칠
 년에 조위총난(趙位寵亂)을 토평함으로 상장군에 오르고 예성윤식채(藥城尹食采)하
 니 곧 충주라. 자손이 인하여 관향(貫鄉)을 하고 연세(連世)로 잠조(簪組)요, 조선
 (朝鮮)에 들어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휘(諱) 양선(良善) 배경창응주 영응최씨(永興
 崔氏)가 한태조(韓太祖)의 종모(從母)가 되고 겸하여 유양(乳養)의 공(功)이 있음으
 로 부부가 함께 이수(異數)를 응하여 특별히 봉작(封爵)의 전(典)을 입히고 그 아들
 중랑장(中郎將) 휘 천을(天乙) 홍성군이요 휘 여명(汝明)은 공민조문과주서(恭愍朝
 文科注書)로서 망복(罔僕)하여 태종의 친서소환(親書召還)에 굳게 항거(抗拒)하여
 마침내 견척(謹斥)함을 만나 충주수의산배소(忠州守義山配所)에서 졸(卒)하다. 뒤
 에 휘 감(鑑)이 있으니 임란(壬亂)에 오성위판(五聖位版)을 지고 심항사(心項寺)에
 들어 피난하여 난이 이미 정함에 병참(兵叅)을 증(贈)하고 호성사(護聖寺)에 향(享)
 하니 공의 칠대조라. 증조 휘는 득국이요, 조휘는 만철이요, 고휘는 증응이요, 비
 는 응성우씨라. 공이 감사정월(通政職啣)을 받았으니 스스로 거하지 아니하고 졸함의 회덕개불산
 이라. 통정직함(通政職啣)을 받았으니 스스로 거하지 아니하고 졸함의 회덕개불산
 감사에 장사하다. 배수부인 한양조씨는 정묘에 생하고 임신에 졸하니 동원(同原)

에 부하였느니라。 일자(一子)는 도유(道圭)니 병절교위(秉節校尉)요 일손은 동손이
 니 가선(嘉善)이요 증손은 상종 상춘 상배요 이하는 기록치 아니한다。 공의 사행
 (事行)이 반드시 쓸만한 자료가 많을 것으로되 대가 멀어 증거하지 못하니 가희한
 이 되는 바이라。 이에 명하여 가로되 개물산에 봉함의 있으니 그 높이가 넘자가
 된다。 충주에 있어서는 충을 다하고 회덕에 거하여서는 덕을 숭상하였느니라。 조
 약들이 능히 말을 하니 갈리지도 앎이며 녹지도 앎할 것이니라。

임술 극추 종인 우정찬

學生忠州石公諱南鶴墓表

天安族在成董其門內諸族治一貞珉而將表其八代祖學生公墓越七百里而訪余於密
 陽之田舍求文曰吾祖之世今爲數百年之久遠無文字之可徵只有澹泊寧靜無傳來之
 逸話而已願籍而發揮也余與在成在畿湖諸族中相愛特深誼不可辭其請遂詮次諱字
 世系葬配子孫如左而俾刻之其諱曰南鶴字曰雲鶴姓曰石氏系出忠州以高麗上將軍
 藥城君諱鄰爲上祖連世簪組至門下注書諱汝明麗亡守罔僕義拒韓太宗親書召命竟

遭譴斥而卒後有曰岍官陽城縣監於公間七代曾祖曰天柱祖曰景星皇考曰東點皆隱德不仕妣曰慶州崔氏葬曰天安郡稷山面三韓里子穴配曰慶州金氏二男曰思珥思壽四孫曰載仁載義載先載溢向下不盡載今其六七世子孫繁盛彌滿一術而皆穩當守分可知其承襲之有自也

族裔 宇楨 撰

학생 충주석공 휘 남학 묘표

천안의 일족 재성이 그 문내 제족을 동족하여 종은 비석을 잘 갈아서 장차 그 팔대조 학생공 묘소에 포석할새 멀리 七百里(里) 도정(途程)을 너머 나를 밀양전사(密陽田舍)에 찾아와서 묘문(墓文)을 구하여 가라되 오조(吾祖)의 세상이 이제 수백년의 구원(久遠)함이 되어 문자(文字)의 가징(可徵)할바 없고 다만 담박영정이란 일화(逸話)가 전하여 올 따름이니 원컨대 이 말로써 발회하라 하기에 내가 재성을 도우려 기호제족중(畿湖諸族中)에 있어 상애(相愛)함이 특별(特別)히 깊으니 내가 감히 그 칭함을 사양치 못하여 드디어 휘(諱)와 자(字)와 세계(世系)와 장지(葬地)와 배위(配位)와 자손을 좌(左)와 같이 전차하여금 사기를 기하니 그 휘는 가로되 남학(南鶴)이요 자는 가로되 운학(雲鶴)이요 성은 가로되 석(石)씨요 관향은 충주(忠州)이

니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 휘인으로 상조로 삼고 대로연하여 잠조이요, 문하주서 휘여명(汝明)에 이르러 망복에 의(義)를 지키게 한 태종의 친서 소명(召命)을 향거 하여 마침내 천천함을 만나 돌아가지고 뒤에 양성현감(陽城縣監) 휘완이 공(公)의 칠대(七代)요 증조는 천주(天柱)요 조는 경성(景星)이요 황고는 동점(東點)이시니 다 은득 불사하셨다. 어머님은 가라되 경주최씨요 자지는 천월군 직산면 삼한리 자현 리요, 배위는 경주김씨(慶州金氏)요 이남(二男)은 사이사수요 사손(四孫)은 재인 재 의 재성 재일이요 향하는 다 기록치 않는다. 이제 육칠세에 자손(子孫)이 번성하여 한동리에 가득하고 다 온당하여 분위를 지키니 가이 그 습승(襲承)의 유래를 알 수 있음이다.

족예 우정은 삼가 씀

恐

鑑伏以夫旌善樹風 國家之盛典也闡幽揚美鄉曲之公議故生等齊聲仰籲於鈴閣之下勿以僭妄而罪之使鄉曲愚迷之大得蒙褒揚幽沉之行一以光明察之德一以振頹弊之俗焉今本郡南應川居五衛將石雲龍之妻義城金氏素以寒微之人居於草野之間

別無姆教之禮法然自在齟齬之年厥有殊異之行一動一靜無不合於古女士懿行及其適人之時克盡爲婦之道故法家婦女一見其容貌一聞其言語莫不敬歎禮而待之此所謂林藪雖簿或有猗猗菹澤雖淺亦有蛟龍者也不幸今年遭其夫終命之日斷指流血半嚮甦生天命難避奄及喪葬侍奠之禮哭踊之哀聞人莫不感歎而流涕雖西周之崩城東漢之伏釵無踰於此也縱有卓異之行獨漏於

觀察之下故生等敢陳有懷無隱之義伏望

巡相閣下 特軫揚美之澤使此殊異之行無至湮沒之地敢單

癸卯十二月十七日幼學 鄭源永 郭在東 金德鉉 鄭龍采

李相敦 任百珣 琴鳳洙 郭鎮冀

朴文鉉 鄭泰一 黃基百 李成夏

郭鎮道 黃奎錫 權鍾元 鄭燦一

朴春榮 全禮漢 等

열부지이다

유천 유생들은 단자(單子)를 올려 대개 정선 수품은 국가(國家)의 성전(盛典)이

요·천유양미는 향곡(鄉曲)의 공의(公議)라. 고로 생등(生等)이 제성(齊聲)하여 영
 합아래 고후유니 참망(僭妄)함으로써 죄(罪)를 주지마시고 향곡의 우매(愚昧)한 사
 람으로 하여금 유침(幽沉)한 행실을 포양(褒揚)함을 얻음이니 하나는서 명찰(明察)한
 덕이 빛나고 또한 퇴폐(頹廢)의 풍속(風俗)을 떨침이라. 이제 본군 군남응천(本郡
 郡南應天)에 사는 오위장(五偉將) 석운룡(雲龍)의 처 의성김씨(義城金氏)는 본래 한
 미(寒微)한 사람으로서 초야(草野)에 거하여 별로 무교(姆教)의 예법(禮法)은 모르되
 그러나 소홀(韶訖)할 때부터 특이한 행실이 있어 일거 일동을 옛 여자(女子)이 행에
 합하지 아니함이 없더니 그 시집갈 때에 극(克)히 부도(婦道)를 다하는 고로 법가부
 녀(法家婦女)들이 한번 그 용모(容貌)를 보고 한번 그 언어(言語)를 들으면 경탄(驚
 歎)하지 아니함이 없어 예로 대접하니 이른바 임수(林藪)가 비록 얽으나 후기린(麒
 麟)이 있고 저택(沮澤)이 비록 얽으나 또한 고훈(蛟龍)이 있음이라. 불행(不幸)이
 금년(今年)에 그 가장(家長)의 명(命) 마침내 날을 맞아 단지 유혈(流血)로 반향(반
 響)에 다시 깨어났으나 천명(天命)을 피하기 어려워 문득 상장(喪葬)을 당함에 시전
 (侍奠)의 예와 곡용(哭踊)의 슬픔이 드는 사람마다 감탄(感歎)하지 않을 수가 없으
 니 비루서주(西周)의 붕성(崩城)과 동한(東漢)의 복검(伏劍)이라도 이에 넘지는 못
 할 것이니라. 비록 이탁(異卓)한 행실이 있으되 홀로 관찰하는 아래 빠진고로 생
 등이 감이 생각이 있고 빠짐이 없는 일일진달(進達)하오니 복망(伏望)순상합하(伏望巡

相閣下)는 특별히 양미(揚美)의 덕택(德澤)을 베풀어 이 특이(特異)한 행실로 하여
금인몰(湮沒)함이 없게 함으로 감히 단을 드림이라.

계묘 十二月 十七日 유학 정원영 의 十七日

褒彰完議文

本所勅建 先聖廟重刊五倫行實以爲尊 聖獎善而列郡單子次第來列中謹按忠北有
司呈單及多士薦狀則同道堤川郡水山面吾峙里故石和鍾字致彥官叅奉系出忠州顯
祖諱鑑當龍蛇之變奉文廟位牌避禍還安贈兵曹叅判曾祖諱達孫璿源錄郎廳祖諱龜
河同知中樞府使兼判官贈嘉善大夫父諱斗淵都摠五衛將贈通政大夫和鍾已自幼時
能知事親之道及稍長也定省甘旨靡不庸極志色兼至親極滋味于時親癢沉綿思食雀
肉四求不得仰蒼號注佇立中庭忽數十黃雀飛鳴而過乃入房中自謂天必護送活我父
命取以似進得効後病復作百藥無靈末由如何斷指注血使幾殞之命能三朔回甦而天
終哀毀居喪之節一如古禮至於樹襄躬自負土亦盡其孝養生送死之誠如非天出其性
則乃能若是耶公本自忠孝家后裔而有此卓行亦豈非家法之常事也哉宜可有表宅之

典時制有昇尚在泯默寧不慨歎本所聞感先付鉞梓使之繼建閣碑壽傳嘉蹟永圖不朽之意成此完議文事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八年丁卯正月 日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淵源儒林鄉約本所

都約長 卮立約長 代辦先聖廟 都有司 鄭成默

포창 완의문

선성묘(先聖廟) 중간(重刊) 오류 행실은 실제로 성인을 높이고 착함을 장려하니 열군(列郡)의 단자(單子)가 차례로 오는 중에 삼가히 충복 유사(忠北 有司) 정단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천거한 글을 살피니 제천(堤川)군 수산(水山)면 오치리(吾峙里)에 석화종(和鍾) 자는 치언(致彦)이고 참봉이요(官은 參奉) 충주인(忠州人)이다. 현조(顯祖) 휘 감(鑑)께서 임진란(壬辰亂)을 당(當)하여 문묘(文廟)의 위패(位牌)를 받들고 화를 피하셨으므로 증 병조참판직(兵曹參判 職)을 받으셨다. 증조(曾祖)부 님 휘 달 선원록 낭청이요 조(祖)는 휘 구하(龜河)이시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 事) 겸 판관증가선대부이시며 아버님인 휘 두연(斗淵)이시니 오위도총(五衛都摠) 통정을 받드시다. 화종(和鍾)이 어려서부터 능히 아버이 섬김의 도의(道義)를 알고

장성(長成)하여서는 혼정신성(昏定晨省)이며 감지(甘旨)의 모든 등절에 어버이께서
 자미(滋味)가 지극(至極)하였는데 이때에 아버님의 병환(病患)이 침중(沉重)하여 참
 새고기를 생각(生覺)하심에 사방으로 구하기를 애썼으나 구할길 없어 애타우던 나
 머지 하늘을 우러러 호음(號泣)함에 황천의 한때가 날라 들어옴으로 공진(供進)하여
 병환의 호함을 얻으셨고 그 뒤에 병환이 갱발(更發)하여 백약(百藥)이 무효(無效)함
 으로 손을 끊어 피를 내어 주혈(注血)을 하니 삼삭(三朔)이나 더 연명을 하셨으며
 상중(喪中)에 절차(節次)는 이척이 갖춤이요, 묘의 역내에 몸소 흙을 집어저다가 기
 운 곳을 바로 닦고 금잔디만 가꾸며 잡초(雜草)는 버리니 양생(養生) 송사(送死)의
 정성이 하늘이 낳은 자(者)가 아니면 능(能)히 이리하랴. 공(公)은 충효(忠孝)의 후
 예(後裔)로 이런 탁행(卓行)이 있으니 마땅히 표락의 전(典)이 있어야 되리로 되고
 금이 달라서 오히려 민묵(泯默)에 있으니 어찌 개탄함이 아니겠는가. 듣고는 짐이
 로 이 완의(完의)를 침재하고 이로 하여금 각이며 비를 세워 아름다운 행적(行蹟)을 오
 래 천하도 후(後)함이니라.

성거 이천사백찰심판년 정묘 정월 월

유륜행실초역간 유림향약본소 선성묘 도유사 정성묘 외 二十九인

삼가 이 글을 제해보에 유해김기조상님 의 일 일 어 빛남을 가슴깊게 새김이옵니다

증손 영배 합작

嘉善大夫忠州石公之墓表

故嘉善大夫石公河均字烈河墓在堤原郡清風面鶴峴之小魚磴山辰原後孫合謀活石將堅于阡途而五世胄孫英培君求顯刻文于余余在同采誼不可以老昏辭謹案譜乘而銓次世系官啣生卒配位俾刻之惟我石氏先中州人宋高宗時有諱鄰避金東來仕高麗明宗十七年有戰功於西京亂故升上將軍受封藥城卽忠州子姓之仍貫以此也連六世顯官之至洪陽府院君諱良善配慶昌翁主永興崔氏爲太祖從母百兼有乳養功故特蒙封爵之典生諱天乙中郎將洪城君生諱汝明共愍朝甲寅文科官注書太宗以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特下親書召喚固守罔僕義宰拒不應遂安置忠州守義山而卒後贈崇祿大夫左贊成後有諱鑑壬豚大贈兵叅亨護聖祠於公間十二代曾祖曰萬興祖曰相福是生諱達煥配光山金氏成默女生三男其季曰河均嘉善公出系從父諱文煥是爲公孝也旌善全氏其妣也庚午八月十七日其生也己卯五月十四日卒也 貞夫人驪興閔氏在浩女其也淵鍾永鍾其子也和源順源健源祐源二房出孫男也向下繁不盡錄而以孝友之學聞於鄉省者間嘗有之推此而可知其承襲之有傳也已

壬戌晚春節 宗人 宇楨 撰

가선대부 충주성공의 묘표

고(故) 가선대부 선공 휘(諱) 하균(河均) 자(字) 열하의 묘는 제원(堤原)군 청풍(淸風)면 학현(鶴峴)의 소어등산(素어등산) 진원(辰原)에 있으니 후손(後孫)들이 의론(議論)을 같이 하여 돌을 다스려 장차 묘(墓) 제절(제절)에 세울새 五世 주손 영배군이 현각(顯刻)의 글을 나에게 구해주시를 부탁하기를 내가 동종(同宗)에 있어 의(誼)가 가히 노후(老昏)함으로 사양치 못하고 삼가히 보승(譜乘)을 관찰(觀察)하여 세계(世系)와 관함(官啣)과 생졸(生卒)과 배위(配位)를 전차(銓次)하여 하여금 새김이라. 오직 우리 석씨의 선대(先代)는 충주(忠州) 사람으로서 송 고종때 휘 린이 있어 요즘(僚金)을 피(避)하여 동(東)으로 와 高麗에 벼슬을 하고 명종十七年에 전공(戰功)이 서경란(西京亂)에 이었으므로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예성(藥城)을 수봉하니 곧 충주이(忠州)라. 자손이 관향(貫鄉)함이 이로 말미암음이라. 六代(代)로 연하여 현관(顯官)이요, 홍양부원군 휘 양선 배 경창(景昌) 영흥(永興) 최씨(崔氏)가 한대조(韓太祖)의 종모(從母)가 되고 겸하여 유양(乳養)한 공(功)이 있느니고로 특별히 봉작(封爵)의 전(典)을 입고 휘 천을(天乙)은 증랑장(中郎將) 홍성군(洪城君)이요, 생휘여명(汝明)은 공민조(恭愍朝) 갑인에 문과(文科)요, 관(官)은 주서(注書)이다. 태종이 검교한(檢校) 상은(相)은 집현전(集賢殿) 제학(提學)으로 특별(特別)히 친서(親書)를 내려 소

환(召還)하되 망복(罔僕)의 의(義)를 고수(固守)하여 굳게 응(應)하지 아니하니 드디어 충주 수위산(忠州 守義山)에 안치(安置)하여 졸(卒)하다. 뒤에 승록대부 좌찬성(崇祿大夫 左贊成)을 증(贈)하고 후에 휘 감(鑑)이 있으니 임란(壬亂)에 병참(兵叅)을 증하고 호심사(護聖寺)에 향(享)하니 공(公)의 十二대(代)라. 증조 휘는 만흥(萬興)이요, 조의 휘는 상복(相福)이니 이가 휘 달환(達煥)을 생하고 배(配)는 광산김씨(光山金氏)이니 성묵(成默)의 따님이라. 세 아드님을 낳으니 그 끝이 가로대 휘 하균(河均)이니 곧 가선(嘉善)이라. 종부(從父)에 출계(出系)하니 휘 문환(文煥)이 공(公)의 고(考)가 되었으니라. 정선전씨(旌善全氏)는 그 어머니요, 정은(貞)은 八월 十七일(日) 그 생함(生)이요, 기묘 五월 十四일(日) 그 졸(卒)하심(死)이요, 정부인(貞夫人) 여흥민씨(麗興閔氏) 재호(在浩)의 따님(女) 그 배위(配)요, 연종 영종(英宗)은 그 아드님(子)이요, 화원(華元)은 건원(建元) 우원(右元) 이방(二房)에 생(生)한 손자(孫)라. 향하는 많아서 다 기록(記錄)하지 못하고 호우(好雨) 문학(文學)으로 향성(香聲)에 드러난 자가 간간히 일찍 있으니 이로 미루어서 가히 그 승(承)습(襲)의 전함(傳)이 있었음을 알리(知)라.

임술 만춘절 종인 우정 찬

선성우 창의록

선성우(선성우) 자는 창(창)이니 창(창)의 문(문)에 휘(휘)와 자(자) 바뀌었다. 선성우(선성우) 예성(예성) 휘(휘) 린(린)의

후손으로 총부 총주 출신으로서 一八八五년에 출생하였다. 원래 가세가 빈한하여 장사를 해서 살림을 꾸려나갔다. 一九〇七년(광무 十一)년 한봉수와 더불어 청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참모장이 되어 신출귀몰한 작전을 펼쳤다. 보은 속리산에서 싸울 때마다 선봉에 나서서 용감히 싸워 일본군에게 많은 타격을 주었다. 一九〇八년 적정을 살피기 위해 단신 오대산을 향해 가던 중 수십명의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부친 끝에 체포되었는데 모친 고문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다가 스스로 혀를 끊어 의병의 소재를 말하지 않고 순국했다.

수구당의 사칭과 비문

공기영술년 구치 한일합병을 당하자 의기를 들고 상주 보은 청주 등 차에선 풍한 노숙 우계상산 왜병과 싸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불행히 전란에 최후를 마쳤다.

부인 청산여씨는 의사의 비보를 듣자 애통증에도 시부모를 만단 위로하고 뒤를 이어 자결하였으니 두분의 의와 열이 천추에 빛나도다.

단기 四三〇〇年 四月 日

石義士記念碑建立推進委員會

防禦使	安德天	助戰將	郭富達	從事官	具完心
常書記	韓良履	助防長	金茂生	常務官	柳義俊

石章叔生壙阡碣銘

利川有石君相憲字章叔余雖不面而耳之則稔矣茲者君介令族宇楨氏傳語致余曰吾今年光向哀其玄周申之乙卯才除三年矣四方之志已倦乃營壙於郡之長湖院珍岩里百足山子穴且念不可無片石表之而如留之他日或虛張無實之言則反使我受誣於地下也亦欲及吾生前而得其銘幸子之不以格外而拒我清也余謂爲銘於身前則享年幾何不可得書是所可欠然韓退之爲曹成王碑只言其薨而不著生卒年壽蓋舉行治大致則享年之幾何固無甚闕也 况君懲於俗尚誣罔而爲此實不可以格外辭者爲聞其履歷於宇楨氏則曰君少負器略得人信仰年纔三十一當乙酉解放被推管邑政審機應變無一人之橫罹其厄邑人至今德之及政府樹立久任治安要聯業著蹟見遂爲趙博士炳

玉所器使隨至大邱居中補佐時當庚寅之變四方土崩千里席捲而竟能固大邱之完保餘境得安回復指期寔賴趙博士守死捍禦之力而君之贊劃亦多其功焉變旣定君居天安數年因趙博士黨回遂乘官歸鄉里屏跡自矢難見政權之換局而頓不崩出世意無何有五一六之革政人歸其先見之明君自家居惟經紀先事再修世譜重建閭閻具儀石祭田於屢世先塋心有所注罔不底績敦尚彝倫捐己貲而濟宗族之艱乏逮夫晚暮築亭於間靜處名之松湖而因以爲自號燕養其中而誓將終老焉噫觀君之所施爲可知其才優志李矣便以未老之年遺外世事泰然不嬰情於死生而身後是圖所謂殀壽不貳修身以侯者非耶石氏祖始曰鄰自宋仕高麗以軍功食采藥城卽忠州也後有曰良善洪陽府院君洎麗亡有曰汝明拒號徵守善節贈左贊成後有曰文守禮判曰岢陽城縣監始居利川曰懷琛文科官訓導曰南徵薦工議於君間五世曰思珰曰載翼曰鎮教曰敬準卽四親而河濱李氏秉植女其妣也君娶原州元氏性俊女生六子二男實煥宙煥二女適朴点秀金昌濂二女未行銘曰

需時保門所志得遂留蹟昭昭己畢能事例歸一化何向然智順受其命銘以昭示

道州金弼鎬撰

贊成公墳菴及石儀政豎時義捐

芳名錄 一九六八年 戊申

- | | | | | | | |
|------|----------|------|--------|--------|------|-------|
| 桂煥 | 一金拾萬圓整 | 池洞門中 | 京畿道 | 利川郡 | 長湖院邑 | 珍岩里二區 |
| 浩桀 | 一金貳萬五仟圓整 | 橫城門中 | | | | |
| 廣雲 | 一金壹仟圓整 | 橫城橋項 | | | | |
| 明準 | 一金五仟圓整 | 江原 | 原城郡 | 富倫面 | 法川 | |
| 泳載 | 一金壹萬五仟圓整 | 堤川 | 松界門中 | | | |
| 在成 | 一金五仟圓整 | 天安市 | 白石洞 | 山九七番地 | | |
| 鎮珪 | 一金壹仟圓整 | 堤川邑 | 義林洞 | 百七十番地 | | |
| 明均明斗 | 一金貳萬圓整 | 槐山 | 沼壽面 | 阿峴門中 | | |
| 順浩 | 一金壹萬五仟圓整 | 廣州 | 西部面 | 下倉고골門中 | | |
| 憲柱 | 一金參仟圓整 | 陰城郡 | 陰城冬音上倉 | | | |
| 兌基 | 一金參仟圓整 | 三嘉門中 | | | | |

永厚	洛鎮	宗壽	抱範	和均	永春	鍾琪	旭楨	旭楨	正基	千壽	桂敦	瑛均	旭楨	暲淵
一金參仟圓整	一金壹萬五仟圓整	一金壹萬圓整	一金貳仟圓整	一金壹萬圓整	一金壹萬五仟圓整	一金壹萬五仟圓整	一金貳萬五仟圓整	一金五萬圓整	一金貳仟圓整	一金五仟圓整	一金五仟圓整	一金五仟圓整	一金壹萬五仟圓整	一金壹萬五仟圓整
密陽郡 德岩	星州金水荅川門中	義城邑僕竹	清道東山	清道月谷	清道大峴門中	慶山 南川面 金谷門中	會長(密陽馬屹宗中)	密陽馬屹季派中	泗川郡 泗南草田	晉陽郡 金谷面 石界洞	三千浦市竹林洞此六仁 _〇 贊成公遺蹟文化史上費用	草溪門中	密陽馬屹季派	中原郡 東良面 大田拜白洞門中

聖均	一金五仟圓整	清道明浦
瑛均	一金五仟圓整	草溪門中
甲生	一金五仟圓整	晉陽新塘
桂敦	一金壹仟圓整	三千浦市 竹林
亨昆	一金貳仟圓整	利川松谷長湖院
重彥	一金壹仟圓整	慶山邑 齒科
永壽	一金五百圓整	慶山郡廳
泰岩	一金貳仟圓整	慈仁校洞
仁壽	一金壹仟圓整	永川中高校長
淇元	一金參仟圓整	永川大昌面
珠穆	一金壹仟五百圓整	尚州功城玉山
熙涓	一金壹仟五百圓整	尚州
楨浩	一金壹仟圓整	
熙晚	一金五百圓整	密陽馬屹
聖述	一金五百圓整	達城玉浦晚水

順特

一金三萬圓整

平恩門中

奎業

一金參萬圓整

望月山中

相度

一金五仟圓整

安東豐山面

宗均

一金五仟圓整

醴泉普門

一金參萬圓整

出債立石時祭需補用未報償

【叅議公編】

清德齋上樑文

瞻萬年之幽宅履霜露而怵悽闢數仞之新宮寓羹墻而尊敬非直觀美也如將復見焉恭
 惟先祖叅議公中華世家藥城令胄專心孝忠克紹提學公之遺模鑑照精明早膺銓曹班
 之清選見朝著而不靖掛冠於漢城東門筮肥遯而无尤括囊於凝川西徼沉晦雲林巖穴
 殆同山家之隱倫備給臧獲田庄實賴嶺伯之姨誼既韜光之益遠何脫屣之斯忙清川有
 泉石之傳中山是衣履之藏山水拱抱巋然隧道之前後松楸森陰儻爾精靈之陟降月征
 日邁縱功祖宗對越之心春祀秋嘗久缺子孫致齊之所追先代垂後之裕莫重肇基之恩
 在今日報先之誠詎忽肯堂之義肆與合族而團議咸願及時而圖成屬當水旱饑饉之荐
 臻雖猝難醵金而輸穀請看世局風潮之愈變寧可緩逾月而度年起直棟而轟晴空何必
 壯麗之計列重礎而鎮厚地只可悠久之圖欲陳籩豆之明蠲曷若堂斧之密邇堪輿相址
 陰陽向背會纏而久臧工倅劉材準繩規矩效能而適度上下棟宇美哉輪煥壯盖取於雷
 天西南戶牖割然開通明與合於日月嗣續妣祖斯干之頌興復瞻望邱塋思亭之感罔美
 是利用享于祭乃見其著而存幾十載靡遑之事待今日而竟遂數百孫適追之孝自此後

而彌深苾芬蒸享不愆儀始如是終如是親疎遠近無異視歌於斯聚於斯恭疏短引庸效
 偉頌頌曰拋樑東海天曙旭入窓紅道來山屹林泉邃高蹈當年卜此中拋樑南羣峰攢立
 碧於藍素乎貧賤於斯足瓢飲簞殮心自甘拋樑西中峰磅磚如天齊漢陽春樹渾如夢棄
 屣歸來路不迷拋樑北日夜清川流不息億麗雲仍同駿奔探源百世終無極拋樑上衆星
 環列天字朗英靈恍若洋洋臨躋彼中堂倍感愴拋樑下禾麻稻黍滿平野克殫誠敬粢盛
 供瞻拜年年膺錫嘏伏願上樑之後七曜照吉百靈致祥宗族信睦愈敦勿忘均視之道春
 秋享祀匪懈彌篤追遠之誠永言孝而思庶勿替而引

后孫 載俊 謹撰

清德齋記文

密州古茺只里清川之南麓有墓焉曰故吏曹叅議石公諱成玉之藏也今距公已十餘世
 子孫散居遠邇歲一會祭而病齋宿無所後孫世鎰氏倡諸族竭力構一屋旣成因其地名
 清川而配以公之德揭其楣曰清德齋遣門少在楨問記於余余嘗謂凡人家墓舍之作可
 以記可以無記可以記者爲其子孫之誠勤也可以無記者爲其事實之大略相同也然而

爲子孫者不謂其可以無記而必欲得之爲文者惟謂其可以記而例爲之副焉其事既同其文無異名雖記之而與不記無別焉李寧齋所謂古人未有如此以應人之求而能傳於後者顧今之爲文則不習此不足以行世者可謂切中習俗之弊也今於斯齋則予以爲可以記而不可以無記爲夫公之德有過人者不可使其泯沒而無傳蓋公當燕山昏亂不樂立朝棄官南下隱於里中沒而葬焉公以領相安公壽山爲妻父方伯李公好之爲遠兄弟而旣隱之後不復通聲問李公使人訪之而知其所在然不能使之復出爲給土田臧獲以遂其志由此觀之其見幾明決而勵志高潔有足以廉頑而立懦者不獨其子孫之所當法也或者以公事蹟僅傳於家譜而不見於國史爲可疑是固然矣然公既息跡滅影自甘爲深山之野人而不與朝廷之士相聞問則其事之不見於國史固其勢也亦何足恠哉但念自古潛德獨行之士雖微於一時而必顯於百世若公則不惟自晦於當時而身沒之後聲言愈闕至今歷世已久而世之知有公者鮮矣雖於公之德行之實無益損而顯晦遲速之不常其亦有深可慨者已此今日諸公之所以汲汲以圖追報而余之所以不能已於言者也

歲甲戌仲秋日道州金在華謹撰

清德齋建築時任員錄小序

白頭東土卷石之祖也南去二千餘里之外名靈鷲者以起起伏伏之宗疎然於火旺之亞東起之脉入密境以德岩爲號而枕午之原左右端拱清川流其北道來凡其前者惟我叅議先祖玄堂之所也堂之右一武之內後孫爲營展慕之所經始于甲戌春而見畢于同年之秋力綿吾宗不威成之伊誰之力也折衷衆議從宜而法之抑都有司勞心之力耶斡旋左右作心無碍抑總務之力耶指揮斤鍤事順功倍抑監役之力耶以兩當貫賞課無塞抑掌財之力耶厘析毫分聚靡皁如抑會計之力耶家喻戶說令人起誠抑收捧之力耶先德後誠抑司文之力也一舍之程晨赴夜歸抑役者之所勤耶今衆誠如是勞無專主之處者應是先靈之所冥佑者也由此不止吾祖氣脉之蕃衍將何辭乎連白頭之氣脉者哉甲戌重陽日贊坤謹書

都有司	總務	掌財	收錢	收錢	收錢
石世鎰	石世德	石如楨	石炳君	石鍾秀	石善均
司文	監役	收錢	石炳秀	石敬鉉	會計
石載俊	石世瑾	石致寅	石熙鳳	石邵昊	石一楨

石相奎	石應楨	石世辰	石琪均	石濟元	原
石贊坤	石炳度	石世仁	石井均	石永錫	
石在楨	石義楨	石元均	石讚基		

吏曹叅議石公墓碣銘 并序

昔喬桐主之肆虐于民上也朝之賢知之士多見幾色舉以全其明哲之保時有石公諱成玉以吏曹叅議一朝棄官遠遯于嶺右之密陽沈晦以自終世蓋莫之知也其葬在武安面中山里案山午坐舊有碣歲久剝落後孫將改樹之徵其辭於余曰吾祖之世遠矣兵燹之餘遺蹟莫徵而所可據者惟譜乘所載寂寥語矣願籍以發揮也余惟公位列天官其立朝之蹟宜有可書而無徵固可恨然君子之道莫大於出處而見昏主政亂則輒飄然遐舉不受其汙濁視世之貪位昌祿苟進無恥者其賢遠矣觀於其勇退之節而其仕之不枉道事人可知矣公之始終大者卽此可想則其蹟之無徵者猶徵也亦何足多恨故不辭而按譜叙之石氏之先出中州高麗時有諱鄰始東來以功升上將軍封藥城君卽今忠州子姓貫焉自後世聳軒冕至諱汝明號花園官大提學麗止我 太宗屢徵不就是爲公會祖祖諱

文賢縣監考諱貞信正郎妣月城朴氏公之配曰順興安氏左贊成壽山女子光弼禦侮將軍左副司果光鼎進士光弼男雷鳴叅奉圭訓導光鼎男斯順雷鳴男璉建功將軍圭男擎天叅奉擎日文科正字擎漢通禮擎雲斯順男自湖以下不錄公之南下也領伯李公好之以中表親辨給其家庄臧獲蓋亦感其義云銘曰

不入不居聖訓至介石不俟易稱美于斯二義公庶幾晦者惟跡志可視來者可則銘以眎

花山 權龍鉉 謹撰

忠州石氏世葬墓壇碑

密陽郡武安面清川洞有南向而纍列封塋者我忠州石氏世葬也世代既遠屢經禍亂子孫離散故某冢某位有不可識者以譜錄考之則左部司果公諱光弼其配密陽朴氏其弟進士諱光鼎其第二子木川訓導諱圭其孫敬陵叅奉諱擎天通禮諱擎漢三世六位葬俱在於是而皆不可識別其餘不錄於譜者則尤不可詳矣同域而所識別者惟中世萬戶諱東龜諱天極諱基隣三公之墓而已於載譜不識之墓未克行薦獻者實爲歷世之所齎恨故乃於湮年闔宗齊議依孔子望墓爲壇之訓而設一壇於域內自司果公以下六位行歲

祭於其前今茲樹碑表之是可庶效屢世未遑之志耶猶不能各設固若可欠然恐或無害於聿修之義耶至於諸塋之列在同域者亦不知俱為族親之葬而惟其不見於譜錄故闕而朱及焉恨也

丙午三月日

後孫 宇楨 謹識
晉陽 柳敏睦 謹書

충주석씨 세장 묘단비

밀양군 무안면 청천동에 남향으로 여러 묘는 우리 충주 석씨의 세장이라. 세대(世代)가 이미 멀고 여러번 화란을 지내고 자손(子孫)이 이산(離散)한 고로 어떤 묘(墓)가 어떤 위(位)인지 가히 분별(分別)할 수 없는 데 보침으로서 상고한즉 좌부사 과공 휘 광필 그 배(配) (밀양박씨(密陽朴氏)) 그 아우님 진사(進士) 휘 강정 그 제자 이자 목천훈도 휘 유 그 손 경릉참봉 휘 경천 통례 휘 경한 삼세육위묘(三世六位墓)가 다 이에 있으며 다 가히 식별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보침에 불록함인즉 더욱 가히 자세(仔細)히 못한지라. 동역에 분별하여 앎은 오직 증세에 만호 휘 동우 휘 천극 휘 기린 삼공의 묘일 따름이라. 보침에 실렸어도 알지 못하는 묘(墓)에 능

(能)히 천현을 행(行)하지 못하는데 실상으로 역세에 한이 되는 고로 이어 왕년에
 합종이 재의하여 공자가 묘를 바라단을 한다는 가르침을 의방하여 한 단을 역내에
 베풀고 사과공이 하 유위는 세제를 그 앞에 행하고 이제 이비를 세워서 표로 하니
 이가 가히 거의 누세에 여가하지 못한 뜻을 본받음과 오히려 능히 각각 설(各各設)
 하지 못하니 진실(眞實)로 가히 모자란 듯하나 후 처음 닦는 의에 해로움이 없을까
 모든 묘 동역에 벌려있는자 또한 가지 죽친의 장사인줄 알지 못하고 오직 그 보침
 에 나타나지 않으니 그로 월하고 믿지 못하니 가(可)히 한이 되노라。

병어 三월 일

후손 우정 은지

진양 류민복 은저

十二世

諱光弼禦侮將軍義興衛左部副司果

諱光鼎進士

十三世

諱雷鳴武功郎箕子殿叅奉

諱圭木川訓導

十四世

諱璉建功將軍

諱擎天當宣廟壬辰兵燹避難于中山案山谷

先塋下云

傳來稱谷名基洞今則稱石山云一說云叅議公會孫之世當亂避于湖而內浦此

則疑是臥旨派之事乎

諱擎日承文正字典籍腹笥墳典以弄響句風景好三字鳴于世與璞齋金先生紐

估畢齋之孫

相善璞齋集中多唱和詩與栗谷同榜點額事蹟略載密州誌

諱擎漢通禮

雲圃齋記

密之西南有里曰劇義禮石氏庄也故吏曹叅議諱成玉見燕山主失德棄官南下密州之

芑只里至其玄孫承仕郎雲圃諱汝信乃更卜于劇義禮子孫屋廬彌滿一術焉里舊有雲圃齋卽公之平日藏修之所也蓋公嘗遊寒岡鄭先生門光海庚戌先生爲北黨所構誣門人上疏伸冤公在製疏之列禮林院儒移書新山勸松溪申先生縛儀而公與焉釣耕菴集中有與公唱酬詩之三者足以覲公平生也顧以歷歲之久齋旣不免爲風雨所壞而遺蹟琬琰亦且掃盡於崑岡之災徒令東南行過之人指點邱壑而嗟賞曰雲圃公之遺躅也往歲丙辰後孫致聖致煥致周世鎰就齋之舊址更起數椽列置圖書以像平日興居並以資子弟之居業者述先裕後之謨可嘉也日致聖之孫在楨以諸長老之意要余書其楣噫公之行不負里名人生於三事之如一義也修舉闕典報事以儀禮也相觀而善切切惻惻劇也以此觀之公所以尊師崇賢資友之實如在目中奚待乎淺言哉欲學公之行宜先以里名服膺一事戾於義不爲一行不循理止之一人不足與相劇不交夫如是人必曰雲圃公之遺教不哀矣

丁卯六月下浣

光州 盧相稷 記

承仕郎墓碣銘

故承仕郎石公諱汝信號雲圃其墓在舊豐角縣妙峰洞西山嚮乙之原後孫以墓道闕顯刻徵其詞于在華按公之先世忠州人自其高祖叅議諱成玉始徙密州公之世爲宣廟光海兩朝今距已三百餘年中經鬱攸家籍蕩殘表德及生卒年月並失其傳官階爲承仕而職亦無考惟其一二實蹟散見于諸家文字蓋公嘗師事寒岡鄭先生當光海庚戌先生爲北黨所搆誣禍將不測南中士林聯疏以辨之者至再其再則公之製也又嘗與安五休玠朴菊潭壽春孫贊漢起陽諸公移書新山書院勤申松溪先生追配釣耕菴蔣公文益與公相善有唱和詩載集中夫以寒爺爲師諸公爲友其平日道義風流之懿可想而疏筆之秉衆望攸叶則其文辭之見重於一時者可知也世譜云公避執徐之亂于湖西內浦備嘗百艱得免患禔子孫之所當思石氏以高麗平章事藥城君鄰爲上祖仍世顯融至叅議公見燕山主失德棄官南下曾祖曰光弼副司果祖曰圭訓導考曰擎天叅奉妣曰密城朴氏贊女配曰濟州高氏武科天智女二男曰乾軸文科察訪坤軸出后一女適仁同張旭乾軸之子曰東柱南柱泰柱坤軸之子曰東龜曾玄姑略銘曰

侯斯山水兮甚明美福人攸藏兮呈吉祥不第其福兮德俱足有欲考之兮讀我詞

道州 金在華 撰

寒岡鄭先生庚戌誣獄再下疏

自己酉冬仁弘欲害先生使族子滄陰囑其門徒朴而立大逆搆誣先生以爲打盡之計先生詣獄請命者八十餘日而星州大邱玄風龍宮等十餘官迭相按獄推官及監司敢違越仁弘累查不公曲庇而立不以實聞以至難卞之域故遯峯金公欲爲卞誣通文於道內章甫監司知之先以辭狀而欲加罪於士林時事若是危險而冒死叫闡 疏首 金寧 製疏 石汝信 伏以以邪害正吾道之大賊好善罰惡帝王之先務也苟或有如是之壬人而旣不能肆諸市朝又不能明示典刑則士子之趨向不明國家之元氣已餒而皇天將喪于斯文矣其何以表四方之準而建天下之極乎臣等竊惟天佑我朝列聖相承綿菴之遠已歷二百餘年之久賢才繼出金宏弼鄭汝昌倡之於前趙光祖李彥迪李滉繼之於後明斯道起斯文赫然功德至于今昭人耳目而道五賢之道學五賢之學者前叅判臣鄭逮其人也早廬幽精養性山林溯程朱之學尋孔顏之樂明格致正誠之功抱經世濟時之志學究聖人之精微而言動必以禮行全君子之純粹而出處亦以義在丘園則惓惓以興起

斯文爲己任當朝廷則汲汲以引君當道爲己責誠一世之真儒百代之宗師凡有血氣者莫不知尊敬仰慕矣不幸而凶人朴而立同世而同其地彼而立者鍾污世之氣稟凶惡之質襟裾衣帶雖或如人藏匿暴惡實是異種不知尊賢之義徒肆害正之知平生心迹只是忌克一念而已常加詆辱無所不至終至於捏虛構無以逆名指之噫陷害正類乃至於此耶所謂逆節者古今天下之極惡大慙也爲人臣者非徒口不忍言亦惟耳不忍聞而而立尚忍此以爲陷人之一機穿其計亦凶矣是可忍也孰不可忍也誣人大逆極其陰慘終無事實罪有所歸故既吐還吞牢諱不言情狀已露昭不可掩意謂特舉怙終之刑以示懲惡之典士流無異議遠近無異辭仄聞 聖量如天徧覆無涯反以此賊病風妄罵置而勿問云遙奉聖旨欽仰 殿下并生之大德而臣等竊有所大憾於此者本道推覈之際方伯入啓之辭情曲庇靡有餘力招辭之有害於鄭逮則必錄公論之有激於而立則不舉上而蔽天日之聰下而護頑愚之愆至使吾道之大賊得以容息於覆載之下 臣等請明言其所以也而立之爲鄭逮害者詆毀已甚凶慘亦極兩造一庭真僞已判公議攸激詐飾難掩彼此辭說明若觀火而立凶辭則恐或有漏備錄以聞一道公論則反加厲色敢拒不進此 臣等之所以憤惋而不已者也而立之年今方六十一乃冒七十四一州儒生呈書共證厥姪興世終乃首實冒籍一罪王法不赦而至於上啓則儒生之證厥姪之首專不備錄以帳籍

考證爲辭刑訊未安爲獻此臣等之所以憤惋而不已者也而立之凶言叅聽者亦衆厥類滋蔓不止五六幼學金大述仁弘之甥任前都事宋李亦在叅聽之中而金大述則故爲延拖使之不就宋李則厲聲嚴辭手自減去單其叅聽之數欲驅私嫌之域此臣等之所以憤惋而不已者也而立之在獄也處之曾不若一草竊姦究而啓下令嚴之日罔有加勅移鞠之際亦不以罪人自處衣冠從徒出入公堂晏然自恣無異使命之行羣疑滿腹衆論塞胸而主張刑獄畧不戒嚴此臣等之所以憤惋而不已者也噫而立構捏害賢如是之極方伯之循私顧護若此其至則在下之公論固有所未達於上也聖上雖有明見萬里之智而顧何能洞燭其情而以加嚴誅乎嗚呼鄭逮之賢才旣如彼道學又如此宗匠乎斯文著龜乎國家自先王以來極其崇獎而寵祿加焉及殿下之日亦以先王之心爲心而褒崇寵錫之益隆臣等每仰殿下親君子倡斯道之盛心也彼而立果何物也而敢詖無稽不測之言以加身任衛道之賢乎噫鄭逮之見陷於而立者非鄭逮之陷也乃吾道之陷也未有吾道陷而國能存者也然則而立之爲賊豈特吾道之賊實國家之賊惡難容於天地罪罔貸於常刑不但天下之人皆思顯戮實亦地下之鬼已論陰誅也殿下旣知此賊之情而更軫勿問之衷則維聖上好生之德洽乎民心而使此賊益肆其凶臆今日陷一賢而明日陷百賢非惟讒說之殄行使吾道不至於淪喪者幾希矣以二帝雍穆之日而誅凶之舉

尚嚴於大舜受禪之始以三代熙皞之時而祛邪之疑亦戒於大禹納言之初誅可誅之凶而舜之德罔愆於誕敷去可去之邪而禹之德益彰於日宣 聖上之德旣以孚於大舜大禹之德則 聖上之心豈獨憚於誅凶祛邪之心乎嗚呼賢人君子之生乎世也必有姦軌之徒詆訛排擯之不己伊川以王道爲心而目之以朋黨考亭以誠正爲學而指之以僞學以朋黨僞學而毀之生百世之下溯百世之事則尚此抗腕痛心恨不得擢髮而誅之况此凶賊之侮辱構陷不止於朋黨僞學而至於陰逆之言鍛鍊羅織則 臣等生同一世寧忍口垂首敢與此賊同其影息於天日之下哉嗚呼尊賢之心出於秉彝嫉惡之情有生同得 臣等生逢聖明代浴沐清化之中豈不知尊賢抑邪之爲義也使一世知所以君臣臣父父子子夫夫婦婦者賴斯道之不滅斯道之見滅於而立乃至於此此賊不誅則斯道不明則幾何其不胥爲夷狄禽獸而國隨而亡矣言念至此不覺心寒而體粟無以爲喻也 臣等以尊賢之誠奮嫉惡之義裹足羸糧越險千里同封尺疏來叫 九闈皆懷可殺之情敢請浴沐之誅伏願 殿下少回乾剛之斷特震雷霆之威一下綸音罔赦殄戮使此賊無所容於 聖明之下則瘴惡之章明矣重道之政舉矣斯文賴而不墜吾道賴而復明豈特 臣等之幸抑亦國家福也 臣等不勝激切屏營之至謹昧死以聞批曰爾等尊師之意已知之矣無如是瀆擾一聽朝之處置

疏錄名帖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李存性	李立可	李英馥	崔喆	柳潛	朴宗敬	朴文孝	裴克	崔敬止	趙光塗	金光繼	曹宅仁	丘興績
安東	軍威	善山	善山	尚州	義興	尚州	尚州	慶州	尚州	禮安	咸昌	尚州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閔興侃	金基	許蘋	申佑德	李汝圭	朴晉慶	金瑛	郭昌後	成汝樞	權克昭	陳覲	權尚經	趙又新
榮川	尚州	醴泉	仁同	尚州	善山	尚州	玄風	尚州	安東	慶山	安東	咸昌

進士臣	進士臣	生員臣	生員臣	生員臣	生員臣	生員臣	生員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進士臣	生員臣	進士臣
金 瀆	柳 衫	趙 基 遠	金 善 道	鄭 三 戒	卞 暉	閔 希 顏	都 聖 俞	李 希 陽	李 說	孫 處 約	宋 思 誠	趙 光 璧	金 克 誠	郭 慶 興
善 山	安 東	尚 州	醴 泉	興 海	尚 州	榮 川	大 丘	善 山	醴 泉	大 丘	安 東	尚 州	尚 州	玄 風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幼學臣
李 宗 英	權 守 經	吳 姬 翰	李 善 立	徐 演	曹 輞	張 承 福	陳 琢	羅 應 淑	金 義 路	黃 河 澂	申 經 濟	禹 成 績	吳 齋	都 汝 俞
善 山	義 城	慶 州	居 昌	慶 州	永 川	昌 原	尚 州	大 丘	尚 州	善 山	盈 德	禮 安	禮 安	大 丘

進士臣	李時清	寧海	幼學臣	高聘雲	善山
生員臣	孫處訥	大丘	幼學臣	李文龍	高靈
幼學臣	盧景倫	善山	幼學臣	文得呂	醴泉
幼學臣	成應賢	開寧	幼學臣	崔大防	善山
幼學臣	李道孜	靈山	幼學臣	權慶蘭	奉化
幼學臣	崔任	尚州	幼學臣	宋徽	東萊
幼學臣	成振	尚州	幼學臣	權廷俊	榮川

金井道察訪忠州石公墓表

公諱乾軸字大浩石氏本中國人在高麗而諱鄰始東來立軍功陞上將軍受封藥城卽忠州而子孫因以爲貫簪組相繼而至諱汝明號花園登第於恭愍朝至門下注書及麗亡不受韓朝官爵拒太宗召命三傳至諱成玉官吏曹叅議見燕山政亂遂棄官南下隱于密陽間公五代高祖諱光弼副司果曾祖諱圭木川訓導祖諱擎天進士除參奉考諱汝信號雲

圃承仕郎妣濟州高氏武科天智女素性英邁常懷奮揚之志而學暇習武藝業旣成遂以顯宗甲辰八月二十日應咸鏡道龍興江別試虎榜第二位歷仕至金井道察訪見黨議相傾軋無意進取及其瓜滿而遂浩然歸鄉未得展其所蘊優遊林壑管雲弄月以終老距今近三百年之久而復經鬱攸事行就於堙滅而至於生卒年壽亦無由以徵焉可勝惜哉墓在所居郡之馬屹里泉谷亥原配冝人密城孫氏僉知霽女墓緬移祔之公右三男東柱南柱泰柱四女適河鱣河鱗金重明金夏耆孫曾以下繁不載諸後孫以公墓闕顯刻方治一石而一楨茁楨二君主其而宇楨君責余以其文念公之先考雲圃公嘗師務事吾先子寒爺揆之誼分不可以不文固辭然拙陋之筆其於發揮實有不堪而或可以備樵牧之禁也歟

歲丁巳雨水節

西原 鄭在華 撰
道州 金弼鎬 書

금정도찰방 충주석공 묘표

공(公) 휘(諱) 건축(乾軸)이요 자(字)는 대호(大浩)요 석씨(石氏)가 본래 중국(中國)사람이라 고려에 있어 휘린(鄰)이 처음 동으로와 군공(軍功)을 세워 상장군(上

將軍)에 올라 예성(藥城)을 수봉(受封)하니 곧 충주(忠州)이라. 자손(子孫)이 인하여서 관향(貫鄉)을 하였느니라. 삼조상계(簪組相繼)하여 휘여명(汝明)에 이르러 호(號) 화원(花園)이요 공민조(恭愍朝)에 급제(及第)하여 문하주서(門下注書)이니 여망(麗亡)에 미쳐 한조관작(韓朝官爵)을 받지 않고 태종(太宗)의 소명(召命)에 항거하고 세 번 전(傳)하여 휘성옥(成玉)이 관이조참의(吏曹叅議)니 연산정란(燕山政難)을 보고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와 밀양(密陽)에 숨으니 공의간오대(五代)라고 조 휘광필(光弼)은 부사과요 증조(曾祖) 휘규(圭)는 목천훈도(木川訓導)요 조 휘경천(擎天)은 진사로 참봉으로 제하고 고(考) 휘여신(汝信)은 운포(雲圃)니 승사랑(承仕郎)이요 비(妣)는 제주고씨니 무과 천지(天智)의 따님이라. 소성(素性)이 영매하고 항상 분양(奮揚)한 뜻을 품어 글 배우는 여가에 무예를 익혀 업을 이미 이뤘음에 현종갑진(顯宗甲辰) 팔월(八月二十日)에 함경도 용흥강(咸鏡道 龍興江) 호방(虎榜)에 응(應)하여 벼슬이 금정도 찰방(金井道 察訪)에 이르러 당의가 서로 경알(傾軋)함을 보고 진취의 뜻이 없어 그 과만(瓜滿)함에 미쳐 드디어 호연(浩然)히 고을에 돌아와 그 쌓인 바를 얻어 퍼지 못하고 임학(林學)에 우유(優遊)하여 관운농월(管雲弄月)로서 늙음을 마치니 이제 삼백년에 가깝고 다시 우을하게 지내서 사행(事行)이 인멸(湮滅)한데 나아가 생졸년수까지도 또한 말미암아서 증거함이 없으니 가히 애석함이라. 묘(墓)가 마한리 샘골 해원에 있고 배(配)는 의인(宜人) 밀성손

씨니 참지제의 따님이라. 묘는 면이(緬移)를 하여 공묘에 부하다. 삼남(三男) 동
 주남주 태주요 사녀(四女)는 하전 하린 김증명 김하구의 처다. 손증 이하는 실처
 않는다. 저 후손의 공의 묘에 현각이 없었으므로 한 돌을 다스릴새 일점졸점(一楨茁
 楨)이 글이 그 역사(役事)를 주장하고 우정운이 나에게 그 글을 책하기를 공의 선
 조 은포공이 일찍 내선자 한야(寒爺)를 사사함을 생각하여 의반을 헤아리면 가히
 불문(不文)으로서 고사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졸루한 붓이 그 발휘함에 실상으로 견
 디지 못함이 있는배라. 후가히 초목의 금하는 배는 갖춤이 되겠는가.

세 정사 우수절

서원 정재화 찬

도주 김필호 서

諱東龜武宣傳官

諱泰柱字景重輓梅竹堂申公 東顯

掉頭塵世臥雲林實德高標罕古今温清誠深抽孟竹塤箎樂極擁姜衾 恩綸佇有褒
 崇秩末學誰無仰止心天奪我公何太速世間從此夜沈沈

學生忠州石公之墓表

晟圭嘗讀先祖梅竹堂先生逸稿見附錄中有石公泰柱輓一闕曰掉頭塵世臥林泉實德
 高標罕古今溫清誠深抽孟竹墳篋樂極擁姜衾恩綸佇有褒崇秩末學誰無仰止心天奪
 我公何太速世間從此夜沉沉以其嫻於辭志不忘今其八代孫旭楨一楨茁楨以公墓文
 屬余曰吾祖無他文獻可考惟一挽詩載在尊先集子以世誼也而庶勿辭也故敢請按石
 氏忠州人始祖鄰高麗毅宗時自中東來有軍功封藥城君藥爲忠州子姓因貫焉諱汝明
 文科注書麗亡不仕有諱成玉吏曹叅議見燕山政昏退隱于密陽之屯只里高祖曰圭木
 川訓導曾祖曰擎天敬陵叅奉祖曰汝信號雲圃名重儒苑考曰乾輟官察訪始居麴義禮
 妣密城孫氏僉知霽女公生孝廟丁酉卒于丙申葬中山案山午原從先兆也配一善金氏
 浚女初葬下龜洞癸坐後移祔焉三男萬壁萬春萬瞻女適金夏楹萬壁男補天羅天光天
 出系女適禹壽栢白時彥萬春男天繼天極天旭女適金爾輔金兌重河斗昌萬瞻无男取
 光天子之女適李壇李師魯朴元赫曾玄以下不錄公以簪纓之世資父祖之業又嫻於詩
 如此然外此而可稱述者放逸莫證爲可惜也 故敢表隧前以示公之可傳者在是又不
 但是也云爾公諱卽泰柱字景仲

檀紀四千貳百九拾九年丙午三月日

平山 申晟圭 謹撰

晉陽 柳敏睦 謹書

학생 충주 석공의 묘표

성유가 일찍이 선조 매죽당(梅竹堂)선생 일고(逸稿)를 읽음이 부록중에 석공 태주
만사(泰柱 輓詞) 일괄이 있음을 보고 가로되 티긋 세상을 싫어하고 임천에 누우니
실덕 고표가 고금에 드물더라. 우정의 정성은 맹죽(孟竹)에 빼는데 깊고 후지의
낙(樂)은 강음(姜衮)을 찌는데 닮았다. 은륜(恩綸)은 송질을 들어내는데 있고 말
학(末學)이 누가 양지심이 없겠나. 하늘이 우리 공을 빼앗기를 어찌 가장 속하게
하나. 인간(人間)이 이를 쫓아 밤이 침침하더라. 그 말 뜻에 익숙한 것이 잊지
않았더니 이제 그 팔대손 옥정 일정(玉正 日正)의 공의 묘문으로서 나에게 부처 말하기를
내 할아버지가 판 문헌인가히 그림할 것이 없고 오직 한 만시가 존선집(尊先集)에
실려 있으니 자네가 세로서 사양치 않으므로 감히 청하노라. 안찰하니 석씨는 충
주인이라. 시조 휘 린(鄰)이 그려 예종 때에 증주로부터 동(東)으로와 군공(軍功)
이 있어 예성(豫成)을 봉하니 예는 충주라. 주성이 인하여 관으로 함이라. 휘 여명이

문과주서로 여망에 벼슬을 잃고 휘성우(成玉)이 이조참의(吏曹叅議)니 연산정음은(燕山政昏)을 보고 밀양(密陽)등지리에 퇴은하니라. 고조(高祖)는 가로되 규(圭)이니 목천후도요 증조는 가로되 정천(擎天)이니 정릉참봉이요 조휘는 여신(汝信)이니 호는 운포(雲圃)요 이름이 유원(儒苑)에 높으니라 고휘는 건축(乾軸)이니 관은 찰방(察訪)이라. 처음으로 마힐리에 거했다. 비(妣)는 밀성손씨이니 침지재(僉知齋)의 따님이요 공(公)이 효묘정유(孝廟丁酉)에 나시고 병신(丙申)에 졸하시니 증산 안산오원에 장사함은 선영(先塋)을 좃음이라. 배는 일선김씨니 주의 따님이라. 초장(初葬)은 하구동계좌에 장사하였다가 뒤에 이부하니라. 삼남(三男)은 만벽 만춘 만침이요 여는 김하영 처요 만벽의 남은 보천 라천 광천을 출제라. 여는 우수백 배시언의 처(妻)요 만춘의 남 천계 천극 천우이요 여(女)는 김이보 김태증 하두창의 처요 만침은 무남(無男)하여 광천을 취하여 아들로 하고 여는 이담(李壇) 이사로(李師魯) 박원혁 처(妻)요 증손 이하는 실지 않는다. 공이 잠영(簪纓)의 세로서 부조의 업을 자로하고 또 시(詩)에 능함의 이 같으나 그러나 이밖에는 칭수할 자가 방일(放逸)하여 증거가 없으니 가히 아까움이 된다. 그러므로 감히 수전에 표를 해서 공이 가히 전할 자가 이에 있고 또한 이 뿐이 아님을 보이노라. 공의 휘는 즉태주요 자는 경중(景忠)이다.

단군기원 사천이백구십구년 병오삼월 일

十九世

諱守道以孝行著世親病思食鶉肉公彷徨于野有鷄打鶉墮前之異奉而供之親病卽愈親歿執喪踰禮旣葬廬墓三年夜則虎常來護人皆歎孝感所致而然也墓在十里許而一生省墓無一日曠闕晨昏祠廟以至終身老病大瘡醫云藥當用酒而時當國禁故罵酒不用而終黨鄉服其懿行 英宗特命賜復戶事蹟載三綱錄及密州誌嘗與松窩安先生命夏交遊次松窩回甲韻曰幾人于世上年享六旬回君得重玄默吾當勸壽盃筵初違其酌追賀始今來更約踰稀日相邀醉宴開公新居屏巖 屏巖在馬屹里牛嶺山下白雲洞後復戶谷 松窩次屏巖新居韻曰蒼巖繞屋澗流濱蕭灑檐楹絕點塵芻豢一生元有樂烟霞半壑不爲貧何關世事成凡楚最怕人心異越秦他日倘乘慶曆運彙征將見喜津津公號素庵松窩作素庵說曰屏巖石粹然築小齋齋旣成揭扁以素嘗一日過予隱霧齋道所以仍言曰吾旣銘吾庵子其有以張之也予曰素哉素哉奚取於素也君生今世而慕古素者也不汲汲於富貴不戚戚於貧賤其志怡如其操確乎嘗聞不願乎外其位素也不求乎味

평산 신성규 찬
진양 류민복 서

其食素也不爲乎美其服素也且如先粉地而後繪事詩人之取素質也甘自守而咏伐檀君子之不素餐兮君能懷古人而尚友循前轍而自靖寢興於斯宴息於斯又取陳編舊牘窺素王鈇鉞之微旨仰素書清淨之要設依然回太素之日月任淳素之生涯樂素分安素履自不覺手之舞足之蹈而爲大樸世界中一民間子之於素也其庶幾矣乎君曰唯是爲說粹然公之字士人薛昞道剏立表孝碑

諱天極字平甫創設己丑譜吾宗之譜自此始焉

예강재기(禮崗齋記)

예강재(禮崗齋)는 영좌도주각남면(嶺左道州角南面) 마억동(磨亦洞) 동구(洞口)에 위치(位置)해 있었으니 석씨(石氏)가 그의 선조(先祖) 성균(成均) 진사(成均進士) 예강휘(禮岡輝)가 응공(禮岡諱佳應公)을 위(爲)하여 건립(建立)한 병사(兵舍)이다. 공(公)은 즉 한강(寒岡) 정선생(鄭先生)을 사사(師事)한 유현(유포(儒賢雲圃) 휘여신공(諱汝信公)의 오대손(五代孫)이다. 유소(儒素)의 전통(傳統)을 승습(承襲)하여 인품(人品)이 고수(高遂)하셨는데 일찍 그의 이씨(李氏) 고산휘산응공(鼓山諱山應公)과 함

께 이 마역동(磨亦洞)을 서우전거(胥宇奠居)하셨는데 비단(非但)이 고장의 산천
 (山川) 풍상(風土)가 순미(淳美)함만 취(取)한 것이 아니라 운포공(雲圃公)의 수장
 (壽藏)이 마역동(磨亦洞)과 상거(相距)가 불과(不過) 이리(二里)밖에 안되는 월봉신
 원(月峯辛原)에 계시니 춘로추로(春露秋露)에 침소배성(瞻掃拜省)에 편리(便利)함
 도 취(取)한 듯하다. 드디어 공(公)의 형제분(兄弟分)이 몰세(沒世)하시니 자손
 (子孫)이 예강공(禮岡公)은 마역동(磨亦洞) 월북부야등축원(越麓釜也嶺丑原)에 봉
 장(奉葬)하였고 고산공(鼓山公)은 동전당산등유원(洞前堂山嶺酉原)에 봉장(奉葬)하
 였는데 고산공(鼓山公)의 자취만주(子諱萬柱)는 다시 풍각현성곡리(風角縣聖谷里)
 로 이거(移居)하고 마역동(磨亦洞)에는 예강공자손(禮岡公子孫)만이 잉거(仍居)하
 여 상재지향(桑梓之鄉)으로 삼았다. 세거(世居)한지 六·七대에 씨엽(氏葉)이 번
 연(繁衍)하고 이븐(人文)이 병낭(炳朗)하며 자업(賫業)도 부후(富厚)하여 지망(地
 望) 이븐(人文)이 향린(鄉鄰)에 염선(艷羨)하는 문호(門戶)였는데 과거(過去) 우리
 나라가 사옥(社屋)의 변(變)을 당(當)함에 극중(國中)有志之士가 망국한
 (亡國恨)을 배제(排除)치 못하여 안토중천(安土重遷)을 못하였는데 석씨(石氏) 역
 시(亦是)이 과도기(過渡期)의 시상(時相)에 풍미(風靡)되어 모두 이 고장을 이산
 (離散)하였다. 그러나 타인(他人)이 동리(洞里)에 거주(居住)하면서 덩廳(洞名)을

오히려 예리(禮里)라고 부르니 아마 이 동리(洞里)는 옛 예강공(禮岡公)이 살던
 유지(遺址)이니 기유덕(其遺德)을 길이 잊지말자는 소이(所以)인 것 같다. 공의
 구세손(九世孫)되는 인득인수인만(麟得麟壽麟萬)은 일본(日本)에 고거(僑居)하였는
 데 광복후(光復後) 고향(故鄉)에 귀성(歸省)하여 예리주위(禮里周圍)에 선세구묘
 (先世邱墓)는 류류봉안(累累奉安)되어 있으니 옛 살던 고기(故基)에는 자기씨족(自
 己氏族)은 한 집도 없으니 감주지회(感舊之懷)가 자못 깊어 선영(先塋)을 호수(護
 守)하고 고향(故鄉)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覺悟)를 굳게하여 거금(巨金)을 각출(釀
 出)하고 제족노소(諸族老少)와 협의(協議)하여 이 재사(齋舍)를 건립(建立)하여 예
 강공이하(禮岡公以下) 수세세제(數世歲祭)를 봉공(奉供)케 하니 제족(諸族)도 삼군
 (三君)의 성의(誠意)에 감격(感激)하여 수력의연(隨力義捐)하여 제전(祭田)을 작성
 (作成)하여 그 세입(歲入)으로 향화(香火)를 받들고 그 여분(餘分)으로 빈족(貧族)
 을 구술(救卹)하며 또 선세미황(先世未遑)한 사업(事業)을 차례(次第)로 성취(成就)
 해나가니 그 정성(精誠)과 규모(規模)가 금세(今世)에 귀감(龜鑑)이 될 만하다.
 이제 그 후손(後孫) 제공(諸公)들이 이 재사(齋舍)에 아직 기실(記實)의 문적(文蹟)
 이 없음을 겸연(慊然)히 여겨 그 족인(族人) 우정(宇楨)이 나와 친(親)함을 알고
 부기(付記)하여 기문(記文)을 청(請)하기를 내가 석씨(石氏)의 실행(實行)하는 일을

장히 여저 사양(辭讓)하지 않고 우(右)와 갈이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하고 할 말
 소감(所感)을 부기(附記)하노니 전(傳)에 월예(曰禮)는 불망기본(不忘其本)이라 하
 였으니 사람이 본성(本性)을 더럽히지 않고 선행(先行)하는 것과 조선(祖先)을 경
 봉(敬奉)하고 고향(故鄉)을 불망(不忘)하는 것이 모두 불망기본(不忘其本)의 예(禮)
 에서 우러난 것이니 이 예의(禮義)를 극진(極盡)히 한다면 인의충효(仁義忠孝)와
 백행만선(百行萬善)이 이 중(中)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다면 인기(人紀)가
 양패(壤敗)하여 쇠망(衰亡)이 도래(到來)하는 것인데 지금(只今) 석씨(石氏)는 옛
 예강공(禮崗公)이 상의호례(尙義好禮)하시어 예강(禮崗)이라 호(號)하셨고 이 재실
 (齋室)의 이름도 이 뜻을 취(取)하였고 재일(在日) 삼군(三君)이 조선분묘(祖先墳
 墓)를 경수(敬守)하고 고향(故鄉)을 중(重)케 여저 재국제족(在國諸族)의 슬선애족
 (述先愛族)하는 것이 모두 이 예(禮)의 근본(根本)을 행(行)함이니 예(禮)는 가위
 (可謂) 석씨(石氏)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이라 하겠다. 못 사람이 마땅히 이 예
 (禮)를 힘쓸 것이나 석씨(石氏)의 후손(後孫)된 사람은 더욱 면강(勉強)하여 선세
 세식(先世世式)을 빛내고 후손(後孫)을 음창(隆昌)케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내
 이로써 봉우(奉勗)하고 기망(期望)해마지 않는다.

광복 후(光復後) 三十六년 신유(辛酉) 백로절(白露節)

成均進士禮崗石公墓表

故成均進士禮崗石公諱佳應字孟可之葬在舊大邱初同釜谷東麓負丑原盖公爲肅英時人而生於密陽之禮義里中歲遷于清道南角之磨亦洞沒而遂葬於此者至今已二百餘年尚未有阡道之刻盖未遑也往年其後孫築禮崗齋於故里以寓其慕今又謀伐石表阡其後孫二相屬其族宇楨述辭請余文甚懇難於終辭按石氏之籍忠州自高麗藥城君鄰而至麗亡有花園汝明門下注書守罔僕義不應新朝之徵謫忠州以歿至叅議成玉避燕山政乱南遷于密陽自後爲密人公之高祖曰乾軸察訪曾祖曰東柱祖曰萬元考曰守德妣曰晋陽河氏達湖女公生以肅宗甲辰自幼聰悟有才性受學於伯父素菴公勤於攻課藝業夙就弱冠有時文能聲英祖己丑中司馬試因不復求進取優遊林泉書史自娛磨亦洞之遷盖取其山水幽靜也卒以乙巳八月十七日壽六十二配清道金氏重珏女卒皆俊公三年葬祔同原良坐一男晚明二孫命迪命載以下不錄盖公際明時登上庠其材器文學之優可惟而知也其嘉言懿行必多可記而家傳闕略無以盡考爲可恨然子姓繁衍

벽진(碧珍) 이흥중(李興中) 찬(撰)

謹守遺範門欄之盛稱於一時而今又致力於寓慕述先之役則豈非其夙韻之表耶是可表以傳也

一九八二年歲壬戌初夏

花山 權龍鉉 撰

성균진사 예강선공 묘표

고 성균진사 예강선공의 휘 가응(可應)이요 자 맹가의 묘가 옛 대구 초동부곡 동쪽추원에 있음이라. 대개 공이 숙영 시인(肅英時人)이라. 밀양에의리(密陽의禮義里)에서 나시어 증세에 청도 각남의 마연동에 옮겨 돌아가신 후에 드디어 이에 장사함이 이미 이백여년의 우히려 묘전(墓前)에 비석이 없으니 대개 여가하지 못함이라. 왕년에 그 후손들이 예강재를 옛 마을에 세워서 생각을 부쳤더니 이제 또 돌을 갈아 묘제절에 표로 할세 그 후손 이상에 그 일가 우정의 슬사를 부쳐 나의 돌을 간청하기에 마침내 사양하기 어려워서 안찰해보니 석씨의 관이 충주(忠州)이라. 고려 예성군으로부터 여망(麗亡)에 화원 여명이 문화주사로 있어 망부의 의로 지켜 신조(新朝)의 부름을 응하지 아니하고 충주의 귀양가서 여생(餘生)을 마치고 참의 성옥(叅議 成玉)에 이르러 연산정란을 피해 남으로 밀양(密陽)에 숨으니 이로

부터 밑양인이 되었는지라。 공의 고조는 가로되 건축(乾軸)이니 찰방이요 증조는 동주(東柱)요 조는 만원이고 고는 수덕이요 비는 진양하씨(晉陽河氏)니 달호의 따님이라。 공이 숙종갑진에 나시니 어릴때부터 총우하여 재(才)성이 있으므로 백부소암공(素菴公)에 수학하여 공부하는데 부지런하였다。 예업이 숙취하여 약관(弱冠)에 시문(時文)에 능한 소리가 있었다。 영조 기축에 사마시(司馬試)를 마치고 인해다 시 진취를 구하지 않고 임천(林泉)에 우유하여 서사로 자오하고 마역동에 읍진 것은 대개 그 산수(山水) 유정함을 취함이라。 을사 팔월 삼칠일에 졸하니 수(壽)가 육십이(六十二)라。 배는 청도김씨니 증각의 따님이요 돌아가심이 공의 삼년 뒤이며 장사를 동원(同原)간좌에 부하니라。 일남 만명(晩明)이요 이손 명적 명재요 이하는 기록치 않는다。 대개 공이 명시(明時)를 만나 상상에 오르니 그 재기와 문학의 넉넉함이 가히 미루어서 알리라。 그 아름다운 말과 꽃다운 행실이 반드시 가히 기록할 것 많은나 가전(家傳)이 권약하여 다 그증(考證)할 수 없으니 가이 한이되나 그러나 자손들이 번번하여 삼가의 유범(遺範)을 지켜 문관의 성함의 일시에 일컬으니 이제 또 우모슬선의 일 에 힘입어 이른 주어져 그 풍운(風韻)의 길에 아니겠느냐。 이로 가히 표하여 전하리라。

임술 초하

화산 권응현 찬

예강제준공기념비(禮崗齊竣功記念碑)

청도(淸道)는 산수(山水)가 아름다우니 고을임으로 옛적부터 사족(士族)들이 많이
 삼에 산애수곡(山崖水曲) 급이급이마다 재사(齋舍)이며 정대(亭臺)이다. 그러하
 므로 풍속(風俗)도 순후(淳厚)한 편(便)이다. 족선조성군진사예강공(族先祖成均進
 士禮崗公)께서 역시(亦是)나 산수(山水)의 성벽(性癖)이 있어 아우인 고산공(鼓山
 公)과 함께 남산(南山)기슭에 한 마을을 택(擇)하여 처(處)하니 지금의 예리이동
 (禮里二洞)이다. 마을 앞에 기름진 들판이 열리어 벼 향기(香氣)를 품어내고 공
 도(孔道)가 군성(郡城)으로 젖어 풍각(豐角)까지 직통(直通)하여 차철(車轍)이 끊임
 없이 치주(馳走)하는데 후짜는 잠만(岑巒)이 회전환차(回轉環遮)되어 취락(聚落)이
 보이지 않고 난잡성(亂雜聲)이 들리지 안한 한정(閒靜)한 마을이다. 이 한정
 (閒靜)한 마을에서 八·九世로 내려오면서 과관(科官)의 현달(顯達)은 없으나 문
 학(文學)의 선비가 문호(門戶)를 간추리는 연세계속(聯世繼續)하였는데 경술(京述)
 (庚戌國恥)를 전후(前後)하여 차츰 차츰 떠난 것이 마을을 원통(圓通) 비우게 되었다.
 춘우(春雨)로 성소시(春雨秋露省掃時)면 제숙소(齊宿所)가 없음을 극정(極情)만을 하고
 만 셈이다. 참으로 재산(財産)이란 것은 모으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일이

다. 모으기 어렵고 쓰기 어려운 재산(財産)을 빛이 나게 쓰는 이가 있었으니 곧 예강공(禮崗公)의 구세손(九世孫) 인덕인수인만(麟德麟壽麟萬) 셋이다. 을유광복(乙酉光復)을 따라 상재지향(桑梓之鄉)인 예리동(禮里洞)을 찾고보니 모산모구(某山某丘)와 모수모파(某水某派)에 누세선영(累世先塋)만이 남아 있었음을 뻔이다. 기감개무량(其感慨無量)함이 어떠랴. 곧 거액(巨額)의 재산(財産)을 내어 예리이동(禮里二洞) 입구우협단한광지(入口右峽端閒曠之地)를 買入하여 찾고 보비하여 넓직한 기지를 개척하여 이 예강제(禮崗齊)를 建立하여 四方에 흠어진 종족(宗族)이 세천일제(歲薦一祭)로 한자리에 모이니 적척(積戚)의 걱정만이 빙석(氷釋)이 되고 효제도복(孝悌敦睦)의 바람이 이로 쫓아 비롯함에 감격(感激)에 넘친 예강파 공일동(禮崗派公一同)이 이 비를 세워 영구(永久)히 기념(記念)하기로 함이다. 무로화균보(門老和均甫)가 원호이상(元鎬二相)으로 하여금 비문(碑文)을 촉탁(囑託)하여 주족의(族誼)에 있어서 어찌 불문(不文)함으로 감히 사양하리요. 낙위지서(樂爲之書如右)함이다.

족후인(族後人) 우정(宇楨) 근지(謹識)

예강재건립표성기(禮崗齋建立表誠記)

예강재(禮崗齋)는 예강공(禮崗公)을 위(爲)한 병사(兵舍)이다. 공(公)의 후손(後孫)들이 성력(誠力)을 모아 궁구(肯構)이니 위선지도(爲先之道)에 당연(當然)한 일이다. 표성(表誠)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 유래십세(由來十世)에 미진지사(未進之事)가 사사건건(事事件件)이 막비대사(莫非大事)이니 상언(上言)이대종(上焉)而大宗)에 은포재회증(雲圃齋恢增)이며 찰방공(杓芳公) 위도완비(察訪公墓石儀位土完備)이며 하언(下言)이 파종(下焉)而派宗)에 예강재(禮崗齋) 신설(新說)이며 예강공(禮崗公)의 묘도비식(墓道備飾)이며 예강공 이하(禮崗公以下) 누세병향제전준비(累世并享祭田準備)며 수사인 생활보장(守舍人生活保障)이며 근이파보(近而派譜)와 원이총보(遠而總譜)와 대보세보(大譜世譜)의 침설중수(疊設重修)함을 일연병거(一聯並舉)하자니 사거력면(事巨力綿)한대 성근태만(誠勤怠慢)이 혼효불변(混淆不辨)하면 권징(勸徵)할 방도(方途)가 무(無)함으로 이 현판(懸板)에 각명(刻名)하는 바이다. 그러나 후에 후훈(後孫)이 내세(來世)에 조선(祖先)이 됨이니 내세(來世)의 자손(子孫)이 예강재(禮崗齋)에 올라 고명사의(顧名思義)할지이다. 시역야(是役也)에 인덕(麟德) 인만(麟萬) 인수(麟壽) 삼삼형제(三從兄弟)가 거화(巨貨)를 부단(負擔)

하였고 유종지미(有終之美)를 거듭은 명규(命規) 준규(準規) 성기(成基) 삼수질(三叔侄)의 공로(功勞)에 있고 시종상역자(始終相役者)는 덕상이상야(德相二相也)오. 온 문중(門中)이 화동(和同)이 되어 일심존봉(一心尊奉)함은 단규어화균지풍야(亶由於和均之風也)이니라.

족후손(族後孫) 우정(宇楨) 근지(謹識)

通政大夫工曹叅議忠州石公墓表

道州華嶽之北有磨亦里昔有石氏卜居而世富興迨其陵遲衰稍離散則爲他人有以至變里名曰可禮然環左右麓纍纍然者皆石氏世葬而最中有大封之負亥者卽故贈工曹叅議公諱元德字亨一之藏也后孫麟德在幼舉家渡海而鬪智粥財積數十年致富累鉅萬以歲戊申秋歸國省墳墓雖屬有土居該孫之幹護而不甚荒廢然其低回顧瞻不能無曠舊廓落之感乃諭告嗣孫述準而出巨金具石表公墓而過余言曰顧余不肖兄弟方家海外其掇返己不可期則無寧撫實載辭以備異日陵谷之變遷此淺誠所不能己之事故敢以文請之余曰此孝思也詎可辭因按其譜牒所載石氏籍忠州高麗上將軍鄰之后入

鮮吏曹叅議成玉當昏朝棄官隱于密陽後有承仕郎汝信寒岡鄭先生卞誣時以郡薦同疏卞誣是爲九世祖也曾祖諱晚明祖諱命迪考諱戒三妣清道金氏公生以正祖甲午壽贈通政大夫工曹叅議卒于庚子七月二十八日配淑夫人金海金氏厚宗女生于乙未卒以辛亥墓同原北亥坐三男光璞光瑠光瑒男炳宗炳再光瑠男炳日炳喆出炳甲光瑒男炳喆以下不載嗚呼公之信蹟文獻無傳且故老已盡無得以憑問然更念公歿距今爲五世而有夫賢孫餉受多福備盡孝思無間絕海萬里而念故國墳墓以有所事於紀德者如此此或非公冥德之實積者有可以質之天而天亦不能無心於報後者然也耶余旣據其世譜而列其世次并附以斯說俾刻于隧道云

慶州 李溫雨 撰

통정대부 공조참의 충주석공 묘표

도주화악의 부널에 마연리가 있으니 옛전에 석씨가 복거함이 있어 대로 부자로 일어났다. 그 쇠미한데 이르러 점점 이산 함인지족 타인의 돕이 있어 마을 이름을 바꾸어 부르되 가례라 하였다. 그러나 좌우산에 투루한 무덤으로 다 석씨의 조상의 묘니라. 그 중의 제일 큰 봉은은 곧 증공조참의(贈工曹叅議) 공휘는 원덕이요, 자행은의 가장함이라. 후손 인덕(麟德)이 어릴 때 온 집이 바다를 건너 지혜

로서 재물을 모아 수십년에 큰 재벌이 되어 해 무신(戊申) 가을에 고국에 돌아와
 분묘에 성묘할새 비록 해손(該孫)이 간혹함이 있어 심히 황폐되지는 않았으나 배회
 고침(徘徊顧瞻)에 능히 광우곽낙(曠舊廓落)한 느낌의 없지는 아니한지라。 이에 생
 각하던대 사손술준(嗣孫述準)에 고하여 많은 돈을 내어 비석을 갖춰 공의 묘에 표
 를 할새 나에게 지나며 말하되 돌아보건대 내 불초 형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으
 니 몸돌아 올때가 기약(期約)이 없으니 차라리 실상대로 말을 새쳐서 뒷날 능득변
 천(陵谷變遷)할 때 갖춤이 내 정성이 능히 마치지 못한 일인고로 감히 글을 청함의
 라。 내가로되 이 호자의 생각이라。 어찌 가히 사양하겠는가。 인하여 그 보첩의
 실린 바를 안찰해보니 석씨가 충주로 관하여 그러 상장군 휘린의 후라。 조선에 들
 어와 이 조참의 성우(成玉)이 혼조(昏朝)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밀양에 숨었고 뒤
 에 승사랑 휘여신이 있어 한강 정선생(鄭先生)을 변무(下誣)할 때에 군천(郡薦)으로
 서 한가지로 변모하였으니 이가 九세조가 됨이라。 증조휘 만명(晩明)이요, 조휘
 명적이요 고휘 계삼이요 비는 청도김씨이니 공의 정종감유에 나시니 수로서 증·통
 정대부(通政大夫) 공조참의 하였고 경자철월 이십팔일에 졸(卒)하셨다。 배는 숙부
 인 김해김씨니 후종의 따님이다。 을미에 나시고 신해에 졸하시니 묘(墓)는 동원
 부널해좌다。 삼남 광박 광우요 광우의 남 병중 병재요 광우의 남 병일 병철
 은 출제며 병갑이요 광우의 제남 병철이요 이하는 실치 않느니라。 우호(嗚呼)라。

(공의 신적 문헌(新蹟文獻)이 전함이 없고 또한 이 늙은이가 이미 다 되었으니 얻어 서무를 곳기 없으나 다시 생각(生覺)컨대 공의 뒤에 이제 오세가 되었는데 현손이 많은 복을 향수해서 호도의 생각을 갖춰 다하여 절해(絶海) 만리를 생각함이 없이 그구 분묘를 생각하여서 기덕함의 이와 같으니 이가 후공의 명덕임을 쌓음의 가히 하늘에 물이 면 하늘 또한 능히 마음이 뒤에 감응이 없던 아니함이 아니겠는가. 내 가 이미 그 세보(世譜)를 간거하여 그 서차를 하고 한가지 이 말로서 부처 하여금 수도에 새김을 한이라.

정주 이인우 찬

諱載岳初諱龜範字義瑞始居于白雲洞馬屹里頂上村

二十一世

學生石公墓表

密陽之武安坊有曰判書嶝者山勢明媚而其右麓之負庚原有封四尺者故學生石公諱

而球字潤玉之藏而其配達城徐氏德興女合祔焉石氏之貫忠州上祖曰鄰高麗時以軍功升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今忠州也中世有花園汝明以注書麗亡守義鮮朝屢徵不膺後贈左贊成至燕山主時有吏曹叅議成玉棄官南遯于密陽密之有石氏治此歷進士擎天雲圃汝信察訪乾軸是五世以上也高祖曰泰柱曾祖曰萬瞻祖曰光天考曰載岳妣曰東萊鄭氏琳女公生以正祖丁酉十二月二十四日卒以 憲宗戊戌十一月二十三日二男曰基隣基卓孫男致奎致甲長房出致周次房出以下不錄今其嗣孫聖楨合謀於族伐石表阡而公之事行有世遠莫詳故只據其譜棄而錄其世系生卒配嗣如右云

花山 權龍鉉 撰

학생 석공 묘표

밀양의 무안방에 있어 가로되 판서등(判書等)은 산세가 명미하고 그 우록 경원에 사척의 묘가 있으니 곧 옛적 학생석공(學生石公) 휘 이구 자 윤옥의 묘이니 그 때 달성서씨(達成徐氏) 덕흥의 따님으로 합부하였느니라. 석씨의 관은 충주(忠州)라. 상조(上祖)는 가로되 휘 린이니 고려(高麗)때에 공으로서 상장군(上將軍)에 올라 예성군을 봉하니 예성(藥城)은 지금의 충주라. 증세에 화원여명(花園汝明)이 있어 주서로서 고려(高麗)가 망함의 의로 지켜 조선조에서 여러번 부르되 응하지 않고

뒤에 좌찬성(左贊成)을 증하였다. 연산주(燕山主)때에 이르러 이조참의(吏曹叅議) 성욱이 있으니 벼슬을 버리고 난으로 밀양에 숨으니 밀양에 석씨 있었음이 이로부터 처음했더라. 진사(進士) 정천과 윤포여신과 찰방전축이 이 다섯 이상이라. 고조는 가로되 태주(泰柱)요 증조는 휘 만첨(萬瞻)이요 조는 휘 광천(光天)이며 고는 휘 재악(載岳)이니 비는 동래정씨(東萊鄭氏)임의 따님이라. 공이 정조(正祖) 정유(正裕) 십이월 이십사일에 생하고 현종무술십일월 이십삼일에 졸하다. 두남은 가로되 기린기탁(基隣 基卓)이요 손남은 치규(致奎) 치갑(致甲)이니 장방출이요 치주(致周)는 차방출이니 이하는 불루한다. 이제 그 사손 성점(嗣孫 聖楨)이 제족과 합모하여 돌을 닦아 묘 기슭에 표를 할새 공의 사행은 세상이 멀어 자세함이 없는고로 다만 그 보승을 근거하여 그 세계와 생졸과 배위와 후사를 기록함이 위와 같다 이르니라.

화산 권응현 찬

忠州石公墓碣銘

吾執友石君宇楨手述其高玉考事行一通授余而請其顯刻之文余以不可堪難之則曰世之秉管者不無其人而必於吾子焉求之者子之先祖復齋先生與吾先祖雲圃公同疏

卞寒岡先生庚子之被誣既有通家之誼而今子之於吾又有同門之契此所以揆其義分而不他之求也余拘是無庸復言則遂撫其實而書之曰公諱而琢字采玉石氏始祖諱鄰來自中州有軍功於高麗食采藥城卽今之忠州而子孫仍貫焉入李韓而吏曹叅議諱成玉見燕山政亂避禍南下自是居密州生諱光弼左副司果數傳而有諱汝信卽雲圃公寔公之六世祖也曾祖諱萬瞻祖諱光天考諱載岳俱儒行相承妣光州盧氏諱女所生繼妣密陽朴氏東根女公於三舅弟居季而生有異質儀表軒昂度量寬濶而又有幹辦施設之能初年與二兄治經業常憂貧窶有艱於奉親瀟澹之供乃謂二兄曰兄之姿品甚宜於學又家庭之期望甚殷我當治產而期父母安養願兄無所顧念而專意於業也遂輟書幹家盡勤勉以增產節約以益蓄未及十年得致富饒及斫箸以腴壤與兄而自取瘠薄兄曰是皆汝之所成者吾安可取多於汝乎公曰念兄養親奉祀以至接賓繁多而我則無他需用可更有增殖之道何足較多少於今曰乎嘗與族人出若干金創一學契將蓄成貲購經史以備子孫課讀之資嚴立管理貸收之規子孫至今奉遵爲噫公以出人之姿與才不能肆力於學然所行皆學之事孝友行于家信義服於族而子孫滿堂詩禮爲業至今百有餘禩而淳淳有古家風其視驟享富貴於一時而旋覆者果孰優而孰劣哉公生以正廟庚子七月二十四日卒于壬子五月十七日享年七十三葬于龜洞漆田山先塋下丑坐配一直

孫氏鎮昌女生一男曰基洪號愚溪有文行一女適咸平李復緒孫男十人曰致悅致鎰致
 崗致聖致魯出致銘致律致鎮致鉉致根曾玄以下多不錄係以銘曰
 父母凍餒子豈可以安坐而讀書兄能詩禮弟或可以幹蠱而把鋤治家有法門祚由之泰
 舒裕後牖柯子孫得其艷譽

丙辰立夏節

碧珍 李興中 謹撰

충주 석공 묘갈명

나의 집우(執友) 석군 우정(宇楨)이 고왕의 사행 한통을 기술했다 하여 나에게 주며 그
 현각(顯刻)의 글을 칭하거늘 내가 가히 감당치 못함으로 어렵게 하니 곧 가로되 세
 상에 병필하는 이가 없진 아니한데 반드시 자네에게 구함은 자네의 선조 복재선생
 이 내 선조 윤포공으로 더불어 한가지 한강선생의 정술의 피물들을 소변하였으니 이
 미 통가(通家)의 의가 있고 이제 자네가 나에게 또 동문(同門)의 제가 있으니 이가
 서 그의 분(義分)을 헤아려 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음이니라. 하기에 내가 이에 다
 시 말할 수 없어 드디어 그 실상을 주어서 가로되 공의 휘는 이탁(而琢)이요 자는
 채옥이요 석씨 시조 휘린(石君)이 충주(中州)로부터 와 군공(軍功)이 고려에 있어
 봉하니 지금(至今)의 충주라. 자손이 인하여 충주(忠州)로 관하였느니라. 이한(李

韓)에 들어 이조참의 휘성우(成玉)이 연산정란(燕山政亂)을 보고 재화로 피해 남으
 로 내려오니 이로부터 밑주에 거함이라. 생휘 광필(光弼)은 좌부사과(左副司果)요
 두어번 전해 휘여신은 곧 운포공(雲圃公)이라 공의 육세조이다. 증조 휘만침(晩瞻)
 이요 조 휘광천(光天)이요 고 휘재악(載岳)이다. 유행으로서 서로 이었고 비 광주
 노씨(妣 光州盧氏)는 식의 따님이요 소생 제비(所生繼妣)는 밀양박씨며 동은에 따님
 이라. 공이 삼근제에 끝의 거함이라. 나서 이질(異質)이 있어 의표(儀表)가 현양
 (軒昂)하고 도량이 광활하며 또 간변하고 시설(施設)함에 능함이 있어 초년에 이형
 을 더불어 경업(經業)을 다스리다가 항상 빈궁(貧窮)함이 봉친하여 수수의 공(供)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근심하여 이에 두 형에 일러 가로되 형의 자품은 심히 학문(學文)
 에 마땅하고 가정(家庭)의 기망(期望)이 심히 크니 내가 마땅히 치산(治産)을 하여
 기어코 부모(父母)를 편히 모실터이니 원컨대 형은 고념(顧念)하지 말고 온전히 업
 을 하라하고 드디어 글을 거두고 집안을 근면하여서 살림을 더하고 절약을 하여
 재물을 모아서 십년(十年)이 안되어 부유(富裕)함을 이뤘니 살림을 가름에 기름진
 땅은 형을 주고 천박한 것은 자취(自取)하니 형이 사양하며 가로되 형은 양친봉사
 (兩親奉事)하고 접빈객도 번다하고 나는 편수용(手用)이 없으니 가히 다시 증식(增
 植)할 수 있으니 어찌 족히 오늘날날에 많고 전임을 비교하리오. 일찍이 죽음을 더
 불어 약간(若干)의 돈을 대어 한 학제를 기창하여 장차(將次) 재물을 이뤄 경사(經

史)를 사니 자손(子孫)이 과독할 자리를 갖추고 엄히 관리하도록 하여 꺾주고 받아 들이는 규모(規模)가 자손(子孫)들이 지금껏 받들어 내려옴이라. 슬프다. 공이 뛰어난 재질로서 능히 배움에 힘을 다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행하는 바가 다 배우는 일이라. 효우(孝友)를 집에 행하고 신의(信義)를 종족에 복종하여 자손(子孫)이 만당하고 시례로 업을 하여 지금 백유여년(百有餘年)에 순순히 고가(古家)의 바람이 있으니 그 각종에 부귀를 일시에 하다가 무득 얻어진 자를 보면 과연 누가 넉넉하고 누가 열하겠나 하나 공이 정묘경자 칠월이십일에 나고 임자(壬子)오월십칠일에 졸하니 향년이 칠십삼(七十三)이라. 구동칠전산 선영하좌(先塋下丑坐)에 장사하니 배는 일직손씨(一直孫氏) 진창의 따님이요 생 一남하니 가로되 기흥이요 호는 우계니 문행(文行)이 있고 일녀(一女)는 함평 이복서(李復緒)의 처요 손남 십인(孫男十人)은 가로되 치열 치일 치강 치성 치로는 출제하고 치명 치을 치진 치현 치근 증현 이하는 많아서 실지 않는다. 명월 부모가 동뢰(凍餒)함에 아들이 어찌 편 이끌만 읽겠나. 행이 능히 시례(詩禮)로 함은 아우가 후가서 간고를 하여 호미를 잡음이라. 집다스림이 법이 있었음에 문조가 말미암아 태서하고 유후유가가하면 자손이 그 염의 함을 얻어리라.

병진 입하절

병진 이흥중 근찬

諱而琢字采玉設學契購入書籍以供學者現今保存書籍本是契中之物也而自宗中移
管

二十二世

諱聖鳳字君益 贈崇政大夫行同知中樞府事配貞夫人月城崔氏并享百歲行重牢禮

賀客多至數百人

諱基浩字孟善號愚嶺重修竹林齋齋在白雲洞後而公之歿後因以廢矣公詠竹林齋韻
曰竹之爲物四時春謀我山齋卜築新往往高臨修楔友時時雅集讀書人貞操自有凌
霜日靜影閒尋對月晨晚坐晴牕消世慮聊將詩酒道天真

柳孝祚

豐山人字忠可江阜柳尋春之第二子

來訪公有韻曰

賁然行旆訪山居自覺薰香滿我裾座上清標珍重夕心中鄙吝簿言除十年儀範傳知
信一席風流講和書作別林齋何所贈數聯佳句是瓊琚

柳孝祚再訪有韻曰

山齋客到重幸得共團圞盃酒含情暖林烟繞屋寒許心多翠竹叙面襲香蘭清韻恥庭

過吾何敢考槃

輓李士仲咸平人

哭公想公年寄亦天化亦天閒養由自然德種田福種田世業修青氈孝心傳友心傳庭
訓垂慎旃孫而賢子而賢動靜審後先八無愆出無愆杖屨那處遷山之邊水之邊

又輓朴參奉密城九

老農堂上老農仙丹旒踰蹻向彼天貽後規模孫繼業奉先禮制士禰賢富而行義賙貧
窶壽必好仁享耄年回首芳園歸五友數幅哀詞淚泫然

又輓李季老

逸於好德壽於仁三太平年度六旬滿案琴書閒事業繞庭山水老經綸裕昆以後孫謨
永刑寡之餘婦烈新嗟我哭公公不見九川明月照精神

公沒埋炭石基坤鼎坤曰

公來吾宗重公去吾宗輕輕重皆春夢奈吾白髮生

學生石公墓表

公諱基卓字仁兼忠州石氏爲高麗上將軍藥城君鄰後而中世至吏曹叅議成玉始爲密陽人公之高祖曰萬瞻曾祖曰光天祖曰載岳考曰而球妣曰達城徐氏德興女公生以純祖乙酉七月二十八日卒以哲宗癸亥九月六日得年僅三十九葬判書澄考墓岡岡負午原上系之詳俱載考墓表公之配曰昌寧曹氏可鱗女別葬日末澄丁坐原一男致周二女適曹振奎柳承一孫男世瑾世馥世桓以下不錄今其嗣孫熙郁合謀於族伐石表阡而公歿已百有餘年家傳闕略事行之詳無得以盡考而惟其友于之行略著於敦友亭記則惟此而可知其篤於孝友也故姑以此著之云

花山 權龍鉉 撰

학생 석공 묘표

공의 휘는 기탁(基卓)이요 자는 인검이요 충주석씨가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에 성군의 뒤가 되고 증세에 이조참의(吏曹叅議) 성우에 이르러 처음으로 밀양(密陽) 사람이 되었는지라. 공의 고조(高祖) 휘만첨이요 증조(曾祖)는 휘광천이요 조(祖)는 휘재악이며 고(考)는 휘이우이니 비(妣)는 달성서씨(達成徐氏)이니 덕흥의 따님 이라. 공이 순조(純祖) 을유기칠월이십팔일에 생하고 철종(哲宗) 계해구월육일에 졸 하니 득년이 반드시 삼십구라. 판서등(判書澄) 선고묘동원 오좌에 장사하니 상제

의 자세함은 모두 선고 묘표에 실었느니라. 공의 배는 가로되 창녕조씨(昌寧曹氏) 가린의 따님이니 별장 일말등 정좌원하니라. 일남(一男) 치주요 이녀(二女)는 조진규 처요 류승일 처이며 손남 세근 세복 세향의요 이하는 불복한다. 공의 돌아가심이 이미 백여년에 집에 전함이 결략하여 사행의 자세함을 얻어서 다 고람함이 없고 오직 그 우애한 행실이 대략(大略) 돈우정 기문에 나타남즉 이로 미뤄 가히 그 효우의 돈독(敦篤)함을 알리라. 그런고로 이로서 나타남을 일음이라.

화산 권영현 찬

諱基洪字元普號愚溪構敦友亭于村牛嶺村今之白雲洞之北宅之西鑿淵于亭之前淵之陂則桃竹並栽淵之水則蓮魚並養淵之島則花石錯置以爲斯亭之飾賓客往來之外日與八從班與他親戚情話於此以爲隱居之樂也壽躋八十三歲

嘗詠亭韻曰適立吾亭每會團扁題嘉號好相看千年盤壁依山靜數棟茅簷近水寒里俗猶和麴義禮席珍同樂坐衣冠終教諸子知敦友貽後痴謨意欲寬亭之上樑文晚坡所撰也記文則竹逸所構也而上半篇式爲風雨所缺失有當時士友中次詔數十首晚

坡孫鍾泰竹逸晚坡從弟鍾瑞

敦友亭記

記文及樑頌爲風雨所磨上半不可記

石君元普謂其從兄孟善曰吾家以凝州古族衰替至此若是不已則其將不保儒名吾從昆季八人子姓煢煢一門諸族冠童不少而尚無隸業之所將何以振起門戶也全雖窮乏將營數椽茅屋一以爲子侄講讀之所一以爲朋友盍簪之堂一以爲兄弟湛樂之地則庶幾有辭於儕友矣其意如何孟善曰是吾平生之所願欲而有志未果君今有言焉可異聞乃卜地得盤陔之石于村中枕澗而圓隙地可以置數椽屋於是鳩材集工不日成之題其楣曰敦友窓櫺明朗早迎東嶺之素月軒楹通敞遙挹西山之爽氣引水爲池水色清澈種樹爲園樹陰掩映猗猗綠竹咏君子而不諼嚶嚶黃鳥求友生而和鳴隱然若一別區而無囂塵奔競之態矣歌於斯咏於斯聚諸從而相樂顧名思義情誼益敦令人不覺欽艷而嗟歎也春秋絃誦之聲不絕子孫之昌大可期遠近遊從之士還至門戶之光色可知噫以元甫清貧能判得此數間屋以爲裕後貽謨之遠圖顧此世人之遺子孫者只欲粟如丘山田連阡陌而終不免益過生怨而驕奢放縱其視元甫不啻若鴻鵠壤虫何道哉余曾一上其亭顧而樂之先賀主人作亭之深義重嘆規模之精密而遂爲記以贈之恐不免識者之嘲笑矣

敦友亭樑頌

上半篇爲
風雨所磨

詩人皆惠連羣從 取諸秉彝一室之和 會事真率終日談笑之有餘 昕矐對榻坐江
話孰非淵明至親 扁以敦友二字之號 樂意團圞常時出入之無礙 風雨聯袂眠原

鴈傳行行之韻 森列乎滿砌蘭蕙 澗聲碁聲雨聲落木聲添詩中清籟 于以得朋柳
鶴報急難之義 湛樂乎在床塌簾 嶽色野色月色芳草色暢酒後雅懷 於斯聚族花

店通依山無媒之逕 居然備人間所稀 載色載笑和洽乎卯君踵隨 東魯配有德之
街走隔牆相望之家 樂則有天下不與 或嘏或歌聯翩乎子姓肩比 北涯藏不市之

號族親徂徠先生 茲陳卽偉之頌 拋樑東 曉起教吏開戶視拋樑西
名宗丈嵩邱處士 以助呼邪之聲 日峴迢迢積靄中 棣花無數滿庭紅屏巖出沒夕

陽低 哥哥倚杖怡然笑 抱樑南 茶罷對床亭日午 抱樑北
綠醕新篔喚隔溪 牛嶺干霄紫翠含 風移花氣入澄潭 雲木蒼然望不極

萃嶽扶輿元氣鍾 抱樑上 羣帝騎獐集斗躔 抱樑下 我有瑤
孫峯列立芙蓉色 捲盡纖雲玉宇曠 絳河千斛無風浪 剗木通泉漑漑瀉 就中盡

琴古調多 伏願上樑之後 紫荊不老 一家之誼好彌隆 永指點於凝鄉山水
是知音者 碧沼長清 四時之物色無盡奚足羨於洛陽圖亭

敦友亭原韻

適立斯亭每會團 扁題嘉號好相看 千年盤壁依山靜 數棟茅簷近水寒
里俗猶和劇義禮 席珍同樂坐衣冠 終教諸子知敦友 貽後痴謨意欲寬

次韻

密城 孫鍾泰 晚坡

敦友亭成會事團 滿園花樹日相看 階深臥石苔痕濕 洞僻鳴泉竹氣寒
村秀補閒携白笈 社朋偷暇集黃冠 盈盈綠醕尋情話 明月方塘半畝寬

又

密城 孫鍾瑞 竹逸

隙地盤陔白石團 亭成敦友一回看 滿園花樹三春色 半畝池塘五月寒
 情話殷勤聯伯仲 風流迭宕會衣冠 參差蘭玉階庭列 茅屋三間狹世寬

又

杏下

盤渦匯水月盈團 萬象森然此處看 籬菊垂香秋後傲 野泉通脉雨來寒
 潭空蘸日疑清鏡 座靜揮塵恐浼冠 花樹一園湛樂事 孤亭纔得戶庭寬

又

柳聖瀟 休若

敦友和風翕一團 情同花樹日相看 簷連疊立雲屏好 門對潺流石澗寒
 義厚椿津分寢幔 儀行鄒魯集圓冠 知應箇裏悠然興 談笑怡怡意自寬

又

李祥及 巷逸號聖一字

潭上危亭月影團 聯衿五友聳瞻看 滿庭礪礪磐宗厚 入枕淙淙水氣寒

世俗澆漓磨義禮
古風簡朴集儒冠
顧名諸子思無忝
門外前程百丈寬

又

金敬宇

高亭情話會常團
敦友和容這裏看
枕下清溪通竹冷
簾頭皓月滿山寒
百年花樹籠仁里
四壁圖書坐凡冠
義宅姑蘇專豈美
方塘半畝地猶寬

又

金敬五

花樹芳陰氣一團
危亭勝事日相看
三隣義宅溪山遠
千載藝園水月寒
結構嘉謨稀俗白
修齊要道偉儒冠
登軒試問琴書樂
這裏和容帶眼寬

又

姜周太
市隱

八友聯襟一席團
那邊湛樂箇中看
數株猗竹軒前邃
半畝方塘枕下寒
學得詩書明禮義
迎來賓客整衣冠
主翁無事觀魚躍
垂釣斜陽換酒寬

又

李錫晚

滿亭和氣棣花團 能使遊人競愛看 愚嶺浮雲幽跡掩 小潭清水晚襟寒
 俄攄栗里琴中話 更倒桃園酒後冠 禮義村中盤石上 傳之千載福基寬

又

曹鎮淵

宜兄宜弟奠居團 數架亭成足以看 淵渟流水三時淡 楣入清風五月寒
 間間相歡騷客句 擾擾何羨使君冠 同堂敦友延賓敬 半畝心田遂且寬

又

曹可成 草隱

座上春風氣一團 楣成敦友顧名看 學來張忍同居義 擁得姜衾不畏寒
 講彼詩書均子侄 尊其瞻視正衣冠 鑑存半畝方塘裏 斯道非他一以寬

又

申在滌 居南佳

敦友名亭缺界團 好將家法額扁看 滿庭棣萼爭春苑 繞檻叢篁壓水寒
 曠代嘉謨藏典籍 多時湛樂集衣冠 主人兼得幽居趣 擇勝溪山卜地寬

又

咸安 趙龍植

半畝方塘月影團 情敦朋友舉盃看 幽篁繞檻人非俗 澗水無塵意轉寒
 滿壁圖書儼氣像 憑軒談笑好衣冠 主人兼得於斯樂 坐了心工在厚寬

又

徐志烈 竹園

山家清趣十分團 半畝方塘鏡裡看 岳上簷眉延岱翠 墻前竹氣釀池寒
 洗研魚子吞華墨 曳杖花枝拂素冠 歸與剡書乘雪夜 小園春信客心寬

又

羅采洪 寓德谷

磨禮村中會友團 古人遺俗此亭看 軒高詩語林端出 境僻溪聲枕上寒
 江左風流半詩句 嶠南文物百年冠 誰知珍重無窮樂 每抱清琴酒後寬

又

趙泰仁 寓德谷

亭以敦名友會團 聊將琴酒樂相看 小塘魚躍蘋風暖 短箔蟾登桂月寒

天地男兒悲釵筑 東南賓主好衣冠 世人莫道無佳景 故作閒區水石寬

又

李章郁 城西

結茆通敞友成團 老少連襟酒禮看 新燕欣迎斜日晚 喚鶯頻到小塘寒
幽心勤篤長京玉 清趣何須強彈冠 谷靜風蕭裁半局 彬彬諸益互相寬

又

廉相奭 澹窩

客子來時月正團 南州勝景此亭看 蕭垣舊業曾師儉 杜廈新謨大庇寒
敦友傳家惟世訓 賓朋滿座盡儒冠 百年水竹清閒裏 灑落衿懷自任寬

又

楊輔潤 愚谷

特地立亭萬像團 主翁閒處好來看 桃連兩岸春如畫 竹近深潭夏可寒
勝景眼前皆恠物 清遊座上幾儒冠 箇中真樂誰能識 永日相酬酒後寬

又

禹用夏 竹山

一立茅亭八友團 箇中不啻等閒看 當牕栽竹盃心碧 引水成塘月魄寒
攬結蒼蒼春夏景 能容濟濟布衣冠 後來若問誰先得 磨禮文章石大寬

又

石致璞

敦友亭成每會團 同筵花樹好相看 山藏淑氣雲容靜 水洗塵情鏡面寒
諸子升軒超俗白 高朋滿座艷儒冠 風流湛樂歌絃誦 數棟華楣闢地寬

又

石致華

敦以名亭會以團 百年花樹四時看 床頭枕石連階潤 牆外烟篁隔水寒
閱去詩書消世慮 討來情話集儒冠 主翁獨得怡然樂 垂後嘉模卜地寬

又

從侄致珏 牧溪

磨禮村中卜地團 家君八友立亭看 軒前迎月詩歌起 枕下鳴泉竹氣寒
精密規模傳子弟 從容談笑整衣冠 數椽茅屋何修輯 思義千年意尚寬

敦友亭重建記

諱基洪構亭于牛嶺村今白雲洞

由密州治而西南行十里許有里曰馬屹石氏之所居也石氏自其先世世襲儒素以孝友爲家政至故處士諱基洪與其從父兄弟七人情好篤摯分甘共苦無間彼此因相與治一屋里東名之曰敦友亭朝夕團樂以終老焉當時鄉中名碩如晚坡孫公鍾泰竹逸孫公鍾瑞爲之頌其櫺記其楣以美之後六十餘年亭爲風雨所撓處士公之子致聖與其七公子孫合力撤而新之視舊梢張于以紹述先蹟而垂裕來範也予惟先王之禮從父視之猶父則從父兄弟視之當猶親兄弟而凡其所宜施於親兄弟者無所不宜惟於從父兄弟也善施於親兄弟者必用友道焉則善惟於從父兄弟者亦必用友道焉可知矣顧自叔季以來世教陵弛而倫綱掃地人之爲兄弟者或不能全恩而至于閱墻者有之矣則其於從兄弟也不視之如越人亦已難矣又安望其必用友道矣哉惟茲石氏之先公猶有過人之德性友于餘恩惟行於從父兄弟之間而視之如一長枕大被對眠於風雨之夜其實既舉而其名隨著焉則其爲人之賢可見矣而後孫諸公又復克承先志而思所以光大之者旣已增修其遺躅而又益勉勉於所從事之實雖其宗支之繁將或至於服窮而每念先公平日視同親兄弟之時則不敢有一言一行或隣於不友者之所爲惟是心以往使其族屬益盛門

戶益廣而所以修先蹟而勉勉於其實者久益勿替焉則斯亭也長在於春風和氣中而不與世間痼烟霞護花石之區同其興廢矣岐陽永叔所謂園間之草木有駢枝而連理翔集之鳥不爭巢而棲擇子而哺者庶幾於斯亭乎見之矣

歲戊辰仲春日

鰲山 金在華 記

景愚亭記

余嘗爲同鄉石氏記其敦友亭重建事有以詳故愚溪處士基洪公之行義焉近歲公之主鬯曾孫應楨君與諸爲公之後承者就墓下相望之地築一舍頗宏緻予以供卦讌集榜其楣曰景愚亭遣在楨君求記于余余以既爲彼記不必復瀆于此難之矣人事多謬二君遽皆不淑諸石氏以其遺意來督余文余不忍終辭焉蓋公有文學志行而尤篤于孝友事二親存沒致誠哀與從父兄弟七人相愛如手足治一屋里中朝夕團圞以終老卽所謂敦友亭也家臨溪水其名曰愚有合于心因以自號焉此斯亭之所以寓思也昔柳子厚謫居永州名溪以愚而爲詩若序以述之其說自不愚而入於愚自愚而終於不愚文則工矣而讀者猶病其有拂鬱不平之氣焉况其平日不自貴重黨附用事者以圖功名卒不免於斥死

遐荒而以幼孤托人謂之不愚亦未可也若公自處以愚而絕意名利惟以稼穡詩書爲家
 範心和氣順既已眉壽令終而所生十丈夫子無一天闕今其曾玄孫近於百人門戶之昌
 未有涯量詩人所謂自求多福者公實有視諸子厚之所爲其智愚果何如也雖然以公爲
 智乎則似非平日自處以愚之意吾但以其愚爲不可及也已

景愚亭上樑文

華岳峻嶒北控難尋古仙老隱跡凝川瀕洞西迴爰卜先君子遺堪于紀于綱迺顧迺慮恭
 惟我曾祖考愚溪公藥城苗裔雲圃肖孫學究義理交遊晚坡竹逸友之門世襲簪纓能繼
 列祖叅議公之緒戶庭趨進願安北堂親慈二候朝夕圖欒嘗與從父兄弟七人志遠青雲
 激切北風之歌身修白屋長懷南岳之趣抱慟風樹藹然仁孝之端驅馳詞林卓乎傑偉之
 格洞閉壑幽尚懷棲息之所星移歲換不勝聳感之懷香火著存之際恒懷兢惕之心籩豆
 施設之時難免窘束之患宗黨聚議恐貽戚於先靈閭族齊聲庶有光於舊業幸茲風和氣
 朗正值日吉辰良拓好基於鶴麓松楸茂列建新亭於愚溪水石澄明小爲臬大爲桀度架
 楣楹之井井涼而軒燠而室戶牖墻序之持持工僇呈其奇丁夫效其力攢列苗而作屏巒

層聳秀挹清流而爲帶溪綠縈回朝靄暮烟供陟倚之佳興春花秋月抒齊邀之幽懷爰得其所嘉謨啓我後裔徂茲有方孝思光于先塋八此室處侖然奧然之規矩思先人居儉然肅然之貌容薦蘋藻而芳潔一氣之神感孔昭會花樹而悅怡百代之彝倫攸叙尊靈如在左右奉遺訓而罔愆人情咸知慎追庶民德之歸厚執罇俎而行禮兼爲宗會之堂藏書史而課工亦倣家塾之制是所謂賁飾勝地庸詎不興起寒門敢陳短唱之詞助舉脩樑之役兒郎偉拋樑東峴山朝日與天通不遷自是仁人樂厚重千年鎮檻東拋樑西遙望靈山夕照低晝夜虛盈還一體八簾新月又濟西拋樑南牛嶺山顛碧似藍歲暮景公何處去空然落照泣齊南拋樑北屏山崕兕撐天極緬想晦菴劉子輩不忘言教遙瞻北拋樑上春秋霜露氣悽愴洋洋一理自分明彷彿儀形見在上拋樑下徙倚楣端頰望野芬苾齊誠天降祥羣孫禾稼滿堂下伏願上樑後神靈扶護門運丕昌昆孫盡報本之誠禋享無替於永久祖先篤陰隲之慶福履未艾於方來

歲著雍閏茂重陽節

曾孫 一楨 謹撰

愚溪石公墓碣銘 并序

石君宇楨述其曾祖愚溪公事謁余以鑱豎文余按其事有感夫仁者之得壽德厚者之流澤遠古人言其必然而今於公益可驗矣公諱基洪字元普愚溪其自署也爲人長髯秀容軒昂有長者氣性溫厚豁達末嘗有拂戾齷齪態少嘗涉學不拘之於訓詁記誦而惟務見之於行以事親之不可不知究醫方堪輿之說頗得其深而亦未嘗自售以有物外趣以所居病於旱乾捐土田築池瀦水資灌溉因築亭其上與從父兄弟七人日寢處其中怡怡湛樂名曰敦友且以課子弟延賓友一方名勝多爲題詠蓋其一生雖無赫赫之名皎皎之著而其闡然內守者可見其心之仁德之厚也公享八十三壽而膝下育十丈夫兒其後之繁衍歷四五世而至百有數十門欄克昌敦友亭者既重加修治而後人又建景愚亭以永其風韻蓋其大壽之躋流澤之遠豈非天之報施於仁德之驗耶是可以銘其阡也石氏忠州之世高麗藥城君鄰爲上祖國朝吏曹叅議成玉避燕山政亂棄官南遯自是爲密陽人曰光天曰載岳曰而琢是爲以上三世一直孫鎮昌爲外祖純祖丁丑三月二十六日高宗己亥正月二日爲生卒歲馬屹里侍墓山砂太磴坤原其藏昌寧曹氏錫奎女昌原黃氏女前後配曹出七男致悅致鎰致崗致聖致魯出致銘致律黃出三男致鎮致鉉致根孫男世慶

世鐵出一房生世伯世珪二房生世郁三房生世富世夏世瑤四房生世鐵六房系世德世泳七房生世寬世八八房生世晋世章世達世遠出世五世雲九房生世遠十房系餘不盡載銘曰仁不在大根心則是德非他求務實則至世尚智巧公以愚守宜得天祐克昌厥後

花山 權龍鉉 撰

우계 석공 묘갈명

석공 우정이 그 증조 우계공(曾祖 牛溪公) 사행을 기술하여 나에게 참수문을 청하거늘 내가 그 일들을 안찰해보고 느낌에 이르니라. 대개 어진 자의 득수(得壽)는 덕이 후한 사람의 유택이 멀음이라. 고인의 말이니 정험하리라. 공(公)의 휘는 기흥(其洪)이요 자는 원보며 우계는 그 자호이다. 사람됨의 수염이 길고 일들의 현양하여 장자(長者)의 기상(氣象)이라. 성품(性品)이 온호 활달하여 일찍이 불어 악착한 태도가 있지 않고 젊을 때 학을 건너 뛰되 기승에 구애 아니하고 오직 힘써 행함만을 보이라. 어버이를 섬김의 의방감여지설도 연우해 알지 아니하지 못함이 라. 자못 그 기쁨을 얻되 또한 일찍이 스스로 사랑치 않느니라. 물(物)외의 취미가 있어 도전을 덜어 못을 파고 물을 실어 그 위에 정자를 짓고 종부 형제 칠이들을 더 불어 날로 그 증에 침체하여 이이 담낙하며 도우라 이름하고 또한 자제(子弟)를 가

르치고 빈우를 맞이하니 일방명승(一方名勝)이 많이 제영(題詠)하고 대개 그 일생
 (一生)에 비록 험한 이름과 교교히 나타냄이 없으나 그 암연히 안으로 지킴이 가
 히고 인덕(仁德)의 두터움을 알리라. 공의 향년이 八十三수(壽)이시고 슬하에 십
 장부아(十丈夫兒)를 길러서 그 후의 번연함이 사오세를 지내 백수십의 문란이 극창
 함이 있어 돈우정(敦友亭)을 더욱 수치를 더하고 후인이 또 경우정(景愚亭)을 세워
 서 그 풍유함을 실개하니 대개 큰 수(壽)환에 으뜸과 유택(流澤)의 요원(遙遠)함이 하
 늘이 인덕을 닮는 경엄이 아니라. 이가 가히서 그 무덤에 명을 하리라. 선씨는
 충주의 세라. 그러해 성우 휘린이 상조가 되었고 구조에 이조참의(吏曹參議)의 성
 우이 연산정란(燕山政亂)을 피하여 벼슬을 버리고 남(南)에 숨으니 이로부터 밀양
 (密陽)이 되었느니라. 가로되 광천 재악 이락이 이상 삼세가 되고 일직 손진창(孫
 鎭昌)이 외조라. 순조정추(純祖丁丑) 삼월 이십육일과 그중 기해정월이일이 생을
 (生卒)사가 됨이라. 마흘리(馬屹里) 시묘산(侍墓山) 사태등 근좌가 그 산소요 창녕
 조씨 석구의 따님과 창원황씨(昌原黃氏) 따님이 전후배니라. 조씨의 남은 칠남의
 니 치열 치열 치강 치성 치로는 출제하고 치명 치율이요 황씨출 삼남(黃氏出 三男)
 은 치진 치현 치은이요 손남 세경 세철이 출이니 일방생이요 세백 세유는 이방생
 (二房生)이요 세우이요 삼방생이요 세부 세하 세영이요 사방생이요 세철이요 육방생이요 세
 덕 세영이요 칠방생이요 세관 세팔이요 팔방생이요 세진 세장 세달 세원이요 출제요 세오

세운은 구방생이요 세원은 십방계니라。 남음은 실지 앎는다。 명하여 가로되 어짐
이름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은 근본한 즉이요 덕을 판데 구함이 아니라 실상을 힘
쓰면 이름이라。 세상은 지교를 승상하되 공은 어리석음으로 지킴이라。 마땅히 하
늘의 도임을 얻은 것이라。 능히 그 뒤가 창성하리라。

화산 권영현 찬

二十三世

諱致斗字德五號晚溪性剛毅有義氣早振文名撰叅議公墓碣而文則省略

忠州石氏設譜通章

右通告事大凡木之支茂而蔭春幸賴本固而宜其土水之派長而潮海實由源深而達
于川雖分流於千派源則是似況亂發於萬蘂本於攸同或凋殘而落遠方亦汪洋而八
污壑惟木所推莫曰浩茫於水可見豈不愛惜惟我氏族等彼木之一本葉盛衰於上枝
下枝若是水之同源波淺深於大海小海溯同派於厥祖宜合譜於均是子孫莫嘆後裔

之疏遠蔭中葉於諸宗如系寸於分明昭穆但見先世之系承漏譜而無徵反如塗人之相見忝祖而不睦寧爲賢昆之傳謨非一代之罪人抑千載之愧爾世久漸替地遠益疏古己丑初譜時勢難廣問今甲子重刊日實多漏書幾近三十年思復思而歎譜回望一千里聞所聞則貴宗聊以敢陳亦將猥越如我蔑識倘或勿愆昔吾石氏之來歷始出於中華而漢唐以後系承雲仍顯達名官雖不可證大宋年末始祖諱鄰爵在宋朝工部尚書位至銀資光祿大夫忠維報宋義不仕元浮海出東回首望北離皇華而革世逖矣千載先隴之鄉登麗朝而贊王顯哉二代封君之府平章兩代位史以說而難明上將軍一等功爵與譜則可徵暨我國朝咸興云有洪陽府院君慶昌宮翁主今當盡輸京畿顯在王旨御筆閣壽峴集板章前已摠錄忠州護聖廟雖批答之極尊崇密陽吏叅碑但世德而不廣庇其間也官職兵使縣監而後之家聲典籍察訪竊伏念昔自吾祖前無他宗以若本支如分叢葉懷本則同祖可分貫然異宗無列祖五百年官冕間間或有文籍家承幾失于右壬丙之兵燹累派數十世居趾處處頗多譜牒公議一統于今己庚之族宗蕩然孝心萌於睦誼起拜受教奉表成章不勞遠程以告同族伏願僉宗氏遵一新譜勿使有志未就焉備數舊銅莫作無物不成也事之有成也睦族言而不合也忝先視以一家通于八道歲末十二月聖上廿六年再三申勤千萬幸甚

諱致聖字衡五號梅湖公與門弟侄重建敦友亭以瓦易茅我朝開國五百二十五年丙辰而始建後粵六十三年也乃咏板上韻曰

追憶當年樂事團扁楣三字儘堪看但令先業垂悠遠豈慮孫枝異暖寒情話政宜開讌席逢迎况復有儒冠最憐世教凌夷甚肯使家謨縱且寬

梅湖處士石公墓表

府君諱致聖字衡五號梅湖姓石氏系出忠州上系詳于府君七代祖察訪公墓表而與之同原於泉谷亥坐故此不復著高祖曰光天曾祖曰載岳祖曰而琢考曰基洪號愚溪前後娶曹氏黃氏生子男十人而府君於序次爲第四曹氏出也 憲廟癸卯六月二日其生也享七十六年戊午正月五日其卒也性恬淡清高不飲酒吸烟有文行而曾經鶴膝之苦故步履尤詳慎焉第五弟致魯出系而六弟析產而居伯仲叔三兄連歲并歿府君九家勢漸零落至父公喪事九家分擔經費擇吉安厝而葬地爲人所嫌忌訟甚遂起本邑倅連次畏勢而聽不公延拖十年耕地盡耗而負債山積府君徒步致晉州府營提訴乃得姑息然彼頑者終挾歿歿之心至國亡而己囑僞政更舉訟凡十四年府君不得營農至十二年而

手織細帶爲生道口誦古書誦至武侯前後出師表輒慨然興歎焉配密城朴氏益春女生乙巳六月二十二日卒戊辰九月十四日初葬不利移附于府君墓右嶺相見之地辛坐性勤孜慈詳能於紡績每二日而織成一匹喫苦數十年竟復盡耗之田報得山積之債其有餘裕有叔潛賣三斗耕地對之如常不皺眉蹙顏焉生三男二女世富世夏世瑤三男也文晉秀曹喜州二婿也在楨東楨曹喜圭妻長房子女也宇楨剛楨亨楨南楨金珍永朴志浩宋禮模妻仲房出子女也 一楨大楨孫永錡妻季房出子女也曾玄以下多至數十人而繁不載熙矩雖生晚而幸因先人之所傳誦者得以銘記於心而爲之叙次揭刻而以資來後之攷徵焉

檀紀四千二百十一年十月 日

孝曾孫 熙矩 謹撰

매호처사 선공 묘표

부군(府君)의 휘는 치성이요 자는 형우요 호는 매호(梅湖)니라. 성은 석씨요 관향은 충주(忠州)라. 상계는 부군 칠대조 칠방공 묘표에 자세하여 동원 샘골해좌 인고로 타시 나타내지 않음이라. 고조 가로되 광천 증조(曾祖)는 제약 조(祖)는 이

탁고(考)는 기흥이니 호(號)는 우계라. 전후 취 조씨 황씨하여 자남 십인(十人)을
 생함에 부군이 서차(序次)에 넷째가 되니 조씨의 날음이다. 현묘계묘 유월이일이
 그남이니 칠십육세때인 무오정월이일에 졸하였다. 성품이 엄단청고(廉端淸高)하
 여 술담배를 전혀 안하시고 문행이 있고 일찍 학살의 기록을 지낸고로 행보에 더욱
 상신하게 하더라. 다섯째 동생 치로는 출제하고 여섯째 동생은 살림을 갈라 거하
 고 백중숙 세형이 해마다 이어 돌아가시니 가세가 점점 영락(零落)함이라. 부공상
 사에 아홉집이 경비를 분담하여 길지(吉地)로 가리어 안조를 하되 장지가 사람의
 꺼림이되어 송사 끝이 일어나 본그을 단수가 연차로 세를 두려워하여 듣는 것이 공
 정하지 않아 십년을 연타하여 농사(農事)짓는 땅이 다 없어지고 빛이 태산(泰山) 같
 은지라. 부군이 도보로서 진주부영(晉州府營)에 가 소를 일으켜 이에 고식(姑息)됨
 을 얻었으나 저 완악한 자가 마침내 앙양한 마음들을 품어 나라 망함에 이르러도 막
 이 아니하고 위정(爲政)에 부락하여 다시 송사를 일으키니 무릇 십사년이라. 부군
 (府君)이 영농을 못함이 십이년(十二年)에 달해 손으로 띠끈을 짜서 생도로 하였느
 니라. 구송고서(口誦古書)하여 가며 외워서 무후 전후 출사포에 입음은 문득 개연
 히 흥란(興歎)하더라. 배는 밀성박씨(密城朴氏)이니 인춘의 따님이라. 을사유월이
 십이일에 생하고 무진 구월십사일에 졸하니 처음 장지가 이롭지 못하여 부군묘 바
 르쪽등 서로 보이는 땅 신좌에 옮겨 부하였다. 성품이 근자(勤慈) 자상하여 방적

(紡績)에 능하여 매 일에 한필을 짜고 수십년 고생 끝에 마침내 다 없앤 전답(田畝)을 회복(回復)하고 태산같은 빗물을 갈고 그 여유가 있음에 속이 삼두지(三斗地) 정지를 잠매(潛賣)하되 대지 여상하여는 한번 쟁그림이 없더라. 삼남이너를 생하니 세 부 세 하 세 용은 삼남이요 문진수 조희주는 두 사위니라. 재정 동정 조희규 처는 장방자녀요 우정 강정 형정 남정 김진영 박지호 승예 모처는 증방출 자녀요 일정 대정 손영기 처는 계방출 자녀라. 증손 이하는 실지 알는다. 희구가 비록 늦게 낳아 다행이 선인의 전승한 바를 인하여 얻어 마음에 병기하였다가 이서차로 인하여 글을 새겨서 오는 자에 고증의 자료로 함이라.

다기 사천이백십일년 시월 일

효증손 희구 찬

通政大夫石公墓碣銘 并序

通政大夫石公諱致煥字德準號嶺隱上祖諱鄰高麗毅宗朝以軍功陞上將軍食采藥城今忠州子姓仍以爲貫焉至諱汝明號花園麗運將傾已經門下注書而太宗屢以親書授以重職召之而終不應太宗怒其拒命遂安置于忠州以卒贈崇錄大夫左贊成至朝鮮朝

諱成玉吏曹叅議見燕山失政棄官南下密陽上西茆苴里自後爲密陽人是生諱光弼左部司果是生諱圭木川訓導是生諱擎天進士是生諱汝信號雲圃避執徐乱于湖西乱靖還鄉師事寒岡鄭先生見先生爲北黨所搆誣卽與士林聯疏辨之是生諱乾軸顯宗甲辰以武科行金井道察訪於公間七世也曾祖諱載岳祖諱而瓚官階通訓號月潭考諱基默妣晋州河氏珽承女公生哲宗辛亥七月十四日兄弟二人公序居季自少孝友出於天性事二親盡志體之養兄不幸早沒公歎曰天下難得者兄弟自此常避常棣詩不讀如偉元之廢蓼莪詩也然恐傷二親之心不少見於色爲丘嫂若幼侄常爲之拮据竟使之立家當二親喪一遵古禮服闋家勢漸窘奴婢等請去卽出卷送之從叔愚溪公墓在某山與他人塚不甚近而其人依勢累訴于官本倅率吏來檢吏畏彼勢有不公態公正色叱之曰政者正也舍正隨曲是亦政乎吏不敢抗邨前有魚孝子旌閣閣遇大風顛覆公呈于奔倅得千文錢又醵面戶排錢以重建之用石代瓦爲永久之圖是可謂推吾孝以及人之孝也爲先公八從昆季重修敦友亭制度儉樸皆出於公之規畫與再從兄梅湖公日處其中繙繹古書筮仕爲康陵叅奉而止可恨以辛酉三月十日卒葬于判書磴負巽原配金海金氏聖烈女墓附石判書磴巽穴生一男二女男世鳳女適申鉉三崔理壽孫男英楨哲楨余畧公之族孫宇楨述狀與哲楨同來屬隧道顯刻文于余余與公家世居隔隣且與宇楨同門學稔

知其爲信義善士其言必無浮夸義不敢辭遂綴其大畧如右系以銘曰人於百行惟孝爲源既孝且友餘行何論只止一命有司之責奚必曰職詳眎此石

壬戌十月上澣

晉陽 柳敏睦 撰

통정증대부 석공 묘갈명

통정증대부(通政大夫) 석공 휘 치환이요 자는 덕준 호는 영은이니 상조(上祖) 휘 린이 고려(高麗) 예종조에 구공으로서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식채에성을 봉하니 곧 충주라. 자손이 인하여 관하니라. 휘여명에 이르러 호(號)를 화원이라 하니려운이 기을어짐에 문하주서를 지냈고 태종이 여러번 친서(親書)로서 증직을 주어 부르되 마침내 응하지 않으니 태종이 그 거명(拒命)함을 노(怒)하여 드디어 충주에 안치하여 돌아가셨다. 조선조(朝鮮朝)에 이르러 휘성욱이 이조참의(吏曹叅議)라. 연산실정(燕山失政)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밀양(密陽) 상서면 둔지리에 옮겨사니 이후로부터 밀양사람이 되었느니라. 휘강필은 좌부사과요 휘규는 목천훈도(木川訓導)요 휘영천은 진사(進士)이며 참봉(參奉)이다. 휘여신은 호를 은포라 하니 임란을 호서에서 피하였고 여남 정함에 환향(還鄉)하여 한강 정선생(鄭先生)을 사서함에 선생이 부당의 구무(構誣)됨을 보고 사림을 더불어 연명으로 변무하고 취건축은 현종

갑진에 무과로서 금정·도찰방(道察訪)을 지내니 공(公)의 칠세조(祖)라. 증조(曾祖) 휘재악(淮在)이요 조(祖) 휘이찬(淮彦) 통훈(通訓)이요 호(號) 월담(月潭)이요 고(考) 휘(淮)이요 비(妣)는 진주(晉州) 하씨(河氏)이니 정승(正丞)의 따님이요 공의 칠종(七宗)신해(新海)칠월(七月)십사일(十四日)에 나시니 형제 두 사람의 공이 끝이니라. 젊어서부터 효우(孝友)가 천성에 나와 이친(二親)을 섬김에 지체(志體)의 기쁨을 다하더라. 형이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심에 공이 탄식하여 가로되 천하에 얻기 어려움은 형제라. 이로부터 항상 상체(常棣)의 시(詩)를 피하고 입지 않으니 위원(偉元)의 육아(蓼莪)시를 피함과 같더라.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들을 상케할까 걱정하여 조음도 일출(日出)빛에 나타내지 않고 구수(丘嫂)와 어린 조카를 위하여 항상 길거리를 하여 마침내 두 짐을 세우게 하고 부모상(父母喪)을 당함에 옛 예법을 따르고 복을 마침내 가세(家勢)가 점점 흥색하여 노비(奴婢)들이 가기를 청하며 곧 문서를 내어 보내더라. 종숙(從叔) 우계(吳啓)가 아모산(阿母山)에 있어 타인 묘와 더불어 심히 가깝지 않는데 그 사람이 새로 인하여 여러 번 관에 소승하여 본수가 관리(官理)를 거느리고 와서 검사(檢査)할새 관원(官員)이 저 형세(彥勢)를 들어 공정(正)치 않음을 공이 정색(正色)하여 꾸짖어 가로되 정사(正事)라 함은 바른 것이니 바른 것을 높이고 굽은 것을 따름이니 어찌 정사(正事)라 하겠는가. 이가 감히 항거하지 못하고 마을 앞에 어효자(魚孝子) 정려(正려)가 있어 그 각 한쪽이 큰 바람에 허물어지니 공이 구수에 말하여 천문전(千文錢)을 얻고 또 이어 면내(면내) 집집마다 돈을 거둬 각의 증진

에 돌과 기와를 써 영우히 보존케 하니 내 흠을 미뤄 사람의 효에 미치니라. 선공 팔중근(八從昆) 계를 위하여 돈우정(敦友亭)을 증수하니 제도와 감박이다. 공의 구획에서 나옴이라. 재증행 매호(梅湖)공으로 더불어 날로 그 가운대 처하여 고서(古書)를 번역(翻譯)함이라. 서사로 하여 가응(加應)참봉에 그치니 가히 한이라. 신유삼월(辛酉三月)에 돌아가시니 판서등 손원의 장사하니 백(配)가 김해김씨 성열의 따림이라. 또 공이 우르쭈외 부하였던 생일담이니 하니 담이 세봉이요 너는 신현삼 최리수의 처요 손남이 영정(英正)철정(哲正)이요 너머지는 락한다. 공의 주손 우정의 가장으로 기술하여 철철과 같이 와서 수도의 현각(顯格)을 나의게 부탁하기를 내가 공의 짐에 더불어 대대로 이웃에 있었으니 또한 우정(英正)을 더불어 동무(同武)함을 하여 그 신의(信義)의 선사인품(善士人品)이 줄 알아 그 말이 반드시 부과함이 없기에 감히 사양할 수 없어 드디어 그 대략으로 우와 같이 하니 명하여 가로되 사람의 백행(百行)에 오직 효도가 근원(根源)이 됨이라. 이미 효도하니 또한 우애하니 남이 무엇으로 위로할까. 다만 한 병에 그치니 그 유사의 책임이라. 어찌 반드시 가로되 지키겠는가. 자세히 이들에 보일다.

인물 시열 상하

진양 류민복 찬

忠州石公墓表

忠州石公諱致周初諱致淵字德敏之葬在密陽鷹峰山庚原其配密陽朴氏漢一女合祔石氏之上祖曰鄰仕高麗以功封藥城君卽今忠州至麗亡有注書汝明守罔僕義謫死忠州後贈左贊成至燕山主時有吏曹叅議成玉棄官南遯于密陽子姓仍居焉中世有進士擎天雲圃汝信察訪乾軸是爲七世以上也曾祖曰載岳祖曰而球考曰基卓外祖曰昌寧曹可鱗公生以 哲宗丙辰卒以 高宗某年九月六日朴氏生以丁卯卒以己巳四月九日三男世瑾世馥世桓長房孫渭楨茁楨曉楨琪楨次房孫盛楨時楨季房孫元楨東楨以下不錄今其諸孫將表于阡茁楨幹其事公雖無事行之表著者而淳厚勤儉喜怒不形與物無忤人稱畎畝中君子是可以表也

碧珍 李興中 撰

충주 석공 묘표

충주 석공 휘 치주(致周)요 초휘 치연(致淵)이요 자 덕민의 무덤이 밀양 응봉산 경원에 있으니 그 배(配)는 밀양 박씨니 학의의 따님이요 합부하니라. 석씨의 상주는

가로되 휘 린이니 고려에 벼슬하여 공으로서 예성군을 봉하니 지금의 충주(忠州)라. 고려가 망함에 주서 휘여명(汝明)이 있어 망부(罔僕)의 의(義)를 지켜 충주(忠州)에 적사하니 후에 좌찬성(左贊成)을 증하였다. 연산주(燕山主)때에 이르러 이조참의(史曹叅議) 성우이 있으니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밀양(密陽)에 숨으니 자성(子姓)이 인하여 거하였느니라. 중세(中世)에 진사 휘정천(眞廷天)은 포여신 찰방(臣)이 거칠세 이상(祖)이라. 증조는 휘재악(在岳)이요 조는 휘이우(伊友)고(考)는 기탁(吉)이요 외조(外祖)는 창령(昌寧)조씨가린(曹氏可鱗)이라. 공이 철종(哲宗)병진에 나고 고종(高宗)모년(戊寅)월(月)일(日)에 졸하고 박씨는 정묘(正卯)에 생하고 기사(奇士)사월(四月)일에 돌아가시니 삼남(三男)세근(世根)세복(世福)세항(世恒)이요 장방(張方)손(孫)위정(偉正)졸정(卓正)희정(希正)기정(奇正)이요 차방(車方)손(孫)성정(成正)시정(時正)이요 계방(桂方)손(孫)원정(元正)동정(東正)이며 이하는 불투(不)한다. 이제 그 손이 장차 묘(妙)기(奇)습(習)에 표(表)를 활(活)새(新) 줄(結)정(正)이 그 일을 주선함이라. 공이 비록 사행(事行)에 드러난 자는 없으나 순후(純厚)는 감(感)하여 희노(喜怒哀)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물과 더불어 거스름이 없으니 사람이 천(天)모(母)종의 군자(君子)라고 일컬으니 이가 가이서 표(表)로 할(可)지(知)어(也)다.

벽진 이흥증 찬

諱世鎰字仲見明敏通達善於談論聽者傾耳早遊京洛政變後隱遯不出保全性命晚年

修先世未遑之事乃詠清德齋韻曰斬第營得數間椽楸栢今垂四百年居處爲供芬苾地感恩偏切雨霜天門模湏念范公義亭戒那忘陳氏篇成立惟殫今日力願言嗣後好承傳

忠州石公墓碣銘 并序

忠州石公諱世夏既汲十有九年公之胤子宇楨君之同門友碧珍李興中爲君之請書于公墓道之石曰公之天性彊義慕仁見善思齊見不義不容而口吃辭澁不能下氣見人些有過差輒峻聲叱責外似過激而內實慈詳徐以曉喻無不自得而愛敬焉平居孝友有性而篤於爲先築齋樹碑不在人後高祖親盡胄孫則遞奉而終身主祀乙酉光復之後人賣多山買田而公則賣田買山人以爲迂濶於時勢則曰山是人之體魄所寄者豈可輕之乎後有窮交貧族之艱於葬地者皆許入襄人多頌其惠且過渡混亂之期異教橫行政黨亂立立志不一互相棧害公聚門子弟戒曰吾家所以稍有聲名於鄉省者以孝友忠信恪守儒素家範也而汝輩如入異教以回其趣入政黨權謀之事則是破潰家度而身且不保況能望事業有成乎極意團束全國無家無患難而公之門無一人橫罹禍者常以自身初年

家貧未能專學爲慨凡織席伐木力所可爲者無不爲之以厚資縱子遊學而課督甚勤不令放逸曰吾非無志於學然勢不能焉吾雖未能望汝輩之或能之也後長子宇楨以文行著名師友間其餘皆卒業學府出身社會人之知公者以爲公之學誠宜有諸子之是成也公初諱世琚字相禹上祖曰鄰自中州來高麗以軍功封藥城君藥成者忠州舊稱也至麗末大提學贈左贊成曰汝明李朝徵以漢城尹不起安置忠州以卒後有吏議曰成玉見燕山政亂棄官南下隱于密陽自後仍爲密人四傳而曰汝信號雲圃疏下寒岡鄭先生庚戌之誣子曰乾軸官察訪於公間八世曾祖諱而琢祖諱基洪號愚溪以孝友文學稱考諱致聖號梅湖妣密城朴氏益春女有婦德公生以高宗壬午四月三日卒于甲辰七月六日春秋八十三葬于馬屹棉山丁坐原配密城孫氏炳秀女墓在南山亥坐配金寧金氏楨福女尚在幃四男宇楨剛楨亨楨午楨三女金珍永朴志孝宋禮模妻宇楨男熙斗熙中熙喆女李玉衡金東萬妻剛楨男熙性熙夫女黃性行李相出妻亨楨男熙公熙王女林明燦妻午楨男熙東熙永熙秉金男相午相千朴男永奎永喆宋男炳洛炳浪炳河而下不錄銘曰

樂善好義教子有方賂謨有厚厥祥宜長

壬戌重陽節

碧珍 李興中 撰

晉陽 柳敏睦 書

충주 선공 모갈명

충주 선공 휘 세하간 돌아가신지 십구년에 공의 언자 우정언의 동묘의 벃벽진이
 흥중의 근의 청함으로 하여 공의 묘도지선에 글을 써 가로되 공의 천성(天性)의
 의(義)에 강하고 인(仁)을 생략하여 착함을 보면 같이 함을 생략하고 불의함을 보면
 용서치 않으니 입이 더듬니 말이 어색하여 능히 기로 네루지는 못하나 사람이 조금
 허물이 있으면 보면 단단히 소리로 질책을 하여 길이로는 과격한 듯하나 안으로
 는 실상으로 자상하여 천천히서 호우를 하니 스스로 얻어 애정치 아니함이 없다
 라. 평소의 호우의 심복이 있어 위선(爲先)에 도둑하여 재실을 짓고 비를 세움에
 사람뒤에 있지 아니하고 고조가 친히 주손에 다한 즉 치봉하여 종신 주사(主祀) 하
 였고 을기(乙酉) 광복후에 사람이 산을 팔아 전답을 사는 이가 많으니 공은 즉 전답
 을 팔아 산을 사니 사람들이 시시에 우환하다 하니 곧 가로되 산은 이 사람의 체백
 을 부치는 배니 어찌 가히 가볍게 여기겠는가. 뒤에 궁교(窮交)와 빈족(貧族)이 장
 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장사함을 허락(許落)하니 사람이 그 은혜로 기림이 많
 더라. 또한 과도 혼란기(混亂期)에 이교횡행(異教橫行)하고 정당이 난립하여 민지
 (民志)가 갈지 않아 서로 해롭게 하니 공이 집안 자체를 모아 놓고 경계하여 말씀하
 시되 우리 집에서 조금 성명이 향상(鄉省)에 있으면서 호우(忠信)으로 정성껏

유소가범(儒素家範)을 지킨배라。 너희들이 만일 이교(異敎)에 들어가 그 지취를 돌
 리고 정당의 들어가 권모지사(權謀之事)를 한즉 이가 가도(家道)를 파괴하고 몸도
 또한 보전치 못할 것이니 하물며 능히 사업(事業)의 이름이 있었음을 바라겠는가。
 극히 단속함에 전국의 집집마다 환난이 없었음이 없었되 공의 문종에는 한사람도 회
 화에 걸림이 없고 아들을 유학시킴에 과독이 심소하여 하염음 방일치 못하게 하여
 가로되 내가 학에 뜻이 없었음이 아니다。 세가능하지 못함이라。 나는 비록 능하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이 후능함을 바라노라。 뒤에 장자(長子) 우정이 문행으로 사우
 (師友)간에 저명하였고 그 나머지도 다 학부를 나와 사회에 출신(出身)하니 사람의
 공을 아는 자는 말하기를 공의 학성으로서 마땅히 제자의 이름이 있었을 것이라。 공
 (公)의 초휘는 세근이요 자는 상우요 상조는 휘린이니 증주로부터 고려에 와 군공
 으로서 예성군을 봉하니 예성은 충주(忠州) 구칭이라。 러말(麗末)에 이르러 대제학
 (大提學) 증 좌찬성(左贊成) 휘 여명이 이조의 한성언으로 부르되 일어나지 않으니
 증주에 안치(安置)하여 돌아가시다。 뒤에 이조참의(吏曹參議)가 있으니 휘성우의
 라。 연산정란(燕山政亂)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와 밀양(密陽)에 숨으니 이
 뒤로 인하여 밀양 사람이 되었느니라。 네 번 전(四傳)하여 가로되 여신이니 후는
 운포(雲圃)라。 한강정선생의 경술의 무(誣)를 소변(疏下)하였다。 자는 가로되 건
 축이니 관찰방(察訪)이니 공의 가팔세(祖)라。 증조(曾祖) 휘이탁이요 조(祖) 휘기흥

이연 후 우체니 후우 무한공이노 인본의미이라. 고(考) 휘치성이요 후기 매후연비
 (妣)는 밀성박씨(密城朴氏)니 인춘의 따님이요 부덕(婦德)이 잇슴이라. 공이 고종
 (高宗) 임은사월삼일에 생하고 갑진칠월유일에 졸하니 춘추가 팔십삼세이시다. 마
 흘면산 정좌에 장사하다. 배(配)는 밀성손씨이니 병수의 따님이요 모는 남산해(亥)
 좌에 잇고 배(配)는 김녕김씨 정부의 따님이니 우히려 살아 계시니라. 사남 우정
 가점행점 우정의요 삼너는 김진영 박지후송왜모 처요 우정남희두희죽희철의요
 너는 이우행 김동만 처요 가점남희심희부요 너는 황상행 이상출 처요 행점의 남
 희공희왕의요 너는 임명찬 처요 우정의 남희영희병의요 음남상우상천의
 요 반남영우영철의요 수남병남병랑병학의 학기 쓰지 않느니라. 병학여 가로
 되 착함을 즐거워하고 의를 좋아하고 아들 가르킴이 방법이 잇느니라. 법준이 두
 터음이 잇으니 그 상서가 마땅히 길 것이라.

임술 증양절

백진 이흥증찬

진양 류민복서

諱世瑑字子憲號南坡公以教育後進爲急先務當時吾宗中粗知文字皆出門下也

墓碣銘

君諱世瑑初諱世化字子憲別字南坡石氏籍忠州上祖曰隣高麗上將軍芮城君至左贊成大提學汝明我朝徵以漢城尹不起安置忠州以卒後有吏曹叅議成玉當燕山朝棄官南下隱于密州茈只里自後仍爲密人四傳而曰汝信號雲圃疏卞鄭文穆公庚戌之誣曾祖曰而琢祖曰基洪考曰致聖妣曰密城朴氏益春女君容儀端雅才性明敏優於書數晰於事理亦頗留心於經綸之業考究古今治亂人事得失以蓄其見聞而思見之應用焉宗人鎮衡爲法部叅書官嘗曰君才可以需世第病於泥古今若削髮吾當薦之仕矣君謝曰以髮易官吾所不願公且休矣聞者多笑其迂而不爲之動也閒居左右簡編不停披啜聚門子姪村秀才以教迪之而每以空言不行有體無用爲大戒焉以乙丑四月二十七日卒年止三十九初葬不利移于本府擢淵天台山負辛之原元配牙山蔣氏漢承女葬附君墓繼配密城朴氏晶坤女二男一楨大楨一女適密城孫永琦一楨男旻周旻昊大楨男熙璟熙瑾君與我同年生而居又同鄉心嚮我無斃其從子在楨亦以君意問業于余相期以歲寒君之沒今已三十餘年而在楨之亡亦已終三年矣衰病伏枕念人命脆弱如此而朋遊之好之難繼爲之作惡不已一楨以君墓闕顯刻求銘

于余其意蓋冀君之藉余文以傳也余之文實不足以傳君然於君何吝哉銘曰
不爲榮名以傷吾髮保髮而歸雖天何但有才有志而蘊不施斯爲可惜銘以昭之

道州 金在華 撰

諱世瑾字在淑號秀峯性外寬內剛不以貧窘爲憂清德齋有詩曰

肯堂茨旣構松椽自昔經營幾百年杖屨逍遙遺後地簪纓鮮赫感先天壁藏俎豆尊宗
器架蓄詩書孝悌篇寄語雲孫能繼述清軒嗣葺永相傳

秀峰石公墓表

公諱世瑾字在淑忠州石氏而居密陽馬屹里之鷹峰山下愛其山之秀麗而自號以秀峰
歿而葬于鷹峰下丁原蓋從其考墓同岡而其配利川徐氏炳洪女附焉姓系之詳載考墓
表故不復著只錄其三世曾祖曰而球祖基卓考致周妣密陽朴氏漢一女公生以高宗己
丑三月十三日賦性剛毅而恬澹雖處貧窮而未嘗有戚嗟色喜從賢士友吟嘯而叙懷凡
於爲先之事無不殫力而先後之故人莫不稱之卒以回甲之歲四月八日徐孺人生以辛

卯卒以庚戌七月九日四男渭楨茁楨禧楨琪楨孫男長房曰熙郁熙幹二房曰熙奎熙奉熙琢三房曰熙澈熙珏四房曰熙明勳晟以下并略之今其諸子伐石表茁楨奉其族宇楨之狀請文於余略識其陰如此云

碧珍 李興中 撰

수봉 석공 묘표

공 휘 세근(世瑾)이요 자는 재수이니 충주 석씨(忠州石氏)이다. 밀양 마흘리 응봉산하에 살아서 그 산의 수려함을 사랑하여 자호를 수봉이라 하고 돌아가심에 응봉하정원(鷹峰下丁原)에 장사하니 대개 그 아버이 묘로 뜻응이다. 그 배는 이천서씨(利川徐氏)요 병흥의 너니 부장(葬)하다. 성계(姓系)의 자세함은 고 묘표에 자세히 실은 고로 다시 나타내지 않고 다만 그 삼세만 기록하니 증조(曾祖)는 휘이구요 조(祖)는 기탁이요 고(考)는 치구며 비(妣)는 밀양박씨(密陽朴氏) 한일일의 따님이라. 공이 고종(高宗) 기축 삼월십삼일에 나니 부성(賦性)이 강웨하고 엄담하여 비록 빈궁할데 처하나 일찍 천차한 빛이 있지 않더라. 기꺼히 현사우(賢士友)로 쫓아 음아하여 회포를 펴고 무릇 위선(爲先)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앞뒤 하지 않음이 없느니로 사람이 일컬이지 않음이 없더라. 회갑의 해인 사월팔일에 돌아가셨다. 서

유인(徐孺人)은 신묘에 나고 경술 칠월수일에 졸하다. 사남(四男)은 이정(貞)·졸정(錫正)·희정(希正)·요손(曜孫)·장방(璋方)이다. 가로되 희유(希有)·희방(希方)·희명(希明)·희성(希成)이라. 이하는 모두 략하고 이제 모든 아들의 돌을 갈아 표를 할새 졸정의 그 일가 우정의 장을 받으러 묘문을 나에게 청하거늘 이에 대략 그 비음에 기록함이 이갈더라.

벽진 이흥중찬

성균관진사 충주석공 여직 휘 도주 행장(成均館進士忠州石公汝直諱道周行狀)

공(公)은 충주홍주석씨(忠州洪州石氏)二十四世로 자(字)는 여직(汝直)이고 관(官)은 성균관진사(成均館進士)이다. 갑진년(甲辰年…一八四四)에 생하시고 을사년(乙巳年…一九〇七)에卒하시고 묘(墓)는 구미 인동(仁洞)·선영(先塋)에 좌(坐)한다.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 예성군(藥城君) 충주홍주석씨(忠州洪州石氏) 린(鄰)·자(子) 조(始祖)의 二十三세손(世孫)이요 八세 충신불사(忠臣不事二君) 승록(承祿)·대부좌찬성(崇祿大夫左贊成) 여(汝)·자(字)명(明)·字(字)선조(先祖)의 十五세손(世孫)이요 연산군(燕山

君)의 폭거(暴擧)에 사직(辭職)하고 낙향(落鄕)한 十一世 이조참의(吏曹叅議) 成字 玉字의 十二世손(世孫)이요 十四世 승문원(承文院) 직제학(直提學) 경자일자(擎字日字)의 九世손(世孫)이요 十七世 겸인지용(兼人之勇) 선전관(宣傳官) 동자구자(東寇)의 六世손(世孫)이다.

공(公)의 선대(先代)들은 경남 밀양(密陽)에 기거(寄居)하였는데 代代로 문무(文武)에 등과(登科)와 출조(出朝)하신 선조(先祖)들이 많았기에 역사의 질곡(桎梏)과 임란과 호란(壬亂胡亂) 중에 조정(朝廷)에 종사(從士)라가 타관(他官)으로 흠어지고 순직(殉職)조졸(早卒)하였으니 애통(哀痛)하다. 이후 가솔(家率)들은 몸을 숨기고 근척(近戚)을 따라 유리(琉璃)타가 十九世부터 경북(慶北) 선산(善山) 금릉(金陵) 땅으로 이민(移民)하였다. 민초(民草)의 삶이 궁핍(窮乏)하고 나라 정국(政局)이 혼란(混亂)하고 격(擊)한 당쟁(黨爭)에 더하여 영조왕(英祖王)以後 百五十年간 영남인(嶺南人)의 인재(登用)제한과 과거(科擧)응시(應試)제한(制約)으로 경상도(慶尙道) 금릉(金陵) 땅에서 四代를 기거하다가 선조(先祖)들의 전통(傳統)과 총명(聰明)과 학식(學識)의 유전(遺傳)을 이어 받은 공(公)께서 향시(鄕試)를 거쳐 청운(靑雲)의 꿈을 품어 수백대일의 경쟁(競爭)을 뚫고 한양(漢陽) 성균관(成均館)진사시(成均館進士試)에 우수(優秀)한 성적(成績)으로 급제(及第)하여「이조실록과 과방록(科

榜錄)에 상위(上位)로 기록(記錄)되어 있다」 학문(學問)에 정진(精進)하며 대과(大科)를 준비(準備)하던 차(次)에 나라가 외세(外勢)에 침탈(侵奪) 당하고 개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성균관(成均館)이 폐(閉)해지자 청운(靑雲)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낙향(落鄉)하였으니 공(公)은 조선 최후(最後)의 등과(登科)와 성균관(成均館) 진사(進士)로 남게 되었다. 이후 학문(學問)과 후학양성(養成)에 전념(專念)하다가 가세(家勢)가 빈궁(貧窮)하여 당시(當時)에 향토(鄉土)의 명가(名家)인 형(兄) 도선(道善)의 처가(妻家) 동네이자 장씨(張氏)의 본향(本鄉)인 인동(仁同) 땅으로 이주(移住)하여 살았다. 공(公)은 성품(性品)이 고결(高潔)하여 불의(不義)와 타협(妥協)치 않고 학식(學識)이 높아 인동지방(仁同地方)뿐만 아니라 선산(善山) 상주(尙州) 밀양(密陽) 청도(淸道) 등 인근(隣近)의 많은 이름난 선비들과 학문(學問)을 논(論)하였다. 수년간(數年間)의 성균관(成均館)의 경험(經驗)으로 이웃의 공사간(公私間)의 어려운 일들과 송사(訟事)에 봉사(奉仕)하였다.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으로는 노론(老論)의 후손(後孫)이요 기거지(寄居地)는 남인세력(南人勢力)이 득세하였지만 성균진사(成均進士)의 학덕(學德)과 명망(名望)으로 증용(中庸)의 도(道)를 전파(傳播)하고 화합(和合)하였다. 계유정란(癸酉靖亂)에 몸을 피해 인근(隣近)에서 수백년(數百年) 은둔(隱遁)해오던 노론(老論)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후손(後孫) 순천김씨(順天金氏)들을 후(厚)히 도우고 명예(名譽)와 재산(財産)을 남인세력(南人勢力)들로부터 보전(補填)받도록 하였으며 그 공덕(功德)을 보응(報應)받아 공(公)께서 후손들과 함께 좌(坐)하는 종산(宗山)이었다.

자녀(子女)로 四男一女를 두었고 二子인 문수(文壽)는 인동면장(仁同面長)을 지냈고 증손(曾孫)인 인균(仁均)은 이사관(理事官)을 일균(日均)은 강원조달청장(江原調達廳長) 윤균(允均)은 러시아 참사관(參事官)과 경기도(京畿道) 구리중학교(句履中學校) 교장(校長)을 역임(歷任)하였고 권균(權均)은 석사(碩士) 장교(將校)로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警護隊長(警護隊長)과 삼성(三星)그룹 전문(專務)를 거쳐 (주)에스지피 (주)PMK대표이사(代表理事)를 지냈다. 공(公)의 많은 현손(玄孫)이 국내외(國內外)에서 공부(工夫)하여 박사(博士) 의사(醫師) 예술가(藝術家) 성직자(聖職者)들이 되었고 사회(社會)에 기여(寄與)하면서 공(公)의 의(義)와 가문(家門)의 전통(傳統)을 이어가고 있음(을) 삼가 올려 드린다.

마침 석씨문중(石氏門中)의 기해대동보(己亥大同譜) 편찬(編纂)에 공(公)의 역사(歷史)가 필요(必要)하던 때에 공(公)의 손자(孫子)인 길(吉)宇호(鎬)宇의 기일(忌日)에 고향(故鄉)을 찾은 차(次)에 공(公)의 흔적(痕迹)과 역사(歷史)를 기억(記憶)하

고 찾으려 할 때 공(公)께서 저의 아우에게 계시(啓示)하여 오래前 집을 새로 건축(建築)하면서 깊이 보관(保管)해 두었던 선조(先朝)들의 서고(書庫)에서 석씨(石氏) 문중(門中) 최초(最初)의 족보(族譜)인 기축보(己丑譜)와 갑자보(甲子譜)를 찾아내었으니 이로써 서로 다른 나중의 보책(譜冊)을 가지고 수십년 동안 갈등(葛藤)하며 다투던 두 소문중간(小門中間)의 문제(問題)도 해결하였다. 또한 공(公)의 학습(學習)과 지식(知識)의 길잡이가 된 공(公)의 정진노력(精進努力)의 자욱들과 손때가 묻은 수백년(數百年)된 희귀(稀貴)하고 값진 고서(古書)들이 제왕(帝王) 열전(列傳) 증용(中庸)등 수십 종의 유품(遺品)들을 고스란히 발견(發見)하였으니 이 또한 문중(門中)의 큰 영광(榮光)이요 기쁨이 아닌가.

이는 공(公)께서 뜻하는 바가 있음이다. 적당(適當)한 때에 정리(整理)하고 복원(復元)하여 석씨문중(石氏門中)과 후손(後孫)들을 위해 박물관(博物館)로 제공(提供)하고자 함이다.

二〇一九年 기해(己亥) 하절(夏節)

후손(後孫)二十七世 권균(權均) 근찬(謹撰)

二十五世

諱在楨字敬甫號志海性清高不輕易與人許交嘗受教于金淳齋門淳齋以畏友稱手抄唐宋八大家字畫楷正與板刻無異又明於易理有雲圃韻曰

瀏義村開山水明憶曾吾祖此躬耕南搬粵自三銓始後裕彌傳四世成早爲寒翁摧翼虎幾偕釣叟賦流嬰禮新舊蹟班班在人說當年衛道誠公未得中壽而卒誅祭者數十人

派宗文記說

維我密陽馬屹里之石氏系出忠州中祖諱文贊官縣監歷子貞信至子成玉吏曹叅議本居畿內爲朴元宗等所構誣棄官南下居於本郡上西面清川洞今武安面古羅里東谷密州之石自公爲始子光弼左部副司果光鼎進士司果公之子雷鳴叅奉圭木川訓導訓導公之子擎天敬陵叅奉擎曰文典籍擎漢通禮擎雲漏系敬陵叅奉之子汝信丞仕郎號雲圃鄭寒岡門人汝堅汝巘汝璇汝堅系典籍公后雲圃公之子乾軸坤軸乾軸文察

訪子東柱南柱泰柱泰柱子萬壁萬春萬瞻萬瞻以從子光天爲嗣養子子載岳子而瓚而球而琢而琢子基洪號愚溪有十子長致悅次致鎰致崗致聖致魯出系致銘致律曹氏之育致鎮致鉉致鍵黃氏之育自察訪公后有宗仲季三派之目三派之內亦各有孟叔大小之分凡吾所謂派宗者自吾曾祖愚溪公以后之稱非指居鄉全族之謂也吾族孰不貧窶尤以吾派自光武己亥曾祖山点定后鄭孫二姓山訟連年不解朝釀金而暮乏春逋債而秋不暇霜露既降則高曾兩代歲事無策垂橐提升巡回堂欄此家彼家僅僅成盈斗之穀則半以酒半以羞以行歲事之樣千辛萬苦非但堪之之難見亦不忍至於癸丑陳訟已靜收升爲斗貯分成兩禾而麥麥而禾雖無經旬之糧內無反唇之婦先山松楸之陳葉自翦而自販之下無怨勞之兒節以用之復以餘裕或購車服而賞或置薄田而稅閱過數歲先人時忌則有定名之位土子孫事故則有恒式之義助憶哉猗哉以販薪垂橐至於如此其偶然也哉若無塵合之勞則那見望遠之高哉夫人本無遠祖世累則遠本非遠族分久則遠族遠則情疎議論多乖戾不合世遠則親衰諸族共公之所蒙非自己之所獨任故誠心自然不專至於此境雖有千萬后孫鍾鳴鼎食者太半無有世守之宗產非但祭享之不潔多辱沙汰狐狸之患及於泉壤不得趁時修築以此推之宗產之要於遠祖之事何後於遠孫之劣誠者哉富貴他人合貧賤親戚離人情之常

也私物雖富牽於私欲吝嗇不能施惠於宗產則一宗所共公之物至於豐富他人能合况同祖之遺體者乎自今以往爲吾曾祖之後世者以先世垂橐販薪之心爲心誠節爲本妨蔽爲仇以山坂車服土地等諸中產收八節用餘裕殖利貯蓄因時勢便宜而處置之至於多財富與賢者管宗事貧與愚者耕宗土吾族庶免溝壑之憂且觀范氏義庄之規模復興於吾宗豈非善美哉是吾致世楨三世垂橐販薪之本意望吾堂從之後世勉之而守成之書說之日復書數條約例及所有土地事實原由於左

壬申四月下旬愚溪公會孫在楨以堂內諸長之命謹書

祭再從兄泰淳應楨文 讀此文而無流涕非人情

嗚呼惟公性全而淳氣壯而肅志遠且確心正不齷祀神析佛賢愚衆多惟公疾視如笏擊蛇數運否塞早承家幹四弟一妹一未弁冠三世重喪一紀疊訟家徒四壁失時播種十之百之齊盡妙方生有秩序死安蒸嘗化被一門德彌九族世阡設儀先墟有屋天神未定逆施禍難萎盡庭蘭四弟割半三娶一孫家勢累卵然惟正勁邪奚敢亂窮當益堅老當益壯述先裕后小不怠放憤與魔伍來戲去妨二豎抵隙侵入膏肓古方新劑難顯

靈効上春明旦終辭塵鬪白日爲瘦春天欲靈公幾無憾餘悲切切責任訓孫付於誰人
先亭良模盍見日新泣血傾盆豈慰尊靈諸從協心謹守遺型

祭叔母孺人密城朴氏文

昔我叔父古調有格玉振未闕瑤絃奄絕幸御孺人善修以續遺韻裊裊和以成樂終使
孺人奄切晝哭受訓巖巖性亦孤竹刼兩勁霜惟一其綠十分料外痼崇侵膈苦彌四寅
頑鬼可泣瞥間歸已厄亦爐靈窈窕一媛謫下痕跡無劉更生孰錄其蹟爰述片辭慰靈
深辟靈倘添袖返冷奠臆

東谷書舍記

夫爲士者能不役志於一時之榮枯得喪而惟進德修業之是務然後志可以立而守可以
篤志不立守不篤焉可曰士也吾友石達哉密州之高士而嘗有見於是故早從古人之學
而至今白首能斂跡於寂寞之區築一屋於所居馬屹里傍扁以東谷而爲棲息藏修之所

夙夜慥慥者無非究心經籍而不擾於世無累於外則豈非其志立而守篤者耶東谷子以其扁尚無記遠來求言於余余惟東谷之名雖因乎地而其義有可思者蓋東者生穴之方而谷者物之所聚也凡物不生則必息不聚則必散君子之於德業之進修其道何以異此苟學焉而力之不怠如物之生行焉而實之惟務如物之聚久久進進不已則將奚患不到德崇業廣地耶不然而或安於小成中道而廢或局於徧狹無所積聚則何以致德業之崇廣耶此古今有爲者之通患也東谷子年近八旬矍鑠之氣無減少壯不懈於炳燭則蓋有得於生之道也廣交士友以求資益而蘊蓄以富識趣以高則蓋有得於聚之道也其於東谷之義有默契而暗符則其於德業之崇廣有不期然而然者矣猶勤勤懇懇求余言之不已者蓋以余同門誼重而欲胥勗於晚景不至失墜則其心又苦矣哉此余所樂爲之發其義如此

癸亥驚蟄節

善山 金永柱 記

報本壇銘

惟吾石氏始祖諱鄰自中州來于高麗以軍功歷西北兵馬使升上將軍食采藥城卽今忠

州子姓之貫焉以此也入鮮韓有諱成玉見燕山政亂飄然遐舉遯于密陽郡上西面茺莫里今武安面中山里卽其村也及其卒葬于其地是生諱光弼禦侮將軍左部司果生諱雷鳴箕子殿叅奉生諱璉建功將軍生諱自雲自嶠自巘自岵五男壬辰兵燹後五公之後孫分奠列邑各成門闌其在草溪之族則季公諱自岵之後也而有諱彥天卽公一男也當龍蛇之變備嘗百艱探幽尋隱展轉至于草溪之峴洞家焉及其歿葬于德谷山中磴上卯坐而失傳故設壇祭薦壇下築德崗齋以爲齊宿之所公之十二世孫鍾球嘗倍從其親可山叅拜于叅議公墓享後展省先墓始知其分派所蒙祖諱自岵墓失享闕慨然于心昌起同公之後孫設壇于德崗齋後乾淨之地又治貞珉而囑余斯辭余惟神理之流行如水之在地無處不在本無地限之定而况後孫之居地乎應必有時瞻顧焉爾遂喟然太息而爲之銘曰寂寞之中血綠相續兮何恨乎衣履之失藏離亂之後無徵而有徵兮惟德之蔭山高水長

歲癸亥暮春

族後孫 宇楨 謹撰

보본단 명

오직 우리 석씨의 시조 휘린이 충주로부터 와 구공으로서 서북 병마사를 지내고

상장군이 되고 예성(成玉)을 봉하니 지금의 충주라 자손이 관향함이라. 선한에 들어 휘
 성(成玉)이 연산정란(燕山政亂)을 보고 표연히 하거하여 밀양군 상서면 둔지리에
 숨으니 이제 무안면 둔산리가 곧 그 마음이라. 돌아가심에 그 땅에 장사하다. 휘
 강필(康弼)이 모장군 좌사과(禦侮將軍 左部司果)요 휘퇴명은 기자전에 참봉(參奉)이요
 휘연(演)은 건공장군(建功將軍)이요 휘자은 자연 자연 자강 자항 오남이니 임진 난리 후
 에 오공의 후손이 여러 이름에 흠어져 삼에 각각 문란(門闌)을 이뤘음에 그 초계
 에 있는 종인 즉 계공휘 자항의 후손이다. 휘연부는 곧 공의 일남(一男)이라. 용사
 변(龍蛇變)을 당하여 백번 어려움을 겪어 은밀한 곳을 찾아 이곳 저곳 다니다가 호
 계현동의 이르러 살았다 돌아가심에 덕곡산 증등상 묘좌에 장사하여 그 전함을 잃
 으므로 다을 베풀어 제천(祭天)을 하고 단하에 덕강재(德崗齋)를 세워서 재숙(齋宿)
 한 바로 하니라. 공의 십이세(十二世)손 종구가 일찍이 그 아버지가 산(可山)을
 배종하여 참의공 묘향에 참배(參拜)한 뒤에 선대(先代) 묘를 전승할새 비로서 처음
 으로 그 분파 소몽조(分派 所蒙祖)인 휘자항(自旻)의 묘를 잃고 향사를 절함을 알고
 마음에 개연히 여저 공의 후손을 창기하여 단을 덕강재 뒤 건정한 땅에 베풀고 또
 한 종을 돌로 비석을 다스려 나에 게 돌을 부탁하기를 내가 생각건대 신의의 기행함
 이 불이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곳이 없으니 본래 땅의 한정함이 없으니 하늘과
 후손의 있는 땅이겠는가. 응당히 반드시 때로 있어 돌아볼 것이니라. 드디어 위

연(喟然)히 탄(嘆)하여 명을 하여 가로되 정막한 가운데에 혈연(血緣)이 서로 이음
 이여 어찌 의의(衣履)의 감춤을 잃음을 한하겠나. 이란(離亂)뒤에 증(證)거 없는
 것이 증거 있음이여. 오직 단의 돌음이 산과 같이 높고 흐르는 물과 같이 한이 없
 느니라.

세 계해 모춘

죽후손 우정 근찬

佳菴處士忠州石公之墓碣 並序

公諱峻字子高其先中州人也上祖曰鄰高麗毅宗庚寅亂討趙位寵於西京立大勳陞上
 將軍封藥城君藥城忠州舊號是卽爲忠州石氏之始也生諱靖密直提學生諱璉密直提
 學生諱興國門下侍中生諱道判決事雙城摠管生諱良善配永興崔氏李太祖姨母也以
 乳養太祖之功封慶昌翁主封公爲洪陽府院君生諱天乙中郎將洪城君生諱汝明除漢
 城尹集賢殿提學不就贈左贊成生諱文賢利川縣監生諱貞信正郎生諱成玉吏曹叅議
 燕山君朝棄官落鄉居密陽之武安清川洞密之有石氏自此始也生諱光弼左部司果生
 諱雷鳴箕子殿叅奉於公四代祖也曾祖諱璉建功將軍祖諱自嶮宣務郎考諱茲道妣晋

陽姜氏生公于上西林谷第龍蛇之亂轉徙于漆原之佳洞仍爲寓鄉題其居以佳菴性賦恬澹不事榮耀心地寬平行無圭角偃身卑牧與物同和潛焉以居蓄志默行以無負所受之天爲畢生應分之職在在適如淹有所留連而久待焉若公一生其可謂不易乎世而不成乎名者耶寓爲無迹而惟誘導後進一事爲無傳來之逸話而已一男弘益孫男昌祐昌義其後孫來余請文故情不敢辭焉以之銘曰恬澹而怡無在不適俛焉以造所詣何域滄桑之變已曾而昔佳城之藏積久不易不易之藏啓之在孰載焉有啓其來可億

檀紀四千三百三年三月一日

盆城 裴文會 撰

가암처사 충주 석공 묘갈명

공의 휘는 준이요 자는 자고(子高)요 그 선은 증주인이라. 상조(上祖)는 가로되 휘린이 고려(高麗) 이종경(李宗經)의 조위(宗威)를 서경에 처 큰공을 세워 상창군에 오르니 그 예성군을 봉하니 예성(藥城)은 충주 고호라. 이가 곧 충주(忠州) 석씨의 처음이 되느니라. 휘정은 밀직제학(密直提學)이요 휘달은 밀직제학이요 휘흥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이요 휘도는 판결사(判決事) 쌍성총판이요 휘양선은 배(配)영흥최씨니 이태조(李太祖)의 이모(姨母)라. 태조를 유양한 공으로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하

그리고 공을 함양부원군을 봉하며 휘천을 이 증랑장이며 홍성군(洪城君)이요 휘여명(李
 한성윤(漢城尹) 집현전 제학을 제수하되 나아가지 않으니 좌찬성(左贊成)을 증하
 다. 휘근현(李이천현감(利川縣監)이요 휘정신(正申)이요 휘성우(李이조참의
 이연산(李연조)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落鄕)하여 밀양 무안 청천동(淸川洞)에 거하니
 밀양의 선씨가 이로부터 처음이다. 휘광필(李좌부사과)이요 휘퇴명이 기자 전참봉
 이니 공의 사대조라. 증조(曾祖) 휘연(李건공장군(建功將軍)이요 조휘는 자언이니
 선부(宣務郎)이요 고휘는 자도요 비는 진양강씨니 공을 상서 임실에서 생(生)하시
 다. 용사의 나라에 칠원의 가동(家童)에 이거하여 우향(寓鄕)이 됨이라. 그 사
 는 곳이 가암(佳菴)이라 후를 가암으로 하시다. 부성이 엄담하여 영오(榮耀)를 일
 삼지 않고 심지가 관평(寬平)하니 행실이 유각이 없니 몸을 급히니 비복하여 물로
 더붙어 한가지 화하여 침담히 지내니 뜻을 이루니 행실을 소수의 하들로 저버림이
 없이 필생(平生)에 이진(進)함을 재재하여 마침내 유려한바 이우래 기다림이 있음
 을 하였느니라. 만일에 공의 일생(一生)이 가히 세상에서 바쁘지 않고 이틈(틈)의
 루지 않는 자가 아니겠는가. 자취(自取)없는데 부처(佛) 오직 후진을 유도했다는 한 말이
 전(前)해(解)함이 없이 일화(一化)다. 후손(後孫)이 창(昌)의요 그 후손이 나외(外)게 와서
 무(無)를 칭하므로 감히 사양(謝)치 못하여서 명하여 가로되 염단(堧)하니 화하고 전당(田)치 아니
 하이 없느니라. 민(民)인이서 이르메 나아갈 바가 무슨 지경이나. 창(昌)상의 변(變)이 이 미

일찍이 전했더라。 가성의 감춤이 오래되어도 바꾸지 아니함이라。 바꾸지 아니한 것을 감춤없이 누구에게 있는고。 이제 실어 얽이 있으니 그 내려오는 것이 가히 억만년이나 되더라。

단기 사천삼백삼년 삼월 일일

분성 배문회 찬

德岡齋記

祖先肇基於前子孫能守於後歷世無替則此與國家之創業守成無異而其盛衰興替之迭運相禪亦其理勢之不能無也余嘗讀詩至公劉及瓜戩之篇而歎周之先世其瑣屑微弱至於匪居匪康未有室家而卒興文武之功業爲天下赫赫則國豈有大小強弱哉亦在乎修德焉而已家何獨異此夫大生於小盛由於衰人徒恥其一世之小興衰而不求其盛大之所由致則惑也八溪之北江陽之界而有曰峴洞者石氏居之其先有諱彥夫當龍蛇之燹自密陽來隱于此而自後數百年因爲石氏庄則其守之者已矣而自其始徙累世單傳莫之自振至中世始有三昆季分派而至今見戶僅不滿數十則其衰替蓋甚矣以故久

未有慕先合族之室而歷世爲恨往者三派之老曰炳岐致均瑛均謀於族而捐資而拮据之營度者數十年至其後人卒成其志就里之旁德谷之下而築一齊蓋因其始遷祖墓壇之所在而名曰德岡志地也問記於余余惟石氏之先自中國東來顯於朝者累世則其本固厚矣奠於此而衰替之久則振興之必有其日而斯齊之建其將爲之兆乎夫殫瑣微之力積累世之營而卒成之非誠之道不能誠者德之聚也德修而未有不興者況地名之偶符若有待焉則將興之兆其不在斯乎苟能由此而積而大之他日盛大之業後孰能禦之吾以是爲石氏賀如或勤於始而怠於終侈於名而儉於實則非所謂誠而德之疚也石氏寧有是乎吾又爲石氏戒

戊戌孟冬

花山 權龍鉉 記

덕강재 기

조상이 앞에 기지를 정하고 자손이 능히 뒤에 지켜 대대로 막힘이 없음은 국가(國家)의 창업수성(創業守成)과 성쇠흥체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내가 일찍 시를 읊어 공유(公劉)와 과질(瓜瓞)의 편(篇)에 이르러 주나라의 선세가 그 왜설 미약하여 집도 두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문무의 공업을 일으켜 천하에赫赫함이 됨이구나

라가 어찌 대소강약이 있었는가. 또한 덕을 닦는데 있을 따름이니 집안들 어찌 홀로 이와 다르리오. 대개 큰 것이 적은데 나고성한 것이 쇠한 데서의 말미암음이니 사람들이 한낱 그 일시의 적고 쇠퇴한 것만 부끄러워하고 그 성대함을 구하지 않음은 의심할 일이라 하겠다. 팔계의 북쪽강양지계에 현동이 있으니 석씨가 거함이라. 그 선대에 휘언부가 있어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밀양으로부터 이곳에 와 숨어 수백년에 이름에 석씨의 터를 이뤘으니 그를 지킬 따름이라. 누세(累世)로 단전하여 스스로 진흥하지는 못하였느니라. 증세에 삼형제 분파(三兄弟分派)가 있으되 지금껏 호수가 겨우 수십에 차지 않은즉 그 쇠체함은 심한지라. 그리고 오래도록 모선 합족(謨先合族)의 집이 없어 대로 내려한이 많았느니라. 삼파의 노장이 병기 치균 영균이 일가들에 말하여 자부음을 모아 정영한 자가 수십년(數十年)인데 그 뒷사람에 이르러 마침내 그 뜻을 이뤄 마을 덕곡(德谷) 아래에 재실(齋室)을 지어 대개 그 처음 천거한 조상(祖上)의 묘단(墓壇)이 있는 바를 인하여 그 이름을 덕강(德岡)이라 하고 나에게 기문을 묻거든 내가 생각(生覺)하기에 석씨의 선조가 중국(中國)으로부터 동으로 와서 조정에 드러남의 여러 대인즉 그 근본(根本)이 진실로 두터운데 이에 천거하여 쇠체함이 오래인즉 반드시 진흥할 날이 있을 것이라. 이 재실(齋室)의 세움이 그 장차 일어날 징조가 아니겠느냐. 쇠미의 힘을 다하며 누세의 정영함을 모아 마침내 이루니 정성의 도가 아니면 능히 하

지 못하였을 것이다. 지성은 덕의 모음이라. 덕을 닦고 일어나지 않는 자가 없는데 하물며 지명이 우연히 합하여 기다림이 있는 듯하니 장차(將次) 일어난 징조가 이에 있지 않는가. 응히 이로 말미암아 키우면 훗날 성대한 업을 다시 누가 막겠느냐. 내가 석씨를 위하여 하례(賀禮)하고 후 처음은 부지런하고 마침내는 게을리 하여 이름에는 사치하고 실상은 검소한 즉 이른바 정성이 아니니 덕의 허물이니라. 석씨가 어찌 이러함을 잊겠는가. 내 또한 석씨를 위하여 경계함이라.

무슬 맹동

화산 권영현 씀

德岡齋上樑文

恪報本而尊祖尊宗修天則之典秩祗底法而肯堂肯構扁因地勢之德罔念作成之勤勞懋嗣守之敬謹竊惟斯齋石氏忠州古家上祖工部尚書自神州而東出中葉文科提學八本朝而顯揚叅議成玉公之清標羞汚君而遯居于推火處士彥夫翁之雅趣樂隱淪而轉徙於八溪蓋茲峴洞之澗阿亶宜碩人之邁軀邱壑寥窅斷世間之囂塵雲林葱瓏栖物外之高躅紬繹詩禮之緒教子課孫繼承恩資之榮通政嘉善存以順沒以順居於斯葬於斯

世奄降於十餘昭穆之兆祔益廣年遽邁於三百子姓之門欄漸蕃薦苾芬而致齊詎無所於吉蠲攬花樹而講睦合有處於團欒詢嘉猷而僉同發峻議而經始誠不息而必達洪河源於濫觴功積累而乃成泰山起於篲簣前人志後人繼惟一心之相傳長者令少者趨夫何事之不辨攢綿力而舉大役輸舊材而煥新楣相基奏工吓著龜而終吉苟完寔美與崗陵而長存古里桑梓繞庭園而競秀先阡楸栢蔭薨簷而彌蒼恢恢乎會族而敦倫綽綽焉承先而裕後谷名傳不渝厥德亶可修臺閣照分明永慕豈敢忘華床文酒欽嘉賓之將迎斐凡琴書聽諸子之絃誦聊騰短誦助舉脩樑兒郎偉拋樑東菟水湯湯去不窮問渠閑何無暫舍前頭滄海有朝宗拋樑南萬山蒼翠滴晴嵐緬憶當年嘉遯趣栖神澹泊是真甘拋樑西金烏背上夕陽低楸原霜露衣履感不啻羊碑墮淚悽拋樑北鳴渚明沙鳴舉色舟子招招競涉人詎能夢到機心息拋樑上昭曠太虛含萬像惟義惟仁帝降衷日乾夕惕常存養拋樑下稼穡豐登連沃野黍稷馨香釀酒醴虔誠省掃薦彝罍伏願上樑文後礎靈長護門祚永昌崇儒術育英才明格致誠正修齊治平之道敦民彝善鄉俗起孝悌忠信禮義廉恥之風

江陽 李永鉉 撰

덕강재 상량문

정성이므로 그본을 알고 존조 존종(尊祖尊宗)은 천즉(天則)을 닦는 전절이요 법을
공정하여 응당(應堂)은(肯堂肯構)는 편액이 땅의 덕강(德岡)으로 인함이다. 작성의
근로함을 생각하고 사수의 경은(敬恩)을 힘쓸 것이다. 간절히 생각(生覺)컨대 이 재실
석씨는 충주고가(忠州古家)라 상조 공부상서(工部尙書)는 신주로부터 동으로 나왔고
중엽에 문과제학은 본조(本朝)에 들어 현양하더라. 참의공의 청표(淸標)는 오군(汚
君)을 부끄러워 추하여 은거했고 처사옹의 아취(雅趣)는 은둔을 즐겨해 팔계에 이
거하니라. 대개 이 현동의 간안(澗阿)은 진실로 석인(碩人)의 과축에 마땅함이다.
구학이 요조함에 세간(世間)의 효진을 끄음이요 윤림(雲林)이 총롱(葱瓏)함에 물건
밖에 고축이라. 시례(詩禮)의 끈을 추억하여 교자과손(教子課孫)하고 계승은 자
영(繼承) 恩資之榮)에 통정(通正)가선이라. 존이순 물이순하고 이에 거하고 이에 장사하
였다. 대는 무릇 십여세(十餘歲)에 내림에 소목(昭穆)의 무덤이 더욱 넓히고 해가
문득 삼백년의 나감에 자성(子姓)의 문란이 점점 성하니라. 필분(苾芬)을 천하여
치재함에 어찌 길견의 바가 없겠는가. 화수(花樹)로 대저 화목(和睦)함을 강함의
다란에 처함이 합당(合當)함이 있더라. 아름다운 법을 물어서 침동(僉同)함에 높
이언을 밭해서 처음을 경영(經營)하더라. 정성이 쉬지 않고 반드시 달함의 큰 물

이 남상에 근원(根源)했고 공을 점점 쌓아서 이름에 태산(泰山)이 복계에 일어나더라. 앞의 사람 뜻을 뒤사람이 이으니 오직 한 마음을 서로 전하고 장자(長者)는 영(令)을 하고 젊은 자「少者」따르니 대개 무슨 일이든 못하겠느냐. 온 힘을 다해서 큰 연사에 들고 옛 재목을 신고 새 재목이 빛나더라. 터를 상좌 공을 아름에 시구(蓍龜)가 마침 좋고 진실로 근고 이에 아름다음에 강(江)을 더불어 길이 있었음이 라. 옛 마을에 상재(桑梓)는 정원에 들리어 경수(競秀)하고 선천(先阡)의 추백(楸栢)은 맹침(蔓籬)을 덮어 더욱 푸르리라. 넓고 넓으니 종족을 모아 인륜을 돈독히 하고 작작(綽綽)히 선대로 이어 뒤에 지침이라. 골짜기 이름이 절함이 변하지 아니함에 그 덕을 진실로 가히 닮을 것이요 대각(臺閣)이 분명(分明)이 비침에 영모(永慕)를 어찌 잊겠는가. 화상의 문주(文酒)는 아름다운 손님 마지함을 관대하고 배기의 금서(琴書)는 제자(諸子)의 현승을 들리라. 요동(요동)관종을 짚으니 노래로 불러 수량을 들머라. 포량동(抛樑東)하니 든수물이 탕탕하여 감히 다양함이 다하지 않더라. 문노라. 제가 무슨 일로 잠시도 놓지 않하느니 앞머리 창해에 조종(朝宗)함이 있느니라. 포량남(抛樑南)하니 일만 산이 창취(蒼翠)한데 청남이 어떨더라. 당년 아름답게 숨는 취미를 생각하니 정신의 담박하여 참으로 달더라. 포량서(抛樑西)하니 금요(金腰)의 석양(夕陽)이 낮더라. 추원(楸原)에 상로(霜露)가 이어서 느끼는 양(羊)비(羊碑)가 눈물 따라서 뿐만 아니더라. 포량북(抛樑北)하니 구저에 밝은

모래 해오래가 빛을 들더라。 뱃사공이 부르고 사람을 건너주니 어찌 능히 꿈이 기
 심(機心) 쉬는데 이르겠나。 포량상(拋樑上)하니 소광(昭曠)한 폐허가 일만 형상(形
 像)을 머금었더라。 우직(義)의(義)요 우직(仁)에 상제(上帝)가 마음들을 이루니 날로
 근근 천척을 함에 항상 길음이 있더라。 포량하(拋樑下)하니 가색(稼穡)이 풍년(豐
 年)에 올라서 옥야(沃野)에 연했더라。 서직(黍稷)과 형향이 주례(酒醴)를 빚어내어
 정성껏 청소를 하고 좋은 잔을 천(薦)함이라。 상량뒤에 기초가 신령해 기리 두호
 하고 문조(門兆)가 길이 창성(昌盛)하여 유술(儒術)을 높이고 영재(英才)를 기르고
 격치와 성정과 수재와 치평의 도를 밝히고 백성의 인륜을 돈독(敦篤)히 하고 향속
 (鄉俗)을 착하게 하여 효제(孝悌)와 충신과 예의와 엄치의 바람을 일으킴이라。

강양 이영현 찬

永岡臺事實記

泰巖之東北麓有曰德洞谷邃而溪清磐石連亘如布席可以逍遙而觴咏我先考寢郎府
 君性愛山水每暇日徜徉於斯擬結茅爲遊息所而絀於力未果因刻永岡臺三字於臨溪
 巖石之面以寓其志蓋我始八草溪之先祖學生公兩世墳塋託於此洞而吾宗貧寒尚未

有寓慕之齋舍先考嘗慨然於此故以永慕之名託於此臺者也至今數十年先考已下世而居人猶指點而稱之曰某公之永岡臺不肖兄弟每過斯臺遺躅如昨而手澤尚新則未嘗不摩挲興感也詩曰惟桑與梓亦恭敬止况先人之遺躅手澤而豈可任其泯沒耶乃敢記其事實欲以聞於當世之君子而得其題詠以彰先人之志而亦以垂示來裔云

不肖男 鉉一 謹記

敬題永岡臺

先人當日占斯臺遺躅分明古洞隈兩世丘壟臨咫尺一區泉石絕塵埃棟成未遂藏修志巖刻惟存望慕懷繼述貽謨那敢忘爲將此意詔來來

영강대 사설기

태암동 북록(北麓)에 덕동(德洞) 마을은 골짜기가 깊고 시냇물이 맑고 반석(盤石)이 넓어 가히 소요(騷擾)하고 상영(觴詠)함에 내 선고(先考) 침랑부군이 성품이 산수(山水)를 즐겨하여 여가 날에 이곳에 당양(徜徉)을 하여 유식(遊息)의 바를 만들려고 하되 힘이 모자라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영강대(永岡臺) 세 자(字)를 암석에 새기고 그 뜻을 부쳤느니라. 초계(草溪)에 처음 들어온 선조 학생공 양세(先祖 學

生公兩世(분영이 이동리에 있었되 우리 종종이 빈한하여 우모(寓慕)의 재사가 없
 어 선고께서 개연하게 여져 영모(永慕)의 이름으로 이 대(臺)에 부락함이라. 지금
 선고가 돌아가신지 수십년에 거인(居人)이 지점(指點)하여 일컬어 가로되 모공(某
 公)의 영강대라 하니 불초 형제가 매양의 대를 지남에 유축이 어제 같고 수택이 상
 신(尚新)함인즉 이즉 흥감치 아니함이라. 시전에 가로되 오직 오상(桑)과 오직 재
 (梓)도 또한 공경(恭敬)할 것인데 하물며 선고의 유축수택을 어찌 가히 민물하게 말
 기겠나. 이에 감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당시의 근자에 알리어 그 지영함을 얻어
 선인의 뜻을 드러내어 오는 자손에 보임이라.

불초남 현일일기 삼가 기록하고

한수의 시를 음함이라.

선인 당일애 이 대를 점령하니 유축이 옛동래 모퉁이에 분명하더라. 양세의 구
 룡은 지척에 다다르고 일구의 천석은 진애(塵埃)가 끊어졌더라. 짐을 지어 장수
 (藏修)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위에 새김에 오직 망모(望慕)의 회포가 있더라. 기
 친법음을 기술향을 어찌 감히 잊겠느냐. 위하여 이 뜻을 이같이 오고오는 세상에 전
 하리라.

農巖石公孝行實記

家語曰孝百行源四德以孝悌爲本愛親仁之本順親義之本敬親禮之本知此智之本誠此信之本所謂至德要道也是故孝悌之人資質粹美雖無學問之力良知良能自然之性苟孝於親天有感應之理國有旌褒之典往古來令孰無父母孰非人子其間能順其志生事其力死事盡思者何限有之揚抱著顯於百世之後興起爲人子之心以孝勸孝秉人倫扶世教之義也噫近古本郡峴洞士君子石某迺洪陽府院君諱良善遠代孫其孝順卽天性也事親之誠居喪之節合族之敦睦接人之謙牧隣里稱其德鄉道服其義及其沒也遠近士林輓而誄之誄而祭之甚至街談巷議咸歎善人亡矣孝子歸矣不幸家變鬱攸前後邑狀府報家藏遺事蕩燼無餘餘在事實編載郡誌謹按公夙遭閔凶生孩免祿奄失所怙纔過舞衆父抱奇疾常在床褥家素清貧單身隻影奉供極難賣履買魚負薪買米親瘡彌夢啖咳喘瓠躬饜粥餌晝夜勸進十有餘次間有飲吐受之于器反自飲之少無難色如是侍陽七年之久矣病中適口只在生魚或釣于江亦貿於市鱗次不乏時當冬節求買極難往于陝邑際梁浦漁父家亦無臆塞心焦號泣歸路路隔梁浦忽一大尺魚躍出浦中道傍視者驚異言至誠感神嗚呼天不佑孝粹當巨創柴毀骨立絕而復甦克遵古禮襄樹於村

舌岡日三上塚攀號霄痛如袒括之月三霜之內雖寒雪風雨一不停止苟非至誠之積畜
胡能若是有過人之竹也韓子所云刺史不能薦而名聲不得聞於天子也天之不食之報
理所必在公之允子某亦孝順之人也詩云孝子不匱永錫爾類

丙午正月立春後二日

嘉善大夫敦寧府都正 陝川 李塚壽 撰

농암 석공 효행 실기

가(家)에 왈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요 사덕(四德)은 효제(孝悌)로서 근본(根本)하
고 애친(愛親)의 근본(根本)이요 순친(尊親)의(義)에 근본이요 정친(正親)은 예의 근본이요 이
것을 알음은 지(智)의 근본이요 이를 지성(至誠)으로 함은 신(信)의 근본(根本)이니 이른
바 지덕이 요도(至德要道)니라. 이런고로 효제(孝悌)의 사람은 자질이 수미(粹美)
하여 비록 학문의 힘은 없으나 양지양능(良知良能)의 자연한 성품(性品)이 진실로
부모(父母)에 효도(孝道)하면 하늘이 감응(感應)한 이치가 있고 나라에 정포(旌褒)한
법이 있어 왕고래금(往古來命)에 누가 부모(父母)가 없으며 누가 인자(人子)가 아니
리요. 그 간에 능히 그 뜻을 순하게 하여 살아서 섬기기를 그 힘으로 하고 죽어
섬기기를 생각을 다하는데 어찌 한정(恨定)함이 있으리요. 백세(百歲)의 뒤에 흥기

(興起)하여 자손된 마음에 효로서 효를 권하고 인륜을 갖고 세교(世教)를 불드리는
 라. 근고(近古)에 본군현동사군자(本郡峴洞士君子) 석모는 홍양부원군 휘양선의 원
 대손이라. 그 효순함은 즉 천성(天性)이라. 사친(事親)의 정성과 거상(居喪)의 절
 차와 합족의 돈목(敦睦)과 접인의 겸(謙)손은 이웃이 모두 그 덕을 일컬었고 향토
 (鄉土)가 그의 예복종하여 그 돌아가심에 당하여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만대로 제
 사(祭祀)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탄식(歎息)하기를 선인이 망하고 호자로 돌아가
 영영(永永)간다 하더라. 불행이도 가변이 울고(鬱攸)하여 전후음잠 부보(前後邑狀
 府報)와 가장 유사(遺事)를 탐진하여 남음이 없고 나머지는 사실(事實)을 구지에 실
 린 것 뿐이다. 삼가히 관찰해보니 공이 일찍이 민흥(閔凶)함을 만나서 일찍이 강
 보(襁褓)를 면(免)함에 갑자기 어머니를 잃고 겨우 열다섯을 지남에 아버지가 기질
 (奇疾)을 앓아 항상 병상에 계시고 집안이 청빈(淸貧)하여 단신척영(單身隻影)으로
 봉공함이 극난한지라. 신을 팔아 고기를 사고 딸나무를 팔아 쌀을 사고 친제(親
 癢)가 더욱 심하여 담해(啖咳)가 천극한지라. 몸소 흰 죽을 끓여 밤낮으로 시냇
 석공양하고 간혹 음토(飲吐)함이 있음에 소릇에 반아 스스로 마시되 조금도 난색
 함이 없으니 이같이 사랑(侍湯)한지 칠년이 됨이라. 병중의 구미에 맞는 것은 다
 만생어(生魚)뿐이니 후강에서 낚기도 하고 또는 시장에서 사기도 하여 인차(鱗次)
 로 불땀(不炙)함이라. 서울천을 당하여 구하고 사기가 어려워서 합천읍 제량포(陝

川邑 際梁浦(의 어부(漁夫)에 집에 가니 또한 없어 언색심초(臆塞心焦)하여 울며 돌
아오는 길에 양포를 떨어뜨으니 갑자기 한자가 기량의 고기가 길가에 뛰쳐나와 보는
사람이 다 놀라고 기이(奇異)하게 여겨 지성이면 감천(至誠感天)이라 하더라. 오호
라. 슬프다. 하늘이 효자(孝子)를 돕지 아니함에 창졸이 거창(巨創)함을 당함에
시혜골립(柴毀骨立)하여 기절(氣絶)하였다 다시 깨어나 극히 옛 예를 좃아 마을 뒷
산에 양례를 지내고 날마다 세 번씩 묘에 올라 반호병용하여 달걀을 날과 같이 하
여 삼상(三霜)안에 비록 한설풍우(寒雪風雨)라도 한번도 정지(停止)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적축(積畜)함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같이 사람의 행실이 있겠느냐. 한자
(韓子)가 이른바 자사(刺史)가 능히 천거(薦擧)하지 못하여 명성(名聲)이 얻어 천자
(天子)에 들리지 아니함이라. 하늘의 먼저 알은 감응(感應) 반드시 이치가 엮을바라.
공의 윤자모가 또한 효순한 사람이라 시집에 이르되 효자 불기함이 기리 그 류를
증이라.

병오정월 입춘 후이일

가선대부 동녕부 도정 함천 이채수 찬

樵山處士墓碣銘 并序

公諱致均字平執號樵山其先忠州人高麗毅宗朝上將軍諱鄰爲上祖其后冠冕世赫六傳向入本朝有諱良善洪陽府院君配慶昌翁主永興崔氏太祖大王之從母也而兼有乳養功故夫婦俱膺異數特蒙封爵復覃恩於其子中郎將諱天乙有賜御製一詩之親筆而贈封洪城其崇報之典極矣後有諱成玉官吏曹議叅見燕山政亂棄官南下隱于密陽傳至諱彥夫避執徐亂于草溪甲山峴洞而家焉自後爲草溪人五代祖諱柱以壽陞嘉善大夫中樞府事高祖諱鳳梧亦以壽受嘉善啣曾祖諱重寶祖諱光璧考諱炳完妣慶州李氏有婦德生公于哲廟戊午二月十日公英偉莊重風韻異凡孝友根天愛深而禮至友篤而樂翁貧窮患難盡衷救恤鄉坊稱其德而頌其人則此蓋心得乎孝仁禮廉之中矣豈不義哉以壬午正月五日卒配密陽楊氏東俊女婦德咸備生三男鉉同鍾秀鍾振長房男宇溶次房男海溶文浩漢溶季房男判溶在溶在源瑄源曾玄以下不盡錄爲公之諸後孫協力豎碣徵文於余而以遺蹟之寂寥爲疚余曰自今後承蕃衍漑食之報必可驗矣安庸侈辭爲哉就其狀掇其略系之以銘曰

孝友根天百行之源患難救給范氏之圈雖曰未學盖由性成長栢谷磴石白景明漑根不

爽後嗣衍昌我撮其蹟揭此銘章

甲寅暮春節

碧珍 李元復 撰

초산 처사 묘갈명

공 휘 치균이요 자는 평집이요 호는 초산(樵山)이니 그 선은 충주(忠州)인이라. 고려예조(高麗毅朝)에 상장군 휘 린이 상조(上祖)가 되고 그 후 관면(冠冕)이 대로 세혁(世赫)하다. 六세를 전하여 본조(本朝)에 들어 휘양선이 홍양부원군배(洪陽府院君配) 정창응주 영응최씨는 태조대왕의 종모이시라. 검하여 유양의 공(功)이 있는고로 부부(夫婦)가 같이 이수(異數)에 응복하여 특별히 봉작(封爵)을 입었고 다시 은혜(恩惠)가 그 아들 증랑장(中郎將) 휘 천을에 미쳐 임금이 지은 한시의 찬필이 있고 홍성(洪城)으로 봉하니 그 승보(崇報)함이 지극한지라. 뒤에 휘 성욱이 관이 조참의(吏曹叅議)인데 연산정란(燕山政亂)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와 밀양(密陽)에 은거(隱居)함이라. 휘 언부는 임란(壬亂)을 피하여 초계 갑산 현동(草溪 甲山 峴洞)에 전거하니 뒤로부터 초계 사람이 되었느니라. 五代조 휘 주가 수로서 가선대부 증추부사(嘉善大夫 中樞府事)에 오르고 고조 휘 광벽이요 고휘 병완

(炳完)이요 비(妣)는 경주이씨(慶州李氏)니 부덕(婦德)이 있었느니라. 공은 철조(哲廟) 무오 이월십일에 생하시다. 공이 영위 장중하여 품음이 비범하고 효우(孝友)친(孝友根天)하며 애심이례(愛深而禮)를 이뤄 우애가 돈독(敦篤)하며 즐거움이 흠족(愔)하고 빈궁환란에 구휼(救恤)함에 마음을 다하니 향방이 그 덕을 일컬었고 그 사람을 칭송(稱頌)하니 이가 대개 마음으로 효인(孝仁)하고 예염(禮廉)함이라. 어찌 의(義)가 아니겠느냐. 임우(任)월(月)일의 절하다. 배(配)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니 동준의(東俊의) 님이라. 부덕(婦德)이 다 갖추었느니라. 삼남(三男)을 생하니 현동(顯東) 증수(宗守) 종진이(宗進)라. 장방남(長房南)에 우용이요 차방남(次房南)에 해용(海用) 문후(文後) 한용이요 제방남(弟房南)에 관용(官用) 재용(在元) 정원이요 증현(正顯) 이하는 다 실지(實地)인이다. 공의 제 후손(諸後孫)이 협력(協力)함으로서 병되게 여기거든 내 가로되 이제 후승(後承)이 번연(繁衍)하여 개식(溉食)의 가쁨을 받드시 가히 경험할 것이나 어찌 치사로서 하겠는가. 그 가장(家狀)에 나아가 그 대략(大略)으로 첩하고 서명하여 가로되 효우(孝友)가 근천(根天)함에 백행의 근원(根源)이라. 환난에 구급(救急)함인 범씨(范氏)의 권(圈)이라. 비록 가로되 미학(未學)이나 대개 성품이 이루어짐을 말미암음이라. 장백곡(長栢谷)에 들이 희고 경치가 밝더라. 뿌리의 밑대기를 얻지 아니하니 후사가 번창하니라. 내가 그 행전을 당겨서 이 명장의 기념이라. 〓

二十六世

諱炳岐與鄭老栢載圭李是庵直鉉爲道義交文籍蕩盡于南北戰火只餘行狀文

小山石公行狀

石君諱炳岐字元鎬小山其號本忠州人上世工部尚書諱鄰自中原東來麗朝以武貴位上將軍入我朝諱汝明以文顯提學集賢殿諱成玉吏曹叅議當昏朝棄官隱于密陽時嶺伯李好之以總戚家庄臧獲自辦給焉至諱彥夫始家草溪自後五世獨系家聲益不振諱樑諱鳳瑞諱重璘祖以上三世考英壁以孝稱妣綾城具世喆女也君生質英睿甫韶齟動作若成人父或不家而有賓客至必茶酒供之將迎無闕儀人以瑞器目之家素乏書籍里僻又闕蛾述之所年舞象始從隣塾受通史輩行已受經或笑其晚無及焉塾師謂君曰工夫惟在人一己百人十己千上學早晚何擇也君心然之自是課日往來朝暮不懈不數月句讀曉暢文理稍就入夏課作每居魁前笑者皆斂膝自慙老宿亦稱賞無己君則益矻矻自視若無能焉嘗慨然以爲知而不行非學也事親愛敬備至奉祭誠禮俱盡以和爲閨範

以敬爲身符宗族以之尚睦巷閭以之有禮興其弟友甚財無彼此前後喪持制克如禮既葬晨昏趨哭墓下三年不廢墓前一弓許有石臺刻曰永慕每登而彷徨悽愴以致終身之慕末年築德陽齋爲蒙求之室操躬講道不知年歲之不足尤喜讀心經常閣置兀上隨手翫索焉丙辰二月十九日呼復視庚降之哲廟癸丑得壽六十四墓在所居村後鵲嶺第二麓巽坐原配延安車氏奎駟女育二男一女男泰均鼎均壻李老成君以英明之資堅固之志濟之以學其用工也力踐實地不務爲華藻以取悅於時其處世也好謙己推人不苟爲崖岸斬截以自標於衆聞人之有文行名者必樂從而遊焉余嘗謂人之有技若己有之心好人善不啻自口言之似易行之實難此斷斷是君之長耳如直鉉見擯於物議而君猶逐臭之久而益勤至於乙巳之西赴甲寅之守鬻也樂爲之梅邊此豈可得於人人者耶今則君死矣其從子贊坤錄其行請余狀之有不忍辭者略叙其平生以竣之

上章大淵獻姑洗月上澣

江陽 李直鉉 謹撰

소산 석공 행장

석공의 휘는 병기(炳岐)요 자는 원호(元鎬)요 소산은 그 호(號)이니 본은 충주의 다. 상세(上世)에 공부상서 휘린이 증원(中原)으로부터 동으로 여조에 와 무(武)로

서 공을 세워 상장군(上將軍)이 되시고 아조에 들어와 휘여명은 문인(文人)으로서 제학집현전(提學集賢殿)에 들어났고 휘성우(成叟)는 이조참의(吏曹參議)니 혼조(昏朝)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밀양(密陽)에 숨으니 때에 령백(嶺伯)이 호지(嶺伯)李好之(가 시척(總戚)으로서 가장(家莊)과 장현(長峴)을 자판(自判)함이라. 휘언부(彦夫)에서 처음으로 초계(草溪)에서 살으니 이로부터 오대(五代)나 단전(單田)하여 가성(家聲)이 더욱 떨치지 못하였느니라. 휘량(樑) 휘봉서(鳳瑞) 휘중린(重璘)은 조(祖)이상 삼대라. 그(考) 휘영벽(英璧)은 호(孝)로서 일컬음이니라. 비(妣)는 능성우(綾城具)씨니 세철의 따님이요 구이 생질(生質)이 영이하여 육칠세에 동작(動作)이 이른과 같은지라. 아버지가 후집에 아니계실 때 빈객(賓客)이 오면 반드시 다주(茶酒)로서 대접하고 예의에 어김이 없이하니 사람들이 서기(瑞器)로서 지목(指目)하더라. 집이 본래 서적(書籍)이 모자라고 마을이 궁벽(窮僻)하여 또한 등사할 바도 없어 나이 십오세에 처음으로 이웃서재(書齋)에 읍저(傭者) 통사(通史)를 받음에 동료들의 경제를 이루니 후(後)부터 미치지 못함으로 웃는지라. 스스로 근(近)에 일러 가로되 공부는 오직 남의 한 번 하면 나는 백 번 하고 사람의 열 번 하면 나는 천 번 하면 그 배움의 앞설 수 있음에 의찌 이르니 웃음을 가리겠느니라. 구이 그 말을 간직하고 이로부터 날마다 왕래하여 아침 저녁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두어달이 못되어 구독이 호창하고 물리가 초취하여 여름에 들어 과작에 매양 장원에 거하니 앞에 웃던 자가 다 무릎을 거두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노숙한 이가 또한 칭찬하기를 마지않더라. 구인즉 더욱 걸걸(矻矻)하여 스스로 보기를 무능한 듯 하더라. 일즉 개연히 서하되 알고 행하지 못함은 학이 아니라 어버이를 섬김에 애정의 비지(備至)하고 제사를 받들매 성의를 다하여 화(和)로써 규범을 하고 경(敬)으로서 신부(身符)를 하니 종종들이 화목(和睦)을 승상하고 여항(閭巷)이 예(禮)가 있고 그 아우도 더불어 우애(友愛)가 깊어 재물이 네것 내것이 따로 없고 전후상(前後喪)에 상주로서의 예를 갖추어 다 하고 이미 장사(葬事)함에 신혼(晨昏)으로 묘(墓)아래 나가 추곡하기를 삼년을 피하지 않고 묘앞 일우하(一弓許)에 석대(石臺)가 있어 가로되 영모(永慕)라 하여 매양 울라 방황처창(彷徨悽愴)하여서 종신토록 생각을 이루고 말년에 덕양재(德陽齋)를 세워 어린이 구하는 집으로 하고 몸을 조심하고 도를 강하여 년세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더라. 더욱 즐겨 심경(心經)을 읽어 항상 책상위에 채쳐놓고 손 닿는대로 완색(翫索)하더라. 병진 이월십구일에 돌아가시니 태어나신 해는 철묘계축(哲廟癸丑)임에 년세는 육십사라. 묘(墓)는 춘후작령제이록(鵲嶺第二麓) 손좌요 배(配)는 연안차씨(延安車氏)니 구일의 따님이라. 유이남일녀(二男一女)하니 남은 태균 정균 이요 서는 이노성이라. 구인 영명(英明)한 자질(資質)과 천고한 뜻으로서 학문(學問)에 힘써 그 공부(公)가 힘으로 실제로 밝고 화조(華藻)로 하여 시속에 길의 취함을 힘쓰지 아니하고 그 처신함에 몸은 겸손하고 사람을 미뤄 추종함을 좋아하고 구태

여 애안참절(崖岸斬截)하여서 여러 사람에게 난처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문행(文行)을 들으면 반드시 하면 즐거이 좃아놀더라. 내가 일찍이 이르되 사람이 재주가 있음을 내 몸에 있는 듯하여 마음으로 사람 착함이 있었음으로 좋아한지라. 말로만 쉬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실상 어려우니 이가 판단의 이근의 장점(長點)이다. 나같은 이는 물의(物議)에 물리침을 볼지로 되 굳이 유혈이 상중함이 오래될수록 더 부지런히 하고 을사(乙巳) 서쪽으로 달는데 와 삼인의 향당을 지킴에 이르러 즐겨 매변이 되니 이가 어찌 가히 저마다 얻겠는가. 이제 그대가 죽은지라 그 종자(從子) 창근이 그 행적(行蹟)을 기록하여 나에게 장문(狀文)을 청하거늘 참아 사양치 못할자리라. 대략 그 평생을 서차하여서 기다리노라.

상한 강양 이직현 근찬

剛菴處士石公墓誌銘

公諱贊坤字在明號剛菴姓石氏忠州人始祖諱鄰自中原始來東土也高麗毅宗庚寅亂從李義昉擢郎將中祖諱汝明諱天乙恭愍王朝甲寅文科注書卒于忠州回文洞守義山配所後贈左贊成三傳諱成玉吏曹叅議四傳諱自岈八傳諱鳳瑞諱重璘諱英壁諱炳甲皆公之高曾祖考也妣晉陽姜氏在陽女以乙酉正月十九日生稟性厚重自幼不與群兒

從逐動止有度言笑自若受學于親庭着實深工及長以親命師事李先生直鉉蘊讀經傳
 得先生之旨訣出入鄉省廣交士友以謙恭爲修身之本治家儉約接賓誠欽興宗族敦睦
 及居憂盡儀禮以歲丙申四月五日卒壽七十一葬于梅谷大也山壬坐原配尚州周氏墓
 先舅墓右便配全州李氏墓梅也洞後山壬坐原有一男二女男鍾萬女全州李宗揆陝川
 李泰慶

歲癸亥立夏節

南平 文琦鉉 撰

강암처사 석공 묘지명

공의 휘는 찬곤(贊坤)이요 자는 재명(在明)이며 호는 강암(剛菴)이니 성은 석씨
 (石氏)요 증주인(贈主人)이라. 시조(始祖) 휘린이 증원(中原)으로부터 동으로 와 고려(高麗)
 예종경인(睿宗景仁)란(亂)에 이의방(李義昉)을 쫓아 낭장(郎將)이 되었고 증조(中祖) 휘여명(惠
 公)민왕(文)조(宗) 갑인(甲寅)에 문과(文科)주서(注書)로 증주희문동(忠州回文洞) 배소에서 졸(卒)하
 니 후에 증좌찬성(左贊成)이라. 삼전(三傳)하여 휘성우(成)은 이조참의(吏曹參議)요 사
 전(前)휘 자항(自抗)이요 팔전(八傳) 휘봉서(奉)요 휘중(中)인 휘영(英)벽(璧) 휘병(炳)갑(甲)이다 공의 고조(高祖)며
 증조(曾祖)며 아버지(父)이니라. 비(妣)는 진양강씨(晉陽姜氏)니 재양(在養)의 따님이라. 을(乙)기(基)정(正)월(月)

十九일에 생하니 품성(稟性)이 후중(厚重)하고 어릴 때부터 근아로 더불어 종족하지 아니하고 동지(動止)에 법도가 있고 언소(言笑)가 자약(自若)하며 가정(家庭)의 학(學)을 받아 착실히 공부(工夫)하여 장성함에 친명으로서 이선생(先生) 직현을 사사(師事)하여 정전(正典)을 익히어 선생의 지결(旨訣)을 얻었고 향성(鄕省)에 출입하여 사우(士友)를 광교하여 점묘하므로서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하고 치가 검약하고 접빈성(士友)관(誠欽)하였으므로 종족으로 더불어 돈독히 하고 상제(喪制)되어서는 예의를 다하고 병신(四)월(五)일에 졸아가시니 수가 七十一이라. 매곡대야산(梅谷大也山) 임원에 장사하고 배는 상주주씨(尙州周氏)이니 묘는 선구묘우편(先舅墓右便)에 있고 배 전주이씨(全州李氏)의 묘는 매야동(梅也洞) 후산(後山) 임좌(左)에 있느니라. 일남이녀(一男二女)니 남은 종만만이요 여는 전주이종주의 처요 합천 이태경의 처니라.

계해 입하절

남평 문기현 찬

行狀

公諱瑛均字而玉號曰可山忠州人上世工部尚書藥城君諱鄰自中原東來麗上將軍我朝諱汝明以文獻集賢殿提學諱成玉吏曹叅議當昏朝以忠節棄官遂隱于密陽伊後十

數世至諱鳳瑞諱重璘諱英壁諱炳甲是公之高曾祖考也妣晉陽姜氏在陽女以丙午正月十三日生峴洞里第稟性寬弘自幼有長者之鳳不肯與群兒徵逐常侍從父兄聞孝悌忠信文語則必傾耳聽之將欲有爲之志及長未能專治學業治家勤儉事親誠竭閨門和睦交明友以誠歎見人之不義輒以義喻之見歸正乃已也常出入鄉坊廣交士友與諸族合議築德岡齊以立爲先裕後之策教子侄以忠孝來運彬彬焉以余愚庸與公知心者久矣其子鍾球請余以狀文忘拙以實紀而書之如右

歲癸亥立夏節

南平 文琦鉉 撰

행장

공의 휘는 영균(瑛均)이요 자는 이욱(而玉)이며 호는 가산(可山)이니 충주(忠州)인
 이라. 상세(上世)에 공부상서 예성균 휘린(禮)이 증원(中原)으로부터 동으로 와 고려
 (高麗)의 상장군(上將軍)이요 아조에 휘여명(汝明)은 문현(文顯)으로서 집현전(集賢殿)
 提學(提學)이요 휘성욱(成昱)은 이조참의(吏曹參議)니 혼조(昏朝)를 당하여 충절(忠節)로서 벼슬을 버
 리고 드디어 밀양(密陽)에 은거(隱居)하고 이후 십수세에 휘봉서(鳳瑞)와 휘중인(重
 璘)과 휘영벽(英壁)과 휘병갑(炳甲)은 공의 고조이며 증조와 조부 또 부친이니라. 비는

진양강씨(晉陽姜氏)이니 재양의 따님이라. 병오정월十三일에 생하니 품성이 관홍(寬弘)하고 어릴때부터 장사의 품이 있으니라. 근아로 더불어 징추(徵逐)함을 즐겨 이 하지않고 항상 부형(父兄)의 시종을 하여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의 말을 들은 즉 반드스이 귀를 기울여 들어 장차 무슨 일을 할 뜻이 엿보이더니 장성(長成)함에 학업(學業)은 전공(專攻) 못하였으나 치가 근엄하고 사친성갈(事親誠竭)하여 규문의 화목하고 봉우사이에 성관(誠款)이 있고 사람의 불의함을 보면 문득 의로서 개유(開諭)하여 귀정(歸正)이 됨을 봐야 이에 그치더라. 항상 향방(鄉坊)에 출입을 하여 사우(士友) 광고하고 제족을 더불어 합의(合議)하여 덕강재(德岡齋)를 지어서 위선유후(爲先裕後)의 책(策)을 하고 자질 가르치기를 충효(忠孝)로서 하니 오는 운수가 빈빈하더라. 내 우용함으로서 공을 더불어 마음 아는 것이 옹음이라. 그 아들 종우가 나에게 장문을 청하거늘 응졸함을 잊고 실기로 으뜸쪽과 같이 쓰노라.

남평 문기현 찬

二十八世

諱鉉器師事李是庵直鉉

輔仁契序

輔仁契者何爲以設也嘗從松山石君鉉器遊者君沒後猶追思不已矧金爲契歲一會以講其誼名以輔仁蓋取曾子以友輔仁之語也夫人之道必資師友之講學以成而友之道又莫貴於輔仁仁者何也人之本心之德而愛之理也公之道也至公而無私博愛而容衆則仁之道在是矣顧今世衰俗簿慾浪滔天人人徇一己之私而忘大公之道則仁之喪久矣凡同此契者胥加勉勵同歸於至公博愛之道而不失吾本心之德則輔仁之名始不虛是爲不忘松山君之意也君之弟鍾瑞問序於余余嘉其意而爲之言

戊戌仲秋

淵雷室主人 權龍鉉書

보인계서

보인계(輔仁契)는 어찌하여서 이뤘는가. 일찍이 송산 석근 현기(松山 石君 鉉器)를 쫓아 놀던 사람들이 구이 돌아가신 뒤에 오히려 추사(追思)함을 마지 아니하여 돈을 모아 계를 하여 해마다 한번씩 모여서 그의 강하고 보인(輔仁)으로 이름하니 대개 증자(曾子)가 벗으로서 보인이라 하는 말을 취함이라. 대개 사람의 도가

반드시 사우(士友)를 자로하여 강하여서 이름에 벗의 도가 또한 보인함만 더 귀함
 이 없으니라. 보인(輔仁)은 어찌함이고. 사람의 근본(根本)이요 마음의 덕(德)이
 요 사랑의 이치요 공의 도(道)라. 지극(至極)하게 공명(公明)하고 사정이 없고 넓게
 사랑하고 뜻을 용납함인 즉 인(仁)의 도가 이에 있음이라. 이제로 돌아보니 세상
 (世上)이 쇠하고 풍속(風俗)이 야박하고 욕량(慾浪)이 도천(滔天)하며 사람 사람이
 저마다 욕심(慾心)만 차리고 대공(大公)의 도(道)는 잊으니 인(仁)의 초상함이 오래
 된지라. 무릇 이제를 같이 하는 자(者)는 서로 더 힘써서 한가지 지공박애(至公博
 愛)하는 도에 돌아가 나의 본심의 덕을 잃지 아니한즉 보인(輔仁)의 이름이 처음으
 로 헛되지 않음이라. 이 송산군(松山君)의 뜻을 잊지 아니함이라. 군의 제종서
 (弟鍾瑞)가 서문을 내게 묻거늘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말함이라.

무술 증추

연퇴실 주인 권용현 씀

隱求亭記

孔子曰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道吾聞其語矣未見其人也朱子解之曰未其志守其

所達之道也達其道行其所求之志也蓋以見出處之無二道也乃後世之人則不然處者或不守其所達之道而守其潔身亂倫之道出者或不行其所求之志而行其貪位慕祿之志此其所以山林之間無真儒而朝廷之上無善治者也然以余觀之朝廷之無善治實由於山林之無真儒也誠使山林之士各守其所達之道則朝廷之士之所行亦不過其道也何暇行其貪位慕祿之志哉故密州處士錦溪石公自少有遠志嘗愛雲門山水之勝率三子移居于道州山東明浦之里治一室以藏修名之曰隱求亭左右簡編繙繹不懈時以所得詔其子弟門生子弟門生亦多感化者既沒之後歲月滋久亭日就傾圮曾孫炳珩倡合同祖羣從及同門舊徒重加修葺並覆以瓦既成索舊扁以揭之請記于余余惟公非有慕於潔身亂倫之道而乃自藏於名山之間者不過欲行其所求之志也顧枳於時塞於命不得一有所誠而老死於韋布斯其可惜者也然時有屈伸運有升沈一時之屈不足以害百年之升誠使居斯亭者念祖修德以充其所求之志則俟異日時伸運升之際必將有行義達道之士彬彬出於斯亭矣公之三子皆以隱爲號是則公家之於隱德可謂克世矣此又子孫之所當思則者也

歲壬寅季秋日

道州 金在華 記

은구정기

공자가 라사대 숨어居하여서 그 뜻을 구하고 의로 行하여서 그 道를 達한다 하니 내 그 말은 들었으니 그 사람은 보지 못하였느니라。朱子 해석하여 가로되 그 뜻을 구함은 그 道에 達한 바요 그 道를 達함은 그 하는바 뜻을 행함이니라。 대개 出處가 두가지 道가 없음됨을 보임이니라。 이에 後世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處者도 후 그 達한바 道를 지키지 않아서 그 몸만 막게하고 人倫의 道倫를 어지럽게 함을 지키고 出者도 후 그 所求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만 탐하고 록만 생각(生覺)하는 뜻을 행(行)하여 이가 그 산림(山林)의 사이에 진유(眞儒)가 없음됨을 말미암음이 아니라。 진실로 살림의 선배로 하여금 각각 그 달하는 바 도를 지킴은 조정(朝廷)의 선비의 행하는 바가 그 도를 행함에 지나지 않으니 하가(何暇)에 탐위모록의 뜻을 행하겠나。 밀주처사 금계선공(密州處士 錦溪石公)이 소실적부터 원대(遠大)한 뜻이 있어 일찍이 은문산수(雲門山水)를 사랑하여 세 아들을 거느리고 도주산 동명포(道州山 東明浦)의 마을에 옮겨 살면서 한비를 마련하여 은구정(隱求亭)이라 이름하고 좌우(左右)에 서책(書冊)을 번역함을 게을리 하지 않고 때로 은은(隱隱)바로서 그 자제(子弟)와 문생(門生)에 전(傳)하니 자제와 문생이 또한 감화한자 많더라。 돌아가신 뒤에 세월(歲月)이 오래되어 정자(亭子)가 날로 무너지니 증손 병우(曾孫 炳珩)

가 동조 구종 및 동문수도(同門舊徒)들과 단합하여 수집(修葺)하여 기와를 다시 이
 어 이름에 구편(舊扁)을 찾아 써 걸고 나에게 기문을 청(請)하거늘 내가 생각(生覺)
 하건대 공(公)은 절신란륜(潔身亂倫)의 도에 잊지 아니하고 이에 스스로 명산(名山)
 의 사이에 숨는 것이 그 소구(所求)의 뜻을 행함에 지나지 않은 것이니라. 돌아보
 건대 때에 얽히고 순에 막혀서 한번도 시험한 바를 잊지 아니하고 포의(布依)로 늘
 으니 이가 가히 애석하니라. 그러나 때가 굴신(屈伸)함이 있고 운수가 승침(升沈)
 함이 있으니 일시의 굴함이 백년에 오르메 해롭지 않으니라. 진실로 이 정자에 거
 하는 자로 하여금 할아버지를 생각(生覺)하여 덕을 닦아서 그 구하는바 뜻을 채우
 즉 다음날 운수 좋은 때를 기다려 반드시 행의 달동한 선비가 많이 정자의 운기로
 서 남아 있으라. 공의 삼자가 다 숨을 은 자로서 호(號)를 하니 이가 공가의 은덕
 에 이또한 자손이 마땅히 생각하고 변할 바이니라.

세 임인 제추일

도주 김재화 기

隱求亭上樑文

山明水麗亶合隱倫之盤旋 雲林增彩 恭惟密州處士錦溪石公 花園令昆 乃將
日吉良辰聿覩舊榭之重奐 神祇呈祥 東韓華閼 既有

世德追攷 肇自中州來仕高麗 門下注書守孤竹高節而不 就漢陽朝之華殿 伊
文獻可徵 後以偉烈食采藥城 吏曹叅議丁燕山暗昏而遽 遯密城府之清川 從

後桂籍登名或遺愛於州郡 歷屢世而移基咸稱石氏之明浦 早治功令蔚有聲於場
茲文行間世與有光於鄉鄰 携三子而隱德并美龐公之鹿門 旋回車轍乃立脚於儒

屋 五書近思深究乎聖賢之宗旨 事親竭誠何讓於冰鯉雪笋之特異 高居而避塵
門 一生實行專主乎家禮之節文 追先盡力足證於圭田石儀之備兼 深藏而不市

無異墻東逸士 誅茅為亭乃以隱求揭扁 修其己而乃能治其人德而已 物換星移
便同水北山人 背山臨水允宜仁智賞心 求其志而未得達其道命矣夫 書中面諭

忍見棟宇之傾壤 鳩材募工同堂之叔侄并力 革舊而圖新侈儉相得 洞壑清幽可
遂詢宗族而經營 去芟代瓦百年之風雨攸除 中堂而夾室暄涼俱宜 山林深邃尚

樹百世之大計 乍停郢斤 兒郎偉拋梁東 灑落靈臺無點累 兒郎偉拋梁西
帶當日之耿光 載陳張頌 長夜黎明旭日紅 惺惺問答主人翁 逍遙亭子與雲齊

三徵不就遺芳躅 兒郎偉拋梁南 望裡先原如咫尺 兒郎偉拋梁北 肇祖藁
高節清風景仰兮 華岳山色滴翠嵐 春秋霜露感懷覃 月岳山青太古色 雲仍蕃

城食采封 兒郎偉拋梁上 隱處真工惟志求 兒郎偉拋梁下 此樂傍人其孰
衍麗千億 聖訓丁寧牖趨嚮 此心安可斯須改 花柳前川興轉雅 浴乎風詠暮春

知 伏願上梁之后 潛德彌光 維孝維 克紹祖先之嘉猷庶斯亭之不朽
者 芳聲愈遠 有德有文相傳子姓之懿範與泰山而无窮

甲寅二月朔朝

竹溪 安龍鎬 謹撰

은구정 상량문

산명수려하니 은륜(隱淪)의 반선(盤旋)에 단합하고 일길진량(日吉辰良)하니 처음
으로 옛집이 다시 찬란함을 볼지라. 은림(雲林)이 채색(彩色)을 더하고 신지(神祇)
가 상스러움을 드리더라. 공손히 생각건대 밀주처사 금계 석공(密州處士 錦溪 石
公)은 화원에 영근(令昆)이요 동한의 화별이라. 이에 세덕이 추방(追放)함이 있고
이미 문헌의 가증(可證)함이 있느니라. 일찍이 충주(忠州)로부터 와 고려(高麗)에

벼슬하고 뒤에 위열(偉烈)로서 예성(藥城)에 봉군(封君)을 하였니라. 문하주서(門
 下注書)는 고죽(高竹)의 높음은 절제로 지켜 한양(漢陽)조화전(朝華殿)에 나아가지 않
 고 이조참의(吏曹叅議)는 여산의 암혼(暗魂)을 만나 물으니 되 밀성부 청천(密城府 淸
 川)에 숨느니라. 이 뒤에 급제에 이름이 오르고 후주군에 유애(遺愛)함이 있고
 이로 쫓아 문행(文行)이 간세(間世)에 향인(鄕鄰)의 빛이 있더라. 여러 대를 지나
 고 터를 옮기니다. 석씨의 명포(明浦)라 일컬으고 세 아들들 거느리고 덕에 숨으
 니 방공(龐公)의 녹문(鹿門)과 같이 아름답더라. 일찍 공령(功令)을 다스림에 성한
 소리가 장옥(場屋)에 있고 문득 차철을 돌림에 이에 유문(儒門)에 입각함이라. 오
 서근사(五書近思)는 깊이 성현의 종지를 연구(研究)하고 일생실행(一生實行)은 온전
 히 가례(家禮)의 절묘함을 주장(主張)하더라. 사친갈성(事親竭誠)에 어찌 빙리설수
 (氷鯉雪笋)의 특이함을 사양하면 추선진력(追善眞力)함에 족히 유전(耄田)과 석의
 (石儀)의 겸비함을 증거하리라. 높이 거해 티끌을 피함에 자동일사(牆東逸士)와 다
 름이 없고 길의 숨어 나타나지 않음에 문득 수북산인(水北山人)과 같느니라. 떠를
 배어 정자를 함에 이에 은구(隱求)로서 액호(額號)로 걸고 산을 등지고 물에 다다르
 매 진실로 인지(仁智)의 상심(賞心)이 마땅하더라. 그 몸을 닦아 이에 능히 사람을
 다스림은 덕이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도(道)의 달함을 얻지 못함은 명(命)인지라.
 세월이 가니 참아 동우(東宇)의 경계(傾壤)함을 보겠는가. 서중(書中)에 면유(面諭)

함인 드디어 종족(宗族)의 경영함을 물었다. 재복을 모으고 공원을 모집함에 동
 당(同堂)의 숙질(叔侄)이 힘을 같이 하고 떠를 버리고 기와로 덮임에 백년(百年)의
 풍우를 던바이다. 옛을 혁하고 새로 도모하니 치검(侈儉)이 상득하고 가운데 청
 을 하고 절에 방을 하니 선량이 구의한지라. 동학이 청유하니 가히 백세(百歲)의
 대계(大計)이요 산림(山林)이 심(深)수하니 오히려 당일(當日)의 경광(景光)이 있더
 라. 잠간자귀를 멈추어라. 장송(張頌)을 베풀겠다. 兒郎偉拋梁東하니 긴밤이 여
 명이 되고 아침날이 붉더라. 왜곡한 영대에 일점의 누가 없으니 성성하게 무답함
 이 주인옹(主人翁)이라. 포량서(拋梁西)하니 소요정자(逍遙亭子)가 구름 같이 간주
 름 하더라. 세 번 불러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방초를 기치니 고절청풍(高節淸風)을
 경양(景仰)함이여. 포량남(拋梁南)하니 화악산(華岳山) 빛이 취남이 떨어진다 바라
 는 속에 선원(先原)이 지척과 같으니 춘추에 상로감회가 미치더라. 포량북(拋梁北)
 하니 월악산(月岳山)이 푸르니 태고의 빛이다. 일직은 할아버지 예성(藥城)에 식
 채(食菜)로 봉(封)하니 후손(後孫)의 번영함이 그 숫자가 천억(千億)이다. 포량상
 (拋梁上)하니 성훈(聖訓)이 정녕히 추향에 바라지 했더라. 숨은 곳에 참된 공부를
 오직 뜻으로 구할 것이다. 이 마음들 어찌 가히 잠간(暫間)이라도 놓겠는가. 포
 량하(拋梁下)하니 화류전천(花柳前川)에 흥취가 굴러감이 아름답다. 이 즐거움을
 결사(決死)가 알겠다. 목욕하고 바람쏘이고 물은 모춘이다. 복원상량(伏願)

上梁(의 뒤에 숨은) 덕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소리가 더욱 멀더라。 오직 효도와
 오직 우애는 능히 조선(祖先)의 아름다운 궤로 이르고 덕이 있고 글이 있음에 서로
 자손(子孫)의 꽃다운 법을 전함이라。 거의 이 정자(亭子)가 썩지 않음이 태산(泰
 山)을 더불어 무궁(無窮)하리라。

갑인 이월 삭조

주계 안용후 근찬

隱求亭重建事實記

負甌峯臨錦水坐午向子而翼然薨簷掩映於雲烟松桂之間者高祖考錦溪府君之攸芋
 也恭惟我始祖諱鄰自中州來仕高麗毅宗朝以軍功陞大將軍食采蘘城今忠州子姓仍
 貫焉七傳至諱汝明號花園恭愍王甲寅榜文科三壯元官至門下注書麗社屋漢陽朝太
 宗召以漢城尹檢校集賢殿提學守罔僕義不就贈崇祿大夫左贊成三傳諱成玉吏曹叅
 議燕山丙寅棄官南遯于密州之清川伊後登名桂籍遺愛州縣而世以文學行義者聞焉
 府君濡染於詩禮之門庭天資朴實凝重長身美髯早事舉業有聲場屋而屢不中乃回改

轍潛心於聖賢爲己之學學主五書近思錄禮本家禮備要而事親愛敬備至志體俱養其
 丁憂哀毀踰禮人以善居喪稱之篤於追先自親遡遠先塋石儀之堅祭田之置齋亭之守
 靡不致力而嘗愛雲門山水之勝率三子移居于道州之山東明浦築室爲終老計顏之以
 隱求亭儲書史種花竹峨冠博帶日處其中緇現慥慥教授子弟門生彬彬多髦選矣於乎
 今距府君謝世百有餘年風猷漸邈亭已傾圮曾孫炳玕詢謀群從及及門舊徒經紀重葺
 未就而不幸其弟炳達其胤德均克體先父兄之遺志而并辨巨貲鳩材募工易茅代瓦比
 舊制稍輪奐若非此叔侄之追遠特誠烏能如是也傳曰無忝爾祖聿修厥德願我宗族互
 勉胥勗子傳孫承保守先亭於無窮也密陽族叔宇楨氏聞而壯之勸余識其顛趾以垂範
 來裔遂不喘僭越畧叙如右

甲寅二月初吉

曾孫 炳植 謹識

은구정 증언 사실기

시루보음을 지고 금수(錦水)에 다다르고 자오로 향배하여 익연(翼然)한 맹침이 운연
 송계(雲烟松桂)의 사이에 은연히 비침은 고조고(高祖考) 금계부군의 유우가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시조(始祖) 휘린(始祖)이 중주(中州)로부터 와서 고려(高麗)의 벼슬을 하였다. 예종조에 근공으로서 대장군에 오르고 예성에 식채(食采)하니 지금의 충주(忠州)라. 자손(子孫)이 인하여 관향함이라. 칠전(七傳)에 휘여명(胡有明) 호는 화원(花園)이니 공민왕(恭愍王) 갑인방에 문과주서(文科注書)를 하고 고려가 망함에 선한 태종이 한성윤(咸興尹) 검교집현전(檢校集賢殿) 제학(漢城尹) 檢校集賢殿 提學)으로 부르되 망복(罔僕)의 (義)로 지켜 나아가지 않으니라. 세 번 전하여 휘성옥(許成玉)이 조참의(趙參議) 연산병인(延山病人) 吏曹參議 燕山丙寅)에 벼슬을 버리고 밀양(密陽) 청천(淸川)에 숨었으니라. 뒤에 금제(金濟) 이도 있고 그를 사리한 이도 있어 대대로 문학(文學) 행의로서 들림이니라. 부군(府君)이 시례(詩禮)의 문정에 유엄하였음이라. 천자가 박실응중(朴實凝重)하고 장신미림(長身美髯)이라. 일찍이 거업(거업)을 종사(從事)하여 명성(名姓)이 장옥(長玉)에 있어 여러 번 마치지 못하여 이에 수레바퀴를 고쳐서 성현의 위기학(爲己學)에 잠심(潛心)을 하여 학은 오서근사록(五書近思錄)을 주장하고 예는 가례비요를 근본하여 어버이 섬김에 애경(愛敬)이 비지하고 지체구양(志體俱養)이라. 그 장사를 만남에 애회(哀毀)함이 예에 넘으니 사람이 선거상(善居喪)으로 일컬는다. 선대를 생각(生覺)함에 돈독하여 내 아친(我親)으로부터 먼 선조까지 석의(石儀)를 세움과 제전(祭田)의 듦과 재정(齋亭) 지킴을 듦에 힘입어 이루지 아니함이 아니라 일찍이 문산수(雲門山水)의 승기를 사랑하여 삼자(三子)를 거느리고 도주 산동명포(山東明浦)에 옮겨서 집을 지어

늙도록 삶을 작정하고 이 은우정(隱求亭)으로서 서사를 쌓아놓고 화죽(花竹)을 심어
 아관박대(峨冠博帶)로 날로 그 증에 처하고 근현조조하여 자제문생(子弟門生)을 가
 르키니 빈빈함이 모선이러라. 이것이 부군의 사제함이 백유여년(百有餘年)에 풍우
 (風雨)가 점점 멀어지고 정자(亭子)가 이미 기울어지니 증손 병우(曾孫 炳珩)가 근
 종(群從) 및 그분 구도(舊徒)에 물어 증집(重葺)을 경기(經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 아우 병달(炳達)과 그 아들 덕균(德均)이 능히 선부형(先父兄)의 유지(遺志)를 받
 들어 많은 돈들을 구재묘공역모대외 하니 옛집보다 낮게 이루었다. 만약에 이
 수질의 특성(特性)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랴. 전(傳)에 가로되 너의 할아버
 지를 더럽힘이 없고 일찍이 그 덕을 닦으리라 하니 원컨대 우리 종족(宗族)은 서로
 힘쓰고 서로 도와서 아들이 전하고 손자는 이어 선정(先序)을 보수하니 무궁하더
 라. 밀양의 족수 우정씨가 듣고 장하게 여겨 나에게 권하여 그 전말을 기록하여서
 후손에게 수범케 하라 하기에 드디어 참월함을 돌아보지 않고 대략 서차함이 우와
 같으니라.

갑인이월 초기일일

증손 병식 근찬

隱求亭韻

索取隱求亭額懸

雲門日月開明浦

北住圍籬由二相

述先裕後皆爲責

楣顏生色倍燦然

錦水淵源自大川

南來解綾始三銓

增補增修永世傳

曾孫炳達敬題

棟宇新成舊額懸

梓桑歷世今喬木

矩步未韋違尺寸

裔孫敢忘修先德

隱求二字更瞭然

雲水臨軒是錦川

持口恒若守衡銓

嫡嫡傍傍世世傳

玄孫鶴均敬題

은구정운

은구정 앵자를 찾아 취하여 다니 미안의 생색이 배나 찬연하더라. 은구정인월일은 명포로 열고 금수연원은 대천으로부터 이니라. 북쪽에 머물러서 우리들 함에 이상을 말미암음이요 남으로 와 인권을 끊음이니 삼천으로 처음하니라. 선대로 기술하고 뒤로 전함이 다 책임이 되느니라. 더 보수하여 영세토록 전함이라.

증손 병달 경제

동으로 새로이 뒤 옛애향을 단이 은수 두 글자가 다시 요연하더라。 재상이 세상을 지남에 이것이 고복이요 은수가 현함에 다다름에 이가 금천이더라。 바른거름은 일찍이 천춘을 어깊이 없고 마음 가짐은 항상 저울과 저울을 지킴과 같이 하더라。 옛손들이 감히 선덕 다음을 잇겠느냐。 적자 적손이고 방자 방손이 대대로 전함이니라。

현손 학균 경제

樵隱石公墓碣銘

公諱世寬字敬三號樵隱石氏系出忠州上祖諱鄰高麗上將軍封藥城君後有諱良善入李朝封洪陽府院君諱汝明集賢提學贈左贊成傳至諱成玉吏議見燕山政亂投紱南下始居密陽之清川累傳至諱自崗居州之林谷於公間九代曾祖諱載珩祖諱徵坤考諱致虎號錦溪有山水癖移居清道山東之明浦構隱求亭自任以教迪後人妣慶州金氏聖健女公生于 憲廟己酉十二月九日天資挺偉自幼凡行儼若成人人莫不器之家素食貧問學於躬耕之暇意識進博生業致裕平居整飭衣帶不見惰容範家以嚴教子以義至其

對人接物藹然有和氣樂於與人爲善設敦學契每月朔受講勸懲勤怠閭里有孝友至行
 獎以厚饋見窮匱尤甚者加之周恤明浦有汎潰而將廢遂相地形導移而得其完築農人
 甚德之蓋其雖晦迹林樊而功利之及人有如是晚年授通政陞而不自居卒以庚午六月
 六日享年八十三葬于錦川面花田山甲坐配固城李氏任楨女生以丙辰九月九日卒以
 戊辰二月二日與公祔葬三男義楨來楨昌楨義楨男炳玠炳達來楨男炳仁炳國昌楨男
 炳斗炳俊炳茁炳弼炳守曾玄以降繁不錄炳玠君請余以銘公墓爲余之獲私而知公深
 也安敢以不文辭爲之銘曰

孳孳乎勉勵志業密密乎蘊抱經綸莫恨窮居而不試猶有利澤之被人

道州 金弼鎬 謹撰

達城 徐錫俊 謹書

초인선공묘갈명

공의 휘는 세관(世寬)이요 자는 경삼(敬三)이요 호는 초인(樵隱)이니 석씨의 계가
 충주(忠州)에서 남이라. 선조 휘린이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으로 예성군을 봉함의
 라. 뒤에 휘양선이 있어 이조에 들어와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하였고 휘여
 명(汝明)이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이요 좌찬성(左贊成)을 증하였고 전하여 휘성우

에 이르러 吏曹叅議이니 燕山政亂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와서 처음으로 밀양천천(密陽淸川)에 거하였으니라. 여러번 전하여 휘(諱)자강이 임곡(林谷)에 살았으니 공의 구대조(九代祖)라. 증조휘 재항(載珩)이요 조휘 징곤(徵坤)이요 고휘 치호(致虎)이니 호는 금계(錦溪)라. 산수벽(山水癖)이 있어 청도(淸道)산 동명포(東明浦)에 옮겨 은구정(隱求亭)을 세워 후인교적(後人敎迪)함으로서 자임(自任)을 하였다. 비(妣)는 경주김씨(慶州金氏) 성건의 따님이라. 공이 현묘기유십이월주일에 나서 천자가 정위(挺偉)하여 어릴때부터 무릇 행실(行實)이 엄연(儼然)한 성인(成人)과 같으니 사람들이 크게 여기지 않음이 없더라. 집이 본래 가난하여 문학(文學)을 중경한 여가(餘暇)에 익히니 의식(衣食)이 넓은에 나아가고 생업(生業)이 넉넉함을 이루고 평거(平居)에 의대(衣帶)를 정칙하여 게으른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 집에 법함이 엄하므로 하고 자녀(子女) 가르침을 의(義)로서 하되 그 사람을 대하여 접대(接待)함은 애연한 화기(和氣)가 있더라. 즐거이 사람들에게 착함을 베풀고 돈학계(敦學契)를 베풀어 매월 삭에 강을 하여 부지런과 태만을 권증하고 동리에서 효우지행이 있으면 후기로써 장려하고 궁함이 더욱 심한 자를 보면 주홀함을 더하더라. 명포(明浦)에 보(洑)가 있어 무너져 장차 폐하게 될새 드디어 지형(地形)을 보아 인도하여 옮겨 그 완측함을 얻으니 노인(老人)들이 심히 덕으로 여기더라. 대개(大概) 그 비록 임번(林樊)에 회적(晦迹)하였으나 공리(功利)가 사람에게 미침이 이

韓有洪陽府院君良善提學贈左贊成汝明至吏議成玉見燕山政亂解官南下自是遂爲密城人累傳至副護軍振伯於公間七代曾祖諱徵坤祖諱致虎號錦溪移居道州之明浦考諱世寬號樵隱妣固城李氏任楨女公以高宗丙子十一月二十六日生安詳厚重自幼得長者稱詡及上學夙解旨義而能審察於精微旁通算數剖析細密所居有大川連亘而地爲水嚙磧沙瀾望猾吏弄奸減折鄰坊之稅而徵之不毛之地轉幻無常民不堪其苦公鉤得其實而毫髮不夾訴官歸正而民瘼永除遂得神算之稱碩幹脩髯儀觀甚偉言談舉止儼然整飭及其接物和氣盎然而風韻蕭爽凡於碁琴詩酒靡不對客而適其氣味之至其內行則侍母疾而盡誠調護繼而丁前後艱不出數年而能易戚備至推而竭力於先事協議諸族而勅吏議公墳菴更捐己田補數代享祀之不贍族黨皆稱頌其德卒以壬辰六月二十三日享年七十七葬于明浦花田嶝巽原配固城李氏庭守女生辛未卒乙酉墓祔元位上二男炳玗炳達三女適固城李鍾浩李晚基李範基炳玗男德均文均炳達男洪均義均晚均餘幼不舉炳玗炳達君述公之遺事一通請銘於余余爲之銘曰

望之而儀表峻整接之而風流暎發如見措諸事業則孰知其器局宏深而經綸察勿乎後之欲知公者庶觀我銘而徵其實也

族弟 宇楨 謹撰

명계 선공묘갈명

達城 徐錫俊 謹書

공휘 희정(義楨)이요 자는 준언(俊彦)이며 별자 명계이니 석씨 시조왕 휘린이니 중주(中州)로부터 와 고려(高麗)의 구녕으로 수봉예성하니 즉 충주(忠州)라. 입한 하여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휘양선 제학 증좌찬성(左贊成) 휘여명이시고 이조참의(史曹叅議) 휘성우이 연산정랑(燕山政亂)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오니 이로부터 터 드디어 밑성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번 전하여 부호군진백(副護軍振伯)이 공의 칠대조(祖)라. 증조(曾祖) 휘징곤(徵坤)이요 조 휘치호(致虎)니 호는 금계(錦溪)요 도주명포(道州明浦)에 이거(移居)하였고 고 휘세관(世寬)이요 호초은(樵隱)이며 비(妣)는 고성이씨(固城李氏)니 임정의 따님이라. 공이 고종병자(高宗丙子) 십일월의 시묘육일에 생하시니 안상후증(安詳厚重)하여 어릴적부터 장자의 칭호를 얻었더라. 상학(上學)에 일찍 지의(旨義)를 알아 능히 정미함을 살피고 결의로 산수(算數)를 통하여 세밀하게 분석하더라. 거하는 바에 대천(大川)이 연경(連境)하여 땅이 물에 떨어져 전사가 미망하여 활리(猾吏)의 농간(弄奸)으로 인방(鄰坊)의 세(稅)를 감절(減折)하여 무한 땅에 증수(增收)하여 전환무상(轉幻無常)하니 백성이 그 괴로움을

전디지 못함에 공이 그 실상을 소상히 일러서 후발만치도 틀림이 없이 관에 소장
 (訴狀)하여 밝히니 민막이 기리덟이라. 드디어 신산(神算)이라고 일컬은더라. 석간
 수렴(碩幹修髯)에 의표(衣表)가 심히 위대(偉大)하고 언담거지(擧止)가 엄연정직하되
 그물을 대접(待接)하에 있어 화기(和氣)가 왕연하고 풍운(風韻)이 소상하더라. 무
 릿기금시주(碁琴詩酒)의 손을 대하면 그 기미를 맞추지 아니함이 없더라. 그 내
 행(內行)에 이르러서는 어머니 병환(病患)을 모심에 정성껏 조호를 하고 전후상사에
 능히 이척(易戚)이 비지하고 밀워 힘을 선사(先事)에 다하고 제족(諸族)과 협의하여
 참의공 분암(墳菴)을 창건(創建)할새 갱연기전하여 수대향사에 부족함을 도우니 주
 당(族黨)이 모두 칭송(稱頌)하더라. 임진유월 이십삼일에 졸하니 향년이 칠십칠이
 라. 명포화전(明浦花田)등 손원에 장사(葬事)하니라. 배는 고성이씨(固城李氏)니
 정수의 따님이요 신미에 나고 을유에 졸하여 묘는 원위상(元位上)에 부하였다. 이
 남(二男)은 병우 병달이요 삼녀(三女)는 고성 이종호 이만기 이범기의 처요 병우의
 남(二男)은 병우 병달이요 병달의 후손의 관 만은 이요 을유에 불거하다. 병우 병달의 공의
 유사(遺事)한통을 기술하여 나에게 명(銘)을 청하거늘 내가 명을 하여 가로되 바라
 봄에 의표(衣表)가 준정하고 대함에 풍류(風流)가 영발하더라. 모든 사업의 득을
 본즉 뒤가 그 기국(器局)이 굉심(宏深)하고 경윤이 밀물(密勿)한 줄을 알겠나. 뒤
 에 공을 알고저 하는 자는 거의 내 명을 보고 그 실상(實像)을 즐겨할지라.

處士石公墓碣銘

公諱炳玕字相伯姓石氏其上祖中州人諱鄰高麗毅宗朝來仕有軍功歷兵馬使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忠州古號也名公巨卿赫世連綿入鮮朝有諱良善追封洪陽府院君生諱天乙號香山官中郎將封洪城君生諱汝明號花園高麗恭愍王朝生員官注書我太宗特除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而不就乃安置于忠州守義山回文洞而終焉 贈左贊成至諱成玉官吏曹叅議燕山朝棄官南下卜居于密陽清川累傳諱振伯官副護軍累傳諱致虎號錦溪是爲公之曾祖而始入清道山東明浦蓋取其山水之美而隱居行義也祖諱世寬號樵隱考諱義楨號明溪俱隱德不仕妣固城李氏庭守女有婦德高宗壬寅正月九日舉公于明浦里第姿質清秀德性仁厚威儀魁梧學於家庭居家孝友愛人喜施言忠行敬鄉里咸稱逢時不利無攸展志乃樵山釣水寓趣田園焉自乙秋以來政黨分爭民生撓攘乃徙達句之南亦隱市之以也公好賓樂朋趨逐貧家乃周旋於官民設置養老堂

족제 우정찬

달성 서석준 서

合聚老類以詩酒之樂優遊終世焉卽庚戌五月十四日也享六十九年葬于清道梅田面北旨後山負亥原配固城李氏祥穆女戊戌生壬子卒墓乾位合窆生二男二女長德均次文均達城徐錫址耽津安在洪其壻也德均男鎮燮鎮奐文均男鎮和鎮銀鎮燮男智勳徐鶴洙好洙安大衡台衡皆外孫也餘幼不錄嘻公之沒世未遠而口碑猶章章矣日公之長胤德均甫訪余于漢城寓舍而請其墓表之文其志可尚矣顧余昏耄者何敢當是役而不可辭其孝懇乃撫其家狀之槩要而爲之銘曰

藻城古族花翁遠仍孝友爲本詩禮是尚言忠行敬蠻貊可行聖訓昭昭公亦服膺况又涉世無疵無恙非德奚爲斯石煒煌

檀君紀元四千三百十六年癸亥上元節

永川 崔碩基 謹撰

仁同 張炳燻 謹書

명포처사 선공 묘갈명

공휘는 병공(炳珩)요 자는 상백(相伯)이요 성은 석씨요 그 상조(上祖)는 증주인이
라. 휘린이 고려(高麗) 예종조에 와서 벼슬하여 군공이 있어 병마사를 지내고 상

장군(上將軍)에 오르니 예성군을 봉하니 예성은 곧 충주(忠州)고호라。 명공거경(名公巨卿)이 혁세연면하더라。 선조에 들어 휘양선이 있어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을 봉하고 휘천을(天乙)이 호향산(香山)이니 관 중랑장(中郎將)이요 봉흥성군(封洪城君)하다。 생휘여명(汝明)은 호화원(花園)이니 고려 공민조(高麗 恭愍朝)에 생원주서(生員注書)라。 아태종이 특별히 검교한성윤 집현전 제학(集賢殿 提學)을 제수하니 나아가지 않음에 이에 충주수의산에 안치하여 생(餘生)을 마치심에 좌찬성을 증직하고 휘성옥이 관 이조참의(吏曹參議)니 연산조에 벼슬을 버리고 남으로 와 밀양청천(密陽淸川)에 복거하다。 여러번 전하여 휘진백이 관부호군(官副護軍)이요 또 여러번 전하여 휘치호는 호가 음계(錦溪)이니 이가 공의 증조이심에 처음이로 청도산동명포에 들어오니 대개(大概) 그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에 취해 은거(隱居)하여 의(義)를 행함이라。 조휘세관(世寬)이요 호초은(樵隱)이요 고휘희정(高 휘희정)이요 호근명계이니 다 은덕불사(隱德不仕)라。 비는 고성(高城)이씨니 정수의 따님으로 부덕이 있었느니라。 고종 임인 정월(正月)일에 공을 명포리제에 생하니 자질이 청수하고 덕성이 이후하고 위가 기오하여 학어가정(學於家庭)하니라。 처가 효우(孝友)하고 애인 희시하여 언종행영하니 향리가 다 일컬느니라。 때를 만남이 이롭지 못하여 뜻을 필바가 없어서 이에 초산조수(樵山釣水)하여 전원(田園)에 취미를 붙였느니라。 을추(乙秋)로부터 정당(政黨)이 분쟁을 하고 민생(民生)이 요란하여 이에 대구(大丘)남쪽에

읊쳐 조용히 지냈으니라。 공이 손님을 좋아하고 벗을 즐기고 추추빈가(趨逐貧家)하여 이에 관민을 주선하여 양노당(養老堂)을 설치 노인(老人)들을 합치하여 시주의 락이로서 우가중세하니 즉 정슬은월십삼사일이라。 향년유십삼유년이다。 청도 매전면 부치리 뒷산 해원에 장사하고 배는 고성에서이니 상목의 따님이라。 무술에 생하고 임자에 잘하니 묘는 건위에 합평이라。 이남이녀(二男二女)를 생하니 덕관 문관은 남이요 이녀는 달성 서선지 탐진 안재홍의 처라。 덕관남 진섭 진환이요 문관남 진화 진은이요 진섭남 지훈이요 석학수 호수 안대형 태형기 모두 외손이라。 나머지 그는 불독한다。 슬프다。 공의 물세함이 오래지 않는데 구비가 오히려 빛나고 빛나다라。 일의 공의 큰 아드님 덕관이 나를 한성우사(漢城寓舍)에 찾아서 그 묘표(墓表)의 문을 청하거늘 그 뜻이 가상한지라。 나의 혼모가 어찌 감히 이 역사를 당하리오。 이에 그 가장의 개묘를 주어서 명하여 가로되 예성노주이요 화원옹의 먼손자더라。 효우로 근본하니 시례로 습상함이라。 언총행성하니 만백이라도 가이 행하리라。 성훈의 소소하니 공도 또한 복응하더라。 하물며 또한 세상지냄의 흠도 없고 아픔도 없다。 덕이 아나니고 무엇이겠으리。 이 돌이 휘황하더라。

단기 사천삼백십삼유년 제해상원전첩

영천 최석기 근찬
 이동 장병환 근저

嘉善大夫石公墓碣銘 清道太峴

吾邑丹山里住石君熙祚熙柱奉其譜牒求余而言曰吾姓自奠于茲鄉世以清素傳家無貴達無顯望其於先事亦多有所未遑焉而六代祖嘉善公之墓在牟邑上洞甫磴山枕乾之阡而一片短碣歲久磨殘字泐不可讀今我輩將欲合謀改樹而願借顯刻之詞余辭不獲迺按其譜則公諱厚明石氏忠州人高麗藥城君諱鄰爲鼻祖也六傳而有諱良善以其配永興崔氏爲李韓太祖姨母有乳養之恩封洪陽府院君至孫諱汝明麗朝注書太宗除漢城尹集賢殿提學特旨累徵而不就因安置于忠州回文洞守義山終不改操太宗褒其忠贈崇祿大夫左贊成嘗居于松京子男山下花園而因自號曰花園故世稱花園先生而誦其志節也自後勲業名宦連世不絕可以見石氏之爲東方聞族曾祖諱郁壽通政祖諱瑞尚贈嘉善大夫考諱以柱贈嘉善大夫妣貞夫人金海金氏生公于里第公以古家遺裔潛修本業不求聞達是以無有以指稱於世然觀於其後昆之懇懇竭誠於爲公之事可以想像其遺澤之闡流於支葉而永世不渴也已歲戊申八月二十七日考終葬于茲地而後以望德贈嘉善大夫啣配貞夫人仁同張氏墓在公塋左便半月形局壬坐有二男長曰萬弼次曰士萬萬弼男應文應復士萬男應輝應震應重曾玄以下不盡錄而今茲之役特誠

出力者六世孫熙鳳熙炳熙益銘曰無而爲有世多其人而爲無公實鮮倫我進其有彰
題蒼珉

光復後甲寅至月下澣

鐵城后人 李鍾殷 撰

李鍾新 書

가선대부 석공 묘갈명

우리 고을 단산리(丹山里)에 사는 석공 희조 희주가 그 보첩(譜牒)을 받들고 나의 말을 구해가도록 내성이 이 고을에 전거함으로부터 대로 내려 청소함으로 집을 전하고 귀달함도 없고 현명(顯明)함도 없고 그 선사에 또한 여가하지 못함이 많고 육대조(六代祖) 가선공의 묘가 본고을 상동보등산 건좌(乾坐)에 있어 한조각 단갈이 세구마잔(歲久磨殘)하여 글자가 없어져 가히 읽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 무리가 장차 합모하여 개수코저하니 현각(顯刻)의 글을 빌림을 원하거늘 내가 사양하다 얻지 못하여 이에 그 보첩(譜牒)을 안찰하여 본즉 공의 휘는 후명이요 석씨는 충주인이 라 고려(高麗) 예성군 휘린이 비조가 되었느니라。 육전(六傳)하여 휘양선이 그 배 영흥최씨가 이 한래조의 이모(姨母)가 되고 유양(乳養)의 은혜가 있음으로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을 봉하고 손 휘여명(汝明)에 이르러려 조주서로 태종이 한성유언 집현

전(漢城尹 集賢殿) 제학을 특지로 여러번 부르되 나가지 아니하니 충주 희문동 수
 의산(守義山)에 안치(安置)하여 마침내 그 지조(志操)를 고치지 않으니 태종이 그
 충을 표하여 승록대부 좌찬성을 증하였다. 일찍이 승경자남산 화원에 거함으로 인
 하여 자호를 화원(花園)이라한고로 세상(世上)이 화원선생(花園先生)이라 일컬었으
 며 그 지절을 이음이라. 이후로부터 훈업과 명환이 연세 부절(連世 不絕)하니 가
 히 석씨가 동방의 문족이 됨을 보리라. 증조휘는 옥이니 수로서 통정(通政)이요
 조휘(祖諱) 서상이니 증 가선대부(嘉善大夫)요 고(考) 휘이주니 증 가선대부(嘉善大
 夫)요 비(妣)는 정부인 김해김씨(貞夫人 金海金氏)라 공을 이제에서 생하다. 공이
 고가의 유예로 본업을 뒤아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으니 이로써 세상(世上)에 지칭
 이 없으나 그 후손(後孫)들이 간간히 정성으로 공을 위하는 일을 보건대 가히 그
 유택(遺澤)이 가만히 지엽에 흘러 영세(永世)도록 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세 무신
 팔월이십칠일에 고종하니 이 땅에 장사하고 뒤에 망덕으로서 가선대부함(嘉善大夫
 卹)을 증하다. 배는 정부인(貞夫人)인 동장씨니 묘가 공의 묘 좌편 반월형구임좌
 에 있다. 이남(二男)은 장자 만필이요 차자는 사만이라. 만필남(萬弼南)은 문(文)이요
 사만남(四萬南)은 휘(惠)인진(眞)은 증(宗)이요 증(宗)은 현(顯)이 하는 다 기록치 않는다. 이제 역사에 특별히
 힘을 낸 자는 육세손 희봉 희병 희익이리라. 명월 없는데 있다함(明月無不有) 세상에 그런 사
 람이 많으니 되 있어도 없다함(多有不有)이 실상(實相)으로 전(傳)이 짝이라 내가 그 있는 것을 알아

서 푸른 돌에 빛나게 씬이라。

광복후 갑인 지월 하한

철성후인 이종은 찬

철성후인 이종신 서

敬梓亭記

慶山郡之南二十里許有金谷者蓋別一洞天也雲門特爲南州之宗而下有如天馬脫鞍者曰馬鞍爲其祖峰也望之蔚然深秀於左而如仙人來儀者仙儀山也若出水芙蓉向西爭發者蓮花峯也壇坐金衣不飛不鳴者黃鳥嶺也江濤涵湧直瀉於北者琴湖也金井也桐池也活源也各自鍾美於西類智者耶施此非天作而地藏之以遺其人者乎秀巖石公隱居于此其志在乎山水之間也天姿特異才藝夙就生有夢巖之異養有懷橘之誠四子三經融會貫通其有疑處心思索不得弗措也又逐雲月樂琴書登於山而樂仁臨於水而樂智從吾所好而於富貴泊如也 肅廟初值大荒募民于架山南北捐穀賑恤上聞公行義特除嘉善 因下教曰聞古董邵南隱居桐栢行義其中今日石士萬遯跡金谷篤行好

問亦其倫也予庸嘉之勿辭赴職東岡之志益復確然矣牢臥不起公沒之后幾百載後孫累代營擬慨先躅之久泯啓遺徽於將來作亭於山水之間而宛然復見當日面目則豈不猗歟休哉其爲制也中二間爲堂東一間西二間爲室五樑前退也名之曰敬梓亭在均甫以諸族之意請記於金獻周獻周爲之說曰梓者桑梓之謂也以其不忘故也敬者於輯之稱也以其敬先祖也其義顧不大歟石氏之先功勳名宦經學孝行蔚乎相望秀巖公承其緒篤其學以垂諸后則今敬梓亭之作安知不爲海陵許氏之南園也哉歐陽子以孝悌二字張皇反復而不獨化及其人將見艸木禽獸亦有感應也此乃在力行而不怠則諸君盍相與勉之哉

闕逢閣茂端陽節

聞韶 金獻周 記

경재정기

경산군 남쪽 이십리허(許)에 금곡(金谷)이 있으니 별구 동천이라. 유문이 특별히 남주의 종졸인데 아래 천마탈안은 마안의 조봉이 되었고 바라봄에 유연히 왼쪽에 빼어나 선인(仙人)의 거동(舉動)함과 같음은 선의산이요 부용이 물에 나와 서쪽을 향해 다투어 피는 산은 연화봉이라. 단정(端正)히 앞은 금의가 날으지도 않고 울

지도도 애타고 황조령이라. 강도가 후용해서 곧 북쪽에 쓰는 자는 금호 금정 동지
 활원이 각각 아름다움을 서쪽에 중을 하니 이가 하늘이 짓고 땅이 간직하여서 그
 사람의 지침이 아닌가. 수암선공(秀岩石公)이 이에 은거(隱居)하니 그 뜻이 산수사
 에 있음이라. 천자가 특이하고 재예가 숙취하여 날 때에 몽암의 이조가 있고 길음
 에 회구의 정성이 있어 사자삼경(四子三經)을 응회과통하고 그의 심나는 곳이 있으
 며 반드시 사색을 하여 얻지 못함을 두지 아니하니라. 또 윤월로 쫓아 금서를 즐
 겨 산에 올라 인(仁)을 즐기고 물에 다다라 지혜(智)를 즐겨 나의 종은 바를 쫓고
 부귀에는 박여하더라. 수묘초에 대황을 만나 모민의 가산남부에 모집을 할새 곡식
 을 달여 진흙을 하니 공의 행의를 듣고 특히 가산에 제수하고 인하고월 문고 동소
 남(董邵南)이 동백(桐柏)에 은거(隱居)하여 그 중에 행의를 하였더니 금일 석사만이
 금문에 도전을 하여 동행 후문하니 또한 그 짝이라.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기니
 사양치 말고 진본에 다다라 동강의 뜻이 더욱 다시 함연한지라 굳게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더라. 공이 돌아가신 뒤 기백제에 후손(後孫)들이 누대(累代)로 경영하여 선
 족이 오래 면밀함을 개연히 여기고 유희를 장래에 열고져 정자를 산수 사이에 지으
 니 완연히 다시 애타고 면목을 본 듯하니 여찌 장하지 않인가. 그 제도 가운데 두
 칸이 칭이 되고 동쪽 한 칸이 방이 되고 오랑전되라. 이름해 가로되 경재정(敬梓
 亭)이라 하고 재관이 제주의 뜻이로서 김현주의 기문을 칭하거늘 현주가 위하여 말

해가로되 재라 하는 것은 상재로 일음이니 그 잇지 못한 연고요 경이라 함은 공경
을 일음이니 정은 그 선조를 정함이라. 그의가 돌아보건대 크지 않으나. 석씨
(石氏)의 선대(先代)가 공훈과 명환과 정학과 효행이 울연히 상망한데 수암공이 그
뜻을 이어 그 학을 돈독(敦篤)히 하여서 후손(後孫)에 드림이니 이제 경재정(敬梓
亭)의 지음이 어찌 해능허씨의 남음이 되지 않음을 알겠는가. 구양자가 효제(孝
悌)의 두 글자로서 자황 반복하여 홀로 덕화가 그 사람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초
목금수가 또한 감을함이 이음음을 불러라. 이에 역행하여 게을리 아니한데 이음음인즉
제군이 어찌 서로 서로 힘쓰지 않으리요.

갑술단양절

문소 김헌주 씀

敬梓亭記

人之百行萬善以孝爲原而其所以行孝之道者敬而已矣敬身體爲其親枝也敬言語恐
其辱先也凡於父祖之杖凡琴瑟佩鐫之屬莫不持之以敬守之以敬而至若一草一木是
所父祖先之手植而培而養之愛而傳之則爲子孫者可不敬乎是以詩耶云惟桑與梓必

恭敬止者良以此也惟此忠州石氏以古族華閩居于凝川者世焉而在中葉移注于新寧郡至後孫秀巖公載士始卜于慶山郡南面金谷洞而宅焉於山有仙儀黃鳥之勝於水有南川桐池之美爲子孫滋養可居之地矣村俗淳仁土宜稼穡占子孫遺安之業而秀翁金谷記所謂非獨生業而魁奇材德之士生其間者是已其後數百年瓜瓞連綿自成喬木之一世家矣但睦其族而無聚會之廳牖其後而無隸業之室是耶欠缺者存矣歲辛未春公之八世孫在均甫與其族協意鳩財結構一亭子乃距家十赤之地瓦葺五架前退也涼軒溫室各適其宜極致輪奐之制而扁之曰敬梓亭蓋取諸詩中桑梓必恭敬之義也梓是植物也以祖先比之則其貴賤尊卑何如而子孫之致敬不可一日一時之不敬也嗚呼古昔有石建兄弟以孝謹聞于郡國今有石在均宗族以孝敬肯構其亭一謹一敬是所石氏家真傳旨訣也其在百代之親行此一貫之道則豈可曰古今之有異乎抑又梓之爲木仰而直是爲子道也居此亭讀此亭者以梓仰之道致敬於祖先則固知其世世有孝子不匱矣詩云永言孝思自求多福余以是而爲石君勗勉之而其山川磅礴之勢雲林幽邃之狀備盡於金谷記余必贅言也

癸酉春三月下澣

仁川 蔡憲植 記

敬梓亭上樑文

俎豆已闕久享恒切報本追遠之誠廟宇僅際新成復覩光前垂後之裕克念先世之未就爰謀今日之始營竊惟秀巖石公忠州舊鄉獐山世閥一區閒於杖屨切慕甄亭之古基兩派分於源流寓感蘇家之譜誼百代之世業不墜一家之文獻足徵前後經營殆近四五紀已久中間事故嗟呼六七人云亡肆前日父兄憂勤積累年心力枉費此世此舉恐墜祖先之遺風何有何罔克殫子孫之誠力孰主勑是孰揚名是將賢孫之仰欽某人營斯某年建斯留尊祖之遺澤其義反不重耶宜顧心而思之斯湏未可忘也庶常目而在茲迺者三陽運回於焉百堵皆與洞壑幽邃便同環際之皆山水石清奇尚想考槃之在澗幽艸靜花堪作自然之丹艸清湍翠壑削爲不斷之蕃牆願賢祖圭壁而多享仰瞻尊重之義而諸孫餽禮者同升宜遵陟降之靈松茂竹苞之規允侔周雅之斯干上樑下宇之制蓋取義曆之大壯躬行孝弟自此尊親而尚德餘事文章亦宜讀書而誦詩是知二字之扁楣實爲一門之欽仰韋固之宴歡罔俾專美范庄之置義今可覩新茲運經綸於心上遂見突凡於眼前惟欽尊門百世之誠俾陳兒郎六偉之頌兒郎偉拋樑東捧日扶桑沃若叢繁衍本支千百世於斯可驗蔭無窮拋樑西一抹蓮峯望裏齊願與此峰青未了子孫勿替共提携拋樑南仙

儀鍾精老栢含愛看盡日還無厭簾末微霏滴翠嵐拋樑北玄武星輝垂屋極齋宇清深傳
 萬年彤雲絳雪助生色拋樑上蒼蒼天宇覆遙曠渾然一理自流行對越先靈咫尺仰拋樑
 下染盛精禋稼穡野飲餽於斯因燕毛子孫千億享純嘏伏願上樑之後宗族益敦老少咸
 集功名富貴顯榮萬世如鳥獸好音之成空德業文章彌亘兩儀若日月大明之無缺

重光協洽穀兩節

東平 鄭永鎬 撰

金谷記

玉山之南數堠之餘有金谷谷之以金爲名者未聞取乎何義也其南有山如快馬脫鞍之
 形曰馬鞍或曰上古仙人來遊故一名仙儀是一郡之鎮山也其下有蔚然深秀者曰金井
 也又一支脉逶迤北走截然如飛鳥出幽谷之形曰黃鳥磴前有一脉如老虎伏巖之形曰
 虎巖右有一峯亭亭精立如蓮出水之形曰蓮花峯其他羣峰羅列拱環扶護乎谷之左右
 中有大川是南川水源流也谷深而源遠洽收衆流而北注于琴湖之江南有池曰梧桐積
 水清漣灌溉之利優於數十百畝之田前有蓮行之大路北通畿湖之境南控萊海之關雖

遐遠之信報無日不聞壤土肥沃禾麥之豐棄麻之饒足以供絲身穀腹而有優矣閉井相接里俗仁厚勤儉士業耕讀女工蚕績有安分樂生之淳風焉若乃松竹之利用林泉之清勝不可一二俱狀雖古李愿之盤谷晦菴之雲谷必不專美也余自花山展省先墓于凝川每彷徨周覽于茲有年矣愛其地勝而俗美又稍邇乎先鄉衣履之藏故遂謀搬移捨數世桑梓之居卜一枝鷓鷯之棲而奠居焉然而余之初志非獨取生業之饒而已嘗聞水土之所生神氣之所萃必有魁奇才德之士生於其間未知從前茲土聞人達士之名於世者有幾人歟或者天藏地作神慳鬼秘之靈氣留而不發俟茲以後鍾生如金如錫之賢者鍊其精而成其器將爲國家之用者耶若然則金谷之名人與地而相符將有辭于永世矣豈偶然而已哉以是望焉

養竹記

植物之可愛者衆松栢之堅固需乎棟樑之用也梧桐之清高中於琴瑟之材也柿栗楂梨之繁茂取其甘果之摘也則其植也固宜惟竹也既無棟樑琴瑟之材又無甘果之摘而古之賢者愛而植之者何也嘗觀夫竹之本原同根萌筍挺聳相比者仁也勁本堅節不受霜

雪者義也陽春布暖不與衆芳鬪榮者禮也心虛而節直而圓者智也四時一貫榮悴不殊者信也綠葉浮浮清陰分四者德也微風吟葉韻合律呂者樂也其他醫人之俗利人之用雖不可悉名而賢者所愛可槩哉余移居金谷之日幽間少事乃於虛曲寬曠之地相其土宜而植竹幾許本克全其根不傷其性載舊土而築新壠際糞壤而刪莽尊勿忘勿助苟俟生殖一之自然而己翌初夏巡視園庄新籜旁出貞幹挺聳娟娟焉有若天植之繁茂余愛之益加疏其間封其下橫斜不能自正者去之蔽翳不能疏通者剪之自後子葉孫籜蕃盛加倍若有感遇而然者焉噫竹植物以有仁義禮智之化故猶愛之況於人乎仁義禮智人心之根人而欲養其心必去其枯亡之我只務乎培其根達其枝養成有斐之君子則奚翹竹之愛也哉因以自省書焉

屯田井記

玉山之南有金谷洞洞前有野曰屯田屯田之名不知其何所取也然而地廣而土肥上有梧桐池之儲水傍引南川湫之流注若非泰甚之旱則不勞灌溉之力農不失時豐熟有秋真是山中之開野一方之沃壤也不意是歲天不矜民恒惕之愆逾月彌亘池水竭矣川源

亦涸矣灌溉無路禾苗枯槁憂心如熏何以聊生嘗聞漢陰之老人鑿隧而八井抱瓮而出灌人力之勤天灾或可免矣况此依山邇川之地豈無一桔槔之伏水乎乃與洞人相土地而鑿井纔掘數三仞沙石盡而水源涌出湏臾而盈科矣於是而整甃欄通訃澮引汲不竭灌溉有餘枯苗復蘇所地既渥禾稼成熟古所謂居其所而遷者非此井耶易曰改邑不改井無喪無得往來井井蓋謂邑可改而井不可改也自是以後井或頽圯堙塞隨處修治水益清深流益長遠使往來之人莫不井井收而勿罨則井之施澤與天地永久矣豈徒爲一時灌溉之用而已哉於是紀念焉

勸學文

記曰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夫玉之爲寶也其性堅貞其德溫潤其色光輝其聲清越人孰不稱其寶也然而不琢則不成器况人之於道乎人之生也其秉彝好德之性一也而清濁純駁之氣稟有萬不齊自非生知之姿孰能盡其性哉自中姿以下心情散走千岐萬派若不學問而收拾則何以知爲人之道乎然而所以學者亦非高遠難行之事不離乎日用彝倫之外故入孝出恭自卓尊人勤職節用奉祭祀誠接人物厚勿欺人勿害物等事

放之彌六合修之在一身然則學之發軔自何始徃哲之嘉言善行載在方策當深玩尋繹有得於心則眷眷服膺孳孳俛首體認於身存養於心俯仰無愧齊於家推於國然後庶可謂知爲學矣然而業精于勤而荒于嬉行成于思而毀于惰故因仍苟且者或九仞之山功虧於一簣懦惰自棄者有千里之行望門而不入可不惜哉且德行本也文藝末也有德行者文藝在其中矣徒尚文詞而不務德行則浮華淺露豈享爵祿之器哉爾曹當念我匪耄之言學先聖希聖希賢之訓如恐不及惟恐失之時習日新期於有成庶幾於爲人之道宜爾勉哉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墓表

慶山郡金谷洞梅艸之谷有負兌而封崇者寔爲故同知中樞石公之壽藏也舊有碣歲久剝泐諸後孫新而大之鍾弼震均二君來請余文按石氏之先忠州人上祖曰鄰高麗兵馬使上將軍忠州君中祖曰文賢朝鮮利川縣監後多顯者曾祖曰起柱祖曰萬珂考曰天尚皆不仕妣曰竹山朴氏公以 顯宗庚戌四月十九日生于時大人公晝夢有巨石特立庭中之異故公既長自號曰秀巖云先業富厚承而守之時出以散施嘗值歲大無傾困以救

飢窮全活甚衆獎授同樞啣以 英祖甲子三月十四日卒享年七十五配曰貞夫人密陽卞氏德甫女二男振重知樞啣振逸僉樞啣孫男聖福聖三聖泰聖有長旁出聖淳聖伯聖甲季旁出曾玄以下繁不載公有秀巖自叙讀之信知其有志有學其外又有詩文若干首傳于家云

戊戌三月 日

道州 金在華 撰

二十世

諱載士自叙曰古者父母生子錫之以名旣冠而字之者愛之深而欲其顧名思義也則爲人子者惡敢湏曳而忘哉昔先府君嘗戒不肖曰汝覽揆之日吾得晝夢有一大巖秀出于庭際之前驚異方醒之際忽婢兒來告夫人順婉而有弄璋之慶欣然默思吾將年暮生此晚子又有異夢此或是成家之望矣汝既稍長粗知義方異日汝立志行己當如彼石之堅確秀立則庶符我夢兆之吉矣汝其念哉不肖無狀雖於顧復之恩教誨之義萬無報一然而丁寧訓辭敢不服膺哉不幸府君見棄終養無由常恐遺戒之墜失書此秀巖二字于門楣出入觀省寤寐仰思以慕當日劬勞之恩夢徵之異也所謂號者吾豈敢

也哉

石孝婦黃氏紀蹟碑文

黃氏籍昌原義原君居正后父春奉嫁以爲石仁壽妻石氏之籍忠州而中世爲慶山人氏自幼有孝順姿歸未幾年十九夫歿氏亟欲下從以舅姑在堂奉養是其職忍死含哀以爲養既而姑又歿獨與舅居忘其身之爲孤孀而一以順適舅意爲務定省溫清無或闕職舅亦視以子而忘其鰥且獨也如是者三十餘年舅老而失明且貞疾委床褥起居便旋必須人氏以身爲手足耳目動止惟以意有求則應如響罔晝夜不懈者積十六年如一日舅嘗疾革而絕且甦者累迷譖中所索惟龜湯時天旱川涸絕無可求處氏就川邊築堤下抱石號哭忽聞石底如有游泳聲舉而視之有龜躍出歸以供之病得蘇而壽以延時舅年至九耄而氏亦年六十餘矣鄉里咸嘖嘖驚歎亟以狀籲邑與繡衣得其褒題者累而竟未得上聞事在 高宗丙寅甲戌年間而至今已百年之久公議之稱頌嗟嘆者猶不衰往年鄉之章甫自鬻堂又舉其事遍告域中儒紳求其同聲褒揚則蓋以今日上聞之無地而公議之在下也此可見烝民首章之義而其亦衰世意歟於是石氏諸族謀伐石紀蹟樹之里門其

族曾孫震均抱前後之狀而徵不佞以辭惟古之稱孝者在父子之天屬而猶難之况婦於舅爲義合者乎在順境而猶難之况早孀孤惇乎而一意積誠數十年至有異感之應非出於天而無所爲者不能此於古亦罕有聞焉而豈不誠孝婦矣乎宜懿蹟之久而不泯而儒論之齊發諸族之爲役俱足以警頽俗而補世教也故聳聞而書之氏生以 純祖甲子歿以 高宗己卯享年七十六而無育取從子學楨後云爲之辭曰

自古稱孝子烈婦者多而稱孝婦者少豈非不以夫心爲心而或昧承夫之道吁嗟黃氏之爲婦可謂能盡子職而代夫之孝允矣在夫爲烈在舅爲孝而兩得其皎彼世之自私而遺親者盍此之來考

花山 權龍鉉 謹撰

仁山堂重建上樑文

居百世而永奠恒切肯構之謨詢一門而僉同聿成重建之志新楣揭舊舊號維新伏惟我仁山先祖蘂城世族提學靈苗歲值龍蛇之變仗義赴亂地藏松薛之深晦跡韜光南瞻仁壽洞乃是一時杖屨之止西睠嘉來山永爲萬年綖衣之藏山水拱抱想精靈陟降之如臨

春秋奠享欠雲仍蠲齊之無所平泉花石錯落敢忘李贊皇之家謨午橋水竹堙沉恐絕裴
晉公之文種肆與闔族而協議咸願及時而圖成屬當饑饉之荐臻雖捽難贖金而輸穀試
看風潮之愈變寧可緩逾月而度年起直棟而轟晴空非壯麗之計列重礎而鎮厚地只悠
久之圖爲陳籩豆之明蠲曷若堂斧之時見堪輿相址陰陽背向會纏而允藏工倅劉材準
繩規矩效能而適度上下棟宇美哉輪奐壯蓋取於雷天西南戶牖豁然開通明與合於日
月嗣續妣祖斯干之頌復興瞻望邱塋思亭之感岡美是利用享于祭乃見其著而存幾十
年未遑之事待今日而完遂數百孫適追之孝自此後而彌深苾芬蒸享不愆儀古如是今
如是遠近親疎無異視歌於斯聚於斯恭陳短詞庸助偉頌曰拋樑東瑞日朝朝射碧空
達道山高來擁護龍勝鳳翥氣豪雄拋樑南毘山聳翠與天叅松風蘿月今如許修養當年
心自甘拋樑西下嘉來谷上乾齊幽深隨道杉松鬱陟降英靈也不迷拋樑北洛水澄清天
一色瞻彼古今逝如斯流芳百世終無極拋樑上消却陰雲玉宇朗天時人事有相符牖戶
西南正颯爽拋樑下山明水麗闢平野家傳孝悌外無求講信堂中志寬雅伏願上樑之後
七耀助吉百靈致祥宗族信睦兪敦勿忘均視之道春秋享祀匪懈彌篤追慕之誠永言孝
而思庶勿替而引於晚岡文集

인산당 증언상림담

백세(百世)토록 살면서 길의 자리를 잡은 터전에 항상 조상의 뜻을 이어 집을 지으려는 제책이 절실하였더니, 일문(一門)에 물어보니 모두들 같은 생각이란다. 이에 거듭 세우려는 뜻을 이루었네. 새로운 편액(扁額)이 옛집에 걸리니, 옛 이름이 다시 새롭네.

앞드려 생각건대 우리 인산선조(仁山先祖)는 예성(藥城)의 세족(世族)이고 제학(提學)의 현손(賢孫)이다. 세월은 임진(壬辰)의 왜란(倭亂)을 만나 의병(義兵)으로 전쟁(戰爭)에 나갔고, 땅은 송설(松薛)의 깊은 곳을 가려서 자취를 감추고 광채를 숨겼네. 남쪽으로 인수동(仁壽洞)을 바라보니 곧 일시(一時)에 장루(杖屨)가 머물러 그친 곳이고, 서쪽으로 가래산(嘉來山)을 돌아보니 길이 만세(萬世)토록 수의(綫衣)를 간직한 곳일세. 산수(山水)가 감아도니 정령(精靈)이 오르내리며 마치 입하신 듯함을 상상하겠고, 춘추(春秋)로 제자를 들이니 운잉(雲仍)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재계할 장소가 없음이 흠일세. 평천(平泉) 화석(花石)이 착락(錯落)하니 감히 이찬황(李贊皇)의 가모(家謨)를 잊으랴? 오교(午橋), 수죽(水竹)이 인침(埋沉)하니 배진공(裴晉公)의 문종(文種)이 끊어질까 두렵네. 이에 모든 종족들과 협의하니 모두들 때에 미쳐 이루기를 바랐네. 마침 기근(饑饉)①이 거듭 닥친 때를 만나

비록 갑자기 금곡(金穀)을 거두어 옮기기는 어려웠으나 풍조(風潮)가 더욱 급변함을
 보노라니 어찌 년월(年月)을 넘쳐서 더디게 할 수 있으랴? 곧은 기둥을 세워 맑은
 하늘에 치솟게 하였으나 웅장(雄壯)하고 화려(華麗)한 제책은 아니었고, 무거운 주
 춧돌을 벌려서 두터운 땅을 누르니 다만 유구(悠久)히 하려는 생각일 뿐이었네.
 이에 제기(祭器)의 밝고도 깨끗함을 진설(陳設)하노라니 어찌 묘소(墓所)를 때로 봄
 만 같으랴? 풍수(風水)가 터전을 살피니 음양전후(陰陽前後)가 두루 맞아 진실로
 훌륭하고, 장인(匠人)이 재목을 다듬으니 규구준승(規矩準繩)이 능력을 다하여 법도
 에 들어맞네. 상하(上下)의 동우(棟宇)가 크고도 아름다우니 웅장(雄壯)하기는 되
 천(雷天)②에서 취하였고, 서남(西南)의 유흔(牖戶)가 열리고 통하니 밝기가 일월(日
 月)과 합하였네. 조비(祖妣)를 이었으니 사간(斯干)③의 노래가 다시 일어나고, 선
 영(先塋)을 바라보니 사정(思亭)의 느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닐세. 이에서 제향
 (祭享)하기 이르으니 곧 그 드러나 제씨는 뜻함을 보겠네. 몇 십년이나 이를 저를
 이 없었던 일이 오늘날 기다려 완전히 이루어지니 몇 백명의 자손들이 멀리 추모하
 는 효성이 이후로부터 더욱 깊어지겠네. 향기로운 제수는 의례(儀禮)에 어긋나지
 않아 옛적이나 지금에도 이 같았으며, 원근의 친족들이 친소(親疎)를 달리 봄이 없
 이 이에서 노래하고 모이네. 공손히 단사(短詞)를 베풀어 이에 랑승(梁頌)으로 하
 니.

들보틀 동쪽으로 하니, 상서로운 햇살이 아침마다 푸른 하늘 쏘네.

달도산(達道山) 높이 솟아 감싼 곳에, 용봉(龍鳳)이 달리고 날아 호웅(豪雄)한 기
사일세.

들보틀 남쪽으로 하니, 비슬산(毘瑟山) 푸른 빛이 높이 하늘과 가지런하네.

송풍라월(松風蘿月)은 지금 이갈은데, 수양(修養)하시던 당년(當年)엔 스스로 달
갑은 마음이겠지.

들보틀 서쪽으로 하니, 아래는 가래곡(嘉來谷) 위에는 건재산(乾齊山)일세.

스ुक하고 깊은 묘도(墓道)엔 송채(松杉)가 울창한데, 오르내리시는 영령(英靈) 또
한 미후치 일양네.

들보틀 북쪽으로 하니, 낙수(洛水)가 맑고 깨끗하기 하늘과 일색(一色)일세.

고금(古今)에 돌아보니 흘러감이 한결 같아, 백세(百世)에 아름다움을 끝내 다함이
없네.

들보틀 위로 하니, 어두운 구름 해쳐 없애니 옥宇(玉宇)④가 청량(淸朗)하네.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서로 부합함이 있으니, 서남(西南)의 유호(牖戶)에 상
쾌한 바람이 불어오네.

들보틀 아래로 하니, 산수(山水)가 명려(明麗)한 평야(平野)가 열렸네.

가전(家傳)의 효제외(孝悌外)는 구함이 없으니, 신복(信睦)을 가르키는 당중(堂中)

엔 뜻이 관아(寬雅)하네.

앞드려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칠요(七耀)가 길조(吉兆)를 돕고 백령(百靈)이 상서(祥瑞)를 이르게 할 것이며, 종족(宗族)의 신복(信睦)이 더욱 돈독하여 조상이 자손을 한결같이 보는 도리를 잊지 말고 춘추(春秋)의 향사(享祀)에 게을리함이 없 이 자손이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을 더욱 독실이 할 것이며, 길의 효사(孝思)를 가져 쇠잠하지 말기를 바라네.

만가문집(晩岡文集)에서

【주(註)】

- ① 기근(饑饉) : 흉년(凶年)이나 곡물의 흉(凶)은 기(饑)요 소채(蔬菜)의 흉(凶)은 근(饉)이라 함.
 ② 뇌천(雷天) : 역(易)의 괘(卦)에 상진하건(上震下乾) 뇌천(雷天) 대장(大壯)이라 하였음.
 ③ 사간(斯干) :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니 주선왕(周宣王)이 집을 짓고 그 낙성(落城)을 읊은 것임. 질질사간(秩秩斯干)이라 하였는데 질질(秩秩)은 불절(不絶)이며 사간(斯干)은 간수(澗水)니 선왕(宣王)의 덕(德)이 간수(澗水)와 같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④ 옥우(玉宇) : 천상(天上)에 있는 옥황상제(玉皇上帝)의 관궐(官闕).

仁山堂記

琵琶山下洛東江上有窈然林泉一區卽仁山處士石公諱彦佑捷息之遺之址也公當壬辰漆齒之變伏羲赴亂亂定愛琵琶山之清邃取仁者樂山之義而自號仁山終老堪巖其子

松菴公諱雲祥早受舉業見光海昏朝時事日非退以親號築仁山堂於重崇峰下爲親居室甘旨孝養父子師友行義於斯今三百餘裡矣物換星移風鑽雨濺堂已墟而號惟存焉雖行路之人指點而咨嗟曰某水某邱是某公之風浴處也某山某林是某公之嘯咏處也遺風餘韻至今不絕於口碑可認而公之仁德也仗義赴亂樂山號仁仁翁之義與仁也知時急退甘旨奉親松公之勇與孝也仁義勇孝可謂父子兼之而靈芝醴泉無不根源故麟趾終羽齊誠並力達道山下重建是堂能承祖武其誠可謂根源於兩公也按其堂號仁山因舊正面揭之而以繼松地之志右曰松菴精舍寓募松祖之義也左曰育英軒寓教育英才義也堂既成囑余記之者仁山公十一代孫一均甫也顧此輕淺不敢當是而所恃者重故以一辭勉之今日之雲仍學昔日之祖後日之雲仍學今日之祖則石氏之門其將昌大矣乎以是望焉

檀紀四千二百八十五年壬辰秀要月下浣 達城 徐健洙 記

인산당기

비슬산하 낙동강 위에 일구 임천(林泉)은 곧 인산처사 석공(仁山處士石公) 휘언우(彦佑)의 서식(棲息)의 유지라 공이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의를 쫓아 난리에

나셨다. 나의 정함에 비슬산에 청수함을 사랑하고 인자요산(仁者樂山)의 의를 취하
 여 스스로 인산이라 호하고 암간에서 늙고 그 아들들을 송암동(송암)의 휘안산(惠安山)의 일찍가업을
 반았다가 광해(光海) 조정(朝廷)의 일일이 날로 그르침을 보고 물러와 친의호로서 인산당을
 증승봉 아래 지어 친의 거실로 하니 감지로 효양하여 부자간(父子間)에 사우행의
 함이 이제 삼삼(三)백여년이라 세월이 지나면서 풍찬(風餐)우천(雨天)하여 다행이 폐허되고 호만
 오직 있는지라 비록 행로인(行路人)이라도 지점(指點)하여 자차하여 가로되 모수 모
 수는 공의 풍류(風流)처요 모신 모림(模稜)공의 소영(所映)처라 유풍(遊風)여운(餘韻)이 지금껏 구비에 끝이지
 아니하니 가히 공의 인덕을 알리라 의를 좃자 나의 닳았고 산을 즐치 인이로 후를
 하니 인의 의와 다 맞지 않을 줄을 알고 감지로서 어버이를 받드니 송
 공의 용맹과 다만 호도라. 우가 정성을 다하고 함을 합하여 달도 산아래 이 땅을 죽
 거를 하여 능히 그 선조를 이으니 그 호도(孝道)와 그 정성이 가히 양공의 의 그 원의
 라고 이름이라 그 땅을 인산이라 하여 옛것을 인하여 정명이로 살니 이어서 송공
 의 뜻을 의의 으뜸조를 송암정사라 함이니 송조의 우모한의 노원(老元)은 가로되 유영(遊
 영)이라 하니 영채를 보유했다 의에 부침이라 땅의 이미 이름에 나에게 기문을 부락하
 는 자가 인산(仁山)십일(十日)대손(代孫)일(一)균(均)이라 돌아보건대 이 정천(正天)의 감히 의에 닮하
 리요 믿어하리 바가 중한지로 한 말로서 천민하니 오늘날 후손(後孫)들이 옛날 할 아
 버지를 배우고 뒷날의 자손들이 오늘날 할 아버지를 배우는 선씨의 문이 그 장차 창

대하리라 이로서 바람이니라。

서기一九五二年 임진오월 하완에 달성 서건수 기

仁山堂重建實記

南屹琵琶山北流洛東江中間峻秀者達道山也山下煥然明堂維我先祖仁山公舊號新揭所也公值穆陵龍蛇之變仗義赴亂自密陽至于琵琶山仁壽洞愛山水之深邃自號仁山子松菴公早修舉業出遊京洛見光海政非退隱行義陪親北下至奇世里南重崇峯下築仁山堂而侍居焉故兩代衣履之藏在前後山也世久年深雲仍離南居北舊堂頽廢新築育英齋雖爲肄業之所然後孫過遺墟則自發慨歎志在重建而事巨力綿舉議未遑者數十年之久矣壬辰暮春讚基從君自玄風來而舉論事易速成之策一門翕然詢謀僉同相址營構齊心協力晝宵勤勞不日成之室堂整肅牖戶通明庭除簾隅正直清潔庶可以對越神明之降格而積久肯構之誠於是乎遂矣堂旣成正揭仁山堂右曰松菴精舍寓慕松菴祖孝養親志之義也左曰育英軒繼述先世教育英材之義也門父老囑余記重建實事余雖庸愚感於吾族敦睦之誼遂爲一言而諗之曰詩云無忝爾祖聿修厥德惟我宗族

登斯堂而講祖宗孝友之遺謨致祖宗奠享之齊誠繩其武行其義而父以昭子子以詔孫則敦睦之行永世不匱門戶之昌由此而漸矣諸族同心勉勸哉

於晚岡文集

인산당 증건실기

남쪽에(琵琶山)이 솟아 있고 북쪽으로 낙동강(洛東江)이 흐르는 중간에 높이 빼어난 것이 달도산(達道山)이다 산 아래에 빛나는 명당(明堂)은 우리 선조(先祖) 인산공(仁山公)의 옛호(號)를 새로 붙인 곳이다. 선묘조(宣廟朝)에 공(公)이 임진의 변란을 만나 의병으로 일어나 난(亂)에 달려갔고 밀양(密陽)으로부터 비슬산(琵琶山) 인수동(仁壽洞)에 이르러 산수(山水)의 깊고 그윽함을 사랑하여 인산(仁山)이라 자호(自號)하였다. 아들 송암공(松菴公)이 일찍이 과거 공부를 익히느라 서울로 가서 공부하다가 광해군(光海君)의 그르스된 정치를 보고 물러나 숨어 절의를 행하여 어버이를 모시고 내려와 기세리(奇世里) 남쪽 중송봉(重崇峯) 아래에 이르러 인산당(仁山堂)을 짓고 살았다. 그러하니 까닭으로 양대(兩代)의 무덤이 앞뒤의 산에 있다. 세대가 오래고 햇수가 깊어짐에 자손들이 남북(南北)으로 떨어져 살아 옛집이 헐어 쓰러지니 새로 육영재(育英齋)를 지어 학업을 익히느니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후손이 유허(遺墟)를 지날 때마다 스스로 개탄(慨歎)을 하여 중건(重建)할 뜻이 있었으나 일일이 많고 힘입디 약하여 거론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 수십년이나 오래 되었다.

임진(壬辰) 모춘(暮春)에 찬기(讚基) 증군(從君)이 현풍(玄風)으로부터 와서 일이 쉽고 빨리 이를 수 있는 계책을 거론하니 일문(一門)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에 터를 살피 짓기를 시작하여 마음과 힘을 합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애써 여러 날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루게 되니 실당(室堂)이 정숙하고 유후(牖戶)가 통명(通明)하고 정제(庭除)와 염우(廉隅)가 바로고 깨끗하니 거의神明(神明)이 내려와 이르름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니 오래도록 조상을 위한 집들을 지으려는 정성을 쌓았던 것이 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집이 이미 완성됨에 정면에 인산당(仁山堂)이란 편액을 걸고 오른쪽에 송암정사(松菴精舍)라 하였으니 송암선조(松巖先祖)께서 효성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받들었던 것을 사모하는 뜻이고, 왼쪽에는 (育英軒)이라 하였으니 선대(先代)에 영재(英才)를 교육했던 것을 이은 뜻이다.

일문(一門)의 부모(父老)들이 나에게 중건(重建)의 사실을 기록하기를 부탁하니 내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으나 우리 종족의 돈복(敦睦)한 정(情)의 감격하여 드디어 일문(一言)을 지어 고한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네 선조(先祖)를 생각하지 아니하라?』

그 덕을 뒤를 지어다』

라 하였으니 오직 우리 종족이 이 당(堂)에 올라 조종(祖宗)이 끼친 효우(孝友)의 가르침을 감복하고 조종(祖宗)께 제사를 받드는 정성을 다하여 그 자취를 따르고 그 뜻을 행하여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가르친다면 돈목(敦睦)의 행실이 영세(永世)토록 다하지 아니하여 문호(門戶)의 창성(昌盛)함이 이로 말미암아 시 작될 것이니 여러 종족(宗族)은 한마음으로 힘쓸진저!

만가문집(晩岡文集)에서

石烈婦晉陽姜氏褒彰文(二十三世諱龜泓公妻)

本所編輯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淵源儒林錄次第發行各道郡單子陸續來到中據慶北達城郡納單則同郡玉浦面奇世洞故烈婦姜氏籍晉陽尚書諡殷烈諱民瞻后諱裕昆女士人石龜弘妻也性貞靜處閨範及笄月餘奄哭所天哀號喪葬躬自執行後囑諸媿叔曰哀此區區存命爲無人主喪今尤畢焉願身死埋於夫側以副幽冥之冤言訖說不叔不銘肅窆于異麓矣發靸後門楣物忽摧釜鼎便傷牛馬暴斃加之以花園八面連歲枯

早始知烈婦異窆之爲冤所致大小人員齋訴營邑自官牧下三石牟一石租一貼脯一雙燭四升棗栗二封香令該面移安于夫墓之側然後果甘雨沛下瑞氣連綿於其上卓乎貞烈猗歎奇蹟今古罕儔鄉邑莫不感歎遠近無不咨嗟但時與古違欠闡揚之舉章甫之齋恨去益愈新云故聞而感之付掃登梓壽芳名豎碑建閣彰其善鄉之意

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三年壬戌二月日

孔夫子聖蹟圖五倫行實重刊所

선열부유인 진양강씨 표창문

본소편집 공부자(孔夫子) 성적도(聖蹟圖)속수 으른 행실 연원 유림록 차제 발행함에 각도군단자가 연속(連續)하여 들어오름에 경상북도 달성군의 남단을 본즉 읍포면 기세동에 열부 강씨는 관진주(晉州)요 상서 은열공 미침의 후요 휘유근의 따님이며 사인 선우흥의 처라 성품이 정정하여 유법에 처하여 시집간지 달도되지 않아서 문득 소천의 상을 당함에 슬퍼하여 상장에 집행을 다한 후에 모든 시속에 부탁(附托)하여 가로되 이우우히 명을 이음인 사람이 주상함이 없음을 위함이라 이제 이마 쳤으니 원컨대 이 몸이 죽거든 가장 곁에 묻어서 유명의 원임함을 마치라 말을 마치고 곧 따라가니 수이 명념해 든지 아니하고 단 곳에 장사한이라 발인 뒤에 문미

가 문득 부러지고 가마솔이 문득 상하고 우마가 폭패하고 더 화원팔면이 여러 해
 가뭄이 심한지라 처음으로 열부의 이편이 원한이 된 소치라고 대소인원이 영읍에
 고하니 관으로부터 특별히 보리 식감과 벼 한섬과 포한숙과 축한쌍과 초을 넘되와
 향두봉 등을 마련하여 그 면으로 하여금 가장 묘절에 이장(移葬)을 한 연후에 과연
 단비가 내리고 서기(瑞氣)가 그 위에 펼쳐치니 참으로 탄복한 정열이요 참으로 기이
 (奇異)한 기적이 예나 지금이나 드문 일이라 향읍이 감탄(感歎)치 않을 수 없으며
 원군이 자차하지 않았음이 없으되 때가 옛과 달라서 천양할바 없으므로 장보의 재한
 이 갈수록 더욱 새롭다함으로 듣고 느끼어 부침 등재하여 그 이름을 오래가게 하고
 비를 세우고 각을 세워 그 선행(善行)의 뜻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공부자관강 이천사백철십삼년(一九二二) 임술 이월 일

공부자 승적도 우륵행실증간소

烈婦姜氏實記序

三從義重一死身輕人事盡處必有天心之感從夫豈非戚戚而起敬者哉烈婦姜氏晉州
 人也故殷烈公之后歸于士人忠州石龜泓之家壺有自婦道甚修居數朔夫龜泓嬰病夫

人盡誠調護晝宵憂勞至於末如何之地躬執斂衣盡其送終之具占地于達城郡奇世洞嘉乃庚坐原行克襄之禮朝夕之奠虞卒之祭無不親自檢視稱備後一日會媿族而告曰一縷薄命苟延今日者以其喪葬之無主今情事畢義當下從身死之日耐于亡夫之側俾無不瞑之願因閤口絕食飲經數日而殉舉家驚惶忘其遺託寔于他麓矣是夕門楣折釜鼎破牛馬暴斃自是而後獨花園八坊連歲旱甚坊人舉烈婦異寔之由訴于營府自官卽給牟租幾石脯果香燭以助祭需及役費令面丁移葬同兆是夕一抹雲氣自塚上起須臾雨下沛然人皆稱烈婦雨而至今有萬口播傳噫古人云倉卒判命易從容就死難姜氏之死非死於夫葬之日已決於夫死之日然忍而不死者竢其喪葬之盡誠盡禮從容而殉此豈非宜生而生宜死而死者乎死義旣難而從容之死爲難中之尤難死生間夫人之能事畢矣况夫人之烈人不敢料度而天乃降監者也違其志者人事之誤而警之以旱灾同其兆者夫人之志而恩之以雨澤則天視昭然若非感烈之的真則烏能致此非常之事乎余在年前編集邑誌見姜氏之烈未嘗不嘉尚而但九閭遠嘗未蒙旌褒之典天道無知其嗣孫散亡其時鄉道狀軸隨以失泯于今百有五十年沉潛幽寂尤爲譚者之慨惜者也其再從曾孫石君載俊與其族內諸人懼其愈久而愈堙其蹟抄聚邑誌及家乘所載文字且以續修五倫實行錄所著當時名碩唱和詩章裒成一冊子欲壽于世亦盛意也日使其胤

一均再從侄元均甫齋實記以來請余一言而弁之不佞以不文辭之而回念世值滄桑倫
綱斃傷而今此一冊雖甚疏略而係關扶植警勵風教者存焉故不敢終辭叙其事之萬一
而歸焉

歲壬戌五月下澣 仁川 蔡憲植 序

열부강씨 실기 서

부인이 부친, 남편, 아들 셋에게 따르는 것은 의리가 무겁고, 남편을 따라 한 번
죽는 것엔 일신을 가법다. 인사(人事)의 극진한 곳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하여 따
름이 있나니 어찌 슬프게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열부(烈婦) 강씨(姜氏)는 진주인(晉州人)이니 옛 은열공(殷列公)의 후예로서 사인
(士人) 충주(忠州) 석귀홍(石龜泓)의 집으로 출가하여 부인의 법도에 바탕이 있었어
부도가 매우 닳았다. 시집은 지 몇 달만에 남편 귀홍이 병에 걸렸는데, 부인이 극
진한 정성으로 간호하여 밤낮으로 근심하고 수고로이 하였으나 마침내 어쩔 수 없
는 지경에 이르렀다. 몸소 염의(斂衣)를 짓고 마지막 보내는 길에 쓰일 물건을 극
진히 갖추고 달성군(達城君) 기세동(奇世洞) 가내곡(嘉乃谷) 경좌(庚坐)의 언덕에 장
지를 정하여 능히 장례를 마쳤다. 조선으로 드리는 상식, 우제(虞祭)와 졸곡(卒哭)

의 제사에 친히 점검하여 맞게 갖추어졌는가 살피지 않았음이 없었다.

하루 뒤에는 시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기를 『한 올의 실날같이 반묘(반묘)이 구차하게 온들까지 끌어온 것은 상장(喪葬)을 주장할 이가 없기 때문이었으니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따라 죽은 것이 마땅한 의리입니다. 제가 죽거든 돌아 가신 남편 절에 부장하여 단을 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입을 닫고 신임을 전폐한 채 몇 일이 지나 죽었는데, 온 집이 놀라고 두려워 나머지 그 유언의 부탁을 잊고 다른 산에 장사를 지냈다. 이 날 밤에 문설주가 부러지고 솔이 깨어지며 소와 말이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후로 화원(花園) 팔방(八坊)에 해를 이어 가뭄이 심하니 지방 사람들이 열부를 다른 곳에 장사지낸 이유를 들어 감영에 하소연하자, 관청으로부터 모조(牟租) 몇 석, 포과(胞果), 향촉(香觸)을 지급하여 제수 및 이장의 비용을 보조하여 면의 장정들로 하여금 남편과 같이 무덤에 이장하게 하였다. 이 날 밤에 한 줄기의 소름이 이 무덤 위로 보터 일어나 잠서 동안 힘차게 비가 쏟아져 내리니 사람들이 모두 『열부비』라고 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온다.

아! 그리고 이 말을 『창졸간 목숨을 절단하기란 쉬우나 조영히 죽음이 나가기란 어렵다』고 하였다. 강씨의 죽음은 남편을 장사지낸 날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남편이 죽은 날에 절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참고서 죽지 않았던 것이 상장에 있

어서 정성을 다하고 예를 다한 뒤에 조용히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니, 이 어찌 마땅히 살 때에 살리고 마땅히 죽을 때에 죽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에 따라 죽는 것이 진실로 어려운데 조용히 죽는 것인가? 어려운 일 가운데 더욱 어려운 일이니, 죽고 사는 가운데 부인의 능사를 다했다고 하겠다. 하물며 부인의 열행(烈行)을 사람들이 감히 헤아리지 못하여 하늘이 곧 영계를 내렸으니, 그 뜻을 어긴 것은 사람의 잘못인데 가뭇의 재앙을 내렸고 그 무덤을 같이 하는 것은 부인의 뜻인데 단비의 은택을 내렸으니, 하늘이 살피는 것이 밝아 진실로 부인의 열행에 기분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러한 비상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내가 연전에 읍지(邑誌)를 편집하다가 강씨의 열행을 보고 가삼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나 다만 대궐이 깊고 멀어 일찍이 정려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 또 천도가 무지하여 그 사손(嗣孫)이 흠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당시 향도(鄉道)의 장축(長軸)이 따라서 없어지고 말아 지금 백오십년이 지나도록 열행이 어두운데 가렸으니 더욱 말할는 사람들이 개탄해 하는 바가 되었다.

그 재종 증손 석군(石君) 재준(載俊)이 족내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적인 시간인 오랄수록 더욱 사라질까 두려워하여 읍지(邑誌)와 가승(家乘)에 실린 글들을 초록하여 모으고 또 『속수오륜행실록(續修五倫行實錄)』에 실린 것과 당시 명현들의 찬화시(唱和詩)등이므로써 한 권의 책자를 만들어 세상에 전하고자 하니 또한 훌륭한

뜻이다.

하루는 그 아들 일균(一均)과 재종질 원균(元均)에게 실기를 보내서 나에게 일언(一言)을 청하여 서문으로 신고자 하였다. 나는 문장의 능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돌이켜 생각건대 세도가 어지러워 윤리가 무너졌으니 지금 이 한권의 책자가 비록 매우 소략하나 무너진 풍속과 교화를 일으키고 경계하는 것에 관계됨이 있었다. 그러므로 감히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그 사실의 만분의 일만을 서술하여 돌려보낸다.

임술(壬戌)·一九二二년 五월 하한에

인천(仁川) 채헌식(蔡憲植)은 서문은 짓다.

姜氏烈行記

孺人姜氏籍晉陽麗尚書諡殷烈公諱民瞻后諱裕昆女卽我再從曾祖父諱龜泓配也生于英廟戊寅九月十三日自髻鬢姿性端貞處閨有範年十九成婚數朔奄遭晝哭之痛哀哭有節殮襲之具手自製縫朝夕之奠躬必檢視及其既襄託諸媿叔曰區區薄命苟保今日者以無人主喪事矣今情事已畢義當下從願身死之日附窆于夫子之側以副幽冥之

冤言訖因絕飲殞命丙申十一月八日也舉家驚惶之餘不銘遺囑寔于異麓矣發柩之夕門楣摧折釜鼎破斫牛馬暴斃自是之後連歲枯旱而花坊一區尤甚皆云烈婦異寔之由於是大小人員齊訴營府營有三石牟題減府有一石租一貼脯四升棗栗一雙燭二封香助祭需令該面率丁移寔同兆在本郡奇世洞嘉乃谷庚坐原其夕有一綿瑞氣連綿於其上須臾澍雨大降人稱烈婦雨焉噫記曰先祖無美而稱之弟誣也有善而不知不明也知而不傳不仁也顧念夫人有感天之烈足以扶植綱常則爲后孫者稱而傳後固不可謂誣也而今百五十餘年堙沉無傳將何以免不明不仁之咎乎當時以姪轉漢入后奉祀焉粵在庚午洋騷之後祀孫某當時營府題音及鄉道狀軸并齋而移居于晋州至今邈然不知存沒無處考覽可不慨惜哉猶幸家譜所載及邑誌事蹟頗詳余雖傍裔懼夫愈久而愈泯謹據家譜邑誌及平日所聞乎家庭者記之如右云

於小溪文集

가씨열행기

유인(孺人)강씨(姜氏)는 관향(貫鄉)이 진양(晉陽)인데 고려(高麗)의 상서(尙書)로 시호(諡號)가 은열(殷烈)인 휘(諱) 민침(民瞻)의 후예(后裔)이고 휘(諱) 유곤(裕昆)의

따님이시니 곧 나의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인 휘(諱) 귀홍(龜泓)의 배위(配位)인데 영조(英祖) 무인(戊寅…一七五八年) 구월(九月) 십삼일(十三日)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성(姿性)이 단정(端貞)하여 규범(閨範)이 있었다. 십구세(十九世)에 성혼(成婚)한지 몇 달만에 뜻밖의 남편의 상고(喪故)를 당하였는데 「주곡(晝哭)①」애 곡(哀哭)에 절도가 있었고 엄습(殮襲)의 재료를 손수 지어서 만들고 조석(朝夕)의 치전(致奠)을 몸소 반드시 점검하고 보살폈더니 장례(葬禮)를 다 마치기에 이르러서 시숙(媿叔)에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구구(區區)한 박명(薄命)이 구차하게 오늘까지 살았던 것은 상사(喪事)에 상주(常主)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사(情事)를 다 마쳤으니 마땅히 뒤를 따르는 것이 의리(義理)입니다. 원컨대 제가 죽은 날에 남편의 절에 부핍(拊窆)하여 유명(幽冥)의 원정(冤情)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이 끝나자 곧 음식을 끊고 운명(殞命)하였으니 병신(丙申…一七七六年)十一月八日이었다. 은 집안의 놀란 나머지 유언(遺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산록(山麓)에 묻혔더니 발인(發靛)하던 날 저녁에 문미(門楣)가 부러지고 부정(釜鼎)이 깨어지고 우마(牛馬)가 갑자기 죽었다. 이 뒤로부터 해마다 가뭄이 들었는데 화방(花坊)의 일대(一帶)가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열부(烈婦)를 다른 곳에 묻었던 까닭이라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몇 차례나 부영(府營)에 정소(呈訴)하니 영(營)에서는 삼석(三石)의 모액(牟麥)을 덜어주게 하고 부(府)에서

는 일석(一石)의 조(租)와 일첩(一貼)의 포(脯)와 사승(四升)의 조율(棗栗)과 일쌍(一雙)의 촛(燭)과 이봉(二封)의 향(香)으로 제수(祭需)를 도와서 그 면(面)으로 하여금 장정(壯丁)들을 거느리고 동봉(同封)에 이طم(移宅)하게 하니 본군(本郡)의 기세동(奇世洞) 가내곡(嘉乃谷) 경좌원(庚坐原)이었다. 그 날 저녁에 한 즐기의 서기(瑞氣)가 그 위에 길게 이어졌다가 잠시후「수유(須臾)②」[단비가 크게 내리니 사람들은「열부우(烈婦雨)」라고 일컬었다.

아!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선조(先祖)에게 아름다움이 없는데 칭송(稱頌)하면 그릇되게 속이는 것이고 선(善)함이 있는데 알지 못하면 불명(不明)한 것이고 알면서 전하지 않으면 불인(不仁)이다.』라 하였다. 되돌아 생각해 보건대 부인(夫人)에게는 하늘을 감동시킨 열행(烈行)이 있어서 강상(綱常)을 부식(扶植)하기에 충분한 즉 후손(后孫)된 사람이 칭송하여 후일(後日)에 전하는 것은 진실로 그릇되게 속인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제 백오십여년(百五十餘年)이 지나 사적(事蹟)이 없어지게 되어 전함의 없게 되면 어떻게 불명(不明) 불인(不仁)의 허물을 면할 수 있겠는가? 당시(當時)에 조카가 전한(轉漢)으로 입후(入后)하게 하여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였는데 지난 경오양(庚午洋)·一八七〇年의 뒤에 사손(祀孫) 아무개가 당시에 영부(營府)의 제음(題音)과 향도(鄉道)의 장축(狀軸)을 아울러 가지고 진주(晋州)로 이거(移居)하여 이제까지 소식이 막연하니 존몰(存沒)을 알지 못하여 살펴 볼 곳이 없으

니 개석(概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다행히 가보(家寶)에 실린 바와 읍지(邑誌)의 사적(事蹟)이 자못 상세하다. 내가 비록 방예(傍裔)이지만 더욱 오랄수록 더욱 민몰(泯沒)할까 두려워서 삼가 가보(家寶)와 읍지(邑誌) 및 평일에 가정(家庭)에서 들은 바에 의거(依據)하여 이상과 같이 기록(記錄)한다.

소계문집(小溪文集)에서

【주(註)】

- ① 주곡(晝哭) .. 붕성지통(崩城之痛)과 같은 말이나 남편(男便)의 죽음을 이름.
 ② 수유(須臾) .. 잠시라는 뜻 불서(佛書)에 일일일야(一日一夜)는 삼십수유(三十須臾)라 하였다.

慕烈閣上樑文

樹百世之倫常恒切瞻慕之思協一方之公議肇舉褒揚之儀載拓佳基爰構新棟伏惟石孺人晉陽姜氏赫赫世家之閨範溫溫君子之淑媛修行幾二十年尚慕孟光之舉案結緣纔數朔未遂少君之挽車詎認天翁之無知奄遭夫子之永訣口飲屍汁從殉之心不渝手製殮衣送終之禮無憾淚泣有節殆同魯敬之下帷髦儀靡他自矢衛共之汎栢已及克襄之禮申託同兆之願一齊之義攸重縱莫攀於素車三從之道未終庶相覲於冥府門摧鼎

破之變蓋緣人事之偶違日杲歲饑之灾始知天戒之昭示鄉道帖聯狀軸可觀感激之同彝營府題減牟租特蒙勸獎之優渥肆當緬日而同殉乃與澍雨而均霑猗歟精靈亘天地而不昧卓乎烈氣與日月而爭光何天陞之遠深久曠崇褒之典且世道之變遷孰無齎恨之心屢世因循何但財力之不逮一楮表揭乃是法制之有拘幸五倫重刊所褒狀之來矧四方僉尊員義捐之施故合舉族而謀議雖值年歲之荐饑咸懼先美之堙沒寧失時月之稽緩問堪輿而卜宅山水拱抱文明立圭臬而定基陰陽背向方正龜頭螭趺載磨載琢金書玉字方刻深栢板松楹是尺是尋風斤月斧競巧效上棟下宇縱乏大壯之盛規苞竹茂松俾侔斯干之善禱百五十年有志之事待今日而始成數千萬世無窮之名瞻斯宇而永慕惟人心之同歡庶神理之無斃恭陳短引助舉脩樑頌曰拋樑東鎮後羣山淑氣葱從一丹心猶有覲朝朝暎日向天中拋樑南毘山聳翠與天叅祥雲玄霧濛濛處想像曾年送雨甘拋樑西下嘉乃谷上乾齊幽深隧道杉松鬱陟降英靈也不迷拋樑北洛水澄清天一色瞻彼古今逝如斯流芳百世終無極拋樑上掃却妖氛天宇朗烈烈貞魂如彼臨令人敬起共遐想拋樑下數尺琬琰善頌寫扶植倫綱觀於斯秉彝誰不興起者伏願上樑之後百靈保佑三光照臨傳芳躅於無疆有待列女史之編載助風教於罔墜興感多士頌之揄揚族姓協心俾來後而守護神明默佑如在上而監臨非觀美而爰謀仰伸鬱而罔恫

고을각 상량문

於小溪文集

백세(百世)의 윤상(倫常)을 세우니 항상 우러러 사모하는 생각이 간절하고, 일방(一方)의 공의(公議)에 따라서 포상하여 드러내는 의식을 거행했네. 이에 아름다운 터를 열어서 새로운 집을 이루네.

앞드려 생각하니 석유인(石孺人) 진양강씨(晉陽姜氏)는赫赫(赫赫)한 세가(世家)의 구분(閨門)의 법도가 있었고, 온온(溫溫)한 군자(君子)의 훌륭한 배필이었네. 부행(婦行)을 닦기 거의 이십년에 오히려 맹광(孟光)이 밥상을 눈썹에 가지런히 들었음을 사모했고, 인연을 맺은 지 몇 달만에 소군(小君)①이 작은 수레를 끌었던 것을 이루지 못하였네. 어찌 하늘의 무지(無知)함을 알았으랴? 문득 지아비의 영결(永訣)을 만났네. 입으로 시즙(屍汁)을 마심에 지아비 따라 죽으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손으로 엄의(殮衣)를 지음에 지아비의 죽음을 보내는 예법에 부족함이 없었네. 근말(髣髴)을 띠며 울음에 절도가 있었으니 거의 노경(魯敬)②이 드린단 휘장과 같았고, 모의(髦儀)③를 잇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았음은 스스로 ④ 위공(衛共)의 백주(柏舟)를 다짐했네. 이미 장례를 치르는 날에 이르러 거듭 한 곳에 묻어 달라는 소원을 부탁하였네. 일제(一齊)의 의가 중한 바에 가령 상여를 붙잡지는 못하

였으나 삼삼종(三從)⑤의 도(道)가 다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날이 가물고 기운이 든 재앙에서 비로소 하늘의 경계가 밝음을 알겠네. 향도(鄉道)에서 시첩(詩帖)을 이어 장축(狀軸)을 이루었으니 감적함이 한가지의 천성(天性)임을 볼 수 있었고, 영부(營府)에서 공문(公文)을 전하여 모조(牟租)를 덜어주니 특별히 권장함이 넉넉함을 누렸네. 이에 면례(緬禮)하는 날을 당하여 한 무덤에 드니 곧 단비를 내려 그루 째졌네. 아! 정령(精靈)이여, 천지(天地)의 사이에 어답지 않네. 우뚝하도다! 열기(烈氣)여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투네. 어찌 천폐(天陞)가 멀고도 깊어 오래도록 높이 포상하는 은전(恩典)이 없었던가? 또한 세도(世道)가 변하여 바깥의 누구인들 한스러운 마음이 없었으랴?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그저 흘러왔던 까닭은 어찌 다만 재력(財力)이 미치지 못해서일 뿐이었으랴? 한 채의 집을 이루어 드러내 밝히기엔 법제(法制)에 구애됨이 있었네. 다행이 우륵(五倫) 중간소(重刊所)의 포장(褒狀)이 이르렀고, 하물며 사방(四方) 침존원(僉尊員)이 성금(誠金)을 배플에 라? 이에 은 종축(宗軸)을 모아 도모하고 의논하니 비록 시절을 만남의 거듭 향년(香年)이지 만, 모두들 先代의 아름다움이 인물(湮沒)되어 흠어질까 두려우니 어찌 이일에 시월(時月)을 늦추어 잃겠는가?

⑥ 감역(堪輿)⑥께 물어 집터를 살피니 산수(山水)가 감싸 안아서 빛나고, 유일(圭臬)을 세워 터전을 정하니, 음양(陰陽)의 방위가 반듯하네. 귀두리부(龜頭螭蚌)의

비석을 갈고 쪼음에 금옥(金玉)같은 자주(字晝)이 바야흐로 깊이 새겨지고, 잣나무 관자와 소나무 기둥은 자로 재어서 풍월(風月)의 부근(斧斤)이 다투어 공교한 기량을 다하네. 위아래의 동우(棟宇)엔 비록 대장(大壯)의 성대한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무성히 어울린 송죽(松竹)은 곧 사간(斯干)⑧의 훌륭한 기림과 짝하겠네. 백오십년(百五十年)에 뜻을 두었던 일이 오늘날 기다려 비로소 이루어지니 수천만 세(數千萬世)에 무궁(無窮)한 이름은 이 정우(旌宇)를 바라보고 길이 사모하네. 오직 인심(人心)에 즐거움이 한가지니 거의 신리(神理)에 어긋남이 없겠네. 공손히 보잘 것 없는 노래로 지나간 들보틀 들기를 돕노라.

들보틀 동쪽으로 하니, 진후(鎭後)의 못산에 맑은 기운이 푸르네.

지아비를 따르는 단심(丹心) 아직도 보겠으니, 아침마다 맑은 해 중천(中天)을 향하네.

들보틀 남쪽으로 하니, 비슬산(琵琶山) 푸르게 솟아 하늘과 같으네.

상운현무(祥雲玄霧)가 자욱한 곳에 단비를 보내던 당년을 상상하네.

들보틀 서쪽으로 하니, 아래로 가내곡(嘉乃谷)이 상천(上天)과 가지런하네.

그윽이 깊은 묘도(墓道)엔 송삼(松杉)이 울창하니, 오르 내리시는 영령(英靈)이 또한 어둡지 않네.

들보틀 북쪽으로 하니, 맑은 낙수(洛水) 하늘과 한 빛일세.

고금(古今)에 흘러감이 이처럼 심이 없으니, 백세(百世)에 향기가 흘러 다함이 없
이라!

들보들을 위로 하니, 요사(妖邪)한 기운에 사라진 하늘이 빛나네。

열렬(烈烈)한 정혼(貞魂)이 저갈이 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公敬)을 일으켜 상상
케 하네。

들보를 아래로 하니, 몇 자의 정민(貞珉)에 선송(善頌)이 새겨졌네。

윤강(倫綱)을 일으킴이 에서 보면, 누수인들 떳떳한 본성이 흥기치 않이라?

앞드려 바라건대 들보를 올린 뒤에 백령(百靈)이 보살피 도우시고 삼광(三光)이
밝게 임하소서。 끝없이 아름다운 자취를 전하여 여러 여사(女史)의 기록에 들기를
기다림이 있고, 한없이 풍속의 교화를 도와 많은 선비의 노래에 드러나 감응(感應)시키
소서。 족성(族姓)은 한마음으로 후손들로 하여금 지켜서 보호하게 하고, 신명(神明)
은 말없이 도와 위에 계시며 살피 이르듯이 하소서。 아름답게 보이려 이에 도모함
이 아니었으니 맺힌 마음을 풀어 상심하지 마소서!

소계문집(小溪文集)에서

【주(註)】

- ① 소군(小君) : 한(漢)나라 포선(鮑宣)의 아내이다。 소군(小君)은 포선(鮑宣)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시택(市宅)으로 가서 부도(婦道)를 다했음。

② 노경(魯敬) .. 미상(未詳)

③ 모의(髦儀) .. 춘하시대(春秋時代) 위(衛)나라 세자(世子)。 공백(共伯)을 지칭(指稱)함임。

④ 휘공(衛共) .. 위나라 세자(世子)。 공백(共伯)의 아내。 시경(詩經) 관풍백주편(郭風柏舟篇)。

⑤ 삼종(三從) .. 여자(女子)가 유아종부(幼而從父)、부사종자(夫死從子)를 이룸。

⑥ 감여(堪輿) .. 지리(地理)를 살피는 풍수(風水)를 이룸。

⑦ 규얼(圭臬) .. 규(圭)는 해의 그림자를 재는 자이고, 얼(臬)은 화살을 쏘는 표적(表的)임으로 사물을 재는 표준을 이룸。

⑧ 사간(斯干) ..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니 짐을 짓고 자치를 베풀 때 집의 견고(堅固)한 모습을 노래한 것임。

慕烈碑閣記

達治西四十里奇世洞之間有巋然而峙使行路必式焉者卽故烈婦晉陽姜氏之遺蹟碑閣也姜氏故尚書殷烈公諱民瞻后考諱裕昆以英宗戊寅九月十五日生性姿貞淑婦德兼備十九適于集賢殿提學諱汝明十五世孫忠州石公龜泓禮事不三朔奄遭崩城之痛歛襲諸具躬自製縫而檢察尸汴有泄往往掬飲及其襄畢託家人曰哀此薄命不死尚存者以夫喪之無主管矣今己入地則義當下從願耐窆于公墓側因絕食自隕卽丙申至月八日也舉家驚惶之際忘其遺囑營窆于他麓矣發靱之日門楣折而釜鼎破牛馬斃人皆

驚恠而莫鼻所由自是以後花縣一坊旱灾亦連歲民多失農於是始覺烈婦各寔之冤結如漢孝婦之三年不雨大小人員齊訴于營府自官嘉尚其烈行特封脯果香燭助祭且給牟租四石令該面移寔同兆卽奇世洞嘉乃谷負庚之原也是日有一端瑞氣亘于墓上須臾甘雨洽注慰滿三農人皆稱烈婦雨此果非烈氣之能感天而然歟但當時之儒林道府褒揚文蹟盡失於其嗣孫流離之際且世遠褒典無路蒙旅楔其再從曾孫載俊好學飭行之士也懼先世有美而不傳不仁乃捃撫家乘邑誌及諸家之傳說編成行錄囑李是菴直鉉記其實因遠近士林之公議立石而鐫焉又建閣而扁之要余撰閣記彝好攸同而焉敢辭嗚呼純坤此世倫綱雖類夫人之貞烈卓行不類夷來世之人聞其風則必有興感激厲矣亦豈非有補於風化之萬一哉瞻彼嘉谷山益高水益清惟茲一片石堪可語也夫

重光協洽大呂之月上浣

進士邵城 李柄運 謹撰

열부 강씨 비각 기

달성의 서쪽에 사십 리 기세동(奇世洞)의 마을 어귀에 높직한 비각 하나가 있어 길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 곧 고(故) 열부(烈婦) 진양강씨(晋陽姜氏)의 유적비(遺蹟碑)이다.

강씨는 고(故) 상서(尙書) 은열공(殷列公) 휘 민瞻(民瞻)의 후손이고 유곤(裕昆)의 따남이니, 영조(英祖) 무인(戊寅)·一七五八(年) 九월 十五일에 태어났다. 강씨는 작품이 정숙하고 부덕이 겸비하여, 열 아홉 살에 충주(忠州) 석공(石公) 귀홍(龜泓)에게 출가하여, 시집은 지저우세달 만에 남편을 잃고, 염습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몸소 재봉하고, 장사를 지내는 날에 이르러 집안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슬픈 이 박명(薄命)의 사람이 아직까지 산 것은 남편의 장례에 주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니, 이제 마땅히 따라 죽을 것이니 남편의 묘소 곁에 묻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음식을 끊고 스스로 목숨을 마치니, 곧 병신(丙申)·一七七六(年) 十一月 八일이었다.

은 집안이 놀라고 저를이 없어 그 유언의 부탁을 잊고 곧 다른 산릉에 묻으니 발인하는 날 문미가 부러지고 가마솔이 깨지고 소와 말이 죽었으며, 화원(花園) 고을 일대에 가뭄이 또한 삼년 동안 있었으니, 한(漢)나라 효부(孝婦)의 고사와 다름이 없었다. 관청에서 그 사실을 살펴서 듣고 그 원한이 맺힌 것이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하였음을 알고는, 곧 그 열행(烈行)을 가상이 여겨 특별히 포과(胞果)와 향족(香觸)을 봉하여 제사에 돕게 하고 또 모조(牟租) 네 섬을 지급하여, 그 면(面)에 명령을 내려 장정을 뽑아서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이장하게 하니, 곧 기세동가내곡(嘉乃谷) 경좌(庚坐) 언덕이었다.

이 날 이상한 기운이 무덤에 뻗었다가 잠깐 사이에 단비가 흠뻑히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모두 열부의 비「烈婦雨」라고 하였으니, 그 열기(烈氣)가 능히 하늘을 감동시킴이 과연 이와 같은가? 다만 당시에 정려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고, 다만 유림(儒林)과 주부(州府)에서 포상하고 찬양한 문적(文蹟)만 있었을 뿐이었는데, 또한 그 자손이 흠어져 떠도는 동안에 자취를 잃은 것이 태반이었다.

지금 그 재종증손 재준(載俊)이 선대의 자취가 민몰(泯沒)하여 전함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널리 가승(家乘)·읍지(邑誌) 및 여러 집에 전하는 문자를 모아서, 이시암(李是菴) 직현(直鉉)에게 부탁하여 실록(實錄)을 짓게 하였다. 또 사림(士林)의 공의(公議)로 인하여 비석과 비각을 건립하고, 나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사람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는 천성은 누구나 한가지이기에,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아! 지금 예의가 땅에 떨어지고 엄치가 상설되어 사람이 고서 금수나 다름이 없는 자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을지 부인할지 열덕(烈德)과 아름다운 자취가 다 행히 오늘날에 다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의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인가? 지금 그 풍성(風聲)을 들지 않는 사람이 과연 흥기하고 감발하여 여기의 천령함이 있다면, 그것이 풍속의 교화에 보탬이 있는 것이 또한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신미(辛未…一九三二) 대여지월(大呂之月)

진사(進士) 소성(邵城) 이병운 씀

烈婦晉陽姜氏碑銘 并序

漢代孝婦致旱三年而能使于公痛哭余於烈婦姜氏先旱後雨之蹟不知幾歎息幾痛哭也姜氏籍晉陽麗尚書諡殷烈諱民瞻后諱裕昆女而故集賢殿提學忠州石公諱汝明十五世孫諱龜泓妻也以英宗戊寅九月十三日生姿性貞淑綽有閨範年十九笄不幸數朔奄遭晝哭之痛哀哭有節殮襲之具手自製縫朝夕之奠躬必檢看及其既襄託諸媵族曰區區薄命苟保今日者以無人主喪事矣今情事畢義當下從願身死之日耐窆于夫子側以副幽明之冤言訖因絕食飲從是命殉丙申十一月八日也舉家驚惶之餘不省遺囑之丁寧窆于異麓矣發鞠之夕門楣摧折釜鼎破碎牛馬暴斃人皆驚恠而不知恠之所由付之尋常矣自是之後連歲枯旱而花坊一區尤甚皆云烈婦各窆之由於是大小人員齊訴于營府營有三石牟題減府有一石租一貼脯四升棗栗一雙燭二封香助祭需令該面率丁移窆同兆在本郡奇世洞嘉乃谷庚坐原其夕有一綿瑞氣連綿於其上須叟澍雨大降

人皆稱烈婦雨焉而知天降之烈矣當時以侄子轉漢立后奉祀焉粵在庚午洋騷之後祀孫某移居于晋州而併齋當時營府題音及鄉道士林狀軸邈然不知存沒考覽無階可不慨惜哉猶幸譜牒及邑誌所載事蹟頗詳其再從曾孫載俊懼夫愈久而愈泯無傳并錄實記如此讀之不啻使人流涕歸刻于琬琰俾行路熙穰知所敬畏也銘曰
赫赫姜媛殷烈之裔石遠望夫矢死同竈能早能雨誠格上帝馨香明燭營府助祭堪語一片流芳百世

上章大淵獻蕤賓上澣 江陽 李直鉉 謹撰

열부진양강씨 실행비문 국역

한대(漢代)의 효부(孝婦)가 삼년(三年)의 한말에 이르러 능히 우공(于公)으로 하여금 통곡(痛哭) 하였더니 나도 열부강씨(烈婦姜氏)의 사적에 몇 번 탄식하고 통곡했는지 알지 못한다.

강씨(姜氏)의 본관은 진양(晉陽)이니 고려 상서(尙書) 시호(是) 열공(殷列公) 휘(諱) 민침(民瞻)의 후손 유곤(裕昆)의 따님으로 옛적의 집현전(集賢殿) 제학(集賢殿) 주석공(主石公) 영조(英祖)의 아내이다.

영조 무인(戊寅) 一七五八年) 구월(九月) 십삼일(十三日)에 태어났는데 성품이 정숙

(貞淑)하고 유문의 범도가 있었다. 일구세(十九歲)에 시집와서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喪)을 당하여 몹시 애통하면서도 범도(範圍)가 있었다. 염구를 손수 만들고 조석(朝夕)으로 올리는 제물을 친히 살피셨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시댁(媳宅)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구구한 박명(薄命)을 구차히 보존했던 것은 주상이 없던 상사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의리(義理)로서 마땅히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이니 죽은 뒤에 남편의 곁에 시체를 묻어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고는 음식(飮食)을 끊고 음명하니 영조(丙寅: 一七七六年)十一月八일이었다. 온 집안이 놀라고 황급하여 유언을 따르지 못하고 다른 산기슭에다 무덤을 정하였다. 발인 날 저녁에 문楣(門楣)가 부러지고 솔이 갈라지고 소와 말이 갑자기 죽었다. 그 후로 해마다 가뭄이 들었는데 화원(花園) 일대가 더욱 심하고 주위 사람들은 열부(烈婦)의 유언을 어긴 탓이라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감영(監營)에 아뢰니 감영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벼와 보리 몇 섬씩과 포과의 향초 등의 재물을 지급하면서 그의 묘소에 제사를 드리고 남편 무덤에 합장을 하게 하니 곧 묘소는 본군(本郡) 기세동(奇世洞) 가내곡(嘉乃谷)의 경좌원(庚坐原)이다. 합장한 날 한줄기 서기(瑞氣)가 그 위로 이어지더니 이윽고 단비가 크게 내리니 사람들이 『열부우(烈婦雨)』라 칭하였으며 이는 하늘이 알아주는 열부(烈婦)라고 하였다. 당시에 조카 전한(轉漢)을 입후(立后)하고 봉사(奉祀)케 하였다. 一八七〇年 정오양소후(庚午洋騷後) 사손

(祀孫)、모(某)、는 진주(晋州)로 이사하여 존몰(存沒)을 알 수 없으며 부영(府營)에 서 내린 열부장(烈婦狀)과 향토 사림(士林)의 추장 등을 갖고 가서 고람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며 다행히 보첩과 읍지에 그 사적이 파상히 실려 있어 그 재종증손(再從曾孫) 재준(載俊)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인멸해서 전(傳)하지 못할까 두려워 해서 이와 같이 실기(實記)를 기록(記錄)하여 왔으니 읽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음을 뿐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장래에 도움이 되게 길가는 사람으로 공경(恭敬)할 바를 알게 하노라 명월(銘曰)

빛나고 빛나는 강부인(姜夫人)은 은열공(殷烈公)의 후예이다。 멀리 망부석(望夫石)을 바라보며 죽어서 한 무덤에 들기를 맹세했다。 향족과 제수품은 영부에서도 왔으며 비석의 한 조각 말이 백세에 남으리라!

단기四二六五년(서기一九三二년) 임인(壬寅)二月 日

강양(江陽) 이직현(李直鉉) 글 지음

姜氏烈行實紀後叙庚寅

此書迺我先人小溪公嘗以傍先孺人晉陽姜氏有卓越之烈而已經百五十餘年之久矣

當時鄉道士林狀軸及營府題音祀孫某并齋南走終無文帖之考證故未達天陛不得蒙旌閭之典深爲慨歎矣去庚戌屋社之變以來與諸族詢謀採撫家譜及邑誌所載遺蹟遂爲實證之資而先奉五倫行實重刊所褒狀之文且多得鄉道諸賢贊揚之什或納單丁各誌錄所而刊行幸因遠近儒林之贊助豎碑建閣而奉揭碩德之碑銘閣記乃告功成卽壬申端午日也於是收拾諸文字裒成一弓題曰烈行實紀蓋孺人之烈行於斯盡美矣歲庚寅春余以薪憂抱冊入寺飲藥之暇盥手跪讀則編輯之次間有先後之差錯故不顧僭罪敢較更書保藏于慕烈閣後之人或可披覽則庶幾知至行之烈矣修筆日罔極先人爲先之誠力事爲穎末遂叙卷尾云爾

於晚岡文集

석유인 강씨 열행실기 후서 갑인(一九五〇)

이 글은 곧 나의 선인(先人) 소계공(小溪公)께서 일찍이 방선유인(傍先孺人) 진양강씨(晉陽姜氏)가 탁월한 열행(烈行)이 있었으나 이미 백 오십 여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당시 향도(鄉道)의 사림(士林)의 장축(狀軸)과 영부제음(營府題音)①을 사손(祀孫) 모(某)가 모두 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끝내 고증(考證)할 문첩(文帖)이 없었던 까닭으로 나라에 아뢰지 못하여 정려(旌閭)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했던 것을 깊이 개탄스러워 했다. 지난 경술(庚戌)·一九一〇에 한일합방(韓日合邦)의 변고 이래

로 여러 종족들과 도모하여 가보(家寶)와 읍지(邑誌)에 실린 유적(遺蹟)을 모아 드디어 실증할 자료를 만들어 먼저 오륜행실(五倫行實) 증간소(重刊所)의 포장문(褒狀文)을 만들고, 또 향도(鄉道) 제현(諸賢)들이 찬양한 시(詩)와 각 문현의 기록을 많이 모아서 간행했다. 다행히 원근(遠近) 유림(儒林)의 찬조(贊助)를 얻어 비(碑)를 세우고 비각을 지어 석덕(碩德)의 비명(碑銘)과 비각의 기문(記文)을 게시하니 일이 완성된 날은 즉 임신(壬申)·一九三二 단오일(端午日)이었다. 이에 여러 문자(文字)를 수집하여 한 책을 이루고 『열행실기(烈行實紀)』라 제목했으니 대개 유인(孺人)의 열행(烈行)이 이에서 아름다움을 다하게 되었다. 경인(庚寅)·一九一〇 봄에 내가 병으로서 책을 안고 절에 들어가 약을 먹는 여가에 손을 씻고 꽃어 얹어 책을 읽음에 편잡한 차례에 간혹(間或) 선후(先後)의 어긋남이 있는 까닭으로 참람된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히 고쳐 써서 모열각(慕烈閣)에 간직하니 뒷날의 사람에게 후 퍼서 보면 거의 지극한 열행(烈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정하여 적는 날에 선인(先人)의 위선(爲先)하는 성력(誠力)이 망극하게 생각되어 일의 전말로써 드디어 책의 끝 부분에 서술한다.

만강문집보(晩岡文集)에서

【주(註)】

- ① 영부제음(營府題音) : 영부(營府)는 감영(監營)이니 감사(監司)를 이르고 그 계장(啟狀)에 답(答)한 글.

小溪處士諱載俊行狀

公諱載俊字慶秀姓石氏小溪其號也鼻祖諱鄰宋紹興間寓高麗討趙位寵有功封藥城君藥城卽忠州舊號子孫仍貫焉五傳諱良善配永興崔氏永興伯靖李公閑奇女太祖大王姨母也太祖誕甫五朔懿惠王后昇遐崔氏乳養焉太祖御極以鞠養之恩封崔氏慶昌翁主追封公洪陽府院君生諱天乙官中郎將外祖靖孝公無嗣太祖命公奉祀御書下賜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生諱汝明號花園高麗恭愍王甲寅乙科生員官注書太宗丙申以特旨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公以罔僕之義不就乃安置于忠州車依山回文洞以終褒其忠贈崇祿大夫左贊成三傳諱成玉官吏曹叅議當燕山昏朝棄官南下隱于密陽清州洞五傳諱彥佑有文行宣廟壬辰倡義密陽亂靖后移毘山仁壽洞自號仁山子孫因居其下奇世焉生諱雲祥號松菴贈資憲大夫嘗遊京洛見光海政亂隱居行義四傳諱最重號敬齋壽資通政大夫於公五世祖也諱天祚號靜軒諱龜潭號友于堂諱轍漢號清溪高曾祖俱以文學稱焉考諱致奎號知止堂孝友家庭早棄舉業教導後進鄉黨推重妣坡平尹氏斗燦女婦德咸備高宗丙寅八月二十三日舉公于奇世里第生而姿稟聰慧儀表端正自幼不戲謔七歲受學于知止公字音分明意會周詳知止公愛而慮弱

未嘗督勵十一始讀小學早達文理深解義趣至冬溫夏清昏定晨省停讀久思而曰爲人子者固當如是也成童就晚菟窩尹公泰老受功令學竟失志場屋而改悟曰此非爲己之學不如正心修己以正門路乃讀七書微辭粵旨深究自得辛卯嶺伯東蓮李公櫨永與地主敬堂李公憲翼設講于官學院時吾先子臨齋先生爲講長公以書經應講先生以經學之士許之於是有求道之志齋贄于吾先子之門先生以經禮之說性理之學諄諄教諭公拳拳服膺潛心玩究壬辰丁外艱戚易之節一遵家禮戊戌晚菟窩訃至操文祭奠與伯兄南溪公聯床講學友恭湛樂癸卯宋文忠公秉璿至洛東精舍設講公以大學應講是年夏東蓮李伯再莅嶺表與地主金榮浩設講于官學院公率諸生赴講乙巳先生易簣奔哭加麻戊申前承旨金炳洙以太祖大王影幀移奉事屢過造廬見公文學德行而薦焉除章陵叅奉不就庚戌社屋北向痛哭因吟龔勝絕食非徒死陶令歸田豈苟生一死一生惟義在千秋評論敢誰輕遂入山杜門終身自靖爲誓是以遠近多士請學者衆焉嘗以警學說示門生曰孔子聖人嘗云學不厭況以下愚之資或作或掇口能言而心外役則爲學必無成矣又以勤學說戒門子姪曰若怠惰放逸自暴自棄道義餒於中威儀喪於外懵經不恥論世解頤虛度一生則將爲天地間棄物可不愧哉人或問理氣心性之說則乃曰此先儒各因其知辯論或異以余蔑學何敢贅說只以參考衆說則義在其中矣丙辰丁內艱儀禮諸

節一如前喪辛酉門人修稷築小溪亭于達道山下每年會講嘗欲褒再從曾祖母姜氏之烈行哀輯彰善文碑銘碑閣記實紀序文邑誌抄諸賢贊揚之什名之以烈行實記以圖判行乙酉七月十日考終于小溪亭享年八十是年十月二十日士林會葬于奇世里蒼溪谷大登山負丑之原改其旌曰小溪處士忠州石公之樞配清道金氏陽坤女貞淑兼備多有內助先公二十三年卒葬于公墓上艮坐原生四男二女長一均次萬均世均銘均女適驪興閔泳和星州李鍾八長房孫男鎬瓘鎬瑗出系鎬璵鎬琮鎬瑾鎬璵次房孫男鎬象鎬麟鎬驥鎬熊三房孫男鎬晟鎬昇鎬旻四房嗣孫男鎬瑗餘不盡錄公性度淳正清儉自守不求不銜內以愛親敬兄外以隆師親友各盡其道於及門諸生格致治平之條及窮理盡性之說循誘有序夙夜不怠嘗答友人書曰君子學明德成遇時行道則與天下兼善若不遇時則晦跡山林教授後生使斯道不墜此吾儒出處之大義也與人講論虛心善受見善稱而獎之見惡喻而改之人服其量噫以公之才器德行博學清操終窮餓堪巖豈不惜哉健洙與公結交於立雪過庭之際逢則紙窓燈談笑淋漓別則江浦雲樹犀鑑明照轉眄之頃形影相隔墓草三宿益不禁樑月之感日公之長子一均抱其遺集責余以掃塵之役又謁狀德之文顧余人輕學淺不敢當是任然而敬公莫如我知我莫如公故不敢終辭謹按家狀而撰此如右用備後世立言君子採擇之資焉

檀紀四二八一年戊子三月上澣達城徐健洙撰

행장(行狀)

공(公)의 휘(諱)는 재준(載俊)、자(字)는 경수(慶秀)、성(姓)은 석씨(石氏)이고 소계(小溪)는 그의 호(號)이다. 시조(始祖)의 휘(諱)는 린(鄰)인데 송(宋) 소흥(紹興) 연간(年間)「一一三一」一「一一六二」에 고려(高麗)에 우거(寓居)하여 조위총(趙位寵)을 토벌(討伐)한 일에 공훈(功勳)이 있어 예성군(藥城君)에 봉(封)하여졌으니 예성(藥城)은 곧 충주(忠州)의 옛 이름이었는데 자손(子孫)들이 이곳을 관향(貫鄉)으로 삼게 되었다. 오대(五代)를 지나 휘(諱) 양선(良善)이 있으니 부인(夫人)은 영흥최씨(永興崔氏)인데 영흥백(永興伯) 정효공(靖孝公) 한기(閑奇)의 따님이고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이모이다. 태조(太祖)가 태어난지 겨우 다섯달만에 의혜왕후(懿惠王后)가 승하(昇遐)①하여 최씨(崔氏)가 젖을 먹여 길렀는데 태조(太祖)는 보위(寶位)에 오르자 어려서 길러준 은공(恩功)으로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에 봉(封)하고 부군(夫君)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追封)하였다. 이가 휘(諱) 천을(天乙)을 낳으니 관직(官職)이 중랑장(中郎將)이었는데 외조(外祖)인 정효공(靖孝公)이 아들이 없어서 태조(太祖)가 이에게 제사(祭祀)를 받들도록 분부하면서 손수 글을 써서

내려주시를 『갈은』 짓을 먹고 자랐으니 형제(兄弟)갈은 정의(情誼)이고, 산해(山海)갈은 은혜(恩惠)로다』라고 하였다. 이가 휘(諱)여명(汝明)을 낳으니 호(號)는 화원(花園)이니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一三七四)에 을과(乙科)에 올라 관직(官職)이 주서(注書)였는데 태종(太宗) 병인(丙寅)·一四一六)에 특제지(特除旨)②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檢校) 함성윤(漢城尹)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하였으니 강복(岡僕)의 절의(節義)를 지켜 나가지 않고 곧 충주(忠州)의 차의산(車依山) 회문동(回文洞)에 귀양[안치(安置)③]을 갔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음에 조정(朝廷)에서 그 충절(忠節)을 기려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을 추증(追贈)하였다. 삼대(三代)를 지나 휘(諱)성옥(成玉)은 관직(官職)이 이조참의(吏曹參議)였는데 연산조(燕山朝)의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밀양의 청천동(淸川洞)으로 내려와 은거(隱居)하였다. 오대(五代)를 지나 휘(諱)언우(彦佑)는 문행(文行)이 있었으니 선조조(宣祖朝)의 임진난(壬辰亂)에 밀양(密陽)에서 의병(義兵)으로 일어났고 난이 그친 뒤에 비슬산(琵琶山) 인가동(仁嘉洞)으로 옮겨와서 인산(仁山)이라고 자호(自號)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자손(子孫)들이 그 아래 기세리(奇世里)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이가 휘(諱)운상(雲祥)을 낳으니 호(號)는 송암(松庵)이고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였는데 일찍이 한양(漢陽)에 유학(遊學)하면서 광해조(光海朝)의 어지러운 정사(政事)를 보고는 은거행의(隱居行義)하였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최종(最重)은 호(號)가 경재(敬齋)니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으니 공(公)의 오대조(五代祖)이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천조(天祚) 호(號)는 정헌(靜軒), 증조(曾祖)의 휘(諱) 귀담(龜潭), 호(號)는 우간당(友干堂), 조부(祖父)의 휘(諱)는 철한(轍漢), 호(號)는 청계(淸溪)이니 모두 문학(文學)으로 일컬어졌다. 부친(父親)의 휘(諱)는 치규(致奎)이고 호(號)는 지지당(知止堂)이니 가정(家庭)에서 효우(孝友)가 득실(篤實)했고 일찍이 과학(科學)에 뜻을 끌고 후진(後進)들을 교도(教導)하니 향당(鄉堂)에서 추중(推重)하였다. 모부인(母夫人)은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니 두찬(斗燦)의 따님으로 부덕(婦德)을 두루 갖추었다. 고종 병인(丙寅)·一八六六年 팔월(八月) 이십삼(二十三)일에 기세리(奇世里) 집에서 공(公)을 낳았다.

공(公)은 나면서 자품(資稟)이 총명숙혜(聰明夙慧)하였고 의표(儀表)가 단정(端正)하여 어려서부터 함부로 놀지 않았다. 칠(七)세에 지지공(知止公)에게 수학(受學)하였는데 자음(字音)이 분명하고 이해(理解)가 주상(周祥)하니 지지공(知止公)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몸이 약한 것을 염려하여 일찍이 권독(勸督)하지는 않았다. 십일(十一)세에 비로서 『소학(小學)』을 읽어 일찍 문리(文理)를 깨우치고 의취(義趣)을 깊이 이해하였는데 『동온하청(冬溫夏淸) 훈정신성(昏定晨省)』이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읽기를 멈추고 학동안(學 동안) 생각하면서 『사람의 자식이 된 이로서는 마땅히

이 같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십오(十五)세가 넘어 만응와(晩兢窩) 윤공(尹公) 태로(泰老)에게 나가서 과문(科文)을 배워서 익혔으나 마침내 과장(科場)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는 생각을 고치고 깨달아 이르기를 『이는 고인(古人)의 위기지학(爲己之學)④이 아니니 마음을 바로잡고 자신을 수양(修養)하여 문로(門路)를 바르게 하기만 못하다』라 하고 곧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어 미묘(微妙)한 말과 어려운 뜻을 깊이 연구(研究)하여 스스로 깨달았다.

신묘(辛卯)·一八九一)년에는 영백(嶺伯)인 동련(東蓮) 이공(李公) 현영(鑣永)이 지쉬(地倅)인 경당(敬堂) 이공(李公) 희익(憲翼)과 함께 관학원(官學院)에서 강회(講會)를 베풀었는데 이때 나의 선인(先人)인 임재선생(臨齋先生)이 강장(講長)이 되었다니 공(公)은 『서경(書經)』으로 강석(講席)에 나가 응하자 선생(先生)은 『경학지사(經學之士)』로 허여(許與)하였다. 이에 공(公)은 구도(求道)의 뜻이 있어 내 선인(先人)의 문하(門下)에 집지(執贄)하자 선생(先生)은 경예설(經禮說)과 성리학(性理學)으로써 순순(淳淳)하게 가르침에 공(公)은 정성스럽게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에 새기고 잠심(潛心)하여 완색(玩索)하고 연구(研究)하였다.

임진(壬辰)·一九〇三)년에는 부친상(父親喪)을 당하여 척이(戚易)의 절도(節度)가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랐다. 무술(戊戌)·一八九八)년에는 만응와(晩兢窩)의

부고(訃告)가 이르자 제문(祭文)을 지어 치존(致尊)송하였고, 백형(伯兄)인 남계공(南溪公)과 함께 책상을 나란히 하여 강학(講學)함에 우애(友愛)가 담락(湛樂)하였다.

계묘(癸卯)·一九〇三년에는 송문충공(宋文忠公) 병선(秉璿)이 낙동정사(洛東精舍)에 이르러 강회(講會)를 베풀었는데 공(公)은 『대학(大學)』으로 강(講)에 응하고, 이해 여름에 동연(東蓮) 이백(李伯)이 거듭 영남(嶺南) 관찰사(觀察使)로 부임(赴任)하여 지취(地倅) 김영호(金榮浩)와 관학원(官學院)에서 강회(講會)를 열었는데 공(公)은 여러 생도(生徒)들을 거느리고 강회(講會)에 갔다.

을사(乙巳)·一九〇五년에는 선생(先生)이 돌아가시자 달려가 조곡(吊哭)하고 가마(加麻)⑤를 하였다.

무신(戊申)·一九〇八년에는 전승지(前承旨) 김병수(金炳洙)가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영정(影幀)을 이봉(移奉)하는 일로 여러 차례 공(公)의 집을 지나다「조처(造處)⑥」가 공(公)의 문학(文學)과 덕행(德行)을 보고 천거(薦舉)하여 장능참봉(章陵參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경술(庚戌)·一九一〇년에는 사직(社稷)이 망하자 북쪽으로 향하여 통곡(痛哭)하고 이로 인하여

『습승(襲勝)의 절식(節食)이 부질없는 죽음이 아니었으며』

도잠(陶潛)의 귀전(歸田)이 어찌 구차한 삶이었으랴?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오직 의리(義理)에 달렸으니,

천추(千秋)의 평론(評論)을 뒤라서 가며이 하랴?

하는 시(詩)를 읊고 드디어 산으로 들어가 문답을 닫고 몸이 마치도록 자정(自靖)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로써 원근(遠近)의 많은 선비들이 배우기를 바라곤 이들이 많았는데 일찍이
「정학설(警學說)」로써 문생(門生)들에게 유시(諭示)하여 이르기를,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이었지만 일찍이 「배우기를 싫증내지 않는다」고 하였
거늘 하물며 하우(下愚)의 자질(資質)로 후학(後學)을 하다가 그치다가 하여 입
으로 능히 말하되 하지만 마음이 밖으로 빼앗기면 비록 학문(學問)을 하더라도 반도
시 이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근학설(勤學說)」로 일문(一門)의 자질(子姪)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만약 게으르고 방탕하여 자포자기(自暴自棄)하여 안으로는 도의(道義)가 부족하
고 밖으로는 척의(戚儀)를 잃으며 경서(經書)에 어두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당세
(當世)를 논하면서 부질없이 웃으면서 「해(頤) ⑦」 헛되이 일생(一生)을 보낸다면
장차 천지간(天地間)의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

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후 이기심성(理氣心性)에 대한 말을 물으면 곧 이르기를 『이는 선유(先儒)들이 각기 그 견해에 따라 변론(辯論)한 것이 서로 다르니 나의 보잘 것 없는 학식(學識)으로 어찌 감히 덧붙여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증설(衆說)을 참고(參考)하면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병진(丙辰)·一九一六년에는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였는데 의례(儀禮)의 여러 절차를 한결같이 부친상(父親喪)때와 같이 하였다.

신유(辛酉)·一九二一年에는 문인(門人)들이 수계(修契)하여 달도산(達道山)아래에 소계정(小溪亭)을 짓고 해마다 모여서 강론(講論)을 벌였다.

일찍이 재종증조모(再從曾祖母) 강씨(姜氏)의 열행(烈行)을 드러내고자 하여 창선문(彰善文)、비명(碑銘)、비각기(碑閣記)、실기서문(實紀序文)、읍지초(邑誌抄)、제현(諸賢)의 열행언(烈行韻)을 모으고 엮어서 「열행실기(烈行實紀)」라고 제목(題目)을 붙이고 간행(刊行)을 도모하였다.

을유(乙酉)·一九四五年 七月 十一일에 소계정(小溪亭)에서 고종(考終)하니 향년(享年) 八十八세였다. 이해 十月 二十일에 사림(士林)이 모인 가운데 기세리(奇世里) 대등산(大登山) 부축원(負丑原) 안장(安葬)하고 그 명징(銘旌)을 「소계처사(小溪處士) 충주석공지주(忠州石公之柩)」라고 고쳐 썼다.

부인(夫人)은 청도김씨(淸道金氏) 양곤(陽坤)의 따님이고 부덕(婦德)이 검비하여 내조(內助)함이 많았다. 공(公)보다 二十三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공(公)의 묘소(墓所)위의 간좌원(艮坐原)에 안장(安葬)하였다.

사남이녀(四男二女)를 두었으니 아들(一均)·세균(世均)·명균(銘均)이고 딸(一均)의 아들(一均)·호원(鎬源)·호전(鎬琿)·호근(鎬瑾)·호은(鎬璫)인데 호원(鎬瑗)은 양자로 갔고, 만균(萬均)의 아들(一均)·호상(鎬象)·호린(鎬麟)·호기(鎬驥)·호응(鎬熊)이고, 세균(世均)의 아들(一均)·호심(鎬晟)·호승(鎬昇)·호민(鎬旻)이고, 명균(銘均)의 아들(一均)·호원(鎬瑗)이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공(公)은 성도(性度)가 순정(淳正)하고 청검(淸儉)으로 스스로 지켜 남들에게 알려 지기를 구하여 자랑하지 않았다. 안으로는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며 밖으로는 스승을 높이고 벗에게 친근히 하여 각각 그 도리(道理)를 다하였다. 문하(門下)의 여러 생도(生徒)들에게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조(條)·목(目)으로부터 궁리진성(窮理盡性)의 학설(學說)에 이르기까지 차례를 따라 가르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찍이 벗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이르기를

『君子(君子)가 학문(學問)이 밝고 덕업(德業)이 이루어져 때를 만나고 도(道)를

행하게 되면 천하(天下)와 더불어 겸선(兼善)할 것이지만 만약 때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산림(山林)에 자취를 감추고 후생(後生)을 가르쳐서 유도(儒道)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유자(儒者)의 출처(出處)의 대의(大義)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강론(講論)할 때는 마음을 비워서 잘 받아들이고, 선(善)을 보면 칭찬하여 권장(勸獎)하며 악(惡)을 보면 타일러서 고치게 하니 사람들이 그 도량(徒量)에 감복(感服)하였다.

아! 공(公)의 재기(才氣)와 덕행(德行), 박학(博學)과 청조(淸操)로써 끝내 불우하게 암혈(巖穴)의 사이에서 곤궁(困窮)하게 지냈으니 어찌 슬프지 않았는가? 건수(健洙)는 공(公)과 함께 나의 선인(先人)의 문하(門下)에 있었을 즈음에 벼를 맷은 뒤로 만나면 지창(紙窓)에서 등불을 밝히고 담소(談笑)가 끊이지 않았고, 헤어지면 강포(江浦)의 운수(雲樹)에 서로 그리운 정을 부쳤더니 어느덧 유명(幽明)을 서로 달리하여 세상을 떠난 지 삼년이나 되었으니 더욱 양월(樑月)의 느낌을 금하지 못하겠었다.

일간에 공(公)의 장자(長子) 일균(一均)이 그 유집(遺集)을 안고 나에게 교정(校正)의 일을 맡기고 또 행장(行狀)을 지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나는 사람이 가별고 배운 것이 약아서 감히 이 일을 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公)을 공경하는 이가 나만 한 이가 없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가 공(公)만 한 이가 없는 까닭으로 감히 끝

내 사양하지 못하고 가장(家狀)을 살펴서 이상과 같이 찬술(撰述)하여 후세의 입언(立言)君子)가 채택(採擇)할 자료(資料)에 대비(待備)한다.

一九四八年 戊子 三月 상한(上澣)에 달성(達城) 서건수(徐健洙)는 짓다

【주(註)】

- ① 승하(昇遐) : 임금이나 왕후(王后)의 죽음을 이룸.
- ② 특제(特除) : 특(特)히 제수(除授)함이니 제수(除授)는 이조(吏曹)의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왕(王)의 특명(特命)으로 벼슬을 내림을 이룸.
- ③ 안기(安置) : 귀양의 일종(一種)으로 일정(一定)한 지성외(地域外)에 출입(出入)을 금지(琴止)하는 것.
- ④ 위기지학(爲己之學) : 자기(自己)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 것.
- ⑤ 가마(加麻) : 상포두건(喪布頭巾)을 쓴다는 것으로 오복(五服)에 제정(制定)되지 않은 사람으로 서복(服)을 입는다는 것이니 곧 스승의 복(服)을 말함.
- ⑥ 조려(造廬) : 집을 찾아왔다는 말.
- ⑦ 해이(解頤) : 파안(破顏)과 같은 말로서 허허 웃는다는 것.

小溪亭記 二一一

小山石君炳岐昔者吾友也吾嘗從小山熟聞其族有載俊慶秀甫居於達之奇世而好學篤行吾有一見之思而衰病未能也既而小山棄我而慶秀再訪我於清溪之武陵觀其言

談舉止信乎小山之不我欺也今聞作亭於瑟山之下小溪之傍教育英才而扁其亭曰小溪不覺耳輪先涼如復相遇於清漪之濱講不舍晝夜之逝者慶秀之襟懷能不十分爽割而然耶願溪亭主人濯纓濯足而洗濯其心奏流水之瑤琴於琅然月明之清夜則吾將儔鍾期佯荷簞而聽之毋金玉爾音也耶

柔兆攝提格癸賓上澣日中病夫李直鉉記

소계정기

소산(小山) 석군(石君) 병기(炳岐)는 옛적에 나의 벗이었다. 내가 일찍이 소산(小山)으로부터 그 족친(族親)에 재준(載俊) 경수보(慶秀甫)가 달성(達城)의 기세리(奇世里)에 살고 있는데 학문(學問)을 좋아하고 행실(行實)이 돈독(敦篤)하다는 것을 익히 듣고 한번 보고 싶으면 생각이 있었으나 쇠병(衰病)으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윽고 소산(小山)마저 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 뒤에 경수(慶秀)가 초계(草溪)의 무릉(武陵)으로 거듭 나를 찾아왔기에 그 언어(言語)와 동작(動作)을 살펴보니 참으로 소산(小山)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다.

지금 들으니 비슬산(琵琶山) 아래의 소계(小溪) 곁에 정자(亭子)를 지어서 영재(英才)를 교육(教育)하고 그 편액(扁額)을 소계정(小溪亭)이라고 하였다 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컷가가 시원하여 마치 다시 청계(淸溪)의 잔잔한 여울가에서 만나 『흐르는 물이 도체(道體)의 유행(流行)과 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는 것을 강론(講論)하는 것 같으니 경수(慶秀)의 금회(襟懷)가 능히 시원스럽게 트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라건대 계정(溪亭)의 주인(主人)은 흐르는 시냇물에 탁영탁족(濯纓濯足)하면서 그 마음을 씻고, 낭연(琅然)한 명월(月明)의 청야(淸夜)에 유수(流水)의 요요(瑤琴)를 연주(演奏)한다면 나는 장차 종자기(鍾子期)와 ① 하계자(荷簣子)를 벗하여서 들을 것이니 그대의 금성(琴聲)을 금옥(金玉)처럼 아끼지 말게.

유조(柔兆) 丙 ② 십제격(攝提格) 寅 ③ 一九二六年 유빈(狴賓) ④ 五月
상한(上澣) 일중정(日中亭) 병부(病夫) 이직현(李直鉉) 씀

【주(註)】

- ① 하계자(荷簣子) 丙 논어(論語) 헌문편(憲問篇)에 보이는 은거자(隱居者)。
- ② 유조(柔兆) 丙 구갑자(舊甲子) 십간(十干)의 병(丙)임。
- ③ 십제격(攝提格) 寅 구갑자(舊甲子) 십간(十干)의 인(寅)임。
- ④ 유빈(狴賓) 寅 십이진(十二辰)을 월(月)에 배당(配當)할 시(時) 음(陰)오월(五月)에 해당(該當)됨。

小溪亭記 二——二

溪者江漢之源而愛以取者多也昔人所謂苕溪霅溪剡溪隱士所遊息也愚溪浣花溪文章所題詠也而惟朱子舍於玉溪周子號以濂溪以若道學君子奚取乎溪哉蓋溪流有源不息爲江淮河漢放乎四海者如學問自修漸進聖道者故孔子亟稱水哉者是已惟達之西琵琶瑟之下瀉出一灣溪滌洄清澈是知源之深而流之長也溪之上有奇世洞乃石君載俊慶秀甫世居也石君生於斯長於斯猶有桑梓之敬而天資聰悟夙徹文理以其親命從事於功令之學奇詞麗藻皆出自家之機軸勇動旗鼓俾驚文人之耳目者昔矣才與命仇不得展大志况世值滄桑玉璧無用遂以辭却名韉隱居山林以後生教育爲己任勸獎孝悌之道振發斯文之風當時遠近章甫趨進不風庠不可容於是誘掖提撕各充其量薰煮陶鑄化成奇器者多矣歲癸亥秋占得距家十武之地營建三間亭背山面水其境迢遞掩茅築石其制清灑正合遯跡尚志之所也訖功之日扁之以小溪歌其事而揭之楣固知進學之方得之心而寓之溪也水之爲溪何限如之而必曰小溪者其先大人以清溪爲號則一小字豈非分辨者乎與大戊小戊之稱事異而義同者也然則亦非敬親之深哉嗚呼今左海陸沉元元之人沒於鯨波鱷浪之中終無極濟之日其他異教邪說分派逆流甚於

懷襄之患而惟石君涵養本然之心與村秀才學得淵源之正爲障川回瀾之計可謂善學溪也若夫溪雲忽晴溪月初生以一片道柁溯到伊川濂洛之間則洙泗之上自可躋及矣然則溪亭之名流傳千百載而不泯矣小溪之工豈曰小乎云哉余忘僭畧叙爲勗勉之萬一元爾

歲黃龍端陽日 仁川 蔡憲植 記

계류(溪流)는 강(江)의 근원(根源)인데 사랑하여 취한 이가 많았으니 옛 사람들이 이른바 초계(苜溪)①, 삼계(霽溪)②, 섬계(剡溪)③라는 것은 은사(隱士)들이 머물렀던 곳이었고 우계(愚溪)④, 완화계(浣花溪)⑤라는 것은 문장가(文章家)들이 제영(題詠)했던 바였으나 오직 주자(朱子)는 옥계(玉溪)에 집을 짓고 주자(周子)는 염계(濂溪)로써 호(號)를 삼았는데 이같은 도학군자(道學君子)들은 계류(溪流)에서 무엇을 취했었던가? 대개 계류(溪流)는 근원(根源)이 있어 그치지 않고 강(江), 회(淮), 하(河), 한(漢)의 큰 강을 이루어 사해(四海)에 이르는 것이 마치 학문(學問)을 자수(自修)하여 점차로 성인(聖人)의 도(道)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공자(孔子)께서 자주 「수재(水哉)」라고 칭찬(稱歎)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달성(達城)의 서쪽 비슬산(琵琶山) 아래서 흘러나오는 한 급이의 계류(溪流)가 영회(滢洄)하면서 청철(清澈)하니 곧 근원(根源)이 깊고 유파(流波)가 긴 것을 알겠다. 계상(溪上)의 기세동(奇世洞)은 곧 석군(石君) 재준(載俊) 경수보(慶秀甫)의 세거지(世居地)인데 석군(石君)은 여기서 성장(生長)하여 오히려 상재(桑梓)를 공경(恭敬)함이 있었다. 군(君)은 천자(天資)가 총오(聰悟)하여 일찍 문리(文理)를 깨우쳐서 그 어버이의 분부로 과거(科擧)에 필요한 공영학(功令學)에 종사(從事)하여 기려(奇麗)한 문사(文詞)가 모두 자신의 기저(機杼)로부터 나와 기고(旗鼓)를 용동(勇動)하여 문인(文人)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 오래였으나 재능(才能)과 명(命)이 서로 맞지 않아 큰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시대(時代)가 변천(變遷)되었음에 옥벽(玉璧)이 쓸모없게 되자 드디어 명리(名利)의 굴레를 마다하여 물리치고 산림(山林)에 은거(隱居)하여 후생(後生)을 교육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任務)를 삼아 효제(孝悌)의 도리(道理)를 권장(勸獎)하고 사문(斯文)의 기풍(氣風)을 진발(振發)하니 당시에 원근(遠近)의 선비들이 그 풍성(風聲)아래 모여들어 서숙(書塾)에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가르치고 이끌어서 각각 그 기량(器量)대로 등도(董陶)하여 훌륭한 재기(才器)를 이룬 이가 많았다.

계해(癸亥…一九二三)년 가을에 집에서 심보짚 떨어진 곳에 터를 정하여 삼간(三間)의 정자(亭子)를 지었는데 산을 등지고 물길앞으로 하니 그 경역(境域)이 초

체(迢遞)하고, 따로 지붕을 덮고 돌을 쌓으니 그 제도(制度)가 청려(淸麗)하여 자취를 감추고 뜻을 숭상(崇尚)하기에 합당한 곳이였다. 일일을 마치는 날에 「소계정(小溪亭)」이라고 편액(扁額)을 걸고 그 일일을 노래하여 문미(門楣)에 걸었는데 학문(學問)에 나아가서 방도(方道)를 마음에 얻어서 계류(溪流)에 우의(寓意)하였음을 분명히 알겠다.

물이 계류(溪流)가 됨이 어찌 이같이 한정(限定)되랴만 반드시 「소계(小溪)」라고 한 것은 그 조부(祖父)께서 청계(淸溪)로써 호(號)를 삼았는 즉 한 소자(小字)가 어찌 분변(分辨)이 있는 이가 아니겠는가? 대무(大戊)、소무(小戊)의 일컬음과 더불어 일일은 다르지만 의리(義理)는 같은 것이다. 그러한 즉 또한 경친(敬親)이 깊지 않은가?

아! 지금 좌해(左海)가 육침(陸沈)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센 물결에 빠져서 끝내 이에서 헤어날 날이 없고 그 밖에 다른 이교(異敎)의 사설(邪說)이 분파(分派)하여 역류(逆流)하여 회양(懷襄)의 걱정이 더욱 심한데 오직 석군(石君)은 본연(本然)의 마음을 함양(涵養)하여 향촌(鄕村)의 수재(秀才)들과 연원(淵源)의 정맥(正脈)을 배워 거센 천류(川流)의 파란(波瀾)을 막고 돌이킬 도책(計策)을 삼으니 계류(溪流)를 잘 배웠다고 이를만 하다. 만약 계운(溪雲)이 문득 개이고 계월(溪月)이 처음 오를 때 한 조각 통타(通詫)로 이천(伊川)⑥, 염락(濂洛)⑦의 사이로 거슬러 이른다면 사수

(泗洙)⑧의 위로는 스스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계정(溪亭)의 이름이 천백세(千百載)에 유전(流傳)하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소계(小溪)의 공이 어찌 작다고 말하겠는가? 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잊고 대략 서술(敍述)하여 힘쓰는 것에 만분의 일이나마 되도록 한다.

세황룡무진(歲黃龍戊辰) 단양일(端陽日)에

인천(仁川) 채헌식(蔡憲植) 씀

【주(註)】

- ① 초계(苜溪) ..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내로서 송(宋)나라 유일지(劉一止)의 호(號)。
- ② 삼계(霽溪) ..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내로서 송(宋)나라 이심전(李心傳)이 삼빈(霽濱) 병수(病叟)라 호(號)하였음。
- ③ 섬계(剡溪) ..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내로서 진(晉)나라 대안도(戴安道)가 살았던 곳。
- ④ 우계(愚溪) ..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내로서 당(唐)나라 류종원(柳宗元)의 호(號)。
- ⑤ 완화계(浣花溪) ..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내로서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집이 이곳에 있었음。
- ⑥ 인천(伊川) .. 하남성(河南省)에서 발원(發源)하여 낙수(洛水)로 들어가는 내로서 정(程)이천(伊川), 명도(明道)가 이곳에 살았음。
- ⑦ 엄락(濂洛) .. 엄계(濂溪)와 낙양(洛陽)으로서 이돈신(周敦頤) 소옹(邵雍), 사마광(司馬光), 정현(程顥), 정인(程頤), 장재(張載) 등(等) 여러 군자(君子)가 살았음。
- ⑧ 사수(泗洙) .. 사수(泗洙)와 수구(洙九)로서 공자(孔子)가 이 근처에서 제자(弟子)를 가르쳤음。

小溪亭重修記

在李韓末期騷撓之狀逆流之渦熾漲八域雖有知有覺之士不能無淹滯於其中而達城之西奇世之坊有隱居讀書以扶斯道於幾墜之地者卽小溪處士忠州石公是也公以需世之材博逸之學處滄桑恟亂之期無所可爲則於先人世居之地開學堂教鄉門子姪使之不染於蠻風夷俗而以待河清之日乃公不屈之志也於是焉嶺左之士推而仰之如山斗之望恟瀾之柱道伯李鑑永郡守金榮浩設講院而聘之以振文風於索寞之日豈非斯文之一幸也哉光復二十三年前癸亥門下諸生修楔築小亭於達道山下扁之曰小溪亭公之實德實學能咸人之深於斯可知也天鑑其德享八耄之壽留斯亭講學至數十載而得見國運之回乃終其世豈不爲幸亭之設已經七十載則不能無傾頽之患令孫諸賢及門僉彥合心並力以敦重建之計柱之弱者以圓木替之砌之陷者以精石築之翻其瓦而整其戶於是乎輪焉奐焉增光於昔日之構肖孫鎬瑾甫與余有宿契之重因請記其事始建之初有李公直鉉蔡公憲植珍重之文山川眺望寓慕幽情已盡備於則不可以贅說加之但略叙重建之實以付獻賀之情云爾

辛未新春 成均館副館長 眞城 李壽洛 謹記

소제정증수기

조선(朝鮮) 말기에 있어서 소요의 상태와 연류의 소용돌이가 이 나라의 전연에 들끓고 넘치니 비록 지각(知覺)이 있는 선비라도 능히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달성(達城)의 서쪽 기세리(奇世里)에 은거(隱居)하면서 글을 읽어 거의 떨어지려는 처지에 있는 유도(儒道)를 일으킨 자가 있었으니 곧 소제처사(小溪處士) 충주석공(忠州石公)이 바로 그 사람이다.

공(公)은 세상에 쓰일 만한 재능과 너르게 뛰어난 학문으로 세월의 변화가 덧없이 어지러운 시기에 처하여 할 수 있는 바가 없었으니 곧 선인(先人)의 세거지(世居地)에 학당(學堂)을 열어 향리와 문종의 자질(子姪)들을 가르쳐 이들로 하여금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하수(河水)가 맑아질 날을 기다렸으니 곧 공(公)의 급히지 않는 뜻이었다. 이에 영좌(嶺左)의 선비들이 추앙하기를 태산(泰山) 북두(北斗)처럼 바라보았고 거센 물결에 버티는 기등갈이 여겼다. 도백(道伯) 이현영(李鎣永)과 군수(郡守) 김영호(金榮浩)가 강원(講院)을 열고 공(公)을 초빙하여 삭막한 날에 문풍(文風)을 떨쳤으니 어찌 사문(斯文)의 한 다행이 아니었으랴?

광복(光復)이 있기 이십이년전(二十二年前)인 계해(癸亥)·一九二三年)에 문하의 여러 제자들이 함영계(含英契)를 모으고 달도산(達道山) 아래 작은 정자를 짓고 편액

을 소계정(小溪亭)이라 하니 공(公)의 실덕(實德)과 실학(實學)이 능히 사람을 감동시킨 깊이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 하늘이 그 덕을 살피八十의 상수(上壽)를 누리게 하여 이 정자에 머물면서 학문을 강론함이 수십 년에 이르러 국운(國運)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세상을 마쳤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었겠는가?

정자를 세웠던 것이 이미 칠십년의 지났으니 능히 기울고 무너질 근심이 없지 않았다. 이 예 공(公)의 손자 여러 사람과 문하의 여러 선비들이 마음들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증진할 제책을 세워 기등이 약한 것을 등은 목재로 바꾸고 섬돌이 내려앉은 것을 좋은 석재로 쌓고 그 기와를 바꾸고 그 문호를 정돈하니 예 건물의 규모가 크고 아름답기가 옛날의 규모보다 더 빛남이 있었다.

그 손자 호근군(鎬瑾君)이 나와는 오랜 교분이 있었으니 그 일들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였다. 처음 세웠을 때에 이공(李公) 직현(直鉉)과 채공(蔡公) 헌식(憲植)의 진중(珍重)한 기문(記文)이 있어 산천(山川)의 경관과 우모(寓慕)의 정취는 이미 다 갖추었으니 말을 덧붙일 수 없고, 다만 증진한 사실만을 대략 서술하여 하례(賀禮)하는 정에 부친다.

辛未(一九九一年) 신춘(新春)에

성균관부관장(成均館副館長) 진성(眞城) 이수락(李壽洛)은

삼가 기문(記文)을 적다.

小溪遺稿序

夫篤志而勵行固窮於泉林抱經自娛不關浮世之榮辱長往不返枯餓無悔若將終身焉者徃徃多彬彬文學德行之士矣如小溪處士石公是也公早受功令之業於鄉先生出入場屋未展素蘊反以省之從事於性理之學默契于古聖遺旨就正於臨齋徐先生之門間嘗徃復講論禮說琢磨麗澤眷眷服膺罔或有莫我知夫之想矣有慕公之深者以文學啓薦除寢郎公以斯之未能信辭之竟不就此則公之出處大義也既而時事日非公痛哭賦詩曰龔勝絕食非徒死陶令歸田豈苟生一死一生惟義在千秋評論敢誰輕此則公之憂國忠憤也自是杜門晦跡日與鄉隣士友及及門諸生或溫古而知新或尋行而數墨其爲學也以孝悌爲本忠信是務故其言平淡穩雅凡事親敬長隆師親友之節備在學規一篇此則公之平日用功也先世有久湮未旌之烈行公與諸族謀建閣而碑焉請全省信筆而表之此則公之揚潛闡幽之誠也人亡世遠學舍肅然鄉無善俗公倡多士設月講而勸獎之有問經義者則曰先儒既有分曉參考此說彼說棄其所短取其所長則義在其中不欲屑屑於教誨使自得而曉之此則公之進學之規也晚而自靖於仁山智水之間曰碧山不負吾良由其門人修誠中卜築者也今公沒有年門人鄭富鉉權赫琪等收拾遺文將欲壽

世囑余以丁乙之且要一言以弁之顧余蔑學何敢當是役也曾有宿契於公公之長胤一均氏與余遊以世其家者久矣茲不揣僭越略叙其平日見聞者而歸之

屠維大淵獻 二之日望 八莒 都相朝序

소계유교서

대저 뜻을 돈독히 하고 실행에 힘쓰면서 진실로 임천(林泉)에서 곤궁하게 지내며 경서(經書)를 가지고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덧없는 세상의 영욕(榮辱)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아 고생스럽고 굶주리더라도 뒤우침이 없이 몸을 마치려는 이가 왕왕(往往) 빈빈(彬彬)한 문학(文學)과 덕행(德行)을 갖춘 선비들이 많으니 소계처사(小溪處士) 석공(石公)같은 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공(公)은 일찍이 향선생(鄉先生)에게 과거(科擧)에 필요한 학업(學業)을 배워 과장(科場)에 드나들었으나 평소에 깊이 쌓은 바를 펼치지 못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살피서 성리학(性理學)에 종사하여 옛 성현(聖賢)이 끼친 뜻을 마음속으로 무뎠히 깨달아 임재(臨齋) 서선생(徐先生)의 문하(門下)에 나아가 자신의 학문을 바로 잡았다. 증간에 한번씩 오가면서 예설(禮說)을 강론(講論)하고 붕우(朋友)들과 함께 강습(講習)하여 혜택이 있었으니 「탁마(琢磨)① 여택(麗澤)②」, 정성스럽게 가르침을 마음

에 새겨서 후 「나를 아는 이가 없구나!」 「막아지부(莫我知夫)」라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

공(公)을 깊이 사모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문학(文學)으로 천거하여 참봉(參奉)에 제수(除授)하도록 하였으나 공은 「도리(道理)에 확신(確信)이 서지 않는다」 「사지미능신(斯之未能信)」는 것으로써 사양하고 끝내 나가지 않았으니 이는 곧 공의 출처(出處)의 대의(大義)이다.

이윽고 시사(時事)가 날로 그러치게 되자 공(公)은 통곡(痛哭)을 하면서 시(詩)를 읊었으니 데,

공승(龔勝)의 절식(絶食)이 부질없는 죽음이 아니었으며,

도령(陶令)의 귀전(歸田)이 어찌 구차한 삶이었으랴?

일생(一生)의 사(死)는 오직 의(義)에 있으니,

천추(千秋)의 평론(評論)을 감히 뒤라서 가변이 하랴?

라 하였으니 이는 곧 공의 나라를 은심하는 충분(忠憤)이다.

이로부터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날로 향린(鄉隣)의 사우(士友)들과 문하(門下)의 제생(諸生)들과 함께 후 엿것을 익혀 새것을 알기도 하여, 후늘을 익히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효제(孝悌)로서 바탕을 삼고 충신(忠信)을 힘썼던 까닭으로 그 말이 평담(平淡)하고 온아(穩雅)했다. 무릇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스로 높이고 벗에게 친근히 하는 예절은 학규일편(學規一篇)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곧 공(公)의 평일(平日)의 공부(工夫)이다.

선세(先世)에 오래도록 인물(湮沒)되어 정표(旌表)를 받지 못한 열행(烈行)이 있거늘 공(公)은 여러 족친(族親)들과 함께 정려각(旌閭閣)을 세우고 비석(碑石)을 세우기를 도모하고 온 고을의 신패(信筆)를 청하여 드러냈으니 이는 곧 공(公)이 소극히 드러나지 않음인 것을 천양(闡揚)하는 정성이이다.

옛적에 가르침을 말한 사람은 죽어서 없고 그 세대는 멀어서 학사(學舍)가 쓸쓸하고 고을에 선속(善俗)이 없으니 공이 많으니 선비들을 거느리고 월강(月講)을 열어서 학문을 권장하였다. 경서(經書)의 뜻을 묻는 이가 있거든 곧 이르기를 『선유(先儒)들이 이미 분명히 밝혔으니 여러 가지 학설을 참고하여 그 장단(長短)을 헤아려 취하고 버린다면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것이다.』 라고 하여 직접 가르치기에 급급하고자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였으니 이는 곧 공(公)이 학문에 나아가게 하는 법도였다.

만년(晩年)에 스스로 산수(山水)의 사이에 은거(隱居)하면서 이르기를 벽산(碧山)이 나의 양전(良田)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문인(門人)들이 정성을 모아 정자(亭子)를 지었던 것이다.

공(公)이 돌아가신 지 몇 해가 되었는데 문인(門人) 정부현(鄭富鉉)、권혁기(權赫

琪(등)이 유문(遺文)을 거두어 모아서 장차 세상에 전하려고 하여 나에게 교정을 부탁하고 또 일언(一言)으로 서문(序文)을 써 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같이 보잘 것 없는 학문으로 어찌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일찍이 공(公)과는 오랜 계의(契誼)가 있고 公於의 장남인 일균씨(一均氏)도 나와 더불어 함께 노닐어 그 세의(世誼)를 이었던 것이 오래였다. 이에 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대략 그 평일에 보고 들은 것들을 서술하여 돌려 보낸다.

도유(屠維) 대연헌(大淵獻) 기해(己亥)·一九五九

二月十五日 팔거(八莸) 도상조(都相朝) 삼가 씀

【주(註)】

- ① 탁마(琢磨) .. 붕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하고 의함. 주역태봉(周易兌卦)에서 유래함.
 ② 여택(麗澤) .. 옥석(玉石)을 쪼고 값.

願英稷序

孟子曰得英才教育三樂之一程子曰道之不明不得養其英才也今吾友石小溪載俊奮起於道喪之時肆力於墳典之中而知行并下以無所愧怍爲準的遠近儒生皆翕然師尊

之扁其家塾曰育英齋其樂可知矣日尹君善均與諸生同修願英稷囑余以序其事余辭不獲而復之曰苟失其養無物不消苟得其養無物不長蓋養才之道惟絕去外誘之私乃充其本然之性而有是性有是才也切願學之者一此不懈無不被其麗澤則心所願欲者莫大於此此其願英之意也若或不能耐久人心易懈二而乏其資學無所實行則不過假學之名而已安得至於俯仰不忤耶諸君勉之哉遂書此以歸之

重光作噩 仲呂 上澣 丹陽 禹纘基 叙

원영계 서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영재(英材)를 얻어 교육함이 삼락(三樂)의 한 가지이다.』 라고 하였고, 정자(程子)가 이르기를 『도(道)가 밝지 않음은 그 영재를 얻어 가르치지 않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지금 나의 벗 석소계(石小溪) 재준(載俊)이 도(道)가 상실된 시기에 펼쳐 일어나 삼분오전(三墳五典)① 가운데 힘을 다하여 지식과 행실의 아울러 닦여 위로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것으로 준적(準的)을 삼으니 멀고 가까운 곳의 유생(儒生)들이 모두 따라서 스승으로 높였다. 이에 소계(小溪)는 그 집 학당의 편액을 유영재(育英齋)라 하였으니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다.

하루는 윤군(尹君) 선균(善均)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원영계(願英契)를 모으고 나에게 부탁하여 그 사실을 서문(序文)으로 쓰게 하였는데, 내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실로 그 기르기를 잃으면 소멸하지 않는 것이 없고 진실로 그 기르기를 얻으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다. 대개 재질을 기르는 도리는 오직 외물(外物)이 피는 사사로움을 끊어 버리고 그 본연(本然)의 성품을 확충하여 성품과 재질을 두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건대,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 한결같이 하고 게을리 하지 않아 그 여택(麗澤)②의 공을 입지 않음이 없게 된다면 마음에 바라는 바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리니 이것이 영재가 되기를 바라는 「원영(願英)」의 뜻이다. 만약 후능이 오래 전디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쉽게 해이하여 그 학문의 바탕이 부족하고 실행하는 바가 없게 되면 배운다는 이름만 거짓으로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위 아래로 부끄럽지 않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제군(諸君)들이 이 점에 힘쓸지이다.

드디어 이를 써서 돌려보낸다.

증광작악(重光作噩)·辛酉一九二一年) 증려(中呂)·四月) 상한(上澣)에

단양(丹陽) 우찬기(禹纘基)는 서문(序文)을 쓰다

【주(註)】

- ① 삼분오전(三墳五典) : 삼분(三墳)은 삼황(三皇)의 책이고, 오전(五典)은 오제(五帝)의 책이었는데 현재는 전하지 않음.
- ② 여택(麗澤) : 붕우(朋友)가 함께 학문을 가론하고 익힘. 주역(周易) 태괘(兌卦)에서 유래함.

含英契序

小溪石君載俊吾畏友也有美質而嗜學家貧甚而不苟苟於得喪隱居授徒於達之奇世而扁其里塾曰育英齋蓋取孟子語也及門諸子相與修契名其案曰含英屬余序之余謾而曰含英有二義一則含其育英之恩而不敢忘也一則含英咀華內積充實而使英華發外也二義相須其實一而二二而一也蓋孟子所謂三樂者所可致力焉者惟仰不愧天俯不忤人而已學之積而至於無愧忤然後不負爲英才而英才可得而教也此小溪君之所嘗從事而諸君子之所當佩服其師教而勿失者也來請序者其高足尹震植李培元也

柔兆攝提玆賓上澣 日中病夫 李直鉉 記

함영예서

소계(小溪) 석군(石君) 재준(載俊)은 나의 위우(畏友)이다. 아름다운 바탕이 있으

면서 학문을 좋아하였고 집이 가난하기가 심했으나 얻고 잃음에 대하여 구차하게
 매이지 않았었다. 달성(達城)의 기세(奇世)에 은거(隱居)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마을 학당의 편액을 유영재(育英齋)라고 하였으니 대개 맹자(孟子)의 말에서 취
 한 것이었다. 문하(門下)에 이른 여러 제자(弟子)들이 서로 계안(契案)을 이루고
 그 이름을 함영(含英)이라 하고 나에게 서문(序文)을 청하니 나는 웃기스를 여미고 일
 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함영(含英)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유영(育英)의 은혜를 머금어 감히 잊
 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화(英華)를 머금어 안으로 충실히 쌓아 영화(英
 華)가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니
 그 실상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대개 맹자(孟子)가 이른바 삼락(三樂)이라고 하는 것에 힘써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이대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 고 하는 것
 일 뿐이니, 학문을 쌓아 위 아래로 부끄러움이 없기에 이른 뒤에 영재(英才)가 되
 기에 저버림이 없어 영재를 얻어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계군(小溪君)이 일찍이 종사했던 바이니 여러 군자(君子)들이 마땅히 그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와서 서문(序文)을 청한 사람은 그 뛰어난 제자인 윤진식(尹震植) 이배원(李培元)

이었다。

○ 卍조십제(柔兆攝提…丙寅一九二六年) 유빈(狴賓…五月) 상한(上澣)에

일증병부(日中病夫) 이직현(李直鉉)은 기문(記文)을 적다。

晚岡公諱一均素行錄

素行者石一均也字德中自號晚岡籍忠州上祖諱鄰自宋至高麗明宗丙申討趙位寵有功封藥城君藥城卽忠州舊號七傳而逮我朝太宗丙申特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諱汝明號花園十九世祖也十六代祖諱成玉官吏曹叅議當燕山昏朝棄官南下隱居密陽生諱光鼎成均進士四傳有諱彥佑有文行宣廟壬辰亂仗義赴亂至琵琶山仁壽洞以止自號仁山生諱雲祥號松菴壽資通政贈資憲大夫早遊京洛見光海政亂退隱行義陪親北下築仁山堂于奇世南重崇峯下侍居四傳有諱最重號敬齋通政大夫僉知中樞乃六代祖也高祖諱龜潭號友于堂曾祖諱轍漢號清溪祖諱致奎號知止堂文學世傳考諱載俊號小溪早解文理受業于晚菡窩尹公泰老師事臨齋徐先生贊奎就正門路妣清道金氏英憲公之岱后陽坤女婦德純備高宗丁亥十一月二十七日生不肖于橋項

外第性素愚迷姿雖不敏王考知止公愛之六歲之壬辰盡教周興嗣文曰此子教之則必成就矣是年至月念七日先妣始析箸同臘旬二日知止公捐世哀痛不已先考常居育英齋循誘有序不務產業先妣只與不肖及小雇一人治農雖在幼稚當農節則歸農助力秋收則隨暇讀書至庚子時年十四非農務方劇則連讀癸卯初夏東蓮李伯鏞永再莅嶺表與金地倅榮浩設講于官學院招一鄉諸儒先考率諸生徃之從以大學應講丙午春申公學休莅嶺伯撤舊書堂設新學校網羅諸生驅入新校或匿名逃避或晦跡入山時讀周易亦以招名者入于官府而還先考曰此非養士之道則不可應從也官禁舊書學舍自廢不復誦讀虛費歲月丁未二月以親命叅臨齋先生大祥祭及龜巖齋士林會庚戌七月島以賫迫政府矯書造印無聲而國廢山川震動人心沸湧忠義之人死節賢良之士藏名身雖白面憤心滿腔乃呼一絕曰天日復難明人心盡入黑誰持太阿刀殲滅島中賊侍下人生不守介意寄旅世路遂爲資身之策只誦邵南序曰山而樵水以漁以養父母朝出耕暮歸讀以教兒子修正家道利涉險世是爲本分也癸丑年間鄉中碩德之老回收尚德社資源創建文友觀爲一鄉春秋講學所推漢江朴先生昇東爲觀長推先考爲講長每月受講報觀甲寅春以親命率育英齋生徃叅講會漢江朴先生臨席以大學經一章應講丙辰六月四日王大夫人尹氏別世年八十四時則新設墓地法嚴重不得已權厝于共同墓地辛酉

暮春與尹善均林永相成丙鏞等協議修成含英稷壬戌初夏漢江朴先生訃至奉持先考吊慰狀挽詞往哭壙癸亥七月築小溪亭同十一月二十六日奄遭先妣喪擗踊中無奈時制權厝于共同墓地先考曰一墳起猶難况二墳乎不肖泣告曰從速求山移安矣廣求三位入葬之果是難也於是鄰里金某山坂與余山坂接境故交涉乎金某家而交換遂得官許而定墓地乃蒼溪谷大登山也是年十一月初四日遷厝于王大夫人上峯艮坐原仲秋念三先考回甲日也預舉程伊川俱慶之訓深戒故簡邀父執某某門生幾人門族團會唱酬有詩韻丁卯二月初六日壬寅先妣安葬于大登山中峯艮坐暮春文友觀長後潭蔡公憲植以書招之同都龍煥金允鎬諸友修正達城鄉約稷案先考嘗以再從曾祖母晉陽姜氏烈行未褒之事心常慨歎而資歷不贍未可舉事也辛未仲秋訪問金小岡振玉申樵山鎮燮丈協議地方儒林會開座于育英齋以建閣立碑事協定士林及門族特加誠力不日成之乃告竣功壬申端午日也鄉道士林濟濟來賀癸酉春大邱人徐丙五以文友觀長督促尚德社復舊以書答拒絕丙子三月十七日季弟銘均卒于海外神戶猝聞乖報五內俱裂急渡海製文以慰魂抱燒骨率弟婦與幼姪而回程淒涼行色於誰控說嗚呼痛矣骨埋舊山或可庶幾哉戊寅初春利川珍巖發大同修譜通狀先考素以大同修譜爲心願故往叅焉不肖以知親志而遵行出與各處諸族協議四徃利川而設譜所于長湖院先考以原

有司任幹務月餘作序而還譜所移于京城三往京城而且移大邱乃工告訖是年初夏以親命往叅日新亭楔會而共賊己卯暮春往叅臨淵堂楔會禹魯菴夏教周旋輪講一書以大學首章應講後共 詩甲申三月以仁興書院任司書于伊世秋氏兩門中乙酉七月初八日島夷退去同十日戌時奄遭先考喪舉號擗哭十月二十日士林會葬于大登山麓丑坐原丙戌收集先考遺稿抄記家狀服闋後抱遺稿家狀訪問徐性菴健洙于龜巖齋請校正及行狀性菴跪讀而欣然諾之初夏抱家狀訪全訥山柄坤于訥山堂問墓碣銘訥山亦喜諾六月七日含英楔員來會于育英齋墓前豎碣公論詢謀僉同以楔資爲本門生及門族亦各贊助不日成之十月二十一日鄉道儒林盛會行士林告由己丑更書校正遺稿使子鎬瓘訪問性菴于龜巖齋再校正庚寅仲春抱病入龍淵寺飲藥之暇正書烈行實記保藏于慕烈閣連書先考遺稿正本壬辰三月門族合議始營仁山堂重建不一月而完構真可謂不日成之也使子鎬瓘持書往臨淵堂謁性菴而丐堂重建記文五月日族從弟道均以六代祖通政公墓儀物治具發言謹撰通政府君家狀以待成事也噫生逢道喪之時倫綱頹敗教化陵夷不復聞賢師諄誘之誨未得見良朋講質之論徒能讀書早退學業內乏事親氣耗捐諸病交發日益侵重將死乃已萬無遺憾乃先考遺稿未付鈐梓是一恨也嗚呼傳曰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余之將死前言復思僅把廢筆畧撫一生

素行記叙如右而爲後孫之參考焉

於 晚岡文集

소행록(素行錄)

이는 석일균(石一均)의 기록이니, 자(字)는 덕중(德中)이요, 자호(自號)는 만강(晚岡)이며, 본관(本貫)은 충주(忠州)이다. 상조(上祖)의 휘(諱)는 린(鄰)이니 송(宋)나라로부터 고려에 이르러 명종(明宗) 병신(丙申)·一一七六에 조위총(趙位寵)을 도벌한 공으로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졌으니 예성(藥城)은 곧 충주(忠州)의 옛 이름이다. 칠대(七代)를 지나 태종(太宗) 병신(丙申)·一四一六에 미쳐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檢校) 한성윤집현전제학(漢城尹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된 휘(諱) 여명(汝明)의 호(號)는 화원(花園)이니 십구세조(十九世祖)이다. 십육대조(十六代祖) 휘(諱)는 성옥(成玉)이니 벼슬이 이조참의(吏曹參議)였다. 연산군(燕山君)의 어지러운 조정을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밀양(密陽)에 은거하였다. 이가 휘(諱) 광정(光鼎)을 낳았으니 성균진사(成均進士)이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언우(彦佑)는 문행(文行)이 있었다. 선조(宣祖) 임진란(壬辰亂)에 의병으로 일어나 난에 달려갔고 비슬산(琵琶山) 인수동(仁壽洞)에 이르러 머물러서 인산(仁山)이라 자호(自號)했다. 이가 휘(諱) 운상(雲祥)을 낳으니 호(號)는 송암(松菴)이다. 수직

(壽職)으로 통정(通政)이 되었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되었다. 일찍 서울에 유학하였다가 광해군(光海君)의 어지러운 정치를 보고 물러나 숨어 절의를 행했다. 어버이를 모시고 내려와 기세리(奇世里) 남쪽 증승봉(重崇峯) 아래에 인산당(仁山堂)을 짓고 살았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최중(最重)이 있으니 호(號)는 경재(敬齋)이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僉知中樞)니 곧 육대조(六代祖)이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귀담(龜潭) 호(號)는 우우당(友于堂)、증조(曾祖)의 휘(諱)는 철한(轍漢)、호(號)는 청계(淸溪)、조부(祖父)의 휘(諱)는 치규(致奎) 호(號)는 지지당(知止堂)이니 문학(文學)으로서 대대로 전하였다. 부친의 휘(諱)는 재준(載俊) 호(號)는 소계(小溪)이니 일찍 문리(文理)를 통하여 만공와(晩菴窩) 윤공태로(尹公泰老)에게 수업(受業)하였고 임재(臨齋) 서선생(徐先生) 찬규(贊奎)를 사사(師事)하여 나아가 문로(門路)를 바르게 하였다. 어머니는 청도김씨(淸道金氏) 영헌공(英憲公) 지대(之岱)의 후손이고 양곤(陽坤)의 따님이니 부덕(婦德)이 갖추어졌다. 고종(高宗) 정해(丁亥)十一月二十七日에 교항(橋項)의 외가에서 불초(不肖)를 낳았다.

나는 성품이 본디 우미(愚迷)하고 바탕이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왕고(王考) 지공(知止公)이 사랑하여 여섯 살때에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을 다 가르치고 말솜하기를 『이 아이를 가르치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 하였다. 이해 동짓달 二十七日에 선비(先妣)가 비로서 분가를 하고 선달 十二日에 지지공(知止公)

이 세상을 떠나니 애통을 마지 않았다. 선고(先考)가 항상 육영재(育英齋)에 거처 하면서 인도하고 가르침이 차례가 있었고 산업에 힘쓰지 아니하니 선비(先妣)가 다만 불초(不肖)와 작은 일관한 사람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니 비록 어렵으나 농사철을 당하면 돌아와 힘써 농사일을 도왔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여가를 따라 들을 입었다.

경자(庚子)·一九〇〇)에 이르러 그때 나이 열네 살에 농사 방극(方劇)이 아니면 계속 들을 입었다.

계묘(癸卯)·一九〇三) 초하(初夏)에 동련(東蓮) 이백(李伯) 현영(鑣永)이 다시 영남(嶺南)에 부임하여 지취(地倅) 김영호(金榮浩)와 더불어 관학원(官學院)에서 강회(講會)를 베풀고 고을의 여러 선비를 부르자 선고(先考)가 여러 생도를 데리고 갔는데 대학(大學)으로써 응강(應講)했다.

병오(丙午)·一九〇六)년 봄에 신공(申公) 학유(學休)가 영백(嶺伯)으로 부임하여 구서당(舊書堂)을 헐고 신학교(新學校)를 세워 모든 학생들을 신학교에 몰아넣으니 후 이름을 숨기고 피하여 후 자취를 감추고 산에 들어갔으며 그 때에 주역(周易)을 읽었다. 또 이름을 부름으로써 관청(官廳)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선고(先考)께서 이르기를 『이것은 선비를 기르는 도가 아니니 응하여 쫓아내지 않는다.』라 말씀한다. 관청에서 수학(舊學)을 폐지하게 되자 다시 옛 들을 외

우지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였다.

정미(丁未)·一九〇七) 이월(二月)에 선친(先親)의 분부대로 임재선생(臨齋先生)의 대상(大祥)과 구암재(龜巖齋) 사림회(士林會)에 참여했다.

정술(庚戌)·一九一〇)七月에 일본이 정부(政府)를 협박하여 합방(合邦)에 조인하는 문서를 지어서 소리도 없이 나라가 망하니 산천이 진동하고 인심(人心)이 들끓어 충의(忠義)로운 사람이 절의에 죽고 현량(賢良)한 선비가 이름을 숨겼다. 신분이 비록 백면서생(白面書生)이나 분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여 이에 시(詩) 한수를 읊었으니 되었

하늘의 해는 다시 밝기 어렵고, 사람의 마음은 어둠에 빠졌네.

누가 태아(太阿)의 명검(名劍)으로 왜적을 섬멸하라?

하였다. 어른을 되시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세로(世路)에 떠돌면서 드디어 자신이 살아갈 계책을 하게 되나 다만 소남서(邵南序)를 외우면서 이르기엔 『산에서는 뱀나무를 하닌 물에서는 고기를 잡아 부모를 봉양하며 아침에 나가서 밭을 갈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뉘움을 의외의 일을 가르쳐 가도(家道)를 닦아 바르게 하고 험난한 세상을 잘 건너넘어 이것이 곧 본분이 된다.』고 하였다.

계축(癸丑)·一九一三)년 간에 향중(鄉中)의 석덕(碩德)을 갖추어 어른들이 상덕사(尙德社)의 자원(資源)을 회수하여 문우관(文友觀)을 창건하여 일향(一鄉)이 춘추(春秋)

로 강학(講學)하는 장소로 삼아 미강(溟江) 박선생(朴先生) 승동(昇東)을 관장으로 추대하고 선고(先考)를 강장(講長)으로 하여 매달마다 수강한 것으로서 본관(本觀)에 알렸다.

갑寅(甲寅)·一九一四 봄에 선친(先親)의 분부로 육영재(育英齋) 생도를 데리고 가서 강회(講會)에 참가하니 미강(溟江) 박선생(朴先生)이 강석(講席)에 임했는데 대학(大學) 경일장(經一章)으로 응강(應講)했다.

병진(丙辰)·一九一六 六月 四日에 조모(祖母) 윤씨(尹氏)가 세상을 떠나니 향년(享年) 八十四세다. 이때 새로 설치된 묘지법이 엄중하여 할 수 없이 임시로 공동묘지에 권조(權厝)했다.

신유(辛酉)·一九二一 묘춘(暮春)에 윤선균(尹善均) 임영상(林永相) 성병용(成丙鏞) 등과 더불어 협의하여 함영계(含英契)를 이루었다.

임술(壬戌)·一九二二 초하(初夏)에 미강(溟江) 박선생(朴先生)의 부고(訃告)가 이름에 선고(先考)의 위장(慰狀)과 만사(挽詞)를 가지고서 장례에 참석하여 조곡(弔哭)했다.

계해(癸亥)·一九二三 七月에 소계정(小溪亭)을 짓고 十一月 二十六日에 문득 선비(先妣)의 상을 만나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가운데 당시의 제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시로 공동묘지에 권조(權厝)하니 선고(先考)께서 이르기를 『한기(基)의 봉분

(封墳)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두 기(基)의 봉분(封墳)을 하랴?』 하였다. 불초(不肖)가 을면서 고(告)하기를 『빨리 산을 구하여 이장하겠습니다.』 하고 널리 삼위(三位)를 입장할 땅을 구하니 과연 어려웠다. 이에 이웃마을의 김모(金某)의 산판이 우리 산판과 더불어 정계를 접한 까닭으로 김모(金某)의 집과 교섭하여 바깥 어 드디어 관청의 허락을 얻어 묘지를 설정하니 곧 창계곡(蒼溪谷) 대등산(大登山)이다.

이해十一月初四日에 조비묘(祖妣墓)를 상봉(上峰)의 간좌(艮坐)에 안장(安葬)하였다. 八月二十三日은 선고(先考)의 회갑일(回甲日)이나 선고(先考)께서는 미리 정이천선생(程伊川先生)의 구경(俱慶)의 가르침을 들어 정계하는 까닭으로 간소하게 부친의 벃 모(某) 모(某)와 문생(門生) 몇 사람을 맞이하고 문족(門族)이 단란하게 모여서 수창하니 시운(詩韻)이 있었다.

정묘(丁卯)·一九二七 二月初六日 임인(壬寅)에 선비(先妣)를 대등산(大登山) 증봉(中峯) 간좌(艮坐)에 안장(安葬)하였다. 모춘(暮春)에 문우관장(文友觀長) 후담(後潭) 채공(蔡公) 헌식(憲植)이 편지로 불러 도용환(都龍煥)·김윤호(金允鎬) 제우(諸友)와 함께 달성(達城) 향약(鄕約)·계안(契案)을 수정(修正)하였다.

선고(先考)께서 일찍이 재종증조모(再從曾祖母) 진양강씨(晉陽姜氏)의 열행(烈行)이 드러나지 않았던 일로써 마음으로 항상 개탄하고 있었으나 자력(資力)이 넉넉하

지 못하여 일들을 거행치 못하다가 신미(辛未…一九三一) 중추(仲秋)에 소강(小岡) 김진옥(金振玉) 초산(樵山) 신장(申丈) 진섭(鎭燮)을 방문하여 지방 유림회와 협의하여 육영재(育英齋)에서 공론(公論)에 부쳐 비각(碑閣)을 세우는 일로 협정하니 사림(士林)과 문족(門族)이 특히 성력(誠力)을 더하여 오래지 않아서 이를 이루었으니 준공을 한 날은 임신(壬申…一九三二) 단오(端午)였다. 향도(鄉道)의 사림(士林)이 많이 와서 하례하였다.

계유(癸酉…一九三三) 봄에 달성인(達城人) 서병오(徐丙五)가 문우관장(文友觀長)으로서 상덕사(尚德社) 복구를 독촉하기에 편지로써 거절하는 뜻을 보였다.

병자(丙子…一九三六) 三月十七日에 제제(季弟) 명균(銘均)이 일본 신호(神戶)에서 죽으니 갑작스레 괴보(乖報)를 듣고 오장(五臟)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다. 급히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제문을 지어 흰백을 위로하고 유골(遺骨)을 안고 제부(弟婦)와 어린 조카를 안고 돌아오니 처량한 행색을 누구에게 말할고! 아! 애통하도다. 구산(舊山)에 뼈를 묻는 것이 후 애통할 것 같았다.

무인(戊寅…一九三八) 초춘(初春)에 이천(利川) 진암(珍巖)에서 대동보를 편수하는 통문을 보내왔다. 선고(先考)가 본디 대동보(大同譜)를 편수하는 일로써 마음에 원하였던 까닭으로 가서 참여하였다. 불초(不肖)가 선친(先親)의 뜻을 알고 따라 갔고 나가서 각처의 제족(諸族)과 더불어 협의하여 네 번 이천(利川)에 가서 장호원

(長湖院)에 보소(譜所)를 만들었다. 선고(先考)께서는 원유사(原有司)로써 일을 맡아 주관하였고 한달 남짓하여 서문을 지어서 돌아왔다. 보소(譜所)가 경성(京城)에 옮겨지니 세 번 경성(京城)에 갔고 또 대구(大邱)에 옮겨 이에 일을 마쳤다. 이해 초여름에 선친(先親)의 분부로 일신정(日新亭) 제회(契會)에 참여하여 함께 시를 지었다.

기묘(己卯)·一九三九 모춘(暮春)에 임연당(臨淵堂) 제회(契會)에 참여하니 노암(魯菴) 우하교(禹夏敎)가 주선하여 한 권의 책을 윤강(輪講)한대 대학(大學) 수장(首章)으로서 응강(應講)한 뒤에 함께 시(詩)를 읊었다.

갑신(甲申)·一九四四 三月에 인흥서원(仁興書院) 임사(任司)로서 이천(伊川)、세천(世川)의 추씨(秋氏) 양문(兩門)으로 편지를 보냈다.

을유(乙酉)·一九四五 七月 初八日에 일본이 물러갔다. 十日 술시(戌時)에 문득 선고(先考)의 상(喪)을 만나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통곡했다. 十月 二十日에 사림(士林)이 모여서 대등산록(大登山麓) 즉좌원(丑坐原)에 장례를 치루었다.

병술(丙戌)·一九四六에 선고(先考)의 유고(遺稿)를 수집하여 가장(家狀)을 대략 적고 복을 마친 뒤에 유고(遺稿)와 가장(家狀)을 안고 구암재(龜巖齋)로 서성암(徐性菴) 건수(健洙)를 방문하여 교정(校正) 및 행장(行狀)을 청하니 성암(性菴)이 바로 앉아서 읽어보고 기꺼이 승낙하였다. 초여름에 가장(家狀)을 안고 늘산당(訥山堂)

으로 전늘산(全訥山) 병곤(柄坤)을 방문하여 묘갈명(墓碣銘)을 칭하니 늘산(訥山)이 또한 기쁘게 허락하였다. 六月 七日에 함영계원(含英契員)이 육영재(育英齋)에 모여 묘비(墓碑)를 세우는 일로 공론을 하니 의논에 모두 동의하여 계금(契金)으로 바 탕을 삼고 門生과 門族도 또한 각각 찬조하여 오래지 않아 이루어짐에 十月 二十一日에 향도(鄉道) 유림(儒林)이 많이 모여 사림(士林) 고유(告由)를 행했다.

기축(己丑)·一九四九)에 교정(校正)한 유고(遺稿)를 다시 써서 아들 호관(鎬瓘)으로 하여금 구암재(龜巖齋)로 성암(性菴)을 방문하여 다시 교정(校正)하도록 했다.

경인(庚寅)·一九五〇) 증춘(仲春)에 병을 안고 용연사(龍淵寺)에 들어가 약을 먹는 여가에 열행실기(烈行實記)를 정서(正書)하여 묘열각(墓烈閣)에 보존하고 이어 선고(先考) 유고(遺稿) 정본(正本)을 썼다.

임진(壬辰)·一九五二) 三月에 문족(門族)이 합의하여 비로소 인산당(仁山堂) 증건(重建)을 계획하여 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집이 이루어지니 진실로 이른바 『하루도 되지 않아 이루어졌다』고 할 만하다. 아들 호관(鎬瓘)으로 하여금 편지를 가지고 임연당(臨淵堂)으로 가서 성암(性菴)을 뵈고 인산당(仁山堂) 증건(重建) 기문(記文)을 칭하도록 했다. 五月 日에 족종제(族從弟) 도균(道均)이 육대조(六代祖) 고통정공(考通政公)의 묘소에 의물(儀物)을 갖추는 것으로써 말을 하기에 삼가 통정부군(通政府君) 가장(家狀)을 지어 성사(成事)가 되기를 기다렸다. 아! 도가(道家)가

쇠퇴한 시대에 태어나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교화가 ①릉이(陵夷)함에 다시 어진 스승의 정성스럽게 인도하는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좋은 벗이 가뭇하고 질정하는 의복을 다시 볼 수 없어 한갓을만 입고 일찍 학업에서 물러나 안으로는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이 부족하고 밖으로는 어른을 공경하는 도를 소홀히 하여 헛되이 일생을 마치니 후회한들 어찌 미칠까? 나아가 이순(耳順)을 넘으니 이래로 五六年간에 혈기가 쇠하니 여러 병이 번갈아 일어나 날로 더욱 침중하니 장차 죽으면 그만이 다. 만에 하나라도 유감이 없으니 선고(先考)의 유고(遺稿)를 인쇄에 부치지 못하니 이것이 한가지 한이다.

아! 논어(論語)에 말하기를 『새가 장차 죽으려 함에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함에 그 말이 선하다.』 하니 내 장차 죽으려 함에 앞의 말을 다시 생 각하여 저우 닳은 붓을 쥐고 대략 일생(一生)의 소행(素行)을 모아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후손의 참고로 삼는다.

만강문집(晩岡文集)에서

【주(註)】

①릉이(陵夷) : 가릉(岡陵)이 점점 낮아져서 평지(平地)가 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물(事物)이 점차(漸次) 쇠퇴(衰頹)한다는 뜻. 진서(珍書) 유림전(儒林傳)에 『아송릉이(雅頌陵夷)』라 하였음.

晚岡處士諱一均記

達句之西南四十里許有一名閑迺我十一世祖仁山公始奠之奇世也毘山南屹巖巖有萬丈之氣像洛江北流浩浩有千頃之活潑流峙中間巍然峻秀者達道山也山勢崢嶸地形豐厚南顧西走宛如征驂而小下中止一枝北下逶迤低行而回勢西下至中凹突處上古有一大樹名曰望江亭蓋北望洛東江之義也中古無亭樹而爲一岡陵我先六五四世祖考妣衣履攸藏之地也元枝直走而舉首爲東山而西下洞壑深邃乃曾祖禰世居傳受之址也且先人小溪亭在於其中也而先山容勢緩晚秀繞固遮北面不見洛東江然則此非望江也乃是晚岡也晚者山勢晚秀之謂也岡者地形岡陵之謂也吾家靠北山而延線居之則晚秀之發蔭如岡如陵萬世無彊矣賴此自號而晚岡之松柏鬱鬱含翠四時長春有茂悅之風則可以知主翁之心志也故忘拙以實記之

於晚岡文集

만강기(晚岡記)

달성(達城)의 서남쪽 四十리쯤에 한 이름난 마을이 있으니 나의 十一세조 인산공

(仁山公)께서 처음으로 옮겨와 살게 된 기세리(奇世里)이다. 비슬산(琵琶山)이 남쪽에 높고 솟아 암암(巖巖)하게 만장(萬丈)의 기상(氣象)이 있고, 낙동강(洛東江)이 북쪽으로 흘러浩浩(浩浩)하게 천정(千頃) 활발(活潑)함이 있다. 이 물과 산의 사이 에 높이가 빼어난 것이 달도산(達道山)인데 산세가 가파르고 지형이 두터우며 남쪽으로 향하였다가 서쪽으로 뻗으니 모습이 완연히 달리는 참마(驂馬)와 같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다가 증간의 그쳐 한 줄기가 북쪽으로 내리면서 길게 뻗어 아래로 가다가 형세를 되돌려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운데의 으쓱한 곳에 이른다. 상고(上古)에는 한스루의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름을 망강정(望江亭)이라 하였으니 대개 북쪽으로 낙동강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중고(中古)에는 정자나무는 없어지고 한강릉(岡陵)이 되었으니 우리 육세(六世) 이래의 조고(祖考), 비(妣)의 산소가 있는 곳이다. 중심의 줄기가 곧바로 달리다가 머리를 들어 동산(東山)이 되고, 서쪽으로 내려와서는 동학(洞壑)이 깊고 으쓱하니 곧 증조(曾祖) 이래 대대로 살면서 전하여 온 터전이며, 또한 선인(先人)의 소계정(小溪亭)이 그 가운데 있는데 선산(先山)의 용세(容勢)가 원만(緩晚)하고도 수요(秀繞)하여 북쪽을 가로막아 낙동강을 볼 수 없다. 그러한 즉 이는 망강(望江)이 아니라 만강(晩岡)이다. 만(晩)이라는 것은 산세의 만수(晩秀)함을 일컬음이고, 강(岡)이라는 것은 지형의 강릉(岡陵)을 이른다. 우리 집이 북산(北山)에 의지하여 오래도록 산다면 만수(晩秀)의 발음(發蔭)이 강릉(

(岡陵)과 같아서 만세(萬世)토록 다함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자호(自號)를 삼는데 만강(晩岡)의 송백(松柏)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늦도록 푸른빛을 머물어 사시(四時)에 길이 봄기운을 띠고서 송무백열(松茂栢悅)의 기풍이 있다면 주옹(主翁)의 심지(心志)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졸(愚拙)함을 잊고 사실로써 기록한다.

만강문집(晩岡文集)에서

晩岡遺稿序

夫爲學之道有二有務實之學有務名之學務其實而不顧乎外者爲己也務其名而不脫乎循名之習者爲人也而是則徒務章句悅人耳目者耳晩岡石公諱一均以穎敏之才胚胎乎小溪處士公之庭素有薰沐濡染既就學服膺乎過庭之訓慥慥乎問學之工文詞日進而爲一時流輩所推重不以賢知自處務其韜晦庚戌社屋不勝憤慨乃呼一絕曰天日復難明人心盡入墨誰將太阿刀殲滅島中賊誦董邵南序曰山而樵水而漁以養父母朝出耕暮歸讀以教兒子修正家道利涉險世是侍下人之道理取武侯淡泊明志寧靜致遠八字書于壁而自省焉世皆推移我獨不移以經濟之手政于家而孝友家門和雍人無間

言處于鄉而忠信鄉黨咸悅信之如著龜又不喜著述惟其先世懿蹟及鄉隣潛德之闡揚惟恐人後其辭旨平淡典實有非操弄觚墨之流讀其書誦其詩可以知公操履之正爲先之誠爲其後者圖所以不朽者固可矣日者公之五子鎬瑾奉遺文而來俾余丁乙且請一言而弁卷自顧淺識固謝以匪敢鎬瑾與迷兒春相得甚懽有難終辭乃畧加點化書此而歸之第文弊道喪莫若此時若是集之出便是秦灰之回煖使世之好古者讀之服膺而體行之則安知非扶世教牖後學之爲一助耶

歲戊辰流火節 安東 權五根 謹叙

만강유고서

대저 학문에 두 가지 길이 있으니 실천에 힘쓰는 학문과 명리(名利)에 힘쓰는 학문이 있다. 그 실천에 힘쓰며 다른 방향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위지학(爲己之學)」이고, 그 명리(名利)에 힘쓰면서 명리를 따르는 습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위인지학(爲人之學)」이니 이 같은 것은 다만 장구(章句)에만 힘쓰고 남의 이목(耳目)만을 즐겁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만강(晩岡) 석공(石公)의 휘(諱)는 일균(一均)이니 영민(穎敏)한 재질로써 소계처사(小溪處士)의 가정에서 태어나 본디부터 그 가르침에 깊이 유염(濡染)①되어 있었

다. 이미 배우기에 나아가서는 과정지훈(過庭之訓)②에 복응(服膺)하고 문고 배우는 공부에 부지런히 하여 문사(文詞)가 날로 진보하여 한 때의 유배(流輩)들에게 추증(推重)을 받았으나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에 힘썼다. 경술(庚戌:一九一〇)년에 사직(社稷)이 망하자 을받음을 이기지 못하고 한 수의 시를 읊어 『하늘의 해는 다시 밝기 어렵고, 사람의 마음은 모두 어둠에 빠졌네. 누가 태아(太阿)③의 명검(名劍)으로써 왜적을 섬멸하라?』라 하였다.

또 동소남(董邵南)의 글을 외우면서 이르기를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아 어버이를 받들고 아침에 나가 밭갈고 저녁에 돌아와 글을 읽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도를 닦아 바르게 하면서 험한 세상을 잘 건너는 것이 어른을 되시고 있는 사람(도리)』 하였다. 제갈공명(諸葛孔明)의 『담박(淡泊) 명지(明志) 영정(寧靜) 치원(致遠)』의 여덟 글자를 벽에 써서 스스로 반성하였다. 세상이 모두 변하여 율저가도 자신만은 홀로 옳아가지 않았다. 세상을 정통하고 백성을 건질 수 있는 학문으로서 가정을 다스리기에 효우(孝友)로써 하니 가문의 화락하여 남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으니, 그들에게 처신함에 충신(忠信)으로서 하니 향당의 모두 기뻐하여 믿기를 시귀(著龜)④처럼 하였다. 또 글을 짓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오직 선세(先世)의 이름다운 자취와 향린(鄉隣)의 그윽한 덕(德)을 드러내 밝히기에는 남보다 뒤질

까 두려워하였다. 그 사지(辭旨)가 평담(平淡)하고 진실(典實)하여 문장만을 일삼는 무리가 아니었으니 그 글을 읽고 그 시를 외움에 공의 바른 자세를 알 수 있고 조상을 위하는 정성과 후인을 위한 것이 영원히 전할 바를 도모한 것임을 진실로 알 수가 있었다.

하루는 공(公)의 다섯째 아들인 호근(鎬瑾)이 유문(遺文)을 받들고 와서 나에게 교정[정을(丁乙)⑥]을 부탁하고 또 일언(一言)으로 서문(序文)을 써주기를 정한다.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 보니 알은 식견인지라 감히 할 수 없다고 굳이 사양하였으나 나의 아들 대춘(大春)과 서로 매우 잘 지내는 사이였기에 끝내 사양하기 어려워하여 대략 점화(點化)⑥하고 이 글을 써서 돌려보낸다.

다만 사문(斯文)이 피폐하고 도(道)가 살실된 것이 지금 이때와 같은 적이 없는데 만약 이 유집(遺集)의 나음이 마치 진회(秦灰)⑦에서 다시 나온 듯하여 세상에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읽고 복응(服膺)하여 몸소 실행하게 한다면 어찌 세교(世教)를 일으키고 후학(後學)을 깨우치는 일조(一助)가 되지 않겠는가?

歲戊辰(一九八八年) 유화절(流火節)⑧에

안동(安東) 권오근(權五根) 삼가 씀

【주(註)】

① 유염(濡染) : 전분(見聞)이라는 뜻. 눈에 익히고 귀에 젖음.

② 과정지훈(過庭之訓) .. 부형(父兄)의 교훈(教訓)을 이룸하니, 공자(孔子)의 아들 리(鯉)가 공자

(孔子)의 뜰앞을 지날 때 공자(孔子)께서 『리(鯉)야 네가 시례(詩禮)를 배웠느냐 시(詩)와 예(禮)를 배우지 않고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느니라』는 훈계(訓戒)를 받았다는 고사(故事)。

③ 태아도(太阿刀) .. 명검(名劍)의 이름.

④ 시귀(著龜) .. 시초(著草)와 귀갑(龜甲)으로 모두 짐치는 도구.

⑤ 정을(丁乙) .. 교정(校正)을 이룸.

⑥ 점화(點化) .. 교정(校正)을 이룸. 의심(疑心)나는 곳이나 잘못된 글자에 「·」으로 표시(表示)함。

⑦ 진회(秦灰) .. 진시황(秦始皇)이 시서(詩書)를 태운 잿더미.

⑧ 유화절(流火節) .. 음(陰) 칠월(七月)을 이룸. 七月에 화성(火星)이 서(西)로 흐른다는 뜻.

忠州石氏 進士公派 家乘序

周官小史有大宗小宗之分大宗云者自始祖以下數百代累子孫昭穆序次之統也小宗云者各派祖以下歧分傳承之系也然則大小之宗同是一原也惟吾石氏自始祖東蒞以來子孫其麗不億而何幸今者各處舉族同心協力合成大同譜世系宗支昭昭可見矣何用疊架爲吾派家乘哉顧念世界風潮或東移西徙或南走北奔莫有定居財力不逮大譜十四卷冊子難以箇箇人家奉審故不得不謀于吾派內闔族別爲家乘一冊使家家而藏

之雖時變世換若子若孫有時考覽則亦可以識祖宗之所自出矣蘇氏所謂詳尊吾之所自出者此也若或欲詳知各處舉族之世系宗支則當就守大譜之宗宅而考之則昭穆之序名行之次可見矣人之祖宗譬如水之有源九河旣道崑崙之河源可尋沱潛旣道岷嶓江漢之源可溯矣今吾派之家乘亦一水派之旣道於是乎書

於 晚岡文集

충주석씨 진사공파 가승서

주관(周官) 소사(小史)에 대종(太宗)과 소종(小宗)의 구분이 있으니 대종(太宗)이라는 것은 시조(始祖)로부터 이하로 수백대(數百代) 여러 자손의 소목(昭穆) 서차(序次)의 계통이고, 소종(小宗)이라는 것은 각 파조(派祖)이하로 갈려져 나뉘어 전해 내려온 계통이다. 그러한 즉 대종(太宗)과 소종(小宗)은 같이 한 근원이다.

우리 석씨(石氏)는 시조(始祖)가 동국(東國)에 온 이래로 그 자손의 수효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다행히 지금 각처의 온 처레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대동보(大同譜)를 완성하였으니 세계종지(世系宗支)를 환히 볼 수 있거늘 어찌 우리 파(派)의 가승(家乘)을 거듭하는 것인가? 지금 세계의 풍조가 후 동서(東西)로 옳고 그 후 남북(南北)으로 달려 일정한 거처가 있지 않고 재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대동보(大同譜) 十四권의 책자(冊子)를 개개인의 집에서 받들어 되시기가 어렵다. 그러

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파내(派內)의 일족(一族)이 의논하여 별도로 가승(家乘) 일책(一冊)을 만들어 집집마다 가진하여 비록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자손들이 때때로 살피서 본다면 또한 조종(祖宗)이 온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니 소씨(蘇氏)의 이른바 『우리가 나온 바를 상세히 알아서 존중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에 혹 각처 온 저래의 세계종지(世系宗支)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대동보(大同譜)를 되시고 있는 종택(宗宅)에 나아가서 살피보면 소목(昭穆)의 차서(次序)와 명행(名行)의 차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조종(祖宗)은 비유컨대 물이 원천이 있는 것과 같으니 구하(九河)①에 이미 물길이 트임에 곤륜(崑崙)산의 하원(河源)을 살필 수 있고, 타잠(沱潛)②이 또한 그 물길이 트임에 민파(岷嶓)③ 강한(江漢)④의 근원을 거슬러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파(派)의 가승(家乘)도 또한 일수(一水)의 파류(派流)가 이미 길일을 얻은 것과 같을새 이에 씀.

만강문집(晩岡文集)에서

【주(註)】

① 구하(九河)··우왕(禹王) 때 황하(黃河)의 지류(支流) 아홉을 이름이니 구회(九澮), 도해(徒亥), 태사(太史), 마협(馬頰), 복(覆), 호소(胡蘇), 간(簡), 절(潔), 구반(鉤盤), 격진(鬲津)임. 모두가 곤륜산(崑崙山)에서 발원(發源)하여 각각(各各) 흐르다가 황하(黃河)에 합류(合流)되었음.

② 타잠(沱潛)··모두 강이름으로서 사천성(四川省)에서 발원(發源)하여 양자강(楊子江)에 합류(合

流)되었음.

- ③ 민과(岷嶓) .. 모두 산(山) 이름이니 민산(岷山)은 양자강(楊子江)의 발원(發源)지임.
 ④ 강한(江漢) .. 양자강(楊子江)과 한수(漢水)를 이름.

跋

程夫子嘗曰收宗族厚風俗莫如明譜系此祖宗以來舉族譜睦厚遠之規也蘇老泉譜序有曰自吾之父以至族吾之高祖配位存歿諱壽皆書之他不書之獨詳尊吾之所自出也此獨派分岐之別也今吾石氏既合大同譜則世系昭穆親疎居住昭昭可知矣然財匱力綿不能家家而奉審冊子故別爲吾派之家乘雖袒免以外之親詳書之家家奉守之父而詔子子而傳孫則自高祖而上至於始祖之所自出可見也蘇氏所謂詳尊吾所自出者豈非以此耶鋟梓之日忘拙書于卷尾

庚辰十月 日 後孫 祥均 謹跋

跋(跋)

정부자(程夫子)가 일찍이 「종족(宗族)을 수습하고 풍속(風俗)을 돈독히 함은」 족보

를 밝히는 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종(祖宗)의 뒤로 온 종족이 화목을 돈독히 하고 촌수가 먼 친족을 두터이 하는 규범이다. 소노천(蘇老泉)이 『족보서(族譜序)』에서 「나의 부친(父親)으로부터 나의 고조(高祖)에 이르기까지 배위(配位)의 존몰(存沒)과 휘수(諱壽)를 모두 기록하고 다른 것은 쓰지 않으며 오직 내가 나오게 된 근본을 상세히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다만 갈라진 분파(分派)를 구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석씨(石氏)가 이미 대동보(大同譜)를 합한 즉 세계(世系)、소목(昭穆)、친소(親疎)、거주(居住)를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물이 다하고 힘이 약하여 집집마다 책자를 받들어 모실 수 없는 까닭으로 따로 우리 파(派)의 족보를 만들어서 팔촌(八寸) 이상을 벗어난 친족이라도 상세히 써서 집집마다 받들어 지키게 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들이 손자에게 전하면, 고조(高祖) 이상으로부터 시조(始祖)가 나온 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즉 소씨(蘇氏)가 이른바 「내가 부터 나오게 된 근본을 상세히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이것이 아니겠는가? 인쇄하는 날에 보잘 것 없음을 잊고 책의 끝에 쓴다.

경진(庚辰)·一九四〇) 十月 일외

후손(後孫) 상균(祥均)은 삼가 발문을 쓰다

敬齊公諱最重家狀

府君諱最重字君大號敬齋我石籍忠州上祖諱鄰自宋寓高麗明宗丙申討趙位寵有功封藥城君藥城卽忠州舊號也五傳諱良善配永興崔氏永興伯靖孝公閑奇女太祖大王姨母也太祖誕甫五朔懿惠王后昇遐崔氏乳養焉太祖御極以鞠養之恩封崔氏爲慶昌翁主追封公洪陽府院君生諱天乙通政大夫官中郎將外祖靖孝公無嗣太祖命公奉祀御書下賜畧曰同乳兄弟誼如山海恩生諱汝明號花園高麗恭愍王甲寅登乙科官注書太宗丙申以王旨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公以岡僕之義下就乃安置于忠州車依山回文洞以終褒其忠贈崇祿大夫左贊成三傳諱成玉官吏曹叅議當燕山昏朝棄官南下隱居密陽清川洞次子諱光鼎成均進士四傳諱彥佑值宣廟壬辰亂仗義赴亂自密陽至琵琶山仁壽洞以止自號仁山於府君爲五世祖也高祖諱雲祥號松菴壽資通政大夫贈資憲大夫早修舉業見光海政非退隱行義陪親北下至奇世南重崇峯下築仁山堂而侍居曾祖諱春南祖諱震傑考諱哲曾僑于高靈縣東九谷里妣慶州崔氏父輔仁肅宗丁丑正月二十三日生府君天姿英敏早修文學正心行義士友推重之及考妣俱歿有先鄉之思率兄子擎天柱天還卜達道山下以居無意舉業永矢林樊篤學好古不求人

知治家立規孝友敦睦奉祭祀以儀禮接賓友以信敬教子姪以詩禮俱成儒業以正家道世傳文學英廟己丑修譜于三嘉吾姓之有譜由此始而尊祖收族爲裕後例規也修德年高乾隆四十一年丙申以優老典除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八十加上尊號後推恩加資事翌年丁酉四月陞僉知中樞府事己亥三月二十九日卒享年八十三葬于奇世洞望江岑上乙坐原配淑夫人益城許氏父遂己卯生癸巳二月二十五日卒墓與公位雙兆附左生五男長補天次奉天天益鍊天天祚補天男龜文奉天男龜源天益男龜華龜現龜範龜疇龜形鍊天男龜泓龜江龜珍龜貼龜浹天祚男龜澤龜澂龜澄曾玄不盡錄府君藏收後殆今百七十餘年之久而孝友之誠敦睦之誼奉祀之禮接賓之敬文學之業不泯而尚存嗚呼偉哉府君之陰德悠久無疆洋洋乎如在左右而墓道之儀尚闕將爲顯刻謁銘于當時立言之君子故畧述家庭所傳聞知如右立俟採擇焉

於晚岡文集

정제공 휘 취증 가장

부군(府君)의 휘(諱)는 취증(最重)、자(字)는 군대(君大)、호(號)는 경제(敬齋)이다. 우리 충주석씨(忠州石氏)는 상조(上祖)의 휘(諱)가 린(鄰)이니 송(宋)나라로부터 고려(高麗)에 옮겨와 살아 명종(明宗) 병신(丙申) 一一七六에 조위충(趙位寵)을

도별한 공이 있었으므로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졌으니 예성(藥城)은 즉 충주(忠州)의 옛 이름이다. 오대(五代)를 지나 휘(諱) 양선(良善)의 부인은 영흥최씨(永興崔氏)이니 영흥백 정효공(永興伯 靖孝公 閑奇)의 따님이고 태조대왕(女太祖大)의 이모(姨母)이다. 태조(太祖)가 태어난지 겨우 다섯달 만에 의혜왕후(懿惠王后)가 돌아가지니 최씨(崔氏)가 젖을 먹여 길렀다. 태조(太祖)가 왕위에 올라서 길러주신 은혜로서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고 공(公)은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追封)되었다. 부원군(府院君)이 천(天)을 낳으니 통정대부(通政大夫)이고 관직은 중랑장(中郎將)이었다. 외조(外祖) 정효공(靖孝公)이 후사가 없으니 태조(太祖)가 공(公)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명하고 어서(御書)를 내려 말하기를 『같은 젖을 먹고 자랐으니 형제의 의이고 산해(山海)같은 은혜라.』 하였다. 휘(諱) 여명(汝明)을 낳으니 호(號)는 화원(花園)이요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一三七四)에 을과(乙科)에 올라 관직이 주서(注書)였다. 태종(太宗) 병신(丙申)·一四一六)에 왕명(王命)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檢校) 한성윤(漢城尹)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에 제수되었으나 공(公)은 강복(岡僕)의 절의로써 나아가지 아니함(忠州) 차의산(車依山) 회문동(回文洞)에 안치(安置)되어 세상을 마치니 조정에서는 그 충절(忠節)을 기려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에 추증하였다. 삼대(三代)를 지나 휘(諱) 성옥(成玉)은 관직이 이조참의(吏曹參議)니 연산군(燕山

君)의 어지러운 조정을 당하여 관직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밀양(密陽) 청천동(淸川洞)에 은거하였다. 둘째 아들 휘(諱) 광정(光鼎)은 성균관진사(成均進士)이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언우(彦佑)는 선조(宣祖)때 임진란을 만나 의병으로 난에 나아갔고 밀양(密陽)으로부터 비슬산(琵琶山) 인수동(仁壽洞)에 이르러 살면서 인산(仁山)이라고 자호(自號)하였으니 부군(府君)에게는 오대조(五代祖)가 된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운상(雲祥)이고 호(號)는 송암(松菴)이니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되었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하다가 광해군(光海君)의 정사가 그릇됨을 보고 물러나 숨어 절의(節義)를 행하여 어버이를 모시고 내려와 기세리(奇世里) 남쪽 중봉(重崇峯) 아래에 이르러 인산당(仁山堂)을 짓고 살았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춘남(春南), 조부의 휘(諱)는 진걸(震傑), 부친의 휘(諱)는 철증(哲曾)이니 고령현(高靈縣) 동쪽 구곡리(九谷里)에 살았다. 어머니는 경주최씨(慶州崔氏)니 아버지는 보인(輔仁)이다.

숙종(肅宗) 정축(丁丑)·一六九七 정월(正月) 이십삼일(二十三日)에 부군(府君)을 낳았다. 부군(府君)은 타고난 자품(姿品)이 영민(英敏)하고 일찍 문학을 닦아 마음은 바르게 하고 義무를 행하니 사우(士友)들이 추증(推重)하였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심에 선향(先鄉)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 형의 아들 경천(擎天), 주천(柱天)을 데리고 달도산(達道山) 아래에 돌아와 살면서 과거공부에 뜻이 없었고 길이 임천(林泉)에

살 것을 맹세하여 배움에 독실하고 옛것을 좋아하여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아니 했다. 짐을 다스리기엔 법도를 세우고 효우(孝友)와 돈독(敦睦)을 하였으며 제사(祭祀)를 의례(儀禮)로써 받들고 손님과 벗들을 믿음과 공경으로써 접하고 자질(子姪)은 시례(詩禮)로써 가르쳐 함께 유업(儒業)을 이루어서 가도(家道)를 바르게 하여 대대로 문학(文學)을 전수했다. 영조(英祖) 기축(己丑) : 一七六九)에 삼가(三嘉)에 서 족보(族譜)를 편수하였으니 우리 석씨(石氏)가 있음은 이로부터 비롯하였고 조상을 높이고 종족을 거두어 후손에게 드리우는 본보기가 되었다. 덕을 닦고 연세가 높아 건륭(乾隆)四十一年 병신(丙申) : 一七七六)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으로써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제수되고 팔십(八十)에 ①가상(加上) 존호(尊號)를 한 뒤에 가자(加資)의 은전(恩典)이 있었으니 다음해 정유(丁酉) : 一七七七) 四月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다. 기해(己亥) : 一七七九) 三月二十九日에 돌아가시니 향년(享年)이 八十三이었다. 기세동(奇世洞) 망강령(望江峯) 위을좌(乙坐)의 산 등성이에 안장(安葬)하였다.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분성허씨(盆城許氏)이니 아버지는 준(遵)이고 기묘(己卯) : 一六九九)에 태어나 제사(癸巳) : 一七七三) 二月二十五日에 돌아가셨고 묘소는 공(公)의 자리와 더불어 무덤을 나란히 하였는데 왼쪽에 부장(祔葬)하였다. 다섯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보천(補天)이고 次男(은) 봉천(奉天)、천익(天益)、연천(鍊天)、천조

(天祚)이다. 보천(補天)의 아들은 귀문(龜文)이고, 봉천(奉天)의 아들은 귀원(龜源)이고 천익(天益)의 아들은 구화(龜華), 구현(龜現), 구범(龜範), 구주(龜疇), 구형(龜形)이고 연천(鍊天)의 아들은 구홍(龜泓), 구강(龜江), 구진(龜珍), 구첩(龜貼), 구협(龜浹)이고 천조(天祚)의 아들은 구택(龜澤), 구담(龜潭), 구징(龜激)이다.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부군(府君)이 돌아가신 후에 거의 지금 일백칠십여년의 오람인데도 효우(孝友)의 정성과 돈목(敦睦)의 정의를(情誼), 제사를 받드는 예, 손님들 대접하는 공경, 문학의 유업(遺業)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남아 있으니 아! 위대하다. 부군(府君)의 은덕(隱德)이 오래도록 다하지 않아 양양(洋洋)하게 좌우에 채신 듯 하지만 묘도(墓道)의 의물(儀物)이 아직까지 갖추어지질 않았다. 이에 장차 비석을 세우려 하여 당시 임언군자(立言君子)에게 명(銘)을 청한다. 이런 까닭으로 가정에서 전하여 들어 아는바를 대략 이상과 같이 서술하여 곧 채택하기를 기다린다. 만경문집(晩岡文集)에서

【주(註)】

①가상존호(加上尊號) : 이는 정조(正祖)가 왕위(王位)에 올라 그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왕(王)에 관봉(官封)하여 『장조(莊祖)』라 하였음. 국경(國慶)이 있을 때는 칠십세(七十歲) 이상(以上)의 관원(官員)에게 일제자(一階資)씩 올리는 은전(恩典)이 있었음.

學圃公諱基永回婚宴序

配匹之際人倫之始而萬福之源也一齊之後內外靜好而期與偕老者固人人所同願而若壽夭長短亦非人力所可及者也上古之人養性淳厚壽固尚矣叔李以降氣數漸薄稟賦不富人之壽考者蓋鮮焉或偕老而昏日重回尤所難者也一或有賢夫婦期頤無恙值厥重牢之辰則人世罕有之慶莫大於此寧可以歇過哉今丁丑四月十二日吾學圃公三從兄回昏之日也兄在髻鬣端厚沉默凝然有成人之器既而親迎能體乾剛之德正位乎外御之以禮夫人于歸和順專貞宜家宜室既多內助之化真所謂窈窕好逑也其壽考而偕老者固天公所佑而亦自攝養之由也公之長子箴均與弟若子謀飾欲設宴而公以氣憊固辭但陞堂稱觥獻壽又請鄉黨族戚故舊竟日飲酬或歌詩以稱頌曰人家六旬回甲猶稱之以慶而况甲而又回昏日乎又芝蘭滿庭麟趾繞膝可謂人世之福盡備其家也公之生養兩親壽不過四十此公平日孝思之通憾者也天亦感其誠而萃壽乎公之夫婦歟今公壽躋七十有六精神筋力尚未昏耗應接人事小不迷錯夫人方人旬有一體康氣平動止安常亦到老尤鮮之事也詩曰樂只君子萬壽無疆伏願公之康寧壽福自今以後如日方昇如川方臻至於無疆則地上行仙可望耳

학포공 휘 기영 회혼연서

배필(配匹)을 맺는 즈음은 인류(人倫)의 시초이며 만복(萬福)의 근원이다. 한 번 나란히 배필(配匹)을 맺은 뒤로 내외(內外)가 정호(靜好)하여 해로(偕老)하기를 기약하는 것은 진실로 사람들마다 함께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래 살고 일찍 죽어서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또한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오랜 옛적의 사람들은 심성(心性)을 기쁨이 순수(淳厚)하여 오래 사는 것이 진실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수세(叔世) 이래로는 기수(氣數)가 점차 박하고 품부(禀賦)가 넉넉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가 대개 드물었다. 후해로(偕老)하여 회혼(回婚)을 맞이하는 경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한나이라도 후어진 부부(夫婦)가 되어 백세(百歲)가 되도록 아무 탈이 없이 회혼일(回婚日)을 맞이하였다면 인세(人世)에 드물게 있는 경사(慶事)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겠는가?

올해 정축(丁丑) 一九三七년(四月 十二日)은 우리 학포공(學圃公) 삼종형(三從兄)의 회혼(回婚) ① 회혼(回婚)의 날이다. 공은 어린 나이로부터 단후(端厚)하고 침연(沉默)하여 점잖게 성인(成人)의 기국(器局)이 있었다. 이르고 부인(夫人)을 맞이하여서는 능히 남편으로서의 덕(德)을 익혀 밖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하여 예(禮)로써 다

스렸다. 부인(夫人)은 시집을 와서 화순(和順)하고 오로지 정숙(貞淑)하게 하여 실가(室家)를 훌륭하게 이루었고 이미 내조(內助)의 공이 많았으니 참으로 이른바 「요조숙녀(窈窕淑女)가 군자(君子)의 훌륭한 배필(配匹)」이라 하겠다. 이 부부(夫婦)가 오래 살고 해로(偕老)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이 도운 바이고 또한 스스로 섭양(攝養)했던 까닭이다. 공(公)의 장자(長子)인 잠균(箴均)은 아우와 아들들과 함께 깨이 경사(慶事)를 꾸미기를 꾀하여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公)은 달프다는 까닭으로 군이 사양을 하였으니 다만 정당(正堂)에 올라 잔을 받들어 헌수(獻壽)하고, 또 향당(鄉黨)과 족척(族戚)의 벗들을 청하였다. 종일도록 술을 마시고, 후 시가(詩歌)를 짓고 칭송(稱頌)하기를 『인가(人家)에서 육순(六旬)의 회갑(回甲)조차도 오히려 경사(慶事)라고 일컫는데 하물며 회갑(回甲)을 넘어 또 회혼일(回婚日)이겠는가? 또 훌륭한 자손들이 집안에 가득하고 ②인지(麟趾)가 무릎을 꿇었으니 참으로 인세(人世)의 복(福)이 그 집에 다 갖추어졌다.』라 하겠다. 공(公)은 생양정(生養庭) 양친(兩親)이 사십세(四十歲)를 넘기지 못하였다. 이는 공(公)이 평소애 그 어버이를 위하여 슬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으니 하늘도 또한 그 효성(孝誠)에 감동하여 공(公)의 부부(夫婦)에게 수복(壽福)을 함께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공은 칠십육세(七十六歲)에 이르렀어도 정신과 근력이 아직까지 오히려 어둡거나 쇠하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처리함에 조금

도 차착이 없으며, 夫人은 바야흐로 팔십일세(八十一歲)인데 기체(氣體)가 평강(平康)하고 동지(動止)가 안상(安常)하니 또한 노경(老境)에 이르러 더욱 보기 드문 일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화락(和樂)한 군자(君子)여! 만수(萬壽)를 누리 그지 없으소서. (樂只君子 萬壽無疆)』 이라 하였다. 얻드려 바라건대 공(公)의 수복강령(壽福康寧)이 지금으로부터 마치 해가 바야흐로 솟는 듯이 하고 냇물이 바야흐로 이루르듯 하여 그지 없기에 이르다면 땅위로 다니는 신선(神仙)을 바라볼 수 있겠으리라.

소계문집(小溪文集)에서

【주(註)】

- ① 회혼(回婚) .. 합혼례를 올린 날이 六十一年이라는 말. 회혼(回婚)
 ② 인지(麟趾) .. 시경(詩經) 소남(召南) 인지지편(麟之趾篇)에 있는 말로서 부인(夫人)의 덕(德)이 자손(子孫) 종족(宗族)에서 모두 선화(善化)됨을 이룸.

嶺隱公 諱元均 孝行實記

余之三從兄元均字章旭號嶺隱生高宗庚辰幼而性孝七歲喪母哀號擗踊如成人事親

以誠凡有使命唯而從之夙夜不違大小之事必稟之待命而行之侍奉繼母尤盡誠敬小無間言性素勤儉朝耕暮讀山樵水漁甘旨不乏善養其志奄及遭喪殮殯襄祭一遵家禮哀毀過度三年全廢魚肉酒草不洗朝夕之奠號哭哀痛一如袒括之日人或以孝傷孝喻之則曰我本不孝何以傷孝一心終祥鄉里推重稱其至誠之孝也伯考早逝無子順親遺命出系而承宗取從弟系生家是亦爲先之孝也如此懿行吾門父老共所證之也而世值滄桑人心翻覆綱常敗斃國絕旌褒之典官無揚善之賞是可冤惜故畧撫其實以俟後日秉彝君子採筆之時以是爲證而記之爾

於晚岡文集

영이공 휘원균의 효행실기

나의 삼종형(三從兄) 원균(元均)의 자(字)는 장욱(章旭)이요 호(號)는 영은(嶺隱)이니 고종(高宗) 경진(庚辰)·一八八〇년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호성스러워 일곱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슬피 울부짖고 가슴을 치며 땀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 어버이를 정성으로 섬겨 무릇 분부하여 시킴이 있거든 쫓아 종일도록 어짐이 없었고 고고고 작은 일을 반드시 아뢰어 명령을 기다려서 행했다. 계모(繼母)를 받들고 되심에 더욱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조부모 이간하는 말이 없었다. 성품이 본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아침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글을 읽고 산에서는 땀나 무를 하

고 물에서는 고기를 잡아 어버이를 받들기 위한 맛있는 음식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 뜻을 잘 받들었다. 문득 상을 만남에 염빈(殮殮)과 장례와 제사를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다랐고 슬퍼함이 법도보다 지나쳐 삼년동안을 생선과 고기 술과 담배를 끊고 빗질과 세수를 하지 않았다.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함에 올부짓으며 애통(해함이 한결같이 ① 단팔지일) ① 단팔지일(袒括之日)과 같이 하니 사람들이 후(후) ① 후(孝)가 ① 후(孝)를 해친다는 것으로 가르치자 곧 말하기를 『내 본래 불효를 하였거늘 어찌 효를 해치리오?』 하고 한결같이 마음으로 상을 마치니 마을에서 추중하여 그 지성스런 효도를 칭송하였다. 백부께서 일찍 돌아가시어 아들이 없었으니 어버이의 유명(遺命)을 따라 양자를 가종통(宗統)을 잇고 종제(從弟)를 취하여 생가(生家)를 이으니 이 또한 선대(先代)를 위한 효도였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은 우리 가문의 부노(父老)가 함께 증거로 삼는 바이지만 세상이 덧없음을 만나 인심이 번복하고 강상(綱常)이 무너져 나라에는 드러내어 장려하는 은전(恩典)이 없고 관청에는 선행(善行)을 나타내는 법이 없으니 원통하고 애석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대략 그 실상을 모아 훗날의 군자가 채택하여 기록할 때를 기다려 이를 증거로 삼도록 기록한다.

만각단판집의 서

【주(註)】

① 단팔지일(袒括之日) : 부모(父母)의 초상때 상주가 쪽지 머리를 틀고 또 옷을 갖추어 입지 않

고 두루막 외쪽 소매를 팔에 끼지 않고 쳐드람이 밑으로 돌려서 옷고름을 매었다가 대렴이 끝나면 머리털을 거두고 옷도 바로 입는 것이니 운명에서 대렴까지를 이룸。

玄風郭氏 節行實記

故學生石鎬一余之四從姪也而其妻孺人郭氏籍苞山父廷應濯清軒趲后生高宗戊子素以貞淑有閨範及嫁五歲夫偶嬰疾沉綿彌年至誠救護百藥無效禱天願代亦無靈效奄遭崩城卽欲下從回念老姑在堂膝下無育養老奉先將來無策是爲人道之難事也強念慰姑克盡誠孝當先祭日務爲精潔以保家道人或勸改者乃悖然正色曰夫婦天定之緣有生死同牢穴之義夫死而有貳心者豈不懼天乎人有慙色而退姑以天年終殮殯等節一遵禮制有夫弟鎬三年二子取長子助洙系夫後家計汨沒獨守若節里中人咸稱節義門父老有褒揚之意囑余記實余雖不文世翻桑瀾人綱衰敗終無天褒之典故懼夫如此懿行愈久湮滅無傳畧記如右以待清平之世君子採擇焉

於晚岡文集

고(故) 학생(學生) 석호일(石鎬一)은 나의 사종질(四從姪)이다. 그의 아내 유인(孺人) 곽씨(郭氏)는 관향(貫鄉)이 포산(苞山)이니 아버지는 정응(廷應)이고 탁청현(濯淸軒) 황(黃)의 후손이다. 고종(高宗) 무자(戊子)·一八八八(년)에 태어났다. 본디 정숙함으로써 규범이 있었다. 시집은 지 다섯해 만에 남편이 우연히 병을 만나 오랫동안 낫지 않고 해를 거듭하니 지성으로 보살폈는데 온갖 약이 효험이 없거늘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바랬으나 또한 영험이 없었다. 무득(夫) 남편의 죽음을 만나 곧 따라 죽고자 하다가 돌이켜 생각하기를 연로(年老)한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고 슬하에는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들며 장래에 대책이 없으니 이것이 인도(人道)의 어려운 일이라 여겼다. 애써 시어머니를 위로하여 능히 성효(誠孝)를 다하고 선대(先代)의 제일(祭日)을 당하여 정결하게하기를 힘써 가도(家道)를 보존했다. 어떤 사람이 후 개가(改嫁)하기를 원하거든 이에 발끈히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부부는 하늘이 정해진 인연이니 생사(生死)를 함께 하든 의리가 있다. 남편이 죽음에 두 마음을 갖는 자는 어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하니 사람들이 부끄러운 낫빛을 띠고 물러갔다. 시어머니가 천수(天壽)로써 마치게 늘 염빈(殮殯)등의 절차를 한결같이례제(禮制)를 따랐다. 남편의 아우 호삼(鎬三)이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長子) 조수(助洙)를 취하여 남편의 뒤를 잇게 했다. 살림살이에 어렵게 시달리는데다가 홀로 고절(苦節)을 지키니 마을의 사람들이 모

두 절의(節義)를 칭찬하였고 문중(門中)의 부모(父老)들이 장려하여 드러내려는 뜻이 있어 나에게 실상을 기록하기를 부탁하니 내 비록 문장은 부족하나 세상이 덧없어 인륜(人倫)과 기강(紀綱)이 쇠퇴하고 무너져 끝내 나라에서 장려하는 법이 없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이 더욱 오랄수록 자취를 잃어 전해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대략 이상과 같이 기록하여 청평(淸平)한 세상에 군자(君子)의 채택(採擇)을 기다린다。

만강문집에서

高靈申氏孝節實記

孝節婦申氏夫人籍高靈父仁鶴余三從兄琮均之妻也姿性貞淑早知閨範年十七而筭于歸之日姑已下世舅惟在堂克盡誠孝以養其志唯命是從夙夜無違不幸年及三十五而夫偶嬰疾至誠救療百藥無效代身禱天亦無靈感奄遭晝哭之痛誓下從而回念舅老在上兒幼在下奉育無托強忍治生不拘酸若常行怡愉以安舅心貧寒所致舅謂婦曰吾聞關東之地土廣人稀此處姻戚之家僑居而舉皆饒富云吾亦一往幸免困窮則豈非將來福地乎不違舅志奉老携幼搬移于橫城等地居之數月察其地方則窮峽僻村四方來

者皆以求命圖生爲主而不知義理之修行且俗習薄陋不可爲奉侍養育之處也乃告于舅曰貧家生利到處一般也今舅年七旬生歿無期千里他鄉宗親遠在孤子誰依不如歸鄉三旬九食豈不安心哉舅欣然諾之因奉率歸還家計尤貧小無怨言且其子稍長偶然出外十數年間尚無消息亦無愠意惟以奉老尤極誠心日傭縫績收賃爲資以供甘旨時進新衣潔其居室適宜溫清以保安養舅常對諸族言曰吾婦奉供雖饒富之家不可及也天年八十一而考終襚衣斂具預先製縫初終襄禮凡百俱備葬於先山哀毀有節盡其禮情眞可謂養生送死無憾之孝也日一聞老小齊會稱其孝節之兼全將行表賞之典而囑余爲文余亦感此李節非但一時之模範必爲後世之公論故以實記之留待秉筆君子採錄三綱之日以是爲證焉

於 晚岡文集

고령신씨 효절실기

효절부(孝節婦) 신씨(申氏) 부인(夫人)은 본관(本貫)이 고령(高靈)이고 아버지는 인흥(仁鶴)이니 나의 삼종형(三從兄) 종균(琮均)의 아내이다。 자품(姿品)과 성격(性格)이 정숙(貞淑)하여 일찍 규범을 알았다。 나이 열 일곱살에 병례(筓禮)를 하고 ①유귀(于歸)의 날에는 시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만 홀로 계시거늘

능히 효성을 다하여 그 뜻을 봉양하여 분부에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김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나의 서른다섯째 이복편남편의 우연히 병을 만나니 지극한 정성이요 치료를 하여도 온갖 약의 효험이 없으니 대신 자신의 병을 앓도록 하도록 빌었으니 또한 영감(靈感)이 없었다. 무렵 남편의 죽은 애통함을 만나 따라 죽으리라 맹세 하였으니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시아버지의 위와 체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귀애하여 있었으니 받들느니 기쁨을 의탁할 데가 없었다. 애써 참으며 살아서 쓰러린 고통을 애하지 않느니 항상 기쁘게 하여 시아버지의 마음편안히 해 드렸다. 집이 빈한(貧寒)한 소치(所致)로 시아버지가 떠느리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 연동(關東)의 땅은 너른데 비해 사람이 드무니 이곳에 인척(姻戚)의 집들이 머물러 사는데 모두 다 풍요하고 부유하다고 한다. 내가 또한 한번 가서 다행히 곤궁함을 면한다면 어찌 장래에 복지(福地)가 아니라?』 하니 시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노인을 모시고 아이를 데리고 횡성(橫城) 등(等)의 땅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수개월 만에 그 지방을 살펴보니 궁핍(窮乏)한 벽촌(僻村)에 사방(四方)에서 온 사람이 모두 생명(生命)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위주를 삼고 의리를 닦고 행할 줄을 알지 못하며, 또 그들의 풍습이 박후(薄陋)하여 어른을 받들여 되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시아버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가난한 살림의 살기란 도

처에 일반입니다。 지금 시아버지의 연세가 칠순(七旬)이니 살고 죽음이 기약이 없
 습니다。 천리 타향에 종친이 멀리 계시니 외롭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감만 같지 못합니다。 살림이 가난하여 끼니를 거르느니 일이 있더라도 어찌 마
 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시아버지가 기쁘게 허락하였다。 인하여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가계(家計)는 더욱 가난했으나 조금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또
 또 그 아들이 점차 성장하여 우연히 바깥에 나가 십수년 동안 아직도 소식 없으
 나 또한 성내는 뜻이 없었다。 오직 늙은이 시어른을 받드는 것으로써 더욱 성심을
 다하여 날로 바느질과 길쌈의 품을 팔아서 생활비를 삼아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바
 치고 때때로 새 옷을 지어 드렸으며 그 거실(居室)을 청결히 하고 따뜻하고 서늘하
 기를 알맞게 해드려서 편안하게 봉양하니, 시아버지가 항상 여러 종족들을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며느리가 받들고 갖추는 것은 비록 풍요하고 부귀한 집이라도 미처
 지 못할 것이다。』 라 하였다。 시아버지가 八十一세로 세상을 마치니 수의(燧衣)
 와 염구(斂具)를 미리 먼저 짓고, 처음부터 초상 장례(葬禮)에 두루 갖추어서 선산
 에 장례를 하였다。 슬퍼함이 절도가 있었으니, 그 예법과 실정을 다 하였으니 진실로
 살아 있을 때의 반듯함과 죽어서 보냄에 유감이 없는 효(孝)라고 말할만 하다。 어느
 날 한 마을의 노소(老少)가 함께 모여 그 효성과 절개가 아울러 온전함을 칭송하고
 장차 표상의 법을 행하려고 나에게 글을 지어 주기를 청한다。 내 또한 이 효성(孝)

誠)과 절개가 다만 한때의 모범일 뿐 아니라 반드시 후세의 공론(公論)이 될 것이
라느껴져 실행(實行)을 기록하여 병필(秉筆)하는 군자(君子)가 삼강(三綱)을 채택
(採擇)하는 날에 이로써 증거가 되게 한다.

만감문집에서

【주(註)】

① 우귀(于歸)··여자(女子)가 시집으로 처음가는 신행(新行)을 이룸.

石孝婦 高靈申氏 孝行碑

夫人姓高靈申氏士仁鶴之女長生孝悌之家習聞內則之訓稍長事父母無忤志於女工
無不嫻焉年十七歸于忠州石琮均之門其姑已歿鰥舅在堂夫人天性孝順事舅如父夙
夜洞屬志養備至承順夫子無違家甚貧寒菽水難繼夫人勤於紡績上堂而問寒暖入厨
而供甘腴安其休息隣里稱之曰孝婦一日夫偶嬰貞疾疾甚危夫人躬自沐浴每夜祈天
百方救治空青無效奄失所天即欲自刎不從而顧念老舅在堂幼兒在懷義不可徑情而
直行乃自寬自慰恐傷舅志不作悲悼之狀侍側寬譬几筵之奠必謹必誠畧無闕儀務盡
情禮矢無他意足跡不出閨門之外中年以貧寒所致順從舅之言奉老携幼關東千里屑

屑往來不憚煩而小無怨尤之色又况幼子偶然出家終不知何處住治而全然無門閭之
 歎但以慰舅之心克敬克誠善養其志幾至三十餘年而罔有少懈舅以老病委頓床褥夫
 人不遑假寐迎醫合藥醫云病勢非常嘗糞乃可以察證夫人即嘗之證尤甚之憂形於色
 就潔處設井水夜禱北辰誠無不至而竟以是疾令終夫人哀毀幾滅性送終之具朝夕之
 奠一從家禮三年如袒括之日君子多之曰此眞女中之女士也嗚乎眇余腐淺曷敢贅焉
 切有所感於心者以夫人之善行闡揚于斯世使父子相離夫妻反目者知所戒焉且世道
 日降知德者鮮以夫人之偉行潛德宜聞于朝特蒙旌表之典而尚稽至此重可惜也感歎
 之餘書此俾歸刻焉

歲丁酉仲春節 星州 李培元 記

석효부 고령신씨 효행비

부인의 성은 고령신씨(高靈申氏)인데 사인 인학(士人 仁鶴)의 따남으로 효제(孝
 悌)의 가문에서 생장하여 내척의 가르침을 익혀 두었다. 조금 더 자라서는 부모
 (父母)를 섬기기에 뜻을 거스름이 없었다. 열일곱살에 충주석씨 종관(忠州石氏 琮
 均)의 집으로 시집왔는데 그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지고 홀로 된 시아버지와 집에

계셨다。 부인(婦人)은 천성(天性)이 효순(孝順)하여 시아버지를 섬김에 친정(親正) 아버지처럼 하여 아침 저녁으로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시아버지의 뜻과 몸뚱이를 받들어 지극히 갖추어졌다。 남편을 받들기에 도 어스남이 없었는데 집이 매우 빈한하여 일상의 음식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으나 부인(婦人)은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시아버지께는 한나(寒暖)를 여쭙고 부일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시어른을 편안하게 쉬도록 하였으니 이웃에서 칭송하기를 효부라고 하였다。 하루는 남편이 질병에 걸려 매우 위독했는데 부인(婦人)이 몸소 목욕하고 밤마다 하늘에 기도하여 백방(百方)으로 낫기를 바랐다。 그러나 하늘이 효함을 보이지 않아 갑자기 남편을 여의게 되었는데 부인(婦人)은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다르지 않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연로한 시어른이 집에 계시고 어린 아기가 품에 있으니 나의 정에 하고 싶은대로 곧바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너그럽게 생각하고 위로하여 시어른의 뜻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슬픈 모습을 짓지 않고 절에서 모시고 있었음에 너그럽게 마음들을 풀어 드렸다。 케연(几筵)에 제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니 의식에 조소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례(情禮)를 다하기에 힘쓰고 맹세코 개가(改嫁)할 뜻이 없었으며 발자취가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증년에는 빈한(貧寒)한 소치로 시어른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로한 시어른을 받들고 어린 아이를 이끌고 연동(關東)의 천리 먼 길을 왕래하면서 도 번거로움을 꺼리

지 않으니 조짐도 원만하고 허물하는 안색이 없었다. 또 어린 아이가 우연히 집을 나가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전혀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탄식이 없었고 다만 시어른의 마음만을 위로하여 능히 공경과 정성을 다하여 그 뜻을 잘 받들기를 거의三十年 남짓 하였으면서도 조짐도 헤아리지 않았다. 시어른이 노병(老病)으로 병상에 누자 부인은 잠들 겨를이 없이 의원을 맞이하고 약물을 구하기에 힘써는데 의원이 『병세가 심상치 않으니 대변을 맛보아야만 증상을 살필 수 있다.』 고 하자 부인(婦人)은 즉시 대변을 맛보고 증상이 더욱 심함을 알았다. 이에 열술에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정결한 곳에 정화수를 차려놓고 밤중에 부근성에 기도하여 정성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마침내 이로써 세상을 마치게 되었다. 부인(婦人)은 슬픔으로 몸을 상하여 목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으나 시어른의 장례에 필요한 기물과 조식으로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준수하여 군자(君子)가 칭찬하기를 『이 부인(婦人)은 참으로 여자(女子)들 가운데 여자(女士)이다.』 라고 하였다. 아! 보잘 것 없는 내가 어찌 감히 여기에 군말을 덧붙이랴? 다만 간절히 마음에 느끼는 점이 있으니 부인(婦人)의 선한 행실들이 세상(世上)에 드러내 밝힌다면 부자간(父子間)에 서로 어긋나고 부부간(夫婦間)에 서로 반목하는 이들로 하여금 영계 할 바를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도리가 날로 떨어져 덕을 아는 사람이 드문 형편이니 부인(婦人)의 거룩한 행실과 가려진 덕을 마땅히 조정에 보고하여 특

별히 장려를 받는 은전을 임의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일이 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감탄한 나머지 이것을 써서 가지고 돌아가 비석에 새기게 하는 바이다.

정유(丁酉)·一九五七(년) 증춘절 성주 이배원 은적다

藥山公諱昉佑讚善文

諱昉佑字迎佑號藥山生憲廟甲辰一八四四年通政大夫中樞公諱最重玄孫也家素貧寒或農或商用道有節積小成大雙手起家能知積散見貧助人多賴生宗財不贍獨捐修享洞錢耗乏特捐家藏殖本取利以供堂祭里中老少讚其善德

讚善文

滄海非不深矣而一葦可涉泰山非不高矣而連棧可躋者何也盖其深高惟限極也若夫深於海高於山而不可涉且躋者其惟仁人志士之施爲規模乎是以仁人志士之爲心也

不以一己之利害爲用捨不以一家之肥瘠爲歎戚而以一世之利害肥瘠爲已憂故叅稽乎徃古而志相符楷範乎來世而名不泯苟非卓越之見長遠之慮則惡能與於次哉惟我奇世洞奠居于此數百有餘年矣旣奠其基則必有主山山有主神神依於人人賴於神故每年上元老少內外齊誠薦香名曰堂祭犧牲既成粢盛其潔然後神幾歆梧而降之福人亦展誠而無所憾矣揆近以來年屢不熟庶物騰貴由來所植堂祭潔錢幾於竭乏將欲以歛則里閭凋殘人力極難而其於事神之道友似不誠故全閉之人莫不爲慮者久矣際茲今春余三從叔丈迎佑氏慨然有志獨捐家貨一百兩金殖其本取其利以供來頭薦香之具夫人之家有餘積廩有餘用而施爲及此猶爲士君子之所嘉尚也况雙手起家自處勤儉簞食水飲而已而至於施設之規模則不計物我如是特立則其事神之誠紓人之力爲如何哉信乎有志者事竟成也一洞之人咸曰壯哉公之志也視夫積而不知散貨而不能振者則不可同日而語也孟子曰聞伯夷之風者貪夫廉懦夫有立志今此百世之下聞公之風者亦必有興起者而况親炙目覩者乎里中老少囑余記文余雖不才感其善德妄撰不文之說以成施爲規模之深遠而又使來世之見此者有所興起善心之端

云甫歲甲辰三月小晦三從姪載俊謹記

약산공 찬선분

휘는 방우(昉佑) 자는 영우(迎佑) 호는 약산(藥山)이고 현종(憲宗) 갑진(甲辰)·一八四四(년)에 태어났으니 통정대부 중추공(中樞公) 휘 최중(最重)의 현손이다. 집안의 본디 빈한하여 농사를 짓기도 하고 상업업을 하기도 하였다. 용도를 절약하여 조금씩 쌓아 많으니 재산을 이루어 맨손으로 집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모든 재산을 홀어 쓸줄 알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구조하니 덕분에 산사람들이 많았다. 종종 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함에 홀로 음역을 부담하여 향사를 치르게 하고, 마을의 돈이 결핍하자 특별히 집에 가졌던 것을 내어 본전을 마련하여 이자를 취함으로써 당제(堂祭)의 비용을 대게 하였으니, 마을의 노소가 그 선덕(先德)을 칭송하였다.

창해가 비록 깊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척의 편주(片舟)로 건널 수 있고, 태산이 높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연결된 잔도(棧道)로 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개 그 깊고 높음이 한계가 있기에 때문이다.

그러나 창해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아서 건너지나 오를 수 없는 것은 오직 인인지사(仁人志士)가 베풀어 행하는 유모일 것이다. 인인지사의 마음은 자기 한 몸의 이해(利害)로써 취하고 버리지 않고 자기 한 집의 비척(肥瘠)으로써 기뻐하거나 슬

퍼하지 않았으며 한 세상의 이해와 비척으로써 자기의 은심을 삼는다. 그러므로 지나간 옛날을 두고 살피봄에 뜻이 서로 부합하고 앞으로 후세에 모범이 되어 이름이 민멸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탁월한 전해 원대한 생각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러한 정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선씨가 이곳 기세동에 옮겨와 정착한 것이 수백년이 된다. 이미 마을의 터전을 정함엔 반드시 주산(主山)이 있고 산에는 주신(主神)이 있나니 신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남녀노소가 정성을 가지런히 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나니 이름하여 당제(堂祭)라고 하는데, 희생이 이미 갖추어지고 곡식이 또한 정결하게 된 연후에 신이 이르러 흠향하여 복을 내리고 사람이 또한 정성을 드리는 정성스러워 유감스러운 바가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 물자가 귀하게 되니 종래에 마련했던 당제의 계금(契金)이 거의 결핍되어 장차 이를 거두려 한즉 마을의 형편이 쇠잔하고 사람의 힘이 지극히 어려워 신을 섬기는 도리에 도리어 정성스럽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므로 은 마을의 사람들이 이를 위해 우려하지 않았음이 없기가 오래 되었다. 이러한 즈음에 음년 봄 나의 삼종숙 영우(迎佑)씨가 개연히 뜻을 내어 홀로 자기 집의 돈 일백냥을 내서 본전을 마련하고 이자를 취하여 앞으로 당제에 쓰일

비용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대저 사람이 집에 남은 재산이 있고 창고에 남은 재용이 있어서 베풀기를 이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군자(士君子)가 가상히 여기는 바인데, 하물며 맨손으로 집을 일으켜 스스로 처하기를 은검으로 하여 한 스톱의 밥과 한 스톱의 마실 것으로 지낼 뿐이지만 남들을 위하여 베풀어 행하는 규모에 이르러서는 물아(物我)를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우뚝히 홀로 선 즉 신을 섬기는 청정성과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뜻이 있는 사람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옛말이 참으로 믿을 만하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들 『장하도다! 공의 뜻이여.』 하고 하니,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흠을 줄 알지 못하고 재화를 모으기만 하고는 베풀지 못하는 사람과 비긴다면 같은 차원에 두기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맹자의 말씀에 『백이(伯夷)의 풍성(風聲)을 들은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 분별이 있게 되고 나약한 사람이 뜻을 세우게 된다.』 그 하였으니, 지금 백세(百世)의 아래 공의 풍성을 들을 리 사람도 또한 반드시 후기의 학인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물며 친히 가르침을 받고서도 직접 보았던 이들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마을의 노소가 나에게 찬선단을 기록하도록 부탁했는데 내 비록 재주가 없으나 그 선덕(先德)에 감동하여 망령되게 조리도 없지 않지 어 공이 베풀어 행한 규모가 크고 먼 것을 이루고 또 후세의 이를 보지 사람들로 하여금 선심을 행하게 할

서가있도록한다。

갑진(甲辰)一九〇四年)三月 삼종질 재준(載俊)은 삼가 기록한다

修齋處士諱祥均遺事

公姓氏諱祥均字鍾煥號修齋高祖曰龜潭號友于堂曾祖曰轍漢號清溪祖曰致敬號謹齋壽贈嘉善考曰甲俊妣金寧金氏有成女高宗乙未十月十五日生公于奇世洞第天資沈靜凝重幼不好弄孝友天植六七歲爲侍王父謹齋公側應對舉止大異凡兒謹齋公奇之常撫背曰昌我家者必此也謹齋公歿先公哀毀過度公至誠慰護藥餌糜粥躬自烹煎朝夕不離以終三年事二親備盡志體年過七旬而日三省二親食事告諸饌膳在此在彼舉此云則舉彼云則舉此而進之舉彼而進之以故親幾忘烟霧隔眠之苦甲辰先公遘疾公躬親湯藥涕泣扶護不解帶不交睫者殆近一旬及遭大故攀號擗踊柴毀骨立顏色之戚哭泣之哀三年如一日焉辛亥又丁大夫人喪一如前喪公明於易理善於楷書己卯大譜十四卷及仁山堂記頌異世先隴碑碣文皆手書也丁巳十月二十八日考終葬于金海生林無隻山配水原白氏士悅女生五男一女男曰鎮鴻鎮奎鎮權鎮學出鎮厚出宰數郡

歷皆有治績女星州裴泰甫妻濟徹濟烈濟萬濟丸濟永濟億濟弘濟熙濟旭濟凡幸州奇昌各房出孫男女也可記之事行姑略以孝一字以爲秉筆君子採擇之資焉

宗後生 宇楨 撰

수재차사 휘 상균 유사

공의 성은 석씨, 휘는 상균(祥均), 자는 증환(鍾煥), 호는 수재(修齋)이다. 고조의 휘는 귀담(龜潭), 호는 우우당(友于堂)이고 증조 철한(轍漢)의 호는 청계(淸溪)이고, 조부 치경(致敬)의 호는 근재(謹齋)인데 수직으로 가선대부이다. 부친은 갑준(甲俊)이고 모친은 김녕김씨 유성(有成)의 따님인데 고종 을미(乙未: 一八九五年)十月 보름에 기세동 집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품이 침착하고 무거워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하지 않고 호심과 우애가 천성으로 갖추어졌다. 예닐곱살 무렵에 조부 근재공을 곁에서 모시면서 응대하는 행동거지가 보통 아이와는 크게 다르니 근재공이 기이하게 여기며 항상 등을 어루만지고 말하기를 『우리 집을 창성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다.』 하고 하였다. 근재공이 돌아와 심에 부친께서 슬픔으로 몸을 상한 것이 지나쳤는데 공은 지성으로 간호하여 약과 죽을 몸소 달이고 쓰여 올리는 한편 조석으로 결을 떠나지

알았는지 채 삼년을 마쳤다.

양친을 섬기기에 마음과 몸을 섬기기에 두 가지를 극진하게 하여 칠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차례 양친의 식사를 살피면서 반찬이 여기 저기 있다고 고향에 양친께서 이것을 들라고 하면 이것을 들어서 드리고 저것을 들라고 하면 저것을 들어서 드렸다. 이러한 까닭으로 양친께서는 눈이 흐릿하게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고초를 잊을 수 있었다. 갑진(甲辰: 一九六四年)에 부친이 질병에 걸렸는데 공이 몸소 약을 달이고 누님을 돌리며 보살피기에 옷의 때를 풀지 않느니 밤에 누님을 볼 이지 않던 것이 거의 열흘이나 가까이 되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에 이르러서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발을 구르며 뛰기를 몹시 슬프게 하여 몸이 여위어 뼈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색이 슬프고 곡음(哭泣)이 애절하기가 삼년을 하루같이 하였다.辛亥: 一九七一年)에는 또 모친의 상을 당했는데 한결같이 앞서 부친상처럼 하였다.

공은 역리(易理)에 밝고 해서(楷書)를 잘 썼는데 기묘대동보(己卯大同譜) 열네권 인산당기송(仁山堂記頌) 여러 대에 걸친 선영의 비문들이 모두 공의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정사(丁巳: 一九七七년) 十月 스물 여드레에 세상을 마쳤는데 김해 생림 무척산에 안장하였다.

부인은 수원백씨(水原白氏) 사열(士悅)의 따님이다. 오남일녀를 두었는데 진흥, 진유, 진권, 양자로 나간 진학, 진후이다. 그런데 진후는 여러 군의 군수로 나가 부임한 곳에 모두 치적이 있었다. 딸은 성주 배태보의 아내가 되었다. 손자와 손녀는 제철, 제만, 제환, 재영, 재언, 재홍, 제희, 재욱, 제범, 행주 기세창이다. 공에게는 기록할 만한 일과 행적을 짐짓 효(孝)한 글자로서 요약하며 문필을 잡은 군자가 채택할 자료로 삼게 한다.

증후생 우정은 유사를 짓다

小宗稷序

夫世降而系遠則情亦疎自然之勢也若以是而無管攝之道則友睦之道惡乎施也苟欲攝其疎而爲友睦之規則莫一家合契之若也此吾宗稷之所以設也昔吾祖宗創設之始也有八從兄弟合力收財樹本逐利財力稍優以之置位土而奉墓奠買書籍而教子孫俱什物而需冠婚以至賓客之供燕會之須無不賴此而資焉則其爲敦睦之規可謂大且遠矣凡爲後孫者可不敬謹遵守哉然而年歲旣久子孫漸蕃或有究於利而弛於稷者豈祖

宗始設之本意也哉故有一言以相勉凡我諸宗之修契也非但殖財爲先也從今以往雖系遠寸疎慎勿競長效短尤益合心守規勿以財爲貴惟以睦爲貴則庶乎上不負祖宗創設之本意下可示子孫遵守之則父以詔子兄以詔弟則敦睦之行永久不衰而孝悌之心由此生家門之昌由此而漸矣諸宗同心謹勉夫

於小溪文集

소종계서

대체로 세계(世系)가 아래로 내려와 멀어지게 되면 정의(情誼)도 또한 소원(疎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약 이로써 관섭(管攝)하는 방도(方道)가 없게 되면 종족(宗族)들 사이에 친목(親睦)하는 도리(道理)를 어디에 베풀 수 있겠는가? 진실로 그 소원(疎遠)함을 관섭(管攝)하여 친목(親睦)하게 할 규약(規約)을 만들고자 한다면 일가(一家)가 함께 계(契)를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계(宗契)를 만들게 된 까닭이다.

옛적에 우리 조종(祖宗)이 창설(創設)되던 처음에 팔종형제(八從兄弟)가 함께 힘을 모아 재물(財物)을 거두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식(利息)을 늘려 재력(財力)이 제법 넉넉하게 되었다. 이로써 위토(位土)를 마련하여 묘제(墓祭)를 받들고 서적(書籍)을 사들여 자손(子孫)을 가르치고 심물(什物)을 갖추어 관례(冠禮)와 혼례(婚

禮)의 비용에 썼으며 빈객(賓客)의 접대와 연회(宴會)의 쓰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쓰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한즉 그 돈복(敦睦)의 규약(規約)을 삼았떤 것이 원대(遠大)하다고 이를만 하니 무릇 후손이 된 이들은 삼가 조심스럽게 이를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고 자손들도 점차로 불어나 후이(利)만을 구하고 계(契)에는 소홀히 하는 이가 있으니 어찌 조종(祖宗)이 처음 설치되었던 본래의 뜻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다음의 일언(一言)으로써 서로 힘쓰려 한다.

무릇 우리의 여러 종족(宗族)이 수계(修契)함은 다만 재리(財利)를 불리는 것을 앞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비록 세계(世系)가 멀고 촌수가 멀다고 하더라도 삼가 서로 장단(長短)을 따지지 말고, 더욱 마음을 합하고 규약(規約)을 지켜 재리(財利)로써 귀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돈복(敦睦)으로써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한즉 위로는 조종(祖宗)이 창설(創設)되었던 본의(本意)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자손(子孫)들이 준수(遵守)할 법칙(法則)을 보여주어서 부형(父兄)이 자제(子弟)들에게 가르친다면 돈복(敦睦)한 행실이 오래도록 쇠하지 않아 효제(孝悌)의 마음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가문(家門)의 번창이 이로 말미암아 시작될 테니 여러 종족(宗族)들이 한 마음으로 삼가 힘쓸진저!

소계문집(小溪文集)에서

성균진사휘광정자손증사세지단비문(成均進士諱光鼎子孫曾
四世之壇碑文)

묘(墓)를 삼가 수봉(修奉)치 못하고 단(壇)을 설(設)하여 제(祭)함은 예(禮)의
(義)로 기(起)하여 준행(遵行)하는 바이다。 이 조참의(吏曹叅議) 성옥공(成玉公)께
서 연산왕(燕山王)의 혼정(昏政)을 보고 관(官)을 기(棄)하고 하(下)하여 밀양군(密
陽郡) 무안면(武安面) 증산리(中山里)에 은거(隱居)하시고 배(配)는 순선군(順善君)
좌찬성(左贊成) 안청산(安靑山)의 녀(女)이며, 순선군(順善君)은 증종대왕비(中宗大
王妃)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의 외조(外祖)이시다。 참의공(叅議公) 생이자(生二
子)하니 장(長)은 좌부사과(左部司果) 광필(光弼)이요, 제(季)는 성균진사(成均進
士) 광정(光鼎)이요, 진사공(進士公)이 생사순(生斯順)하고 시생자호(是生自湖)하고
시생세경(是生世京)하다。 참의공(叅議公)의 묘(墓)는 증산리(中山里) 안산도래산
록오원(案山道來山麓午原)에 있고, 증산리(中山里) 북편(北便) 청천동(淸川洞) 일
구(一區)는 석씨(石氏)의 세장지(世葬之地)로서 진사공(進士公)의 묘(墓)가 차
(此)에 유(有)하다고 보(譜)에 기재(記載)되었으나 누열한 봉영중(封塋中)에 위치
(位次)를 알 수 없고 이하(以下) 삼공(三公)의 묘(墓)도 동역내(同域內)에 있을 듯

하나 보록(譜錄)까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산(仁山) 언우공(彦佑公)께서 약관(弱冠)이 채 못 되어 무릉(穆陵) 임진(壬辰)에 왜란을 당(當)하여 도래(道來) 영취 화왕산(火旺山)의 험준(險峻)을 지나 비슬산인수동(毘瑟山仁壽洞)에서 八年 풍우(風雨)를 지나고 정난후(靖亂後)에 고향(故鄉)으로 가지 못하고 인수동(仁壽洞)에서 하북촌(下北村)하여 영주(永住)하니 지금(至今)의 기세동(奇世洞)이다. 급기몰(及其沒)하여 가내곡경좌원(佳乃谷庚坐原)에 장(葬)하고 十餘世로 전(傳)해 오면서 묘제시(墓祭時)엔 즉공(則公)의 이상(以上) 四世에 대(對)하여 우묘소(寓墓所)가 무(無)함을 늘 극정(極情)만 하고 있을 때 병인년(丙寅年) 묘형시(墓亨時)에 위선(爲先) 돈종(敦宗)의 제반행사(諸般行事)에 임원회(任員會)를 조직(組織)한 바 인산공(仁山公)의 十三世孫 일수(一洙)를 도입(道任)으로 선정(選定)하고 위사공(位四公)의 단(壇)을 설(設)할 것을 온 종족(宗族)이 표(表)할 것을 의결(議決)하였다. 아석씨(我石氏)의 선(先)은 충주인(忠州人)이다. 서북병마사(西北兵馬使) 상장군(上將軍) 예성군(藥城君) 휘(諱) 린(鄰)이 시조(始祖)이시고 이후(以後) 六世로 현관(顯官) 연면(聯綿)하고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양선(良善)이요, 기배정창응주(其配慶昌翁主) 영흥최씨(永興崔氏)는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종모(從母)로 유양(乳養)의 공(功)이 유(有)함으로 자(子) 증랑군(中郎將) 천을(天乙)이 홍성군(洪城君)

이요, 후유화원선생(後有花園先生) 여명(汝明)하니 공민왕 갑인(甲寅)에 등제(登第)하여 문하(門下) 주서(注書)로 여망(麗亡)에 망복의 의(義)를 수(守)하여 태종대 왕(太宗大王)의 친서소환(親書召喚)에 불응(不應)하여 충주수의산(忠州守義山)에 안치(安置)되었고 이천(利川) 현감(縣監) 文賢이요, 정랑(正郎) 貞信이 참의(叅議) 이상(以上)의 상계(上系)요, 참의공(叅議公)의 이자(二子) 휘(諱) 광정(光鼎)은 성균진사(成均進士)로 배(配)는 성관(姓貫)이 무전(無傳)하고 진사공(進士公)이 생 휘사순(生 諱斯順)하니 자화중(子和中)이요, 증묘무진생(中廟戊辰生)으로 경오(庚午)에 졸(卒)하고 배(配)는 전주이씨(全州李氏)요, 시생 휘자호(是生 諱自湖)하니 자여대(子汝大)요, 증묘(中廟) 임진생(壬辰生)으로 무오(戊午)에 졸(卒)하고 배(配)는 한산이씨(韓山李氏)요, 시생 휘 세경(是生 諱世京)하니 자낙보(字洛甫)요, 명묘(明廟) 신해생(辛亥生)으로 갑인(甲寅)에 졸(卒)하고, 배(配)는 연안김씨(延安金氏)이다. 사대(四代)의 사행(事行)이 응당(應當) 많을 터인데 병(兵)선에 이와 같이 소략(疎略)하니 심(深)히 한(恨)이 되나마 무전중(無傳中)에 실징(實徵)이 귀(貴)한 바이다. 인산공(仁山公)이 단신(單身)으로 무서운 난(亂)을 피(避)하여 일자(一子) 운상(雲祥)을 두어 삼손(三孫) 기남(起南), 이남(二南), 춘남(春南)이 생(生)하여 생(生) 삼손(三孫)의 후손(後孫)이 지금(至今)에 천수(千數)에 달(達)

하고 호차수(戶且數) 기백(幾百)인데 인문(人文)이 병랑(炳郎)하니 진사공(進士公) 이하(以下) 삼공(三公)의 으뜸이라 할 수 없으리라. 대처인의 정령(精靈)이 수(水)와 지(地)에 재(在)함과 여(如)하여 없는 곳이 없으니 성(誠)을 들이면 신(神)이 문득 강림(降臨)함이니 사(司)히 산천(山川)으로 한격(恨隔)을 못할 것이운데 하물며 기세(奇世) 일구(一區)는 자손(子孫)들의 세거(世居)한 촌(村)이요, 가내(佳乃) 곡(谷)은 후손(後孫)의 귀장지(歸葬地)이니 불미(不味)한 정령(精靈)이 반드시 근고하여 필분(苾芬)을 흠향하리라. 명월(銘曰)

흘연사단혜 기정차결 기실각비혜 불마블득 천추만세혜 서정령지래격
 (屹然斯壇兮 旣淨且潔 紀實刻碑兮 不磨不仿 千秋萬歲兮 庶精靈之來格)

檀紀四千三百二十年 정묘구추절(丁卯菊秋節)

방후손(傍後孫) 우정(宇楨) 근찬(謹撰)

인산처사휘언우묘표(仁山處士諱彦佑墓表)

부군(府君)의 휘(諱)는 언우(彦佑)요, 자(字)는 방헌(邦憲)이요, 호(號)는 인산(仁

山)이니 달성(達城)의 입향조(入鄉祖)이시다. 우리 석씨(石氏)의 시조(始祖) 휘(諱) 린(鄰)은 송(宋)나라 소흥(紹興)년간(紹興年間)에 광릉(廣陵)으로부터 고려(高麗)에 오셔서 의종(毅宗)때에는 낭장(郎將)이시고 명종(明宗) 병인란(丙寅亂)에는 두경승(杜景升)과 함께 조위총(趙位寵)을 도평(討平)하신 공(公)으로 상장군(上將軍)에 오르셨고 예성군(藥城君)에 봉(封)하셨으니 예성(藥城)은 즉(卽) 충주(忠州)의 고흥(古號)라 후손(後孫)이 본관(本貫)을 충주(忠州)로 하였다. 오전(五傳)하여 휘(諱) 양선(良善)의 배(配)는 영흥최씨(永興崔氏)이니 영흥백정효공(永興伯靖孝公)간(奇)의 따님이고 조선 태조대왕(朝鮮太祖大王)의 이모(姨母)이다. 태조(太祖)가 탄생오삭(誕生五朔)만에 의혜왕후(懿惠王后)가 승하(昇遐)하고 최씨(崔氏)가 유양(乳養)하셨다.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한 후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공(公)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封)하였다. 그의 아들 휘(諱) 천을(天乙)은 증랑장(中郎將)이니 외조(外祖) 정효공(靖孝公)이 무사(無嗣)하였기에 왕명(王命)을 받고 봉사(奉祀)하였다. 그의 아들 휘(諱) 여명(汝明) 호(號) 화원(花園)은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에 문과(文科)에 올라서 주서(注書)였는데, 태종(太宗) 병신(丙申)에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檢校)한성윤(韓城尹) 집현전(集賢殿) 제학(提學)에 제수(除授)하였으나 강북지(岡僕之義)로 불취(不就)하시다가 충주(忠州) 차의

산(車依山) 회문동(回文洞)에 안치(安置)되어 그곳에서 졸(卒)하시었다. 태종(太宗)은 곧 그 충절(忠節)을 기려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하였었다. 그에 삼전(三傳)하여 휘(諱) 성옥(成玉)은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연산조(燕山朝)에 기관(棄官)하고 밀양(密陽)으로 은거(隱居)하시고 유이자(有二子)하니 장자(長子)는 휘(諱) 광필(光弼)이요 제자(季子)는 휘(諱) 광정(光鼎)이니 성균진사(成均進士)요 부군(府君)의 고조(高祖)이시다. 증조(曾祖) 휘(諱)는 사순(斯順)이요, 조휘(祖諱)는 자호(自湖)요 고(考)의 휘(諱)는 세경(世京)이요, 비(妣)는 연안김씨(延安金氏)이니 성대(聲大)의 따님이다. 부군(府君)은 선묘(宣廟) 병자(丙子)에 밀양(密陽)에서 탄생(誕生)하시고 十七歲에 용사지란(龍蛇之亂)을 맞아 장의부(仗義赴旅)하고 난정후(亂靖後) 논공(論功)을 사양(辭讓)하고 비슬산(琵琶山) 산수가려(山水佳麗)함을 취(取)하여 인수동(仁壽洞)에 계시다가 이곳 기세동(奇世洞)에 정착(定着)하여 은덕자정(隱德自靖)하시다가 선묘(宣廟) 기유(己酉) 九月八日에 고종(考終)하였으니 묘소(墓所)는 가내곡(嘉乃谷) 경좌원(庚坐原)이다. 배(配)는 동래정씨(東萊鄭氏)이니 필성(弼成)의 따님이다. 묘소(墓所)는 공묘제하동좌(公墓階下同坐)이고 표석(表石)이 있다. 생일(生)자(生一子) 운상(雲祥)이니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인데 융희(隆熙)기유(己酉)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추증(追

贈)되었다. 생삼남삼녀(生三男三女)니 장남(長男)은 기남(起南)、차남(次男)은 이남(二南)、춘남(春南)이고 여(女)는 진계우(陣戒佑)、권성옥(權成玉)、김상근(金尙根)에 각각(各各) 출가(出嫁)하였다. 부군(府君)의 몰후(歿後) 벌써 近四百年이라 여러번 경란(經亂)하는 동안 아직껏 묘의(墓儀)를 이룩하지 못하였더니 종회장(宗會長) 윤진(允鎭)이 문의를 모아서 입석(立石)을 도모할새 문부로(文父老)들이 비음기(碑陰記)를 불초여(不肖余)에 명(命)하기에 외람되나 삼가 세보(世譜) 및 문헌(文獻) 소재를 근거로 하여 감(敢)히 이상(以上)과 같이 기록하고 이어서 명왈(銘曰)

충성(忠誠)과 절의(節義)로 선휘(先徽)를 이으셨고, 장의(丈義)와 겸퇴(謙退)로 은덕을 쌓으셨다. 비슬산하(琵琶山下) 기세(奇世)에 후손(後孫)을 남기시니 시례(詩禮)가 전범(典範)이 지금(至今)에 이어오다. 돌을 세워서 유장(幽狀)을 새겨놓으니 천추만대(千秋萬代) 길이길이 남으리라.

一九九二年 壬申 三月 日 후손(後孫) 호근(鎬瑾) 근찬(謹撰)

贈資憲大夫諱雲祥

府君諱雲祥字聖瑞號松菴我石之始祖諱鄰宋紹興間自廣陵來仕麗朝有功拜上將軍封蘘城君蘘城卽忠州古號故后孫仍貫焉五傳至諱良善配永興崔氏永興伯諡靖孝公閒奇女太祖大王姨母也太祖誕甫五朔懿惠王后昇遐崔氏乳養焉太祖御極封崔氏爲慶昌翁主封公洪陽府院君子諱天乙官中郎將外祖靖孝公無嗣太祖命公奉祀子諱汝明號花園高麗恭愍王甲寅登科官注書太宗丙申特下王旨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不就三傳至諱成玉官吏曹叅議當燕山昏朝棄官退於密陽有二子長諱光弼子孫居密陽季諱光鼎成均進士是爲府君之五代祖也高祖諱斯順曾祖諱自湖祖諱世京考諱彥佑號仁山當壬辰之變自密陽移于琵琶山仁壽洞因居其下奇世焉妣東萊鄭氏弼成女生于宣廟丙午卒于孝廟丙申生而穎悟少有文行出遊京洛適見光海政昏無意舉業隱居終身壽通政大夫隆熙己酉有朝勅贈資憲大夫墓在達城郡玉浦面奇世洞重崇山癸坐原書堂址在其下配丹陽禹氏仁明女墓合兆生三男三女男長起南次二南春南女適陳戒佑權成玉金尚根肅廟丁丑立表碣以朝家加資之榮諸族合議改豎故謹按世譜所載又撫家庭傳聞敢撰如右以寓後孫之追慕焉

증자헌대부 휘 윤상 묘표

부군(府君)의 휘(諱)는 윤상(雲祥)、호(號)는 송암(松菴)이다。 우리 석씨(石氏)의 시조(始祖) 휘(諱) 린(鄰)은 송(宋)나라 소흥(紹興) 송나라 고종(高宗)의 년호(年號) 一一三一~一一六二의 三十二年간임(年間)에 광릉(廣陵)으로부터 예성군(藥城君)에 봉하였으니 예성(藥城)은 곧 충주(忠州)의 옛 이름이었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이곳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오대(五代)에 이르러 휘(諱) 양선(良善)의 부인 영흥최씨(永興崔氏)는 영흥백(永興伯) 정효공(靖孝公) 한기(閑奇)의 따님이고 조선(朝鮮)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이모였다。 태조(太祖)는 탄생한지 겨우 다섯 달만에 의혜왕후(懿惠王后)가 승하하였기 때문에 최씨(崔氏)가 젖을 먹여 길렀는데 태조(太祖)가 왕위에 오르자 최씨(崔氏)를 정창옹주(慶昌翁主)로 봉하고 그 부군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봉하였다。 그 아들 휘(諱) 천을(天乙)은 관직이 중랑장(中郎將)이었고 외조(外祖)인 정효공(靖孝公)이 후사(後嗣)가 없었기에 태조(太祖)가 그 제사를 받들도록 분부하였다。 그 아들 휘(諱) 여명(汝明)은 호가 화원(花園)이고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 一三七四年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관직이 주서(注書)였고 태종(太宗) 병신(丙申) 一四一六年에 특별히 교지(教旨)를 내려 가선대부(加善大夫)로 삼고 상을 집현전(集賢殿) 제학(嘉善大夫) 檢校 漢城尹 集賢殿提學)을 제수(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곧 충주(忠州)의 차의산(車依山) 회문동(回文洞)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치니 그
 충절(忠節)을 기려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하였다. 삼대
 (三代)에 이르러 휘(諱) 성옥(成玉)은 관직이 이조참의(吏曹參議)로서 연산조(燕山
 朝)의 어지러운 정국(政局)을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밀양(密陽)으로 물러났다. 두
 아들이 있으니 장남 휘(諱) 광필(光弼)의 자손들은 밀양(密陽)에 살고, 차남 휘(諱)
 광정(光鼎)이니 성균진사(成均進士)이니 이가 곧 부군(府君)의 오대조(五代祖)이다.
 고조의 휘(諱)는 사순(斯順), 증조의 휘(諱)는 자호(自湖), 조부의 휘(諱)는 세경(世
 京)이다. 부친의 휘(諱)는 언우(彦佑)이고 호는 인산(仁山)이니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밀양(密陽)으로부터 비슬산(琵琶山) 인수동(仁壽洞)으로 옮겨 그 아래의 기
 세촌(奇世村)에 살았다. 모친은 동래정씨(東萊鄭氏) 필성(弼成)의 따님이다. 선조
 (宣祖) 병오(丙午)·一六〇六년에 태어나 효종(孝宗) 병신(丙申)·一六五六년에 돌아가셨
 다.

부군(府君)은 나면서부터 기품이 빼어나고 젊어서 문행(文行)이 있었다. 서울에
 가서 유학(遊學)할 때 마침 광해조(光海朝)의 정사(政事)가 어지러운 것을 보고는
 과거(科擧)에 뜻을 버리고 은거(隱居)하여 몸을 마쳤다.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通政大夫)가 되었고, 융희(隆熙) 기유(己酉)·一九〇九년에 조정(朝廷)으로부터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추증(追贈)하는 교지(教旨)가 있었다. 묘소는 달성군(達城郡) 옥

포면(玉浦面) 기세동(奇世洞) 증숭산(重崇山) 계좌(癸坐)의 등상에 있다. 서당(書堂)의 터는 그 아래 있다.

부인은 단양유씨(丹陽禹氏) 인명(仁明)의 따님이고 묘소는 합봉(合封)하였다. 삼남삼녀(三男三女)를 두었으니 아들인 기남(起南), 이남(二南), 춘남(春南)이고, 딸은 진계우(陳戒佑), 권성옥(權成玉), 김상근(金尙根)에게 출가하였다.

숙종(肅宗) 정축(丁丑)·一六七七年)에 묘비(墓碑)를 세웠으나 조정(朝廷)으로부터 품계(品階)를 더 높여주는 영광이 있었기에 여러 족친(族親)들이 묘비를 새로 세우기를 의논을 모아다. 그러므로 삼가 세보(世譜)에 실린 바를 살피고, 또 가정(家庭)에서 전하여 들은 것을 모아 감히 이상과 같이 찬술(撰述)하여 후손의 초모하는 정성을 깃들인다.

기세(奇世) 소계문집(小溪文集)에서

通政大夫諱最重墓碣銘

達句南奇世洞望江岑上崇四尺而向辛爲封卽故僉樞敬齋石公衣寫之藏也諸後承將
伐石表羨門讚基祥均鎬瓘等奉公狀請余銘旣辭不獲乃案而叙公諱最重字君大忠州

石氏其先宋人名碩不絕在高麗上祖諱鄰事明宗討趙位寵有功受封入我朝洪城君天乙聯戚太祖爲姨親花園汝明守義岡僕不應太宗徵命遭譴斥而卒配所吏議成玉見燕山政亂高舉遠禍而退居凝川仁山彥佑敵慨勤王而赴穆陵壬辰島訂寔公五世以上也高祖曰雲祥贈資憲自凝川始家奇世曾祖曰春南祖曰震傑考曰哲曾外祖慶州崔輔仁明陵丁丑正月二十日公生于靈川之僑舍旣還奇世舊居英敏好讀書孝友敦睦以高年累蒙恩除己亥三月二十九日卒壽八十三聘盆城許浚女生己卯卒癸巳二月二十五日葬祔公五男補天奉天天益鍊天天祚龜文長房出龜源次房出龜華龜現龜範龜疇龜形三房出龜泓龜江龜珍龜貼龜浹四房出龜澤龜潭龜澗季房出銘曰有勳有閔世躋厥美右洛左嶺靡常遷徙達南有谷公閉茅廬孝友敦睦耕鑿詩書福不虛至既壽而昌好爵又縻閭里有光葬不出洞土潤風藏神理孔協延釵在傍雲仍殫膺有石巍然母苔母剝於億萬年

乙巳大雪節 昌寧 成耆惠 撰

통정대부 휘 취중 묘갈명

달구(達句) 남쪽 기세동망강잠 위에 사척(四尺)이나 높으니 신좌향한 봉함은 즉 옛

침주경재 선공의 이석의 감춤이라 저 후손(後孫)이 장차 돌을 다스려 예문에 표를 할
 새 찬기 상판 후관등의 공의 행장(行狀)을 받들어 나에게 명을 청하거늘 이미 사양
 해 언저 못하여 이에 안찰하여 서차하니 공(公)의 휘(諱)는 취중이요 자는 근대니
 충주선씨가 그 선대는 송나라 사람인데 명성이 끊이지 않고 고려에 있어 상조(上
 祖) 휘 린이 명종을 섬겨 조위총을 무찌른 공이 있어 봉함을 받았고 아조(我朝)에
 들어와 홍성군관 천을이 태조와 이천이 되었느니 화원여명의 이름을 지켜 망목하여 태종
 의 친명에 응하지 않다가 마침내 견책을 만나 배소에서 풀하고 이조참의 성우이 연
 산의 정난을 보고 화를 멀리하여 응천에 퇴거하고 인산언우께서 전개 근왕하여 무
 르음진도강에 다다르니 이가 곧 공의 오세 이상이라. 근조는 휘 운상이니 증자한
 이니 응천이로부터 처음으로 기세에 살았고 증조(曾祖)는 휘(諱) 춘남이요 조는 휘
 진살이요 근휘는 칠증이며 의조는 정주 최보이요 명은 정충좌월의 십일의 공이 영
 천교사에서 나시어 이미 자성함에 기세 옛동린에 돌아와 영민하니 늘 일익기를 좋아하
 니 응우근복하며 높기나 이로 여러 번 은혜(恩惠)를 입고 기해(己亥) 삼월의 식부일에
 돌아가시니 수가 팔십삼이시다. 분성허준의 따님에 장가드시고 기묘에 나시고 제
 사이월의 십일의 돌아가시니 공의 묘에 부하였다. 응남인즉 보천 봉천 천의 연천
 천조 응문의 장방의 응남의 응문의 응문의 응문의 차방의 응남이라. 응화 응현 응범 응주 응형
 이 응삼방출이요, 응홍 응강 응진 응첩 응협 응사방출이요, 응택 응담 응증 응기 방출

이라. 명월 한도있고 별도 있음에 대대로 그 아름다움에 이르리라. 유난좌령에 항상 천사함이 없더라. 달남에 곡이 있으니 공이 모려에 다 닿더라. 호이도복하 고경착시서가 복이 헛되이 이르지 아니하니 이미 수를 하고 창성하더라. 종은 비 슬이 또한 얻으니 여리에 빛이 있더라. 장사가 동리에 나아가지 않으니 흑은 언택 하고 바람을 감춤이더라. 신리가 심히 협죽함에 연숨이 절에 있더라. 유인의 힘을 다 하매 들이 있어 위연하더라. 이끼도 안끼고 떨어짐도 없으니 오만년이나 되더라.

一九六五年 을사 대설절 창녕 성기덕 찬

贈嘉善大夫諱致敬墓碣銘

達句之奇世洞我石氏之吳中也嘉善大夫謹齋公生卒于此余雖不及公之世然耳之則
 諗矣公諱致敬字而範扁其堂曰謹齋蓋謹其信行也我忠州石氏遠有代序聖門高第成
 紀佚作蜀之後有諱鄰宋高宗時避遼金來東仕高麗佐毅宗有戰功於庚寅亂明宗十七
 年討趙位寵於西京立不世之功故升上將軍食采藥城卽今忠州也生諱靖密直提學生

諱捷密直提學諱興國門下侍中生諱道雙城摠管生諱良善洪陽府院君配慶昌翁主永興崔氏靖孝公間奇之女爲鮮韓太祖終母而兼有乳養功故特蒙封爵之典生諱天乙官中郎將洪城君生諱汝明恭愍朝甲寅文科官門下注書麗社屋太宗以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特下親書而召之牢拒不應竟遭譴斥而卒于忠州回文洞守義山配所後贈崇祿大夫左贊成後有吏曹叅議諱成玉見燕山政亂棄官南下遠遯于密陽五傳至諱彥佑號仁山壬燹備嘗百艱轉展至於琵琶山仁壽洞而家焉於公間九代曾祖曰天祚號靜軒祖曰龜潭號友于堂考曰轍漢號清溪俱雲德不仕妣星州裴氏相夏女公以哲廟辛亥八月十二日生天資顧悟早事舉業累試不中喟然太息曰雖有才略居非其地則不得僥倖得之非戚里則無所用幾誤了一生遂絕意科白潛心爲己之學惟謹一字爲持身之符則無悖人之患性喜恬靜厭紛 甲辰乙巳間時局大變蒙恩綸升資戶叅而以山野逸民自不居戊辰七月二十九日卒拒其生哲廟辛亥享年七十八無子以從子子地墓初葬不利移窆于奇世洞宿草谷陽地乾坐配淑夫人星州李氏丙午七月二十四日生乙巳八月十五日卒墓祔系子甲俊女壻星州裴龍錫祥均旺均素均東均玉均孫男也裴秘外孫也曾玄以下繁不載錄曾孫允鎮請其墓文於余遂銓次如右系之爲銘曰惟謹一字揭于額扁朝夕常目戒之在心恩資不居自謂逸民如或未信視此貞珉

族人 宇楨 撰

증가선대부 휘 치경 묘갈명

달구(達句)의 기세동(奇世洞)은 우리 석씨(石氏)의 우종(吳中)이라 가선대부 근재공(嘉善大夫 謹齋公)이 이 땅에서 생졸(生卒)하였으니 내가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들음임이즉 잘아느니라. 공의 휘는 치경이요 자는 이범이요 그당을 가로대 근재(謹齋)라하니 대개 그 언행(言行)을 삼가함이라. 우리 충주(忠州) 석씨가 성문고제성기후에 휘린(李仁)이 송(宋)나라 때에 요(遼)를 피하여 동(東)에와 고려(高麗)에 종(宗)때에 전공(功)이 있었었고 명(明)종(明宗)十七년에 조위(朝尉)를 거쳐 불세(佛世)의 공(公)이 만(萬)년(萬年)으로 상(上)장군(上將軍)에 오르니 예(禮)성(成)을 식(食)하니 지금(至今)의 충주(忠州)이다. 생(生)휘(輝)정(正)과 휘(輝)달(達)은 밀(密)직(職)제(制)학(學)이요 생(生)휘(輝)흥(興)우(宇)는 문(文)하시(希)중(中)이요 생(生)휘(輝)도(道)는 쌍(雙)성(成)총(宗)관(官)이요 생(生)휘(輝)양(陽)선(善)은 홍(洪)양(陽)부(府)원(院)군(君)이며 정(正)창(昌)응(應)주(主)(慶昌翁主) 영(永)흥(興)최(崔)씨는 정(正)영(永)공(公) 한(韓)기의(基) 따(追)님(名)이라. 태(太)조(祖)를 유(乳)양(養)한 공(公)이 있(有)는 고(高)로(魯) 봉(鳳)작(작)이 되(成)었(有)니 생(生)휘(輝)천(天)은 홍(洪)성(成)군(君)(洪城君)이요 생(生)휘(輝)여(汝)명(明)(汝明)은 공(公)민(民)조(朝)압(抑)인(仁)의(義)문(文)과(可)요 태(太)종(宗)이 검(檢)보(保)한(韓)성(成)은 단(檀)진(鎭)현(縣)전(田)제(制)학(學)을 친(親)서(書)로 부(府)르(魯)되(成)고 금(金)계(啓)항(恒)거(居)하여 응(應)하지 아니하니 그 천(天)함(含)을 만(萬)나 충(忠)주(州)회(回)문(文)동(洞)수(守)의(義)산(山)배(配)소(所)에서 졸(卒)하(하)시(示)다. 뒤(뒤)의 좌(佐)찬(贊)신(新)을 증(贈)하(하)느니라. 뒤(뒤)에 이(李)조(朝)참(參)의(義)휘(輝)성(成)우(宇)이 연(連)산(山)정(正)관(官)을 보(保)고 비(比)를 버(버)리(離)고 남(南)이로 밀(密)리(里)양(陽)(密陽)이로와 오(五)전(田)하(下)의 휘(輝)인(仁)은 홍(洪)인(仁)산(山)이니 임(任)란(亂)(壬亂)의

전전하여 비슬산 인수봉에 와서 사니 공의 九대조라. 증조휘는 천조니 호는 정현이요 조는 휘구담이요 호는 우우당이요 고휘는 철한이니 호는 청계니라. 다은덕 불사(隱德不仕)하고 비는 성주배씨 상하의 따님이니 공이 철묘신해(哲廟辛亥) 八月十二일에 생하니 천자가 경우하여 일찍 거임함을 하여 여러번 시험에 마치지 못하고 이연히 탄식하여 가로대 비록 재량이 있더라도 거지가 그 땅이 아닌즉 얻지 못하다 요행이 얻더라도 천리가 아닌즉 소용이 없는 것이니 거의 일생(一生)을 그릇 마칠 뻔했다. 드디어 과수에 절의하니 몸을 위하는 학에 잠심하여 오직 은자 한자로 몸가짐을 하니 패입의 환이 없니 심복이 엄정함을 즐거워하니 분요함을 싫어하니 갑진을사(甲辰乙巳)간에 시국이 크게 변하여 은류(은류)를 입어 호참(호참)에 이르되 산양(산양)의 민이로서 스스로 거하지 아니하고 무진(무진)철월(철월)이 십구일에 졸(卒)하니 거기생 철묘신해(哲廟辛亥)에 향년 七十八이라. 아들이 없어 종자로서 아들로 하나라. 묘는 초창이 불리하여 기세속초곡 건좌에 이장하였으니라. 배는 숙부인(淑夫人) 성주이씨니 병오(丙午)에 나고 을사(乙巳)에 돌아가시니 묘는 부하였다. 제자 갑준이요 사위는 성주배용석이요 상환 왕관 소관 동환 옥관은 손남이요 배필은 외손이라. 증현이 하는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손 윤진이 그 묘문을 나에게 청하기를 드디어 위와 같이 전하고 이어 명하여 가로대 오직 은자 일자로 액편(액편)에 거렸느니라. 조적(조적)으로 상무하여 증계한 마음(증계한 마음)에 있느니라. 은자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민(일민)이라 일민(일민)의

라。 후민지 아니하거든 이정민을 보라。

一九八三年 계해 초하

죽인 우정찬

小溪處士諱載俊墓碣銘

公姓石氏諱載俊字慶秀小溪其號也以高麗上將軍藥城君諱鄰爲鼻祖藥城卽今忠州子孫仍貫焉五傳而有諱良善娶永興伯崔閑奇之女卽我太祖大王之姨母也而曾於太祖有乳養之義及太祖御極封崔氏爲慶昌翁主追封洪陽府院君生諱天乙官中郎將御書下賜畧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生諱汝明號花園恭愍朝登乙科官注書逮我太宗特除嘉善大夫集賢殿提學公固守岡僕之義乃安置于忠州回文洞贈崇祿大夫左贊成三傳而有諱成玉官吏議當燕山昏朝退隱于密陽清川洞生諱光鼎進士四傳而有諱彦佑號仁山龍蛇亂仗義赴亂亂靖後奠居達鄉生諱雲祥號松菴贈資憲大夫四傳而有諱最重號敬齋壽資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於公爲五世祖也高祖諱天祚號靜軒曾祖諱龜潭號友于堂祖諱轍漢號清溪考諱致奎號知止堂皆爲文學之業妣坡平尹氏斗燦女有婦德以高宗丙寅八月二十三日舉公于奇世里第性天溫和姿地敦重始自七歲受學

于知止公學至小學書乃擊切而歎賞曰做人旨訣盡在於此知止公聞甚奇愛及長進學于晚競窩尹公泰老文勢筆力漸入蔗境遂成席珍之儒出而誠場屋之間幡然改悟曰其爲爲人之學不若爲爲己之學與其伯兄南溪公聯槩做業於育英齋而尤加式相好之情焉辛卯進應官學院講其讀法問義一無差爽長臨齋徐先生嶺伯李公鑣永地倅李公熹翼咸稱南州雅勅之士也是歲就正于臨齋先生先生舉價爲學之總領靡不諄諭服膺深造有士林之推望彥壬辰丁外艱歛殯襄祭一遵朱文公家禮癸卯春陪淵齋宋先生登洛東精舍講大學經一章戊申承旨金炳洙以公學行薦除章陵叅奉辭不就庚戌屋社之變北向痛哭而賦詩曰龔勝絕食非從死陶令歸田豈苟生一死一生惟義在千秋評論敢誰輕因杜山門而頓不聞躋跡之交喧自以爲守靖畢生之計遠近士流全集受學塾不能容丙辰丁內艱哀毀禮制一如前喪辛酉春門下諸生爲修含英榭因築小溪亭表準藏修之所是菴李公直鉉後潭蔡公憲植俱有記撰至若先烈幽潛之蹟世譜未遑之事垂裕後昆之謨盡是發揮竟成壽八耄而考終于乙酉七月十日用是年十月二十日葬于奇世洞大登山負丑之原士林輓詳會吊者甚衆焉配清道金氏陽坤女德行貞淑先公二十三年卒墓附同原艮坐生四男二女長一均次萬均世均銘均女適驪興閔永和星州李鍾八一均六男四女男鎬瓘鎬瑗出系鎬璵鎬琮鎬瑾鎬璉女適星州都周煥丹陽禹三基密陽朴炳

輪季幼萬均四男鎬象鎬麟鎬驥熊世均三男二女男鎬晟鎬昇鎬旻女皆幼銘均系男鎬瑗女幼閔婿男龍植判植以下不盡錄嗚呼以若公幹局之確踐履之篤宜有大假之嗚而命與時違只筮仕牖後學而老了於巖穴之間可惜也已日公之胤子一均及及門僉彦微碣文於余如於公曾有同門之義故忘拙而遂爲之銘銘曰器抱瑚璉晦跡林樊業述祖武學受斯文憂國憂道自啼心猿先知覺後如燭破昏藏其衣烏大登之原撫實載碣精彩永

存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戊子 下上澣 沃川 全柄坤 謹撰

묘비명(墓碑銘)

공(公)의 성(姓)은 석씨(石氏)요 휘(諱)는 재준(載俊)이며 자(字)는 경수(慶秀)이고 소계(小溪)는 그 호(號)이다. 고려(高麗)의 상장군(上將軍)인 예성군(藥城君) 휘(諱)린(鄰)이 시조(始祖)인데 예성(藥城)은 곧 지금의 충주(忠州)이니 자손(子孫)들이 이곳을 그대로 관향(貫鄉)을 삼았다. 오대(五代)를 지나 휘(諱)양선(良善)은 영흥백 최한기(永興伯 崔閑奇)의 따님을 부인(夫人)으로 맞이하였는데 곧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이모였으니 일찍이 태조(太祖)에게 젖을 먹여 길러준 은의(恩義)가 있어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하고 나서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고 대군

(大君)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追封)하였다. 이가 휘(諱) 천을(天乙)을 낳으니 관직(官職)이 중랑장(中郎將)이었는데 태조(太祖)가 손수 글을 써서 내려주며 이르기를 『같은 것을 먹었으니 형제(兄弟)의 정(情誼)이고, 산해(山海)같은 은혜(恩惠)로다』라고 하였다. 이가 휘(諱) 여명(汝明)을 낳으니 호(號)는 화원(花園)이고 공민왕(恭愍王)때에 을과(乙科)에 올라 관직(官職)이 주서(注書)였는데 태종(太宗)이 특지(特旨)로 가선대부 집현전제학(嘉善大夫 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하였으니 공(公)은 은혜(恩)로 강복(岡僕)의 절의(節義)를 지키다가 충주(忠州) 회문동(回文洞)으로 귀양을 가서 세상(世上)을 떠났는데 승록대부 좌찬성(崇祿大夫 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다. 삼대(三代)를 지나 휘(諱) 성옥(成玉)은 이조참의(吏曹參議)였는데 연산조(燕山朝)의 어지러운 정세를 당하여 밀양(密陽)의 청천동(淸川洞)으로 물러나 은거(隱居)하였다. 이가 휘(諱) 광정(光鼎)을 낳으니 진사(進士)였고,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언우(彦佑)는 호(號)가 인산(仁山)으로 임진란(壬辰亂)에 창의(倡義)하여 전란(戰亂)에 나갔고, 난(亂)이 멎은 뒤에 달향(達鄉)으로 옮겼다. 이가 휘(諱) 운상(雲祥)을 낳으니 호(號)는 송암(松菴)이고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였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최중(最重)은 호(號)가 경재(敬齋)이고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천조(天祚) 호(號)는 정헌(靜軒), 증조(曾祖)의 휘(諱)는

귀담(龜潭) 호(號)는 우우당(友于堂)、조부(祖父)의 휘(諱)는 철한(轍漢) 호(號)는 청계(淸溪)、부친(父親)의 휘(諱)는 치규(致奎) 호(號)는 지지당(知止堂)이었으니 모두 문학(文學)을 일삼았다. 모친(母親)은 파평윤씨(坡平尹氏) 두찬(斗燦)의 따님인데 부덕(婦德)이 있었다. 고종(高宗) 병인(丙寅)·一八六六) 八月 二十三일에 기세리(奇世里) 집에서 공(公)을 낳았다.

공(公)은 천성(天性)이 온화(溫和)하고 자품(姿稟)이 돈중(敦重)하였다. 처음에 七세로부터 지지공(知止公)에게 수학(受學)하였는데、「소학(小學)」에 이르러 곧 무릎을 치면서 탄상(歎賞)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되는 지결(旨訣)이 모두 이에 있다』고 하자 지지공(知止公)이 듣고 매우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였다.

자라나기에 이르러서는 만경와(晩競窩) 윤공(尹公) 태로(泰老)에게서 배웠는데 문세(文勢)와 필력(筆力)이 점차 가경(佳境)에 「①자경(蔗境)」에 들어가 드디어 훌륭한 한학문(學問)을 갖추어 선비가 되어서 나아가 과장(科場)의 사이에 시험(試驗)하였으나 뜻을 바꾸어 깨우치기를 『그 위인지학(爲人之學)은 위기지학(爲己之學)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고 백형(伯兄)인 남계공(南溪公)과 육영재(育英齋)에서 책상을 나란히 하여 학업(學業)을 익히면서 더욱 식호(式好)의 정의(情義)를 더하였다.

신묘(辛卯)·一八九一)년에는 관학원(官學院)의 강회(講會)에 나아갔는데 그 독법(讀法)과 문의(問議)에 하나도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없자 강장(講長)이던 임재(任在) 서선

생(臨齋 徐先生)과 영백 이공(嶺伯 李公 鑑永)과 지졸 이공(地倅 李公 憲翼)이 모두 남주(南州)의 「아척지사(雅勅之士)」라고 칭찬하였다.

이 해에 임재 서선생(臨齋 徐先生)에 나아가서 바로잡기를 청(請)할새 선생(先生)은 그 학문(學問)하는 총령(總領)을 들어서 순순(諄諄)이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는데 공(公)은 가슴에 새겨 깊이 알기에 나가니 사림(士林)의 추망(推望)이 있었다.

임진(壬辰)·一八九二년에는 부친상(父親喪)을 당했는데 상(喪)、제례(祭禮)를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따랐다.

계묘(癸卯)·一九〇三년에는 연재 송선생(淵齋 宋先生)을 모시고 낙동정사(洛東精舍)에 올라 「대학(大學)」의 경문(經文)을 강론(講論)하였다.

무신(戊申)·一九〇八년에는 승지(承旨) 김병수(金炳洙)가 공(公)을 학행(學行)으로 천(薦)하여 장릉참봉(章陵參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경술(庚戌)·一九一〇년에는 사직(社稷)이 망하는 변고(變故)가 있자 북쪽으로 향하여 통곡(痛哭)하면서 시(詩)를 읊기를

『공승(龔勝)의 절식(絶食)이 부질없는 죽음이 아니었으며,
도잠(陶潛)의 귀전(歸田)이 어찌 구차한 삶이었으랴?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오직 의리(義理)에 달렸으니,
천추(千秋)의 평론(評論)을 뒤라서 가변이 하랴?』

라 하고 이로부터 산문(山門)을 닫고 아예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② 제적(蹄跡)」를 듣지 않고 스스로 자정(自靖)하며 여생(餘生)을 마칠 결심을 하니 원근(遠近)의 사류(士流)들이 많이 모여들어 수학(受學)함에 서숙(書塾)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병진(丙辰)·一九一六년에는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슬퍼하는 정성과 예제(禮制)를 모두 부친상(父親喪)때 같이 하였다.

신유(辛酉)·一九二二년에는 문하(門下)의 여러 생도(生徒)들이 함영계(含英契)를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소계정(小溪亭)을 짓고 ③장수(藏修)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시암(是菴) 이공(李公) 직현(直鉉)과 후담(後潭) 채헌식(蔡憲植)이 모두 기문(記文)을 지은 것이 있다. 선대(先代)의 열행(烈行)이 드러나지 않은 것과 미처 편수(編修)할 겨를이 없었던 세보(世譜)의 일과 후손들에게 끼칠 모유(謨猷)와 같은 것에 이르서는 모두 힘써서 마침내 이루었고 팔칠(八耄)의 상수(上壽)로 을유(乙酉)·一九四五(五)년에 고종(考終)하였다. 이해 十月 二十일에 기세동(奇世洞) 대등산(大登山) 부족원(負丑原)에 안장(安葬)하였는데, 사림(士林)에서 만사(輓詞)와 퇴문(誄文)을 지어 가지고 모여서 조곡(吊哭)한 이가 매우 많았다.

부인(夫人)은 청도김씨(淸道金氏) 양근(陽坤)의 따님으로 덕행(德行)이 정숙(貞淑)하였고 공(公)보다 二十三年 앞서 세상을 떠났다. 묘소(墓所)는 공(公)과 동원(同原)인 간좌(艮坐)에 있다. 사남이녀(四男二女)를 두었는데 아들인 일균(一均), 만

균(萬均)、세균(世均)、명균(銘均)이고 딸은 여흥 민영화(驪興 閔永和)、성주 이종팔(星州 李鍾八)에게 출가하였다. 일균(一均)은 육남사녀(六男四女)를 두었는데 아들 은호관(鎬瓘)、호원(鎬瑗)、호진(鎬璉)、호종(鎬琮)、호근(鎬瑾)、호은(鎬璉)인데 호원(鎬瑗)은 양자로 갔고, 딸은 성주 도주환(星州 都周煥)、단양 우삼기(丹陽 禹三基)、밀양 박병륜(密陽 朴炳輪)에게 출가했고 막내는 어리다. 만균(萬均)의 아들은 호상(鎬象)、호린(鎬麟)、호기(鎬驥)、호웅(鎬熊)이다. 세균(世均)의 아들은 삼남의 너(三男二女)를 두었는데 아들은 호성(鎬晟)、호승(鎬昇)、호민(鎬旻)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민영화(閔永和)의 아들은 용식(龍植)、판식(判植)이다. 이하는 다 적지 않는다.

아! 공(公)과 같은 간국(幹局)의 확고(確固)함과 천리(踐履)의 돈독(敦篤)함으로 세 세상에 크게 떨쳐서 올림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명(命)이 때와 맞지 않아서 다만 쓰이지 않고 후학(後學)들을 가르치면서 암혈(巖穴)의 사이에서 늙었으니 애석할 뿐이다. 일균(一均)의 장자(長子) 일균(一均)과 여러 문인(門人)들이 나에게 비문(碑文)을 부탁하기에 내가 공(公)에게는 일찍이 동문(同門)의 의리(義理)가 있는 까닭으로 보잘 것 없음을 잊고 드디어 이에 명(銘)하느니라

호련(瑚璉)같은 훌륭한 기량(器量)을 품고, 임번(林樊)에 자취를 감추었네。
가업(家業)은 ④ 조무(祖武)를 이었고, 학문(學問)은 사문(斯文)에 받았네。

나라와 도의(道義)를 그 심함에, 스스로 마음 아파 슬퍼하겠네.

선지자(先知者)로서 후지자(後知者)를 깨우침에, 촛불처럼 그 어둠을 깨뜨렸네.

그 의석(衣鳥)이 간직된 곳은, 대등산(大登山) 언덕일세.

실적(實蹟)을 모아 묘비(墓碑)에 실어놓으니, 정채(精彩)가 길이 남아 있으리!

檀紀四二八 一 年 戊子 ⑤ 요하절(要夏節) 상한(上澣)에 전병근(全柄坤)은 삼가 짓다.

【주(註)】

① 자경(蔗境) .. 감자의 맛이 먹을수록 더욱 좋은 맛이 있음에 비유하여 점점 좋은 경지(境地)로 나아간다는 것.

② 제적(蹄跡) .. 짐수(禽獸)의 발자국이니 왜놈들이 횡행(橫行)한다는 뜻.

③ 장수(藏修) .. 학문(學問)을 정과(正課)로 하여 닦고 익힘.

④ 조무(祖武) .. 선조의 자취.

⑤ 요하(要夏) .. 음(陰) 사월(四月)을 이룸.

晚岡處士諱一均墓碣銘

公諱一均字德仲號晚岡姓石氏以高麗上將軍藥城君諱鄰爲始祖藥城卽今忠州子孫仍貫焉五傳至諱良善聚永興崔閑奇之女卽我太祖大王之姨母也曾於太祖乳養之義

及太祖御極封崔氏爲慶昌翁主追封洪陽府院君生諱天乙官中郎將御書下贈畧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生諱汝明號花園恭愍朝登科官注書逮我太宗特除嘉善大夫集賢殿提學公固守岡僕之義乃安置于忠州回文洞贈崇祿大夫左贊成三傳至諱成玉官吏議燕山昏朝退隱于密陽清川洞生諱光鼎進士四傳至諱彥佑號仁山龍已之亂仗義赴亂亂靖後奠居達鄉生諱雲祥號松菴贈資憲大夫四傳至諱最重號敬齋壽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卽公六世以上祖也高祖諱龜潭號友于堂曾祖諱轍漢號清溪祖諱致奎號知止堂皆有文行著世考諱載俊號小溪遊於臨齋徐先生之門爲士友推重妣清道金氏有女士行士人陽坤其外大父也高宗丁亥十一月二十七日舉公于橋項外第骨格俊秀才婿精敏早承過庭之訓日受句讀解悟甚捷文辭夙就言若不出於口而未嘗評論古今人物之藏否好賢如不及事父母不避晨昏之節與兄弟有埶箎之樂悅宗族以睦接朋友以信不求人知不慕榮達可謂遯世君子也癸亥遭內艱一如文公家禮安分自靖樂付琴書乙酉丁外艱哀禮備盡亦如前喪惟以清閒勤儉爲持身之符晚年與諸族協謀勗立先齋藏書數百卷日與遐邇同宗講服祖先忠孝道學之實遊於斯息於斯取無侯淡泊明志寧靜致遠八字書于壁以自省焉甲午四月十日以疾令終僚友咸惜之葬于先塋左峽艮坐之原夫人坡平尹氏有婦德葬用魯人禮生六男四女男曰鎬瓘鎬瑗出鎬璵鎬琮鎬鎬

瑾鎬璁女適星州都周煥丹陽禹三基密陽朴炳輪星州襄判洪鎬瓘三男一女男曰正淳
 泰淳昌淳女適綾城具滋範鎬璠四男四女男曰元淳亨淳萬淳珉淳女皆幼鎬琮五男一
 女男賢淳性淳敬淳漢淳允淳女幼鎬瑾三男一女志淳甲淳哲淳女幼鎬璁四男二女男
 曰仁淳義淳禮淳德淳女幼正淳三男二女男曰柱榮柱一柱洪女幼泰淳一男一女男曰
 柱烈女幼餘不錄嗚呼頎然其體凜然其儀介然其操休休有古人之風味者今不可以復
 見也跡公平生風情豪宕操履緻密好飲酒喜諷詠每相逢於風清月朗之夕樽酒淋漓弟
 勸兄酬天地間何樂女斯已矣乎已矣乎顧余淺劣難以筆力所可彷彿其萬一也畧述吾
 平日所聞知其志行之大槩以塞公嗣子鎬瓘之請焉遂爲之銘曰孝友根天端慤性行治
 家以禮律身以正肥遯正吉不市深藏我銘于石永垂無疆

歲丙午仲冬哉生魄 星州 李培元 撰

묘갈명(墓碣銘)

공(公)의 휘(諱)는 일균(一均)、자(字)는 덕중(德仲)、호(號)는 만강(晩岡)、성(姓)
 은 석씨(石氏)이니 고려(高麗) 상장군(上將軍) 예성군(藥城君) 휘(諱)린(鄰)이 시조
 (始祖)이다. 예성(藥城) 곧 지금의 충주(忠州)이기에 자손(子孫)들이 그 곳을 관향

(貫鄉)을 삼는다. 오대(五代)를 지나 휘(諱) 양선(良善)이 영흥백 최한기(永興伯 崔閑奇)의 따님을 맞이하니 이가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이모이다. 일찍이 태조(太祖)에게 절을 먹여 기른 은혜(恩惠)로써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함에 미쳐 최씨(崔氏)를 정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고 공(公)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봉(追封)하였다. 부원군(府院君)이 휘(諱) 천을(天乙)을 낳으니 관직(官職)이 중랑장(中郎將)이고 어서(御書)를 내려 말하기를 『갈은(갈은) 절을 먹었으니 형제(兄弟)의 의(誼)이고, 산해(山海)갈은(갈은) 은혜(恩惠)로다』라고 하였다. 이가 휘(諱) 여명(汝明)을 낳으니 호(號)는 화원(花園)인데 공민왕(恭愍王)때에 을과(乙科)에 올라 벼슬이 주서(注書)였다. 태종(太宗)이 특명으로 가선대부 집현전제학(嘉善大夫 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하였으나 공(公)은 군이 강복(岡僕)의 의리를 지키므로 충주(忠州) 회문동(回文洞)에 안치(安置)되었다니 승록대부 좌찬성(崇祿大夫 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다. 삼대(三代)를 지나 휘(諱) 성옥(成玉)은 벼슬이 이조참의(吏曹參議)였는데 연산군(燕山君)의 훈미한 정치를 보고 밀양(密陽)의 청천동(淸川洞)으로 물러나 은거(隱居)하였다. 이가 휘(諱) 광정(光鼎)을 낳으니 진사(進士)였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諱) 언우(彦佑)는 호(號)가 인산(仁山)이니 임진왜란에 의병으로 일어나 난에 나아갔다가 난이 평정된 후에 달성(達城)에 옮겨와 살았다. 이가 휘(諱) 운상(雲祥)을 낳으니 호(號)는 송암(松菴)이고 자헌대부(資憲大夫) 추증(追贈)되었다. 사대(四代)

를 지나 휘(諱) 최중(最重)은 호(號)가 경재(敬齋)이고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가 되었으니 즉 공(公)의 육대(六代) 이상의 조상이다. 고조(高祖)의 휘(諱)는 귀담(龜潭), 호(號)는 우우당(友于堂), 증조(曾祖)의 휘(諱)는 철한(轍漢), 호(號)는 청계(淸溪), 조부(祖父)의 휘(諱)는 치규(致奎), 호(號)는 지지당(知止堂)이다. 모두 문행(文行)이 있어 세상에 드러났다. 부친(父親)의 휘(諱)는 재준(載俊)이니 호(號)는 소계(小溪)이고 임재 서선생(臨齋 徐先生)의 문하(門下)에 유학(遊學)하여 사우(士友)들에게 추중(推重)되었다. 모친(母親)은 청도김씨(淸道金氏)이니 여사(女士)의 행실이 있었고 사인(士人) 양곤(陽坤)은 그의 외대부(外大父)이다. 공(公)은 고종(高宗) 정해(丁亥)·一八八七十一月二十七日에 교항(橋項)에서 출생(出生)하였다. 골격이 준수하고 재주와 슬기가 정민(精敏)하여 가정(家聲)에 서의 가르침을 이어 날로 구독(句讀)을 받음에 이해가 매우 민첩하고 문사(文辭)가 일찍 성취되었다. 말의 마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듯하되 일찍이 고금(古今)의 인물의 착하고 나쁨을 평론하지 아니했고, 어진이를 좋아하되 미치지 못한 듯이 했으며, 부모를 섬기되 새벽에 문후를 살피는 일과 저녁에 잠자리를 돌보는 예절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형제와 더불어 서로 화락한 즐거움이 있었으며, 종족(宗族)에게는 화목(和睦)으로써 기쁘게 하였고, 벗들에게는 믿음으로써 접하며, 남이 알아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영달(榮達)을 바라지 아니했으니 세상을 피해 사는 군자

(君子)라고 이를 만하다. 계해(癸亥)에 모친상을 만나 모두 문공(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랐으며 분수에 맞게 스스로 의리를 지켜 금서(琴書)를 즐겨워 하였다.

을유(乙酉: 一九四五)에 부친상을 당하여 슬퍼함과 상례의 절차를 다 갖추기를 앞의 모친상과 같이 하였다. 오직 청한(淸閒)하고 근검(勤儉)함으로써 몸을 가지는 부절(符節)을 삼았다. 만년(晩年)에는 제족(諸族)들과 협의(協議)하여 인산당(仁山堂)을 창건하고 수백권의 책을 간직했으며 날로 멀고 가까운 동족(同族)들과 더불어 조선(祖先)의 충효도학(忠孝道學)의 실상을 가론하고 행하여 이에서 유식(遊息)하였고 제갈무후(諸葛武侯)의 글을 담박명지(淡泊明志)、영정치원(寧靜致遠)의 여덟 글자를 취하여 벽에 써서 스스로 반성하였다. 갑오(甲午: 一九五四) 四月十日에 병으로써 세상을 마치니 유우(僚友)가 모두 슬퍼하였다. 선영(先塋)의 왼쪽 간좌(艮坐)의 등성이에 안장하였다.

부인은 파평윤씨(坡平尹氏)니 부덕(婦德)이 있었다. 장례는 ① 노인(魯人)의 예(禮)를 썼다. 육남사녀(六男四女)를 낳았으니 아들인 호관(鎬瓘)、호원(鎬瑗)은 출계(出系)하고 다음은 호전(鎬璵)、호중(鎬琮)、호근(鎬瑾)、호은(鎬璉)이다. 딸은 성은주 도주환(星州 都周煥)、단양 우삼기(丹陽 禹三基)、밀양 박병륜(密陽 朴炳輪)에게 출가했다. 호근(鎬瑾)은 사남일녀(四男一女)니 아들인 정순(正淳)、영순(英淳): 六二五사변때 전사)、태순(泰淳)、창순(昌淳)이고 딸은 능성 구자범(綾城 具滋範)에게

출가했다. 호전(鎬琿)은 사남사녀(四男四女)니 아들은 원순(元淳), 형순(亨淳), 만순(萬淳), 민순(珉淳)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호종(鎬琮)은 오남일녀(五男一女)니 아들은 현순(賢淳), 성순(性淳), 경순(敬淳), 한순(漢淳), 윤순(允淳)이고 딸은 어리다. 호근(鎬瑾)은 삼남일녀(三男一女)니 아들은 지순(志淳), 갑순(甲淳), 철순(哲淳)이고 딸은 어리다. 호은(鎬璉)은 사남이녀(四男二女)니 아들은 인순(仁淳), 의순(義淳), 예순(禮淳), 덕순(德淳)이고 딸은 어리다. 정순(正淳)은 삼남이녀(三男二女)니 아들은 주영(柱榮), 주일(柱一), 주홍(柱洪)이고 딸은 어리다. 나머지 기록하지 않는다.

아! 환철한 그 체구와 늙름한 그 위의(威儀)와 그 지조(志操)의 아름답기는 고인(古人)의 풍미(風味)가 있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다시 볼 수가 없다. 공(公)의 평생(平生)을 살펴보니 풍정(風情)이 호탕하고 행함이 치밀하며 슬마시기를 좋아하고 시(詩) 읊기를 기뻐하여 매양 청풍명월(淸風明月)의 저녁에 만나면 오랫동안 술을 마시며 아우는 권하니 형은 다르니 어니 즐거움이 이와 같았으랴? 그런데 이제는 그만이다. 돌아보면 대나의 보잘 것 없는 필력(筆力)으로는 그 만분의 일이나 마 비슷하게 서술하기가 어렵다. 대략 내가 평일 들어서 안 바와 그 지행(志行)의 대개를 들어서 아는 바를 서술하여 공(公)의 장자(長子) 호관(鎬瓘)의 칭에 응한다. 이에 명(銘)하노니

효우(孝友)는 천성(天性)에 근본하였고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성품과 행실이었네. 가정을 거느리기는 예(禮)로써 하고 자신을 다스리기는 정(正)으로써 했네. 비둔(肥遯)으로써 ② 정길(正吉)하여 드러내지 않고 깊이 감추었네. 내명(銘)을 비석에 새기느니 길(吉)이 무강(無疆)히 드리우리다.

歲丙午(一九六六) 증동(仲冬)

③ 재생백(哉生魄) 성주(星州) 이배원(李培元) 지음

【주(註)】

- ① 노인례(魯人禮) .. 조선(祖先)의 제하(階下)에 장사(葬事)하였다는 뜻. 단궁(檀弓)에 『객거노인야(客居魯人也) 불감망기조(不敢忘其祖)』라 하였음.
- ② 정길(正吉) .. 절조(節操)를 바르게 지키면 행운(幸運)이 온다는 말. 이경(易經) 수괘(需卦)에 『수기부광형정길(需有孚光亨貞吉)』이라 하였음.
- ③ 재생백(哉生魄) .. 음 十六日을 이름. 달의 백(魄)이 처음 생(生)한다는 것이니 달의 광채(光彩)가 사(死)한다는 것임.

항일의사휘현도묘비(抗日義士諱鉉道墓碑)

우호(嗚呼)라 차(此)는 충주석현도지묘지(忠州石鉉道之墓地也)라. 기(其) 시조

(始祖)의 휘(諱)는 린(鄰)이니 본중화(本中華)이다. 고려(高麗)의 종경인지라(毅宗 庚寅之亂)에 이의방(李義坊)을 쫓아서 낭장(郎將)에 당선(當選)이 되고 명종(明宗) 병신(丙申)에 두경승(杜景升)을 쫓아서 조위총(趙位寵)을 도벌(討伐)하여 유공(有功)한 때문에 서북병마사(西北兵馬使)를 역임(歷任)하고 상장군(上將軍)에 누승(累陞)되었으며 예성군(藥城君)을 봉(封)함이 되었으니 예성(藥城)은 즉 충주(忠州)의 고후(古號)라 이로부터 충주(忠州)를 본관(本貫)하였다. 린(鄰)의 자(子)는 정(靖)이요 손(孫)은 달(璿)이니 구밀직제학(俱密直提學)이고 달(璿)의 자(子)는 흥국(興國)이니 문하시중(門下侍中)이고 흥국(興國)의 자(子)는 도(道)는 관결사점쌍성총관(判決事兼雙城摠管)이니 쌍성(雙城)은 금영흥(今永興)이라. 도(道)의 자(子)는 양선(良善)이니 기부인영흥최씨(其夫人永興崔氏)는 낭이태조(郎李太祖)의 이모(姨母)라. 태조(太祖)가 탄강(誕降)한지 오개월(五個月)만에 태조모(太祖母) 의혜왕후(懿惠王后)가 승하(昇遐)한 고(故)로 최씨(崔氏)가 유양(乳養)하였다니 태조(太祖)가 등극(登極)한 후(後)에는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고 최씨(崔氏)에게는 경창옹주(慶昌翁主)로 특봉(特封)하였다. 양선(良善)의 자(子)는 천을(天乙)이니 호(號)는 향산(香山)이요 중랑장(中郎將)으로 증홍성군(贈洪城君)이라. 외조(外祖) 정효공(靖孝公)이 무사(無嗣) 고태조(故太祖)가 천을(天乙)을 명(命)하

여 정효공(靖孝公)의 제사(祭祀)를 받들게 하고 어필(御筆)로 쓰시어 하사(下賜)하
 여 말하기를 동유형제의(同乳兄弟誼)가 여산여해(如山如海)라 하고 창녕경의사(昌
 寧景義祠)에 은향(恩享)하다. 천을(天乙)의 자(子)는 여명(汝明)이니 호(號)는 화
 원(花園)이라. 공민왕조(恭愍王朝)에 생원주서(生員注書)를 지냈으므로 태종(太
 宗)이 한성읍집현전제학(漢城尹集賢殿提學)을 특제(特除)하여도 불취(不就)하다가
 충주차의산회문동(忠州車依山回文洞)에 안치(安置)를 당(當)하여 천명(天命)을 종
 (終)하니 충의대절(忠義大節)이 포은(圃隱)에 불괴(不愧)하다하여 태종(太宗)은 충
 (忠)을 포(褒)하고 좌찬성(左贊成)을 증직(贈職)하였으며 사림(士林)이 창녕경의단
 (昌寧景義壇)에 숭봉(崇奉)한다. 여명(汝明)의 자(子)는 문현(文賢)이니 현감(縣
 監)이고 문현(文賢)의 자(子)는 정신(貞信)이니 정랑(正郎)이고 정신(貞信)의 자
 (子)는 성옥(成玉)이니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연산조(燕山朝)에 기관(棄官)하고 밀
 양청천동(密陽淸川洞)에 은거(隱居)하였다. 성옥(成玉)의 자(子)는 광정(光鼎)이니
 생원(生員)이고 역삼세(歷三世)하여 지언우(至彦佑)하여 임란(壬亂)을 피(避)하여
 밀양(密陽)으로부터 비슬산(比叒山)의 수동(琵琶山仁壽洞)에 은거(隱居)하여 호(號)를 인산
 (仁山)이라 하다. 언우(彦佑)의 자(子)는 운상(雲祥)이니 호(號)는 송암(松菴)이요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이고 역십세(歷十世)하여 개은덕졸사(皆隱德茁仕)하다. 고

휘(考諱)는 조균(助均)이요 비(妣)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이니 덕금(德今)의 녀(女)이다. 현도(鉉道)의 자(子)는 태길(泰吉)이니 庚申 西紀 一九二〇年 陰九月二十三일에 생(生)하여 유시(幼時)에 이미 천자(天姿)가 명민(明敏)하고 재품(才品)이 특이(特異)하더니 장성(長成)하여 효행(孝行)이 지극(至極)하고 공부(工夫)가 근실(勤實)하여 학업(學業)을 졸(卒)함으로부터 흉중(胸中)에 조국광복(祖國光復)을 품고 교포(僑胞)를 위(爲)하여 학교(學校)를 건설(建設)하고 조국(祖國)의 정신(精神)과 학문(學問)을 교도(敎導)하니 성취(成就)한 자가 다수(多數)하다. 유시작창(有時爵窓)에 지은 시(詩)에 이르기를 춘풍(春風)이 화개(花開)요 추월(秋月)은 상상사절(秋月今霄桑思切)이라 하였으니 이 시(詩)를 고창(高唱)하는 자리에 우리 교포(僑胞)의 남녀노소(男女老少)가 다 처량(淒涼)함을 금(禁)치 못하더니 천운(天運)이 순환(循環)에 무왕불왕(無往不往)일세. 乙酉 一九四五年 해방(解放)이 되어 대동천지(大東天地)에 신단일월(神壇日月)이 복명(復明)하니 왜적(倭賊)이 격주(驚走)하고 국민(國民)이 진흥(振興)함에 드디어 회수동하(回首東何)이니 노원삼십리(路遠三十里)에 동행(東行)이 두절(杜絕)이라. 종보(從步)하여 삼개월(三個月)만에 가정(家庭)에 도착(到着)하여 부모전(父母前)에 환정(歡情)을 상달(上達)하니 력진성진(力盡誠盡)이라. 丙戌 陰九月初八일에 순직(殉職)하니 통재석재(痛哉惜哉)라. 묘(墓)

는 고령성산면고탄동자좌원(高靈星山面古灘洞子坐原)이다. 배(配)는 광주안씨(廣州安氏)니 태규(泰圭)의 녀(女)라. 자(子)는 일홍(一洪)이요 녀(女)는 재미자부(在美子婦)는 진주강씨(晉州姜氏)니 석호(錫虎)의 녀(女)라. 손(孫)은 은욱(殷旭)성욱(城旭)이니 개(皆)하다. 금(今)에 일홍래(一洪來)하여 우(右)와 여(如)히 약서(略序)하고 명사(銘詞)를 지어 놓으니 애국효친(愛國孝親)은 천성지이(天性之彝)이요 교도순직(敎徒殉職)은 인사지위(人事之禱)라 현각묘도(顯刻墓道)하니 천추가기(千秋可期)로다.

西紀 一九七五年 중추절(仲秋節)

안동(安東) 권순(權淳) 찬(撰)

충주석씨 참의공파 망강묘원(忠州石氏叅議公派望江墓苑)

멀리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이곳 망강은 자손이 번창할 명당이다.

여기에 풍속의 변화에 부응해서 시조로부터 十二세손인 광정공 이하 四세 내외분의 합동 제단과 기세 입향조이신 十六세 인사공 이하 六세 내외분의 유택을 읊겨와 무종묘원일을 조성했다. 달도산 기슭에 망강령이요, 그 언덕 아래는 기세

마을이라。우리 석문의 조손들이 아침저녁 감응하니 어찌 기약된 부락 없겠는가。

二〇一七年 四月 日

충주석씨 참의공파 기세문중

처사휘철증묘갈명(處士諱哲曾墓銘)

부군(府君)의 성(姓)은 석씨(石氏)요 휘(諱)는 철증(哲曾)이요, 자(字)는 현량(賢郎)이다。시조(始祖) 휘(諱) 린(鄰)은 송(宋)나라에서 고려(高麗)에 오시어 의종경인란(毅宗庚寅亂)에 낭장(郎將)으로 활약(活躍)하시고 명종(明宗) 병신란(丙申亂)을 토평(討平)한 공적(功績)으로 상장군(上將軍)에 오르시고 예성군(藥城君)에 봉(封)해지시니 예성(藥城)은 금(今) 충주(忠州)의 고호(古號)라。자(子)들이 인관(因貫)하다 우전(五傳)에 휘(諱) 양선(良善)의 배(配)는 영흥최씨(永興崔氏)니 영흥(永興) 백한기(伯閑奇) 다남이며 조선(祖先)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이모(姨母)이시다。태조(太祖)가 탄생(誕生)한지 오삭(五朔)에 생모(生母)의 혜왕후(懿惠王后) 승

하(昇遐)하고 이모(姨母) 최씨(崔氏)가 유양(乳養)하였다. 태조(太祖) 어극(御極) 후(後) 유양지은(乳養之恩)으로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부군(夫君)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다. 생휘(生諱) 천을(天乙)은 증랑장(中郎將)이요, 생휘(生諱) 여명(汝明) 호(號) 화원(花園)이시니 공민왕(恭愍王) 갑인(甲寅)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관(官)이 주서(主書)였는데 조선(朝鮮) 태종(太宗) 병신(丙申)에 왕지(王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되었으나 강부지의(岡僕之義)로 불취(不就)하니 왕(王)이 진노(震怒)하고 충주(忠州) 회문리(回文里)에 안치(安置)되어 고종(考終)하시니 태종(太宗)은 그 충절(忠節)에 감복(感服)하고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에 추봉(追封)되었다. 삼전(三傳)에 휘(諱) 성옥(成玉)은 이조참의(吏曹叅議)요 생휘(生諱) 광정(光鼎)은 성균진사(成均進士)며 사전(四傳) 휘(諱) 언우(彦佑) 호(號) 인산당(仁山堂)은 고조(高祖)이신데 용사지란(龍蛇之亂)에 창의(倡義) 부난(赴難)하고 난정후(亂靖後)는 달성군(達城郡) 옥포면(玉浦面) 기세리(奇世里)에 복거입향(卜居入鄉)하였다. 증조(曾祖) 휘(諱) 운상(雲祥)은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이시고 조(祖) 휘(諱)는 춘남(春南)이요, 고(考)의 휘(諱)는 진걸(震傑)이며 비(妣)는 연안차씨(延安車氏)니 명상(明祥)의 따님이시다. 공(公)은 一六七七年 승

종(肅宗) 정사(丁巳) 三月初八日 기세리(奇世里) 제(第)에서 출생(出生)하시고 성
 장(成長) 후(後)는 개진오사(開津吾士)에 우거(寓居)하셨는데 一七四六年 영조(英
 조) 병인(丙寅) 六月初十일에 고종(考終)하였다. 묘(墓)는 오사리(吾士里) 안산
 (案山) 경좌지원(庚坐之原)이다. 배(配)는 경주최씨(慶州崔氏)니 보인(補仁)의 따
 님이며 一六八二年 숙종(肅宗) 임술(壬戌) 九月十二日生이며 一七四五年 영조(英
 조) 을축(乙丑) 十一月十六일에 졸(卒)하시니 묘(墓)는 개진면(開津面) 구곡리(九
 谷里) 자좌지원(子坐之原)이며 상석(床石)이 놓였다. 생삼남삼녀(生三男三女)하니
 장(長)에 만중(萬重)이요 차(次)에 최중(最重)은 수자통정대부침지증추부사(壽者通
 政大夫僉知中樞府事)이며 계(季)에 태중(泰重)이다. 녀(女)는 윤옥심(尹玉心) 김덕
 오(金德鳴) 성순세(成舜世)에게 각각(各各) 출가(出嫁)하였다. 장생(長生)에 경천
 (敬天) 주천(柱天)이요, 차생(次生)에 보천(補天) 봉천(奉天) 천익(天益) 연천(鍊天)
 천조(天祚)이며 녀(女)는 배옥삼(裴玉三)에게 출가(出嫁) 계생(季生) 재천(齋天) 계
 천(啓天) 우천(遇天) 후천(厚天)이다. 여불진록(餘不盡錄)이다. 부군지몰후(府君
 之歿後) 이백오십여년(二百五十餘年)이라. 누차경란(累次經亂)으로 실기묘의(失期
 墓儀)하고 갑신(甲申) 세막(歲莫)에 인산당문중(仁山堂門中) 정흥종장(貞鎬宗長)이
 종의(宗議)를 모아 묘표(墓表)를 도모(圖謀)할새 종원(宗員) 제위(諸位)는 묘표문

(墓表文)을 불초여(不肖余)에 청탁(請囑)하기에 외람(猥濫)되나 삼가 세보소재(世譜所載)를 근처(近處)해서 우(右)와 여(如)히 간략(簡略)히 서술(敘述)하는 바이다.

을유년(乙酉年) 청명절(清明節) 후손(後孫) 호근(鎬瑾) 근지(謹識)

교장 충주석씨 손암공 행장(校長忠州石氏巽庵公行狀)

공은 휘가 호근(鎬瑾)이고 자가 자진(子珍)이며 호는 손암(巽庵)이다. 성은 석씨(石氏)이고 본관은 충주(忠州)이니 삼조 휘린(鄰) 호방재(芳齋)께서 송(宋)나라 소흥(紹興) 연간에 광릉(廣陵)으로부터 고려(高麗)로 옮겨와 살았다. 고려 명종(明宗) 6년(一一七六)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한 공(功)으로 상장군(上將軍)、동서북면병마사(東西北面兵馬使)에 올랐고, 그 뒤 예성군(藥城君)에 봉해져 후손들이 충주(忠州)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6세 휘양선(良善)이 영흥백(永興伯) 정효공(靖孝公) 최한기(崔閑奇)의 다남을 부인으로 맞이 하니 조선조(朝鮮朝) 태조(太祖)의 이모(姨母)이다. 태조가 태어난 지 다섯달

만에 모후(母后)인 의혜왕후(懿惠王后)가 돌아가시어 최씨(崔氏)가 젖을 먹여 길
 뉘었는데 조선이 개국되자 태조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최씨를 경창옹주(慶昌
 翁主)로 봉하고 공을 흥양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追封)하였다. 부원군의 손
 자 휘 여명(汝明)은 호가 화원(花園)이며 후손들이 중시조(中始祖)로 모시고 있
 다. 공민왕(恭愍王) 갑인년(一三七四)에 과거에 급제하여 주서(注書)가 되고 태
 종(太宗) 병신년(一四一六)에 특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검교(檢校) 한성윤(漢城
 尹)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을 제수하였으나 강북(岡僕)의 절의(節義)를 지켜 충주
 (忠州) 차의산(車依山) 회문동(回文洞)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치니 조정에서 그 충
 절을 기려 좌찬성(左贊成)에 추증하였다. 삼대(三代)를 지나 휘 성옥(成玉)은 관
 직이 이조참의(吏曹叅議)에 이르렀으나 연산조(燕山朝)에 관직을 버리고 밀양(密
 陽) 청주동(淸州洞)에 은거하였다. 이 분이 휘 광정(光鼎)을 낳으니 성윤진사(成
 均進士)를 지냈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 언우(彦佑)는 임진란(壬辰亂)에 의병(義
 兵)으로 활약하다가 밀양(密陽)에서 달성(達城) 인수동(仁壽洞)으로 이거해 살며
 그곳의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자호(自號)를 인산(仁山)이라 했으니 곧 공의 十
 二代조이다. 이 분이 휘 운상(雲祥)을 낳으니 호가 송암(松菴)인데 일찍이 서을
 에 유학(遊學)하며 큰 뜻을 품었으나 광해군(光海君)의 난정(亂政)을 보고 과거(科

擧)에 뜻을 버리고 낙향(落鄉)하여 기세리(奇世里) 남쪽 증승봉(重崇峰) 아래에 인
 산당(仁山堂)을 짓고 은둔하였으며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고 자
 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되었다. 사대(四代)를 지나 휘 최중(最重)은 호가 경재
 (敬齋)인데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節愼將軍) 용양위부호군(龍陽尉府護軍) 첨지증추부사(添知證추부사)를 지냈
 다. 선대가 고령(高靈)에 이거(移居)해 살았는데, 공의 대에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와 자손들이 마침내 기세동(奇世洞) 망강정(望江亭) 아래 세거하게 되었으
 니 곧 공의 七대조이다.

고조는 휘가 철한(轍漢)이고 호가 청계(淸溪)이다. 증조는 휘가 치규(致奎)이
 고 호가 지지당(知止堂)이니 육영재(育英齋)를 지어 후진을 양성하여 사우(師友)
 들 사이에 증망(重望)을 받았고 명성이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향당(鄉黨)에
 서 추중(推重)하여 《동유학안(東儒學案)》에 이름이 올랐다. 조부(祖父)는 휘가
 재준(載俊)이고 호가 소계(小溪)이니 일찍이 가학을 이어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
 썼고 임재(臨齋) 서선생(徐先生)의 문하(門下)에서 배워 사림(士林)의 추증을 받았
 다. 승지 김병수(金炳洙)의 천거로 장릉참봉(章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정슬국치(庚戌國恥) 이후로 세상과 단절하고 후진(後進)을 양성하는 것을
 낙(樂)으로 삼았다. 부(父)는 휘가 일균(一均)이고 호가 만강(晩岡)이니 효(孝)

友)하고 근검(勤儉)하여 집안을 예로 다스리고 대소사(大小事)를 법도에 맞게 처리하여 온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다. 광복 후 면민(面民)들의 추대로 면장을 역임하였다. 모(母)는 파평윤씨(坡平尹氏)니 윤태홍(尹泰弘)의 따님으로 태위(太尉) 윤안비(尹安庇)의 후손이다.

공은 을축년(一九二五)十二月十九日 달성군(達城郡) 옥포면(玉浦面) 기세리(奇世里) 본제(本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못아이드들과는 다르게 빼어난 용모(容貌)에 총민(聰敏)한 자질(資質)이 있었다. 八세에 조부 소계공(小溪公)에게 한문(漢文)을 수학(受學)하며 과업(課業)을 독려(督勵)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진(精進)하니 소계공(小溪公)께서 매우 기특(奇特)하게 여겼다. 을해년(一九三五)十세에 옥포(玉浦) 공림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에 입학하고 신사년(一九四一)十六세에 옥포(玉浦) 공림심상소학교(公立尋常小學校)를 졸업하였다. 이듬해 영남중학교(嶺南中學校) 전신(前身)인 대구실수학원(大邱實修學院)을 수료(修了)하고 중학강의수습생(中學講義修習生) 과정(課程)을 마쳤다. 공은 학업(學業)을 하는 동안 과정을 엄격히 세워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고 후설에서 노고(勞苦)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은 무릎 꿇고 『내일찍이 마음먹은 게 있어 스스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을(光復)년(一九四五) 광복(光復)이 되던 해에 조부 소계공(小溪公)께서 八十세를 수(壽)하시고 돌아가시자 유림(儒林)의 협의(協議)로 유림장(儒林葬)이 거행(舉行)되었는데 백씨(伯氏) 제공(諸公)과 함께 부친(父親) 만강공(晚岡公)을 도와 치상(治喪)하며 애훼(哀毀)함이 지극(至極)하였다. 병술년(一九四六) 二十二세 되던 해에 교원(敎員) 채용(採用) 고시(考試)에 합격하여 고향에 있는 반송국민학교(盤松國民學校) 교사로 부임하였다.

정인년(一九五〇) 동란(動亂)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동강(洛東江) 전선(戰線)이 위급해지자 부친 만강공(晚岡公)의 명(命)으로 노모(老母)를 모시고 대구 덕산동(德山洞)으로 와서 피난하던 중에 입대하였다가 후방요원(後方要員)으로 특별히 제대하여 국민학교(國民學校)에 복교(復校)하였고 이듬해 十月에 현풍국민학교(玄風國民學校)에 부임하였다. 임진년(一九五二) 三월에 장남 지순(志淳)이 태어났다. 갑오(一九五四) 四월에 부친(父親) 만강공(晚岡公)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치상(治喪)의 절차는 한결같이 주문공(朱文公) 가례(家禮)를 따라 상례(喪禮)에 조금도 서운함이 없었고 삭망전(朔望奠)에는 바쁜 공무(公務) 중이라도 반드시 참석하였다. 그해 팔월에 차남(次男) 갑순(甲淳)이 출생하였다. 병신년(一九五六) 四월에 대구로 전출(轉出)되어 삼덕국민학교(三德國民學校)에 부임하였다. 이듬해 五

월에 삼남 철순(哲淳)이 태어났다. 무술년(一九五八) 四월에 대구 내당국민학교(內唐國民學校)에 부임하였다. 경자년(一九六〇) 一월에 장녀 미숙(美淑)이 태어났고 그해 五·一六 군사혁명(軍事革命)이 일어난 뒤 전쟁의 상흔(傷痕)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교육에 쏟을 열정(熱情)을 인정받아 대통령(大統領)으로부터 근조포창(勤條褒彰)을 받았다. 임인년(一九六二) 四월에 대구 명덕국민학교(明德國民學校)、계묘년(一九六三) 三월에 고령국민학교(高靈國民學校)、을사년(一九六五) 三월에 대구 본리국민학교(本里國民學校)에 각각 부임하였다. 병오년(一九六六) 十一월에 모친 파평윤씨(坡平尹氏) 상(喪)을 당하여 애회(哀毀)함이 전날의 부친상(父親喪)과 다름이 없었다. 그해 十二月에 七대 조고 통정대부(通政大夫) 묘갈명(墓碣銘)수비(暨碑)를 주관(主幹)하며 문중(門中)의 여러 어른들과 합의(合議)하여 선조의 덕(德)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흠이 없게 하였다. 四十六세 되던 경술년(一九七〇) 三월에 교감(校監)으로 승진하여 한성국민학교(寒亭國民學校)、김포국민학교(金圃國民學校)、성북국민학교(城北國民學校)、대구국민학교(大邱國民學校)、영선국민학교(靈仙國民學校)에 부임하였고 임술년(一九八二) 八月에 대구 평광국민학교(坪廣國民學校) 교장(校長)으로 영전(榮轉)하였다. 이듬해 九월에는 서울사대행정연구원(師大行政研究院) 정규반(定規班)을 수료(修了)하였다.

제죽년(一九七三) 고감으로 재직(在職)중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갑자년(一九八
 四)년 三월에는 대구 성당국민학교(聖堂國民學校) 교장(校長)으로 재직(在職) 중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 및 교육연합회장(教育聯合會長)으로부터 교육(教育) 공로
 상(功勞賞)을 받았다. 四十여 년 겸손(謙遜)과 정직(貞直)을 좌우명(座右銘)으로
 삼아 불의(不義)와 타협(妥協)하지 않고 고직(敎職)에 성의(誠意)를 다한 결과인
 것이다. 대구 유림(儒林)에서도 일평생 후학(後學) 양성에 힘써온 공(公)의 열정
 (熱情)을 높이 사서 손암(巽庵)이라 호(號)를 내렸고 공의 백형 또한 계강(溪岡)이
 라 호(號)를 내렸다. 그해 형제분의 아호(雅號)를 짓고 그 연유(緣由)를 쓰면서
 『아호(雅號)란 학자(學者)、문인(文人)、서화가(書畫家) 등 예술인(藝術人)들이 즐
 겨 쓰는 별호(別號)인데 타인(他人)이 그 사람의 풍아(風雅)한 인품(人品)을 높이
 부르는 호칭이다. 따라서 아호는 한결같은 도덕심(道德心)과 부끄럼이 없는 양
 심(良心)으로 수신제가(修身齊家)한 이에게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고 증형(仲
 兄)은 정산(耕山)、숙형(叔兄)은 수현(修軒)、계형(季兄)은 낙재(樂齋)라 하였다.
 정묘년(一九八七) 八월에 대구 대남국민학교(大南國民學校) 교장(校長)으로 부임하
 고 六十七세 되던 신해년(一九九一) 二월에 정년(停年) 퇴임(退任)하였다. 그 해
 나라에서 일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공의 노고에 보답하여 국민훈장(國民勳章) 동

백장(冬栢章)을 수여하였다.

돌아보건대 공께서는 병של년(一九四六)十月에 고향(故鄉)의 반송국민학교(盤松國民學校) 교사(教師)로 초임(初任) 발령(發令) 받은 뒤 현풍(玄風)·삼덕(三德)·내당(內唐)·명덕(明德)·고령(高靈)·본리(本里) 등(等) 국민학교(國民學校)에서 二十三年간 투철(透徹)한 교육관(教育觀)으로 교사(教師)의 임무(任務)를 다하였고 一九七〇년 교감(校監)으로 승진(昇進)하여 달성군(達城郡) (寒亭國民學校)·김포국민학교(金圃國民學校)를 거쳐 一九七四年 九月에 대구(大邱)로 전입(轉入)하여 성북(北)·대구(大邱)·영선(靈仙) 등(等) 국민학교(國民學校)에서 근무(勤務)하였으며 一九八二年 八月에 교장(校長)으로 영전(榮轉)하여 대구(大邱)의 평광(坪廣)·성당(聖堂)·대남국민학교(大南國民學校)에서 후진(後進) 양성(養成)에 이바지하였다. 공(公)께서 평생(平生) 교직(教職)에 종사(從事)한 기간(期間)은 四十四年 四月(個月)이다. 교사(教師)로서 열성(熱誠)을 쏟은 기간이 二十三年 六月(個月)·교감(校監)으로 직무(職務)를 다한 기간이 十二年 五月(個月)·교장(校長)으로 교단(校壇)을 책임(責任)진 기간이 八年 六月(個月)이다. 일평생(一平生) 교직(教職)을 천직(天職)으로 여기고 오직 이 나라 교육(教育) 발전(發展)에 헌신(獻身)해 왔던 것이다. 교단(校壇)을 떠나며 『내 다시 태어나도 교직(教職)에 몸담

아 후진(後進)을 양성(養成)하겠다.』라고 하신 공(公)의 말씀에서 교육자(教育者)로서의 충심(衷心)을 엿볼 수 있다. 공은 평소 선비 정신(精神)을 함양(涵養)하여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며 공직(公職) 수행(遂行)에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하였다. 교육(教育) 현장(現場)에서 늘 교육자(教育者)로서의 자세(姿勢)를 생 각했고 성공(成功)한 제자(弟子)들의 소식을 듣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다. 맹자(孟子)가 군자삼락(君子三樂)으로 첫째는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고, 둘째는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공께서는 온전히 삼락(三樂)을 누렸다 하겠다.

공은 또 종사(宗事)와 위선사(爲先事)에도 성의(誠意)를 다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종원(宗員)들도 공의 승조(崇祖)정신(精神)을 추앙(推仰)하여 대동종친회(大 宗宗親會)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대종회 고문(顧問)으로 재임 시에는 시조 휘 린(鄰)과 증시조 휘 여명(汝明)을 고려대전(高麗大殿)에 배향(配享)하는데 힘썼고 증시조의 제단(祭壇)을 정화하고 「고려(高麗)문하주서(門下注書)승록대부(崇祿大 夫)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화원선생지단(花園先生之壇)」이라 단비(壇碑)를 세웠다. 또 어필각(御筆閣)을 복원하고 정의사(景義祠)를 증수(重修)하는데 심혈

(心血)을 기울였으며,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고 위토(位土)를 확보(確保)하여 기일이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선조(先祖) 묘도(墓道)에 표석(表石)이 없는 것을 애석히 여겨 손수 비갈명(碑碣銘)을 찬(撰)하여 수갈(暨碣)하였고 참의공파 세보(叅議公派世譜)를 편찬(編纂)하고 그간의 내력을 발문(跋文)으로 남겼다. 조고(祖考)의 유업(遺業)이 깃든 소계정(小溪亭)을 증수(重修)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오르내리며 선조(先祖)의 덕(德)을 기리게 하였고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에 필요한 자료(資料)를 수집(蒐輯) 정리(整理)하여 마침내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되었다. 또 영당(影堂)을 건립(建立)하여 후손들에게 사모(思慕)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경오년(一九九〇)에는 조고(祖考)의 옥고(玉稿)인 《소계유고(小溪遺稿)》와 《만강유고(晩岡遺稿)》를 추억하여 《기세양세고(奇世兩世稿)》로 발간(發刊)하였고 달성의 역사 인물 흥상 공원에 조부(祖父) 휘 재준(載俊)의 흥상이 건립되도록 노력하였다. 대구향교(大邱鄉校) 원로 자문회장에 추대되어 유교 문화를 전승(傳承) 발전(發展) 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지역 여러 서원(書院)의 원장(院長)을 역임(歷任)하며 유교 정신을 선양(宣揚)하는데 선조덕인 역할을 하였다.

병신년(二〇一六) 七月 九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九十二세이며 묘(墓)는 고령군(高

靈郡) 성산면(星山面) 상용리(相龍里) 록전오사삼번지 곤좌(麓田五四三番地 坤坐)의 둔덕에 있다. 부인(婦人)은 벽진이씨(碧珍李氏) 수분(壽分)이니 이근화(李根和)의 따님으로 경오년(一九三〇) 九월 十七일에 태어나 정해년(一九四七)에 공의 배필(配匹)이 되었다. 공께서 혼란한 시대상황에서도 일평생 교직(敎職)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내조(內助)의 공이라 할 수 있다. 삼남(三男)을 두었으니 남(男)은 지순(志淳)·갑순(甲淳)·철순(哲淳)이고, 녀(女) 미숙(美淑)은 광산 이수영(光山李秀榮)에게 출가하였다. 지순은 남(一男)을 두었으니 남(男)은 주헌(柱憲)이고 여(女)는 효진(曉珍)이다. 갑순은 남(一男)을 두었으니 주혁(柱奭)이다. 철순은 남(一男)을 두었으니 남(男)은 주원(柱元)이고 여(女)는 지은(智銀)이다.

어느 날 경산부시장(慶山副市長)을 역임(歷任)하신 손암공(巽庵公)의 조카 창순(昌淳)씨가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숙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두 해가 다 되었었는데 아직도 묘도(墓道)에 표석(表石)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숙부님 생전(生前)의 행적을 기록해서 문필가(文筆家)에게 묘도문(墓道文)을 청하려 하는데 불민(不敏)한 제가 숙부님의 덕행(德行)을 밝히기에 부족하니 그대가 도모(圖謀)해주었으면 합니다.』 하였다. 내가 놀라며 말하기를 『예전에 공(公)을 뵈고 공(公)의 인품(人品)에 감복(感服)하여 우러렀습니다만, 덕행을 기록하는 일은 증대한

일인데 저처럼 불문(不文)한 후생(後生)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 번 고사(固辭)하였으나 청(請)이 더욱 간절(懇切)하여 사양할 수만 없었다。 만약 공의 묘도문(墓道文)이 평소 공을 잘 아는 분의 손에서 나온다면 어리석은 나의 한마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강을 위와 같이 간략히 기록하여 병필가(秉筆家)의 채택(採擇)에 대비할 뿐이다。

무술년(二〇一八) 증춘(仲春)에

한국국학진흥원(韓國國學振興院) 책임연구원(責任研究院)

문학박사(文學博士) 순천(順天) 장재호(張在鎬)는 삼가 기록한다

郡守石鎭厚功績碑文(군수석진후공적비문)

공(公)의 자(字)는 주관(周官)이요 호(號)는 경헌(敬軒)이며 관(貫)은 충주(忠州)이니 화원선생(花園先生) 여명(汝明)의 후예(後裔)로 입향조(入鄉祖)인산당(仁山堂) 언우(彦佑)、十二대손(代孫)이다。

一九二八年 三月 四日 이곳 기세동(奇世洞)에서 태어나 옥포국민학교(玉浦國民

學校)와 계성중학교(啓聖中學校)를 거쳐 영남대학교(嶺南大學校) 법학과(法學科)를 졸업(卒業)하였다.

一九五二年四月부터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으로 공직(公職)에 몸담은 이래(以來) 청장년기(靑壯年期)에는 각분야(各分野)의 행정관직(行政官職)을 두루 익혔다. 一九七四年 서기관(書記官)으로 승진(昇進)하면서 군위(君威)、문경(聞慶)、상주군수(尙州郡守)를 역임(歷任)하였고 一九七五年 五月에 향토(鄉土)인 달성군수(達成郡守)로 부임(赴任)하여 一九八一年 七月에 경상북도(慶尙北道) 보사국장(保社局長)으로 전임(轉任)되기까지 군정사상(郡政史上) 처음 이 있는 향토출신(鄉土出身) 군수(郡守)임을 자부(自負)하고 군(郡)의 발전(發展)을 위해 혼신(渾身)의 힘과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경주(傾注)하였다. 一九八三年 十二月 부이사관(副理事官)으로 승진(昇進)하여 김천시장(金泉市長)에 이어 영천시장(永川市長)을 마지막 직임(職任)으로 오직 성실(誠實)과 청렴결백(清廉潔白)으로 일관(一貫)된 사심(私心) 개성상(四十介星霜)의 공직생활(公職生活)을 명예(名譽)롭게 마무리 지었다. 공(公)은 심성(心性)이 온후(溫厚)하고 조신(措身)이 겸손(謙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가장 소중(所重)한 청렴결백(清廉潔白)함은 자타(自他)가 공인(公認)하는 바이다. 인정(人情)이 넘치는가 하면 집념(執念)도 강(強)하여 한번

결심(決心)하면 모든 역량(力量)을 총집중(總集中)하여 매진(邁進)하는 과감(果敢)한 추진력(推進力)도 겸비(兼備)하였다. 공(公)의 가훈(家訓)인 『최선을 다하자』는 신념(信念)으로 평생(平生)을 일관(一貫)하였기에 가는 곳마다 지방민(地方民)의 존경(尊敬)과 칭송(稱頌)을 받았다.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을 받고 문경군(聞慶郡)의 송덕비(頌德碑)와 영천시(永川市)의 거사비(去思碑)가 건립(建立)된 것이 바로 그 실증(實證)이다. 본군(本郡)의 군수(郡守)로 재임시(在任時)에는 국내외사정(國內外事情)이 긴박(緊迫)하여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與件下)에서도 추호(秋毫)의 동요됨이 없이 오직 향토발전(鄕土發展)만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努力)하였다. 예산(豫算)없이도 일할 수 없으며 재정유치 확보(財政誘致確保)를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努力)으로 다대(多大)한 성과(成果)를 거두었고 관내실무(管內實務)를 소상(昭詳)하게 파악(把握)하고 분석(分析)하여 유효적절(有效適切)하게 투자(投資)하였다. 그래서 건설(建設)、사회(社會)、문화(文化)、복지(福祉) 등(等)의 제반사업(諸般事業)은 물론 지역간(地域間)의 균형발전(均衡發展)을 위해 취약부문(聚落部門)에 대한 개선발전(改善發展)에도 크게 힘써 전국최우수군(全國最優秀郡)으로 성장(成長)케 한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특히 호국영령(護國英靈)을 모신 현풍충혼탑(玄風忠魂塔)의 복원(復元)과 정화사업(淨化事業)은

무명용사(無名勇士)들의 넋을 달래고 유족(遺族)들의 여한(餘恨)을 풀게 하였고 관내(管內)에 산재(散在)한 폐허(廢墟) 직전(直前)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말끔히 복원(復元)하여 군민(郡民)들과 이세(二世)들의 충효사상(忠孝思想)을 고취(鼓吹)하여 뜻있는 인사(人士)들을 감복(感服)케 하였다.

또한 국가보훈(國家報勳) 유공자(有功者) 자녀(子女)들의 장학사업(獎學事業)과 관내(管內)의 각급학교(各及學校)에 대한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적극적인(積極的)인 지원(支援)은 실(實)로 선정(善政)의 표본(標本)이었다. 공(公)은 군정(郡政)을 위해 최선(最善)을 다하였고 군발전(郡發展)에 공헌(貢獻)한 공적(功績)을 충심(忠心)으로 찬양(讚揚)하고 근래(近來)에 보기 드문 청백리(清白吏)임을 높이 평가(評價)하여 그의 인품(人品)과 치적(治績)을 뜻있는 군민(郡民)의 이름으로 이 돌에 새겨 후세(後世)에 길이 전(傳)하여 귀감(龜鑑)이 되게 하노라.

西紀一九八九年四月

經濟學博士 裴然秀 撰

郡守石鎭厚頌德碑(군수석진후송덕비)

점촌시경로당내(店村市敬老堂內)에 세워져 있음

이덕치민(以德治民)
 기화유신(其化維新)
 선정애휼(善政愛恤)
 후시구빈(厚施救貧)
 일군평화(一郡平和)
 만성감인(萬姓感仁)
 각석함송(刻石咸頌)
 영보지친(永保至親)

덕으로써 군민을 다스리니
 그 가르침 모든 것이 새로웠네.
 바르고 선한 정사는 은혜를 베풀었고
 후한 마음으로 가난을 구제하였네.
 한군을 평화롭게 하였으니
 만인이 인정에 감격하였네.
 돌에 새겨 모두들 칭송하니
 길이 보전하고 더없이 찬하리라.

一九七七年丁巳三月 日

문경군노정회(聞慶郡老亭會) 주최(主催)

시장석진후거사비(市長石鎭厚去思碑)

영천향교내(永川鄉校內)에 세워져 있음

하차순시(下車巡視)

부임하여 순찰하며 시정을 살피기를

탄의빈빈(綻衣頻頻)

옷이 찢어지도록 쉬지 않았네.

정통인화(政通人和)

정사에 통달하고 사람을 화합하니

백리개춘(百里皆春)

온 고을이 모두가 봄빛이라네.

유풍고취(儒風鼓吹)

유림의 풍속을 고취하였으니

성묘증신(聖廟增新)

향교는 새롭게 증진하였네.

해독하내(奚獨河內)

어찌 하내고을 뿐이겠는가?

원차구순(願借寇恂)

다만 구순을 원하듯 시민의 아쉬움일세.

영천시장에서 나올 때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一九八八年六月 日

영천향교유림 일동(永川鄉校儒林一同)

석진후군수송덕비(石鎭厚郡守頌德碑)

여기 말없이 흐르는 낙동강(洛東江) 푸른 물과 창창(蒼蒼)한 비슬산(琵琶山)아
 래 덧없이 가는 세월을 지켜보며 잠들어 있느니 一一三九位 용사(勇士)들의 빛나는
 얼을 길이 후세(後世)에 전(傳)하고자 세워진 충훈탑(忠魂塔)이 있습니다. 이는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危機)에 처해 있을 때 꽃다운 청춘(青春)과 고귀(高貴)
 한 목숨을 바쳐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전사(戰士)들의 그赫赫(赫赫)한 공적(功績)
 과는 달리 성의(誠意)를 다 못하여 초라하게 서 있는 것을 이곳에 부임(赴任)하신
 석진후(石鎭厚) 군수(郡守)님께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새로이 충의문(忠義門)
 건립(建立) 담장 축조(築造) 석등시공(石燈施工) 조경식수(造景植樹) 주변정화(周邊
 淨化) 사업(事業)을 하시어 비로소 충성(忠誠)된 영령(英靈)들을 편히 잠들게 해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 유족(遺族)들은 그 고마운 뜻을 잊기 어려워 여기 송덕비
 (頌德碑)를 세웁니다。

영령(英靈)들이여 이제 당신들의 이룩한 전공(戰功)들은 청사(靑史)에 길이 빛
 날 것이며 발전(發展)하는 조국(祖國)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진후
 (石鎭厚) 군수(郡守)님의 고마우신 마음씨도 이들과 영원(永遠)히 함께 빛나기를

기원(祈願)합니다.

一九八〇年六月二十五日

글 石帶 宋錫熙

건립자 상 기 군 경 달성군분회장

전물군경 유족 달성군분회장

전물군경미망인 달성군분회장

소계석선생행적비(小溪石先生行蹟碑)

한말(韓末) 풍운(風雲)의 격랑(激浪) 가운데서 온 나라가 혼미(昏迷)에서 허덕일 때 이곳 기세리(奇世里)에 의연(毅然)한 선비가 계셨으니 곧 석재준선생(石載俊先生)이셨다. 선생(先生)은 고종(高宗) 병인(丙寅) 八月二十三日 아버지 휘(諱) 치규(致奎) 호(號) 지지당(知止堂)과 어머니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先生)의 자(字)는 경수(慶秀)이요 호(號)는 소계(小溪)이고 관(貫)은 충주(忠州)이다. 선생(先生)의 가계(家系)는 고려(高麗) 상장군(上將軍) 휘(諱) 린(鄰)이 시조(始祖)이니 현(現) 충주(忠州)의 고호(古號)인 예성(藥城)의 군(君)에 봉

한말(韓末) 풍운(風雲)의 격랑(激浪) 가운데서 온 나라가 혼미(昏迷)에서 허덕일 때 이곳 기세리(奇世里)에 의연(毅然)한 선비가 계셨으니 곧 석재준선생(石載俊先生)이셨다. 선생(先生)은 고종(高宗) 병인(丙寅) 八月二十三日 아버지 휘(諱) 치규(致奎) 호(號) 지지당(知止堂)과 어머니 파평윤씨(坡平尹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先生)의 자(字)는 경수(慶秀)이요 호(號)는 소계(小溪)이고 관(貫)은 충주(忠州)이다. 선생(先生)의 가계(家系)는 고려(高麗) 상장군(上將軍) 휘(諱) 린(鄰)이 시조(始祖)이니 현(現) 충주(忠州)의 고후(古號)인 예성(藥城)의 군(君)에 봉하여졌으므로 자손들이 충주(忠州)를 관향(貫鄉)으로 삼았다. 오전(五傳)하여 휘(諱) 양선(良善)이 영흥백(永興白) 최한기(崔閑奇)의 다남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는 조선(朝鮮)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이모(姨母)이었다.

태조(太祖) 생후(生後) 五개월에 어머니 의혜왕후(懿惠王后)가 돌아가시게 되어 이모(姨母)인 최씨(崔氏)께서 유양(乳養)하셨으므로 태조(太祖) 등극(登極)후에 그는 은의(恩義)를 생각하여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부공(夫公)을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다. 부원군(府院君)의 손자의 휘(諱)는 여명(汝明)이요 호(號)는 화원(花園)이니 공민왕조(恭愍王朝)에 관(官)이 주서(注書)였는데 조선(朝鮮) 태종(太宗)의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집현전제학(集賢

여심성(心性) 성리지학(性理之學)에 잠심(潛心)하여 성학(聖學)의 체득(體得)에 정진(精進)하였다.

신묘년(辛卯年…一八九一) 경상관학원(慶尙官學院)에서 경전강회(經傳講會)가 있었는데 선생(先生)이 이에 참여(參與)하여 독법(讀法)과 문의(問議)에 일호(一毫)의 차착(差錯)이 없었으므로 강장(講長) 임재(臨齋) 서선생(徐先生)과 도백(道伯) 이헌영(李憲永)의 극찬(極讚)을 받았다. 이를 계기(契機)로 임재문하(臨齋門下)에 들어가 더욱 강마취정(講磨就正)의 심도(深度)를 더하였다.

계묘년(癸卯年…一九〇三) 봄에는 낙동정사(洛東精舍)에서 연재(淵齋) 송병선공(宋秉璿公)을 모시고 대학(大學)의 경문(經文)을 강의(講義)하고 여름에는 도백(道伯) 이군수(郡守)와 더불어 관학원(官學院)에서 강회(講會)를 가졌는데 그때 선생(先生)이 강장(講長)으로 추대(推戴)되어 평소(平素)에 쌓은 온축(蘊蓄)을 심분발휘(十分發揮)하였다. 선생(先生)의 학덕(學德)이 경향(京鄕)에 널리 알려지자 승지(承旨) 김병수공(金炳洙公)이 주청(奏請)하여 자릉(章陵)참봉(參奉)이 제수(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경술년(庚戌年…一九一〇) 22내 국망(國亡)의 비운(悲運)을 겪게 되자 북향통곡(北向慟哭)하고 공승절식비도사(龔勝絶食非徒死) 도령귀전(陶令歸田豈苟生) 일생일사유(一生一死惟義在) 천추평론(千秋評論)

敢誰輕(라)는 충분(忠憤)의 일절시(一絶詩)를 남기고 두문자정(杜門自靖)하려 하였
 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지향처(志向處)를 잃은 절절한 사류(士流)들이 강학
 (講學)을 간구(懇求)함에 백년(百年)의 대계(大計)를 위해 강석(講席)을 열었던 바
 원근(遠近)의 사류(士流)들이 운집(雲集)하여 다 수용(受容)하기가 어려웠다. 선
 생(先生)의 교도(教導)는 경학(經學)의 오의(奧義)를 후진(後進)들에게 전수(傳受)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대(時代)의 한 선각자(先覺者)로서 우국(憂國)의 정신(精神)
 을 일깨우는 한편 참다운 선비의 모습을 생활(生活)과 실천(實踐)을 통하여 교시
 (敎示)하였다. 선생(先生)은 첫 새벽이면 기침(起寢)하여 세수(洗漱)하고 의관
 정제(衣冠整齊)하신 후 제생(諸生)을 접(接)하시되 하루 종일 그 자세(姿勢)에 흐
 트리지음이 없었다. 실(實)로 학불염(學不倦) 교불권(學不倦)의 모범(模範)을 보이
 셧다. 선생(先生)의 교도(教導)에 감화(感化)된 문하제생(門下諸生)들이 신유년
 (辛酉年…一九二一) 함영계(含英稷)를 수결(修稷)하고 달도산하(達道山下)에 소계정
 (小溪亭)을 영축(營築)하여 사생간(師生間)의 소요강회(逍遙講會)의 장소로 삼았
 다. 선생(先生)의 교화(教化)는 직전제자(直傳弟子)에게 한(限)한 것이 아니었
 다. 원근(遠近) 군읍(郡邑)의 일반민서(一般民庶)들도 선생(先生)의 학덕(學德)에
 순화(醇化)된 바가 컸다. 선생(先生)은 만년(晩年)에 모열각(慕烈閣)을 지어 선열

(先烈)을 추모하기도 하고 석씨대동보(石氏大同譜)인 기묘대동보(己卯大同譜)를 완성하여 목족(睦族)의 의(誼)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을유년(乙酉年..一九四五) 陰七月初十日 고종(考終)하시니 향수(享壽) 八十세(歲)이었다. 원근(遠近) 사류(士流)들이 분주추곡(奔走趨哭)하고 일반민서(一般民庶)들도 크게 애도(哀悼)하였다. 상례(喪禮)는 사림장(士林葬)으로 동년(同年) 陰十月二十日 가후산대등산록부족원(家後山大嶝山麓負丑原)에 모셨다. 선생(先生) 서거(逝去)후 갑신(甲申)에 사류(士流)들의 뜻을 모아 영손(令孫) 호근씨(鎬瑾氏)가 행적비(行蹟碑)를 세우고자 하여 비문(碑文)을 청(請)함에 위와 같이 간략(簡略)히 서술(敘述)하는 바이다.

하여졌으므로 자손들이 충주(忠州)를 관향(貫鄉)으로 삼았다. 오전(五傳)하여 휘(諱) 양선(良善)이 영흥백(永興白) 최한기(崔閑奇)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는 조선(朝鮮)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이모(姨母)이었다.

태조(太祖) 생후(生後) 五개월에 어머니 의혜왕후(懿惠王后)가 돌아가시게 되어 이모(姨母)인 최씨(崔氏)께서 유양(乳養)하셨으므로 태조(太祖) 등극(登極)후에 그 은의(恩義)를 생각하여 최씨(崔氏)를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부공(夫公)을 흥양부원군(洪陽府院君)으로 추봉(追封)하였다. 부원군(府院君)의 손자의 휘(諱)는 여명

(汝明)이요 호(號)는 화원(花園)이니 공민왕조(恭愍王朝)에 관(官)이 주서(注書)였는데 조선(朝鮮) 태종(太宗)의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망복지의(罔僕之義)로 불취(不就)하니 그 충절(忠節) 일월(日月)같이 드높았다. 후일(後日)에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에 증직(贈職)되니 충주석씨(忠州石氏)의 증시조(中始祖)이다. 중세(中世)에 이르러 휘(諱) 언우(彦佑) 호(號) 인산당(仁山堂)이 임란(壬亂)후 대구(大邱) 기세리(奇世里)에 복거(卜居)하니 곧 기세입향조(奇世入鄉祖)이다. 입향(入鄉)후 송암(松菴) 경재(敬齋) 정헌(靜軒) 우우당(友于堂) 청계(淸溪) 제공(諸公)을 거쳐 지지당(知止堂)에 이르기까지 대(代)를 이어오면서 일관(一貫)되게 은덕(隱德)을 쌓고 문한(文翰)을 이어왔다. 선생(先生)은 이 절의(節義)와 문한(文翰)의 가통(家統)에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총명(聰明)하고 의표(儀表)가 단정(端正)하였다. 七세(歲)에 가숙(家塾)에서 지지공(知止公)에게 자학(字學)을 익히고 十一세(歲)에 소학(小學)을 배웠는데 문리(文理)와 의취(義趣)가 일찍 트여 사람 되는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고 자자불식(孜孜不息) 학과(學課)에 충실(充實)하고 혼정(昏定)晨省(晨省) 등 소학(小學)의 교지(教旨)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十五세(歲)에 만공(晩兢窩) 윤태노공(尹泰老公)에게 수학(修學)하여 학문(學問)이 크게 성취(成就)하여 입

신양명(立身揚名)을 꾀하고 과장(科場)에 나아갔으나 이미 혼탁(混濁)을 극(極)한 당시의 실정(實情)을 목도하신 선생(先生)은 번연(飜然)히 뜻을 돌려 하향(下鄉)하여 심성(心性)·성리지학(性理之學)에 잠심(潛心)하여 성학(聖學)의 체득(體得)에 정진(精進)하였다.

신묘년(辛卯年…一八九一) 경상관학원(慶尙官學院)에서 경전강회(經傳講會)가 있었는데 선생(先生)이 이에 참여(參與)하여 독법(讀法)과 문의(問議)에 일호(一毫)의 차차(差錯)이 없었으므로 강장(講長) 임재(臨齋) 서선생(徐先生)과 도백(道伯) 이현영(李憲永)의 극찬(極讚)을 받았다. 이를 계기(契機)로 임재문하(臨齋門下)에 들어가 더욱 강마취정(講磨就正)의 심도(深度)를 더하였다.

계묘년(癸卯年…一九〇三) 봄에는 낙동정사(洛東精舍)에서 연재(淵齋) 송병선공(宋秉璿公)을 모시고 대학(大學)의 경문(經文)을 강의(講義)하고 여름에는 도백(道伯)이 군수(郡守)와 더불어 관학원(官學院)에서 강회(講會)를 가졌는데 그때 선생(先生)이 강장(講長)으로 추대(推戴)되어 평소(平素)에 쌓은 은축(蘊蓄)을 심분발휘(十分發揮)하였다. 선생(先生)의 학덕(學德)이 경향(京鄕)에 널리 알려지자 승지(承旨) 김병수공(金炳洙公)이 주청(奏請)하여 자릉·참봉(章陵叅奉)이 제수(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경술년(庚戌年…一九一〇) 끝내 국망(國亡)의 비운(悲運)

을 겪게 되자 북향통곡(北向慟哭)하고 공승절식비도사(龔勝絶食非徒死) 도령귀전
 기구생(陶令歸田豈苟生) 일생일사유의재(一生一死惟義在) 천추평론감수경(千秋評論
 敢誰輕)라는 충분(忠憤)의 일절시(一絶詩)를 남기고 두문자정(杜門自靖)하려 하였
 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지향처(志向處)를 잃은 절망은 사류(士流)들이 강학
 (講學)을 간구(懇求)함에 백년(百年)의 대계(大計)를 위해 강석(講席)을 열었던 바
 원근(遠近)의 사류(士流)들이 운집(雲集)하여 다 수용(受容)하기가 어려웠다. 선
 생(先生)의 교도(教導)는 경학(經學)의 오의(奧義)를 후진(後進)들에게 전수(傳受)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대(時代)의 한 선각자(先覺者)로서 우국(憂國)의 정신(精神)
 을 일깨우는 한편 참다운 선비의 모습을 생활(生活)과 실천(實踐)을 통하여 교시
 (教示)하였다. 선생(先生)은 첫 새벽이면 기침(起寢)하여 세수(洗漱)하시고 의관
 정제(衣冠整齊)하신 후 제생(諸生)을 접(接)하시되 하루 종일 그 자세(姿勢)에 흐
 트리지음이 없었다. 실(實)로 학불염(學不倦) 교不倦(教不倦)의 모범(模範)을 보이
 셨다. 선생(先生)의 교도(教導)에 감화(感化)된 문하제생(門下諸生)들이 신유년
 (辛酉年..一九二一) 함영계(含英稷)를 수결(修稷)하고 달도산하(達道山下)에 소계정
 (小溪亭)을 영축(營築)하여 사생간(師生間)의 소요강회(逍遙講會)의 장소로 삼았
 다. 선생(先生)의 교화(教化)는 직전제자(直傳弟子)에게 한(限)한 것이 아니었

다. 원근(遠近) 군읍(郡邑)의 일반민서(一般民庶)들도 선생(先生)의 학덕(學德)에 순화(醇化)된 바가 컸다. 선생(先生)은 만년(晩年)에 모열각(慕烈閣)을 지어 선열(先烈)을 추모하기도 하고 석씨대동보(石氏大同譜)인 기묘대동보(己卯大同譜)를 완성하여 목족(睦族)의 의(誼)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을유년(乙酉年…一九四五) 陰七月初十日 고종(考終)하시니 향수(享壽) 八十세(歲)이었다. 원근(遠近) 사류(士流)들이 분주추곡(奔走趨哭)하고 일반민서(一般民庶)들도 크게 애도(哀悼)하였다. 상례(喪禮)는 사림장(士林葬)으로 동년(同年) 陰十月二十日 가후산대등산록부추원(家後山大嶝山麓負丑原)에 모셨다. 선생(先生) 서거(逝去)후 갑신(甲申)에 사류(士流)들의 뜻을 모아 영손(令孫) 호근씨(鎬瑾氏)가 행적비(行蹟碑)를 세우고자 하여 비문(碑文)을 청(請)함에 위와같이 간략(簡略)히 서술(敍述)하는 바이다.

二〇〇五年 을유(乙酉) 이맘춘절(立春節)

철학박사(哲學博士) 진성(眞誠) 이완재(李完栽) 근찬(謹撰)

【茅亭公編】

龍巖祠事實錄序

通訓大夫行載寧郡守徐麟淳述

事實冊序

乾隆十三年丁卯十月東谷子朴弘著 謹記

楸谷士金有章 跋

自永樂五年至二十年間名曹文度成立案出給事錄及
本縣懸板事錄昭在於洪熙元年司憲府立案
康熙二十八年本立案中

事實錄

洪熙元年乙巳正月二十一日以功德事實表公之澤自

司憲府入啓成立案出給

司憲府立案序

念初壇碑

乾隆五十八年癸丑七月

日

唐山后人進士金致大撰

密陽后人進士朴徵霽謹書

節目序

皇明崇禎紀元後四甲辰初秋順安縣令清風金元植謹書

乙巳臘下澣密城朴道猷謹序

丁未四月哉生魄翌日青松沈大永謹序

封墳告祝文

維歲次庚辰五月丙辰朔日邑守徐任輔謹遣座首朴思淳以酒果脯醢

敢昭告于

故判書石公新築之墓 盖茲縣治賴公而勗疏籟

明廷地割隣壤廡舍倉廩靡不周章心力俱殫居然邑樣捲

室西來仍作主人知德者希世遠迹湮勲功何驗千百雲仍忝

守是土慨然興感公靈如水百世那斬悶此殘裔擢而免而

非敢求惠我公是思金剛之西衣履失藏谷遷莎崩徃迹蒼

茫諸孫誠切天若爲相坐合家傳石露真形二三其徵寧或

可疑昔繼今顯爰築爰祀三薦馨香一倍激仰念茲民庶岳

荒纔經終始冥祐惟公是望垂蔭千億時雨時暘尚享

神道碑序

崇禎紀元後三壬午三日月大邱后人

信川郡守兼黃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徐任輔謹撰

恐藥原忠州別名而碑文中稱原州古號有原州爲貫一派
大相遷菁州后人通訓大夫兼大同道察訪柳之翊謹篆
洪州后人通訓大夫前司憲府掌令李仁承謹書

龍巖祠奉安祝告由文

茅亭石先生伏以皇萃載路我邦攸營捐私補公變郭成城
繡裳奠居緇撮與榮彝常併勳簋籩寓誠茲建祠宇聿薦
精禋謹以牲幣醴齊粢盛庶品式陳明薦

順安縣令趙台淳

常亨祝文

邑我社我洞廡我庾我公尸其初實右實左功旣報宜祀於
禮可澗毛酌揭焉維妥

順安縣令趙斗淳

噫公之功德旣在順人之心又備前人之述不待余之言而爛爛然明矣又欲區區陳贅乎斯者何順之爲邑自公伊始凡莅茲邑而佩茲符者孰不頌公之功欽公之德哉必欲乎文以贊之記而傳之思寓崇慕之意固其宜也余以譾蔑知茲二載民益瘁而邑益痼事事物物大與公經始之初不啻萬千辛戾何今之不若古之若是其甚乎尚使公之靈不泯鑑茲其爲慨然當復如何是則距心之罪也曷勝慚慙今於公後幾百餘年祠享而致俎豆之儀葺錄爲方版之布雖不足爲公萬一之報然在後人不忘之義亦不爲無助山長金養鵬甫齋尚慕之誠改粧事實錄五冊請弁之不敢以辭拙辭遂畧叙之

歲丁未癸丑上澣順安縣令

完山 李仁圭 謹識

龍巖祠節目序

先君曾於丙子春來莅斯縣每思石公勗邑之功績嗟歎一鄉崇報之欠闕歛護本孫迪出尋常越明年農民畊於田拾得石誌遂尋石公繼宅先君爲文而祭之封墓而樹之多年湮沒未傳從今日可以鬱鬱保有千載豈非晦顯隨時而有待歟其後多士觀感而起興建祠

妥享之議發而久菟趙侯台淳氏博采而斷然行之排輔儀節一倣於他院趙侯之禮賢樂善於是焉亦可想矣庚戌秋余到桐鄉先訪石氏而聞講堂綠財匱尚未了山長朴老龜海方經營而力未逮余捐廩而助之不期月朴老來言曰蓋崇德報功之舉先我俟始焉侯又繼之本祠訖完適丁於此日事非偶爾請識之甚力余愧蔑善繼而不敢辭焉

壬子暮春

晦月 徐經淳 謹序

節 目

道光十七年丁酉儒林朴相烈等呈縣呈營勅建祠宇額號龍巖祠夫勅建祠宇蓋出於知縣徐公麟淳之觀模也

越三年辛丑冬十月初六日知縣趙公台淳製祝文封香幣遣鄉校訓任韓其瀛奠物奉安致祭置山長養賢有司焚香有司每朔望設焚香禮又置內守僕齊直各一名

春秋祭享每年二八月終丁日

龍巖祠節目序

詩曰天生烝民有物有則民之秉彝好是懿德有物必有則有物則然後好德之心著焉若夫順人之於石公歌詠而不忘思有以俎豆享者歷幾世矣乃趙僕台淳氏始斷然行之於三百年末遑之餘何其盛也勞心簿牒之暇捐財於冷簿之厨遂得不煩民而執事自非好德實能如是耶縣令卑官也不敢請籲于朝倣古鄉賢祭社之例而其排布節文與他院無異中略願諸生以此相教戒以無負趙僕創始之苦心乃所以不忘石公之大德也順雖十室秉彝好德之士豈無繼而作者勉之哉苟有其人則節目爲攷据之一端所謂有物必有則也又何可廢也後之續節目者不以余言爲河漢耶

崇禎紀元後四甲辰初秋

順安縣令 清風 金元植 謹書

茅亭先生剏邑之功德可謂與順安終始而尚無崇德報功之舉者實爲吾鄉之欠事矣幸我趙侯台淳氏來守是縣攷諸石氏家乘博采一鄉之輿論遂建祠妥靈三百年未遑之事斷然行之於一朝若有待今日也夫剏設之初祀典也節目也使余責成而辭不獲已徒爲備數於齋班殆過三載未免尸素之譏其心愧恥倘復如何哉越二年癸卯春金侯元植氏

繼而蒞茲俯詢齋貌之未成嗟嘆無已特以五十紙付齋祭器祭服一時新備展牲告牘之禮進退周施之節煥然生光於將事之日曷不美哉下略

歲在乙巳臘月下澣

密城 朴道甬 序

용암사 절목서

시전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못 백성을 나으심에 형체도 있고 법도 있음이라. 백성의 집안은 몇몇함이라. 이 아름다운 덕(德)을 좋아한다 하니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법이 있으니 물체가 있고 법이 있는 뒤라야 덕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현저함이니라. 마치 대저 순안사람이 선공에게 노래를 부르면서 잊지 못하여 춘추향례로 드룬 생각이 있음이 몇세대(世代)를 지나감이라. 이에 순안원님 조태순씨가 처음으로 삼백년동안 하지 못한 나머지 당연히 행하니 어찌 그 장하지 않이라. 마음을 公務보는 여가의 은노하고 재물을 냉박한 녹봉에서 덜어내여 드디어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고 일을 하니 스스로 덕을 좋아하는 이가 아니면 실지로 능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현령이 나진 관원이라. 직접갈이 조정에 청해 호소하지 못하고 옛 향현을 제사지내는 전례로 이방하여 그 모든 절차가 다른 서원으로부터 도읍에 다름이 없

음이라(종략) 원한건대 모든 선비가 이로서 가르치고 경계하여서 조후의 처음으로
 창시한 그 심음을 저버림의 없음을 의에 선공의 큰 덕을 잊지 않는 바이다. 순안의
 비록 심실의 전이이니나 예류의 있긴 덕을 종계 여기가 선비가 어찌 일어나지
 알겠느냐. 함을 저어다. 진실로 그 사람의 있으면 절절만 기거하는 데 일이다. 디
 라. 이른바 물체가 있으면 법이 있다 함이라. 또한 어찌 피하리오. 뒤의 절절을
 이어 하기가 나의 말로서 한 체로 하지 않던가.

숙정기원후 네 번째 갑진년 초가을 순안현령

청음 김원식 삼가 씀

모정선생 창음의 공단 기가 이 순간과 더불어 종시로 함이 즉 승단보공의 일이
 없음을 사실로 우리 그을에 흠사「失禮」가 됨이라. 다행이 우리 원님 조태순씨가
 우시어 이그림을 자침의 석씨의 가슴을 살피시고 한 골의 여분을 채택하고
 드디어 사단을 세우고 영구를 편하게 하니 삼백년 동안 하지 못한 일 단연히 일
 조에 행하니 우리 고대함의 있었음이라. 대가 창설한 초기에 사전과 절목을 나로
 하여금 이르게 책임지우매 사양하지 못하고 한갓 재반의 숫자만의 가슴이 자못 삼
 년이나 지났으니 의무무것도 하기가 일이었다는 기록을 면치 못함의 그 마음 부끄러움
 이 어찌하랴. 두 해를 넘긴 계묘년 봄의 원님 김원식씨가 이어 이그림의 도입하
 여 재모의 미심함을 보고 차탄함을 마지 않았으며 특별히 수십권의 돈을 혜사하여 체

기재복을 일시에 새로 갖추어 모든 절차가 제사항례에 미치나니 어찌 아름답지 않
으랴。(하략)

세재 을사년 신달 하순

밀성 박도황 서

龍巖祠事實錄序

語曰祭祀之義一曰報功以勉力功立化通聖王之務也是以有功於國國人祀之有功於
鄉鄉人祀之如臨安之爲蘇長公立堤祠以利澤之及乎民也若高密之爲鄭康成立一鄉
以文學之傳於人也此皆功於人而人不能忘也止我茅亭石先生以道德文章歷敷至九
鄉嘗過箕西之安定驛見道險阻而邑治遠大爲居民之所愁嗷歸達于朝割平茲永肅四
邑境建之邑捐其財以經始之粵十有年功乃就於是邑始有而民得以生矣仍設黨塾於
各坊里教之以學以培養之順之至今有文學公之賜也微先生順何以有之有之而亦何
以有才行之繼出者歟順之人安得不爲功酬報而酬報之舉是建祠而祀之也祠之建無
紀功之文順之士韓基瀛石大克等以余嘗按是邑而與問於祀典之經紀走人於此請以

紀之義不敢辭遂撫其載諸籍者而爲之說云爾

通訓大夫行載寧郡守徐麟淳序

噫公之功德旣在順人之心又備前人之述不待余之言而爛爛然明矣又欲區區陳贅乎斯者何順之爲邑自公伊始凡莅茲邑佩茲符者孰不頌公之功欽公之德哉必欲乎文以贊之記而傳之思寓崇慕之意固其宜也余以譴蔑知茲二載民益瘁而邑益痼事事物物大與公經始之初不啻萬千乖戾何今之不若古之若是其甚乎倘使公之靈不泯鑑茲其爲慨然當復如何是則距心之罪也曷勝慚慙今於公後幾百餘年祠享而致俎豆之儀葺錄而爲方版之布雖不足爲公萬一之報然在後人不忘之義亦不爲無助山長金養鵬甫齋尚慕之誠改粧事實錄五冊請弁之不敢以辭拙辭遂畧叙之

歲丁未月癸丑上澣

順安縣令 完山 李仁圭 謹識

용암사 사실풀

공(公)의 공덕(功德)은 이미 순안(順安) 사람의 마음에 있고 또 앞사람의 저술(著述)함이 갖추었으니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찬란하게 밝은데 또한 우주히 거듭사에 말하거저 함기 어찌함인고. 순안법의 된 것이 공이므로부터 처음이었으니 무릇이 나를 왜 다다르니 이 병부를 찾는데 누가 공의 공덕을 찬양하지 아니할가. 반드시 슬로써 찬양하거 써서 전하고 생각을 승모함의 부침기 진실로 마땅함이라. 나의 전별로서 이 글을 왜 온지 두해에 백성의 더욱 기뻐하고 기뻐이 더욱 폐막되어 사사 건건의 노게 공의 처음 이름이로 더불어 만민의 차이가 나니 어찌 현실이 옛과 같지 개연함의 이와같이 심하리요. 공의 신영이로 하여금 빠지지 아니를 보면 그 개연함을 마땅히 다시 함이 어찌하겠는가. 이는 곧 거심외 허물이라 어찌 참혹함의 이기겠는가. 이것의 뒤에 여러 백년의 사당에 짓고 조두의 거동들이 부근 집부의 학요 방편을 하나 비록 죽히 공의 만민의 의의 되지 않이나 후인이 잊지 아니하거 의에 있어서 거 또한 도읍없지 아니할 것이니라. 산장 김양보가 상모의 정성을 다하여 사실로 다섯 책자를 다시 갖추어 비문을 청하기를 드디어 대략 되거다.

세정미제추상간

수안현령완산이인기근지

念初壇碑銘

周禮司勳氏掌六勳銘太常祭於太蒸以民之庸事之勞列於六勳之中而先於戰功之上然則後世之圖形麟閣不過戰功也豈及於民之庸事之勞哉茅亭先生判書石公諱仁正致仕而歸卜居茲土因設此邑其剏始之功施與之恩浹人肌髓在人耳目者數十條村翁野老爭相傳誦衆口成碑此真所謂民之庸事之勞豈不偉哉盖平郊古屬西京有驛無縣而圃隱鄭先生嘗於朝天之路登北松亭語人曰此地山明水麗必多出賢豪云而公亦圃隱之徒也聞其言愛其地遂因巡撫使安敬良轉達于朝割四隣設邑于星山之陽其疆域西得順和之地東并安定之驛故名之曰順安南構縣衙東建鄉校西營客館設倉於客館之北鑿池于縣衙之南前後財力皆所自備總計租二千四百十斛布五百五十一疋燔瓦五萬八千五百八十餘磚清酒八百五十七瓶米幾斛醬幾瓮塩幾包盖所以補公需接使客稍食工匠納倉庫賑飢民頒種于民田及公田者也瓦則所以覆公廡者也又納藏獲以作官奴婢至於公需釜鼎等器用亦皆資如公而致力於邑者是而公之私第皆草廬茅屋也復穿駟路於釜山盖此路舊出在京里而絕於川濘於雨每當華使往來之際朝家深以爲憂人民亦不勝擔負之苦矣至是周道如砥宿弊咸祛前後事實詳在於事實錄邑誌司

憲府立案本縣令文舊衙懸板北館藏書梧山遺疏中噫相地開邑所以奠民生也納穀設倉所以調貧窮也首建學校所以尊聖道也頒種民田急於勸農也自備財力所以省民力也納藏獲所以恤良家之仰役焉茅結吾廬而瓦覆公廡者視邑如家視民如子之意也開路釜山者所以上祛朝家之憂下除負載之弊也於戲邑一設路一開而爲國之忠愛民之仁濟人之義勸農之德尊道之誠興學之功無所不備而數百載之下民而受賜者多矣噫誠觀今日吾田所畊之田卽吾公所盡之埜也吾民所食之穀卽吾公所貽之種也飢歲災年吾民之賴以生活者卽吾公所食之穀卽吾公所貽之種也飢歲災年吾民之賴以生活者卽吾公納穀設倉之惠也名儒之朋興大賢之挺出卽吾公建校興學之効也以是觀之周禮所謂民庸事勞者非公而誰歟然則銘於常祭於烝然後庶報公德而尚闕祭祀之禮又無頌德之銘此境內士民之所共甚慨者也爭願立祠呈于營縣者前後相續而每以那禁未遂公議矣今者公之十三世孫前大同察訪宗克君謀於其宗築壇遺趾名以念初作春秋祭公之所蓋以公之墓在西金剛東麓云爾而兵燹之餘失其誌石故寓慕無所而以義起者也噫石氏初以國中華闕淪落鄉曲矣猗歟此壇之成將見其中興而克繼其初矣有子琚官至吏曹叅議夫人李氏監司思任之女也玄孫玠以進士仕至直長蓋公之蔭也壇已成請銘于余余實慕公之德者也欲倡建祠之議者久矣樂聞其說而遂爲銘曰

平郊一域有驛無縣公乃設邑生民始奠胥其星山首建學宮構衙築館稍食食工匠既捐粟布又輸藏獲割得四境正其區畫頌種于民黃雲滿野易炊以瓦望叶陶冶深恩厚澤赤川不渴偉烈盛績三峯齊屹俎豆尚闕未享其報幸茲賢裔誠切追慕江山古宅新築靈壝名以念初以寓孝思公靈不昧永永垂歆格於千萬年世世無斃

乾隆五十八年癸丑七月 日

唐山后人 進士 金致大 撰

密陽后人 進士 朴徵霽 書

넘초단 비명

주나라의 예에 공을한을 말은 분이 공을한을 유한으로 나누어 태사에 새겨 태종에 제 사함이 떳떳함과 일의 그로로서 유한의 공을한중에 전공(戰功)보다 먼저하였으나 그 후세에 그림을 인간(麒麟閣)에 부침은 전공에 지나지 아니하니 어찌 백성의 떳떳함과 과일함에 비치겠는가。 묘정선생 판서 석공휘 인정(仁正)께서 관직을 막살하고 이 땅에 전거하시기를 작정하고 인하여 이 그림을 설음함에 그 창시 한공과 시여(施輿)하신 은혜가 사람들의 피부와 골수에 함뻑 입히여 사람의 이복에 있는 것이 수십가지임에 절은이나 함은이나 모두가 서로 전하여 대중의 말이 비석을 이룬 듯하

어 좁이요 사사노복을 들임이니 양가의 위왕의 함을 왜 할 의의 임이요 세를 오왕래의 편리하게 함이니 위로 조정의 근심을 달고 아래로 백성의 부대의 피를 달임이니라. 이로 볼진대 주나라 예에 민용사노(民庸事勞)라 함이 공(公)이 아니니 그 누우이겠는가. 그러면 태상에 새기고 태종에 제사한 후라야 공의 공을 거이 값을 것이다. 오히려 제사의 예가 없니 송당의 명이 없으니 그를 선비가 백성의 한가지 개탄한 바 이라. 사당을 세우니 그 천후로 영현의 정소하되 그때마다 나라의 금령으로 굶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제 공의 십삼세손 전(前)대동찰방 종극(宗克)이 종종의 의논하여 왔터에 단을 모아 념초단이라 이름하니 대개 공의 묘(墓)가 서금강동쪽에 있었는데 나리 뒤에 불명학역 의로서 일일이 임이니라. 이 단소로 이름의 장차 그 중흥(中興)함을 보아 능히 그 처음을 이 이리다. 단소들 이미 이름의 나에 명을 칭하기를 내가 실지로 공의 덕을 사모함이 오랜 지라 급히 그 말을 듣느니 곧 명을 지음 이라.

평년의 한 지역이 연만 있느니 구한 것이 있었느니라. 공의 창신함을 왜 생민의 처음으로 전거(奠居)함이니라. 그 성산 땅을 상보아 먼저 한을 세우니 단라서 아사(衙舍)도 세우고 객사도 지음에 토목의 공사들을 급내 첨간하느니 이미 국신과 포백을 내니 또한 노비를 내어주느니 사경(四境)의 땅을 무질러[割得] 얻어 그 구한 바로 하였느니라. 민전의 종자를 뿌리니 국신의 임이 가 나뉘어 기행의 바

초가지붕은 버리고 기와로 바꾸니 공인(工人)까지도 화합하더라. 깊은 은혜와 두터운 덕택은 적천이 마르지 않고 거룩하신 공적은 삼봉과 같이 높았더라. 향액(享禮)함이 오히려 월하였음에 감응을 받지 못하였더니 다행이도 이제 어진 후손이 추모의 정성이 간절하여 강산 옛집에 새로이 단을 모아서 넘초란 이름으로서 추모하는 생각을 부쳐 공의 영혼이 어답지 안함의 길에 흠격(歆格)하실지라. 천만년이 지나도 대대로 마침이 없으리라.

건륭(乾隆) 오십팔년 계축칠월 일

당산후인 진사 김치대 근찬

밀양후인 진사 박증제 근서

高皇早違

慈聖養于姨氏導就德性賢淑配洪陽古姓歷列朝來崇報其盛歲供祀典百世之永北路拜陵遠懷愈望遙

營薦此酌洞慰茲曠感

靈其有省

순종대왕 부행 때 치제문

순종대왕 부행시 치제문에 가로되 생각[思想心]하건대 나의 제일 높이신 임금님이
 이 일찍이 자성을 어기셔서 이모님의 신심을 받았나. 덕을 쌓으신 품을 인도해
 나와 감이라. 현숙한 배위를 도우니 홍양의 옛 성씨더라. 열성으로 지내오면서 높
 이 값음이요 그 대단이라. 해마다 제사의 법전을 정하니 백대 즉 오랜 세월을
 두니 영우함이니라. 부녘길에 들려능의 절을 함에 머니면 회포가 더욱 큼이라.
 멀리 제신 분묘를 바라보고 이 넓은 잔을 올려 이 크니 큰 그침을 위로하오니 신령
 님의 그 살피심이 있음을 지어다.

忠州石氏族譜序

夫我東石氏之鼻祖素是中國之華閥也在昔周末有石作蜀受業於孔氏之門而在七十
 二弟子中身通六藝故至今配享於國學而其後至漢朝有萬石君奮有子四人位皆二千
 石故賜號萬石君也然世遠年久其雲仍列在各國不可以文籍繼承則豈可歷證而考傳

乎自漢唐以來至於大宋朝有曰諱胄位至平章事其孫諱隣位在工部尚書而至銀資光錄大夫始出東國在麗朝毅宗朝乃宋孝宗乾道二年也因以上將軍有功於朝封芮城君墓在忠州會文洞西坐芮城乃忠州古號也其孫抹亦以功封芮山君乃元仁宗延祐元年也子孫之歷仕列朝者其麗不一而難可盡記也自芮山君至五世孫諱文成官至寶文閣直提學封芮原君芮原乃原州古號也故我氏族散在列邑者稱貫或用忠州或用原州名雖異而實則同也其子五人長曰諱仁正官至版圖判書中國使還路見安定驛山川秀麗遂有退居之志自備財力改騷爲邑名爲須安在我

太祖五年丙子剏邑而因居焉墓在本縣西金剛東麓子坐原其後趙公台淳氏來守須安考其設邑之功知其爲國保民之意遂以報營士林亦以呈狀于營邑剏建祠宇而祀之名其書院曰茅亭先生龍巖祠也自邑設置院長養賢有司春秋享禮朔望焚香等節依例設行又有內守候一名齊直一名常使守護凡我諸宗之星羅列邑其孰非茅亭之後裔乎其子諱琚官至史曹叅議其配監司李思任之女也長曰諱有珪移居成川次有琦有璧有琦之子諱瑀叅奉有子三人長曰諱孟良次曰仲良季良而仲良移居肅川其四世孫諱擎天乃箕子殿叅奉也諱以將仕郎素有學行曾爲穩城訓導嗚呼先祖之諸孫落在鄉曲董經初仕之列可知京鄉之有異也然宗子支孫之分派來系今至數百年則文籍傳譜皆失於

壬丙之兵火矣各派之存亡雖或不同而系承代數未嘗不考故廣會諸宗搜證家乘溯其先祖之為幾代認其後裔之為何支也若或漏譜而昧其派兮則雖同族而反為塗人矣且今考籍而探其根來則縱遠宗而母異近親勿謂諸宗之疎遠只數乃祖之合本如是系世錄譜則厥祖厥孫系寸仔詳昭穆分明矣莫以顯榮而獨親不以殘劣而必疎不思猥越忘拙搆實庶可為來裔所考之一助云爾

崇禎紀元後五甲午仲春支宗孫前注書通訓大夫成均館典籍邦珍謹識

忠州石氏世系終

幹事錄

門長

泓

都執事文及第通訓大夫成均館典籍邦珍

校正

元珍

奎珍

崧珍

暘珍

【兵使公編】

木浦書堂常享祝文

贈洪城君香山石先生伏以贊襄治化救護前烈宸筆褒忠 永樹風節

茲值春仲精禋是宜敢用牲幣醴齋粢盛庶品式陳明薦尚

饗

贈左贊成花園石先生伏以矢志罔僕惟義是從紀綱有賴警賴起慵

목포서당상향축문

증홍성언 香山선생 복이 치화를 찬양하여 전열을 구호함이라. 임묘의 치필로
증성을 드러내어 기리 풍절을 습음이라.

증 좌찬성 화원선생 복이 망복의 뜻을 맹서하여 오직 의에 따라 쫓느니라. 기
강이 힘입음이 있어 나용을 깨우쳐 일익이라.

石川齋記

古之帝王推轂而命帥臣重其任也朝廷自國初設武臣節度使掌軍國兵馬事使主閫外而非其人不與焉顯陵莊陵之際文武名臣萃于王廷時則有若藥城石公諱斯珍上膺聖簡爲兵馬副元師節度使出鎮慶南右軍公建節東來大耐其職及晚年退居于宜春石川之洞蕭然作村監司而終老焉其葬在治西上井里後承散居嶺外頗不競進墓下方建一閣請余以記其楣蓋燿其先蹟之久而泯也噫石之爲姓浮海東來世著麗代聖祖龍興推宮掖之恩又世之而高官采食公其在累傳也蓋公以文武全材承軒冕之世當國家治成制定之日聖上卑三軍之重而官業旣著歸老於川聲岳色之間今於五百年之下槩可以想見其人而惜乎其文獻之無傳也先王旣沒朝綱解而文恬武嬉藩鎮廢而陰雨無備遂使宗國而邱墟過是墓者夫孰不感古事而慕古人乎念先烈之莫追慨後人之寢微宜夫其後嗣之建是閣而追述其石川歸老之義名之曰石川思所以闡其先而紹述之以是傳之來者知所以勉之也

甲子九月 日

玉山 張錫英 記

석천재기

옛적에 제왕이 수레바퀴를 밀라 하며 장수에게 명(命)함은 그의 말은바 책임임을
 증히 여김이라. 조정이 국초(國初)로부터 무신 절도사(武臣 節度使)를 두어 군국병
 마(軍國兵馬)의 일을 맡아 문밖의 일을 주장케 하니 그 사람이 아니면 주지 않음이
 라. 현릉장릉(顯陵莊陵)의 지음에 문무명신(文武名臣)이 왕정(王廷)의 모임인즉 석
 공휘 사신이 간택에 응하여 병마부원수 절도사(兵馬副元帥 節度使)가 되어 나와 경
 남(慶南) 남우군(慶南右軍)에 진압하고 공(公)이 의절을 세워 동으로 와 크게 그 직책을 다하
 고 만년(晩年)에 미쳐 의춘석천(宜春石川)들에 거(居)하여 촌감사(村監司)를 지어 마
 침 늪음에도 묘(墓)가 의춘 상정리(宜春 上井里)에 있고 후승(後承) 자손(子孫)들이
 령(嶺)밖에 흠어져 사니 자못 경진(競進)치 못함이라. 묘 아래 하나의 각(閣)을
 세우고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니 대개 그 오랜 공적(功績)이 민일함을 빛나게 함
 이다. 석씨(石氏)의 성(姓)됨이 동(東)에서 와서 고려(高麗)에 들어남이라. 성조
 용흥(聖祖 龍興)에 궁액(宮掖)의 은혜로 또 한대로 높은 벼슬과 채식을 하시니 공의
 그 누전(累傳)에 있음이라. 대개 공이 문무전재(文武全材)로서 현면의 세가름 이어
 국가치성(國家治成) 제정의 날에 삼군(三軍)을 증하게 여김에 당하여 관업(官業)이
 이미 나타나고 물맑고 산 좋은 곳에 돌아와 늪음에 이제 오백년(五百年) 아래 가히
 그 사람을 상상하여 볼 수 있으나 애석하다. 문헌(文獻)의 전(傳)함이 없음이라.
 선왕(先王)이 이미 돌아가고 조강이 해이하여 문신무신(文臣武臣)의 번진이 폐하여

음(陰雨)에 갖춤이 없어 드디어 종국(宗國)으로 하여금 구허가 되니 이 묘소(墓所)를 지나는 그 누가 옛일을 느낀 옛사람을 생각지 않거나 선열(先烈)을 생각하여 추모(追慕)함이 없고 후인의 친미함을 개연히 여기미라。 마땅히 그 후사가 각각 (閣)을 세워 그 석천(石川)에 돌아와 늙으신 의로운 이들을 돌이켜 써서 이르기를 석천재(石川齋)라 함은 그 선포를 선양하여 소술한 바를 생각함이라。 이로써 오는 자에 전하여서 힘써바를 알게 함이니라。

갑자구월 일

옥산 장석영 씀

嘉善大夫慶尚兵馬節度使石公墓碑銘 并序

宜寧治西二十里上井里德橋後負乾之坡有封之崇若堂者是故嘉善大夫慶尚兵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石公之藏也舊有豐碑近爲兵火所壞後承慨然謀所以改豎役旣張炳忠在琢文圭三君北走漢師謁余以銘辭之固而不獲則遂按許公愈所爲頌者而序之曰公諱斯珍忠州氏其先本中華人宋高宗時有諱鄰浮海至高麗官上將軍食采藥城卽

今忠州也屢葉而判決事諱道從居雙城諱良善洪陽府院君配其崔氏康獻王之從母也
 王以乳養之恩封翁主築別宮於永興宮闔里使居之洪陽之後諱天乙洪城君中郎將諱
 汝明麗亡守岡僕義太宗徵以提學不出諱文成直提學襲封藥城諱義正叅議定公四親
 也配貞夫人完山李氏三男赳教導次櫻通信使次摠侍郎其裔孫散居三嘉昌寧星州晋
 州廣州漢城女青松沈致以孝烈旌其閭公生以永樂丁亥世宗朝登科歷官至慶尚右兵
 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值世祖受禪悲憤慷慨因棄官遯于宜春之石川里寓懷林泉不
 復問時政得失而以終餘年其直節清名尚留於後人惜乎其微言細行世遠無徵也銘曰
 土苴軒冕嘉遯遐荒德橋之阡麝去留香隧門有珉炳百千霜

義城 心山 金昌淑 撰

가선대부 정상우 병마절도사 석공 묘갈명

의령에서 서쪽으로 이십리 상정리 덕교(二十里 上井里 德橋) 뒷산 건좌(乾坐)에 한
 높이는 분묘는 가선대부 정상우도 병마절도사(嘉善大夫 慶尚道 兵馬節度使) 겸 수군절
 제사 석공(水軍節制使 石公)의 안치됨이니 옛적에 큰 비(碑)가 있었으나 근래(近來)
 난리에 손상되어 후손(後孫)이 이어 다시 세움에 병충 재탁 문규 세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나에게 묘비의 글을 청하기에 사양해 마지 못하여 드디어 허공유의 칭송

한글을 보고 서차하여 가로되 공(公)의 휘(諱)는 사진이요 충주석씨(忠州石氏)의 후손이며 그 선대는 중화(中華)의 사람이라. 송(宋)나라 고종(高宗)때에 휘린(鄰)이 고려(高麗)에 와서 상장군(上將軍)이며 예성군이였으니 지금의 충주(忠州)이다. 뒤에 홍양부원군 배위최씨(洪陽府院君 配位崔氏)는 강헌왕의 증묘이신지라. 왕의 유양(乳養)의 은공(恩功)으로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시고 영흥(永興) 궁달리에 별궁을 지어 거처하게 하고 홍양의 뒤에 휘 천을(天乙)은 증랑장 홍성군이요 휘 여명(汝明)은 고려가 망함에 망부의 의로 태종대왕(太宗大王)이 제학(提學)으로 서 벼슬을 내려 부르심에도 나아가지 않았고 휘 문성이(文成)는 습봉예성군이요 휘 의정은 참의이니 공의 사친이라. 배(配)는 정부인 완산이씨(貞夫人 完山李氏)이시고 장자는 구이니 고도요 들췌는 총이니 사랑이라. 이제 그 예손들이 경향각지(京鄕各地)에 흠어져 살며 다님(沈) 청송심씨(靑松沈氏)의 아내로서 호너로 정문이(京鄕各)라. 세종조에 무과에 올라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겸 수군절제사로 세조수선에 비견 강개하여 벼슬을 버리고 의춘 선천리에 은거하여 임천에 우회하니 다시는 때의 정사에 연인(沈)이 없으니 하니 하고서 남(沈) 일생(一生)을 마치니 그 권(沈) 절개와 맑은 이름이 후인의 머뭇러 있어 되 애선하다 그의 자세한 말과 학통(學統) 학거동이 세월의 흘러 러으랜지라. 그 증거가 없으니 명(沈) 지어 가로되 토저현면의 하황외(下皇外)의 함의 덕보의 사슴(沈) 가고 향기만이 남아있네. 모든 앞의 종(沈) 비(碑)가 있으니 백

년천년(百年千年) 길이 빛나라。

의성 김창숙 찬

玉山齋記

余嘗南遊方丈至三嘉郡城而留滯者非一再焉見其西南山之高者如玉立水之清者皆玉流意必有如玉之士蘊積其中不求售於世不求價於人保得元初天成之光輝也心欲採之而未暇歸來數十年徒夢想其處而已日石炳忠宿春而至斂衽而言曰八世祖考處士府君諱信璞早負儒望而厭世俯仰晚年率四子自宜寧來隱三嘉之鶴洞就其西玉田之上置書室曰三玉齋藏經貯史以教子孫養鷄種黍以延賓友府君沒後子孫世守之中年齋爲風雨所壞洎於甲申移建其側稍奧處正堂四楹守舍外門皆備監其役者鎬周周洪東起鎮洪也改榜曰玉山齋乞吾丈特惠一言之重則門寒之光也余辭以不敢而請之愈勤其誠動人也因竊惟念昔年過三山之時妄意如玉之士蘊積其中者聽其蹟求其事惟處士公可以當之手於是抽管而記之曰中國有玉山而朱先生有講義我東有玉山而李晦齋先生成畏壘以是論之玉山之高猶勝五嶽而彼邱垤之小小者不足論也山不以

玉而高以其有大賢播芬剩馥也以處士公數間藏修之屋標榜是名傳之永久不亦謬且濫矣乎然士本希賢賢固可學居是齋而仰是扁慕二先生之道學二先生之學則孰謂斯名之不稱停也哉余爲處士公子孫而勸勉及此諸公無以今日之非所尚而却之也否

丁亥九月下澣

光州 盧根容 謹記

옥산재 기문

내가 일찍이 남으로 방장에 놀아 삼가군성(三嘉郡城)에 유숙함이 한 두 차례니라。 그 서남(西南) 山의 높음이 옥(玉)이 선듯하고 물의 맑음이 옥(玉)같이하면 반듯이 옥(玉)같은 선배가 그 중에 있음이 짐작되어 지나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온 수十年에 한갓 그 곳을 몽상(夢想)할 따름이니 日에 석병충군(石炳忠君)이 말하여 가라대 팔세조고(八世祖考) 처사공(處士公)이 일찍 유망(儒望)이 있었는데 만년(晩年)에 四子를 거느리고 宜寧으로부터 삼가(三嘉) 학동(鶴洞)에 정거하여 서편(西便) 옥전(玉田)위에 삼옥재(三玉齋)라는 서실(書室)에 자손(子孫)을 교육하고 빈개를 연접(延接)하여 자손(子孫)이 세수(世守)하였다니 중년(中年)에 재실이 풍우(風雨)에 퇴폐되어 갑신(甲申)년에 증건하고 삼옥재(玉山齋)라고 개액 하였으니 一言의

중(重)하심을 아끼지 말라시고 간곡히 청하거늘 내가 마지못하여 기문하여 가라대
 중국(中國)에 옥산(玉山)이 유(有)하여 朱子가 강의를 하였꼬 아동(我東)에 옥산(玉
 山)이 有하여 이회재 선생(李晦齋先生)의 서원이니 이로써 의논할진대 옥산(玉山)의
 높음이 오악(五嶽)보다 더하니라. 처사공의 수간(數間)의 장수옥이 이 이름을 포방
 하여 영구(永久)히 전함은 또한 남칭(濫矣)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선비는 본래
 어진이를 바라고 어진이를 진실로 배울지라. 이 재실에 거하여 이 편액을 보고 이
 선생(二先生)의 도학(道學)을 사모하여 이 선생(二先生)의 학(學)인 즉(則) 누가 이
 재실 이름이 남칭이라 하겠는가. 내가 처사공의 자손을 위하여 권면(勸勉)함이니
 라.

정해九月 하한에

광주 노건용 기

琢玉齋重修記

昌山文獻鄉也而多名士賢大夫出焉治之西埋炭村忠州石氏之藍田而其先有諱鄰以
 中夏古族東徙高麗討趙位寵立不世之功封藥城君自是軒冕聯世焜赫傳至諱汝明號

花園與李太祖有戚里之懿而以麗祖文科不肯內陞堅守罔僕諱斯珍仕端廟慶尚右兵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時世祖有異志見機而色舉投紱南下於宜寧石川以獻自靖宜與昌只間一葦矣後子孫又移于昌有諱守敏樂道養真築齋于村之右儲詩書訓子弟以爲藏修之所顏其楣曰琢玉因自號焉蓋意其玉出於石而不能無外陋之掩加之以琢磨之功勗成國瑞故其充於明堂之求善乎其自修也楣記之辭略曰玉雖美璞而剖琢而磨然後乃成寶器是誠愈力而愈新愈新而愈美也人之爲學次第亦類是自灑掃應對至于修齋治平日新又新進進不已則詩云其人如玉是也是以從事於是齋者圭璋球琳鏘然之聲聞于四達不意挽近以降西風吹急黃茅之瘴遍天下石渠玉府渾不免於蟹書鳩舌之場而是齋也亦徒以頽然視危遊於斯者顧安得不有遜色於昔日樣子然勢也奈何日齋中二友陽均鎬重甫袖舊記而訪余於達句桂山之陽曰齋今重新而揭楣則仍舊矣敢請吾友於琢玉之方必有先見而幸惠一言以牖吾之迷也余歛衽而起曰是何言也余亦則人人者類也方內省不暇而惡能有辭於琢治之妙乎敢辭請益勤而辭不獲乃泚毫曰無己則盍師夫自家先烈乎竊惟藻城公之討趙立功直類乎剖璞去麤以獻于玉玉岩曰嘉是玉也是則大哉以琢以磨之成法也至若花園公之罔僕高節節度公之見機明哲認是內蘊明河之精外著白虹之氣劇然而貞不沮不染光輝之美於斯爲盛于後鴻匠駿譽

經古而澤新可以充瑚璉可以飾珩璫者不亦彬彬然矣乎歸以求之因其家學之所在己
知己治者而篤焉則一朝言外之悟惟在自得之如何請勉旃哉時維

大韓紀元后癸卯二月下浣

安東 權孝述 記

탁옥재 증수기

창산(昌山)은 문헌(文獻)의 고을이라. 명사(名士)와 현대부(賢大夫)가 많이 났으
니라. 매탄촌(埋炭村)은 충주석씨(忠州石氏)의 남전(藍田)인데 그 시조(始祖) 휘 린
(鄰)이 증화(中華)로부터 동(東)으로 고려에 옮겨 조위총(趙位寵)을 처공을 세워 예
성군을 봉하고 이로부터 대로 내려 흥현하였다. 휘 여명(汝明)은 호(號)는 화원(花
園)이니 이태조(李太祖)로 더불어 척리(戚里)가 있으되려조(麗朝)의 문과(文科)로서
즐거이 내부하지 아니하고 휘 사진(斯珍)은 단종조에 경상우병마 절도사(慶尙右兵
馬節度使)로 세조(世祖)가 판 뜻이 잇음을 알고 기회를 살피 벼슬을 버리고 남(南)
으로 의령 석천(宜寧 石川)에 와 정거하니 의령과 창녕이 한 간(間)사이라. 그 자
손이 또 창녕에 옮겨 휘 수민(守敏)이 도(道)를 즐겨하고 참됨을 길어서 재실을 마
음 오른편에 세워 시서(詩書)를 갖추어 자체를 가르쳐 장수(藏修)의 바를 하여서 미

안의 탁옥(琢玉)이라 하니 호로 인함이라. 대개 그 뜻이 옥(玉)이니 돌에서 나는데
 능이밖에 더러움을 가림이 없고 탁마(琢磨)의 공(功)을 더하여 도와서 나라 상서를
 이루는그로 그 명당(明堂)에 채워 찬함을 구해 그 스스로 닦음이라. 옥(玉)이 비록
 아름다운나 깎고 갈고 닦아 그 연후에야 좋은 그릇을 이루니 이가 진실로 더욱 힘
 을 쓰면 더욱 새롭고 더욱 새로우면 더욱 아름다움이니라. 사람의 배움의 차례도
 또한 이와 같으니 세소응대로부터 수제치평(修齋治平)에 이르러 날로 새롭고 또 새
 로워 진전불기하면 그 사람이 옥(玉)같다 함이니라. 이로써 이 재실에 종사하는데
 장연한 소리가 무우사달(聞于四達)함이라. 불의만근(不意挽近)에 서풍(西風)이 취
 습하여 황모(黃茅)의 병이 천하에 돌리니 돌과 옥이 모양이 손색이 되었으나 견실
 을 면하지 못하되 이 재실은 또한 태상위함 로음만 볼것이다. 이에 노는제 옛모
 양에 손색이 없으나 어찌 하겠느냐. 어떤날에 재종의 양관 홍증 보가 옛기문을
 가지고 나틀 대구 계산양지에 찾아와 말하기를 재실을 거듭 증수하였기에 액자는
 옛액자를 걸고 감히 청하노니 탁옥의 방에 반드시 선견의 있었을 것이니 다행이란
 말을 혜사하여 나의 아득한것을 여라. 내가 웃것을 거듭고 이려나 가로되 이 무
 슌말이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사람이 다함기같이지라. 방향이로 안을 살피도
 못하거니와 어찌능히 탁치의 묘법이 있었겠는가. 근이 사양하되 청하기 더욱 간곡
 하여 거듭 사양할 수 없어 이에 벗을 들리고 가로되 말미없기즉 어찌 자기집의 선열

을 배우지 않았나。 간절히 생각건대 예성공이 조씨를 처서공(功)을 세움은 큰 우
을 갈아 더러움을 버림과 갈아서 옥(玉)에 드리는 것이니 옥바위를 갈으니 아름다
움이라。 이즉 크다。 쫓고 가는 성법이라 화원공의 망부의 높으니 절개와 절도공의
전기명철(見機明哲)함이 안으로 밝고 정교로움을 나리니 밖으로 백홍(白虹)의 기운
이 나타나지라。 같고 공음의 밝지도 않나 더러워짐도 없다。 빛나고 아름다움의
이에 성(盛)하고 후세(後世)에 흥자준여가 온고택신(緼古澤新)하고 가히 호련에 채
우고 가히 서행담을 꾸미는 이가 또한 빈빈하지 아니하겠나。 돌아가서 구하라。
그 가학의 있는바에 이미 알고 이미 다스리는 자로 인하여 도독한 즉 하루 아침의
말밖에 깨달음이 오직 스스로 얻음에 있으니라。 청컨대 힘쓸지어다。

계묘이월 하완

안동 권효술 기

北阜處士石公墓碣銘 并叙

夏山治南洛江之上有曰鼓谷故處士石公自宜春來誅茅於斯遠近學徒聞風坱集公隨
材施教人多化之遂隨分自守育子長孫樂而忘返以終餘年夏之有石氏自公始焉歿後

受徒相與葬公于村後坎原又爲之置祭四子姓徙于治之西北埋炭牛萬門戶稍成有登桂籍而揚于王庭者有修行義而知名儒藪者焉豈非公遺蔭也耶諸後承慨羨門無表將伐石以豎鎬重大利大穆三君冒炎熱訪余于琵琶山房請書其陰孝慈事也不能終辭按其狀公諱麟字德驥系出忠州肇祖鄰自中國始東來佐高麗毅宗討趙位寵有功陞上將軍封藥城君藥卽忠也六傳至諱良善以其配慶昌翁主乳養我太祖授洪陽君是生天乙洪城君是生汝明麗社屋罔僕是生文成藥城君卽公高祖也曾祖曰義正禮曹叅議祖曰斯珍節度使光陵受禪退居宜春考曰赴教導妣密陽朴氏女二配碧珍李氏女玉山全氏女一男璉孫男根柱曾孫男蘭豐楠柏三昆季也斯役也尤殫誠者鎬贊鄉均炳周常均也銘曰樂哉斯邱公昔邁軸人地相逢自求多福厥后克昌乃礮乃劓庶無剝落可徵來億

昌寧成者惠撰

북고처사 석공 묘갈명

하산 치남낙강 지상(夏山 治南洛江 之上)에 고곡이란 고을이 있어 고처사 석공(故處士 石公)이 의춘(宜春)으로부터 이에 와 있으니 원근 학도(遠近 學徒)가 문풍분집하니 공이 재복을 따라 가르침을 베푸니 사람이 많으니 화하고 드디어 분위를 따

라 스스로 지키고 아들을 기르고 손자를 키워 즐거이 세월을 보내 일생을 마쳤다.
 창녕에 석씨 있었음이 공으로부터 처음인지라 돌아가신 뒤에 문도들이 서로 더불어
 춘후가원에 장사하고 또 위하여 제전을 두었느니라. 자손(子孫)이 창녕(昌寧) 서쪽
 또는 북쪽 매탄(門)만에 옮겨서 문호(門戶)가 점점 이뤄 제전에 올라 왕정(王庭)에 떨
 치는 이도 있고 행의로 다투아 유림에 지명한 이도 있었으니 이가 어찌 공의 유음이 아
 니겠나. 모든 후손들이 예문에 표석(表石)이 없음을 개연히 여겨 장차 돌을 갈아
 서 세울새 홍종과 대리대목 삼군(三君)이 더위를 무릅쓰고 나를 비실산방에 찾아
 글을 청하거늘 효자(孝慈)한 일이라. 능히 사양하지 못하여 그 장을 안찰하니 공
 (公)의 휘는 린(鄰)이요 자(字)는 덕기(德驥)요 관(貫)은 충주이다. 조조 린(鄰)이
 중국(中國)으로부터 동으로 와 고려 예종을 도와 조위총(趙位寵)을 토벌한 공이 있
 어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예성군을 봉하니 이는 곧 충주라. 육전(六傳)하여 휘
 천을(天乙)이 그 어머니 경창옹주(慶昌翁主)가 아태조(我太祖)를 유양(乳養)함으로
 홍성군(洪城君)을 받고 이가 휘여명(汝明)을 낳으시니 제학(提學)이시다. 여사옥
 에 방복하고 시생 문성(文成)하니 슴봉 예성군이니 즉 공(公)의 고조(高祖)라. 증
 조(曾祖)는 가로되 의정(義正)이니 예조참의(禮曹參議)요 조(祖)는 가로되 사진(斯
 珍)이니 절도사(節度使)라. 광릉수선에 의령(宜寧)에 퇴거하였고 고(考)는 월주의
 니 교도(教導)요 비(妣)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며 二배는 벽진이씨(碧珍李氏)이요

배(配) 또한 옥산전씨(玉山全氏)이다. 일남은 연이요 손남은 주요 증손(曾孫) 남난
 풍남백(蘭豐 楠柏)이니 삼곤계(三昆季)라. 이역사에 더욱 정성으로 다한 자는 호
 찬정관 병주 상군 이더라. 명(銘)하여 가로되 즐겁다. 이 두 덕이여. 공이 예
 전에 과족을 하였더라. 사람과 땅이 서로 만나니 스스로 그 복이 많음을 구하였더
 라. 그 뒤가 극히 창성하니 이에 같고 이에 새겼느니라. 거이 떨어지고 떨어짐이
 없으니 가히 언만년을 증거하리라.

창녕 성기덕 찬

訥軒處士石公祭壇碑文

墓不修則祭於壇蓋禮之義起而遵行者夥矣十一世孫鎬重奉世牒踵余門言曰吾先祖
 訥軒公及其配豐山洪氏兩位體魄藏之在木浦先塋側有傳家庭亦載世牒然年久世遠
 莫能識其處焉令將於所居村后埋炭山築壇合享且礮石爲碑而表之願有書也余竊悲
 其志遂用碣倒叙之公諱守敏字在謙訥軒號也系出忠州上祖鄰在宋紹興間來仕高麗
 毅明兩朝封藥城君卽忠州也連世膴仕洪城君天乙花園汝明最著至處士麟自宜春始
 家昌寧是公高祖也曾祖曰璉祖曰根柱考曰蘭豐外祖金海金振澤二男處慶永哲孫男

繼平長房出那老那正次房出嗚乎余嘗聞有曰人死骨肉歸土而魂氣則無所不之又曰人之精靈如水之在地無處不在然則惟誠所寓神輒在焉固不可以山川限之也况茲埋炭一區累世桑梓之村惟公不昧之靈必眷顧臨睨於斯而歆享秘芬於斯也夫宜公後承汲汲斯役而十二世孫在洙之尤盡其力焉繼之以詞曰有壇斯屹有石斯嶷旣淨且潔不爛不泐庶精靈之悅豫歆格顧何必於斧堂側

辛亥穀雨節

昌寧成耆惠撰

늘현처사 석공 제단비

묘를 닦지 못하고 단소에 제사함은 대개례(禮)의 의(義)로 일으켜 준행하는 이가 많은지라。 공(公)의 십일세손 호중(十一世孫 鎬重)이 세첩(世牒)을 받들어 나에게 와 말하되 나의 선조 늘현공과 그 배 풍산홍씨 양위(配 豊山洪氏 兩位) 체백의 간직함이 목포선영(木浦先塋)결에 있음이 집안에 전함이 있고 또한 세보(世譜)에 실려 있으나 해가 오래되고 대수가 멀어 능히 그 곳을 알수 없어 이제 장차 소거촌후매탄산(所居村後 埋炭山)에 단(壇)을 모아 합제를 하고 또한 돌을 갈아 비석(碑石)을 새켜 표(表)하니 글로서 원하노라。 내가 그 뜻을 슬피하여 드디어 갈에 도착으로

퍼니 공의 휘는 수민(守敏)이요 자(字)는 재겸(在謙)이요 늘현(訥軒)은 호(號)이며
 관(貫)은 충주(忠州)라. 상조(上祖) 휘 린(鄰)이 송나라 소흥가에 있어 고려에 와
 벼슬을 하여 예명양조에 예성(藥城)을 봉(封)하니 즉 충주라. 대로 이어 무사하고
 홍성군 천을(洪城君 天乙)과 화원여명(花園汝明)이 가장 들어난 지라. 처사인(處士
 鄰)에 이르러 의령으로부터 창녕에오니 이가 공(公)의 고조(高祖)라. 증조(曾祖)는
 휘련(璉)이요 조(祖)는 근주(根柱)요 고(考)는 나릉(蘭豊)이며 외조(外祖)는 김해 김
 진택(金海 金振澤)이요 이남(二男)은 처경 영철(處慶 永哲)이요 손남(孫男)은 계평장
 방출(繼平長房出)이요 방노방정(那老那正)은 차방출(次房出)이라. 우호라. 내가
 일찍이 들음에 사람이 죽으면 골육은 흠에 돌아가되 혼기는 가지않는 곳이 없고 또
 가로되 사람의 정령(精靈)이 물이 땅에 있음과 같아 어느 곳에나 없는 곳이 없으니
 그러면 오직 정성부치는 바에 신이 무슨 계시나니 진실로 가히서 산천으로 한점은
 못할 것이니라. 하물며 이 매탄한 동리는 누세로 자손이 사는 곳이니 오직 공의
 정령(精靈)이 반드시 이에 돌아보고 필분(秘芬)에 힘앙할 것이라. 대개 공의
 후손들이 이 역에 고집하는데 십이세손 재수(十二世孫 在洙)가 더욱 그 힘을 다함
 이라. 이어 사를 하여 가로되 단이 있어 이에 높이고 비석이 있어 이에 높다. 이
 미 막니 조출함의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하리라. 거의 정령의 기척이 흠연함의
 여. 돌아보건대 어찌 반드시 부당의 결이겠느냐.

司憲府掌令石公墓碣銘 並序

公石姓諱基坤字德履鶴阜其別號也始祖鄰宋高宗時東出爲麗朝上將軍討賊有功封藥城君藥後改爲忠州故子孫遂以忠州貫焉上將軍之後有號花園官注書者曰汝明我朝龍興召爲集賢殿提學不就注書曾孫斯珍官至兵使公其十三世孫也大父龍祐皇考汝黃妣慶山全氏密陽朴氏全氏實以純廟甲子月日生公幼甚峻爽旣長藝學有聞父公嘗召公前諭之曰吾家世微甚吾實恥之汝其力哉立揚在汝公聞命惶懼刻心厲志終始不懈業旣通應試入京師憲宗庚子擢明經文科例付成均館由學錄學正遷博士陞典籍外除慶尚都事久後入禮曹爲正郎者者二兵曹爲佐郎者二拜司憲府持平者二其爲慶科考官也被儉人所毀謫咸昌四朔宥還戊午左授金郊道察訪辛酉拜校書館判校其年七月以疾卒于京館踰月歸葬昌寧郡吾也坊某原配朴氏育一女適成東注繼配金氏生三男大翼將仕郎大胄壽陞通政大星大胄男炳穆承大翼後炳珪炳文大星男炳列炳徹

曾孫以下總十數人嗚呼以公通明之資篤實之工其進塗伊始固宜取膺仕如拾芥人亦多以此望公而是時朝廷之間專用門地爲取舍苟其人其居非京國其生非戚里則雖才而廢棄不用雖用而使無得以盡其才公之沈淪輒軻於郎署下僚之微曷是恠哉炳珪以其族人炳杓所爲狀而來請余以銘曰惟巧宦一日九遷其官不爲多胡有才卒歲官卑而不遇嘻其嗟豈公之故奈如時何

晉陽 河謙鎮 撰

사헌부 장령 석공 묘갈명

성_은 석씨(石氏)요 휘(諱)는 기근(基坤)이요 자(字)는 덕이(德履)이며 학고_는 호(號)이다. 시조(始祖) 휘린(鄰)이 송나라 고종(高宗)때에 동으로 나와 고려조(高麗祖)의 상장군(上將軍)으로 전공이 있어 예성군(藥城君)을 봉(封)하니 예성_은 곧 충주(忠州)임으로 자손(子孫)이 충주(忠州)로 관(貫)을 하였느니라. 후(後)에 화원(花園) 휘여명(汝明)이 아조용흥(我朝龍興)에 집현전(集賢殿) 提學으로 부르되 나아가지 아니하고 증손(曾孫) 휘사진(斯珍)이 병사(兵使)이니 공(公)이 그 십삼세손(十三世孫)이니라. 대부용우(大父龍祐)요 황고여황(皇考汝黃)이요 비(妣)는 경산전씨(慶山全氏)요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니 순조갑자(純廟甲子)에 전씨가 공을 낳

으시니 어려서 심히 존상하고 이미 장성함에 예학(藝學)의 들람이 있느니라. 부공
 (父公)이 일찍 공을 불러 앞에 일러 가로되 우리 가세가 쇠미하니 내가 부끄러이
 여기노라. 네 그 힘쓸지어다. 입양(立揚)이 너에게 있느니라. 공이 명(命)을 듣
 고 황우하여 각심여지하며 증시불해 하더라. 입음을 이미 통함에 시험에 응하여 서
 울에 들어가 현종경자(憲宗庚子)에 명경문과(明經文科)에 올랐으며 예로 성균관(成
 均館)에 부쳐 학록학정(學錄學正)으로 말미암아 박사(博士)에 올랐고 전적(典籍)에
 오르고 외직(外職)으로 경상도사(慶尙都事)를 제수하고 뒤에 예조정랑(禮曹正郎)이
 두 번이고 병조(兵曹)에 좌랑(佐郎)됨이 두 번이요 사헌부지평(司憲府 持平)이 두
 번이요 그 경과 고관(慶科 考官)이 됨에 검인의 소회한 바를 입어 함창(咸昌)에 귀
 양을 가서 사각만에 유환을 하고 무오(戊午)에 금교 도찰방(金郊 道察訪)으로 좌천
 되고 신유(辛酉)에 고서관판교(校書館判校)로 그해 칠월(七月)에 병으로 경관에서
 돌아가시니 달이 넘어 창녕군 오야방(吾也坊) 묘원에 기장함이라. 배(配)는 박씨
 (朴氏)니 따님 하나를 키워 성동주(成東注)의 처이며 배 김씨(配 金氏)가 삼남(三男)
 을 생(生)하니 대익(大翼)은 장사랑(將仕郎)이요 대주(大胄)는 통정(通政)이요 대성
 (大星)이니라. 대주(大胄)이 남(男) 병목이 대익의 후를 이었느니라. 병유 병문의
 요 대성의 남은 병열 병철이라. 증손이하(曾孫以下)는 십수인(十數人)이니 오호라
 。 공이 통명지자(通明之資)와 독실(篤實)지공으로 나선 길 이 진실로 그 사람 이 되

그 거함이 경국(京國)이 아니요 그 남이 척리가 아니면 비록 재주가 있어도 패기
 불용하고 비록 쓰더라도 그 재주를 다함이 없으니 공의 침륜감가를 하여 랑서하요
 가 어찌 족히 기이하겠느냐。 병규가 그 죽인 병표의 장행으로서 나에게 와 명을
 청하거늘 명을 하여 가로되 오직 공교히 벼슬한 것이 하루에 아홉 번을 넘기더라도
 그 벼슬이 많은게 아니고 어찌 재조가 있어도 해가 가도록 낮은 벼슬을 만나지 못
 하는 것이 그 슬픔이라。 어찌 공의 연고겠느냐。 때가 그런 것을 어찌하리요。

진양 하점진 찬

炭軒石公墓碣銘 并序

公諱竝坤字元舉號炭軒以其所居埋炭也石氏忠州人以高麗兵馬使藥城君諱鄰爲始
 祖自是累傳至諱汝明號花園我 太宗朝徵以集賢殿提學不就罔僕自靖與圃牧同是
 生諱文成官直提學襲封藥城是生諱義正禮曹叅議是生諱斯珍以 端廟朝兵馬節度
 使及 世祖受禪辭職退居宜寧再傳諱麟移于昌寧於公十世也曾祖曰重鶴祖曰龍祐
 考曰汝安妣慶山全氏仁厚女金海金氏碩興女金氏以純廟癸酉八月二十八日生公時
 石氏以科第文學鳴於江鄉而掌令基坤玉齋鼎坤最著掌令於公爲從祖兄玉齋其家弟

也公自幼從學掌令以詞賦見稱然不得售於有司終騎渡灞之驢則命也遂歸棲林壑修吾分內事事父母孝教子弟義處宗族睦交朋友信於世間得喪利害泊如也聞掌令沒於京邸往赴之返葬故山千里扶護其叙倫報佛之篤於此可知也 高宗乙丑五月二十日考終享年五十三葬木浦琵琶磴亥原配慶州李氏集秀女生壬申卒乙卯墓溫背山乾坐育三男大珵大琇大琳密陽朴氏萬秀女生丙戌卒甲午祔公墓下艮坐育一男大琦三女成泰根朴在根朴秉順珵系男炳祉琇男炳祉出琳無嗣琦男炳連外孫朴秉賢秉玉秉禧秉奎秉武朴相容露容吉容曾孫裕均周均之均衡均敬均玄孫以下不錄玄孫鎬友鎬進鎬喆持族祖炳悌之狀請公阡表於不佞以余鄉人而熟知其門事也遂不辭而首叙其事行尾以銘銘曰身世等孟浩然池塘似謝惠連旣未用於當世又不享其高年得子姓之繁昌可薪火之永傳惟據實而書之戒樵牧於斯阡

歲辛丑三月初吉

光州 盧根容 撰

탄헌 석공 묘갈명

공(公)의 휘는 병근(竝坤)이요 字는 원거(元舉)요 호(號) 탄헌(炭軒)은 그거하는

바매탄(埋炭)으로 함이라. 석씨(石氏)는 충주인(忠州人)이라. 고려병마사 예성군
 휘린(鄰)으로서 시조(始祖)이시다. 여러번 전해 휘여명(汝明)이요 호(號)는 화원
 (花園)이니 아래종조(我太宗朝)에 집현전 제학(集賢殿 提學)으로 부르되 나아가지
 아니하니 망복자정(罔僕自靖)함이 포묵을 더불어 갈음이라. 휘 문성(文成)은 직제
 학(直提學)이요 슴봉예성(襲封藥城)이라. 시생 휘 의정(義正)은 예조참의(禮曹參議)
 요 시생 휘 사진(斯珍)은 단묘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서 세조(世祖) 수선에 벼
 슬을 사양하고 의령(宜寧)에 퇴거하니라. 두 번 전해 휘린(鄰)이 창녕(昌寧)에 읍
 기니 공(公)의 십세(十世)라. 증조(曾祖)는 중학(重鶴)이요 조(祖)는 용우(龍祐)요
 고(考)는 여안(汝安)이요 비(妣)는 경산전씨(慶山全氏)이니 인후(仁厚)의 따님이요
 김해김씨(金海金氏)는 석흥(碩興)의 따님이라. 김씨(金氏)가 순묘계유팔월이십팔일
 (純廟癸酉八月二十八日)에 공을 낳으시다. 때에 석씨(石氏)가 과제 문학(文學)으로
 서 강향(江鄉)에 을리니 장령(江陵)과 옥재(玉在) 정언(正言)이 가장 들어났더라. 자령(子令)공의
 종조 형이 되고 옥재는 그 동생이니라. 공이 어릴때부터 장령을 쫓아배워서 사부로
 서 일컬음을 봤으나 그러나 유사(有司)에 얻지 못하여 마침내 패교로 건너는 나귀
 를 타니 명이라. 드디어 돌아와 입학에 처하여 나의 분내사(分內事)를 닦아 부모
 (父母) 심심함을 효도(孝道)로 하고 자제 가르침을 의(義)로 하고 종족(宗族)에 처하기
 를 화목하게 하고 붕우(朋友) 사침에는 믿음으로 하여 세상사이에 공리에 대하여

담박하더라. 장령이 경저(京邸)에서 돌아가심을 듣고 가서 고산(高山)에 반장(返葬)을 하니 천리(千里)에 부호(扶護)하여 그 인품을 펴니 보불(報佛)의 공이 이에 가히 알지어다. 고종을 즉 오월(五月)이십일(高宗乙丑五月二十日)에 고종(考終)하니 향년(享年)이 오십삼(五十三)이라. 목포(木浦) 비실(比失)등 해원(亥原)에 장사하고 배(配)는 정주이씨(慶州李氏)니 집수(集秀)의 따님이라. 임신(壬申)년에 나고 을묘(乙卯)에 졸(卒)하니 묘(墓)는 배산(背山)건좌(乾坐)요 삼남(三男)을 기르니 대현(대수)대림(이요) 밀양(박씨)니 만수의 따님이요 병술(丙戌)에 생(生)하고 갑오(甲午)에 졸(卒)하니 공(公)의 묘(墓)간좌(墓下)良坐)에 부(祔)하니라. 일(日)남(日)을 기르니 이름(日)이 대(大)기(氣)라. 삼(三)녀(女)는 심(心)태(泰)은 박(朴)재(在)은 박(朴)명(明)순(順)이 처(妻)요. 현(瑗)의 체(體)남(系)남(男) 병(平)지(之)요 수(守)남(男) 병(平)지(之)는 출(出)체(體)요 림(琳)은 무(武)사(少)요 기(奇)남(男)은 병(平)련(連)이요 외(外)손(孫) 박(朴)병(平)현(顯) 병(平)유(有) 병(平)무(武)요 박(朴)상(相)영(榮)로(로)용(用) 기(奇)남(男)이요 증(增)손(孫) 유(有)관(官) 주(周)관(官) 형(行)관(官) 경(景)관(官)이요 현(玄)손(孫)이 하(下)는 실(實)지(之)아(阿)는 다(多). 현(顯)손(孫) 후(後)유(有) 호(浩)철(澈)이 주(周)보(保)본(本)체(體)의 가(家)장(長)을 가(加)지고 공(公)의 천(天)표(表)를 나(拿)에(에)게(게) 청(淸)하(下)는 내(內)가(家) 한(韓)그(그)를(를) 사(士)람(梁)으로(由)서(始) 의(義)화(化)스(斯)고(高) 문(文)중(中)일(日)을(을) 아(阿)는(는)지(之)라(拉). 드(德)디(地)의(의) 사(士)양(良)치(之)아(阿)는(는) 머(머)리(理)에(에)는(는) 그(其) 사(士)행(行)을(을) 서(始)하(下)고(高) 끝(末)에(에)는(는) 명(明)으로(由)서(始)하(下)니 가(加)로(로)되(되) 신(身)세(世)는(는) 맹(孟)호(浩)연(然)과(과) 같(같)고(高) 지(之)당(堂)인(仁) 사(士)혜(惠)련(連)과(과) 같(같)아(阿) 당(堂)시(時)에(에) 쓰(寫)이지(之) 못(不)하고(高) 또(又)한(韓)그(其) 높(高)은(은) 나(拿)이(이)도(도) 아(阿)닌(仁)데(也) 자(自)손(孫)의(의) 변(邊)창(昌)함(含)을(을) 얻(得)어(어) 가(加)히(히) 신(身)화(化)로(로) 기(奇)리(理) 천(天)함(含)이(이)라(拉). 오(吳)직(之) 그(其) 실(實)사(士)를(를) 징(征)거(去)하(下)여(여) 글(各)로(로) 써(寫)서(始) 초(草)부(夫)의(의) 두(頭)단(段)의(의) 영(影)체(體)하(下)는(는)다(多).

玉齋石公墓碣銘

忠州石氏之居昌寧埋炭者近世有同堂八徙兄弟俱以富裕文學名門欄之盛著稱于鄉而曰諱鼎坤字元八號玉齋其一也公自幼敏悟有才器未成童已畧通經史治功令業有能聲與徙兄掌令基坤齊名并駕每出遊場屋鮮有敵者嘗累捷鄉解而竟屈於禮闈則遂浩然而歸反求之經子里中舊有琢玉齋公每居而講學遠近之遊從者甚衆公內行甚篤操守堅固視非義若浼少時以容儀之甚美隣有少艾之戀慕者被公牢拒因成疾而死人謂公科第之屈而後嗣之零替蓋或由是云石氏出自高麗上將軍鄰而至門下注書花園汝明麗亡守義至北阜麟始居昌寧十一傳至公會祖曰重鶴祖曰龍佑勤儉致家業有惠恤風考曰汝安外祖曰金海金碩興慶山全氏其前妣也純祖丁丑十月十八日其生也高宗乙酉四月十二日其卒也新基後山已原其葬也昌原具文行女慶州崔千年女順天朴海振女其三配也大瑄大璪其二男也盧希昌芮鎮東二女婿也孫曰炳韶曾孫曰乙均玄孫曰鎬九俱單傳公之遺文盡佚於庚燹墓且闕顯刻乙均鎬九惧其蹟之湮沒將伐石表阡述事請余記石背余感其誠不能辭則乃叙其事而系爲之言曰所抱之玉雖不見試自有其光之不息後之人曷不此阡之式

花山 權龍鉉 撰

옥재 석공 묘갈명

충주석씨(忠州石氏)가 창녕매탄(昌寧埋炭)에 거(居)하는 자 동당(同堂)에 팔종형제(八徙兄弟)가 있어 다 부유하고 문학의 이름으로서 문관의 성함이 향당의 밑거름이 되니 가로되 휘정곤(鼎坤)이요 자(字)는 원팔(元八)이요 호는 옥재(玉齋)가 그 하나이니라. 공이 어릴 때부터 민오(敏悟)하여 재기(才器)가 있고 성동(成童)이 못돼서 이미 대략 경사에 통했고 공령업(功令業)을 다스려 능한 소리가 있어 종형(從兄) 장령기곤을 더불어 함께 매양장유에 나아가 놀매 적수 있음이 드물더라. 일찍 여러 번 향해(鄉解)는 하였으니 마침내 예위에 골하여 드디어 호연히 돌아와 도리어 경자를 구하여 마을 가운데 옛 탁유재가 있어 공이 매양 거하여 강학(講學)을 하니 원근에 놀아 쫓는 자가 심히 많더라. 공의 내행(內行)이 심히 돈독하고 지조가 굳어 의(義)가 아님을 보면 더럽게 여겼다. 소시(少時)에 용의가 심히 아름다워 이웃의 소애가 연모함이 있어 공의 뇌거함을 입어 병이 나서 죽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이 과제의 날 하느니라 후사가 영치함인대 개후(後)로 말미암았더라. 석씨가 그고려 상장유 휘린으로부터 문하주서 화원(門下注書 花園汝明)에 이르러고려가 망(亡)함의 의(義)로 지키고 부근인에 이르러 처음으로 창녕에 살았다. 十一

세를 전(傳)하여 공에 이르렀다。 공의 증조 휘 증학이요 조휘 용우가 근심하여 가업(家業)을 이루어 해할한 바람이 있고 휘는 여안(汝安)이요 회조는 김해 김식흥이요 경산전씨는 그 전비이니라。 순조정축시월십팔일(丁丑十月十八日)에 나오시고 고종을이사월십일이일(高宗乙酉四月十二日)에 돌아가시니 신기뫼산 사좌에 장사하다。 창원주문행(昌原 具文行)의 따님과 경주 최천년(慶州 崔千年)의 따님과 순천 박해진(順天 朴海振)의 따님이 그 삼배「其三配」라。 대우 대민은 그 두아들이요 노휘창 예진동은 두 사위이며 손(孫)은 병소(炳韶)요 증손은 을균(乙均)이요 현손은 호주니 다 단전(單傳)이라。 공(公)의 유문(遺文)이 다경인 난리에 유실하고 묘에도 또한 현각(顯刻)함이 없으니 을균 호주가 그 행적의 인물될까 저하여 장차 돌을 다스려 묘제절에 표를 할새 사실을 기술하여 나에게 돌 등에 기록함을 청하거늘 내가 그 정성을 느껴 진실로 능히 사양하지 못하고 이에 그 사실을 펴고 이어 말하여 가로되 아는바 옥(玉)이 비록 시험을 보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그 빛이 쉬지 아니함이 있으니 뒷사람이 어찌 이 묘제절에 법을 하지 않겠는가。

화산 권영현 찬

梅窩處士忠州石公墓表

事有積勞而不見功者古今何限而以余所聞見前韓之末攻程文睹科第之士童而習焉勤一世而迄于白紛幸而得之猶不免魚兔之筌蹄苟其不得并與前功而盡歸棄蔑了無可施於後噫一何惜也昌寧有石公諱炳極字洛見少有場屋能聲至其屢試不利而還治古學則己年老矣其卒今且垂七十年矣篋衍所遺只有若干文草可想其才識之蘊工精之博而以其爲功令陳言亦不中編輯蘄傳盖亦如上一例也其孫鎬守方欲表儀阡塗而介其族人宇楨具告余求所以不泯其名者余亦聞其言而悲之因爲之論列所感如此石氏來自中國上祖曰鄰高麗時以上將軍封君藥城韓初有洪陽府院君良善洪城君天乙父子於太祖爲從母戚聯而藥城洪陽洪城皆忠州舊號也至兵馬節度使斯珍際莊光禪廢遠遯嶺右屢歷世而自宜寧奠居昌寧汝白柱坤大璇公之曾祖祖父并能以文學率家母安東權氏綾城朱氏金海金氏金其自出也配林氏平澤人金氏金海人三子聖均琢均允均長房孫鎬主鎬璉鎬守鎬文女適芮萬基中房孫鎬必鎬達女適李相甫金仁述季房孫鎬仁鎬命鎬義鎬彥鎬賢女適朴浩同朴東炯曾孫正永外永平永謹永武永鎮永義永明永宗永圭永文永陸永各房出不能一一公之生在憲廟乙巳卒周甲光武乙巳十月二

十七日葬大合面埋炭里大山嶺乾坐埋炭卽其所居里名或轉音爲梅灘故亦以梅窩號
公云

義城 金 梲 撰

매와 처사 충주 석공 묘표

일이 은로함은 많이 나있으니 되 공호만은 보지 못함이 고금(古今)을 어찌 한정하겠는가. 나로서 들은바에 전한 말의 정문만이 다 살아 과거를 보는 이 선배가 어려서부터 익혀 한 세상에 은자하여 백발에 이르러서 다행이 얻더라도 어최의 전제를 면하지 못함은 즉 진실 그 얻지도 못한 이는 전공이다. 허무하여 뒤에 전함이 없으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라. 창녕(昌寧)의 석공(石公) 휘 병극(炳極)의 자(字)는 낙견(洛見)이고 소년시절에 과문의 능성(能聲)이 있어 여러번 시험(試驗)에 이롭지 못하여 도리어 옛 학문(學文)을 다스리되 때가 이미 연로(年老)하였는지라. 그 들아가 심이 또한 칠십년(七十年)이 지난지라 기친바에 다만 약간의 문초가 있으니 가이 그 재식(才識)과 공정(工精)이 상상하리. 그 공령(功令)의 무은 말로서 필집에 맞지 않으니 대개 위와 같은 일례(一例)라. 그 손자 호수(孫子 鎬守)가 바야흐로 비석(碑石)을 묘도에 세우고져 할새 그 족인(族人) 우정을 소개하여 나에게 그 이름이 민멸치 안함으로 구하거늘 내 또한 그 말을 듣고 설피하여 느낀바가 이와 같다고

논영(論列)함이니라. 석씨(石氏)가 중국(中國)으로부터 와서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이며 예성군이 신휘린(鄰)이 상조(上祖)이시고 홍양부원군 양선(洪陽府院君 良善)과 홍성군 천을 부자(天乙父子)분이 태조의 종모(從母)연척이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휘사진(斯珍)이 단종 세조 선포의 때에 멀리 령우에 퇴거하여 여러대를 지내고 의춘으로부터 창녕(昌寧)에 전거하였다. 휘여백 주공 대선은 공의 부조 증삼대이니 다 문학(文學)으로 집을 거느렸다. 어머니는 안동권씨 능성주씨(安東權氏 綾城朱氏) 김해김씨(金海金氏)이니 공은 김씨가 낳으셨다. 배(配)는 평택임씨(平澤林氏) 김해김씨(金海金氏)요 삼자(三子)는 성균 탁균 윤균이요 장방손(長房孫)은 호주 호련 호수 호문이오 녀(女)는 예망기의 처요 중방손(中房孫) 호필 호달이오 또한 녀에 이상보 김인술 처요 계방손(季房孫) 호인 호명 호의 호언 호현이오 녀는 박호동 박동형의 처요 증손(曾孫)은 정영 외영 평영 근영 무영 진영 의영 명영 종영 규영 육영이니 가방의 출로 일일이 못하였다. 공의 나침이 현종을 사년(憲宗乙巳年)이고 주갑(周甲)인 광무(光武)을 사시월이 십칠일(光武乙巳二十七日)이요 묘(墓)는 대합면 매탄 장산등 건좌(大合面 埋炭里 大山嶺 乾坐)이다. 곧 마을 이름을 전언 함은 매탄(埋炭)인고로 매와(梅窩)라고 호를 함이 마땅하다.

의성 김 황찬

龜山石公墓碣銘 并叙

石氏世居夏山古稱多文學修行之士龜山處士其一也處士諱琪均字定玉系出忠州肇祖鄰當宋紹興時來仕高麗毅明朝封藥城君仍籍焉嗣後高官大爵連世不絕有若洪城君天乙花園汝明兵馬節度使斯珍最顯曾祖曰柱坤祖曰大璫考曰炳熙外祖慶山全尚祿洪陵庚寅十一月八日生既長與兄敦均受讀于門叔義山炳杓不提督而誦讀不懈義山嘆曰繼我家聲者必有此兄弟也及庚戌屋社伯兄入島不還公獨榦家務從義山就正于茶田郭令公先生門從事實學傍於術數之學亦多涉獵慕先敦族至若木浦之始創琢玉之重修掌令公身後之事無不盡力焉丁亥八月二十八日卒壽五十七葬龍湖大谷山巽原配溫陽方氏周連女生戊戌卒葬其原三男鎬輿鎬哲鎬祥三女金信浩孫寅植方舜赫長孫男國永点永泰永次孫男台永和永出憲永季孫男和永金男相植孫男柄瓚方男外孫也嗚呼士而不遇則山林而已固無赫赫施爲但風聲所暨有來兢兢座不能容隨材成就其功利在人謂如何哉胤子鎬輿將礱石表公墓請余書其石孝慈事也豈忍辭遂按狀叙之如右繼之以詞曰幽人貞吉白首書廬思不出外慎終如初教雨普沾厥功不衰墳前有石可徵百世

辛亥穀雨節

昌寧 成耆惠 撰

구산 석공 묘갈명

석씨가 대대로 창년에 살았으니 옛전에 문학수행의 선비가 많다하니 구산 처사(龜山處士)도 그 중의 한분이시다. 휘는 기균(琪均) 자(字)는 정옥(定玉)이요 관(貫)은 충주(忠州)이다. 시조 휘 린(鄰)이 송나라 소흥년간에 고려에 와 예성군이 되었으므로 인하여 호적을 하였다. 뒤에 고관대작이 연세(連世) 부절하였고 홍성군(洪城君) 휘 천을(天乙) 화원(花園) 휘 여명(汝明) 병마절도사 사진(兵馬節度使) 스희(斯珍)가 장들어남이라. 증조(曾祖)는 주곤(柱坤)이요 조(祖)는 대수(大璩)요 아버님은 병희(炳熙)요 외조(外祖)는 경산 전상록(慶山 全尙祿)이다. 흥녕(興寧)인 십일월팔일생(洪陵 庚寅十一月八日生)하여 이미 장성함에 형(兄)은 돈관과 함께 문내 의산(義山) 병표공에서 배움을 받아 제독치 않아도 송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의산공(義山公)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가정은 이슬 이는 반드시 이 형제에 있다 하더라. 경술(庚戌)말(國) 후에 형은 간도에 들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공(公) 홀로 가사를 관리하여 의산을 따라 관민(官民) 우선생(先) 문하에 나갔느니라. 실학(實學)에 종사하고 역사학에도 또한 섭렵함이 많았음이라. 선대(先代)를 생각하고 종족(宗族)을 돈독히 하여

목포(木浦)의 시창함과 탐옥재의 증수함과 장령공의 신후의 일에 힘을 다하지 않았음이 없더라. 정해 팔월이십팔일(丁亥八月二十八日)에 돌아가시니 향년 오십칠(享年五十七)이라. 옹호대곡산 손원(龍湖 大谷山 巽原)에 장사모시다. 배(配)는 온양방씨(溫陽方氏) 주련의 따님으로 무술(戊戌)에 나고 돌아가심에 동원에 장사 모시었다. 삼남은 호여 호철 호상이요 삼녀는 김신훈 손인식 방순현의 처요 장손(長孫)은 누영 점영 태영이요 차손은 태영 환영인 출계요 현영이요 계손은 환영이며 음남에 상식 손남에 병찬은 외손(外孫)이다. 옹호라. 선비가 만나지 못함은 산수이니 진실로 혁혁한 일이 없고 다만 풍성(風聲) 미치는 바에 배우러 오는 이가 많아서 응남치 못하나 재질을 따라 성취케 하니 공리가 어떨다 이르리오. 윤자호여(胤子鎬輿)가 장차 돌을 갈아 공의 묘에 표(表)를 할새 나에게 묘문(墓文)을 청(請)하거늘 효자(孝慈)의 일에 사양치 않고 이와같이 서차하고 이어 사를 지어 가로되 이 사람 정길(貞吉)함이며. 백수가 되도록 집에서 글만 읽었네. 생각이 잊혀지지 않고 신종여초(慎終如初)함이니라. 가르친 바가 두루함뿐 족으니 그 공(功)이 쇠하지 않하이라. 묘전에 비석있으니 가히 길이길이 그 유적이 남으리라.

창녕 성제덕 찬

尚義契序

司馬子長有言曰人皆有一死而或輕於鴻毛或重於泰山夫等死而其輕重至如是懸者其分祇在乎義之得失而已義是人之所得於天之正理也人而失其正理則是失其所以爲人之道故人之所尚莫義爲大固不可死生而有所遷就然好生而惡死人情之所同然也衆萬芸芸類多常於危難而嬰情於好惡惟圖生之是急而義不暇顧如其知苟生之爲害義能晏然制情而視死如歸則是乃全其正理而終其生也其死之爲重視諸衆萬之同歸於泡滅雲滅者豈不懸遠也歟昌山有義菴石公諱栢當壬辰之亂思奮義勇而無地可伸竟就晉陽而編伍於金公時敏復讎軍力戰九日衆寡不敵而竟至城陷則不忍其芳肝清腦之見污放賊鋒望江水之清流遂興諸義士爭赴以投死如公其謂之能易於人之所難而得全正理者非耶在今歷世久遠遺韻漸歇自昌之人士謀所以永傳其鮮烈爲之修契資會合案旣成署之曰尚義後孫重均以多士之意責余置一言一弁其首余惟吾邦死事者之多莫盛於當時其義烈彪炳俱可以與爭日星惟其所處之地或有不同夫其受命致身得膺尊貴而伏節鉞守封疆者職有所寄其見危授命固其所也至若以卑微編戶之氓責無攸係而乃不出其竄身圖生之謀能出位奮義親冒矢石而不辭損生如公之爲者

豈不尤貴也歟而乃人之稱頌則直在於尊貴至若卑微者名位不彰無由登徹崇報之典亦不及裔雖其素意所在惟知義命之爲安而無一毫顧戀於身後之榮名然其在公議不爲無憾矣今昌之諸君子爲是之慨欲張其蹟而此尊尚之舉余雖不能於言而素好譚義烈事遂不辭而爲之書

孔子二千五百二十五年甲寅殷春日

道州 金弼鎬 序

상의제서

사마자장이 말하기를 사람이 다 한번 죽음있으니 뒤 흉모와 같이 가법게 하고 후 태산보다 증타하니 죽음은 같이 되 정중은 이 같으니 그 분수가 의(義)를 얻고 잃는 데 있을 따름이니라. 의는 사람의 하늘에 얻는 정리(正理)라. 사람이 그 정리를 잃으면 죽고 사람되는 도리(道理)로 있는 그대로 사람의 숭상하는 바는 이보다 더 큼이 없느니라. 사는 것은 좋아하고 죽는 것을 미워함은 인정(人精)의 같은배라. 그러나 위난(危難)에 다다라서는 사는 것을 도모하고 의(義)는 돌아볼 여가 없는데 진실로 사는 것이 이에 해(害)됨을 알아 두는 것이 안전히 정(情)을 억제하여 죽음을 보기를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면 이가 그 정리를 온전케 하여 그 생(生)을 마침이라. 그 죽

음의 증함이 증만(衆萬)의 한가지 포멸운멸(泡滅雲滅) 한자로 봄에 어찌 현소하지
 아니한가。 창산(昌山)에 의암석공(義菴石公)이 있으니 임진란(壬辰亂)을 당하여 의
 용(義勇) 떨치기를 생각하여 가히 펄 땅이 없으니 마침 진양에 나아가 김공시민(金
 公時民) 복수군에 들어 려전 구일(九日)에 종과부전하여 마침내 성(城)이 함락함에
 그 방간청되를 전봉에 더럽힘을 참지 못하여 강물의 청류(清流)함을 바라보노니 여러
 의사(義士)와 더불어 앞다투어 물에 몸을 던지니 공(公)갈라 이는 그 사람의 어렵게
 하는 바에 쉽게 여겨 정리를 온전히 하는 자가 아니겠나。 이제 세상을 지내 오래
 되고 말음에 유운(遺韻)이 점점 쉬니 창녕인사로부터 오래 길이 전할바를 꾀하며
 수계를 하여 회합하고 안을 이름에 상의(尙義) 제라하고 후손 중관이 다사(多士)의
 뜻으로 나에게 그 서문을 청하거늘 내가 생각건대 우리나라 일에 주는 사람이 그때
 마침 성함이 없는데 의열표병(義烈彪炳)함이 가히 일성(日星)으로 더불어 다들 것이
 라。 오직 그 소처의 땅이 후갈지 아니함이 있어 수명치신(壽命致身)함에 존귀(尊
 貴)해서 장절하고 글게 봉양을 지키는 자들인 직본이 부치는 바 있어 그 위태함을
 보고 명(命)을 받든 것이 진실로 그 바이로되 비미편호(卑微編戶)의 백성으로 책임
 이 매인바가 없어 찬신도생하는 꾀에 나가지 않고 능히 의를 떨쳐 시선을 무릅써
 주음을 사양치 않으니 공(公)갈라 이는 어찌 더욱 귀중(貴重)하지 않았겠느냐。 사람
 들이 칭송(稱頌)함이 즉 곧 존귀(尊貴)한데 있고 비미한자에 이르러서는 명의(名義)

가 들어나지 않아 등철하지 못하고 승보의전이 또한 자손에게도 미치지 아니하니 비록 그 보듯있는 바에 오직 의(義)만 알아 의명(義命)의 편한데만 알고 한테끝만치 도신후(身後)의 영명(榮名)을 생각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공의(公議)에 있어서 한(限)이 없지는 않하리라。 이제 창녕(昌寧)의 여러 군자가 이에 개연히 여져 그 자취를 휘장코저하니 이 존상의 들음들을 내가 비록 말할 못하나 본대의 열의 일에는 좋게 말함으로 드디어 사양치 아니하고 그들을 짓노라。

공자二千五百二十五년 갑인(甲寅)년

도주 김필호 서

尚義齋上樑文

貞忠是天之正氣理有愈久而不湮行義乃人之秉彝事必待時而竟成所以數間齋舍寔由多士契修緬惟義庵石公卽是忠州華胄在勝國而名節奕世花園先生之清名源深入李朝而闕閱鳴時兵馬節度之風猷流遠忠義卽其世德詩書乃是家傳自京爲實炳見機之智移昌西胥永圖貽後之謨山川毓精豈無間氣之鍾熊羆叶夢爰有巨人之生幼而異凡兒岐嶷而有膂力長而儘志士慷慨而多氣風屬當龍蛇島夷猖獗奄陷塗炭環域蒼黃

臨亂效忠自是國民之義務奮義起旅何待朝廷之指揮艱難赴高孝烈復讎軍急遽叅晉陽城激烈戰冒刃灑血誓不同讎賊戴天義膽忠腔豈可念肝腦塗地賊憾悉衆方若戰於圍攻時命不夭乃大雨而城壞知事不濟投江以淪雖壯志不幸而未成其卓節無與而爲將亂旣靖矣子孫矢復而葬衣冠於故山節雖魁然名位卑下而漏旌褒於盛典在我公不求聞之志初非加損於有無以後人好懿德之衷豈不慨惜於埋沒鄉論愈久而益鬱乃有章甫儒契之修齋誠因此而得伸又建齊宿講義之所歲一會設位堂廳以行牲采之禮儀時多士將事迤逶用表羹墻之誠意九原難作倘英靈之有知百年遂願祇雲仍之感泣凡有彝天孰不興起而奮發百爾君子必有仰體而益修助舉脩樑聊唱短頌拋樑東崔嵬火旺插天中由來人桀鍾坤厚此理於公可認通拋樑西望中洛水正淒淒嗚乎體魄無尋處幾向潮頭放恨啼拋樑南牛苗遙連鬱似藍烈烈綱常終不墜撐天氣勢自相叅旭樑北釵氣常懸瑩域側平生其志意未成應有千秋長太息拋樑上日星經籍光同樣年年講演發文明從此溪山倍精爽拋樑下鑿井耕田歌滿野忠肝義膽賊稟良工夫何用論多寡伏願上樑之後風雨攸除烏鼠遠竄山水饒目庶篤生於英豪忠孝傳家期不虧於風韻

己未春分節

碧珍 李興中 撰

상의재 상량문

정충(貞忠)은 이 하늘의 정기(正氣)요 이치가 더욱 오래될수록 빠짐이 없고 의를
 행함은 사람됨을 바로잡음이라. 일은 때를 기다려 마침내 이루니라. 소이 수간재사
 는 다사(多士)의 수제로 말미암음이라. 의암석공(義庵石公)은 충주화주(忠州華胄)
 라 고려에 있어 명절이 현세하고 화원(花園)선생의 청명(淸名)은 이조시(李朝時)에
 별일명시하고 병마절도(兵馬節度)의 풍유가 유원(流遠)이라. 충의(忠義)는 곧 그
 세덕(世德)이요 시서(詩書)는 가전(家傳)이더라. 경으로부터 실상을 함에 기회를
 보는 지혜가 크고 창령 서쪽으로 옮겨서 기리뒤에 지치는 법을 도모했다라. 산천
 (山川)이 옥정(毓精)함에 어찌 간기(間氣)의 종(鍾)이 없으며 용피의 꿈에 흡족함에
 거인(巨人)의 남이 있는니라. 어려서 범아(凡兒)와 다름에 높여 여력이 있고 장성
 (長成)하여 진실로 지사(志士)가 강개하기 기풍(氣風)이 많더라. 용사(龍蛇)를 당하
 여 도이가 창궐함에 음함도타에 환연 창황(蒼黃)하고 임난효충(效忠)함은 국민(國
 民)의 의무(義務)요 의를 날쳐 군대(軍隊)를 이르킴은 어찌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겠
 는가. 간나하여 고효열(高孝烈)의 복수군에 달았고 급거하여 진양성(晉陽城) 격열
 전에 참여하였느니라. 칼날을 무릅쓰고 피를 뿌림에 수적과 함께 하늘의 의지않기
 를 맹서하고 의담과 충강은 어찌 가히 간되도지함을 생각하겠나. 적이 힘일 다해

고전(苦戰)으로 위공(圍攻)하니 때와 명이 하늘이 아님에 이에 큰 비가 내려 성이 무너졌나니라. 일이 되지 않음을 줄 알고 강에 던져서 빠졌다. 비록 장한 뜻은 불행이 이루어 못해도 그 탁절(卓節)만은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난이 이미 정하였음에 자손(子孫) 추문을 불러 의관을 고산에 장사하고 절제가 비록 높으나 명위(名位) 비록 낮아 정포의 성전(盛典)에 빠지니 우리 공에 있어서 듣어난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있고 없음을 가소함이 없으니 뒷사람의 의덕(懿德)을 좋아하느니 마음이나 어찌 매몰(埋沒)한데 개선하지 아니하겠느냐. 향론(鄉論)이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담담하여 이에 장보들이 유계(儒契) 다음이 있고 자손의 정성이 이로인하여 땀을 언음에 또한 재수하고 강의(講義)의 바를 세워 해마다 한번씩 당청(當廳)에 예를 베풀어서 성채(牲采)의 예의(禮儀)를 행함이라. 많은 선비가 일들을 가짐에 경장의 성의(誠意)를 표(表)하고 구원(九原)을 지켜 이름에 영령(英靈)의 알음이 있어 백년(百年)의 원(願)을 이름에 자손의 감응(感泣)함이다. 무릇 의천이 있었음에 누가 흥기(興起)해서 분발(奮發)하지 아니하며 백분의 군자(君子) 반드시 앙체(仰體)함이 있어 더욱 다음이라. 수량을 도와 들의 단송을 부름이라. 포량동하니 높은 화왕산(火旺山)이 하늘 가운데 꼭꼭했다. 인걸(人傑)들이 땅두터움으로 나니 이 이치가 히공(公)에 알음으로서 통하다. 포량서하니 망중낙수(望中落水)가 처처(淒淒)하다. 채백이 찾을 곳이 없으니 몇 번이나 강머리를 향(向)하여 한 대로 우느냐

포량남하니 우수가 멀리 연하여 성하게 푸름이 짝갈더라。 열한강상이 마침내 떨어
 지지 아니하니 하늘의 기세(氣勢)가 스스로 참례하리라。 포량북하니 검한 기
 운이 항상 분묘절에 달렸을 것이라。 평생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 응당히 천주에
 길의 태신함이 있었음이더라。 포량상하니 일성의 정자함에 빛이 한모양이더라。 해
 마다 강연함이 문명일 발하니 이로 쫓아 계산(溪山)이 정상으로 뵈웠더라。 포량하하
 니 착정영천함에 노래가 들에 찬지라。 충간의담이 부름이 어지니 공부가 어찌 많
 고 전은이 깃들 의복할가。 입도드려 원한건대 사랑한 뒤에 풍우가 제하는 바요 오서
 가 멀리 간지라。 산수가 눈에 돌매 거의 영하의 남을 돈독히하고 충효가 집을 전함에
 풍운에 들입이더라。

기미 춘분절

벽진 이흥중 찬

忠州石公墓表

石君炳道踵余門而請表其先大人公阡道念余之於公雖以居間而未得聞知於平昔然
 石氏在昌山燦然耀門欄於近日而咸稱性堂大誠倡起之功攝衆力而統一心以張門模

非獨力所可能必知其左右輔翼之有人矣若公之於性堂素篤情誼而服其指教每觀其有發謀出慮無不極力周章期有成性堂亦喜其有托而凡自先塋儀物祭田以至祠宇齋榭暨饗賓隸業之其無不待公以就緒此其所以輔翼於倡起之功者豈不大歟按公諱大準字彩玉別字自醒其望忠州而高麗上將軍鄰爲受封始祖後有曰良善洪陽府院君曰天乙號香山洪城君曰汝明以門下注書麗亡不應韓朝召命贈左贊成曰斯珍兵使其居昌山者曰麟於公間十二世曾祖曰達翊祖曰汝澄考曰龜甲妣密陽朴氏公素有志尚而因父早歿遂撤學治產業積二三十年之勤而伏臘無掇一切聽而無纖芥之或干日與性堂遊處具或聞古人格言至行必記諸心而不忘賢士之來常疑曲致懇冀其資益惟負氣剛直雖素有親分者見其不義羞與之同座蓋其樂善嫉惡之於天衷也其生以高宗己卯九月七日而卒於享年七十六戊子八月十二日葬于所居牛萬里孝慈山方谷丙原配順天朴氏溪東女丁亥八月十七日生庚寅四月四日卒墓祔公兆下原三男曰炳律炳官炳道二女婿曰光州盧寅容安東金益圭炳律男太垣女坡平尹基和安東金正泰妻炳官男太基太圭俊埴炳道男太在太地盧男在根在榮金男泰政泰文鳴乎公之施謨於修家保門者績旣有裕是其無所本而致之哉昌山有叅奉盧公正容以威擅一時未常輕許人交而乃於公以實心相推及公之歿因葬地之有礙於人家先塋橫議紛紛而賴叅奉之一言

而鎮定而襄事於此亦可以觀其所友而知其爲人也己

道州 金弼鎬 撰

충주 석공 묘표

석구병도(石君炳道)가 나에게 선대인(先大人) 공묘문을 청하거늘 내가 공의 비록 평소에 얻어듣지는 못하였으나 석씨(石氏)가 창녕에 있어 문란이 찬연함은 다 성당(大誠)의 창기(倡起)한 공이라 일컬음은 동일하여 문묘(門模)를 넓히면 훈자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으니 반드시 좌우에서 도읍의 공이 있었을 것이다. 공이 성당(性堂)에 본래 정의를 두렵고 그 지교(指教)를 복종함에 구력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이 없� 기어코 이름을 기약하니 성당이 또한 부락이 있었음을 즐겨하며 선영물(先塋物祭田)으로부터 사후제사 및 손님을 접대하고 자손을 가르침에까지 공을 기다려 취서(就緒)하지 아니함이 없�니 이가 창기 한공에 보인 한바가 어찌 크지 아니한가. 안찰하니 공의 휘는 대준(大準)이요 자(字)는 채옥(彩玉)이고 별자는 자성(自省)이요 관은 충주(忠州)라. 고려 상장군 휘 린(鄰) 시조(始祖)요 휘 양선(良善)은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이요 휘 천을(天乙)은 호향산(號香山)이며 홍성군(洪城君)이요 휘 여명(汝明)은 문하주서(門下注書)로 여망에 한조(韓朝)의 소명(召命)에

응치(麟)이니 공(公)의 십이세조(十二世祖)이다. 증조(曾祖)는 휘 달익(達翊)이요 조(祖)는 휘 여증(汝澄)이요 고(考)는 구갑(龜甲)이요 비(妣)는 밀성박씨(密陽朴氏)라. 공이 본래 지상(志尙)이 있어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학(學)을 피하고 산업(產業)을 다스리니 복납(伏臘)에 근심됨이 없고 일체 아들에게 맡기고 띠끝만 한것도 간여치 않고 날로 성당(性堂)을 더블어 유처(遊處)할새 그 후 고인(古人)의 격언지행(格言至行)을 들으면 반드시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아니하고 어진 선비가 오면 간곡히 대접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아무리 친분한 자라도 그 불의한 것을 보면 자리를 같이 하기를 부끄러워하니 낙선질악(樂善嫉惡)의 마음이 천신(天)이다. 고종기묘구월칠일(高宗己卯九月七日)에 나시고 무자(戊子) 八월十二일에 졸(卒)하니 향년(享年) 칠십육(七十六)이시라. 묘(墓)는 우만리 효자산 방곡병원(牛萬里 孝慈山 方谷丙原)이요 배(配)는 순천박씨(順天朴氏)이니 계동(溪東)의 따님이라. 정해(丁亥) 八월十七일에 나시고 경인(庚寅) 四월四일에 졸(卒)하니 묘(墓)는 공묘(公墓)아래 부(祔)하였느니라. 삼남(三男)은 병을 병관 병도요 이녀(二女)는 광주노인옹안동 김인규의 처라. 병을 남은 태원이요 여는 파평(坡平) 윤기환안동 김정태의 처요 병관의 남은 태기 태유 준식이요 병도 남은 태재 태지요 노의 남은 재근 재영이요 김의 남은 태정 태문이라. 공의 수가보문(修家保門)의 구모가 그

근본한 바가 없고 이루겠는가。 창산(昌山)에 참봉(參奉) 노공정응이 있으니 위엄이
 로서 일시에 나타났다。 이에 공의 실심(實心)으로서 추종하더니 공이 죽으며 장지
 가 인가 선영(人家 先塋)에 거리낌이 있어 횡의가 분분하더니 참봉의 한말로 힘입
 어 지성이 되어 양일을 지냈으니 가히 그 벗한 바를 보아 그 사람됨을 알리라。

도주 김필호 찬

篤友堂處士忠州石公墓碣銘 并序

人之行莫大於孝友而其道必相因故未有孝而不友友而不孝者也若因其特著而各稱
 其一者亦可以推之也昌山故有石公諱奎坤字元五事二兄極其友宗族因號之以篤
 友堂則其孝友之行可推而知也盖公自幼事親從兄俱有至性及析箸而值歲大饑憂二
 兄之無以聊生有婦家之稍饒者則往而訴之不及己窘而憂切兄飢淚隨言落婦翁感而
 貸之以三石穀則卽夜馱牛背負而歸以供二兄自給以少許賴以得全此其所以見稱於
 宗族也勤儉之積而稍致家業之裕則累世先塋石儀祭田無不具族戚之貧者無不隨力
 有恤先齋之築宗族有携貳之議則極力保合而捐巨貲以助成之後進之有志學業而乏

於力者必捐貲獎進之多所成就由是譽洽於鄉而歿後士友之挽誄哀悼者甚衆石氏爲高麗藥城君鄰後而藥城今忠州故因以爲貫後有洪城君天乙號香山左贊成汝明號花園麗亡守義不仕兩世并享景義祠至兵馬節度使斯珍始居宜春至處士麟又移昌山世多儒行曾祖雲起祖周瓘考汝薰號忍窩妣水原白氏右文女公娶南平文氏致實女生三男一女大實大亨大利男也金教宗女婿也孫男炳起炳島熙井長旁生炳歡炳權炳五炳陶二房生炳澤炳現炳睦炳吉三房生以下不載公生以高宗甲子卒以八十六之己丑三月十一日葬郡西大楸山峯上癸坐文孺人祔兆下亥坐後三十年諸孫將碣于阡炳起炳歡炳澤以狀請余銘余嘉意興之銘曰篤友有稱餘行可知孝爲其本睦恤其推培根者厚宜達其枝振振子姓曷不昌而

花山 權龍鉉 撰

독우당 처사 충주석공 묘갈명

사람의 행실이 효우(孝友)보다 큼이 없으니 그 도가 서로 도와 인한고로 효(孝)를 하고 우애하지 안하며 우애를 하고 효도하지 아니한 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 특 별히 나타남으로 인하여 각각 그 하나로 일컬음이니 가히 이로써 미를 것이라。 창

산(昌山)에 옛적에 석공(石公) 휘 규곤(奎坤)자 원호(元五)가 있으니 두 형을 섬겨
 그 우애를 지극하게 함에 종족(宗族)이 인하여 동우당으로서 호(號)로 함인즉 그 호
 의 행실은 가히 미뤄알지어다。 대개 공의 어릴적부터 어버이를 섬기고 행을 따르
 기를 지극한 성품이 있어 살림을 나누워 삶에 큰 향년을 만나 두 형의 생도가 없었
 을 근심하여 처가(妻家)가 조그마 요부한데 있어 가서 하소연함에 몸의 근색함을 말
 하지 않고 형의 주림을 민망케 여겨 누더물이 말라 따라 떨어지니 장인이 느끼어 삼석
 (三石)의 곡식을 꾸어주니 곳밤에 소에 싣고 등에게 돌아와 두 형에 나눠주고 자
 기는 조그마를 차지하여 힘입어서 온전함을 얻으니 그가 그 종족(宗族)의 일척임을
 봄이나라。 그 검(勤儉)을 하니 점점 가업(家業)의 넉넉함을 이루 즉 여러대 선영(先
 塋)에 석의(石儀)와 제전(祭田)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고 족척(族戚)의 가난한 자에
 힘을 따라 주혈하지 아니함이 없고 선재(先齋)를 지을 때에 종족중에 이의를 함이
 이었는데 그력으로 보합(保舍)을 시키며 큰 재물을 들여서 도와 이루고 후진의 학업
 (學業)에 뜻이 있었되 힘이 모자라는 자에 반드시 재물을 들여 나아가기를 장려하
 여 성취시킨 바 많으니 이로 말미암아 여흥(譽洽)이 향당에 만족함에 몰후(歿後)에
 사우(士友)의 만사로서 애도(哀悼)하는데 심히 많더라。 석씨가 고려에 성군 휘 린
 (鄰)의 후라。 예성군이 지금의 충주(忠州)인고로 인하여 관을 하였느니라。 뒤에 홍
 성군(洪城君) 휘 천을(天乙)이 있으니 호 향산(香山)이요 좌찬성(左贊成) 휘 여명(汝

明)은 호화원(號花園)이니 고려가 망함에 의(義)를 지켜 버슬하지 아니하고 양세(兩世)가 한가지로 경의사(景義祠)에 제향을 하니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휘사진(斯珍)에 이르러 처음으로 의춘(宜春)에 살고 처사(處士) 휘린(麟)이 또 창산(昌山)에 읊기어 대대로 유행(儒行)이 많더라. 증조 윤기(曾祖 雲起)요 조주관(祖周瓘)이 요고(考)는 여훈(汝薰)이니 호인화(號忍窩)요 비(妣)는 수원백씨(水原白氏)니 재문의 따님이요 공(公)의 배(配)는 남평문씨(南平文氏)이니 처실의 따님이라. 삼남 일너를 낳으시니 대보 대형 대리는 남이요 김경종은 여서요 손남 병기 병도 희장은 장방생(長芳生)이요 병환 병천 병은 병응은 이방생(二房生)이요 병택 병현 병무 병길은 삼방생(三房生)이라. 이하는 실지 알는다. 공(公)이 고종갑자(高宗甲子)에 생하고 八十六세 기축삼월십일(己丑三月十一日)에 돌아가시니 군서대추산봉상계좌(郡西大楸山峯上癸坐)에 장사하고 문유인은 조하해좌(兆下亥坐)에 부(祔)하였다. 후삼십년(後三十年)에 제손(諸孫)이 장차 묘(墓)에 비(碑)를 세울새 병기 병환 병택 이가 장이로서 나에게 명을 청하기를 내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명을 하여가로되 독유유칭하니 남이 행실과 가히 알지라. 호도가 근본이 되니 무를이 그 미름이라. 뿌리를 복돋우면 두터우면 마땅히 그 가지가 무성하리라. 많은 자손이 어찌 창성하지 않을것인가.

三山堂記

新安之有忠州氏自三山堂諱琮始蓋公之時昏朝也公之官銓郎也宜春之距伽山又未遠也公之棄官廢地于茲鄉安知不有微意於其間耶然杞宋無徵今不可臆追也往在辛丑年間雲仍諸氏相與謀曰吾祖始基之地不可無寓慕之所卽村之西稍偏而更幽靜處築一齋而榜之曰介山蓋因山之形介也晦堂公記之旣久有風雨傾圮之患乃移建于其東數弓地背山而陽中堂而兩室比舊益宏敞因以公號改扁三山堂燦柱燦友文基諸友請余有議於堂之楣也辭不獲則曰石氏自中國而來在麗世赫冠冕至洪陽君而與夫人崔氏保護我 聖祖以啓五百年洪基花園公之不就徵命節度公之禦戎南藩又以忠勲著實世家名族也暨于公遭時不淑潛形林野因以累世不耀不能無淮橘之恨然今於數百年之久藏修有地而慕用不替者寔公遺烈之攸暨而子孫之善於繼述又可知也噫見今東維蕩瀆三綱墮絕人家後承之不能保守先徽者十七八矣惟諸公益加兢惕篤倫理敦詩書有以體先公之志事而復前世之輝光則堂之名益彰於世而其傳且永久矣詩曰夙興夜寐母忝爾所生於乎其勉矣哉

冶城 宋浚弼記

삼산당기문

성주에 충주 석씨가 있음은 삼산당 휘(諱) 종(琮)으로부터 처음함이라. 대개 공(公은) 광해주(光海主)때에 전랑(銓郎)의 직책(職責)이었다. 의춘과 가야산이 상거(上居)가 또한 멀지 아니한지라. 공은 벼슬을 버리고 이 땅에 음은 어찌 은은한 의사가 그 사이에 있지 안함을 아라. 그러나 기송(杞宋)의 증거(證據) 없음은 이제 가이 억측(臆測)은 못할 것이라. 지나간 신추년 사이에 후손 여러분이 의론하여 가로되 우리 할아버지 시거지(始居地)에 우모(寓慕)할 바가 없음이 불가하다해서 마을 서편 한정(閒靜)한 곳에 한 채 재사(齋舍)를 짓고 개산(介山)이라 한 것은 대개 개산(介山)의 형체가 개(介)자와 비슷함이라. 회당공(晦堂公)이 기문(記文)을 지었는데 오래되어 풍우경비(風雨傾圮)될까 염려되어 이에 동편으로 좀 떨어진 곳에 옮겨 세우니 중간이 대청이요 양편이 방이니 옛적에 비하면 宏壯함이라. 인하여 공의 호(號)로서 편액을 고쳐 삼산당이라 하고 찬주(燦柱) 찬우(燦友) 문지기(文基) 모든 벗이나에게 미문(楣文)을 칭하거늘 사양치 못하여 가라되 석씨(石氏)가 증극(宗極)으로부터 와 고려때에 있어 벼슬이 환赫(烜赫)하였다. 홍양군(洪陽君)에 이르러 부인 최씨로 더불어 성조(聖祖)로 보호함은 이조(李朝) 오백여년 기틀을 닦음이요 화원공(花園公)의 징명에 나가지 안함과 절도공(節度公)의 남번(南藩)에 어계(御戒)하고 또한

충훈(忠勳)으로서 나라남은 실로 세가명족(世家名族)인데 공에 이르러 난세(亂世)를 만나 산중(山中)에 잠적(潛迹)하니 세상(世上)에서 아는 자(者) 없더라. 능히 회골(淮橘)의 한란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 수백년간 수호(守護)하여오는 참으로 공의 은덕(隱德) 소치(所致)요 자손들이 잘 계승(繼述)함을 또한 가이 알더라. 이제 삼강이 떨어진 세상에 인가의 후생들이 능히 조선(祖先)의 유업(遺業)을 보수하지 못함이 열에 팔수할(八九割) 되는데 오직 제자손(諸子孫)이 더욱 긍천(兢惕)을 더하고 윤리시서(倫理詩書)를 돈독(敦篤)히 하여 선조(先祖)의 유업(遺業)을 이어받고 전세(前世)의 휘광(輝光)을 회복하면 삼산당의 이름이 더욱 세상에 들어나고 그 전함이 길어 오래가리라. 시전에 이르기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서 너나온 바를 더럽히지 말라하니 오후라. 그 힘쓸지어다.

야성 송준별은기

三山堂記

昔光海政亂兵曹佐郎三山石公棄官歸隱于州之道高山下鍾浦里第阨窮而不憫沒齒而無悔人士之過從於其下者至于今矻矻然說不止公之後孫鳳基南基來曰堂以寓慕

興廢無常二百四十年之間凡三易號而四遷其址今則事功竣而扁目定願執事記其楣而明詔來世余復之曰三山翁貞正秉執之義景之固矣易曰見幾而作不俟終日當時事變之作無所不有也昏朝自癸丑來奸凶竊柄蠱惑聰明順其意者或悖於名教不順其意者仍困於長沙此誠履霜戒冰之秋也公安得不去乎公去後無幾而淮南斗尺之謠發又無幾而金墉幽廢之議作於是天地閉而倫綱墮矣前於是而能勇脫洪滔之中歇泊清晏之界者幾人哉况不義而不仕公家世傳之守也公之上祖提學公以麗季出身我太宗時累不就高祖兵使公值喬桐穢德深藏於宜春公其氣脈世類也其心以爲我若不退於昏黜之世則不惟自家之冒進無義柰吾祖先名節何視爵祿猶浼己浩然賊歸甘作含貞之計婆婆初服依舊寒暄苦士嗚呼士之篤學長慮將以行之也其包荒憑河之思財成輔相之道庶幾千載而朝暮矣及夫世與我違不得展布其所蘊則幾微善保固心而苦節遠小人而不惡順天時而俟命身雖困而道未嘗不亨也于三山翁吾無間然矣然公之世猶可爲也不遠復之天日斯可復明矣今時則何時也遯無可遯之地而天無可明之天不辰之大小雖殊曠世先獲之感烏可已也凡居且遊於是堂者思所以溯公之風而益復推廣其志意擬公爲處患亂之先進可乎他人尚然况石之氏僉君子乎

삼산당 기문

옛적 광해군 정사(政事)가 요란함에 병조좌랑 三山石公이 벼슬들 버리고 성주(星州)도 고산 하삼곡(洞)에 와서 은퇴하여 관응하여도 민망이 여기지 않고 돌아가지 도록 뒤우침이 없으니 인사(人士)의 도고산 기술로 지내는 자 지금껏 말하기를 거침이 없음을 공(公)의 후손 봉기(鳳基) 남기(南基)가 와서 말하기를 님이 써 사모함을 부치는데 응피함이 무상하여 二百四十年의 사이에 무릇 세 번이나 님호를 바꾸고 네 번이나 그 기지를 옮기더니 이제 인적 존공을 하고 편복을 정하였으니 원하건대 執事는 기문을 지어 결어 밝아오느니 세상에까지 전하여 주시오. 내가 답하여 가라 되니 三山翁의 정정한 병집의 의는 정응함이 마땅함이라. 주역에 말하기를 기를 보고 일의 남이 종일 기다리지 않는다 하니 당시에 사변의 일의 남이 있지 안한 바가 음이니라. 훈조가 제추년으로부터 간악한 흉인의 전병하여 총명을 이혹하니 그 뜻을 순키하는 자는 후 명교(名敎)에 거스르고 그 뜻을 불순한 자는 귀양사리에 빠지 니 이가 진실로 상명을 응제할 때라. 공(公)이 어찌 스려금가 안하겠나. 공(公)이 간뒤에 얼마 되지 않아 회남 두천의 동요가 발(發)하니 또한 일마 되지 않아 김응규 폐의 의논이 일어나니 이에 천지가 닫히고 운강이 떨어짐이라. 이의 괴감히 흉도의 중을 벗어나 천안한 지경에 도달한 분이 몇 사람이겠나. 하물며 의가 아니면

벼슬을 안함은 공가(公家)에 세전(世傳)의 지킴이라. 공(公)의 상조지학공이여(麗)계의 출신으로 태종(太宗)때에 여러번 불은되 나아가지 않고 병사공(兵使公)이 또한 의령에 숨었으니 공이 그 기맥의 필류(匹類)라. 그 마음에서 하되 내가 만약 혼혁한 세상에 물어가지 안하면 오직 나 자신만 무의한대 모진함이 안하리라. 내 조선 명절에 어찌하겠나. 호연이 부귀하여 딸기함정의 제책을 지어 파사한 초복(初服)이 옛 한산고사가 안꼈나. 슬프다. 사의 독학장여가 장차 써 행함이라. 그 포황빙하(包荒憑河)의 사상과 보상의 도에 그 이천체가 아침이고 천역이라. 밋세상이 나로 드으려 어긋나니 그 사인바를 피지 못하고 잘고심 고절을 보존하여 소인(小人)을 멀리하여 천시를 순이하여 명을 기다리면 몸은 비록 곤중하나 도는 일찍 형통함이 아님이 아니라 공(公)의 세상은 멀지 안하여 회복이 되어 천일(天日)이 다시 밝은되 이제 때인즉 하늘이 밝을 기한이 없어 인적 광세(曠世)에 본져어든(그림을 어찌가이말이오. 이 삼산당에 올라 공(公)을 경앙(景仰)함애 공(公)은 환란의 세상에 선진자라고 이르리라.

서원 정응중호는 기복함

三山齋上梁文

李基馨 號惺窩星人

孰謂縹緲三山於物外可槩當世之清標迺卜埃壘一區于箇中寔出茲孫之追慕自是熙
 皞樂地何須廣漠別天恭惟三山石公瑚璉美才簪纓華閥府院君之重望矜式乎人提學
 公之遺仁可祭於社倡義旅而餉給得叅蒐勲振斯文敦勤尋遂初服生於是長於是超脫
 繁華夢斷聲利之海襲在茲承在茲不虧坏璞心主誠敬之關涵養成己之工質粹德盛勇
 進希賢之志理明學精世皆推白水于程門人自高青山之傳奕明月竹逕歡多四方之朋
 永夜松燈閱盡千古之史衛武公綠竹之戒至所老無怠汪信民咬菜之方做何事不得坎
 壘而何又戚戚吠畝而猶自囂囂一撤帡幪堪嗟多士之失仰百年桑梓可見遺澤之尚存
 象所傳往者隱倫鄭子有谷自不禁油然而孝子甄氏起亭述先而罔專美古人謀僉而竟至
 敦巨役苟完苟合土木之手告功如舞如翔山水之勢迴巧架三而燠二涼一偃仰起居向
 南而阼東階西揖讓升降造化翁兮若有俟今日紹述者焉亦可期來雲是我泉石居然豈
 惟風雨足蔽肆陳短引助舉脩梁拋梁東洛江滾滾連蒼空須臾不息傳心法想得虛明一
 鏡中拋梁西斷橋斜日草萋萋四兵遲捷陶山戒傳在于今路不迷拋梁南岸芝郁郁列蒼
 栴體忍當年風咏意更賒春酒與君酣拋梁北道高山深惟古色極處工夫知在斯躋攀莫

惜一努力拋梁上百世遺芬人盡仰名實播流宜萬年請看老栢風聲壯拋梁下雲樹迷茫
接大野淳風美俗盡吾公混沌猶餘鵠食者伏願上梁之後草木復采基砌益鞏斯歌斯咏
而濟濟彬彬後生之羹墻所寓爰居爰處而繩繩繼繼無窮者天地同歸

삼산재 상량문

이기형(號성와(惺窩), 성산인)

뒤가 삼산이 세상밖에 떠 있는 당세의 청표(淸標)라고 일컫는다고 이에 깨닫는 한
갈피를 그중에 복지(卜地)하니 진실로 효도한 후손의 추모에 나음이니라. 이로부
터 옛적 요순(堯舜)때 낙지(卜)어찌 광막한 새 세상을 기다리요. 오직 생각하건
대 삼산(三山) 석공(石公)은 그 아름다운 재주가 종묘의 그릇이요 잠영화벌(簪纓華
闕)이라. 부원군의 중망(重望)은 사람의 증식(矜式)이요 제학공(提學公)의 유인(遺
仁)은 가히 사단(社壇)에 제사함이라. 의병을 수창(首倡)하여 향급(餉給)함은 위훈
에 득참하고 사문(斯文)을 떨쳤든 근(勤)함은 차차 처음의 복을 이름이니 이에 나고
자라 변화를 초탈함에 꿈이 성리(聲利)의 바다에 끊어지고 덜침이 여기에 있고 있
음이 이에 있어 박유를 떨어치지 안함에 마음의 성경(誠敬)의 갈래에 주장함이라.
성기(成己)의 공부(公步)를 함양함에 바탕이 순수하고 덕이 성대하며 용맹의 성현을 바라
는 뜻에 있으며 이치가 밝고 백성이 정교롭고 세상이 다 백수 정문(正門)으로 미루니 스

스스로 사람들과는 그 높음을 청산에 전함이라. 밝은 달빛이 대숲길에 줄거리 사방을
 비쳐있고 긴밤 송등(松燈)에 옛사기를 탐독(耽讀)하였다 함이라. 위무공의 푸른대
 와 같은 경계(警戒)는 높음에 이르러도 게으름이 없고 고을의 착한 아들의 교채(咬
 菜)의 방책은 무슨 일이던 얻지 못하겠는가. 뜻을 일평음에 어찌 또한 슬프지 아니
 하며 견묘(畎畝)에서 오히려 스스로 호호함이니라. 한번 병봉(幘幘) 장막을 거둠에
 많은 선비의 실양함이 싹있고 백년의 상재(桑梓)는 가히 유택(遺澤)이 있음을 보리
 라. 대중의 전한바 왕자 은륜(隱倫)은 정자(鄭子)의 유곡이요 스스로 유연함을 금
 치 못한 효자는 견씨(甄氏)의 기정(起亭)이라. 선대로 기술함에 온전이 아름답다
 옛사람이 없고 여러분과 상의(相議)하여 마침내 그 역을 돈독히 함에 이름이니라.
 진실로 완전하고 진실로 합하며 토목의 공인(工人)이 그 공(功)을 그치고 춤을 추며
 나르듯 함에 산수의 형세가 공교롭기 회전함이라. 삼간에 방 들 청한 개로 편히
 지내니 남쪽을 향하여 동편 뜰과 서편 뜰에 읍하고 사양하며 이르내리니 학(鶴)님의
 여 마치 오늘을 기대함이 있고 소술(紹述)한 자는 가히 후손을 기대하리다. 이제
 나의 천석(泉石)이 거연(居然)하이니 어찌 풍우만 족히 가리우리오. 방자함을 없애
 하여 들보들 들어 도읍에 동쪽 들보들 올리려니 다 동강의 근근함의 차공의 다다름
 이라. 잠시도 쉬지 않고 심법을 전하니 생각하여 허명(虛明)함을 거울 속 같이 얻
 으리라. 서쪽 들보들 올리려니 해는 서산의 기슭에도 들이 무성함이라. 냇은 사

가 해메이다 함은 도산의 경계라 전하여 우름에 있음에 길은 아득하지 않으니라。
 남쪽들보름을 올리려니 언덕의 지초는 문채가 나고 푸르름이나 무는 두거졌더라。 당
 년에 풍월을 읊는 또스름 봄에 익혀 다시 봄에 슬름 청하여 그대와 함께 취하리라。
 북쪽 들보름을 올리려니 도고산심(道高山深) 오직 옛 빛이더라。 지금한 공부 이에
 있음은 아니 더욱 잠음에 한 노력 아끼지 말라。 대들보름 위로 올리려니 운수가
 아득하여 대야에 대입이라 순후한 풍속이 우리 공에 다하였으니 혼돈한데 오히려
 따오기 먹기가 남았더라。 앞드려 원하던대 상량 뒤에 초목이 다시 빛나고 기지가
 더욱 공고하여 이에 노래하고 이에 읊어서 많은 자손이 후세에 있고 이어 무궁함이
 천지와 같이 돌아감이라。

兵曹佐郎忠州石公之墓道碑

孔子曰不患人之不知患不知人又曰揜者辟世此皆指篤行實踐者言也夫守死善道
 不悔晦身終焉人之知而不揜如大師摯亞飯牛之徒適齊楚而隱至今傳誦亦不可不謂
 天道必返之理或反是有可名之實而不顯者非運之幸歟中古有佐郎石公隱身行義沒
 于寂寞之濱四百年之過形影漸之泯滅是爲讀史者之誠所慨然惟其孱孫延綿繼承載

于譜牒者畧千錄而能守護其墳墓歲祭無闕是其前所謂不泯之驗然寒山無片石之可語憂憂乎其績之傳又過今而泄泄則或恐愈久愈晦是其汲汲圖存以爲永傳之計也公諱琮字聖佑號三山堂建齋于遺墟址有諸賢記頌是可據也鼻祖諱鄰高麗毅宗時來自中原以討賊功擢上將軍封藥城君卽忠州舊號后孫仍貫焉六傳至李朝諱良善太祖康獻皇帝姨母夫也國戚宜大闡孫諱汝明號花園太宗特除集賢殿提學不就以恭愍王朝登科官法書故守不事二君之志三傳諱斯珍端宗朝兵馬水軍節度使世祖受禪棄官退居宜寧傳七世而至公宣廟朝兵曹佐郎值光海政亂避于星州旣曾落鄉又移家于此者以忘名而深藏也蓋其忠義之節胚胎已又世襲不渝豈不韙哉但年歲寢遠子孫不振文獻散佚至若仕籍宜有可觀而生卒年月亦不傳更有何可考耶噫公苦其志捨又祖之鄉而遠離落拓沒身无悔一善可以千古矣其他事蹟之傳不傳不必加損於公也墓在釵洞外田峴子坐原配星山李氏墓在同原同坐子彥儀孫應祿應生今至十餘世雲仍散在最集團而居者釵谷錡谷而分伯仲派其顯者九世孫鎮宇生員其曾孫小坡公以篤行稱鄉里周演輦窩有學行能詩書麟榮竹圃文學有名鳳基南基從我先君遊安基從張承盛果齋翁學鎬永受學于濟西門下基日職行郡守且以文雅稱抑後昌爲之兆歟其胄孫鍊基謀于象曰祖先有美而不傳不仁孰甚且隧儀尚闕此父祖之痛恨今雖斷爛之蹟有可據

之地得信筆而付諸石面使之不朽不亦可乎僉議詢同因幹其事而來謁銘者鎬聖鎬道君也余以同鄉居近慣耳久矣其於固請可以不文髦荒辭諸特辟世二字可銘也銘曰孔聖曰賢辟世爲先確乎其志終身不二辟者云何辟惡就善噫彼果忘其行則淺豈其故爲遭世不振无嗚呼石公寧欲无悶瞻彼外田萬年之宅乃表貞珉過者必式

重光大淵獻重陽節

星山 李基元 謹撰

延安 李英達 謹書

十三世 冑孫 鍊基

병조좌랑 충주 석공의 묘도문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함은 근심이 아니요 사람을 알지 못함이 근심이라 하시고 또한 이르기를 어진 이는 세상을 피한다 하시니 이 모두가 독행을 실천하는 자를 지목하여 말씀하심이니라。 대저 죽음을 지켜 착한 길에 밝아 회신자종(晦身自終)을 닦아치지 아니함이 사람으로서 앎을 가르치지 못함이 미련한 소의 무리와 제초(齊楚)에 가서 숨는 그와 같다하여 이제까지 전승하니 또한 천도가 필반(必返)의 이치라고 가히 이르대 후 이와 달라 가히 이들의 실상이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 행운마저 없는 것 같이 증고에 좌랑석공이 사백년의

지냄이 형영(形影)까지 점점 민멸하니 세월의 흐름을 입어본 사람으로서의 진실로
 개연한 바라. 오직 그 자손이 계승연면(連綿)하여 보책에 약간 기록이 되고 능히
 분묘를 수호하여 해마다 제사 올림을 게을리함이 없으니 이것의 곧 민멸하지 아니
 한 증거(證據)이나 그러나 차가운 산의 조각들이 가히 말이 없으면 그 행적의 전함
 이 굽굽(汲汲)하여 더욱 오래가면 갈수록 희미할가 염려하여서 기리 전할 제책에
 굽굽함이라. 공의 휘(諱)는 종(琮)이요 자(字)는 성우(聖佑)요 호(號)는 삼산(三山)이라.
 유지(遺趾)에 재사(齋舍)가 있어 제현의 찬송문(撰頌文)이 가히 증거 하겠다. 고려
 상장군 예성군이 이 비조이다. 공이 선묘조의 병조좌랑으로 광해의 호정을 만나
 성주에 피하여 이름을 숨기고 깊은 잠적(潛跡)하이라. 본시(本是) 충신(忠臣)의 가
 문(家門)이라 충절(忠節)이 변치 아니하니 어찌 대단하지 않으랴. 다만 세월이 침
 원(寢遠)하고 자손이 부진하고 문헌이 산일(散佚)하여 사적이 마땅히 볼 것이 있었
 을 것이로되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함이 없으니 다시 무엇을 더 쓸 수 있겠나.
 공이 고향을 두고 멀리 낙척(落拓)하여 한갓 착함이 천고에 전함이니 판 사적이 전
 하고 아니 전함이 공에 대한 더함과 덜함도 없다. 묘가 차동외전현자좌(釵洞外田
 峴子坐)에 있고 부인(夫人) 성산이씨(星山李氏)의 묘는 동원동좌(同原同坐)에 있으
 며 주는 언의요 손(孫)응록(應祿)응생(應生)이니 이제 十여세에 후손이 가장 집단으로 사
 는 곳은 성주 일곡(鈕谷) 삼곡(鋪谷)이요 드러나 사람으로 구세손(九世孫) 진우는

생원인요 그 증손 소파공이 두행학 선비요 주연농화는 학행이 있고 시서에 능통하
 며 관영 주공은 문학에 이름이 나았으며 봉기 남기는 나의 선군을 따라 다녔고 안기
 는 장승선과 제응을 따라 배웠고 호영은 제서문학에 수학하였고 기일은 군수의 직
 에 행하니 또한 문약로 칭하니 뒤에 변경할 정조인양 그 주손 연기는 여러 사람에
 의론하여 가로되 선조가 아름다웠는데 천하지 불의함의 이보다 심함의
 없고 또한 추도의 의표(儀表)가 오히려 월하였으니 이 선조의 통관할 바이려니 이제
 비록 단란한 행적이나 모두가 증거가 있으니 믿을만한 일을 믿어 비석에 부쳐 이로
 하여금 허물지 않게 함이 또한 좋지 않이다. 여러 사람의 의론이 두루 같아서 그
 일을 착수하니

내가 와서 명문(銘文)을 청하는 이는 호상 호도군이다. 내가 같으니 그들에게 가까
 이 있었음으로 듣기는 오래되었는지라. 간청하는데 가히 불문 모함으로 사양치 않고
 피세 이자를 가지고 이름을 쓰니 명문(銘文)에 가로되 공자님의 가로되 어진 이는
 세상 피함을 먼저하니라. 그 뜻을 화실히 하여 종신토록 두 마음의 아니라 피함은
 무엇을 이름이고. 악을 피하고 선에 나아감이라. 슬프다. 저 과연 잇이다. 그
 행함인즉 없도다. 어찌 그 연고인고대로 떨치지 못함을 만남이라. 오히려. 선공
 이여 차라리 무민하고저 함이니 저 의견이니 봄에 만년의 유쾌이로다.

處士忠州石公祭壇碑銘

公諱奇賢字國老號東岩姓石氏忠州人也上祖鄰自中華來仕高麗以靖亂功封藥城卽今之忠州也子姓因以爲貫累傳至良善我康獻王以外親封洪陽府院君其孫汝明贈左贊成其子文成襲封藥城孫斯珍官兵馬節度使後七世兵曹佐郎琮見光海政亂棄官歸隱千星州是公五世祖也曾祖應生祖命砬考守麟妣金海金氏宗建女肅廟庚辰公生自幼儀表端正性好讀書其於寢念之外則未嘗釋卷所以文義日進甫弱冠聲譽蔚然人皆期以大展公亦不無立揚之志然時則黨爭熾烈朝廷無寧日遂慨然發歎曰與其汲汲於進取甘受鼎鑊曷若優遊於泉石之間卒究其聖賢之學哉乃左右圖書潛思默繹有時興至則興與會心人相邀於山峩水清之間酣觴賦詩悠然有出塵之趣竟遺佚以沒世於家國朝自開創來篤尚文治明宣以上則群賢輩出旋招之典未嘗或漏於疎綱孝顯以下則黨色旣錮誅戮相尋廉貞好高之士舉耻列於其間而不樂仕進寧非可慨也哉如公可以

성산 이기원 근찬
연안 이영달 근서

謂明哲保身者也辛巳卒享年六十二配慶州崔氏五珽女生一男來哲來哲男天剛天補出曾玄以下繁不盡錄公之葬在禾谷峴枕子之原夫人墓附左青馬乱失其傳胄孫鎬永嘗爲是之慨與其從叔元基倣古典營一壇請余以銘余重其事而未能卽應者已有年矣不幸二公相繼逝世今歲癸丑春鎬永之長胤敬洙痛先志之未遂謀于族鎬權鎬烈鎔孝鎬晋相仁諸君設壇于王嶺下世隴之側抱家傳屬余泫然曰此吾先君之志也請勿固辭焉余方切亡友之痛安忍負孝子之請耶遂爲之銘曰篤學清修斐然其德曷求外榮顏巷可樂所履皜皜後人之式禾谷之阡是乃兆域世遠無徵裔孫含憾相地設壇先隴之側靈應陟降報祀無射

歲癸丑暮春節

碧珍 李鍾烈 謹撰

延安 李英達 謹書

十代胄孫 敬洙

처사 증주석공 제단 비명

공의 휘(諱)는 기현(奇賢)이요 자는 국로(國老)요 호(號)는 동암(東岩)이요 성은 석씨요 증주인이라. 상조휘린(上祖諱鄰)이 증화로부터 오셔서 고려의 정란공(靖亂

功)으로 예성(藥城)을 봉하니 곧 증주라. 홍양 부원군 휘양선은 태조의 외친이요 좌찬성 휘여명이요. 병마절도사 휘사진이요 후에 병조좌랑 종이 광해정난을 보 고 벼슬을 버리고 성주에 이거하니 공의 오세조이다. 증조 응생이 오 조명립이 오 고수린이요 비는 김해김씨이니 증건의 여이니라. 숙묘정진생이라. 일찍부터 의표가 단정하고 성품이 글읽기를 좋게 여겨 일찍이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 저우 약관에 성예(聲譽)가 울연하여 모든 사람들이 대전(大展)으로 기대하고 공도 입양(立揚)의 뜻이 없지는 아니하나 때마침 당쟁이 치열하여 조정에 편한날이 없으니 드디어 개연히 탄식을 하며 가로되 그 진취에 급급함이 천석(泉石)의 사이에 우 유(優遊)하여 마침내 성현의 글을 연구함이 비교적 어떨겠나. 이제 좌우 도서를 잠사(潛思)하고 때로는 흥(興)이 나즈 일어나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산수의 사이에 맞이하여 감상 부시로 출진(出塵)의 취지있어 마침내 유일(遺佚)로서 일생을 집에서 마치다. 국조 개창(開創)함으로부터 문치(文治)를 독상(篤尙)하니 명선(明宣) 이상 인즉 군현(群賢)이 나와 선초(旋招)의 법전이 후 성은 법강(法綱)에 빠짐이 없으며 호현(孝顯) 이하 인즉 당색(黨色)이 이미 공고하고 주륙(誅戮)이 상심(相尋)하여 엄정한 선비는 그 사이에 벼슬을 부끄러워하고 벼슬길에 나감을 즐겨워하지 않으니 외 제가이 개탄치 않을것는가. 공과 같은 분인 명철(明哲) 보신(保身)한 분이라 이름이 리라. 신사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육십일이시라. 배는 경주최씨 오정의 따님이

라。 일남 래철이요 래철의 아드님이다 천강이요 천보는 출계라。 曾玄이하는 다 기록치 않는다。 공의 묘는 화곡자원에 있고 부인의 묘는 부좌(附左)한데 청마(靑馬)난에 천함을 잃고 주손 호영의 일찍이 개연히 여저 그 종숙 원기와 함께 옛법을 따라 한다음 이루니 나에게 명을 청하니 내가 그 일일 증하게 여져 응하지 아니함의 요 랜지라。 발행히 이공(二公)이다 돌아가지고 이제 정수가 선지(先志)의 이루지 못함을 통모(痛慕)하여 호천(好天)호열(好烈)호양(好陽)호진(好進)상인과 함께 단을 위령 세천의 절외 모으고 나의 선군의 뜻이니 학 명문(銘文)을 칭함이라。 내가 벗을 잃음의 간절하고 호자의 청을 사양하겠는가。 드디어 명하여 가로되 도둑히 배우니 맑게 닦으니 빛 남기니 닦이라。 어찌 하염을 구하리오。 안자의 구항의 가이 즐거움 일이라。 이 행한 바가 작작(爵爵)하니 후인의 법이라。 화곡의 언덕이여。 이 영영이 세상이 멀어 증거가 없으니 후손이 함척(含滅)함이라。 땅을 상보아 단을 이루니 선영(先塋)의 절이다라。 영영이 천강할지라。 체사갈미의 다함이 없으리라。

계축묘추간전

변진 이종열 찬

연안 이영달 씀

심대주 손 정수

竹坡石公墓碣銘

公諱洽字以源竹坡其號也姓石氏上祖諱鄰中華人高麗毅宗時東來明宗丙申從杜景升討趙位籠有功歷西北兵馬使累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卽忠州古號子孫仍貫焉六傳至良善太祖康憲大王姨母夫也追封洪陽府院君生諱天乙洪城君生諱汝明號花園恭愍王朝官注書太宗徵之以漢城尹而不就盖其專心所事倘不愧於圃牧上嘉其義而褒其忠後追贈左贊成御筆閣在陰竹池洞三傳至諱斯珍端廟朝官至慶尚右兵馬節度使世祖受禪投紱隱退於宜寧石川洞以終餘年七傳至諱琮宣廟朝官兵曹佐郎光海政亂棄官歸隱於星州船南坊釵洞自號三山堂堂在錫谷洞事載星山誌與寰輿勝覽二傳至諱應生號南洲有學行築竹林亭舍訓獎進後學間數世祖諱重恒考諱鎮皓有文行妣江陵劉氏以文女有閨範純祖甲申十一月六日生公于釵洞里第幼有異質姿性純美稍長受學於族叔洛坡進士公學業日進不待教督而循蹈規矩人稱石氏有賢子平居書揭慎心誠敬四大字壁上日省吾身戰戰兢兢唯恐不及盖慎心者慎其獨也敬誠者誠其心而無不敬之意也心者虛靈不昧爲一身之主宰求之則神明不測發揮萬變立此人極放之則晷刻之間奔放大恣於千里之外無所節制則乃禽乃獸與草木同歸可不慎哉可不

懼哉諺曰至誠感天非誠曷有非敬曷存是故君子慎其獨而致其敬存其心而養其性造次必於是顛沛必於是孜孜爲善庶幾近於君子之道矣於乎壯哉公以慎心誠敬爲一生砥礪之工則其他文學餘事也此豈非全鼎之一鬻耶辛卯四月二十一日卒享年六十八葬于王嶺下艮坐之原配金海許氏墓釵洞鵲峯艮坐繼配隴西李氏公墓雙封艮坐男廷榮女適魯龍祖許氏出也男運榮以榮斗榮貞榮李氏出也延榮生燦憲燦元運榮生燦甲燦玉燦三燦宗出燦業女適呂佐東曾孫以下多不盡錄於乎公有踐履之篤行而焜則寡聞生後晚未得詳於公之細行嘉言公之遺稿二卷亦佚於庚寅兵燹文獻不足徵其子孫追恨可惜也矣曰公之孫燦業鎬聖鎬根持家狀一通請碣銘於不佞曰吾祖懿行美德終不可泯沒故畧備墓儀然碣不可無銘還顧吾林不無藉手處然特請於吾子者吾先祖節度使公在端廟朝行跡顯晦雖異於六臣然其不忘舊主之斷斷孤忠則同一義也後生吾單盍講舊誼而戒後昆耶哉願吾子勿孤此請也不佞則辭拙人非何敢是役耶以是固辭然請之益勤辭不獲依其家狀而撰次如右繼之銘銘曰

藥城世家文武雙全淪落遐陬姓名苟傳不墜先業詩禮青氈存心養性守之以正戰兢自持服膺誠敬全歸于地王嶺之阡刻辭于珉永世勿遷

大韓民國光復後二十八年壬子八月 日

신심은 그 홀로 있을 때 삼삼이요 영성은 그 마음일 실실하여 공영합이 없을 수
 없는 것이라. 마음은 허령불매하여 일진의 주장이 되어 살피우한즉 신명이 불촉하
 여 만면을 발휘함이니 이인구를 세우고 방인한즉 귀각(晷刻)의 사이에 분방 자자하
 여 절제한 바이 없은즉 금수갈이 초목과 같이 돌아감의 가히 삼가지 않으며 가히 두
 렵지 않겠나. 언외 이르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성심치 않으면 언외 있었으며
 공영이 아니면 언외 존하겠는가. 이리므로써 구자는 혼자있을 때 삼가 그 영을 이
 루고 그 마음들을 두어 심음을 길러 조차(造次)에 반드시 이해하며 전파(顛沛)에도 반
 드시 이해하여 자자(孜孜)이 착하게 하면 그것이 구자의 도에 가까우니라. 오호장
 재라. 공이 신심성정으로 일생의 지역(砥礪)의 공을 한즉 기타 문학의 역사라.
 이어 저 온술안한점 고기가 아니겠나. 신묘사월이 십일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유
 십팔세이시다. 왕령하간좌에 장사하다. 배는 김해하씨이니 묘는 차동작봉간좌
 이고 영성의 씨라 공과 쌍분이시다. 아드님 연영과 따님 노영조 처는 허씨가 날
 시고 아드님 영단의 영드영드영 영단의 씨가 날 이고 영연의 영연의 씨가 날 아드님 찬현 찬원의 씨
 영영단의 아드님 리담 찬갑 찬옥 찬삼 찬종리 출제하고 찬업이 노너의 여좌동처이며 증
 손 이하라 다 변하여 다 기록치 않는다. 오호라 공이 천리(踐履)의 득행이 있었음 리
 줄리 드름이 전고 뒤에 나았음으로 공의 세행가인(細行嘉言)의 자세히 못하고
 공의 리담 리담 이권(二卷)도 영인 병선의 잃느니 문헌의 주히 증거치 못함의 그 자손

의 추환이 가이 애석하다。가로되 공의 후손 찬업 후승 후손이 가장을 한통나에
 가지고와서 명을 칭하여 가로되 우리 할아버님의 행하신 미덕을 마침내 가이 민물
 할수 없던 그로 대략 묘의를 갖추었으나 묘비에 글이 없어서는 아니되고 도리어
 우리 유림을 돌아봄에 손 빌릴곳이 없진 않으나 특히 선생께 칭함은 나의 선조절
 도사 공이 단묘조(端廟朝)에 있어 행적의 현회(顯晦)는 비록 六臣과 다르나 그 주
 (舊主)로 잊지 못하는 그충만은 동일한이라。후생인 우리들이 어찌 주의(舊誼)를
 강하고 뒤의 자손에 경계를 삼았나。원한건대 오자는 이칭을 들어주시 바라노라。
 그러나 나는 문사가 庸拙하니 어찌 감히 하리오。마지 못하여 가장을 보아 글을
 짓고 명(銘)하여 가로되 예성제가오 무무가 다 같이 온전함이라。머나먼 지방에
 윤락(淪落)하여 생명만이 전함이라。선업을 떨어치지 않으니 시례(詩禮)의 좋은 자
 리더라。마음은 심품을 기쁨에 있으니 정진함을 지킴이라。조심하여 스스로 가짐
 이요 정성과 공경은 학업을 부끄러움이라。온전히 땅에 돌아오니 왕령(王嶺)의 언덕이
 라。글을 비석에 새기니 영영은 태도록 읊기지 말것이니라。

대한광무후 이십팔년임자팔월

일

순천 박 념 근찬

달성 서석준 근서

介隱石公墓碣銘 并序

石氏之貫忠州而居吾星者已十有余世而以孝友敦睦作家範尚有往日純慤之風余於介隱公之狀可知其信然也按公諱運榮字亨瑞別字曰介隱哲宗己未生早承庭訓每留心於古人之嘉言善行以爲反求之資其事親居家之節嘗有聞於宗黨今略舉其槩則母夫人平日嗜红柿以故種樹園中當霜果玲瓏之曰則每供之以時及丁憂諱日乃夏月無柿之節也每歲收藏之期則必擇堅賴而精置一處以備奠品終身無一闕此非至性之根天者能如是乎姨夫人魯氏家甚貧無以資生則必時月馱糧無至匱乏事伯公如嚴父雖分門居異晨夕之問未嘗小懈遇味新者則輒懷而供之當飢歲則遍族之寒窶者隨力賑之又誠於報本與諸宗累歲營度重建三山之堂以爲入星之祖佐郎公寓慕之所畜其餘財其於賓祭之供井井有節度其篤倫務本之實蓄如此己巳卒享年七十一墓左官花坊淡垵山枕子之原公之先實出自中原藥城君鄰其肇祖也中世有洪陽府院君良善集賢殿提學汝明兵馬節度使斯珍兵曹佐郎琮佐郎孫應生又以文行顯是公八世祖也高祖諱有元曾祖諱重恒祖諱鎮浩考諱洽號所坡妣金海許氏興女繼妣星山李氏文香女公李出也配星山裴氏善模女丙辰生庚子卒墓合墳生五男一女男燦甲燦玉燦三燦宗燦

業燦三燦宗俱出女適呂佐東燦甲三男萬基相基允基一女朴某燦玉一男寅基一女李明善燦三二男璠基性基一女徐再松燦宗三男銓基乙基丙基三女羅泰道李相泰林鍾洙燦業三男德基英基殷基二女張甲錫白南杞曾玄不盡錄公沒三紀之餘季胤燦業年迫八耄冒風雪赴數舍之程謁余以隨石之文其懇有可以感人者遂爲之銘曰古人有稱曾棗陸橘嗟公之柿在今詎沒非我能言略識其實

碧珍 李鍾烈 謹撰

達城 徐錫俊 謹書

胄孫 鎬春

기은 석공 묘갈명

석씨가 관 충주로하고 우리 성주에 산 것이 십여세에 호우돈독이로 가범을 지어 지난날 순각(純慤)한 바람이 있었음이다 내가 개은공의 가히 미덥고 진실함을 알았으니 라. 살펴보니 공의 휘는 언영이오 자(字)는 형서요 별자(別字)는 개은이니 칠종이 미생이라. 일찍이 가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갓 마음만을 옛사람의 가언선행에 머물러 돌이켜 구하는 밑천으로 함에 그 어버이를 섬기고 집에 거하는 절차가 일찍이 종당의 들린바가 있었음인지 대략 그 대개를 추리되 모두인이 평일의 흥시를 즐겨한

지라。 그러므로 감나무를 뒷원에 심고 북게 익으면 지성으로 바치니라。 상사를
 당함의 휘일이 여름이라。 감이 없을 때라 해마다 저장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성실
 한 품과를 가려 정히 두었다가 제물(祭物)을 갖춤은 종신토록 한번도 결함이 없이
 니 이같이 지극한 정성의 호가 아니면 행의 외갈이리。 오노씨(魯氏)에 출가(出
 嫁)한 누이가 몹시 가난하여 살아가는 일이 없었으므로 달마다 양식을 내보여 부족함이
 없이 하니 만행(萬行)을 섬기기를 임부와 같이 섬기어 비록 따로 살아가 있으나 신성
 (晨夕)의 무후(無後)를 일찍 조모도 케를 리함의 없나 새로 다 음식이니 과일이면 반드시
 公보본(報本)의 정심으로 모든 조모를 두어 여러 해를 두니 힘일 써 삼산(三山)을
 증간하여 성주에 처음 전거하신 할아버지 우모(寓慕)의 소(所)를 하니 남은 재물을
 저축하여 빈제(賓祭)에 제공함이 정정하기 절도가 있으니 그의 름을 돈독히 하고
 公본을 힘씀이 대개 이와 같더라。 기사에 돌아가시니 향년 칠십일세 이시라。 묘
 가관화망 담대산 자좌원에 있다。 공의 선대가 증원으로부터 나왔다。 예성군 휘
 름이 시조이시고 증세에 홍양 부원간 양선 집현전 제학 휘여명 명마절도사 휘사진
 병조좌랑 휘종이 있고 좌랑의 손 휘이생이 또한 문행이로 나다남의 이가공의 팔세
 조이니라。 그조휘유원이오 증조휘증항이오 조휘진호요니 휘합이니 호가 즉파요
 비는 김해하시니 향년 81이다니 비성산의 씨가 파남의 니 공이 씨의 소(所)

생이라. 배는 성산배씨니 선모의 따님으로 병진생이오 경자에 돌아가시다. 묘는
 합봉 五남一女를 낳으시니 남은 찬갑 찬우 찬삼 찬종 찬업이니 찬삼 찬종은 다 출
 제하였고 여는 여좌동처이다. 찬갑의 삼남은 만기 상기 윤기요 일너는 서재송 처
 이고 찬종 삼남 전기를 병기 삼너 라태도 이상태 임종수 처이요 찬업 삼남 덕기
 영기 은기 요 이너는 장갑석 백남기 처이오 증현손이 하느 다 기록치 못한다. 공의
 몰후 삼십년뒤에 아들 찬업이 팔순의 나이로 풍설을 무릅쓰고 와서 나에게 비문을
 청하되 가히 사람을 감동케 함이라. 드디어 명하여 가로되 옛사람이 일컬어되 증
 자의 대초와 육적의 유자로 일흠이라. 슬프다. 공의 감은 이제 어찌 없겠는가.
 내가 말에 능하지 못함이라. 대략 그 실상을 기록함이니라.

벽진 이종열 근찬

달성 서석준 근서

學生石公周源墓碣銘 并序

高麗毅宗時有藥城君諱鄰是爲忠州石氏之上祖也中世有諱汝明號花園恭愍朝登文
 科入國朝太宗除嘉善大夫集賢殿提學不就褒其忠贈崇祿大夫左贊成生諱文成襲封

藥城君生諱義正官禮議生諱斯珍慶尚兵馬節度使七傳至諱琮號三山堂兵曹佐郎時值光海昏朝自宜春移于星州之釵洞是爲十四代祖也曰彥儀曰應生曰命眞曰得立曰守哲曰致善曰泰範曰柱千曰文祐曰鎮東曰在淳無子以弟在景子炳仁爲嗣祖以上十二世也考諱大基妣金海金鎔鉉女高宗乙巳十一月十日生君于竹管里第諱周源字道寬容儀岐嶷眉目澄郎幼有氣岸與羣兒遊戲咸循指揮如上將之使卒伍也年至就傳受業于李苦菴鍾翼聰明穎悟性又勤實不數年通大義微旨見者莫不以遠大期之連值歲荒家業漸至剝落不能支居山田簿耕付于弟遂投入于日本時年二十餘從事商業未幾年稍致豐資慈性過人見親交之貧不能堪者輒傾心而救助之又不自誇人莫不悅服焉在日居留民六十萬選君爲團長處事周詳誠信正確聲名籍籍焉西紀一九六四年秋朴正熙大統領招請入國面接同時丁一權國務總理李壽永公報長官有招待宴李孝祥國會議長外議員十餘名并叅各有記念撮影君之見推於當時偉人於斯可知矣卒以己酉九月十三日得年六十五自日本返葬于故山之竹管洞青龍艮坐原娶高靈朴宅彬女生六男二女男相煥相鉉相睦相孝秀雄相哲二女朴相煥男正弘光弘信弘相鉉男隆弘康弘相睦男東根東得相孝男東俊秀雄男玉弘智弘性弘相哲男克弘女朴君之弟商源承源與其族叔昌基袖家傳而來請顯刻之銘余以不文不德辭益固而請益勤畧叙其世銘

曰薄田付弟身投異域產業冶陶時至膝閣以義調恤人多悅服偉人招待榮耀可掬萬里
鵬程期以廣邈大限有定道窮日落竹管之原托茲精魄我銘玄石庸眎無極

歲之壬子八月上浣

京山 李相虔 撰

묘갈명

嗣子 相煥

고려때에 상장군이시며 예성군이신 휘 린이 충주석씨 시조입니다. 잠조(簪組)가
여러대로 환혁(煇赫)하였고 병조좌랑 휘종 호삼산당이요 광해 훈조에 의춘으로부터
성주차동에 옮기니 이가 십사대조입니다. 가로되 언의왕 응생왕 명진왕 드림왕 수
철왕 치선왕 태법왕 주천왕 문우왕 진동왕 재순은 무자함에 아우 재경의 아들 병인
으로서 이름을 하니 조이상 십이세요 아버님 휘 대기요 어머니는 김해인이니 휘 용
현의 따님이시다. 그종을 사십일월십일일에 구우 주관리제에서 나시다. 휘는 주원이
요 자는 도관이며 용의가 기의하고 미복이 행랑하여 일찍이 기안의 있어 근아로 더
불어 유희함에 다들 지휘로 따름이 상장이 졸노를 부림과 같더라. 나의 십오세에
스승에 나아가 이고암선생에게 수업하였으며 총명영오하고 성품이 또한 근실하여 수
년이 못되어 대의(大義)와 미지(微旨)에 통하니 보는자 대재(大才)로 기대하더라.

해마다 흉년을 만나 가산이 탕진(蕩盡)함에 능히 지당치 못하여 산전박경(山田薄耕)을 아우에 넘겨주고 일본으로 건너가니 때에 나의 처우 이십 남짓하니 상업을 종사한지 불과 몇 해에 부자(富者)가 되었다. 자성(慈性)이 과인(過人)하여 친교의 가난한 자(者)를 구조하고 또한 자량을 아나하니 사람이 다 열복하더라. 재일거류민 육십 만인의 군(君)으로 하여금 단장으로 선거함에 처사가 공정(公正)·정확(正確)하니 선명이 자자하더라. 일두육사년 추에 박정희대통령 초청으로 임무면담 동시에 정일권 국무총리 이수영공보장관이 호상국회의장이 회의원 십여명이 병찬한 초대 연이 있어 기념촬영을 하였으니 구의 당시의 위인들의 초대를 받음이 가이 알리라. 기유월십삼일 별세(別世) 향년 육십오세이다. 고향 주관동의 청룡간좌에 안장하다. 배는 노령박씨이니 태빈의 여이다. 유남이녀이니 남기상환 상현 상복 상호 수음 상철이고 이녀는 박상환 남정양 광흥 신흥 상현 남유홍 강흥이 상무 남동승 남상호 남동준 수양 남유홍 지홍 신흥 상철의 남기현남의 제 상원승원이 족속 창기로 더불어 가장을 가지고 와 현각(顯刻)의 글을 칭하거늘 내가 불문부덕(不文否德)으로 사양타 못해 대략 비문(碑文)을 짓고 명하여 왈 박전은 아우에 부치고 몸은 이역에 던졌다. 산업을 영위하니 때가 등왕각(滕王閣)에 이르렀다. 의로서 주활함의 사람이 열복하더라. 위인의 초대하니 영광을 가이 싣는다. 만리봉정(萬里鵬程)에 광막하을 기대함이라. 인수(人壽)가 정함이 있으니 천명(天

命을 다 하였다。 죽관은 언덕에 이정백을 부탁함이라。 내가 현석에 글을 사기였으니 무극도록 보일 것이다。

세(歲) 임자 팔월상완

경산 이상건 찬

處士石公墓碣銘

余旣表公之母夫人全州李氏烈行矣夫人之玄孫鎔現鎬永又作而曰夫人長男諱祖榮有純孝至行願文者之銘其碣余應之曰母以烈子以孝世類之果不虛也按公字致雲忠州人上祖諱鄰自中華來仕麗朝有勲封藥城至諱良善洪陽府院君我康獻王姬親也諱汝明漢城尹集賢殿提學諱斯珍兵馬節度使諱琮以兵曹佐郎光海時棄官隱于星州於公十世曾祖諱重郁祖諱鎮垵考諱渙純廟甲申生公于州之鍾谷里第自幼容觀端飭性行孝順年甫五六一無拂親之志考公早嬰積冷症甚則往往昏倒不省公不離側手以磨擦艾以灸熨陪大夫人迎醫問劑不遑寧處一日不及聞而獨走醫家息喘鳴咽若不能言醫問故仍涕泣兩下曰親瘠方就欲活我父醫感其孝投餌而辭其直然病不可爲方幾殊公齧指注血還甦而延三日竟不救人曰三日孝感也時則公年七頓絕方甦送終如禮及

葬日一哭墓哀痛之至行路感之母夫人嘗曰汝以寡婦之子非十倍其工人豈爲友哉受小學於門長老至董生山樵水漁之篇掩卷良久歸告曰母躬樵子讀書非古人之學也請代母氏之役願母氏安之及母氏病皇皇焉行不能正履至嘗糞甜苦而驗之遭艱水醬不入口柴毀號痛若不能保葬也逐日省墓不以風雨而或廢拜跪當膝處凹而不草退而倚樹而泣樹爲之枯猗歟孝哉凡前後所爲豈皆有爲而爲者哉癸巳卒葬于州東內屈音坤原配義城金氏柔婉貞淑有四男二女男長燦夏燦殷燦周燦漢女蔡義述李養根妻燦夏男文基女張基成妻燦殷男駿基元基環基女施潤吉妻燦周男巽基達基女金教成魯容壽妻燦漢男昌基且基龍基必基女基鄭之琅妻銘曰韶年切齧指孝子之血有樹立枯孝子之泣有墳階陷孝子之膝昔未曾聞今見其實

己丑小滿節

西原 鄭宗鎬 謹撰

延安 李英達 書

胄孫 敬洙

처사 석공 묘갈명

내가 이미 공의 모부인 전주이씨 열행을 표함인즉 현손 응현 호영 또 이르기

로되 부인의 장남 휘 조영 순효 지행이 있으니 장차의 갈명 원함이라. 내 답하여
 가로되 어머니가 열이오 아들이 효도함이라 인간세상(人間世上)의 과연 헛됨이 아
 라하니 공의 자는 치운 이요 충주 인이라. 고려 상장군 예성군 휘 린이 시조이시
 니 홍양 부원군 휘 양선 좌찬성 휘 영명 병마절도사 휘 사진 병조좌랑 휘 종의 광해때
 에 벼슬을 버리고 성주에 은퇴하니 공의 십세 조(祖)라. 증조 휘는 증유 이요 조 휘
 는 진우요 그 휘는 환이니 순묘 갑신년(丙申)에 공이 삼복에서 나시다. 어릴 때 부덕 용관
 (容觀)이 단칙(端飭)하고 심음과 행동이 호순하여 나의 겨우 유류 세에 한번도 불친
 (拂親)의 의지가 없음이라. 아버님 일찍이 냉증으로 심하면 왕왕 정신마저 잃으
 심에 공이 항상 절을 떠나지 않고 손이로 문질러 드리니 속으로 땀질을 하고 모시
 고 대부인과 함께 의원을 맞이하여 약의 재료를 물음에 하루도 편한 새가 없으니
 라. 하루는 혼자 의원에게 달려가 능히 말을 못함에 의원이 연유를 물으니 주머니에
 비누를 하면서 내 아버님 병환의 심중하니 나의 아버님 살려 주옵소서 하니 의원
 이 그 효에 느껴 약을 주니 그 값을 사양하나 병이 나게 할 길이 없었다. 공이나
 이 칠세에 기절하였다가 환소하여 장일에 애통하니 길가는 사람마다 슬픔을 금치 못
 하더라. 어머니의 가로되 네가 과부의 자식이로 열갑절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의
 어찌 동유를 하라. 소학을 집안 어른께서 배움에 동생(董生)의 산초수어(山樵水魚)
 의 편에 이르러 책을 읽고 조음 있다가 돌아와 가로되 어머니가 나무를 하고 자식

이 독서만 함은 옛사람의 배움이라. 청학읍신대 어머니의 하시는 일을 제가 하오
 리니 어머니의 편안하신말을 원하더라. 어머니의 병에 황황하여 행함에 신발도 바로
 신지 못하고 분노의 달고 쓴 것을 맛보아 징험하고 상사를 당함에 물과 장을 입에
 넣지 않니 시훼(柴毀) 호통하여 능히 보전을 못하고 날마다 성묘함에 바람 불고 비
 온다하여 피함의 없니 절하고 끊어왔아 무릎이 달고 곱이 나지 아니하고 물
 러서서 나무의 의지하여 우니 나무가 마르더라. 무릇 전후의 하느바가 어찌 다 유
 위해서 함인가. 제사년의 돌아오니 주동내날미근좌에 장사하다. 배는 의심김씨
 니 유완 정숙하여 사남 이너를 두었으니 남은 찬하 찬은 찬주 찬한 이오 여는 채의
 술 이양은의 처요 찬하남은문기요 너는 장기성 처요 찬은 남준기 원기 환기요 여
 는 시윤길 처요 찬주 남손기 달기요 여는 김보성 노용수 처요 찬하 남창기 차기
 용기 딸기요 너는 정지랑 처라. 명월 소년이 실지(齧指)하니 효자의 피라. 서있
 는 나무가 말랐으니 효자의 체(涕泣)이로다. 묘 뜰에 오부의 파이니 효자의 무
 름이로다. 옛적에 일찍이 듣지 못하였더니 이제 그 실상을 보겠네.

기축 소만절

서원 정종호 찬

연안 이영달 씀

주손 경수

處士忠州石公渙妻全州李氏褒烈閣記

昔聖明之世篤尚彝倫雖閭巷閨壺之行有關於三綱則必復其戶旌其閭使民遷善而化俗之實治朝之盛典也噫時異今古此典之不可復見既久則惟其士林之表撰後裔之建閣庶或不沒其懿蹟而亦可爲古典之流亞歟此李孺人褒烈閣之所以興建也孺人全州后人漢謨之女也自幼有繼閒之資年若干歸于忠州石公渙公卽提學汝明之后也家甚貧寒而孺人執婦道甚虞事敬盡禮居未幾不幸夫公疾就孺人晨夕洞屬禱祀藥餌無不用極一夜夢神人告人肉甚好旣寤輒引刀割股和藥以進疾乃小間然脩短天也人之于天將如之何哉及遭崩城尤致慎於送終之節累矢下從而輒翻然改悟曰夫子之后只有二幼吾若闔然則將須誰爲命專心乎義教之方使門戶有立胤公祖榮賊性甚孝丁憂之日年甫七歲而侍疾則泣乞于醫屬續則以指血注口得暫甦之效生平以早孤爲至痛奉母至誠及母沒廬墓三載朝夕哭墓風雨不廢鄉人至今稱廬墓谷母之烈子之孝俱可以感人於是鄉省人士篤其行義于大聖之學院二之諸老宰聞而義之文以褒彰之往在己丑四世孫鎬遂立碑載其事又爲之閣未幾沒世今歲甲寅春子敬洙興其堂親鎬權鎬忠鎬晉相仁續修其閣請余識其楣孝懇甚篤有不可力辭也切念毀臚救疾先儒之論或許

或不許然其不許者以其非人人所可行故也然則非人人所可行而行之則豈非難之又難乎此朱退二先生以有至誠之說也余何更贅哉且夫沒而不欲苟延其命者實婦人之情也往二有捐軀并命者然孺人則以其幼孤之在前隱忍成立之今四五世之間後嗣甚熾昌使夫子之后有傳于世其處措之得宜雖古之女士寧有過此乎世之過是閣者惕然反己則庶幾有補放風化之萬一云爾

歲甲寅孟夏節

碧珍 李鍾烈 謹記

延安 李英達 謹書

五代 冑孫 敬洙

처사 충주 석공환처 전주이씨 포열각기

옛적 성명의 때에 이룬을 승상하여 여항유공의 행실이 삼강에 관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후세를 달리고 거리의 정표를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착한데 옮겨 풍속을 화하게 하는 조정의 성전이라. 때가 예전과 달라 성전을 가히 다시보지 못함이 이미 오래인즉 오직 사람의 포찬과 후예의 건각이 그 후 옛적을 빠짐이 없으면 또한

함을 사양치 못하여 말하되 살을 배어 병을 낫게 함은 사람이 행키 어려운 일을 하였으니 선생의 지성이란 말씀이 계시오니 내 어찌贅說을 거듭하리요。 하종의 때 은 마음새로 돌이켜 유교에 의교 지방을 다하여 성립의 길을 열어오매 그 처석(處惜)가 옛적 여사라도 어찌 이에 지념이 있으리요。 이제 사오세에 자손(子孫)이 심히 창성하니 어찌 하늘이 늦었다 하리요。 세상 사람이 이각을 지나면 다 걸림음을 멈추고 이 기문(記文)을 읽느니라。

세갑인 맹하절에

벽진 이종열 근기

연안 이영달 근서

증손 경수

小坡處士忠州石公墓碣銘 并序

語曰君子恥其言而過其行夫言常易而行常難故欲其行之孚於言也又曰先行其言而後從之謂識得箇道理可以說出來却不要只做言語說過須是合下便行將去而後從之是所以無負君子之名也嘗聞小坡石公之言行常持恐懼戒慎之心行先於言自貞不銜樂與從有德之善士如不及焉持身謹飭衣冠必整齊自有瞻視之尊又能謙恭接物懼懼

若無聞焉余侍先君子側每睹公之往來果知其論篤而非色莊者也嘗曰於妻子亦不敢以褻慢之容加之至於當夕必擇奎開日晚而得一子是其先蔭之藉歟後其子南基來我而同學見聰慧過人驗其有受於家庭於此而審知公居家之節度又聞檜淵書堂講會之席相與賦詩一座莫不驚嘖亦測其文藻之有深工也猶自韜晦不驚於外始也從事于我凝窩先生暨寒洲府君及四未張先生其交遊則惟我先考大溪府君及晦堂張先生數公更不務廣交要譽以篤實自修爲一副家計此真安分守命之君子也惜乎世降俗末爲學者舉不趨於聲利之末鮮矣孰能知董生之隱居行義於淝淮之間哉日南基送其子鎬震及從子鎬聖致書於余曰吾先子隱德以深并其遺文因於庚寅之兵燹今無跡可憑有子不肖豈可瞑目以歸且墓儀尚闕竊念居相近而有共研之誼知我世者莫如執事欲求信筆捨之其誰言甚純慤無浮於實有承述之美令人感歎余雖不文可辭諸乎遂按其狀公諱燦求字永欽小坡其號也系出藥城君上將軍鄰自中原來仕于高麗藥城卽忠州子姓仍貫焉六傳諱良善爲李朝太祖爲姨母夫封洪陽君至孫汝明集賢殿提學贈左贊成三傳諱斯珍兵馬節度使端宗遜位辭職退居宜寧七傳諱琮佐郎光海朝棄官歸隱于星州錫谷後孫仍居焉蓋其忠義之有所自也又九傳諱鎮宇生員進士諱淳諱知榮有孝行公會祖祖若考也妣咸平魯氏以浩女錦溪認後憲宗癸卯生公于世茅氣宇清淑品行方正

自髻亂已有大人氣像及其長也性度剛嚴儀容凝重雖處稠座之中談論之際不失尺寸待人以禮居家篤倫怠惰之容不設於體侮慢之言不出於口惟以讀書訓後進爲受用之資所著文字不屑收拾曰留此以求名何稱於身心故只有三司在篋亦歸烏有豈不歎惜卒於建國八年丁卯葬于本郡釵洞玉梳谷酉坐原配水原白氏奎鎮女早卒金海金氏志賢女後公三年而生先公十五年而卒前配雙墳後配合窆也子卽南基女適鄭時恢李相鳳李洙根李基潤南基男鎬瑄鎬震鎬元鎬崙曾孫永進餘不錄銘曰君子有言行之可後隱居求志懲茲多口順事沒寧無愧所受爲士者但當盡吾職而已奚論顯晦之異同有屹四尺我其銘公行者過之孰不式躬

旃蒙大荒落冬至節下澣

星山 李元基 謹撰

京山 李相虔 謹書

胄孫 章洙

소파 처사 충주선공 묘갈명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그 말이 행실에 지나침에 부끄럽다 하니 말은 항상 쉽고
행실은 어려움이라. 그러므로 그 행실을 말에 맞도록 하고저 함이 군자의 이름에

저버림이 없었더라. 소파 선공의 언행이 항상 공우계신의 마음대로 거저 행실들을 면저 하여 스스로 정신하고 자랑하지 않으니 기꺼이 덕있는 선비로 더불어 미치지 못한다. 뜻하더라. 몸가짐을 근신하여 의관이 정제하여 스스로 瞻視의 높음에 있었고 또 능히 검문(檢問)하여 민민히 들음에 없었더라. 내가 선군자를 모시고 매양(每) 왕래함을 보니 과연 그 독실하고 색장함이 아니라고 알았느니라. 일찍이 가로되 처자에 감히 설마한 양의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반드시 개일을 택하여 입석에 나감이라. 늦게 한 아들을 얻으니 이가 선음에 자리한 바인지 그 아들을 남기가 나와 함께 배움에 총명(聰明)해가 가정에서 받음에 있음이니 지함하며 공의 거가 절도를 알수도 있고 또 들음에 회연(回)선(善)의 부와 시로서 한자리가 독책(篤)치(實) 아날이가 없더라. 이에 또한 그 문조(文藻)의 기묘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스스로 숨기어 밖에 들리지 않음이라. 처음에 우리 응와선생 및 한주부군 및 사미장선생에 종사하였고 그 교유(交)우(友)의 선고대계부군 및 회당장선생 몇공이요 다시 광교를 힘쓰지 아니하고 독실자수로 가계에 맞추니 참된 분으로 지키는 근자라. 애선하다. 세월이 가고 풍속이 쇠퇴함에 학자가 성리에 쫓들리지 않으니 이가 드문지라. 뒤가 능히 동생(董生)이 이거하여 비회(肥淮)의 사이에서 의로움을 행한 줄 알겠느니라. 하룻날에 남기가 그 아들을 호진(胡)진(進)과 호선(胡)선(善)을 보내 나에게 글로서 가로되 내선자(內)선(善)이로 더불어 아셨고 그 유(有)무(無)를 명(明)인(仁)의 구출(求)하지 못하여 이제 행적이 민(民)멸(滅)하니 불초(不)초(草)한

자식이 어찌 눈을 감고 돌아갔는가. 또한 묘의에 현각지문(顯刻之文)이 없으니
 간절히 생각건대 거리가 상한하니 동연공삼한의 가 있었으니 우리집 세대를 아는 이
 는 집사만 같음의 없으니 신필(信筆)을 구할진대 집사를 두니 그 누구에 말을 하리
 요. 말이 순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케 함이라. 내 어찌 불단으로 사양하리
 요. 드디어 그 자장을 보니 공의 휘는 찬수요 자는 영음이니 소파는 그 호이다.
 세계는 왜성간외에 나았다. 상장난 휘린의 증원으로부터 위고려의 벼슬을 함이라.
 예성기공 총주라 자손의 인하여 관을 함이라. 육전(六傳)에 휘양선이 이조 태조
 의 이모부가 되어 흥양부원군을 봉하였니 손자 휘여명이 집현전체학이요 증좌찬성
 이요 삼전 휘 사진이 병마절도사로 다종의 순위함의 사직하니 의령에 퇴거하였다.
 칠전(七傳) 휘 종의 좌랑으로 광해조에 기관(棄官)하고 성주 삼곡에 숨어 살았다.
 후손이 잉거함이니 대개 종의로부터 온바라. 또 구전하여 휘 진구는 생원진사요
 휘 순휘 지영인 효행의 있으니 공의 증조며 조(祖)이며 고(考)이다. 비는 함평노
 씨 이후의 따름이니 후세의 다. 현종 계묘에 공을 세제에서 생학다. 기
 우가 청숙하니 품행하여 여려서부터 대인의 기상이 있어 장성함의 성도가
 강임하니 의양이 의양하여 稠座지증담론 지제에 천추를 잃지 않아 사람 접대하기를
 예로서 하니 집외의 것이면 서인류라도 동이 하니 태자의 영의를 몸의 베풀지 않고
 오만학언어를 쓰지 않고 오직 독서하므로 후진을 후계하여 수양의 자를 하고 소저

문자를 수습하지 안하고 가라되 이에 유심하면서 이름을 주한바이니 무엇이 몸에
 도움이 있으리요。 다만 삼권(三卷)의 유문의 협상에 있다가 또한 전화에 유유하니
 어찌 판신치 않으리가。 건국 팔년 정묘에 돌아가심에 본단 차동 유류득 유 좌원에
 장사하다。 배는 수원백씨 유진의 따님이니 일찍 돌아가시니 배 김해김씨는 지현의
 따님인데 공보다 삼년뒤에 나시고 공보다 십오년 앞에 돌아가셨다。 천 배는 쌍분
 이요 후 배는 함평염이다。 아들 기은이 즉 남기은이 정시회 이상봉 이수근 이기연의
 처요 남기의 기은 호진 호원 호륜이요 증손 영진이다。 나머지는 부록(不錄)
 하니 명하여 가라되 순자가 말씀이 있었음 기은행한뒤에 가함이라。 습어살면서 뜻을
 주하여 이 말 많기 것을 증계함이라。 일찍 순하게 하니 주유미를 편하게 하니 받기바
 에 부끄러움이 없나니라。 선비된 자 다만 마땅히 내 직분을 다할 따름이요 어찌
 들어나니 들어나지 않았음이 다르니 같음일 뿐 이론하라。 너자나 되니 비서에 내가 공
 의 어떤 말을 행하여 오지나 처는 자 뒤가 몸됨을 급히 지 않았하라。

음식 노지 전법 하학의

성산 이기원 근찬

경산 이상건 근서

洛西處士忠州石公墓碣銘 并序

公姓石氏貫忠州諱應祿字卿祚號洛西其先中夏人及唐宋末浮海東來世代玄遠系統莫憑至勝國諱鄰爲上祖也入本朝諱良善與桓祖爲姪婿封洪陽府院君其夫人除慶昌翁主傳至通訓大夫天乙左贊成汝明兵馬節度使斯珍圭組繼承群哲輩出鴻儒碩德大鳴於時間累世有諱琮號三山堂兵曹佐郎生諱彥儀祖若考也安陰金永建母考也庚午九月十五日公生于船南釵洞第天賦質直凡於事爲切勿依賴於人也家勢清寒不專力於文學事父母友兄弟爲分內事乃克勤克儉力穡課農不謀外求購古今書史藏于一間屋自謂以李氏白石菴而爲子孫計也或於親戚窮乏者之昏喪盡心力而救之使無憾而稱情焉嘗以寒疾幾日委褥病加漸劇命子姪展紙濡筆於枕遵口呼遺書曰吾今寢疾續息將冷萬念都灰齊家處身已有前日淳復今不及提而今世人多以外飾爲務固守親喪自盡之說不度家力傾財送死殊非體光垂後之道今吾病中家計漸窶我死後切勿虛費厚葬也其他不以枚枚語畢乃命終卽己巳八月十日窆于釵谷中洲峰下子坐原配聞慶慎氏墓與公同兆二子命佑命仁贈通政大夫佑子起峰仁系子起發餘不錄嗚乎公之不予世殆三百祀之茲矣後裔零替鬱攸累灾安得無無徵之欲也公之諸後孫與相協議今

將伐石爰表其阡日鎬俊偕健基鎬重來余曰我遠祖墓無現刻可徵則後必爲杞宋矣以是之懼願賜一銘焉曰余年高病深不敢當是然感君孝思不可孤也因其族書及口碑流傳序次如右業以銘曰

軒軒自得清世逸民生歸兩全昔賢同倫闡先裕後各適其義旣仁且德必昌其嗣

檀紀四千三百七年癸丑冬至節

京山 李德源 撰

監役 鍊基 貞基 在瑞

棟均 龍珠

낙서처사 충주선공 묘갈명

공의 성은 선씨요 관은 충주요 휘는 인후이며 자는 정조 호는 낙서이니 그 선대
는 증화 사람이라. 상장군 예행군 휘린 이상조이시고 연세참조로 내려와 병조좌랑
휘종은 호 삼산당 이시고 시생 휘연이니 활아범임아범임의 기김영건의의 모
그이시다. 경인년 구월십일예 공이 선남차동에서 나심에 천품이 질직하시어 모
든 일에 남이로 하여 기담이 없으며 가세가 청한함으로 문학에 전력치 못하되 부모
님 앞 섬기니 형제의 우애하는 분내사(分內事)만이 하여 극은 극감하여 농사일을 하
여 노닐음의 슬과 책을 사들여 한가방에 저장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씨 백석암이라

하여 자손을 위함이더라. 후 친친증 응필한 사람에게는 심력을 다하여 기움이 없
 이 하더라. 일찍이 명으로 몇일 동안 누웠다 가 병세가 점점 더 함에 자노를 불러
 지필을 자기 베개 곁으로 가지고 올라하여 유선을 입이므로 일러 쓰게하고 말하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외신이 많아서 집안 행편은 생각지 않느니 재물을 기우려 장사하
 니 광전수후의도가 이여라. 이제 내 병증에 가세가 점점하니 나 죽은 뒤에 괴대한
 소비를 내어 후장하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고 이어 돌아가심이라. 기사 팔월십일
 에 차동종주 봉하자좌에 장사지내니 배는 문경신씨인데 묘는 공과 동조이다. 두
 아들이 명우 명인이니 증통정대부 우명인의 아들 기봉이 우명인의 제자 기발이라.
 나머지는 부록(不錄)한다. 공의 세상이 삼백년의 후손이 영체(零替)가 되고 여
 러번 화재에 무징(無徵)의 한탄이 없지는 않다. 공의 후손이 서로 혐의하여 돌을
 세워 표적을 할새 호준이 건기 호종과 함께 와 가라되 우리 먼 할아 버님 묘에 현각
 (顯刻)의 가징(可徵)할 바 없으면 뒤에 반드시 기송(杞宋)이 되리라. 이로써 두려
 워하니 한 명장(銘狀) 주심(主心)을 원함이라. 가라되 내 나의 늙고 병이 깊어 감당치 못
 하나 그러나 공의 호심을 느껴 그 일가의 장과 구비(口碑)의 유전을 인하여 위와 같
 이 서차(序次)를 하고 이어 명하여 가로되 현현자득(軒軒自得)함이며. 탁한 세상에
 일민(逸民)이라. 나고 돌아감이(歸) 두가지 온전하니 옛어진이와 한 짝이라. 천선
 유후(闡先裕後)에 각각 그의가 적당하니라. 이미 어질고 또한 덕스러운데 반드시

그 이음이(嗣) 창성하리라。

단기 四천三百七년 계축 동지절

경산 이덕원 찬

奄巖處士墓碣銘 并序

新安治東內窟音負未而穹然四尺者石公諱洪字致潤墓也公以直諒之性有謹實之行蚤自成童慣通經術父老期以遠大之器鄉黨皆推獎弱冠丁父憂哀毀如禮隱廬三年事母夫人以孝負米修職隨暇讀書真工積久至若奇文僻字醫藥等篇無不旁通而亦未嘗以文人自居安貧守拙律躬儉約絕去梘蠟休休有古家氣焉籍忠州麗代藥城君諱鄰其上祖也六傳至諱良善洪陽君我桓祖連襟友夫人崔氏以康獻王從母有乳養功封慶昌翁主生諱天乙通訓大夫洪城君生諱汝明號花園崇祿左贊成三傳至諱斯珍節度使諱來廷秀泰明福鎮玉高祖曾祖祖若考也妣羅州羅氏鎰甲女純廟甲午五月六日公生丁丑四月三日卒配密陽朴氏重燁女無育繼配江陵崔氏東碩女男玖榮公之從孫燦斗袖家狀請余以銘其窀銘曰

律已謹拙修不祿也安分強晦志且篤也釵洞之厓有石於乎百世斯銘之不泐也

丙寅春三月下澣

仁州 張憲遠 撰

曹孫 燦秉

임암암처사 묘갈명

성주 치동서 읍읍부미원의 봉합이 있어 누자쯤 높음이니 성공 휘 홍 자 치은의 묘
 이라. 공이 직양의 성품이므로 그 실행 행실이 있어 일찍 성동(成童) 때로 불어 경술
 에 어머님 통하니 그때부터 원대의 그 덕으로 기대하고 향당이다 추상하더라. 약관
 에 어머니 상사들 당하여 예회를 예와 같이 하니 삼년(三年)을 여막(廬幕) 밖에 나오
 지 않하니 모부의 심심함을 호로써 하여 쌀 노지고와 작본을 닦고 여가들 이용하여
 독서하여 참공부가 오래도록 계속하며 기문번자의 약방편까지 통하지 안함이 없었고
 일찍 문인이므로서 자처하지 않고 가나를 편히 하고 응졸을 지키고 몸의 검약함을 지
 니고 살살이 발나서 함은 절대로 아름다운 옛집 귀색이 있었음이라. 충주(忠州)로
 관전하니 여대 예성주 휘인 이상조라. 유전하여 휘양성(洪陽城)인 홍양군(洪陽君)이니 한
 조의 연금(尤金)부인 최씨(崔氏)는 강현왕(康獻王)으로서 유양군의 있어 영창(永昌)주(慶昌翁
 주)로 봉하였고 생휘 친왕(生輝親王) 통현(通顯)대부 홍성(洪城)군(洪城君)이 노 휘 여명(呂明)이 호화(戶花)이니

스득 좌찬성이요 삼전 휘사진은 절도사요 휘래정 수태 명부 진우이니 그조증조이며
 조약년의 비는 나누나 씨이니 일갑의 나라. 순조 갑오월 유일의 생하고 정축
 사월 삼일에 졸하다. 배는 밀양(密陽)박씨니 증엽의 나라. 무후하고 배가릉최씨
 가 동선의 나라. 남우영과 공의 종손 찬두가 가장을 가지고 와서 나한데 모명을
 청하기를 명을 몸의 범하기를 졸함인 들어나지 아니함을 딱함이니 본위로 편이하
 니 영의지의 뜻을 돌이키니 차동의 들이 있으니 어혹백세의 이갈명이 없지
 양이라.

병인 춘삼월 하한에

인주 장희원

주손 찬병

省菴處士忠州石公墓碣銘 并序

公諱鳳基字舜九自號省菴姓石氏係出忠州高麗上將軍諱鄰其鼻祖也本自中原東來
 仕於毅宗討趙位寵有功擢上將軍封藥城卽忠州舊號也子孫仍貫焉六傳諱良善洪陽
 君鮮韓朝太祖康獻王姨母夫也追封洪陽府院君生之后生諱天乙號香山封洪城君生

諱汝明號花園恭愍王朝官注書太宗徵之以漢城判尹不就遂安置于忠州守義山而卒蓋罔僕之義也後上嘉其義而褒贈之左贊成昌寧木浦齋景義祠兩先生俎豆所也士林崇奉焉三傳諱斯珍端廟朝慶尚右道兵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世祖受禪投紱隱於宜寧石川洞以終餘年後至諱琮宣祖朝官兵曹佐郎值先海政亂隱於星州自號三山再傳諱應生號南州以文學名焉高祖諱鎮宇成均進士號洛坡曾祖諱淳祖諱知榮考諱燦珏配金海金氏奎一女生四男公居其次高宗己卯公生于鍾谷里第姿性精明穎悟受學於伯父小坡公長以從學晚求李先生大溪李先生之門家貧親老晝耕夜讀昏定晨省問衣燠寒至老不衰親沒後家勢稍贍然生前不得孝養於親爲終身之痛或遇異味美服不忍接於口而加於身嗚咽而語曰吾何敢薄於親而厚於己耶是非人子之道也何面目對兩親於九泉之下耶常以是自警焉訓誨子侄嚴立課程每設月朔講藉勤漫施賞罰申之以孝悌忠信之道一門彬彬爾也操身儉約絕意名利優遊於江湖之間臨終戒子曰吾沒之後殮具絕勿用華美之屬是非寒士之本色汝曹慎勿犯戒也辛卯五月二十三日考終於寢享年七十三葬于龍岩面文明山鷄谷巽坐原配順天朴氏碩鉉女醉琴軒後有婦德生於庚辰二月二十一日沒後公二十二年癸丑十一月二十二日葬祔公墓生二男一女男鎬應鎬聖女適崔大興鎬應男龍洙憲洙昌洙正洙女適曹秉和鎬聖二男二女男英洙星

洙女方在均金重先妻曾孫以下多不盡錄日鎬聖氏持家狀一通訪余於荷亭山房謁銘於余曰先人遺謨不可湮沒將收立墓碣敢藉手於吾子其勿愬焉余辭曰不佞庸陋無文且言甚輕盍改圖之耶鎬聖氏年間三往復而請之甚勤不獲已而據其狀而撰繼之銘銘曰

藥城世家其流攸遠時明則顯世亂則遯詩禮傳家持身謹敕日省吾身孝友是則夜則讀書晝務稼穡訓迪後學向導立德遯跡江湖守分飲啄文明之阡衣履所託我銘貞珉庸眎無極

大韓先復後三十一年乙卯至月 日

順天朴 焜 撰

胄孫 龍洙

성암처사 충주석공 묘갈명

공의 휘는 봉기(鳳基)요 자는 순구(舜九)요 호는 성암(省菴)이니 성(姓)은 석씨(石氏)요 관(官)은 충주요 고려 상장군 휘린이 그 시조이다。 본래 중원(中原)으로부터 동으로 와 예종때 조위총을 토평한 공으로 상장군으로 예성(豫省)을 봉하니 곧 충주 구호

하고 명리의 절의하고 강호사이에 우유하더라。 임종시(臨終時)에 아들에게 정제하
 여가로되 내 죽은 뒤에 염두를 절대로 화미한 물건들을 쓰지말라 한사의 본색이 아
 니니 너희들이 삼가히 정제에 범하지 말라。 신묘(辛卯) 오월 이십삼일에 정침(正
 寢)해서 그중(考終)하니 향년(享年) 칠십삼이시라。 용암면 문명산 계곡 손좌에 장
 사(葬事)하다。 배는 순천박씨(順天朴氏)니 석현의 따님이오 취음현 선생(先生)의
 뒤라。 부덕(婦德)이 있었으며 경진 이월 이십일일에 나시고 공이 십이년 제축(癸
 丑) 십일일에 이십일일에 돌아가시니 공묘에 장부함이라。 이남(一男)一女(一女)를 낳
 으시니 남(一男)이 후의(後)의(女)가 최대흥(崔大興)의 딸(女)이오 남(一男)은 현수(顯守) 창수(蒼守) 정수(正守)
 요(一男)는 조병화(趙炳華) 초요(趙杓) 후성(後成)이 남(一男)이니 남(一男)은 수(守) 초(杓) 방재(方在) 관(官) 처
 요(一男)는 손(孫)이 하(下)가 많아서 실지(實地) 알지 못하다。 후성(後成)씨가 가장(最) 한(韓)을 가지고 나를 하정(下正)산(山)방
 에 찾아 명(命)을 청(淸)해 가로되 선(先)인의 유물(遺物)가 히(何)인(因) 멀(멀)치 못(不)하여 장(長)차(車) 묘(墓)갈(去) 새(新)새
 나의 숨(息)씨(息)를 보(保)이니 팔(八)씨(氏)를 말(末)아라。 내가 사(事)양(養)하여 가로되 내가 용(用)두(斗) 무(無)문(文)하여 그
 말이 심(心)히 저(下)우(憂)니 어찌 다른(他)도 모(不)하(知)지 아니(不)하(나) 호(好)성(成)씨가 년(年)간(間)에 세(世)번(遍)이나 왕(王)복(福)
 하여 청(淸)하기를 심(心)히 부(不)지(知)면(면) 하(何)거(何)를 부(不)드(不)리(不)고 자(自)장(將)을 보(保)아 명(命)을 이(以)니 다(多)가 로(로)되
 예(禮)성의 세(世)가가 그(其) 후(後)를 이(以) 멀(멀)디(디)다(다)。 때가 밝(亮)기(氣) 즉(即) 나(來)나(來)고 세(世)상(上)의 어(何)지(何)려(何)려
 즉(即)습(習)스(不)니(不)라。 시(詩)와 예(禮)로 집(集)을 전(轉)하여 몸(身)가 짐(集)을 근(近)친(親)케 함(含)이라。 날(日)로 내(內)몸
 을 살(殺)피(不)니 호(好)우(憂)가 이(以) 법(法)이라。 밤(夜)인(因)즉(即)을 달(達)이(以) 닳(落)니 낮(日)이면(면) 가(稼)穡(穡)을 힘(力)쓰(不)니(不)라。

후학을 후전하여 인도(引導)해 덕을 세우니라. 강호에 자취를 숨겨 분위를 지켜
 은탁하니라. 문명의 두 덕에 이의를 부탁한 바라. 내가 비석에 명을 하여 항상
 다함 없는데 비노라.

대한 광복후 삼십일년 을묘지 월 일

순천 박 황찬

주손 용수

처사석공묘갈명(處士石公墓碣銘)

공(公)의 성(姓)은 석씨(石氏)요 휘(諱)는 진옥(鎭玉)이요 자(字)는 문술(文述)이
 요 호(號)는 도남(道南)이요 상조(上祖)의 휘(諱)는 린(鄰)이요 증화(中華)에서 고
 려(高麗)에 와서 의종(毅宗)때에 적(賊)을 토벌(討伐)한 공(功)으로서 상장군(上將
 軍)으로 예성군(藥城君)을 봉(封)하니 예성군은 즉충주(卽忠州)의 고호(古號)이다 육
 전지휘양선(六傳至諱良善)은 선한태조(鮮韓太祖) 강헌왕의 이모부(姨母夫)니라 흥
 양 부원군(洪陽府院君)에 추봉하고 생휘천(生諱天乙)이요 관(官)은 증랑(贈良)홍성
 군(中郎將洪城君)이요 생휘여명(生諱汝明)은 호(號)는 화원(花園)이요 공민조(恭愍

朝)에 주서(注書)요 태종(太宗)이 특제집현전제학(特除集賢殿提學)으로 소명(召命)
 하시되 응(應)하지 않으니고 두임금을 섬기지 않기로 뜻을 굳혔으니라 삼전(三傳)
 의 휘(諱)는 사진(斯珍)이요 세종조(瑞宗朝)에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요 세조수선
 (世祖受禪)에 벼슬을 버리고 의령석천동(宜寧石泉洞)에 퇴거(退居)하셨다 전지철세
 (傳至七世)하여 휘(諱)는 종(琮)이요 자(字)는 성우(聖佑)요 호(號)는 삼산당(三山
 堂)이니 선묘조(宣廟朝)에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선해정란(先海政亂)에 성주선남
 채동(星州船南釵洞)에 전거(奠居)하셨다 묘(墓)는 채동우외전현자좌원(釵洞右外田
 峴子坐原)에 있고 배(配)는 성산이씨(星山李氏)이니 동원동좌(同原同坐)요 생휘언
 의(生諱彦儀)요 생휘응록(生諱應錄)이요 호(號)는 낙산(洛山)이다 생휘명우명인(生
 諱命佑命仁)하니 증동정증추부사(贈通政中樞府事)이니 무자고(無子故)로 이형자위
 祖)요 고조휘순(高祖諱順)日이요 증조휘내정(曾祖諱來廷)이요 조휘수태(祖諱秀泰)
 요 고휘명복(考諱明福)이요 비(妣)는 진양하씨(晉陽河氏)이니 용택(龍澤)의 여(女)
 라 공(公)이 서기(西紀)一七八七年 무신정월초(戊申正月初)六日 성주군(星州郡) 선
 남면(船南面) 채동(釵洞)에서 나셨다 유시(幼時)로 부터 용모(容貌)가 비범(非凡)하
 고 기우(氣宇)가 준정(峻正)하여 기수연(其粹然)한 화기(和氣)와 용용(雍容)한 모습

이 일견(一見)에 사람을 감동(感動)케함이 있었으며 정직(正直) 그면(勤勉) 성실(誠實)하고 품행(品行)이 단정(端正)하며 출천(出天)의 효행(孝行)임을 세인(世人)들로부터 존경(尊敬)을 받으면서 보시공덕(普施功德)이 크고 넓었음을 알수 있다. 정조(正祖) 무신(戊申) 正月六日에 나시고 서기(西紀) 一八四八年 을유(己酉) 八月八日에 세상(世上)을 뜨시니 묘(墓)는 외전현전좌(外田峴乾坐)요 배나주나씨(配羅州羅氏)는 을묘(乙卯) 四月十八日生이요 신유(辛酉) 三月二十日에 돌아가시니 묘(墓)는 서제동선형계하해좌(書齊洞先瑩階下亥坐)요 상석(床石)을 설(設)하였느니라. 오남사녀(五男四女)를 두었으니 남(男)은 협(浹) 점(漸) 제(濟) 정(靜) 홍(洪)인데 정(靜)은 출사(出系)하였고 여(女)는 성주이인옥(星州李寅郁) 성주이양종(星州李養宗) 함평로상규(咸平魯尙奎) 함안조경성(咸安趙敬星)의 처(妻)이다. 다남다녀(多男多女)를 낳아 키우심은 기로(其勞)가 천고해심(天高海深)이요 만인(萬人)의 칭송(稱頌)이 자자하였음은 하이언재(何以言哉)리요 손준영(孫俊榮)은 학행(學行)이 있고 증손(曾孫) 찬주(燦柱)는 비서승함(秘書承啣)을 받았으며 또한 현손(玄孫) 안기(安基)는 장승선과제응(張承宣果齊翁)으로 부터 배움을 익혔고 기일(基日)은 직행군수(職行郡守)하고 종기(鍾基)는 성품(性品)이 온순(溫醇)하며 일가(一家)에 화목(和睦)하고 오대손(五代孫) 호상(鎬祥)은 유학능수(有學能守)하고 칭송향리(稱頌鄉里)하며 수

신제가(修身齊家)하였다. 명월(銘曰) 고려고가(高麗古家)요 잠영세족(簪纓世族)이라
효우위본(孝友爲本)하고 지성위적(至誠爲的)이라 천보기선(天報其善)하며 비유후록
(不裕後祿)이다. 생순몰녕(生順沒寧)하니 유하척척(有何憾憾)가 황황기적(煌煌其蹟)
이라 서기우재(庶幾于載)에 불민불류(不泯不泐)이라

西紀一九八一年十月日

주손(胄孫) 호룡(鎬龍)

문학박사 성산 이효상 은찬(文學博士 星山 李孝祥 謹撰)

경주 이태형 은서(慶州 李泰炯 謹書)

글 받은 사람 건기 호도(健基 鎬道)

처사석공묘갈명(處士石公墓碣銘)

공(公)의 성(姓)은 석씨(石氏)요 휘(諱)는 진옥(鎭玉)이요 자(字)는 문술(文述)이
요 호(號)는 도남(道南)이요 상조(上祖)의 휘(諱)는 린(鄰)이요 증화인(中華人)으로
서 내우(來于)하여 고려의종시(高麗毅宗時)에 이도적공(以討賊功)으로 상장군(上將
軍)으로 예성군(藥城君)을 봉(封)하니 예성(藥城)은 즉충주고호야(卽忠州古號也)라

육전지(六傳至)하야 이조(李朝)에 諱는 양선(良善)은 선한태조강헌황제이모부야(鮮
 韓太祖康獻皇帝姨母夫也)라 추봉(追封) 홍양(洪陽) 부원군(追封洪陽府院君)하고 생(生)의 휘
 (諱)는 천을(天乙)이요 관(官)은 증랑(中郎)자흥성(中郎將洪城君)이요 생(生)의 휘(諱)
 는 여명(汝明)이요 호(號)는 화원(花園)이요 공민왕조(恭愍王朝)에 주서(注書)요 태
 종(太宗)이 특제집현전제학(特除集賢殿提學)하사되 불취(不就)하고 고수(高守)불사지
 (固守不事之志)하시다 삼전(三傳)의 휘(諱)는 사진(斯珍)이요 단종조(端宗朝)에 수
 군병마절도사(水軍兵馬節度使)요 세조수선(世祖受禪)에 기관(棄官)하시고 퇴거의령
 (退居宜寧)하야 석천동(石川洞)에서 이종(以終)하시고 전지칠세(傳至七世)하야 휘
 (諱)는 종(琮)이요 자(字)는 성우(聖佑)이요 호(號)는 삼산당야(三山堂也)라 선묘조
 (宣廟朝)에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치선해정란(值先海政亂)하야 벽우성주선남재동
 거(辟于星州船南釵洞居)하시다 묘(墓)는 재채동우외전현자좌원야(在釵洞右外田峴子
 坐原也)라 배(配)는 성산이씨(星山李氏)이니 동원동좌(同原同坐)요 주의 휘(諱)는
 언의(彦儀)이요 장손(長孫)의 휘(諱)는 응록(應錄)이요 호(號)는 낙산(洛山)이다 생
 휘(生諱)는 명우(命佑)요 증관통정중추부사(贈官通政中樞府事)이며 이기형지차자(以
 其兄之次子)로 위계(爲系)하니 공(公)에 육대(六代)요 오대조휘기발(五代祖諱起發)이
 요 차손(次孫)의 휘(諱)는 응생(應生)이요 호(號)는 남주(南洲)이다 장손(長孫)의

자(子)의 휘(諱)는 명인(命仁)이요 자(字)는 윤강(允綱)인데 증통정대부점증추부사
 야(贈通政大夫兼中樞府事也)라 육전지(六傳至)하야 진옥(鎭玉) 서기(西紀) 一七八七
 年 무신(戊申)正月初六日 성주군(星州郡) 선남면(船南面) 채동(釵洞)에서 출생(出生)
 하였다. 유시(幼時)부터 용모비범(容貌非凡)하고 기우준정(氣宇峻正)하야 그 수연
 (粹然)한 화기(和氣)와 응용(雍容)한 모습(一見)에 사람을 감동(感動)케함이
 있었으며 정직(正直) 근면(勤勉) 성실(誠實)하고 품행(品行)이 단정(端正)하며 출천
 지효행(出天之孝行)임을 세인(世人)들의 존경(尊敬)받으면서 보시공덕(普施功德)이
 크고 넓었음을 알수있다. 정조무신(正祖戊申)正月六日에 생하고 서기(西紀) 一八
 四八年 을유(己酉)八月八日에 졸(卒)하니 묘(墓)는 외전현건좌(外田峴乾坐)에 안장
 (安葬)하였다. 배(配)는 나주나씨(羅州羅氏)이다. 을묘년(乙卯年) 四月十八日 생이요
 신유(辛酉)三月二十日에 추하니 묘(墓)는 서재동선영계하해좌(西齋洞先塋階下亥坐)
 이요 유상석(有床石)하니라. 오남사녀(五男四女)를 두었으니 남(男)은 협점처사제
 정출계처사홍(浹漸處士濟滯出系處士洪) 여(女)는 성주이인옥(星州李寅郁) 성주리양
 종합평로상유(星州李養宗咸平魯尙奎) 함안조경성(咸安趙敬星) 다남(多男) 다녀(多
 女)를 생장(生長)하심은 노고지심(勞苦之心)이 천고해심(天高海深)이요 만인(萬人)
 의 칭송(稱頌)이 자자(恣恣)하였음은 하이언재(何以言哉)리요 증손(曾孫) 찬(燦柱)

주는 자은(莊)은 참봉(參奉) 겸 비원승(秘院承)하고 현손(玄孫)은 준영(俊榮)은 유학행능(有學行能)성품(性品)이 온순(溫醇)하야 일가(一家)하고 현손(玄孫)은 안기(安基)는 장승선과 제응학(張承宣)과 제응학(齊翁學)하고 기일(基日)은 직행군수(職行郡守)하고 종기(鍾基)는 화목(和睦)하고 오대손(五代孫)은 호상(鎬祥)은 유학능수(有學能守)하고 칭향리(稱鄉里)하야 수신제가(修身齊家)하다

명왈(銘曰)

고려고가(高麗古家)요 잠영세족(簪纓世族)이라 효우위본(孝友爲本)하고 지성위적(至誠爲的)이라 천보기선(天報其善)하야 비유후록(丕裕後祿)이다 생순몰녕(生順沒寧)하니 유하감척(有何憾憾)가 황황기적(煌煌其蹟)이라 서기천재(庶幾千載)에 불민(不泯)불몰(不泯)이라

서기(西紀)一九八一年十月 日

주손 오대손 호룡(胄孫 五代孫 鎬龍)

문학박사 성산 이효상 근찬(文學博士 星山 李孝祥 謹撰)

경주 이태형 근서(慶州 李泰炯 謹書)

글받으신 사람 건기 호도(健基 鎬道)

동산석공묘표(東山石公墓表)

공(公)의 성(姓)은 석씨(石氏)요 관(貫)은 충주(忠州)요 휘(諱)는 호영(鎬永)이요 자(字)는 자원호(子遠號)는 동산(東山)이다 시조(始祖)의 휘(諱)는 린(鄰)이요 고려의 증시(高麗毅宗時)에 자증동래(自中東來)하여 서경평란지공(西京平亂之功)으로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봉예성(封藥城)하니 충주(忠州)의 고후(古號)이다 육전지(六傳至)하여 휘양선(諱良善)이요 이조태조왕(李朝太祖王)의 이모부(姨母夫)이시다 이전지(二傳至)하여 휘(諱)는 여명(汝明)이요 호(號)는 화원(花園)이요 명현(名賢)으로서 고려(高麗) 공민왕시(王時)에 관(官)은 주서(注書)요 이조태종시(李朝太宗時)에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으로 모시려 하였으나 불사이군지지(不事二君之志)로 불취(不就)하셨다 삼전지(三傳至)하여 휘(諱)는 사진(斯珍)이요 관(官)은 병사(兵使)이요 의령석천재(宜寧石川齋)에 향사(享祀)이요 칠세전지(七世傳至)하여 휘(諱)는 종(琮)이요 호(號)는 삼산당(三山堂)이요 선조시관병조좌랑(宣朝時官兵曹佐郎)인데 선해정란(先海政亂)에 기관성주(棄官星州)에 은거(隱居)하셨다 묘(墓)는 채동우의현자좌원(釵洞右外峴子坐原)이다 오세전지(五世傳至)하여 휘(諱)는 기현(奇賢)이요 자(字)는 국로호(國老號)는 동암(東岩)이시니 어공(於公)의 간구대(間九代)라

오대조휘진후(五代祖諱鎮后)는 자경명(字竟明)이요 獎進후학(獎進後學)으로 기임(己任)을 생각(生覺)하셨고 고조휘환(高祖諱渙)은 三十七세(歲)의 中年에 돌아가심에 배유인(配孺人) 전주이씨(全州李氏)께서 탁탁(卓卓)한 열행(烈行)이 있었어서 당시(當時)에 사림(士林)의 천상(薦狀)이 여러번 있으되 매양 나금(那禁)으로 표택(表宅)의 전(典)을 받지 못하여 역세(歷世)로 한(恨)이 그만저만 안하여 공(公)의 윤자(胤子)들이 공(公)의 뜻을 이어 여표의 비(碑)와 각(閣)을 일시(一時)에 이루고 대방가(大方家)의 신태필(信筆)을 받아 천양(闡揚)하였고 증조휘조영(曾祖諱祖榮)이 천성(天性)이 지효(至孝)하여 칠세(七歲)에 조고(早孤)하여 호읍애통(號泣哀痛)을 하고 후정내간(後丁內艱)에 여묘(廬墓)三年하였고 조휘찬하자극언호라파(祖諱燦夏字國彥號洛波)이니 문행(文行)이 있었이 고 고휘(考諱)는 문기자주옥호가은(文基字周郁號稼隱)이니 성품(性品)이 인자(仁慈)하여 흉년(凶年)에 대금대곡(貸金貸穀)하여 구활(救活)이 심중(甚衆)함으로 나라에서 담은(覃恩)을 내려 흥릉(興陵)참봉(洪陵叅奉)을 제수(授)하되 자불거(自不居)하시고 일찍 경전삼두지(耕田三斗只)를 드리 문중빈제(門中賓祭)에 공헌(貢獻)하셨고 비숙인(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부덕겸비(婦德兼備)하여 애객후시(愛客厚施)하여 칭송(稱頌)을 받았사 일남삼녀(一男三女)를 낳으시니 남(男)은 곧 공(公)이시다 서기(西紀)一九〇六年 병오(丙午)七月

十三日 성주삽곡(星州鑄谷)에서 태어나 서기(西紀)一九七一年신해(辛亥)五月二十八
 日 서거(逝去)하시니 바로 고명(高名)하신 석학자(碩學者)하시다 천자온후단정(天
 資溫厚端正)하시며 일찍이 재조(才操)가 뛰어나 제서이정기(濟西李貞基) 공산(公山)송준
 필(恭山宋浚弼) 양선생(兩先生)에게 사사수학(師事修學)하시와 성주유림(星州儒林)
 의 증진(重鎭)었이 되시다 효심(孝心)이 지극(至極)하시와 평생(平生)토록 부모입
 령(父母任令)을 한번도 어긴바가 없다 항상후학교육(恒常後學教育)에 노력(努力)하
 시와 문하생(門下生)이 수십여명(數十余名)인데 공(公)을 위(爲)하여 정모설(景慕
 契)를 설립(設立)하여 매세(每歲)十一月二十日 추모수설(追慕修契)하고 기념사업
 (記念事業)으로 정모장학회(景慕獎學會)를 창설(創設)하여 오명식(五名式)을 시상
 (施賞)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잇음은 특기(特記)할일이라 하겠다 배(配)는 성산배
 씨(星山裴氏)이요 천성(天性)이 온순(溫順)하여 내조(內助)의 부덕(婦德)을 다하였
 다 서기(西紀)一九〇一年 신축(辛丑)十月十七日에 태어나 서기(西紀)一九七六年 병
 진(丙辰)二月 초(初)九日 별세(別世)하였다 묘(墓)는 도성동중리지상록을좌(道成洞中
 里池上麓乙坐)이고 쌍조(雙兆)이다 오남이녀(五男二女)를 두었으니 남(男)은 정수
 (敬洙) 철수(喆洙) 봉수(鳳洙) 완수(完洙) 정수(正洙)요 여(女)는 동래(東萊) 정지옥
 월성(鄭之旭月城) 손진호(孫晋浩)의 처(妻)이요 정수자(敬洙子)에 동원(東元) 동춘

(東春) 동주(東宙) 동한(東漢) 청수자(淸洙子)에 동옥(東玉) 동현(東炫) 봉수자(鳳洙子)에 동림(東林) 동건(東建) 완수자(完洙子)에 우창(宇昌) 용욱(容旭) 정수자(正洙子)정에 동화(東和) 동창등(東昌等) 손자(孫子)十二名과 손녀(孫女) 현숙(賢淑) 영숙(英淑) 현옥(炫玉) 덕현(德鉉) 양숙(良淑) 혜정(惠貞) 유경등(裕卿等) 칠명(七名)이니 양대독신(兩大獨身)에 부진록(不盡錄)함이라 이와같이 흥자손(興子孫)함은 적선지공(積善之功)을 하늘이 급어 살피신 것으로 믿는다 장자(長子) 경수군(敬洙君)은 종중(宗中)과 향구림발전(鄉儒林發展)에 공(功)이 크고 차철수군(次淸洙君)은 부군계승사업대표(父君繼承事業代表)하고 봉수군(鳳洙君)은 교육계투신(教育界投身)이며 완수군(完洙君)은 상업(商業) 성가(成家)하고 정수군(正洙君)은 역사업성가(亦事業成家)이요 특(特)히 손자중현군(孫子中東炫君)은 서울법대(法大) 장학생(獎學生)으로 재학중(在學中)인데 대기지기품(大器之氣品)이있어 자기대성(可期大成)하리라 믿는다 많은 손자(孫子) 손녀(孫女)가 명문(名門)에서 수학(修學)면려중(勉勵中)이니 공(公)의 후선(後先)이 찬연(燦然)하다 동향(同鄉)의 친우(親友)로서 일찍이 공(公)과 교우(交友)하여 의기상통(意氣相通)한바 있어 삼가 이 글을 엮는다

一九七九年

月

日

영남대학교총장 백진 이인기 근찬(嶺南大學校總長 碧珍 李寅基 謹撰)

자경수 철수 봉수(子 敬洙 喆洙 鳳洙)

완수 정수(完洙 正洙)

晦岡處士忠州石公之墓碣銘

公諱南基字膺極號晦岡吾石氏本中州人佐始祖諱鄰高麗毅宗朝以軍功升上將軍封藥城君藥卽忠州子姓之貫焉以此也連世圭組六傳至洪陽府院君諱良善配慶昌翁主永興崔氏爲李太祖從母而兼以鞠養之功有封爵之典又覃恩於其子中郎將諱天乙封洪城君高麗門下注書諱汝明不應太宗親書之召命遂安置忠州守義山而卒入鮮韓有兵馬節度使諱斯珍見先廟受禪退居宜寧石川洞累傳至兵曹佐郎諱琮號三山堂先海朝政亂投紱南下遯于星州之釵洞於公間十三代也高祖成均進士諱鎮宇號洛坡曾祖諱淳祖諱智榮考諱燦求號小坡有文名而長於律詩至今膾炙人口妣水原白氏奎鎮女妣金海金氏志賢女公生于高宗甲申四月十八日金氏出也幼有異質明敏穎悟年十二能誦書經于春宗堂講席談詩驚人出於意表大溪李先生稱詡有將來之望公事父母志

體兼備教門子姪以先於小學近思錄後於通史己酉八月十九日卒享年八十六葬于鍾谷案山原會葬者數百人配玉山張氏基祖之女先公四年辛巳十二月二十一日生而丙戌二月二十二日卒初葬不利移祔于公墓生四男鎬瑄鎬震鎬源鎬崙也章洙年洙清州韓龍憲妻金海金秉龍妻長房出也在洙瑄洙仁洙南平文大羽妻驪興閔炳泰妻二房出也三房季房之後在外國不載根奎相東珪東海曾孫也從孫龍洙持鎬聖所述家狀而來請其貞石之文遂銓次如右俾刻之系之爲銘曰

才可以需世而時于枳棘老死蓬華之下是可惜哉

癸亥二月上瀚

族人 宇楨 撰
長孫 章洙

회강처사 충주석공 묘갈명

공의 휘는 남기(南基)요 자는 응극(膺極)이요 호는 회강(晦岡)이요 석씨는 본래 충주인데 시조의 휘는 린이요 고려 예종조에 군공으로 삼장군이 되고 예성군으로 봉하니 즉 충주의 고후요 충주석씨의 관향이라. 연세 육전지하야 홍양부원군 휘 양선이요 배 정창양주 영흥최씨는 이 태조의 증모이요 겸하여 유양지공으로 봉작(封爵)의 전(典)을 받았고 남들이 휘가 증랑장 천(天乙)에 미쳐 홍성군으로 봉하

고 고려문하주서 휘 여명(汝明)이 태종의 친서 소명을 불응하여 충주 수의산에서 세상을 마친다. 선한(鮮韓)에 들어와서 병마절도사 휘 사진(斯珍)께서 광조수하를 보고 의령 신천동에 퇴함이라. 구전하여 병조좌랑 휘는 종ियो 호는 삼산당이니 광해정란에 벼슬을 버리고 성주 삼곡에 은거하니 공의 십삼대라. 고조 성균진사 휘는 진우요 호는 락파요 증조 휘는 순(淳)ियो 조의 휘는 지영ियो 고(考)의 휘는 찬우요 호는 소파(小破)이시다. 문행이 대진하고 시와 율에 능하여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칭송이 자자하더라. 비(妣)는 수원백씨요 유진(奎鎭)의 여요 비김해김씨는 지현(志賢)의 여라. 공의 생은 고종갑진 사월팔일이니 김씨의 출이라. 어릴 때 부터 남다른 재질(才質)이 있어 명민하고 피오(頗悟)하여 나이 십이세 때에 능히 춘종당(春宗堂) 강석(講席)에서 서경(書經)을 송통(誦通)하고 당시경인(談詩驚찬하시었다. 공이 부모(父母)를 섬기매 지체가 겸비하였고 문중(門中)의 자질(子姪)을 가르침에 있어 소학과 근사록(近思錄)을 먼저하고 통사(通史)를 뒤에 하였다. 기유 팔월 십우일에 졸(卒)하시니 향년(享年) 八十六이라. 삼곡 안산고원에 장사함에 회장자가 수백인이라. 배는 옥산장씨 기초(基祖)의 너라. 신사 十二月二十一日 생ियो 병술 二月二十二日에 졸(卒)하니 조장이 불이하여 공묘(公墓)에 이부함이라. 생사남하니 호선 호진 호원 호륜ियो 장수 년수 청주 한용안 처 김해 김병용양 처는 장방출ियो 제수 정수 린수 남평 문대동 처요 여흥 병태 처는 二방출ियो 삼방외

방지후는 재외국하야 불제라。 근유 근동 동계 동해는 증손이라。 재종손 용수가 호성씨의 소슬한 가장을 가져와서 정석(貞石)의 글을 청(請)하거늘 드디어 여차여우하여 하여금 서기고 이어 명을 가로대 재조가 가히서 세상에 수용이 되리로되 때가 지극이라。 늙어 봉필아래 돌아가시니 가히 애석하다。

계해 二月 上澣

족인 우정찬

장손 장수

處士忠州石公之墓碣銘

公諱燦斗字極五忠州人上世諱鄰在勝國時封藥城君是爲鼻祖也五傳而洪陽府院君諱良善我桓祖姪婿也夫人崔氏以太祖從母有乳養功封慶昌翁主是生諱天乙通訓大夫是生諱汝明崇祿大夫左贊成又三傳而諱斯珍兵馬節度使又三傳而諱琮兵曹佐郎自三嘉移居星州其後諱鎮玉濟曾祖祖考諱仁榮妣東萊鄭氏耆臣女生公于高宗戊辰十月十三日天性寬厚氣度和平廓然無邊幅粹然一出於性而非知巧造作所可彷彿者也公昆季四人公居最長衣食寒暖共之尤謹於奉先之節雖耆耆之年必躬檢祭奠早年

幹家雖不及大肆力於學問而少業程文且晚而喜看禮說嘗曰冠婚喪禮之大者咀爵得
 意味體之身心平生清儉自守衣服飲食只是充蔽而已乙亥五月二十七日卒葬月恒面
 龍角洞柳谷之良阡配金海金氏判書公後俊永女有婦德卒壬午祔公之墓左男安基女
 李基元鄭明和安基男女鎬俊鎬貞朴和植朴庭植李男陽鐸載錫渭錫鄭男龍煥駿煥俊
 男女魯洙衛洙晋浩夫洙鄭守容李來福鄭龍雲貞男女東洙達洙晋洙李文圭鄭南基日
 安基踵門而告余曰知吾先君莫如公也遺風漸邈懼夫愈久而泯跡無徵方伐石以安隧
 道願公假一言銘之遂不辭而銘曰

樂彼丘園有書有農我讀我耕聊而自終載贏于茲有子有孫繩繩百代庶幾無諼

庚子清明節女婿

西原 鄭明和 謹撰

처사 충주석공지 묘갈명

공(公)의 휘(諱)는 찬투(燦斗)요 字는 극오(極五) 충주인(忠州人)이요 상조(上祖)
 휘(諱)는 린(鄰)이요 재승극시봉예성군(在勝國時封藥城君)하니 시비조야(是非祖也)
 라. 오전(五傳)하야 홍양부원군(洪陽府院君) 諱는 양선(良善) 아환조(我桓祖)의 아

서야(姪婿也)라。 부인(夫人) 최씨(崔氏)는 이태조(李太祖)의 종모(從母)이신데 유양
 지공(乳養之功)이 유(有)하여 봉경창응주(封慶昌翁主)하였다。 시생(是生)에 휘천(惠
 諱天乙)이요 통정대부(通政大夫)이시다。 시생(是生)에 휘(諱)는 여명(汝明)이요 승
 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이시다。 우삼전(又三傳)하여 휘(諱)는 사진(斯珍)
 이요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이시다。 우삼전(又三傳)하여 휘(諱)는 종(琮)이요 병조
 좌랑(兵曹佐郎)이신데 삼가(三嘉)에서 성주(星州)로 이거(移居)하시었다。 기후(其
 後) 휘진옥제(諱鎭玉濟)는 증조(曾祖)의 조(祖)이요 고(考)의 휘(諱)는 인영(仁榮)이
 요 비(妣)는 동래정씨(東萊鄭氏) 기신녀(耆臣女)이요 공(公)은 고종(高宗) 무진(戊辰)
 十月十三日에 생(生)이요 천성(天性)이 관후(寬厚)하고 기도화평(氣度和平)하여 꺾연
 무변(棼棼)일출(廓然無邊幅粹然一出)이요 성품(性品)이 지교조작(知巧造作)이 아니
 고 타고난 천품(天品)이시다。 공(公)의 형제(兄弟)가 사인(四人)인데 공(公)이 만
 형(兄)이신데 의식한나(衣食寒暖)를 같이하고 삼가히 봉선지절(奉先之節)하고 노년
 (老年)에도 필(必)히 제전(祭奠)을 몸소 검(檢)하였다。 조년(早年)에 가사(家事)를
 맡아 불급대사(不及大肆)하여 힘써 공부(工夫)하여 소시(少時)에 정문(程文)을 업
 (業)하고 또 만년(晩年)에 예설(禮說)을 좋아하고 관훈상례지대자(冠婚喪禮之大者)는
 씌고 또 되새겨 몸소 닦았다。 평생(平生) 청검자수(淸儉自守)하고 의복음식(衣服飲
 食)은 간소하였다。 기을해(己乙亥) 五月二十七日에 졸(卒)하셨다。 장지(葬地)는

월항면(月恒面) 용각동(龍角洞) 유곡지간천(柳谷之良阡)이오 배(配)는 김해김씨(金海
 金氏) 판서공(判書公) 후준영(後俊永) 여(女)요 유부덕(有婦德)하고 졸임오(卒壬午)
 하니 부공지묘(祔公之墓) 좌(左)하다. 남(男)에 안기(安基) 여(女)에 이기원(李基元)
 정명화(鄭明和)요 안기(安基) 남(男)에 호준(鎬俊) 호정(鎬貞) 여(女)에 박화식(朴和
 植) 박정식(朴庭植) 이남양(李男陽) 탁재(鐸載) 석위(錫渭) 석(錫) 정남용(庭男龍) 환
 준(煥俊) 남(男)에 노수(魯洙) 위수(衛洙) 진호(晋浩) 광수(光洙) 여(女)에 정수용(庭
 守容) 이래복(李來福) 정용운(庭龍雲) 정남(貞男)에 동수(東洙) 달수(達洙) 진수(晋
 洙) 여(女)에 이문규(李文圭) 정남기(鄭南基)요 일(日)에 안기(安基)가 나에게 찾아
 와서 왈(曰)하되 우선군(吾先君)을 공(公)과 같이 아는 분이 없도다. 유풍점막구부
 유구(遺風漸邈懼夫愈久)하여 민적무징방벌석이안수도원공가일언명지수불사이명왈
 (泯跡無徵方伐石以安隧道願公假一言銘之遂不辭而銘曰) 악피구원유서유농아독아경료
 이자종재영(子宗재영)자(子)자(子)손(孫)승(承)백(伯)대(代)서(子)기(君)무(無)환(緩)
 茲有子有孫繩繩百代庶幾無緩)

경자 청명절(庚子 清明節) 여서(女壻)

서원 정명화 근찬(西原 鄭明和 謹撰)

노수근서(魯洙 謹書)

장손노수(長孫魯洙)

忠州石公墓碣銘

從吾遊者石君安基錄其大父諱仁榮字德重遺事謁余曰大父天稟聰穎甫成童有長者風度竭力耕田孝養父母家無餘粟而甘旨不乏從外得一味必歸獻父有一弟飢飽寒煖共之性清素不喜華靡口不言財利寬重簡默教子姪有道雖犬馬未嘗以惡口加好善如芻豢惡惡如惡臭寒者解衣衣之飢者推食食之蓋其樂善好義天性也此王父之疎節也方治墓石願賜一言以銘按其世自忠州移星州鼻祖高麗藥城君諱鄰五傳而良善洪陽府院君其夫人以我太祖從母有乳養功封慶昌翁主是生通訓天乙是生左贊成汝明又三傳而斯珍慶尚右兵馬節度使曰鎮玉曰濟祖若考也東萊鄭先宇外大父也生景陵乙巳卒太上乙巳葬龍巖之龍亭艮阡鄭氏配合祔也男燦斗燦文燦璣燦坤女仁同張極祥安基星山李基元清州鄭明和斗男女天基文男正基得基成基璣男萬基龍基定基坤男鎬俊鎬貞咸陽朴和植庭植安基男女魯洙衛洙晋浩夬洙清州鄭守容全州李來福瑞山鄭龍雲鎬俊男女東洙達洙晋洙鎬貞男銘曰

仲尼嘗言十室之有忠信人吾以謂石德重其人其墓以遺其嗣人

崇禎五庚申季夏

仁州 張錫英 撰

己亥仲夏

京山 李相虔 書

玄孫 魯 洙

충주선공 묘갈명

나의 문하생(門下)인 석군(石君) 안기(安基)가 기(其)의 대부휘(大父諱)는 인영(仁榮) 자(字)는 덕중(德重) 유사(遺事)를 기록(記錄)하여 나에게 와서 가로되 대부(大夫)의 천성(天性)이 총명(聰明)하고 어릴때부터 장자(長者)의 풍도(風度)가 유알(有謁)하였고 갈력경전(竭力耕田)하여 부모(父母)에게 효양(孝養)하였으며 가빈(家貧)하였으나 감지불핍(甘旨不乏)하였고 밖에서 일미(一味)를 득필(得必)하면 반드시 집으로 가져와서 부귀(父歸)에게 바쳤다. 유일제(有一弟)하였는데 기포한난(飢飽寒煖)을 같이하였다. 성품(性品)이 청소(淸素)하여 화미(華靡)를 좋아하지 않았고 재리(財利)를 불신(不言)하고 관중간묵(寬重簡默)하여 자질(子姪)을 교육(教育)시키는데 도(道)로서 하였다. 비록 견마(犬馬)라 할지라도 악(惡)으로 하지 않고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은 악취(惡臭)와 같이 싫어하였다. 추울 때 헐벗은 자(者)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者)에게 먹이를 주었으니 그것이 악선호의(樂善好義)하는 천성(天性)이요 이것이 왕부지소절(王父之疎節)이다. 이제 묘석(墓石)을 치(治)하매 원사일언(願賜一言)하고 명(銘)하니 안(按)하건대 기상세(其上世)는 충주(忠州)에서 성

주(星州)로 이거(移居)하였고 상조(上祖)는 고려(高麗) 예성군(藥城君) 휘(諱)는 린
 (鄰)이요 오전(五傳)하여 양선(良善) 홍양부원권(洪陽府院君)이요 기부인(其夫人)은
 이래조(李太祖)의 종모(從母)이신바 유유양공(有乳養功)으로 경창옹주(慶昌翁主)로
 봉(封)하였는데 시생(是生)에 통훈천을(通訓天乙)이요 시생(是生)에 좌찬성여명(左贊
 成汝明)이요 우삼전(又三傳)하여 사진(斯珍)이요 경상우병마절도사(慶尙右兵馬節度
 使)이시다. 조(祖)는 진옥(鎭玉)이요 고(考)는 제(濟)이시다. 동래정선우(東萊鄭先
 宇)는 외조(外祖)父이다. 경릉을사(景陵乙巳)에 생(生)하여 태상을사(太上 乙巳)에
 졸(卒)하셨다. 장지(葬地)는 용암면(龍巖面) 용정간천(龍亭良阡)인데 배정씨(配鄭
 氏)는 합부(合祔)이다. 남(男) 찬두(燦斗) 찬문(燦文) 찬기(燦璣) 찬곤(燦坤) 여(女)
 에 인동(仁同) 장극상(張極祥)이요 안기(安基) 성산(星山) 이이기원(李基元) 청주(淸
 州) 정명화(鄭明和)는 두남(斗男)의 여(女)요 천기(天基)는 문남(文男)이요 정기(正
 基) 득기(得基) 성기(成基)는 기남(璣男)이요 만기(萬基) 용기(龍基) 정기(定基)는 곤
 남(坤男)이요 호준(鎬俊) 호정(鎬貞) 함양(咸陽) 박화식(朴和植) 정식(庭植)은 안기
 (安基) 남녀(男女)요 노수(魯洙) 위수(衛洙) 진호(晋浩) 쾌수(夬洙) 청주(淸州) 정수
 용(鄭守容) 전주(全州) 이래복(李來福) 서산(瑞山) 정용운(鄭龍雲)은 호준(鎬俊) 남녀
 (男女)요 동수(東洙) 달수(達洙) 진수(晋洙)는 호정(鎬貞) 남(男)이요 명월(銘曰) 공
 자(孔子)께서 상언(嘗言)하시대 십가구(十家口) 살면 유충신인(有忠信人)이라 하셨는

데 오석(吾石) 덕중(德重)이 바로 그러하다. 기인(其人) 기묘(기묘)라. 영원(永遠)히 기자손(其子孫)에 유(遺)하리라.

승정요정신 제하

인주 장석흥 찬(仁州 張錫英 撰)

기해 증하

경산 이상호 서(京山 李相虎 書)

현손 노 수(玄孫 魯 洙)

春陽亭記

晉陽治西十里許集賢之鄉有里曰新塘原野平曠有山窿然起中宛如島嶼出海而盤紆回護南向成洞府里實處於其中而藍江之水縈帶于前月華之山掩映爲案精彩凝聚而擅名區於一方在昔趙知足先生世家其地近古以還石氏實居之而皆祖同中樞諱文福蓋同樞公先有兵使斯珍當端宗遜位之際解官南下居宜春之石川至同樞公之六世孫樛泉崙洪出贅趙家始寓是里其後爲同樞公之後者漸次隨居生齒日蕃至今彌滿一街焉近歲諸石氏相與起一屋里中擬供歲事資月會旣成顏之曰春陽亭所以不忘舊居而明其自宜春移晉陽也間嘗介人請記于余余謂新塘之爲里人文宣揚而著自古先則可知其爲吉地矣石氏之居此世不綿遠而門日戶張乃能成此輪奐之室而蘋藻供蠲花樹

叙情薰薰焉和氣暢越可謂得地運之呈祥矣人莫不擇處吉地而惟其得之者鮮焉是非用智力而強求得之豈非秉其昌運之將至不期於必得而偶有所自致也耶然則石氏其自幸於其居之得吉無暇復戀於舊居而猶乃懷桑梓之念至寓其常目而矢之不忘是於所謂樂樂其所自生禮不忘其本者有所庶幾矣夫人事之與地運自相感應苟人事之不修則地雖得吉而不可望其發運也今石氏旣得於禮樂之意則亦於人事有所修之矣如能因此而廣其所修隨時隨處而無不用其禮樂之意則吾知其地運之益呈其祥將至如物之發生於春陽者竟見其蕃茂暢達矣豈僅止今日之先景已哉余旣嘉石氏之得於禮樂之意故不辭其請而爲是說以勗之是役也甲熙主其務而仁熙元熙楨萬楨千共相之云

孔子二千五百二十三年壬子元春日

道州 金弼鎬記

추안양정기

진양치서 십리밖에 집현의 구름에 마을이 있어 신당이라 들판이 평광하고 산이
 단독히 일어나 나침이 바다에 나옴과 같으니라. 남으로 이뤄진 동부가 그 가운데에 있
 어 남강(藍江)의 물이 앞에 들렸고 월화산이 안배가 되어 정채가 모여서 일방에 명

구(名區)라 이름이라. 옛적에 조지족 선생(先生)이 그곳에 대세로 있었는데 증근에
 石씨가 있었으니 다 증추공(中樞公) 휘 문복을 조상으로 하니 증추공의 선대에 병
 사 휘 사진단 증손위때에 벼슬을 버리고 의춘 석천에 계셨고 동추공의 육세손(六世
 孫) 구천은흥께서 조가에 출취하여 처음으로 의동리에 있었으니 그 뒤에 동추공의 후
 손(後孫)들이 점차로 따로 살아 생치가 날로 번성(繁盛)하여 이제 한마을의 참이
 라. 묘사의에 모든 석씨가 한 정자(亭子)를 동중(洞中)에 세워 세사와 월회를 하고
 이미 이름의 춘양정(춘양정)이라 함이다 그의 춘이로부터 진양(晉陽)에 옮김을 밝힘이
 라. 일찍이 사람을 소개하여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請)하거늘 내가 이르기를 신
 당 동리의 임무이 선양하여 옛적부터 드러나니 가히 그 좋은 곳임을 알리라. 석씨
 (石氏)가 의동리에 삼이 대수가 그리 멀리 않은데 문호(門戶)가 창성(昌盛)하여 이
 에 능히 이와 같으니 좋은 집임을 이뤄 세사를 잘 모시고 일가 증조들이 정의를 배풀어
 후한 화기가 창열하니 지인들을 얻었다 하리라. 사람들이 길지를 가리지 않으니 이
 가 없으니 되던니 이가 적으니 이가 지력(知力)으로 강구(強求)치 못하고 은수를 타서
 우연(偶然)히 이런 바가 아닌가. 그런데 석씨는 좋은 땅을 얻기도 여가함이 없던
 데 다시 옛적 고향(故鄉)을 생각하여 항상 늙을 부쳐 잊지 않음을 맹서하니 이가
 예의 그 은본을 잊지 않음이 아나. 인사가 지인들을 더불어 서로 감응함이이니 인사
 를 닦지 않으니 즉 비록 좋은 땅을 얻이나 가히 그 발함을 바라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석씨는 이미 예의 뜻을 얻어 또한 인사의 뒤은 바 있어 능히 이로 인하여 그 뒤는
 바를 높이면 내가 그 지음이 더욱 그 상스러움을 드림이 물이 춘양에 발생함과 같
 아 마침내 그 번성하고 창달함을 보리라. 어찌 음일(今日)의 광정(光景)에만 그치
 고 말 것인가. 내가 이미 석씨의 예의 뜻을 얻음을 아름답게 여겨 그 청을 사양하
 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해서 이 연사에 도음을 하노라. 그 연사에 주장한 사람은 갑
 희고정천이 한가지 도왔다고 이르더라.

공자 이천오백 이십삼년 임자 원춘일

도주 김필호 기

春陽亭銘

晉陽之東新塘之里有忠州石氏居焉近年方爲亭其側而扁曰春陽謂其中世來自宜春
 著於記文者其意已詳備矣乃復請余爲之銘

春和陽休萬物同仁順是爲德繇天及人登斯亭也仰瞻扁揭追感故先能無惕厲維石之
 氏遠有來歷炫耀譜乘下待放籍節度同樞爰暨膠泉辭榮種德遺後寔繁始自宜春宅此
 汾陽原四每每里曰新塘乃立一亭倣古齊閣歲事月會于焉成適同春花樹抵陽是根歸

厚有道俾也敢爰我其銘之以警厥初凡爾後人視此元符

義城金梶題

춘양전명

봄이 화하여 빛이 아름답다음에 만물과 만물이 함께 받아들임이라. 순함이 덕이 되니 하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까지 믿느니라. 이 정자에 올라 조용히 편안을 보아라. 옛 선대를 추감함에 능히 천애함이 없겠는가. 오직 석씨는 멀리 내력이 있음이라. 보수(譜垂)에 현오(顯曜)함이로다. 절도공이며 동추공이요 이에 구천에 이르러 영화(榮華)를 사양하고 덕을 수감이라. 뒤에 금침이 참으로 번성(繁盛)하니 처음에 의춘으로부터 진양(晉陽)에 집을 하였느니라. 들판이 늘었노 한대 동명을 신당이라 함이라. 이에 한 청자를 세워 애써 재각을 이방하여 세사와 월화에 이에 적당(適當)함을 이름이라. 봄을 한가지 하는 화수의 의양의 근본이 다름이니라. 두터운대로 돌아감의 있으니 하여금 의에 용감히 하리로다. 내가 그 명을 하여서 그 처음을 깨우치니 무릇 후 사람들이 이 원부를 보라.

의성김황지음

樛泉亭記

晉治之北十里許에 突兀 一山이 起伏於 平原 廣壤之中 하니 恰如 海洋之 島嶼에 眞是 別
 界矣 斗就 其幽邃 而成 洞府 하니 修撰 尹公 斗知 堂趙公 斗台溪河公 諸賢이 相繼 出於
 此故 斗新塘之名이 顯於 江右焉 이 斗由 洞府 右旋 而迴에 有一株 樛木이 不知 幾劫 風霜
 而 軀幹이 甚厚 大하고 枝葉이 尚峻 茂하고 傍有 冽泉 하여 旱不 涸雨 不溢 하고 孔道 所經
 이 在其 下而 接於 列郡之 境에 凡車馬 負載 而往來 者 日常 絡繹 不絶 하고 農圃 四面에 耕
 耨之人이 亦多 其數 斗方 春夏 之際에 黃塵이 滿地 하고 炎氣 蒸天에 使行 而倦者 斗耕而
 勞者 斗休息 焉 解渴 焉 하니 此 樛泉之 利洽 於人이 大矣 斗然而 斗非 一人之 所有 故 斗守
 護 不謹 하여 樛木이 被恠 漢輩 刀鉅之 患則 冽泉이 隨而 變矣 斗由是 斗倦 不得 休하고 渴
 不得 解하여 怨訾之 聲이 不絶 於行 倦耕 勞者之 口 하고 幾月 之內에 牛馬之 暴斃이 不知
 其數 하고 壯丁 摧敗者 至於 八九 하니 居人이 疑懼 驚惶 焉 이 斗時에 石公 諱泰崙이 謂洞
 人曰 百年之 木 斗不可 輕伐 이 斗而 况不知 幾經 劫之 木乎 아 乃 率先 入於 百餘里 深山 村
 하여 募一 株 樛木 하여 更樹 之於 故處 하고 沐浴 齊戒 하고 封之 甚安 하고 水之 以時 하여
 樛得 而生 하고 泉清 而還 하고 里閭이 安靜 하고 負載者 耕耨者 出於是 道是 野者 更得 前

日休息解渴之所하여贊譽之言이藉藉焉이라當時一方知名之士從公遊者題詠이多
至卷軸하고居人이不忘公久而誠勤하여以膠泉으로號焉而契焉而追慕焉云爾라公
沒後百有餘年에其孫俊熙大熙二君이與其諸從으로合謀鳩財하고捐契金一部하여
肯構亭于春陽一隅하니盖其意가從其伯元熙君之遺志也어라亭旣成에問記於余어
늘余在同宗之誼하여以不文으로不辭하고記其首未如右함이니라

歲在壬戌九秋에

宗下 宇楨記

규천정기

진주 치북(晉州治北) 십리밖에 오득한 산이 평원 광양의 가운데 일어나 해양의
도서와 흡사하니 참으로 이별제라。 그 유수한 곳에 동부를 이루니 수찬 윤공과 지
족당 조공과 래기 하공등이 제현이 이어서 이에 나심으로 신당의 이름이 우도에 들어
남이라。 동부로부터 오른쪽을 돌아 한 폭의 구름이 있어 몇 백년(百年)을 지났는
지 알지 못하되 체간이 심히 후대하고 지엽(枝葉)이 무성(茂盛)하고 결에 열천(冽
泉)이 있어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장마에도 넘지 않으며 큰 길이 그 아래 있어
여러 고을 지경에 닿으매 무릇 차마와 지고 이고 왕래하는 사람이 날로 낙역 부절

하고 농포사면에 갈고 매는 사람이 또한 그 수가 많은지라. 춘하매에 황진이 만지
 하고 염기가 증천하매 행하기를 느슨한 자와 행성스른자로 쉬기도 하고 해갈케 하
 니 이 유천의 이인의 사람의 흠족함이 큼이라. 그러나 한 사람의 소유(所有)가 아
 니니로 수호함이 불은하여 유목의 괴한 배의 도기의 의환을 임임이 즉 열천이 따라
 변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얻어 쉬지 못하고 얻어 해갈을 못하니 원자의 소리가 길
 가는 사람이 나 들의 일하는 느슨로 자들로부터 그 침이 없어 기월안의 우마의 폭필이
 그 수를 알지 못하고 장성 취패자도 팔수에 이르니 거인의 이수경항하리라. 때에
 석공 휘 태륜이 동리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백년의 나무도 경벌(輕伐)치 못함인데
 하물며 몇 백년을 지낸 나무이겠나. 이에 술선해서 백여리(百餘里) 심산촌에 들어
 가 한 폭의 유목을 사서 다시 옛곳에 심고 목욕재제하고 봉지삼안하고 물을 대고
 하여 유목이 살니 샘물이 맑아 이간이 안정하고 부대자나 경루자가 이 길과 이들
 에 나으는데 다시 천날의 후신해 갈할바를 얻어 찬여의 말이 자자하였더라. 당시
 일방의 지명지사가 공을 좃아 노는 자제영의 원축에 이르니 거인의 공의 우태도록
 선은함을 잊지 못하여 호를 하고 계를 모으고 추모(追慕)하였다고 이르니라. 공의
 돌아가신 후 백여년(百餘年)에 그 손자 준희문의 두 사람이 그 체종과 더불어 의
 루하여 재물을 모으니 그 체금일부를 덜어 정자를 춘양 한 모퉁이에 세우니 대개 그
 뜻이 그 백행원희구의 유지를 좃음이라. 정자를 이미 이 립의 기문을 나에 게 묻거

늘 내가 동종의 의 있어 불분으로 사양치 않고 그 수말을 기록하니 위와 같음이니
라。

새재 입술 구추

증하 우정 기

石孝婦河氏紀蹟碑

孝婦姓河氏貫晉陽高麗忠臣諱拱辰其始祖也本國宣祖朝儒臣縣監竹軒先生諱惺其中祖也近故海山處士諱慶休以學行著其父也氏生長名家採染有素壺儀早成年十七歸忠州石楨載兵馬節度使斯珍之后也氏入門事舅姑極孝待君子以禮舅姑俱性嚴氏先意承順庭無不穩聲隣人稱其懿範尊舅偶得難醫之病四載床褥克誠克孝調治之方無所不用其極家後山峽問掘新井每子夜沐浴禱天終不獲佑而遭大故則喪葬自盡誠禮以致無憾累年侍湯之餘又當巨創家力漸至獲落然而惟勤職事小無不堪之憂闕制後其夫出外累年未還氏奉老率穉生計無路賃舂傭績不憚勞苦惟養姑爲誠姑嘗患髮底吮而愈之又以鬱大症夜中躍出而卒倒致命氏吞冰溫幼接口垂涎頃之還蘇姑泣而言曰靡爾我將疇依而爲命姑婦相慰相憐上安下順不知飢寒之砭骨氏以其夫存亡未

詳悠悠一念寤寐難捨然恐傷其姑憂憾之容不見於外中心祈禱神明者經九載而其夫竟還然亦以眼疾不能視物者累年辛苦而卒以若氏之貞志當殉節於屬纊之夕而念老姑在堂侍奉無子含冤忍痛尤致孝謹嗚呼噫矣氏之事姑五十二年未嘗一夜私室異居何其至也陶靖節先生贊王侯卿士庶五孝曰彼養以祿我養以誠殆若謂氏之孝乎里有賞餽官有褒狀是亦秉彝之衷有所欽尚而然也豈不偉歟歿後其子甲熙痛慕母之懿蹟恐遂泯沒無傳叙述事行介吾族鍾煥來告於余余非能言者烏敢當是寄然是孝子事也不忍牢辭畧書其槩使之鐫石而立於閭前以資異世觀風者式焉

晉陽 河貞根 撰

석효부 하씨 기적비

효부(孝婦)의 성(姓)은 하씨(河氏)요 관음(觀音) 진양(晉陽)이라. 고려충신(高麗忠臣) 휘공진이 그 시조요 본국(本國)선조조 유신현감 즉허선생 휘성이 그 증조요 그고 해산 처사 휘경걸이 학행으로서 나타나니 그 부친이니라. 씨가 명가에서 생장하 여 유염이 있어 근의가 일찍이 이루어 나이 십칠에 충주(忠州) 석정재에게 우귀하니 병마절도사 휘사진의 후라. 씨가 구고 섬기기를 극히 효도(孝道)하고 군자(君子) 대하기를 예로서 함이라. 구고(舅姑)가 다 성품이 엄하되 씨가 윗사람의 뜻을 이

어 순탄케 하니 뜰에 항상(恒常) 화기가 도니 이웃사람들이 그 이름을 일컬어 이르다. 존구(尊舅)가 우연히 고치기 어렵단 말을 얻어 사년 상육에 극히 정성하고 효도(孝道)하여 조처의 방법(方法)이 그 지극(至極)함이 아님이더라. 집 뒤 산협간에 새 샘을 파고 매양 밤중에 묵욕 기도(祈禱)하여 마침내 도읍을 얻지 못하고 대고를 만남이즉 상장애 성의를 다하여 죄음세가 없이하니 누년 시탕(侍湯)한 나머지 또한 거창함을 다함애 집안 형세(形勢)가 점점 험난하였으니 오직 직사에 부지런히 하여 조음도 불감의 근심이 없더라. 상체를 마친뒤에 그 가장이 밖에 나가 여러해 돌아 오지 않으니 씨가 어른을 모시고 어린이를 기르 생계가 길어 없어 방아판을 들이고 길쌈을 하여 노고를 가리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정성껏 함이라. 시어머니가 일찍 발저를 앓음에 빨아서 낮게 하고 또 물을 화증으로 밤중에 뛰쳐나가 졸도치 명함에 씨가 일음을 먹으며 녹여 입을 대여 춤을 기리니 조음 뒤에 깨어나서 울며 말하되 네가 아니면 내가 뒤를 의지(依支)하여 살겠느냐. 고부(姑婦)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여쁘게 하여 위가 편하고 아래가 순하여 기한 이골수에 짙음을 알지 못하더라. 씨가 그 가정(家庭)의 존망을 알지 못하여 유유일일이 오매 난사이나 그러나 시어머니가 상심이 될까 하여 우천의 일들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만신명에 기도함이 누년을 지내니 그 가장이 마침내 돌아왔으니 그러나 또한 안질로서 능히 물건들을 보지 못함이 누년(累年)을 신고(辛苦)하다 돌아가시니 씨의 정지

로 속광하는 저덕에 순절할지라도 노고가 당에 있어 시봉(侍奉)할 자식이 없음을 생각(生覺)하여 함인을 통하여 더욱 효순함을 이루더라. 장하다. 씨가 시어머니를 섬긴 오십이년에 일찍이 하루밤도 사실에 따르지 않았으니 어찌 그 지극함이 아닌가. 도련명의 왕후 경사서 다섯 효를 찬성(贊成)하여 가로되 저는 록이로서 기르면 나는 정성(精誠)이로서 기르면 다 못씨와 같은 효를 이룸인가. 마을에 상비가 있고 괴에 포상이 있거든 이가 또한 병의험상한 바 있음이 아닌가. 어찌 장하지 아니하나. 몰후에 그 아들 갑희가 어머니의 아름다운 행적이 드디어 민몰(泯沒)해서 전함이 없을까 하여 사행을 서술하여 내일가 종환을 소개하여 나에 게와 그하거늘 내가 능언한 자가 아니라 어찌 감히 이 부탁을 맡으리요. 그러나 이 효자의 일이라 차마 굳이 사양치 않고 대략 그 대개를 써서 돌에 새기어 거리앞에 세워 저 판 세상(世上)의 보고 법함을 자리하노라.

진양 하정은 찬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忠州石公墓碣銘

朝鮮石氏之先中州人宋高宗時有諱鄰避遼金來東仕高麗明宗十七年以討平西京立

不世之功升上將軍食采藥城藥卽忠州子姓仍貫焉五傳至洪陽府院君諱良善配慶昌翁主永興崔氏爲韓太祖從母而兼有乳養功故特蒙封爵之典生諱天乙官中郎將洪城君生諱汝明恭愍朝甲寅文科官門下注書麗社屋韓太宗以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特下親書而召之守罔僕義牢拒不應遂安置于忠州回文洞守義山而卒後贈崇祿大夫左贊成後有諱斯珍官兵馬節度使莊陵遜位棄官南下隱居宜春之石川於公間九世曾祖諱仕彥祖諱宗厚自三嘉奠居安東遂爲安東人考諱一夏妣東萊鄭氏生二男曰命國命錫公其長也慶浩其字也英祖八月二十六日其生也崇政大夫其官階也同知中樞府事其壽職也享一百有六年己亥九月一日其卒也安東郡豐山面下里東飛蛾山先塋下癸原其葬也淑夫人安東金氏性一女其配也後公六年庚申其生也先公五十年己未十一月二十六日其卒也墓其雙兆也三男學秀學惠俱通德郎學遜出系達祿達福禹斗鉉妻長房出也達祥金玉淳妻金泗根妻次房出也達禎達祐出系男出也曾玄以下不錄今其後孫合謀治一石將豎于阡道囑余墓文遂銓次如右系之爲銘曰

是惟中樞公之幽宅也所謂三達世不多得焉後之人慕公者必式于飛蛾山下路側也

宗人 宇楨 謹撰

가선대부 동지증추부사 증주성공 묘갈명

조선(朝鮮) 석씨(石氏)의 선조(先祖)는 증주인(증주인)이라. 송고종시에 휘린(이요음을) 피하여 동에와 고려(高麗)에 벼슬하고 명종 십칠년에 서경(西京)을 토평(討平)하여 불세의 공을 세운 고로 상장군(上將軍)에 오르고 예성을 식채(食菜)하니 예성(은) 곧 증주라 자손이 관향하였느니라. 오천하여 홍양군(洪陽君) 휘 양선(배경창)은 증주 영흥최씨가 한태조(韓太祖)의 종모(從母)가 되고 겸하여 유양한 공이 있느니라. 특별(特別)히 봉작(封爵)의 전을 입고 휘 천을(天乙) 관총랑장 홍성군(洪城君)이 요생(휘) 여명은(은) 공민(은) 갑인(甲寅)에 문과(은) 관문(은) 하주(은) 서(은) 여(은) 사(은) 옥(은) 에 한 태종(은)이 검교(은) 한성(은)尹(은) 집현(은)전(은) 제(은)학(은)으로(은)서(은) 특별(은)히(은) 친(은)서(은)를(은) 내려(은) 부르(은)되(은) 망(은)복(은)의(은) 의(은)를(은) 지(은)쳐(은) 군(은)개(은) 향(은)거(은)하여(은) 응(은)하(은)지(은) 아니(은)하니(은) 드(은)디(은)어(은) 증(은)주(은) 회(은)문(은)동(은)수(은)의(은) 산(은)에(은) 안(은)치(은)하여(은) 즐(은)함(은)이(은)라(은). 승(은)록(은)대(은)부(은) 좌(은)찬(은)성(은)崇(은)祿(은)대(은)夫(은) 左(은)贊(은)成(은)을(은) 증(은)하고(은) 뒤(은)에(은) 휘(은) 사(은)진(은)은(은) 관(은) 명(은)마(은)절(은)도(은)사(은)니(은) 장(은)은(은)손(은)위(은)에(은) 벼(은)슬(은)을(은) 버(은)리고(은) 남(은)으로(은) 내(은)려(은)와(은) 의(은)춘(은) 석(은)천(은)에(은) 은(은)거(은)隱(은)居(은)하니(은) 공(은)공(은)公(은) 구(은)세(은)조(은)九(은)世(은)祖(은)라(은). 증(은)조(은) 휘(은)는(은) 사(은)언(은)이(은)요(은) 조(은)휘(은)는(은) 증(은) 후(은)니(은) 삼(은)가(은)로(은)부(은)터(은) 안(은)동(은)에(은) 전(은)거(은)하니(은) 드(은)디(은)어(은) 안(은)동(은)사(은)람(은)이(은) 되(은)었(은)느(은)니라(은). 고(은)휘(은)는(은) 일(은)하(은)요(은) 비(은)는(은) 동(은)래(은)정(은)씨(은)로서(은) 스(은)남(은)을(은) 태(은)생(은)하(은)니(은) 명(은)구(은)과(은) 명(은)석(은)이(은)라(은). 공(은)이(은) 그(은) 만(은)이(은)라(은). 경(은)영(은)은(은) 그(은) 자(은)이(은)요(은) 영(은)조(은) 八(은)월(은) 二(은)十(은)六(은)일(은)일(은)다(은) 그(은)나(은) 심(은)이(은)요(은) 가(은)선(은)대(은)부(은)嘉(은)善(은)대(은)夫(은)는(은) 관(은)계(은)요(은) 동(은)지(은)증(은)추(은)부(은)사(은)는(은) 그(은) 수(은)직(은)이(은)요(은) 향(은)년(은) 백(은)육(은)세(은)로

기해 九월 一일인 그 돌아가심이라. 안동은 풍산면 하리 동비아산 선영하 제원은 그 장지(葬地)요 숙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성일의 따님인 그 배위니 후공 六年 경신(庚申)에 생하고 선공 五十年 앞서 기미 十一월 二十六일에 졸하시다. 묘(墓)는 쌍조이시다. 삼남은 학수 학덕은 다 통덕랑이요 학손은 출제하니라. 달복 달복 우두현 처는 장방출이요 달상과 김우순 처와 김사은 처는 차방출이요 달정 달우는 출제 남의 출이라. 증현 이하는 불복한다. 이제 그 후손의 의문을 함하여 돌을 다스려 묘 제절에 세울재 나에게 모두를 부탁하기를 드디어 오른쪽과 같이 전차하고 이에 명하여 가로되 이가 오직 증추공의 유택이라. 소위 삼달은 세상에 많이 얻지 못하니라. 뒤의 사람이 공을 생각(生覺)하는 자가 반드시 비아산 아래 길가에서 법을 하리라.

종인 우정·찬

雙楠亭記

余以樵牧野叟已無塵念之侈華自甘雲藩之深藏而達山之下信水之上有松浦洞卽我王考府君晚卜菟裘荒林環匝蒼崖削立中有蓬門華竇松籬竹園是吾家也因種雙楠于

墟曲東西對立以爲炎夏休憩之所視其初則其榦弱其根細易爲枯廢故其蒔也若子以柴圍護以水灌潤禁其斧斤遠其牛羊不十數年葉茂枝達可以成清陰可以生爽籟可以飾明月石築爲砌草鋪爲茵村秀有隸業之所時與文朋韻客携酒嘯詠不讓盤中之終日坐茂樹縱無結構之工翁之亭亦足華矣美矣吾雖不堪於亭之主翁而人若以雙楠謂此翁之亭則余固不辭焉

쌍남정기

내가 초목야수(樵牧野叟)로서 이미 진념(塵念)의 치화는 없고 스스로 운림(雲林)에 기표이 감지함을 즐겨하여 달산지하요 신수지상에 송포동이 있으니 즉 나의 조부(祖父)님이 늦게 처음으로 거하에 황림이 들러있고 창애가 삭림하여 봉문 필두가 가운데 있고 송리죽원이 있으니 이가 내집이라. 인하여 두 남목을 심어 동서(東西)로 대립하여서 염하의 휴계소로 함에 그 처음은 그 채간이 약하고 그 뿌리가 늘어서 쉽게 말라 시들게 되는 그로 그 가꾸기를 자식기르기와 같이 하여 가시로서 을 읊하느니 말로서 관음하여 그 부근을 근엄하고 우양을 멀리하여 십수년(十數年)이 못되어 잎이 무성(茂盛)하고 가지가 달하여 가히서 청음을 이루고 가히서 생리가 나고 가히서 명월로 치고 들로서 뜰을 하고 뜰을 깔아 자리로 하고 초수가 에워싸는 바

가 있고 때로 문봉은객을 더불어 휴주 소영하여 반종의 다됨을 사양치 아니하고 날로 무수에 앞으니 비록 절주의 공은 없으나 응의 정자(亭子)가 또한 족히 화미한지라. 내가 비록 정자의 주옹이라고는 전디지 못하나 사람이 만약 쌍남으로서 이 늙은이의 정자라고 이르는즉 내가 진실로 사양치 않하이로다.

跋文

余嘗觀自古隱居行義之士不求聞達而猶且名傳後世愈久愈彰者必也善繼者繼之能言者言之然後可以致此矣若否則終歸於泯沒乃己可不懼哉竊惟雙楠石公生於正廟右文之日廢舉子業專意斯學自少至老未嘗少懈嘗以未得薰炙於陶山之門慨然有晚生之歎性又至孝先公之患大瘡也晝宵親吮無效公乃號泣祈天竟得夢中神助翌日乃瘳茲豈非至誠所感者耶嗟夫蓋以公慕賢之誠出天之孝適足以名傳後世愈久愈彰而其居也樵牧之村其身也韋布之士所以公歿後六十年間至于今尚泯泯如也近者其曾孫貞熙甫收拾公遺文於巾笥之中又乞狀碣於大方諸家合爲一冊付諸剞劂是可謂善繼者繼之能言者言之固不待凡他謄說而以我爲陶山後裔強要一言於卷末我非其人

何敢當是役哉然雙楠公當日陶山欽慕之誠如是其純實其子孫爲先闡揚之道又如是其竭盡凡有彝性者誰不感念而興起也哉以故不揆僭妄謹構顛末如右以塞其慈孫申託之意云歲青狗日南至

眞城 李中採 跋

발문

내가 일찍 보건대 옛적부터 은거 행의의 선비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름이 후세(後世)에 전하여 더욱 오래 이고 더욱 빛나는 대가 반드시 잘 계승하는 자가 이르고 능연한 자는 말한 뒤에라야 가히서 이를 것이라 아니한즉 마침내 민물 한데 돌아갈 따름이니 이제 이미 가히 두렵지 아니할까。 간간히 생각건대 쌍남석공(雙南石公) 정묘(丁卯) 무렵의 날 왜 나서 거자업을 피하고 전의 사학하여 늙을 때까지 일찍 조그금도 게을르지 않았다라。 일찍이 도산의 문에 혼수함을 얻지 못함으로서 개연히 여저만생의 탄이 있노 성품이 지효하여 또 선공이 대종을 그스심할새 주스로 친연하였으니 되^하염없었의 공이 의 왜 하^하피하^하면서 하늘 왜 빌더니 마침내 몽종의 신조를 얻어 의 일^일에 ^하행이니 이것이 어찌 지성이 아니겠느냐。 슬프다。 대개 공의 모현의 정성과 아울러 천의 효로서 마침내 족히 이름을 후세에 전하여 더욱 오래 될수록 더욱 빛나 날진대

그 거함이 초목의 말이요 그 몸이 위포의 선비라. 공의 물후 六十년간에 지금(조선)까지 이르도록 우히려 민민하더니 요사이 그 증소 정희가 공의 유문을 건사증에 수습하고 또 장갈을 대방제가에 빌려함하여 한책을 마련하여 판각하는데 부처니 이가 가히 잘 이으니 자가 이고 능히 말하든 자가 말하였으니 진실로 무릇 판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에게 도산의 후예라 하여 한말을 책 끝의 발판해 달라고 강요하거늘 내가 그 사람이 아닌지라 여찌 감히 이언을 당하리오. 그러나 쌍담공이 당일 일에 도산 흠모하는 정성이 이와같이 순실하고 그 자손(子孫)이 위선하여 천양하도리가 또한 이같이 다하니 무릇 예성이 있는 자가 누가 감념하여 흥기(興起)치 아니하리오. 그런기로 참망함을 헤아리지 않고 삼가히 전말을 엿배어 위와 같이 하고서 그 자손의 신탁의 일을 막음이라.

세칭 구일 남지에

진성 이증채 발

雙楠亭跋文

昔我曾王考府君穩享耄期篤信用工以飭躬律己爲本領清苦自守無慕乎外苟不關於

世教之尚文辭貶操修者採其華而祛其實務其末而遺其本平日所著詩文及祭札略于語其辭旨典雅而不滯簡詳而常理且沈潛玩繹於誠敬篇力透精究心性圖及辨義解疑爲一副當檢柙載在塗抄至今照耀乎耳目何必多文爲貴哉不肖輩詢謀閤族收拾巾笥幸借諸大方狀碣及賡韻董成一卷冊子付諸鈔布於乎是不過先懿影響而不猶愈於翳然泯沒者乎先儒云先世有美不揚罪也濫則亦罪也茲敢數語于尾端以竣當世立言之諸君子採撫云不肖曾孫貞熙盥手謹書

쌍남집요 발문

옛적 우리증왕 고부군(曾王考府君)이 연세(年歲)가 많으시도록 독신(篤信)용공(用功)하시고 친공을기하므로서 본령을 하고 청고(淸高) 자수하여 밖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실로 세교에 관여치 않고 문사를 숭상(崇尚)하고 조심하고 수신한 자를 피하고 그 화를 깨고 그 실사(實事)로 거하며 그 뜻을 힘쓰고 그 본을 지친 자를 관여치 아니하고 평일(平日)에 지은 시문과 제례약간은 그 사지가 전아하고 불음하여 간상하고 이치가 떳떳하니 또한 성경(聖經)편에 침잠 완연하고 려수 정유하여 심성도와 변의해의 를 하나로 해서 마땅히 검압하여 이제까지 이르도록 이목에 조요하니 어찌 반드시 다문으로 귀하다 하겠느냐. 불초(不肖)배가 순모합족하여 건사에 수습하고 다행히

모든 대방에 장갈과 차운을 빌려 은은(僅僅)히 일구의 책자(冊子)를 이루어 판각에 부쳐 퍼니 오히려 이가 선이의 영향에 지나지 못하되 오히려 민물한데 말김보담 낱지않음이라. 선유가 이르기를 선세에 아름다음이 잇음을 떨치지 아니함이 허물이요 범람하면 또한 허물이라. 이에 감히 두어말로 끝에 붙여서 왕세의 입언군자의 채척함을 기다림이라. 불초 증손 정희는 손을 씻고 삼가히 씀.

雙楠亭韻二首 并序

人生世間有賢愚之殊何也稟其清者爲賢濁者爲愚則當變化氣質以愚爲賢可也余素以愚濁之質強爲學問以賢自期而終不免汙下之人於是乎怛然覺以瓦礫之品比於金玉樗櫟之材僭於棟樑則雖盡心力而爲之不可及也余自早年非不用力於繼先業貽孫謨而才識淺薄無一成就但先陰如水蒼顏白髮已矣老矣因種雙楠于所居之街惟日往來而誓曰使我子孫昌大蕃茂當如此樹之子葉孫枝而雖百歲之後繼我此志加之以栽培則庶乎其不朽矣繼之以詩曰

山人有意代茅亭樹下盤桓枕簟寧蛟影橫斜明月岸蟬聲清澈夕陽汀課孫夏永涼陰榻

邀友秋晴翠蓋庭願見他時柯葉茂東南車轍日來停
 樹已勝巢我白頭堪憐歲月若波流陰成碧海涼生夏葉與丹楓染送秋色蒼茫含露滴
 村容幽邃挹煙浮後來指点先人種勿剪餘休此下遊

쌍남정 원운 二首

산사람이 뜻이 있어 모정을 대로하여 나무아래 방황하니 침담이 편안하더라. 고통의 그림자가 밝은 달 두덩에 횡사하고 매미소리가 석양물가에 청청하더라. 손자들 공부시키려고 여름에 서늘한 그늘 탐에 모여 놓고 벗을 맞이함에 가을을 푸르게 들끓이듯처럼 보이다라. 원컨대 다른때 가지와 잎이 성한 것을 보라. 동남의 차철이 날려와 머무리라.

또 남기이 미 짐보다 난 데 나는 한머리가 되었으니 세월의 무결의 흐름과 같은 물의 여백 여기니라. 스물 여백의 서늘함의 여름의 나디 잎사위가 다 풍파 다 날아갈 때 가을에 보내더라. 밤빛이 창망함의 이슬과 마음의 나디 마디 날아 오수함에 연기로 당쳐 떴더라. 뒤에 와서 선인들이 심담이라고 지적하면 가리지도 말니 남기아름다음이 이래서 놀리라.

行狀

公諱鍾圭字龍淑姓石氏忠州人上祖諱鄰宋高宗紹興間自廣陵來于高麗明宗朝有功
陞上將軍封藥城君忠州舊號其後有諱良善洪陽府院君配慶昌翁主永興崔氏卽我
太祖康憲大王之姨母也有諱汝明恭愍朝成均生員登乙科官注書 太宗朝除漢城尹
集賢殿提學而不就乃安置于忠州以終可謂專心所事不愧圃牧兩先生有諱斯珍慶尚
道右兵馬節度使有諱睦錫自忠州移寓安東道陽洞是生諱福壽自安東八于醴泉鵲坪
於公爲七代祖也高祖諱延南副護軍曾祖諱仁模嘉善祖諱煥禹移居于佳佐洞考諱勝
均妣昌原黃氏永欽女以 正廟乙己二月二十日生公于里第形貌甚秀朗纔免孩提啼
號不妄學步時地若傾危行必避之少無跌墮之患觀者異之曰此兒能知持身謹慎之意
稍長每遇秋熟之果因風自落則身先拾之懷歸獻親以待先嘗又見村兒爭集樹下拾必
入口因責之曰汝亦有父母之人旣得時果不顧父母而遽先口耶若有食物則雖少必與
羣弟共之未嘗爲自飽之計長者寵而愛之時或出遊羣兒若有悖亂之舉輒不較而遠雖
生長窮巷惟日相接者太半是樵牧之豎而山歌野曲不出於口若有書童之開卷郎讀者
必坐傍潛聽願與之同學故乃使從師於隣塾天性至勤誦讀不掇慧竇早啓一聽文義則

自解如破竹之迎刃先學者莫之冀及焉同隊之兒或有不善之事父母必誠公而楚撻之隣嫗微問之曰答常不痛耶對曰父母使子欲其爲吉人而撻之則愛我之恩至矣何以痛爲也在父母之側溫恭不懈晨昏不廢曰古人已行之事載在小學篇此豈難行底事竭力事親必稱古之孝子而自恨其力不贍矣冬月先公方病大瘡晝宵吮之以百方瘡口日大痛不能定情而醫云難治積月庸憂至誠祝天求以身代矣忽夢神人降于庭曰予星官也汝父病雖欲汝有感格之誠勿藥自效矣勿慮也言訖而驚悟視之則間已消毒而至於合瘡異哉神哉見者盈門賀之曰此實孝感攸致也至於舉子之文則操筆立就俱臻成章而常自歛然讀書益矻矻每拍案自歎曰昔之達巷黨人互鄉童子猶及孔門我雖居陋人微若生於幾百載之上追及於陶山夫子之門得蒙一言薰陶則必不如是污下矣其後朝起而充然自喜曰今夜夢拜東方夫子得聞勸讀庸學之訓蓋千聖相傳之心學無踰於誠敬而庸學相爲表裏也因就庸學皆至萬讀者不負我先賢之夢中垂訓也未幾遭考妣喪於數年之間而不進醢果執喪過哀幾不能支人皆憂之後值醉辰子孫欲爲稱觴之舉因卻之而不聽曰親不在矣爲誰設慶焉時或附心喟然太息曰吾以古家後裔流落嶺表墜失先業寄命壟畝已久矣何以奮然樹立脫此世累也朝出耕夜歸讀是吾本分慎勿生分外侈念也吾未能垂蔭於後則或可以樹代之耶手植雙槐于墟曲曰栗里之五柳藍田之

二松或吟哇自適因以爲號則亦可有趣也人之依樹者以其陰也陰可以亭則吾可以亭矣豈非因樹爲屋之義乎惟日盤桓其下暢叙幽情消遣雅懷人稱楠亭翁有詩與記焉年逾九耄以壽陞通政爲敦寧府都正氣力尚強聰明不減日事筆硯之役一日氣似不平乍有呻吟翼朝奄然而逝卽戊寅四月上旬享年九十四葬于松浦洞坤坐原配安權氏季淵女繼配月城李氏鍾熙女有二男周源國源四女李鍾喆姜永逸金富鎮林基宗周源一男根琢國源四男根厚叅奉根仲根昌根冕通政一女張鱗文根琢一男江熙一女宋觀洙根厚二男龍熙鳳熙三女金在東朴勝奎金二煥根仲二男台熙文熙一女李智章根昌一男樂熙二女李鳳護金學植根冕二男貞熙鍊熙女孫惠重江熙二男在寅在浩龍熙二男在煖在煖三女金斗浩金鳳東鄭載河鳳熙二男在鶴在鳩台熙四男在元在亨在利在眞貞熙三男在鮮在煥張鱗文子師極師郁以下不盡錄於乎公之一生制行不外於敦本務實故其子孫至今遵其遺教不事淺簿而克守家風儘美矣公旣得天年又得天爵而能享康寧之福豈無所本而然哉嘗手植雙楠而矢之曰使我子孫當如此樹之蕃茂則吾之門安得不昌大乎今見孫曾寔繁室屋俱張自成一術則公之言自此始驗矣他日不替餘休豈不爲山南之罕比哉平日著述俱失於火公之孫寢郎君搜得其休紙中幾篇使其侄貞熙謄寫一本請余以記德之文余雖辭之固而請之益勤忘拙遂撰次焉

庚午仲秋節

永嘉權寧驥撰

道菴處士 忠州石公 墓碣碑銘 并序

星州東有道山秀麗儼然君子成德之容也其一脈逶迤走十里者王領而近古故道菴處士之修藏也謹按公諱寄雲字國瞻號道庵忠州人其先世中華高麗中葉諱隣東來勝國毅宗朝擢郎將明宗丙申樹功于討趙位寵而西北兵馬使昇上將軍封藥城君藥城則忠州古號也累傳諱良善朝鮮朝太祖大王姨母以追封公洪城府院君生諱天乙號香山官中郎將贈洪城君享昌寧昌義祠生諱汝命號花園恭愍王朝官至注書太宗特旨以漢城尹集賢殿提學不就乃安置于守義山回文同以終其專心所事不愧於圃牧太宗褒其忠贈左贊成墓室傳其遺噓地設壇享祀御筆閣在陰竹池洞是三傳諱斯珍世宗朝登科端宗甲戌慶尚右兵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世祖受禪退居宜寧石川洞以終事載宜春誌及嶠南誌墓下有石川齊累傳諱琮宣祖朝兵曹佐郎光海朝紘政官歸隱於星州洞自號三山堂堂在錨谷事載星山誌又寰與勝覽三山堂卽公五代祖也生諱彥儀

曰高祖生諱應生曰曾祖號南州有學行以築竹林亭獎進後學生諱命砬曰祖生諱守麟曰考也上四代隱德不仕妣金海金氏宗建女有淑儀 肅宗丁丑公生于五月三日錫谷芽而天娒穎悟器局弘遠事親與兄與芽昏定農省山而樵 水而漁奉養不下於董召南矣孔懷堯箎同樂姜被學于再從祖中樞府事公命仁下不待鞭督 自能勤課四書五經文理曰達聲譽籍慰家素清賓不能奠意田業之事講明經史潛心盲訣至忘寢食縱橫淹貫先生見公該博稱詡不已自後鄉黨多士彌篤往復陸續皆論道也究義也而多有格率及丁憂哀毀倫禮曰必省阡不避寒暑人稱其孝服闋杜門斂跡整衣冠肅威儀倦經傳心會體認時惑儻佯敍懷於溪山泉石之間教子課孫以義方而言曰吾門往祖節度使又佐郎公守義罔僕而鳴世也汝等守四勿而幸日三省則或不能需世重交鄉黨以士無愆勉之勉之公逝于肅宗丙子臘月十日墓山幕洞子坐原配金海金氏順立女有婦德墓亦王領下峯上子坐有子曰來達號清庵孫曰有元號 槐軒有祿有倫出系有遠有敬孫以下繁不錄 有別達者記之曾孫曰重恒號嘉隱玄孫曰鎮皓號梅隱鎮業通政五代孫曰澄號松坡洽號竹坡六代孫曰運營號介隱麟榮號竹圃珉榮通訓琢榮號稼隱七代孫曰燦三號洛樵炳昊號處遇炳佑號訥窩八代孫曰盛其號正心官教長受大統領表彰受國民勳章冬栢章永其總警桂麟工學博士建築事務官大統領表彰九代孫曰鎬鳳號功隱十

代孫曰大賢工學博士東京大教授庚皓理學博士日公之後孫鎬鳳鎬福甫訪余曰吾等九代祖道庵府君尙闕墓儀是莫非子孫之不明之罪乎世遠其遺殆文失故立碣也子後孫後則序之倒次不德從衆論而又石天齋三山堂由重建爲遲廷也其間弊箱遺文收拾之中幸有在日本德其翁誠金三百萬圓力賴而濟來公遺事囑銘於不佞自顧淺劣不敢當是亦不能終辭其孝恩之遂按其橋叙之如右以銘曰遠祖所志人兼德遺傳家孝友匡邦守義公惟聖學大道不棄禮儀是範知行力施手不釋券古風能肆爲山九仞功成一簣生平有業俯仰無愧我銘片石與世其史

庚辰二月日成均館典儀南陽洪在迪謹撰謹書

도암처사 충주선공 묘갈명 병서

성주 동쪽에 도고산이 있으니 장엄하고 수려하여 근자가 덕을 이룬 형용이라 그 한줄기가 꾸불꾸불 십리틀 달린 것이 왕령산으로 조소금오래전에 돌아가신 도암처사의 유택인 곳이라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란 기운이요 자란 극침 호란 도암으로 충주인이라。 그 선대는 중화로 고려증업 휘린(隣)께서 동으로 고려에 와서 의종때 나창에 뽑혔고 명종 병신년의 조위총영에 도발하여 공을 세우고 서부 병마사가 되었고 이어 상주군의 에 이르니 왜선공이 된 봉작 되었다 왜선공 충주 고후라 여러 대를

전하여 휘양선언인 조선조 태조대왕의 이모부로 훗날 공을 흥선중추원수이로 추봉하였
 다 아드님의 휘천을인호가 향산이요 벼슬이 중랑장이요 홍산의 증친된 의창공
 창익에게 받들었다 아드님의 휘연이 호가 화원이요 공민왕조의 벼슬이 주서에 이
 르렀는데 태종의 특별히 함성공과 집현전 제학의 고시를 내렸으니 나아가지 아니하
 고 수의산 회문동에서 편안하여 생을 마쳤다. 그 후로 나라를 섬기니 뒤 마음
 포은과 목은의 부끄럽지 않았으니 태종이 그 충성을 칭찬하여 좌천성의 증직 하였
 다 묘를 실천하니 그 유허지에 설단하니 향사를 지낸다 어필가의 음죽 지동에 있다
 。 이에 삼대를 전하여 휘사진인 세조에 등좌하여 단종 갑술년의 경상우병마절도
 사와 수군절제사에 올랐는데 세조가 선위를 받자 의령 석천동의 퇴거하여 살다가
 세상을 마쳤으니 사기가 의춘지와 고남지에 실려있다 묘 아래 석천제를 지었다 여
 러대를 전하여 휘종은 선조조에 병조좌랑 이드니 광해조때 정사가 어지럽자 벼슬
 을 버리고 성주 참판로 돌아와 숨어살면서 스스로 삼산당이라 호하니 당은 삼실에
 있었다 사기를 성산지와 환여스람에 실렸다 삼산당의 공공의 대조이다 아드님의 휘
 언의는 고조요 아드님의 휘(諱) (은생)은 증조요 호는 남주로 학행이 있어 주림정을
 지어 후진들을 가르쳤다 아드님 휘명립은 조부요 아드님의 휘수린은 아버지라 위
 4대는 덕을 숨기고 벼슬을 하지않았다 어머니는 김해김씨의 종언의 따님으로 정숙
 한 의범이 있었다 수종 정축년의 공이 은월삼일의 나시니 타고난 성품이 남보다 총

명하여 재능과 도량이 넓고 컸었다 부모를 섬기에 행과 아우와 함께 혼정신성을
 다하며 산에 나무하며 물에 고기 잡아 부모를 봉양함이 옛날 증주 동소남에 못지않
 았다 형제간의 우애는 혼과 제의 화음같이 하고 강광과 증해 기강 삼형제와 같이 평
 생을 화락하게 지냈다 재종조 충주 부사공 명자인자(命字仁字) 아래 독족의 끼지람
 을 받지 않기로 스스로 능히 부지런히 사서우경할 공부하여 날로 문리가 통달하니 그
 명성이 자랐고 집이 본대 청빈하기에 능히 오히려 농사의 일에 뜻하지 못하고 그 경을
 박게 강하고 사기에 잠심하여 종으로 단 비결에 이르러서는 침식을 잃고 자유자재로
 날리 통하였다 선생이 공을 보니 학문과 지식의 넓다고 칭찬해마지 않았었다 이로부
 터 뒤에 양단의 많은 선비들과 사침이 더욱 독실하여 가고 음이 연달아 이어졌다
 도를 논하니 의리를 강우하여 말도 도덕의 규범을 가졌다 마침 상사를 당하여는 탕
 (湯)으로서 상례를 지내며 날마다 춤니 더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묘를
 하니 단담하고 호도들을 칭찬했다 북을 마치니 단고자 취를 감추며 의관을
 정제하고 위의를 엄숙히 하여 부지런히 정전을 역의 마음애 모와 몸애 체득하여 잊
 지 않았었다 때로 후계산과 천선사 의를 서성거리며 시를 읊어 회포를 풀기도 하였
 다 아들을 가르치고 손자를 교육함의 의의 이 방범으로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단종
 에 지나날의 선조이신 절도사와 또 좌랑공의 의를 지켜 숨어 사신것이 세상에 알려
 졌으니 너희들이 공자가 안자에게 가르치신 사물(四勿) 즉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예가 아니거든 보지말고」비예물시(非禮勿視)「예가 아니거든 듣지말며」비예물청(非禮勿
 聽)「예가 아니거든 말하지말며」비예물언(非禮勿言)「예가 아니거든 음직이지말라」비
 예물동(非禮物動)「가르침을 잊지말며 증거가 가르친 삼심(三省) 즉 남을위하여 한
 일이 진실했던가(위인모이불충호)爲人謀而不忠乎)「친구와 사권 일의 신의를 잃지나 않
 았는가」여부우교이 불신호(與朋友交而不信乎)「성현의 전한을 잊지 못하였는가」전불
 습호(傳不習乎)「이 세가지를 날로세번 반성하여 한다면 후세의 세상에 쓰이든 못
 할지라도 향당사람들과 진중하게 사침으로써 선비로서 화를 입을지니 힘쓰고 힘
 쓸지이다 수종병자 선달 초 열흘날의 돌아가시니 모는 산만동 자원이오 배는 김해김
 씨 수림의 다림이로 부단이 있었었다 모는 역시 왕평산 아래봉우리 위 자자라 아들을
 두니 내달(來達)이라 호는 청암이요。 손은 유현이라 손자 이하는 번성하여
 다 기록 못하고 별도로들나 사람만 적는다 증손은 증향이라 하니 호는 희이요
 현손은 진호리 호가 매이요 진인리 통정대부요 은대손은 현리 호가 송파요 함
 주파라 육대손은 윤영리 호가 개이요 인영리 호가 주포요 민영리 통정대부요 탁
 영리 호가 가이리 칠대손은 찬삼리 호가 낙초요 병호리 호가 최우요 병우리 호가
 남외라 팔대손은 성기리 호가 정심이로 며슬의 회장이로 대통영표창을 받았으니 민
 후자을 받았다 영기는 총영이요 계린리 근학박사 천추사무관이로 대통영표창을 받
 았다 구대손은 호봉이 호가 근우이요 십대손은 대현리 근학박사로 통영대 회수요

정형하기 이학박사라 어느날 공의 후손 흥봉 흥복씨가 나를 찾아와 우리의 구대조도
 암부군의 비를 못새웠으니 오히려 이근 자손의 불명함 허물이 아님이 없다 하며 세
 대가 내려되어 그 유구단을 거의 잃었기에 비를 새우는데 아들보다 뒤에 하고 손자보
 다 뒤에 하여 차례 도차됨이 부끄러이 짐을 줄뿔었으므로 또 신천제와 삼산당의 종간이
 로 자연히 자연되었는데 그 사이 허무런진 상사에서 유구단을 수습하던중에 다행히
 일본외 체시가던기왕의의심삼택만원원림임민외의 유사를 싸가지고 와서 나의
 계명일부탁하느니라 내스스로 학식이 많지 않음과 더불어 감히 이를 감당치
 못할지나 또한 능히 쓸내 사양치도 못하여 그 호심일 생각하고 드디어 유구를
 상니하여 위와 같이 편편서 명이로서 이르네니 전전의 뜻한바는 이와 다를 점비했
 니 유구로 전한가문의를 지켜 위구했네 공이오직 심학이로 대도를 지키면서
 의근부범이오 지와 행을 배플있네 손의 책안흥니 옛풍속 지키면서 높으신 이를
 전의 한삼태기 공이렸네 한 평생 이단 업전 천지간의 무과할제 조각돌 내명학니
 그 연사 세상과 합해하리니。

관부우정진사명전

진관전공의공양공채전사찰사서

의 관충주석씨세환공 청덕불망비문(議官忠州石氏世煥公清德不忘
碑文)

공(公)의 자(字)는 순선(純善)이고 충주석씨(忠州石氏) 시조(始祖)인 고려(高麗) 상장군(上將軍) 휘(諱) 린(鄰) 시조(始祖)로부터二十六世孫이다. 선대(先代)의 역사적(歷史的) 위업(偉業)과 명성(名望)은 이전(以前)의 선대(先代) 선조(先祖)분들의 유문(遺文)으로 수차(數次) 증거(證據)하고 기록(記錄)된 바이고 八世 승록대부(崇祿大夫) 좌찬성(左贊成) 화원(花園) 여자 명자(汝字 明字) 선조(先祖)가 공(公)의 十八대조(代祖)이다. 十一世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상우병마(慶尙右兵馬) 절도사(節度使) 겸(兼)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 사진(斯珍) 선조(先祖)가 공(公)의 十五대조(代祖)이고 그 구인(故人) 시랑공(侍郎公) 총(摠) 선조(先祖)가 十四대조(代祖)가 된다. 총(摠) 선조(先祖)께서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에 입향(入鄉) 하여 가문(家門)의 전통(傳統)과 선대(先代)의 은덕(恩德)과 족의 돈목(族誼敦睦)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증흥정신(宗訓精神)과 겸양지덕(謙讓之德)으로 그 후손(後孫)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창(繁昌)하였다. 양란(兩亂)으로 선조(先祖)들의 묘소(墓所)는 일부(一部) 훼손(毀損)되고 산재(散在)되어 있었으나 시랑공(侍郎公) 문중(門中) 회장

인애(仁愛)를 겸비(兼備)하고 효행(孝行)의 미덕(美德)이 주변(周邊)에 널리 알려진
 바라. 공(公)의 가문(家門)의 부귀영광(富貴榮光)이 높고 전답(田畝)이 광주(廣州)
 일대(一帶)에 수십만 평(數十萬坪)이라 그 수확 후(收穫後)에 경작인(耕作人)들
 의 소작료(小作料)를 실은 우마(牛馬)들이 남동(南東)으로는 광주주변(廣州周邊)과
 북서(北西)로는 천공(千公)의 청덕비(淸德碑)를 만들어 사람들의 왕래(往來)가 많
 고 잘 보이는 광주관영(廣州官營) 입구(入口)에 세웠다가 그곳이 도시개발(都市
 開發)이 되어 그 존치(存置)를 물색하다가 공(公)의 증손녀(曾孫女) 남징(南澄)이
 운영(運營)하는 옛 광주군청(廣州郡廳)이 있었던 남한산성(南漢山城) 백제장(百濟
 莊) 입구(入口)에 안치(安置)하였다. 정성(精誠)을 모은 방백(傍白)과 주민(郡民)
 들의 명단(名單)이 그대로 기록(記錄)되어 백제장(百濟莊)에 보전(保全)되어 있
 다. 공(公)의 묘소(墓所)는 경기도(京畿道) 광주군(廣州郡) 증부면(中部面) 오전리
 (梧田里) 선영(先塋)에 배(配) 밀양(密陽) 박씨(朴氏)와 병좌(竝坐)한다. 공(公)의
 후덕(厚德)이 쌓이고 가문(家門)의 축복(祝福)이 더하여 손자(孫子) 진숙(鎭壽)은
 왕릉(王陵) 참봉(參奉)과 국민회의(國民會議) 대의원(代議員)을 지내고 증손녀(曾
 孫女) 남징(南澄)은 공(公)의 인품(人品)과 덕(德)을 이어 받아 여장부(女丈夫)의
 자질(資質)로 이웃에 보시(報施)하는 음덕(陰德)과 집안에서는 형제(兄弟) 우애(友

愛)로 화목(和睦)하며 가업(家業)으로 백제장을 훌륭하게 경영(經營)하고 있다. 三十六年만에 문중(門中)의 대동보(大同譜)를 새로 편찬중(編纂中)에 어느날 그의 증손(曾孫) 상준(相準)으로부터 이 청덕비(淸德碑)의 존재(存在)를 들어 대종회(大宗會) 사무총장(事務總長)과 함께 백제장(百濟莊)을 찾아 비석(碑石)을 확인(確認)하고 공(公)의 증손녀(曾孫女) 남징(南澄)으로부터 그 내력(來歷)과 관련(關聯) 자료(資料)를 찾아 미천(微賤)한 글 재주로 공(公)의 유업(遺業)의 대강(大綱)을 간략(簡略)히 기록(記錄)하여 공(公)의 청덕비문(淸德碑文)으로 가름할 뿐이다.

기해년(己亥年) 춘(春) 三月에 충주흥주석씨(忠州洪州石氏) 二十九世

병사공파(兵使公派) 시랑공문중(侍郎公門中) 회장(會長)

석천호(石泉浩)가 삼가 기록(記錄)한다

충주흥주석공 진남 행장(忠州洪州石公鎮南行狀)

공(公)은 고려상장군(高麗上將軍) 린(鄰) 시조(始祖)로부터 二十七세손(世孫)이요 승록대부 좌찬성(崇祿大夫左贊成) **휘(諱)** 여명(汝明)의 二十세손(世孫)이요 경상우

병마절도사겸수군절제사(慶尙右兵馬節度使兼水軍節制使) **휘(諱)** 사진(斯珍)의 자(子)인 시랑공(侍郎公) 총(攄)으로부터 十六世孫이요 천룡오자가선대부(天龍五子嘉善大夫) 계임(戒任)의 十世손(世孫)이요 어모장군행릉부사(御侮將軍行龍副司) **휘(諱)** 명환(明煥)의 손자(孫子)이다. 공(公)께서는 一九一九年 기미생(己未生)으로 선조가문(先祖家門)의 전통(傳統)을 이어 받고 풍광(風光)이 아름다운 경기도(京畿道) 광주(廣州) 남한산성(南漢山城) 줄기의 정기(精氣)와 기상(氣像)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그 성격(性格)과 기품(氣品)이 온화(溫和)하고 이웃을 배려(配慮)하는 겸양지덕(謙讓之德)을 타고 났다. 일찍이 집안 대소사(大小事)는 물론 문중 정조사(門中慶弔事)에도 솔선헌신(率先獻身)하였다. 一九九四年부터 二〇〇七年까지 시랑공문중(侍郎公門中)의 회장(會長)을 역임(歷任)하면서 문중(門中)의 뜻을 모아 경기도(京畿道) 하남시(河南市) 초이동(草二洞)에 十二世 총(攄)자 선조(先祖)의 단소(壇所)를 정비(整備)하였고 十一世 사진선조(斯珍先祖)를 모신 의령(宜寧) 석천재(石川齋)의 위답(位畓)을 마련하였다. 대동종친회(大同宗親會)의 각종 종사(宗事)에도 적극적(積極的)으로 나서며 크고 작은 행사(行事)에 경향(京鄕) 各地(各地) 각지(各地) 천리(千里)길을 마다 않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석씨문중(石氏門中)의 종훈(宗訓)인 승조봉선(崇祖奉先) 족의돈복(族誼敦睦)에 모범(模範)을 보였다. 二〇〇七

年에는 여러 난관(難關)을 뚫고 고려대제전(高麗大祭典)에 여명선조(汝明先祖)의
 위패(位牌)를 배향(配享)하는 과정(過程)에 협조(協助)하여 많은 헌성(獻誠)도 하였
 고 행사당일(行事當日)에는 제관(祭冠)으로서 참가(參加)하였다. 二〇〇八年에 슬
 하(膝下)에 二男三女의 다복(多福)한 자녀(子女)를 두고 졸(卒)하신 지가 어언 十
 餘年이 지났으니 공(公)의 인품(人品)을 담은 자녀(子女)들은 교직(敎職) 등 사회
 (社會) 각 분야(分野)에서 성실(誠實)하게 살아가면서 공(公)의 유적(遺跡)을 빛내
 고 있다. 문중(門中)의 여러 행사(行事) 때마다 문중대표(門中代表)와 원로종친
 (元老宗親)들께서 간간(間間)히 공(公)의 문중(門中) 사랑과 위업(偉業)에 대하여
 칭송(稱頌)하고 또 사모(思慕)하는 마음들도 크다. 마침 대동종친회(大同宗親會)
 에서 충주홍주석씨대동보(忠州洪州石氏大同譜)인 기해보(己亥譜)를 편찬(編纂)하는
 때에 맞추어 시랑공문중(侍郎公門中) 전종원(全宗員)의 뜻을 담아 공(公)의 위업
 (偉業)을 올려 드리고자 한다.

二〇一九年 己亥年 하절(夏節)에

忠州洪州石氏 二十九世 천호(泉浩) 근서(謹書)

【通德郎公編】

處士石公諱璟祭壇碑銘 并序

聖人之於易以豫二之不終日爲介石之貞吉其意誠微矣哉自昔士大夫之相厥攸居者莫不以畿內爲得何由焉哉以其受用見得直接乎王化之禮樂文物而德可從而成也名可因而達也然時不常春世不常平其在風雲之會更迭之際強欲姑息於百世榮達而卒乃用殄罹禍有愧乎名家之世德者何限焉是自非明哲君子先見於未然超脫於因循能存心養性自得於荒閒寂寞之濱而沒世无悶者抑有幾於斯世耶榮州治南平恩面幽橋洞一區是石氏之庄石氏乃忠州之世也往在麗朝諱鄰漂到東邦軍功而陞上將酬勲而封藥城藥城卽今之忠州也石氏因而貫焉六傳而有諱良善配永興崔氏卽 康獻王之從母而以乳養 李太祖故恩封慶昌翁主 賜別宮于永興而居之及歿以陵禮葬之遣官致祭因封公洪陽府院君是生諱天乙通訓大夫洪城君 太祖 賜以親筆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是生諱汝明以麗朝出身不應太宗親書召命竟卒于忠州守義山配所 太宗嘉其義 贈崇祿大夫左贊成是生諱文成直提學襲封藥城君是生諱義正禮曹參議是生諱斯城通德郎配月城李氏士人皓女是生諱璟處士也始謝京輦之舊聿來乎遙遙

千里之鄉自適乎靈芝之陽而自甘乎耕鑿之伍守本而承先蔭積德而昌來後公之意似不有巽於當世常情而以古家世族特決舉而長往者不其有甚不得已之去就於其間者耶卒乃優遊乎草澤之幽閒而岸視人世之榮辱於山外風光是所以人莫不無從而知石處士者矣嗚乎公是自處其自晦者矣其平素之行治凡百多有所講究於民彝物則之餘者而三百餘星霜史實難詳何不無自家之怨尤於其間耶惟其積德餘蔭永世不泯若子若孫世逐厥德振振式繁分布域內而咸以平恩幽橋爲宗守之區者矣往在 宣廟龍蛇亂後世道益坎壞人事多蒼茫幽橋先所之守護事情自不無深目無徵之嘆矣其在春秋省掃并香火於妣位墓所其於儀禮有所難諶今茲設壇庸衛同所旣設之石柱石床更得以顯刻記實承先謨而裕後裔何其懿哉公有二子長曰山次曰世山之子曰日東世之子曰仁福日東之子曰烈仁福之子曰勒祥烈之子曰月鶴勒祥之子曰大一嘉善自玄以後蕃不勝錄嗚乎處士以世臣家闕能超然乎宦海風波而自靖乎嶺藪空谷不求聞達不貪名利小白餘脉之靈芝一區洛東江流之幽橋彼岸完作我百世邁軸而終斯振振餘蔭無窮斯豈非處士介石之貞吉者耶日公之十四代慶煥甫隨其族大父中淵後請余以撫其實敢不顧僭越而謹叙如右繼之以銘曰

靈芝嶠嶧錦江洄沿山明水麗幽橋洞天石氏于斯累累其仟世代沈遠杳漠雲煙兵火相

連守護失傳惟德餘蔭貴其騫騫振振子姓揖揖奉先擇處淨潔配位墓前仍設壇壝考妣位全生闕死休有何復宣流峙動色子姓勉旃厥德維新於億萬年

己酉仲秋節

冶城 宋泰翼 謹撰

芝峯忠州石公墓碣銘 并序

公諱均元字佑楫號芝峯石氏忠州人始祖諱鄰自中原浮海來于高麗毅宗庚寅亂從李義方擢郎將明宗丙申從杜景升討趙位寵有功歷西北兵馬使升上將軍封藥城君生諱靖密直提學生諱璫密直提學生諱興國門下侍中生諱道判決事兼雙城摠管生諱良善太祖癸酉追封洪陽府院君配慶昌翁主崔氏永興伯諡請孝諱閔奇女卽太祖大王之姨母也太祖誕甫五朔懿惠王后昇遐崔氏乳養太祖及登極封崔氏爲慶昌翁主進封公洪陽府院君因其舊基改築別宮以國陵例命葬焉是生諱天乙通訓大夫中郎將洪城君外祖靖孝公無嗣故太祖命公奉祀親書下賜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生諱汝明太宗丙申下王旨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不就專心所事不愧圃牧贈崇錄大夫左

贊成御筆閣在利川郡珍岩里生諱文成直提學襲封藥城君生諱義正禮曹叅議十三傳而有諱相權是爲公高祖曾祖諱基宗號匪匪翁壽陞通政祖諱成模叅奉考諱範煥宮內部主事妣金海金氏士人斗利女叅判以道后有婦德高宗乙未八月二十五日甲申舉公于剛州驛陽里有異質侍於親側必慎唯諾事親盡志體之養出就外傳好讀書不求聞達嘍嘍焉畎畝之中啓導英秀爲己任乙卯三月二十九日以疾考終于寢享年八十一用翼月六日葬于驛陽向丙之原配丹陽禹氏錫基之女後配密陽朴氏準大之女也男鍾允鍾軾禹氏出男鍾成鍾五女姜東遠俞在教朴大龍鍾允男琪源璉源女權五星河在七秦基斗鍾軾男永源有源女安吉祚鍾成男圭源錫源鍾五男慶源政源餘幼不悉錄嗚乎公以名祖之后世守清儉書農爲業知止而終孔子曰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於公殆近之矣哲子鍾允與其門下生等將伐石以具墓儀訪余于玉溪川上徵表阡之文辭以昏髦不獲按具遺事以爲銘 銘曰稽考世德中原華族浮海仕麗天寵采極逮至李朝御旨隆赫遺蔭厚遠子姓不億愛我雲林樂我泉石斧堂有屹靈芝西麓片石堪言過者必式慎勿輕侵誠爾樵牧

檀紀四三一〇年丁巳立春節

仁同 張準綱 謹撰

기봉 청주선공 묘갈명

공의 휘는 균원(均元)이요 자는 우집(佑楫)이며 호는 지봉(芝峯)이니 선씨는 충주인(忠州人)이라. 시조(始祖) 휘 린(鄰)이 증원으로부터 고려에 와 명종병신(丙申)에 두경승(杜景升)과 함께 조위총(趙位寵)을 토명한 공으로서 북병마사 상장군을 지내니 예성군을 봉하다. 휘정과 휘달이 밀직제학이요 휘홍우가 문하시중이요 휘도는 쌍성총관이요 휘양선이 홍양부원주이요 배경창양주는 영응최씨이니 정효공의 따님으로 태조대왕의 이모니라. 의혜왕후(懿惠王后)가 일찍 돌아가시고 태조를 유양한 공으로서 돌아가심에 국릉(禮)로 장사를 지냈느니라. 휘 천을(天乙)은 통훈대부 증랑장 흥선군이요 외조(外祖) 정효공의 후손이 없어 태조께서 봉사를 명하고 친서를 하사하시어 가로되 동생형제(同乳兄弟)의 의는 산해와 같으니라 하셨다. 휘 여명(汝明)은 태종께서 가선대부 검교한성윤 집현전 제학(檢校漢城尹 集賢殿 提學)으로 부르시되 나아가지 아니하니 포목(圃牧)으로 부끄럽지 않더라. 휘 문성(文成)은 예성군 직제학(直提學)으로 승봉하니라. 휘 의정(義正)은 예조참의요 휘 상근(相權)은 공(公)의 고조(高祖)이고 증조의 휘는 기종이요 호는 비비옹이며 수(壽) 통정(通正)이요 휘 성모는 참봉이며 그 휘 범환은 궁내부 주사요 비김해김씨는 사인두리(士人 斗利)의 따님으로서 부덕이 있느니라. 고종(高宗)을 미(乙未) 팔월이십일에 공이

영주 역양리에서 나섰다. 특이한 자질이 있어 아버이 절에 모심에 반드시 대답함을 삼가이 하며 아버이 심김에 지체(志體)의 양을 다하고 외부에 나아가 글읽기(讀書)를 좋아하니 문달(聞達)을 구하지 아니하고 천모종이라도 영제(弟子)를 제(啓)도 하여 기임(己任)을 하기로 묘 삼월 이십구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팔십일이시다. 묘는 사월유일의 역양령명원외의 장사지냈다. 백은 단양우씨니 석기(錫基)의 따님이요 배밀양박씨는 준대의 따님이라. 아들 중안과 종식은 우씨가 낳으시고 또 종성, 종오(女), 강동원, 유재, 박대룡이요 종우의 남기원, 진원이요 여는 권은성, 하재, 철진기두라. 종식, 남영원, 유원이요 여는 안길조요 종성, 남유원, 석원이요 종우의 남은 정원, 정원이요 나머지는 다 기록치 않는다. 오호(嗚呼)라. 공이 명조(名祖)의 후로서 대로 청검함을 지키고 글과 농사일도 언필할 하고 그 침을 알아 마치니라. 공자가로되 사람이 알지 못하여도 성내지 아니함인 군자가 아니겠느냐 하시니 공이 다만 가까운지라. 철자 종우의 문학생으로 더불어 장차 돌을 갈아 묘앞에 세울 새 나뭇잎에 찾아와 표문을 청하기를 참아 사양할 수 없어 명하여 가로되 세덕을 고람하니 증원(中原)의 빛난 화족(華族)이더라. 고려에 벼슬하여 천총(天寵)이 미극하며 이조에 이르러 어지(御旨)가 응현하더라. 유음(遺蔭)이 후원에 자손이 번창하니 나의 우림(雲林)을 사랑하니 나의 천석(泉石)을 즐겨함이라. 분묘가 높음에 영지 서루(靈芝 西麓)이러. 조간돌이 능히 말을 하니 지내는 사람이 반드시 예를

하더라。삼가히 경침(輕侵) 하지마라。초목을 경계함이니라。

정사 입춘절

인동 장춘강 찬

晦宇處士石公墓碣

文友石奎業甫以南州古閩世居剛州而守德求志之士也幼而有聰穎不羣之姿長而有勤勉好善之德老而篤向上致遠之志間嘗造余而言曰士生斯世着跟書塾師友講磨者取科第立功名榮名及父母與宗黨振久贊之門戶不世之事業固若分內事而才智魯下時值不辰自度不能強致宿願俛仰自裁內而綽約効力於衛先諸節而尚恨榮顯之不及外而助復國舉義之力以成濟衆之功而竟拘於禁綱而未暴深衷於焉白紛滿顛死亡無日若一朝溘然則滿腔此懷將安所表見而竟與草木同腐而止乎顧今時事不古嬴秦焚抗之患日甚一日書籍之不可久傳明矣將何以不泯之計也望月松林山枕巽之原己点幽宅無寧刻諸石豫備碣昭示後人不亦可乎余曰善哉言乎昔晉之羊叔子收江南之功而立碑硯山又一碑投江有無窮之慮而然也寒士事蹟雖不與此等而慮後則一也且碣

之名乃死後之稱而責在後人者也自古行之者寡而我東先輩或有以文傳之者而舉出
搗謙遜德之辭而據實則未也若欲使後人詳知先代事則無隱悉錄以表平日側怛之誠
可也請以案本示之謹按其字星五晦字其自號也東方之有石氏肇于蘄城君諱鄰中略
有諱善福自三嘉移居剛州望月是爲肇基之祖也高祖諱時龜號東菴通政曾祖諱完吉
祖諱基述號芝叟莊陵叅奉考諱雲煥號月圃穆陵叅奉妣恭人晉陽姜氏通政祐永女以
孝烈稱以光武五年辛丑十二月二十五日生公自幼質不凡月圃公教養有方十一歲使
之出就外傳卽源泉宋公之門也與四十餘學徒聯槩肄業者凡八九寒暑矣先公與源泉
公宋漁山公之門下有資硯墨之義矣申酉之間時毛日撓異教喧聒年輩之誘以昇天之
術者衆遂拒而不納約鄭斗然權泰重外二人入文殊山鷲棲寺讀魯鄒書翌年與琴秉憲
宋龍欽金昌鎮作伴入春陽覺華寺讀庸學詩書三年以後始出山門遂質疑師門大蒙獎
詡而到家有頃說道林書堂望朔講宋愚堂李西汀金大觀諸公之大有期許遠到矣其
事一之誠益篤買得一庄田畝而托宋在益耕作以資師門菽水及接賓之料宗族中貧窶
無依者賙恤而成娶之使之成家凡與人酬應收租則廉減貸金則無利故遠邇咸頌丙寅
遭皇考公憂翌年荐遭王考公憂三年哭墓雖風雨而不廢繼而俱爲豎碣自是幹蠱之煩
無暇尋數之工然追念先公未遑之事常懷兢惕壬申春築月圃亭于先公墓下爲庚寅兵

燹所毀至庚戌移址後築追先述事之汲汲類此故於入鄉祖以下墳塋必求大方文字而表揭之又設大同譜所於榮州至四年而功告成知舊問吊慶問恒患厥失而遍及至士友尋訪必致歡情乃已又於師門之事始終如一與同門生宋尚煥刊源泉集頒于世繼而豎碣其墓庚寅之亂殫丸如雨奉老人事情不可安坐背負八十老母奔竄林樾僅免危禍會於寅卯年間因光復團宋永祐便送金壹萬圓於上海臨政又其子成鎮直渡鴨綠江而從事其中爲日人拘執囚于奉天獄公乃冒險渡溟極至誠而乞爲救出嗚乎懿哉忠孝之深安有止茲之不及乎人生事業雖有一件事行人所不能尚可傳示後人况未展蓬桑志而恒懷未慊之抱出入虎狼之口而無悔乎生丁末路讀聖人書能實踐三達德者非公而誰也天眷乃誠報以胡福仰範無窮吾其執契矣配孺人平澤林氏文部主事錫鉉女生戊戌正月二十七日卒辛亥八月二十六日墓宣城治北安興谷村後亥之原昌原黃氏中樞院議官大元女己酉五月十四日生甲辰五月二十九日卒墓在醴泉伐芳男成鎮漢鎮呂鎮瑞鎮秀鎮錫鎮女朴榮達禹龍學孫男達源寅源振源國源千源九源中源三源洛源治源寧源宰源璇源餘不盡錄係之以銘曰質之賢智之明有得于天從師早遊立雪源泉學之勤行之善無愧乎後世之傳爰述乃德預備于阡鏡之貞磨之泐彌光乎千百之年

朝鮮開國九癸丑白露節

楠阜權一燮撰

회유 처사 선공 묘갈명

문우석구업(文友石奎業)은 수덕구지(守德求志)의 선비라. 일찍 나에게 말하되 사생사세(士生斯世)하여 어언지간에 백분(白紛)이 만전(滿顛)하고 사망(死亡)의 무일(무일)하여 일조에 돌아감에 만강차회(滿腔此懷)를 어찌 다 말하겠는가. 마침 초목을 더불어 같이 쉬음이니라. 이제 시사가 옛과 달라 영진(嬴秦)의 한이 날로 심하니 서적이 가히 오래 전하지 못함은 명백한지라. 망월 송림산(望月 松林山)에 유택(幽宅)을 기점하였으니 묘갈에 새겨 뒤에 전함이 가하지 않겠나. 내가 말하되 착하다 말미여. 옛진(晉)나라의 양숙자(羊叔子)가 강남의 공을 거두어 비(碑)를 연산(硯山)에 세우고 또 비 하나는 강에 던졌다. 이는 무능한 생각이 있어 그러함이라. 한사의 사적이 비록 이와 다르나 여후즉(慮後則) 일치라. 만약 뒷사람으로 하여금 선대의 일들을 알일진대 습김없이 다 기록함이 좋지 않은가. 알찰해보니 그 자(字)는 성오(星五)요 회우(晦宇)니라. 석씨의 시조는 예성군 휘린(鄰)이요 휘선복(善福)이 삼가(三嘉)에서 영주 망월로 옮기니라. 고조휘 시구(時龜)는 호는 동암(東菴)이니 통정(通正)이요 증조 휘완길(完吉)이며 조휘는 기술(基述)이요 호는 지수

(芝叟)니 자른참봉이요 고휘는 운환(雲煥)이니 호는 월포(月圃)요 목른참봉이다. 비는 공인 진양강(姜)씨니 통정우영(祐永)의 따님이므로 호열로서 칭하니라. 고은 광무오년(光武五年) 신축십이월이십오일에 나시다. 시일세대에 원천송공(源泉宋公)문에 나아가 사십여 학도와 더불어 연참위업(肄業)하니 무릇 팔주년이라. 생공의 송원천 송환산의 문하에서 현무를 같이 한의(誼)가 있었음이라. 신유(辛酉)년간에 큰 흉년(凶年)이 들고 이교(異敎)가 현괄하여 연배(年輩)가 승천지술(升天之術)로서 달래되 드디어 버림을 받느니라. 금병현 송유음 김창진으로 더불어 춘양각화사(春陽覺華寺)에 가서 용학시서(庸學詩書)를 읽어 삼년뒤에 나와 사문(師門)에 질의하여 크게 장어함을 입었느니라. 임신년 봄에 월포정을 선공묘하에 지었다가 경인병선(庚寅兵燹)에 없어졌다. 경술이지(移址)후에 다시 세웠으니 선조를 추모함에 입향조(入鄉祖)이하 분영(墳塋)에 반드시 대방문자(大方文字)를 구하여 표하고 또 대동보소를 영주(榮州)에 베풀어 사년만에 마쳤고 지구간(知舊間) 조정지문에 향상 그 뜻을 거정하고 사문(師門)의 일에 시종 여임하여 동문생 송상환(宋尙煥)과 더불어 원천집(源泉集)을 간행(刊行)하여 세상에 분파하고 이어 그 묘에 비석을 세우고 경인난(庚寅亂)에 탄환(彈丸)이如雨(如雨)함의 노인을 받드는 사정이 가히 편히 앉아 잊지 못하여 등에 팔십 노모를 업고 임월분찰(林越奔竄)하여 근근히 위환을 면함이라. 일찍이 인묘(寅卯)년간에 광복단 송영(宋永祐)로 인하여 돈 일만원

을 상해임정으로 부치고 그 아들 성진(成鎭)이 압록강을 건너 독립운동(獨立運動)에
 종사하다 일본인에 잡혀 봉천옥에 갇히니 공이 이에 모험도파(冒險渡溟)하여 그 지
 성이로서 구해냈다. 충효저심(忠孝저심)의에 그치고 미치지 않음이 있겠는가. 인생의 사
 업이 비록 한신의 일이라도 사람의 능히 하지 못할 바가 있으면 이 어찌 뒷사람에
 게 전할 것이요 호랑이의 의에 출입하여도 귀우침이 없었을 것인가. 말로에 나서 성
 인의의 평택(平澤)이 삼담(三澗) 언덕을 실천할 때 공(公)이 아니니 누구이겠나. 배
 는 구인 평택(平澤)이니 무라부주사 선현의 따님이라. 무술 정월 이십칠일에 나시
 니 신해 팔월 이십부일의 절하시니 모가 오월 십사일에 나시고 갑진 오월 이십구일에
 는 증추원의 관대원의 따님이라. 기유 오월 십사일에 나시고 갑진 오월 이십구일에
 절하시다. 모가 예천벌방의 모시다. 남근 성진 한진 여진 서진 수진 석진이요 여
 기 반요답(半腰答)이요 화의의요수담(腰水潭)인 원구원(圓丘園) 증원(增元) 삼원(三元) 치원(池元)
 영원(永元) 재원(在元) 선원(仙元)이니 다 다 실재 못한다. 명이로서 가로되 반탕(半湯)이 어질지
 혜가 밝기 것이니 학(學)의 명(名)이 있니 스승(師)을 좇아 일찍이 놀아 원천(元泉)에 입설(立說)하였다
 라. 백담(柏潭) 부지(부지)의 학(學)의 행(行)을 참(參)함(함)이 후세(後世)에 전(傳)함(함)의 부(부)그림(그림)이 없(없)었(었)느니
 라. 이 어 이 단(段)을 기술(技術)하여 묘제(妙劑)의 세(世)계(界) 너(汝)를 갈(갈)아 더(더)우(우)실(실)이(이) 빛(빛)나(나)리(리)라.

계축 백년(백년)의

남근 권일(권일)섭(섭)찬(찬)

通政大夫匪匪翁忠州石公墓碣銘

榮州治南靈芝山之驛谷有封畢如于其脊甲原者卽故通政大夫匪匪翁忠州石公之幽藏也今其晁孫支裔徒弟雲仍募貲伐珉以顯其刻徵其辭于泰泰何敢辭無己則可撮而叙也謹按公諱基宗字文伯匪匪其自號也生以純廟甲午享稀年而終於癸卯晚以齒典階通政然公處士也其學專在身心其行不出鄉里是乃修天爵而人爵自至者也其事親之志體兼養友愛之湛和尤篤己疏節于日用而又能儉約濟生課桑勸農供伏臘而喜周窮迎賓友而豐觴豆樂善而與人好義而躬行嘗吟匪匪一絕曰幸我形骸一體人匪文武是何人嗟乎西伯已千古無處歸來東海人又鄉土詩歌事類聚句等篇率皆怡神養性之咏嘆應事接物之繩尺也嗚乎公未嘗以文學自矜而其守分聽命究源實得豈可與飾邪釣名好奇談高者同日而語者哉之焉之可其銘也公之先中州廣陵著閥也浮海而東仕麗受封藥城君諱鄰爲上祖也逮李朝有諱良善配慶昌翁主永興崔氏太祖之姨也乳養太祖故追封洪陽府院君及終命葬以國陵例陵在定平原是生諱天乙通政大夫行中郎將洪城君太祖親書賜詩曰同乳兄弟誼如山如海恩是生諱汝明贈左贊成號花園是生諱文成直提學襲封藥城君是於公爲十有五世曾大父曰光秀大父曰彩健父曰相瑾

外大父曰英陽南士人周亨也貞夫人順興安氏寧海朴氏公之前後配也舉三男成模洙模并叅奉安模成模一男範煥主事洙模一男撰煥叅奉林文性其婿也安模二男貢煥孟煥姜先宗權永圭朴明福三女婿也曾玄以下不能具錄銘曰學貴鑽研自是攻玉而成器也行須修齊惟其刑家而述事也仰千古之賢而一士尚志得五福之首而三品從至務大本之業次求多福之格致祥雲滿地靈芝蒼翠

檀紀四千三百年丁未春三月甲辰

冶城 宋泰翼 謹撰

曾孫 均元 謹暨

동정대부 비비응 충주석공 묘갈명

영주치남(榮州治南) 영지사(嶺谷甲原)에 한 큰 분묘가 있음은 고(故)통정대부 비비응 충주 석공의 산소이니라. 이제 그 종손 지손 문인들이 돈을 모아 좋은 비석을 갈아서 그 새김을 드러나게 할새 나에게 묘문을 청하거늘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리오. 삼가히 안찰해 보건대 공의 휘는 기종(基宗)이요 자는 문백(文伯)이요 비비는 그 자호니라. 순묘감은 생으로 향년 칠십에 돌아가시다. 늦게 수로서 통정에 오르나 그러나 공의 향상 처사라. 그 학이 온천히 몸과 마음에 있고 그 행실

이 향리(鄉里)에 나지 아니하니 이가 이에 천작(天爵)을 다음에 인작(人爵)이 스스로 이르는지라. 그 어버이를 섬김에 지체(志體)를 갖쳤고 우애하여 담화가 우독(友篤)하니 이가 그 소절이라. 모든 일용에 또한 검약으로 생계를 거두니 병을 심어 농사를 원하고 복납에 이바지하고 주궁(周窮)함에 즐거히하고 빈우(賓友)를 맞이 하여 배반(杯盤)을 풍성히 하고 선(善)을 즐거히하여 사람을 더불어 의(義)를 좋아 하여 구행(躬行)하고 일찍이 비비 일절시(一絶詩)를 읊어 가로되 다행히 나의 형해(形骸)가 일체의 사람은 문(文)도 아니고 무(武)도 아니니 이 무슨 사람인고. 슬프다. 서백(西伯)이 이미 천고(千古)하니 곧 없이 돌아오는 해동사람이더라. 또한 향로 시(詩)가 사류취구등편(事類聚句等篇)이 다 신을 화하게 하고 심품을 기르는 영탄(咏嘆)이요 일에 응(應)하고 물에 접(接)하는 승척(繩尺)이더라. 오호라. 공이 일찍 문학으로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분을 지키고 명을 듣고 그 원을 탐구하고 실상을 얻으니 어찌 가히 신사조명(飾邪釣名)하고 기담(奇談)을 승상하는 자로 더불어 하루(同日)에 다 말할것는가. 공의 선대는 증주광릉(增州廣陵) 저벌(著閥)이라. 동에서 고려에 와 벼슬로 예성군(藥城君)을 봉하니 군의 휘는 린(鄰)이요 즉 상조(相)이다. 이 조 휘양선(良善)에 이르러 배는 경창옹주(慶昌翁主)니 영응최씨요 이 태조의 이모이다. 태조를 유아왕(幼王)으로 호양(幼王)부원군(副元君)을 추봉하고 돌아가시니 국(國)을 예로 정평에 장사하니라. 휘 천(天)은 통정대부(通政大夫)행 증랑(增郎)장흥(長興)인 이요 태조의 친서로서 한수(汗)절

의 시(詩)를 하사받고 동유(同乳)한 형제의 의는 여산여해 같으니라 하셨다. 휘여명(汝明)은 좌찬성 호(號)는 화원이요 휘 문성(文成)은 직제학이요 예성을 습봉(襲封)하니 이가공의 심우세손(孫)이라. 증대부왕 광수요 대부왕 채건이요 부왕 상은이요 외대부왕 영영양남(南)사인 주형이니라. 정부인 순흥안씨와 영해 박씨는 공의 전후배이니라. 삼남 성모 수모는 참봉이요 안모라. 성모 일남이니 주사요 수모 일남이니 찬환이니 참봉이요 임민천이니 그 사위니라. 안모 이남이니 광안맹환이요 강선종 권영유 박명복이니 삼역서라. 증현 이하는 쓰지 않는다. 명하역 가로되 학(學)은 찬연함을 귀하게 함에 이로부터 우(玉)를 처서 그릇을 이루고 행실이니 수제(修齊)함을 기다려 오직 그 집의 법하여 이로 계승(繼承)함이라. 천노에 어진이를 우려함에 한 선비가 뜻을 숭상하고 우복의 머리를 얻음에 삼품(三品)이 쫓아 이롭이라. 대본(大本)의 엄을 힘쓰고 다음 다복(多福)의 격치(格致)함을 구함이라. 상은이 만지하고 영지사(永)의 창취하더라.

정미춘 삼월 갑진

야성 승태의 찬

從事郎漢城府主事晚宿石公之墓

源泉宋公曹煥鉉門受徒學者全集青襟濟濟斬如也漢城府主事石公守業亦其一也其字致和號晚宿忠州人也公以好姿地資賢師友磨礪之酌古今而量其宜無自失也公其幾矣乎公之考曰綱煥其號是菴從漁山宋公鎮天遊有文行早世外大父晉陽姜渭敬大父諱萬述通政副護軍曾大父諱完吉高王父諱時龜通政其先宋工部尚書諱鄰漂到東國事高麗明宗爲上將軍封藥城君藥今忠州子孫遂以爲貫漢陽初洪陽府院君諱良善娶崔氏與桓祖爲友壻康獻王受命錫茅士且康獻王嘗乳養於崔氏封崔氏爲慶昌翁主賜宅永興貴顯傾一世後有諱汝明漢城尹集賢殿提學左贊成又有寶文閣直提學諱文成襲封忠州諱善福自三嘉遯于望月不求聞達高宗丁亥十二月二十一日公生眉眼爽朗可愛四歲孤鞠於護軍公懷中七歲就其從叔父寢郎公雲煥受字彙才性過人通敏易曉寢郎公大奇之十歲登源泉門旣入爐鞴其觀感之實氣像漸熟詞翰漸就苑然爲流輩首猶自視欿如也大爲源泉所期許篤於彝倫事大父母愛敬俱至應對唯諾務順其心志烹飪瀚濯務適其口體至如突室隨宜裁節去薪加薪令寒煖得中大父母甚安之及大父母歿凡度具必誠必信無憾易戚亦哀勝文早違嚴顏以幼未服喪爲至痛每遇終身之喪

着品至爲蠲潔匆匆其致享以伸餘哀若夫賑恤之仁睦婣之義又其餘行之炳烺者也丁未除漢城府主事見時方亂不起杜門靈芝山中躬耕以辟世噫公既有才其又有負抱可爲需世之器而遇世亂積而不市但措諸一家之政者燦然可觀而已可勝惜哉壬寅春偶感疾二月三十日屬纊得年七十六葬郡南望月長坊山面乾原公三娶晉陽姜利中女密城朴時根女坡平尹永睦女俱端人姜墓同崗甲坐朴墓板谷坤向尹至今無恙男五人尚鎮義鎮在鎮洛鎮達鎮婿劉載澤孫男六人植源大源琪源宗源道源章源餘不錄公再從弟奎業甫次其遺蹟謬囑不佞以傳信之言不佞以老病不文辭辭不獲就其遺狀而隱括之載之于石銘曰嗚乎此喆士之藏也後來閱千霜麝去留香也撫實而揚之昭示無彊

朝鮮開國九癸卯天中節端陽日

宣城 金晦鎮 撰

沃川 全重煥 書

종사랑 한성부주사 만숙 석공의 묘갈명

원천송공 주환이 개문수도(開門受徒)함에 학자가 분침을 하니 청근(靑衿)이 제제 하더라。 한성부 주사 석공수업이 또한 그 하나이더라。 그 자는 치화(致和)요 호는 만숙이니 관충주라。 공이 좋은 자질로 어진 사우(師友)를 찾아 취정하여 고금

을 적당케 하여 스스로 이름이 없느니라. 공의 아버지는 강환(綱煥)이니 호는 시암(是菴)이라. 송어산(漁山)을 따라 놀아 문행이 있느니 되 일찍 돌아가시니라. 외조부는 진양강위 경이니라. 조부의 휘는 만술(萬述)이니 통정 부호군이요 증조부 휘는 완길(完吉)이요 고조부 휘 시구(時龜)니 통정이요 그 시조 휘 린(鄰)이 동으로부터 고려에 와 명종조에 상장군이 되고 예성군을 봉하니 예성군이 지금의 충주(忠州)라. 자손이 드디어 관향하니라. 홍양(洪陽)부원군 휘 양선(良善)이요 배정창(秉昌)주영흥최씨가 아태조를 유양(尤陽)공이 있으니므로 봉작을 받았느니라. 휘 여명(汝明)좌찬성이요 보문각직제학 휘 문성(文成)충주로 습봉하니라. 휘 선부(仙夫)이 처음으로 망월에 왔으나(移居하여) 문달(文達)을 구(求)하지 않았더라. 고종 정해 十一月 二十一日에 공이 나시니 미안(尾眼)이 상량한지라. 네 살 때에 조고(早孤)하여 홍군공의 품에서 컸다. 칠세 때에 그 종숙(從叔) 침랑공에 나아가 자모음을 배움에 재주가 통민이 효하니 침랑공이 크게 기의하게 여기더라. 십세에 원천문(源泉門)에 올라 이미 단련되어 기상이 점점 수달하고 사한이 점점 성취하여 완전히 수두(首頭)가 되었느니라. 히려 스스로 겸허하더라. 또한 크게 원천에 기여한바더라. 이류에 돈독하여 조부모를 섬김에 애경(愛敬)을 다하고 응대(應對)함(應對唯諾)함에 그 마음 순케함을 이루고 반찬과 의복을 그 입맛에 맞게 드리고 방을 따듯하게 하여 항상 시종을 하니 조부모가 편히 여기시더라. 조부모가 돌아가심에 필성(必誠)필신(必信)하여 이와척에서

은함이 없으니 남의 애통을 펴고 진홀(賑恤)의 어짐과 목연(睦婣)의 의가 또한 그 남
 은 행실의 병랑함이라. 정미에 한성부주사를 제수함에 때가 분주한 것을 보고 일
 어나지 아니하고 영지사중(靈芝山中)에 공경(躬耕)하여서 피세하니라. 공이 이 미
 그 재주가 있고 포부가 있어 세상에 큰 그릇이 될 것인데 세상의 요란함을 맞나 한
 가정에 듦이 천연히 가관(可觀)할 따름이라. 임인춘에 우연히 감질로서二月二十
 三日에 소강하니 향년 七十六이시라. 묘는 방월장방산 권좌니라. 공의 삼취는 진
 양강리중(利中)의 따님이요 밀성박시근(時根)의 따님이요 파평윤영복의 따님이니
 다 단인이라. 강씨묘는 동원(同原) 감좌요 박씨묘는 판곡 권향이요 윤씨는 지금
 재위하니라. 아드님 다섯은 상진 의진 재진 낙진 달진이요 사위는 유재택이요 손
 자 여섯은 식원 대원 기원 종원 도원 장원이니라. 나머지는 기록치 않는다. 공의
 재종제 유업보(奎業甫)가 그 유적을 전차하여 그릇 나에게 전신할 말을 부탁하거늘
 내가 노병을 달인으로 사사 불드르하여 유장(遺狀)을 은팔하여 돌에 실이라 하고 명하여
 가로되 우호라. 이는 철사의 간직함이라. 뒤 천만년에 사슴은 가고 향기만 남았
 느니라. 실상을 찬양하여 밝게 무강한데 보임이라.

개국九계묘천증절 단양일편

신성 김회진 찬
 옥천 전증환 씀

穆陵叅奉墓碣銘

公諱雲煥字寶京號月圃姓石氏籍忠州鼻祖諱鄰以麗朝上將軍封藥城君仍貫焉入我朝諱良善以太祖大王姨叔封洪陽府院君諱汝明號花園漢城尹左贊成諱文成直提學襲封藥城諱善福自三嘉遯于剛州曾祖諱時龜通政祖諱完吉考諱基述莊陵叅奉妣恭人月城李氏章憲女也公以高宗丁丑七月二十三日生貌豐而性毅器恢而操直接物寬容濟事綜密自幼至長油然孝悌卽由乎天也未弱冠就傳受學于我族父模山公與之資研向學誠切人所難及以此做去何患不成但親年益隆應接甚煩餘力以文趣庭承順貽後遺安上堂而無憾憾之憂入室而無咨咨之嘆家道雍穆斬斬有法莫非公康濟有謨也先公嚴立家法子弟小有差失一不容貸於公無以爲過其承順可認也兩親偕享喜懼之心恒戒于中預備壽制無遺餘憾追慕先壟表石祭田措置有規訓子必以義方敦尚學業於文房之具無不備給取古人易教之義托余而資研墨期以成就士友之往來爲訪恭儉不懈尤長於調窮族戚或有顛連者必矜憐而救恤之人有吉凶不能自力者無靳推與恒言人之處世寧損己力而誓不失人心推此而行人皆信之莫不心服事有依仗不招而至如臂之使指且濟亂有術甲午東騷創率洞人捐己糧而預避山刹卒免侵困丙申剋旅出

義糶而助軍用令人感奮平生用工專注實學異教之誘毅然不動時文之動舉多渙散導
 迪子姪不越繩墨行吾當行言吾當言凡諸日用實心所做無愧乎古之篤學之士嗚乎猗
 哉若遇之以盛際假之以遐享則宜其爲脩途長進終成完厚世值蹇屯爵止郎啣壽僅中
 年以純廟丙寅十二月九日終於寢葬郡南望月水谷長坊山乙坐原配恭人晉州姜氏通
 政諱佑永女生二男奎業卿業奎業男成鎮射鎮允鎮漢鎮呂鎮瑞鎮秀鎮錫鎮卿業男明
 鎮餘幼不錄奎業篤守遺謨誠切闡先深惧公善行之久而湮沒方營伐石用衛墓道以余
 爲兩世從學知公心行要請碣銘不可以不文辭因忘拙而述其大致繼之以銘銘曰人之
 爲道所貴倫常公專三事克扶其綱善餘之澤垂裕益昌月山之阿衣履攸藏表以貞珉百
 世遺光

重光協洽小春

冶城 宋胄煥 謹撰

무엇이 참봉인가

공의 휘는 윤환이요 자는 보경이며 호는 월포라. 성은 석씨로서 이조 휘린이라
 조의 상장윤과 예성윤이로 봉하니 관향을 지금의 충주로 하였느니라. 아조 때 휘양

선의 향양부분선의요 휘와명의 향기 화편이니 학성언 좌찬성이요 휘문성이니 직제학
 이니 예성을 스텝옹하였니 휘선부의 삼가로부터 영주에 은거(隱居)하니라。 증조휘
 시주는 통정인요 조휘는 완일의요 그의 휘는 기술이니 장안 참봉이며 비는 공인월
 성이씨니 장현의 따님이라。 공의 고종 정축십월 이십삼일에 나시니 용모가 풍요
 (豐饒)하고 성품이 강의(剛毅)하며 기극(碁局)이 넓고 아조(雅操)가 정직하고 말을
 대함외 관양하니 사립외 증말하니 어려서부터 자성할때까지 유연(油然)한 효제가
 하늘에 말미암음이리라。 약관때에 시승에 나아가 내의족부 어산(漁山)공에 학을 배
 워 학성이 간절하여 사람이 미치지 못한지라。 어찌 이루지 못함을 한(恨)하겠느
 나。 다만 어버이 연세가 더욱 높고 응접(應接)이 번거로워 여력(餘力)에 문학을 하
 여 추정(趨庭)함에 승순(承順)을 하고 자손에 편안한 것을 기치니 당에 올라 척척한
 근심이 없고 실에 들어 자자한 한탄이 없어 가도가 묵묵하여 참참이 법도가 있으니
 공의 강제한 규모가 있음이 아님의 아니더라。 선공(先公)이 엄하게 가법을 세워
 자제가 조금 차질함이 있으면 한번도 용서치않고 공에게는 허물함의 없으니 그 승
 순함을 가히 알리라。 양친의 년세가 높으심에 휘구의 마음을 항상 경계하여 수제
 의복을 예비하고 여가에 기침이 없더라。 선영(先塋)에 추모하여 표석 제전(祭田)이
 규모있게 조치하고 자제 가르치기를 반드시 의방(義方)으로서 하니 학업을 돈상(敦
 尚)하여 문방을 갖춤을 비겁하지 아니함이 없고 고인(古人)의 역교(易教)의 의를 취

하여 나에게 연무를 부탁하여 성취하기를 기약하고 사우(師友)의 왕래에 공음 불해(不懈)하고 더욱 족척에 주궁(周窮)을 하고 전련(顛連)한 자(者)에 구휼을 하고 사람이 이 길(道)에 자력으로 능치 못한 자는 많은 이 밑에 주그 향상 말하기를 사람 처세함의 차라리 내가 손해날지언정 맹서된 인심을 잃어서는 아니된다 하니 이로 미뤄 행하니 사람이 다 신용하여 심복치 아니한데가 있지 아니하더라. 부르지 아니해도 의지하는 자가 있어 팔이 손가락 부리는 것과 같더라. 또한 제란유술(濟亂有術)하여 갑오(甲午)동소에 동리사람을 창출하여 양식을 들여 미리 산적질로 피하여 마침내 침근함을 면하고 병신(丙申)에 군사를 일으킴에 의병을 내어 구양을 도와 사람을 감분하게 하더라. 평생 용공(用工)이 온전히 실학(實學)을 하고 이연지유(異然之誘)에 이연이 음직이지 아니하고 시효가 음직임에 대략 한탄함이 많음에 자질을 인도하여 승묵(繩墨)에 넘지 못하게 하고 내 마땅히 행함을 행하고 무릇 일용에 실심으로 지는 바가 이 독학(篤學)의 선비에 부끄럼이 없더라. 오호라. 장하다. 만약 약에 좋으리 때를 만나서 오래 살았으면 마땅히 그 신질에 질이 나아가 마침내 완후(完厚)함을 이루었을 것인데 이 말세를 만나 벼슬이 낭함(郎啣)에 그치고 수가 근근히 중년이 되어 수요 병인(十二)월 九일에 졸하니 묘는 구남(男)을 생하니 유업에 모시고 배는 공인(公)인 진주강씨니 통정(通正)의 따님이라. 이남(二男)을 생하니 유업정업이라. 유업 남 성진 여진 유진 한진이요 정업 남 병진이라. 나머지는 어려

서 기록치 않는다。 유업이 돈독히 유모(遺模)를 지키고 정성이 천선(闡先)한데 간절하여 깊은 공의 선행이 오래되어 인물(湮沒)할까 염려하여 방향으로 돌을 다스려 묘도에 용위(用衛)할새 내가 양세(兩世)로 종학(從學)함으로써 특별히 공의 심행을 잘 압으로 갈명을 요청하기를 가히 불문으로서 사양하지 못하여 응졸함을 잊어버리고 그 대치를 기술하고 이어서 명하여 가로되 사람의 도됨은 은상을 귀히한 배라。 공이 삼사에 온전히 하여 극히 그 가업을 불들었느니라。 선여(善餘)의 덕택은 후손이 더욱 번창할터라。 철산의 두덕에 의이(衣履)를 간직한 배라。 정민으로 표를 함에 백세에 유광이더라。

신미소춘

야성 송주환 찬

太白山城史庫叅奉忠州石公墓表

公諱相胤字有一石其姓而忠州其氏也高麗上將軍藥城君諱鄰爲肇祖李朝有洪陽府院君良善以夫人崔氏乳養太祖故追封而命葬國陵例子天乙通訓大夫行中郎將洪城君子汝明號花園以麗朝注書不應太宗召命竟卒于配所焉四傳而曰璟流轉于嶺下世

于榮州治南平恩里子姓仍昌熾焉曰以書曰致龜曰光秀曰萬健璿源閣叅奉公之高曾及祖及考也妣恭人晉州姜氏公生以哲廟丙辰性度冲厚多能藝術往在光武九年受官命得修築太白山城史庫叅奉享七十三年而終葬于靈芝山柳谷乾坐之原配恭人寧海朴氏奭模女繼聘晉州姜氏舉二男二女男春宗女適姜達成朴氏出也男鶴準女適全徵發姜氏出也春宗三男一女男義模廷模廷模女適崔秉箕鶴準三男二女男彥模夏模周模女適金楷源姜昭遠以下不勝錄也日宗子遇煥請余叙其世于阡謹按蹟而書其畧如右

歲庚戌孟冬月甲午

冶城 宋泰翼 撰

사고참봉 증주석공 묘표

공의 휘는 상관(相胤)이요 자는 유일(有一)이니 그 성은 석씨요 관은 증주이다. 고려상장군 예성군 휘 린이 시조이니라. 이조에 홍양부원군 양선의 배 영흥최씨가 이래조를 유양(乳養)함으로 추봉하고 돌아가신 뒤 극능장애에 따라 장사하고 그의 아드님(子) 휘 여명은 號가 花園이며 여조 주서(注書)로 왕지(王旨)로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으니라. 네 번 전하여(四傳) 가로되(曰) 휘경(璟)은 영하에 류전(流轉)하

여영주 치남 평은리(平恩里)에 이거(移居)하니 자손이 창치(昌熾)하더라. 가로되
 (曰) 이선(以선)과 치구(致龜) 또 광수(光秀)와 만건(萬健)은 준원각(璿源閣) 참봉이
 니 공이 고조 증조 조부와 아 버님이니라. 비(妣)는 공인 진주강(姜)씨라. 공이 철
 묘명전에 나시다. 성품이 충후(冲厚)하여 예술(藝術)이 능하고 광무구년에 관명(官
 命)을 받아 태백산성(臺白山城) 사고(史庫)를 수축함에 기획이 만전하여 적기(適期)에 마치니
 위에서 특별(特)을 내려 태백산성 사고 참봉(參奉)을 제수하다. 향년 七十三에 돌아가
 시니 묘는 영지산 유곡(靈芝山柳谷) 건좌원이라. 배(配)는 공인(恭人) 영해박씨(永海朴氏)
 니 석모(奭模)의 따님이요 또 진주강씨(姜氏)이다. 이남이녀이니 남은 춘종(春宗)
 과 여강달성(女姜達成)은 박씨의 계출(系出)이요 남학준(鶴準)과 여전증발(全徵發)은
 강씨(姜氏)의 남은 심이다. 춘종은 삼남일녀니 남희모 연모 정모요 여(女)는 최병
 기(崔秉箕)의 처요 학준은 삼남이녀이니 남은 언모 하모 주모요 여는 김해원(金楷
 源)과 강소원(姜昭遠)이라. 이하는 다 실지 못한다. 일종의 아들과 우환이 나에
 게 그 세기서창하기를 칭하기를 삼가히 안찰하여 대략 이같이 하노라.

세정승평은리 평은

야성 승태의 찬

封壇安石有感

大凡天地萬物惟人最貴所貴人者以有五倫地也若非后稷感跡伊尹空桑豈有無根枝葉也哉五倫之中父子爲先百行之中惟孝爲源而距今數百餘年前惟我九世豈強爲惟我門運不可不歸於數而外無他道然與其泯滅祖先之靈不若封壇續香足的營營已久綠於誠微力簿有志未就者有年於茲吳至乙亥宗會時宗族討議封壇立碣之論成焉擇定祭日卽越翌洞酌灌鬯丹爐燒香雲孫羅拜儀容温恭佳賓獻賀衣冠齊整靜悄悄敬終祭畢循序列坐說古談今后孫之樂無窮天長地久先祖之靈不泯於是乎舉酒屬客奉謝厚誼賓主談論淳淳侃侃至有令日是誰之德上天所佑先祖所賜自茲以往惟我宗族庶減霜露萬一之感焉

丙子三月既望

後孫 應穆 謹記

보이다의감

무릇 천지만물(天地萬物)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함이라. 사람이 귀한 바는 오륜(五倫)이 있는 연고라. 만약 후직(后稷)이 자취를 느끼고 이윤(伊尹)의 공상이 아

니면 어찌 뿌리없는 지엽(枝葉)이 있었는가。 오륜(五倫) 가운데 부자(父子)가 먼저
 되고 백행의 가운데 오직 효(孝)도가 근원이 되고 거금 수백여년전(距今數百餘年
 前)에 오직 나의 구세조 휘 경록(九世祖 諱慶祿)은 충주(忠州)에서 상주(尙州)로 이
 거(移居)한 후에 문호(門戶)가 한미(寒微)하고 자손(子孫)이 영채(零替)하여 묘소(墓
 所)를 실전(失傳)하고 향화(香火)가 끊어져 그 선조에 손자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그 후손에 할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으니 슬프다。 오히려 어찌 참아 말할 하
 겠는가。 그 자손되는 자 생각하면 족히 슬픈일이다。 성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끊어짐이 있으면 이음이 있고 본래 정수(定數)가 있으니 사람이 어찌 구대여 하겠
 는가。 오직 우리 문운(門運)이 가히 수(數)에 돌리지 아니치 못할 것이고 만도리는
 없으나 조상(祖上)의 령(靈)이 민멸(泯滅)할진대 단(壇)을 봉(封)하여 향화(香火)를
 이음만 갈지 못하느니라。 이로서 정영함이 이미 오래되매 성미력박(誠微力簿)함을
 인연하여 뜻이 있고 나아가지 못한자 오래되었느니라。 을해종회(乙亥宗會)때에 봉
 단 입갈의론이 이루어져서 제일(祭日)을 택정하니 곧 인년 병자윤삼월 기망(翌年
 丙子閏三月 旣望)이라。 때는 삼월이요 절서(節序)는 모춘(暮春)이라。 이날에 구름
 은 개이고 배는 거두우니 날은 따뜻하고 바람은 화하여 우리를 멀리 버리지 아니하
 여 노소(老少)가 다 모임이라。 선조(先祖)를 추억(追憶)함의 덕과 인과 경과 성
 이요 래빈을 영접함에 동서남북(東西南北)이 더러。 예의(禮儀)로 봉행하고 필분(苾

芬(을) 제로 지내더라。 형작(洞酌)에 관창(灌鬯)하고 단로소향(丹爐燒香)이라。 운
 손이라 배함에 의용이 온공하고 가빈이 현하함에 의관이 제정하고 정초초정하니 제
 사의 예를 마치고 차례로 앉아 설고 담음하니 후손(後孫)의 즐거움이 무궁하고 천
 장지구(天長地久)함에 선조(先祖)의 령(靈)이 불민(不泯)함이라。 이에 거주속객(舉
 酒屬客)하고 두터운(厚) 의(誼)를 봉사함이라。 빈주(賓主)의 담론(談論)이 순순강
 강하여 오늘날 이름이 있으니 이 누주의 덕일고。 선조가 주는 바이라。 이로부터
 감으로 우리 종족들간 거의 상로(霜露)의 느낌을 만분의 일이나 느낌일지니라。

병자삼월 기망

후손 응복 은기

祝賀詩

墳前白立石千年

儀物新成拜祖先

玉篆濡朱銘氏譜

金莎平綠奠香烟

誠難以世人人效

理必君家子子賢

瞻掃洋洋如陟降

花技山碧暮春天

松庵 朴晚植

축하시

묘전에 희게 선 것은 돌이 천년의 물이 새로 이뤘는데 조상에 절을 하더라. 옥
 전자에 붉은 것을 전시여 씨보들 사기고 금잔디가 평평하게 푸르며 향화를 드리는
 연기더라. 정성은 이 세상에 사람마다 본받기가 어렵고 이치는 반드시 그 대집에
 아들이 어질더라. 보고 淸掃를 하니 양양하게 오르고 내린듯하니 화지산이 날저
 문 뵈하늘에 푸르더라.

송암 박만식

羨門營石已多年

今日遂誠永慕先

鳳嶂挹精開局勢

花枝藏氣鎖香烟

儀莊隨道千秋誌

孝彰鄉隣百世賢

羅列麟孫分胙席

賓朋醉賀暮春天

曉山 姜信鶴

예문(羨門)에 돌정영함이 임의 해가 많음을 부러워하니 오늘날에 정성을 이름에
 기리 선대를 생각하더라. 봉장에 정기(精氣)를 끌음에 판세를 열고 꽃가지의 기운
 을 간직함에 향연을 잠기게 하였더라. 의장(儀莊)은 묘길에 천추(千秋)의 묘지명이

오 호도리는 향린(鄉隣)에 백세의 어진이로 들어내더라。 나열한 인손(麟孫) 조육을
 나누는 자리에 손과 벗이 취하여 정은 봄하늘에 하례하더라。

호산강신학

通仕郎忠州石公墓表

故通仕郎侍直石公諱溼穆字賢仲號鶴樵其先忠州人中世徙居尚州尚州之功城靈梧
 里龍門山長嶺有雙封之崇若堂者卽其衣履之藏而安人沃川陸氏祔焉其胤子熙涇將
 治貞珉而表其阡徵其辭於余熙涇君卽余妹壻也因綠出入詳公事行故遂按譜據可徵
 者而書之曰公以高宗乙未正月十七日生以戊寅七月十八日卒年董至四十四而利澤
 之及人深遠矣天性穎悟才藝通敏未及舞象而經史子集無不通曉又深於格致之工受
 長者稱詡事親志體兼備愛敬俱至先業富裕急於恤貧緩於自奉建學校而出巨貲充育
 英事業費設郵遞便於通信如公可謂好富而施者歟石氏本中國人上祖諱鄰始東來高
 麗明宗時以有功於平亂西京陞上將軍而食采藥城卽忠州子姓之貫以焉此也世襲簪
 組至洪陽府院君諱良善配曰慶昌翁主爲從母於鮮韓太祖康獻王而兼有鞠養功故夫

婦俱膺異數特蒙封爵又覃恩於其子諱天乙封洪城君諱汝明恭愍朝文科注書太宗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而特降恩旨而召之自以出身麗朝矢志罔僕不爲恩謹春之崇而少回其意遂安置于忠州守義山而卒累傳至諱慶祿避執餘乱自忠州轉徙于尚州而家焉於公間九世高祖曰之璧曾祖曰載宜龍驤衛副護軍祖曰來鎮贈通政大夫皇考曰鍾淳官叅事妣恭人慶州李氏士人明淑女早卒無育妣恭人旌善全氏世權女配沃川全氏在轍女有婦德生壬辰正月十一日卒己巳五月四日生一男五女一男曰熙官有器量而不得試於世以教迪後進爲己任五女全州李武出妻慶州金慶伯妻商山朴一敦妻恩津宋小憲妻全州李熙萬妻大瑛大珉大珍南陽洪仁植妻慶州崔溶直妻孫男女也李正雄聖雄金善植清植俊植朴基洙喜泳宋在椿在燁在杰外孫也向下不錄今其內外孫繁昌多至數十人謂公之遺蔭所暨云

檀紀四三一三年庚申初夏

靈城 丁一燮 謹撰

통사랑 충주석공 묘표

고(故) 통사랑(通仕郎)시작 석공(石公)의 휘(諱)는 형복(溎穆)이요 자는 현중(賢仲)

을 평난한 功으로 상장군(上將軍)이 되고 예성(藥城)을 봉(封)하니 곧 충주(忠州)라. 자손이 관향을 함이니라. 대대(代代)로 고관을 하였고 홍양 부원군 휘양선(良善)의 배(配)는 정창응주(慶昌翁主)이시니 선한 태조에 이모가 되시고 겸하여 양육한 공로가 있는고로 부부가 특이한 수에 복응하여 특히 봉작함을 입었고 또 은혜가 아들 휘천을(天乙)에까지 미쳐 홍성군을 봉하였고 휘여명(汝明)은 공민조(恭愍朝)의 문과 주서(文科注書)임에 태종께서 가선대부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 집현전 제학을 제수하고 특별히 은지를 내려 불렀으나 스스로 여조 출신(出身)으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높은 절개로 은권의 높음에도 조금도 굽히지 않으니 드디어 충주수의산(忠州守義山)에 안치하여 돌아가셨다. 여러 대(代)를 지나서 휘 경록(諱慶祿)에 이르러 집서의 난을 피하여 충주(忠州)로부터 즉령을 넘어오다가 전전하여 상주에 이르러 살았으니 공의 구대조(九代祖)라. 고조(高祖)는 휘(諱) 지벽(之璧)이시니 은덕불사(隱德不仕)하시고 증조휘(曾祖諱)는 재의(載宜)시니 용양위 부호군이요 祖는 휘 내진(來鎭)이시니 증 통정대부(曾通政大夫)요 황고의 휘는 종순(鍾淳)이시니 관참사(官叅事)요 비(妣)는 경주이씨(慶州李氏)이니 사인명숙(士人明淑)의 여(女)라. 조졸무육(早卒無育)하고 비공인정선전씨(妣恭人旌善全氏)는 세권(世權)의 따님이라. 배(配)는 옥천육씨(沃川陸氏)이니 재철(在撤)의 따님이요 부덕(婦德)이 있었나니라. 임진(壬辰)正月十一일에 생(生)하고 기사(己巳)五月四일에 졸(卒)하고

일남(一男)오녀(一男五女)를 생(生)하니 일남(一男)은 월희관(曰熙涓)이니 기학(器學)이 있어 세상(世上)에 시험(試驗)을 얻지 못하고 오직 후진(後進)을 교적(敎迪)하므로 기임(己任)을 하고 오녀(五女)는 전주이무출(全州李武出) 妻(妻)요 경주김경백(慶州金慶伯)의 처(妻)요 상산박일돈(尙山朴一敦)의 처(妻)요 은진송소헌(恩津宋小憲)의 처(妻)요 전주이희만(全州李熙萬)의 처(妻)이며 대영대민대진(大瑛大珉大珍)과 남양홍인식(南陽洪仁植) 妻(妻)와 경주최용식(慶州崔溶植)의 처(妻)는 손남녀(孫男女)라. 이정웅(李正雄) 聖웅(聖雄) 김선식(金善植) 청식(淸植) 준식(俊植) 박기수(朴基洙) 희영(喜泳) 송재춘(宋在椿) 재엽(在燁) 재휴(在休)는 외손(外孫)이니라. 향하(向下)는 부록(不錄)한다. 이제 기내외손(其内外孫)이 번창(繁昌)하여 많이 수십인(數十人)에 이르니 사람이 공(公)의 유음(遺蔭)이 미친바라 이르더라.

단기四千三百十三年 靖辛 초하

영성 정일섭 근찬(靈城 丁一燮 謹撰)

정운석응목선생추모비(耕雲石應穆先生追慕碑)

선생(先生)은 一八九三年 十月二十日 유복(裕福)한 명문가품순(名門家禀淳)의

독자(獨子)로 상주읍(尙州邑) 서문리(西門里)에서 태어나셨다. 청장년(靑壯年) 시절(時節)엔 이 고장 특산물(特産物)인 잠사(蠶絲)의 수출업(輸出業)과 제사공장(製絲工場)을 자영(自營)하여 지역(地域) 산업(產業) 개발(開發)에 기여(寄與)하신 한편 상도회(桑道會)를 조직(組織)하고 육상(陸上) 자전차(自轉車) 경주(競走) 등 행사(行事)를 개최(開催)하여 주민(住民)들의 체위향상(體位向上)에도 남다른 관심(關心)을 가지셨다. 조국광복(祖國光復)을 맞아 혼란(混亂)하였던 때에는 향토(鄕土)의 치안(治安)에 헌신(獻身) 특(特)히 상주소방(尙州消防)의 중책(重責)을 맡아 고을의 안전(安全)과 방호(防護)를 위(爲)하여 근고(勤苦)하시였다. 만년(晩年)에는 주로 교육사업(教育事業)과 위선사업(爲先事業)에 몸과 마음을 바치셨으니 상주(尙州) 농천고등학교(農蚕高等學校) 사친회이사장(師親會理事長) 상주중학교(尙州中學校)와 尙州高等學校(尙州高等學校)의 설립기성회이사(設立期成會理事)로서 학교설립(學校設立)과 육영(育英)에 끼치신 공로(功勞)는 이 고장과 더불어 빛날 것이며 또한 선영(先塋)을 기리신 영보제(永慕齋)의 건립(建立)은 가문(家門)에 빛나는 유업(遺業)이 되리라. 평생(平生)에 이론(理論)보다 실천(實踐)에 비관(悲觀)보다 낙관(樂觀)에 사신(先生)은 매사(每事)에 낭만진취(浪漫進取惠施的)이면서도 불의(不義)에는 구함(구함)이 없으신 찰찰한 성품(性品)이셨다. 향

년(享年)八十三세(歲)로 一九七五年正月十七日 천명(天命)을 다하시고 이제 많은 자손(子孫)들이 사회(社會) 각계(各界)에서 빛나는 활약(活躍)을 하거나 선생(先生)은 여기 잠드셔도 흥흥(欣欣)하시리라. 향토(鄉土)에 끼치신 선생(先生)의 은의(恩義)를 세월(歲月)과 더불어 기리며 추모(追慕)하고자 그 일단(一端)을 삼가이 돌비에 새겨 세운다.

一九七六年 月 日

삼가 고하(古河) 최승범(崔勝範) 짓고

변산(邊山) 김윤길(金允吉) 씀

전 상주농천고등학교장 문대수 세움

이사관 희갑공 추모비(理事官熙甲公追慕碑)

공(公)은 충주인(忠州人)이니 시조(始祖) 휘(諱) 린(鄰)은 고려(高麗) 명종조(明宗朝) 예성부원군(藥城府院君)이요, 선조(鮮初)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節義)로 삼은(三隱) 병칭(竝稱)되었던 문하주서(門下注書) 휘(諱) 여명(汝明)은 증시조(中始

祖)며 고휘(考諱) 응목(應穆) 호(號) 경운(耕雲)과 비(妣) 연안차씨(延安車氏)의 七
 男으로 一九三三年 十月 二十三日 상주(尙州) 남성동(南城洞)에서 태어났다. 상
 주(尙州) 농잠고등학교(農蠶高等學校) 一回卒로 홍익대학(弘益大學)에서 정치학(政
 治學)을 전공(專攻)하였으며 공직(公職)에서는 주로 문교행정(文教行政)에 진력(盡
 力)하여 경북도부교육감(慶北道副教育監), 서울대학교(大學校) 사무국장(事務局
 長), 교육부(教育部) 대학교교육국장(大學校教育局長)을 향토(鄉土)에서는 第十三
 四代間 상농총동창회장(尙農總同窓會長)을 역임(歷任)하고 학술원(學術院) 사무국
 장(事務局長) 시(時)인 一九八四年 三月 十五日 순직(殉職)하니 향년(享年) 五十二
 歲였다. 품성(稟性)이 온후(溫厚)하고 처사엄정(處事嚴正)하였으며 포부(抱負)는
 원대(遠大)하고 무실역행(務實力行)하여 나랏동량(棟梁)으로 증망(衆望)을 입었으
 나 대기미만(大器未滿)은 명수(命數)였던가.

그러나 공(公)은 진인사(盡人事)하여 第十八回 광복절(光復節)에 받은 대한민국
 (大韓民國) 녹색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과 흥학입국(興學立國)에 기여(寄與)한 공
 (功)으로 추서(追叙)된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은 공(功)의 방명(芳名)을 사책
 (史冊)에 올렸으며 동창회장(同窓會長) 초(初)에 개교(開校) 六十周年 기념탑(記念
 塔)을 응비(雄飛)한 대학(大學)의 표상(表象)으로 세우고 모교(母校) 발전(發展)이

곧 향토(鄉土) 중흥(中興)의 밑돌이란 신념(信念)으로 동창사업(同窓事業)에 헌신(獻身)했던 은공(隱功) 또한 대학사(大學史)에 길이 새길 일이다.

아! 공(公)이 가신 지 七年, 사람의 값은 업적(業績)에 있고 수비(豎碑)의 뜻은 귀감(龜鑑)됨에 있나니 공(公)의 모교(母校)가 개교(開校) 七十周年을 맞으며 공(公)의 은택(恩澤)을 영세(永世)토록 기리려는 전상농인(全尙農人)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행장(行狀)에 의거해 이 글을 뒤는다.

西紀 一九九一年十月二十日

상농총동창회장(尙農總同窓會長) 황경(黃瓊)은 비(碑)를 세우고
 문학박사(文學博士) 권태을(權泰乙)은 글을 쓰고
 소금(小錦) 우상홍(禹尙洪)은 글씨를 쓰다

文武列仕錄 附事實

始祖 諱 鄰

自中華來于高麗毅宗庚寅亂從李義昉擢郎將明宗丙申從杜景升討趙位寵有功歷任西北兵馬使累陞上將軍封藥城君(藥城即忠州古號)

諱 靖

崇祿大夫行密直提學

諱 璉

資憲大夫行密直提學

諱 興國

嘉善大夫行門下侍中

諱 道

嘉善大夫行判決事兼雙城摠管

諱 良善

洪陽府院君配慶昌翁主崔氏即李太祖康獻大王之姨母也太祖誕甫五朔懿惠王后昇遐翁主乳養焉及太祖登極封公為洪陽府院君封姨母崔氏為慶昌翁主因其舊基改築別宮於永興府東德興社龜岩里即今永興宮闔里是也翁主指示御胎所藏之地因建殿即今濬源殿是也及捐宮一依國陟例葬于永興府北三十五里定平地長谷社

早田洞辰坐原事載陵殿誌及永興邑誌(永興邑誌即雙城誌)

諱 天乙

通訓大夫行中郎將外祖洪城君靖孝公無嗣故李太祖大王命公奉祀焉

諱 壽明

官至漢城判尹

諱汝明

高麗恭愍朝以成均生員登乙科官注書至李朝太宗特下王旨除嘉善大夫檢校漢城尹集賢殿提學公不就乃安置于忠州守義山回文洞以終蓋其專心所事不愧圃牧太宗褒其忠贈左贊成

諱筠

通訓大夫進勇校尉義興衛府事

諱瓘

通訓大夫行秦川郡守贈左贊成

諱文守

資憲大夫行禮曹叅判

諱文賢

官利川縣監

諱文成

官直提學襲封藥城君

諱笙

通德郎

諱鑑

通訓大夫定州牧使

諱龜壽

三陟縣令

諱貞信

官正郎

諱仁正

戶曹判書封藥原君有順安靑邑實蹟碑及神道碑進士金致大兵馬節制使徐任輔撰士林建祠妥享

諱義正

官禮曹
參議

諱禮正

官定山
縣監

諱智正

官承
旨

諱信正

官翰
林

諱寬彥

進士文司
宰監正

諱成玉

官吏曹參議當昏朝棄官居密陽清川洞嶺伯李好
之以姨從之誼家庄奴婢自辨以給事載密州誌

諱 琚

官吏曹
參議

諱斯珍

世廟朝登科氣宇磊落不拘小節端廟朝甲戌陞嘉善大夫行慶尚右兵馬節度使兼水
軍節制使世祖受禪辭職退居宜寧石川洞寓懷林泉以終餘年事載宜春誌及嶠南誌

諱斯城

通德
郎

諱斯璉

防禦
使

諱玉玷

兵曹佐郎兼訓
鍊院宣傳官

諱玉璫

官司導
寺僉正

諱 玉 琪

訓導

諱 玉 瑱

通訓大夫

諱 玉 連

濟用監主簿

諱 衡 孫

濟用監主簿

諱 進 昌

通訓大夫

諱 敬 瑞

通德郎

諱 光 輔

文科司憲府監察贈資憲大夫工曹判書兼義禁府知事

諱 璉

建功將軍

諱 擎 天

敬陵叅奉

諱 擎 日

官承文正字訓導
典籍事載密州誌

諱 擎 漢

官通禮

諱 自 穎

武科

諱 嶺

奉 叅

諱 尚遠

奉 叅

諱 懷琛

將仕郎臨
坡訓導

諱 鑑

贈嘉善大夫兵曹叅判公當龍蛇兵燹與再從孫天壽奉五聖位板避禍於心項山古
寺乱定還安以護聖功建廟於忠州文廟右側儒林享祀有事蹟錄性潭宋文敬公序

諱 天壽

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龍蛇兵燹
再從祖鑑有護聖功同享忠州護聖廟與

諱 千斤

宣廟壬辰原
從一等功臣

諱 泰山

通訓大夫行
泰一殿叅奉

諱 光弼

禦侮將軍義興
衛左部副司果

諱 有珪

官奉禮
至叅議

諱 有璧

官佐
郎

諱 赴

通仕郎
教導

諱 櫻

上使使
于日本

諱 摠

官侍郎

諱 奎

鎮岑教授

諱 屹

折衝將軍
副司直

諱 崑

官虞侯

諱 趙

司憲府
掌令

諱 嶷 僊

隸內禁衛
贈資憲大夫漢城判尹兼義禁府知事

諱 雷 鳴

武功郎
箕子殿叅奉

諱 圭

木川
訓導

諱 殷 弼

贈通政
大夫

諱 得 守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岑

廣梁僉
節制使

諱 應 老

通政
大夫

諱 宣

武科建功將軍
龍驤衛副司果

諱 乾 軀

宣武郎宣廟甲辰登
乙科金井道察訪

諱 應 吉

贈通政大夫行宣武
原從功臣軍資主簿

諱 忠 男

武科折
衝將軍

諱 希 顏

將仕
郎

諱 潤 珉

折衝
將軍

諱 自 瑛

壽職嘉
善大夫

諱 之 珩

仁廟癸酉中司馬甲戌文科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
行通訓大夫刑曹正郎春秋館記注官江華教授開城教授見學行錄

諱 大 吉

刑曹
正郎

諱 大 賢

軍資
監正

諱 璘

贈崇祿大
夫左贊成

諱 潤 城

從仕郎安
陰縣監

諱 彥 傑

禦侮
將軍

諱 弘

訓練院正事
折衝將軍

諱 末 立

嘉善大夫行
都護府使

諱 應 璧

以文章特
授教官

諱 自 嶠

宣武
郎

諱 自 巘

通訓大夫行龍
驤衛副護軍

諱 汝 信

承仕郎見
學行錄

諱 應 龍

司憲府
監察

諱 成 玉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光 壽

贈通政大夫掌
隸院判決事

諱 稀 俊

通訓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如 玉

贈通訓大夫
工曹佐郎

諱誠南

莊陵
參奉

諱延南

嘉善
大夫

諱仲元

贈通政大夫行承政院同副承旨
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修撰

諱富昌

嘉善大夫行漢城左
尹弘文館副提學

諱大宅

通政大夫章陵
參奉泰川縣監

諱宗憲

資憲大夫春
秋館校書郎

諱汝崇

嘉善
大夫

諱聖南

通政
大夫

諱柱天

通政大夫
司僕寺正

諱元德

通政大夫
工曹參議

諱最重

壽職通政大夫折衝將軍龍驤衛副
護軍僉知中樞府事見嶠南科榜錄

諱之璜

嘉善大夫
折衝將軍

諱大寬

以宣武原從功臣賞職主簿陞
通政大夫折衝將軍副護軍

諱始興

嘉善
大夫

諱雲祥

壽通政大夫贈資憲大
夫事載嶠南科榜錄

諱民瑞

文化
縣監

諱琮

宣廟朝官兵曹佐郎光海朝棄官歸隱於星州船南面釵洞三山堂在錨谷
恭山宋俊弼磊軒鄭宗鎬記楮惺窩李基馨撰樑頌事載星山誌及嶠南誌

諱邁省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繼興

嘉善大夫五衛
都摠府副摠官

諱就夏

通政大夫
軍資監正

諱雲漢

秉節校尉龍
驤衛副司果

諱命生

通政
大夫

諱義節

嘉善
大夫

諱載士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東 顯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宇 柱

通政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立

嘉善
大夫

諱 完 南

通訓
大夫

諱 益 孫

敦寧府
都正

諱 俊 玉

通政大夫行
敦寧府都正

諱 大 載

嘉善大夫同
知中樞府事

諱 鎮 泰

通政大夫行
敦寧府都正

諱 致 敬

嘉善大夫陞戶曹叅
判事載嶠南科榜錄

諱 成 瑑

嘉善大夫折衝將軍行
西北鎮撫兼節制使

諱 明 俊

壽職折衝將軍
行古鎮僉使

諱 致 煥

通政
大夫

諱 峰 廩

通訓大夫司
憲府監察

諱 鍾 德

壽職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諱 玉 洙

嘉善
大夫

諱 洵 宮

內府叅書
兼秘書承

諱 奉 孫

通政大夫司諫院
教授兼右承旨

諱 運 榮

洪陵
叅奉

諱 禮 昌

老職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諱 得 立

通政大夫
忠壯衛

諱 日 三

武科宣
傳官

諱 萬 壽

武科萬戶僉
知中樞府事

諱 之 巖

武科宣傳官玉江萬戶叅下副
將叅上副將監察訓練主簿禦侮將軍价川郡守

諱 鍾 圭

通政大夫敦寧府都正事載嶠南
科榜錄及嶺南文獻錄見學行錄

諱 仲立

通政大夫兵曹參議知中樞府事

諱 玉樞

通政大夫

諱 基述

莊陵參奉

諱 大寬

章陵參奉

諱 命國

壽職同知中樞府事

諱 鴻柱

通政大夫敦寧府都正

諱 基坤

文科行慶尚都事兵曹佐郎司憲府掌令

諱 載秀

壽職通政大夫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諱 載柱

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

諱 文宅

官參奉

諱 永昊

宣略將軍龍驤衛副司果行三千浦權管

諱 載俊

通仕郎見學行錄

司馬榜錄

諱 擊日 進士

諱 寬彥 進士

諱 斯環 進士

諱 光鼎 進士

諱 光弼 進士

諱 彥國 進士

諱 孟熙 進士

諱 至剛 進士

諱 世良 生員

諱 建 生員

諱之珩
生員

諱琛
進士

諱重鎰
進士

諱之峰
進士

諱鳴鍾
進士

諱鎮宇
進士

諱再星
生員

諱道周
進士

諱燦齊
進士

學行錄

諱汝信

號雲圃以文章德行著世寒岡鄭先生下誣時鄉薦獨行同疏卞松溪中李誠新山書院追配時同金海士林并剏通狀見列仕錄卞

諱之珩

號壽峴以文章德行顯於當世仁廟朝上五位龜鑑上下篇進疏批曰所進冊子非但深究易理愛君之誠溢於辭意實非汎然投疏之比予甚嘉尚可不體念仍賜義經一帙心經一帙及虎皮以表予嘉尚之意顯廟朝著永字圖象太極兩儀三才四象之說進疏以勉君德與琴湖李志傑聲齟齬姜錫述講道論詩琴湖之子靜軒世瑾修學於門當丙子亂扈駕八南漢山城有山城日誌一卷文集二卷東溟鄭斗卿眉叟許穆跋二冊板本置於開城成均館西齋樓上館內有紀蹟碑事載開城舊誌見列仕錄所著南漢日記四編及解圍錄藏于奎音閣

諱守道

號素菴嘗與松窩安命夏交遊有詩相和而松窩作素菴說見孝行錄

諱汝黃

風度清秀天資穎悟自少佩恭儉二字不事舉業教訓子姪

諱致重

號洛隱性素溫良事親誠孝潛心性理不事舉業嘗以勸獎後生爲己任鄉黨推重事載星山誌及嶺南文獻錄嶠南誌

諱鎮宇

號洛坡天資穎悟文詞夙成八歲能屬文博涉經史文名著世純廟己巳登科與凝窩李源祚有同榜之誼互相追隨旋棄舉業潛心聖學固守林樊獎進後生爲己任事載星山誌嶠南誌及寰輿勝覽見司馬榜錄

諱鍾圭

號雙楠自幼天性至勤慧實早啓一聽文義輒解如流及長夢拜陶山夫子得聞千聖相傳心學潛心庸學皆至萬讀有文集一卷予里宋啓欽序西岡權寧驥撰行狀茆山李在湜撰碣巴江柳道弦記楣事載嶺南文獻錄見孝行錄

諱鼎坤

號玉齋以文學著世教育後進

諱振球

號惺齋以文學推重於鄉里

諱載漢

號剛齋師事溪堂柳疇睦性素方正己有愆掩戶自省見人善汲汲思齊

諱海鵬

號訥菴篤志力行怡養林泉不求聞達潛心性理爲鄉里推重

諱周演

號聾窩有學行能文善書有遺集二卷

諱致奎

號知止堂早棄舉業潛心力學永矢林樊晚構家塾誘掖後進鄉黨咸載

諱鎮榮

號鳳溪性溫志高潛心經學勸獎後進鄉黨稱頌見孝行錄

諱基洙

號太湖有學行尤善於詞章詩鳴於當世

諱燦求

號小坡篤志好學潛心性理邃於禮學師事凝窩李源祚四未張福樞與晚求李種杞大溪李承熙晦堂張錫英爲道義交討論經史有文集二卷事載星山誌及寰輿勝覽

諱致容

號松山隱居行義從遊於臨齋徐贊奎之門得聞爲己之學矣

諱炳舜

號春菴天性剛毅不取外物與許后山愈鄭艾山載圭講磨六經有遺稿四冊

諱炳岐

號小山以英明之資堅固之志濟之以學力踐實地不務華藻

諱基宗

號芝西姿稟溫順素性沈默不事舉業潛心聖學勸獎後進

諱胤祖

號青岡篤志好學勸獎後進有遺集二卷事載開城成均館養士錄

諱必隆

號篤庵篤志好學勸獎後進重修文廟奉獻位土士林推戴

諱處鉉

號江南氣宇清秀姿稟英明潛心性理不事舉業爲世推重

諱禹鍾

號雲圃性素嗜學不要名利隱居林泉啓迪後學爲己任

諱采玉

號隱求操行特異廉潔正直禮義實地名利浮雲事載定州邑誌

諱晟

號醒巖性素溫厚博學多聞鄉鄰推重後生欽慕

諱大誠

號性堂受業于小訥盧相稷有文集二卷

諱天鍾

號芝軒姿性溫厚文詞有餘鄰里推重

諱泰坤

號洛厓天性至勤潛心聖學固守林樊勸獎後進以爲己任鄉黨推重

諱 載 俊
一 均

號小溪文行著世師事臨齋徐先生贊承旨金炳洙薦際
章陵叅奉不就遯跡林樊誘掖後進士林推望有遺集二卷
號晚岡文行著世庚戌社屋不勝憤慨早棄舉業潛心力學
光復以後為薦刺吏平生累行鄉黨咸戴有遺集三卷一冊

孝行錄

諱 擊 夏

性剛直峻潔孝行根天卓
絕常倫丁親憂哀毀踰禮

諱 守 道

號素庵以孝行著世親病思鶉肉彷徨于野有鷄打鶉墮前奉而供進親病即愈後丁憂
執喪踰禮既葬廬墓三年夜則虎常來守人皆歎孝感所致墓在十里許而一生省墓無

一日曠闕晨昏省廟以至終身老病大瘡醫云藥當用酒時當國禁罵
酒不用而終鄉服懿行英祖特命賜復戶事蹟載三綱錄及密州誌

諱 以 瓘

有根天之孝奉養父母志體雙全母歿哀毀血泣既葬欲為廬墓為父所止而未果三年
晨昏趨哭墓下且父病祈天代命伐指注血以得回甦居無何竟以天年終喪葬盡禮廬

墓三年鄉人服其至孝而御史柳公縣倅申侯鄭侯採察
實行修單致饋生員曹錫璉崔重集以旌褒次數次呈營

諱 璨 慶

性行至孝母瘡髮際累月吮瘡故喉症卒發未暇吮瘡而非夢昏迷中有神童代吮其瘡
後又授丸藥吞之喉症自消親瘡即瘳其後父病中風委席難醫故呼泣日夜得冰魚雪

笋以適供旨其妻金氏亦相夫子扶起扶臥奉糞奉溺時或嘗糞者幾至七年夫婦夜夢
有神童子自空來授神劑即用其藥漸得回甦安過十年以終天年名播遠近鄉道狀營

繡特蒙嘉尚
啓聞之舉

諱 積 坤

有根天之孝嘗侍親病割股斷指回甦三
年以終天年本倅聞而嘉之遣吏致祭

諱 擊 夏

性剛直峻潔孝行根天卓
絕常倫丁親憂哀毀踰禮

諱 守道

號素庵以孝行著世親病思鵝肉彷徨于野有鷄打鵝墮前奉而供進親病即愈後丁憂執喪踰禮既葬廬墓三年夜則虎常來守人皆歎孝感所致墓在十里許而一生省墓無一日曠闕晨昏省廟以至終身老病大瘡醫云藥當用酒時當國禁罵酒不用而終鄉服懿行英祖特命賜復戶事蹟載三綱錄及密州誌

諱 以 瓘

有根天之孝奉養父母志體雙全母歿哀毀血泣既葬欲為廬墓為父所止而未果三年晨昏趨哭墓下且父病祈天代命伐指注血以得回甦居無何竟以天年終喪葬盡禮廬墓三年鄉人服其至孝而御史柳公縣倅申侯鄭侯採察實行修單致饋生員曹錫璉崔重集以旌褒次數次呈營

諱 璨 慶

性行至孝母瘡髮際累月吮瘡故喉症卒發未暇吮瘡而非夢昏迷中有神童代吮其瘡後又授丸藥吞之喉症自消親瘡即瘳其後父病中風委席難醫故呼泣日夜得冰魚雪笋以適供旨其妻金氏亦相夫子扶起扶臥奉糞奉溺時或嘗糞者幾至七年夫婦夜夢有神童子自空來授神劑即用其藥漸得回甦安過十年以終天年名播遠近鄉道狀營繡特蒙嘉尚啓聞之舉

諱 積 坤

有根天之孝嘗侍親病割股斷指回甦三年以終天年本倅聞而嘉之遣吏致祭

諱 智 榮

生甫三歲孤露號絕戍削及長欲追服盤問未遂事母至孝丁艱泣血三載每讀孝經輒流涕終身孺慕邃於禮學不事舉業為鄉鄰所推慕

諱 英 璧

自幼時穎悟勤儉孝性根天至誠養親鄰里異之親年六十有餘邁厭食之症每飲食之時非生魚則未能吞下公極求之或買於市或漁於水未嘗乏絕一日天寒冰凍市不得買即往陝川際梁浦漁父家而又不獲號泣回程偶有一鯉躍出冰上持而供之親病即愈後丁親喪日三省墓三年如一鄉里咸稱純孝有鄉狀及士林褒賞之舉

諱 晚 俊

父嬰痼疾醫藥無效所願生雉禱天以求生雉落庭因而供之疾即差愈母又痰喘願山猪肝呌地四求山猪仆籬即以供獻病亦快復鄉里咸稱其孝士林狀聞于營府禮曹焉

諱之瑞

事親至孝士林狀報特贈通政大夫戶曹佐郎

諱燦慶

性本至孝昏定晨省一不違差士林狀報特蒙嘉尚

諱熙翼

性本至孝事親盡誠鄉鄰稱頌

諱潤臣

天性至孝母老如廁每負往來又母病嘗糞斷指回生鄉鄰謂孝感所致

諱鍾圭

號雙楠天性至孝竭力事親必稱古之孝子志體之養而自恨其力不贍矣冬月先公方病大瘡晝宵吮之用以百方瘡口日大痛不能定情至誠祝天願以身代夢神人降于庭

曰予星官也汝父病雖欲汝有感格之誠自有勿藥之效勿慮也驚悟視之則業已消毒而至於合瘡賀者盈門咸孝感攸致事載嶺南文獻錄嶠南科榜錄見學行錄

諱祖榮

生有異姿稟天至孝才七歲親有難醫之疾距家十五里許隨母迎醫侍湯不離爐側及遭親喪攀號擗踊如老成人事母至孝養志養體極盡誠力及丁艱初終凡百一遵禮制

廬墓三年行路皆吊事載星山誌及寰輿勝覽濟西李貞基撰碣

諱厚敬

父嬰咳喘八九年百方試療一不秦效築壇禱天七日絕粒願以身代忽有一鹿仆臥壇下乃取血以進果秦快效後幾年以天年終將終兄弟二人斷指注血又有四日之甦平

山及金川新溪三郡士林以孝呈于巡相自道有褒狀都事金商振撰孝行錄

諱鎮榮

號鳳溪性素温和至孝根天奉養偏母極盡誠力丁艱初終凡百一遵禮制鄉里稱頌見學行錄

諱燦珽

號鈞隱至孝根天自髻鬢晨昏定省如老成人家且寒素耕讀之暇山樵水漁以供甘旨及丁憂水醬不入口哀毀踰禮且早孤之餘事兄如父友愛之情至老尤篤鄉鄰欽歎事

載星
山誌

諱 天 守

賦性至孝養生志體無闕送死極遵禮制
廬墓三年終身孺慕士林褒狀有旌閭閣

諱 運 淵

性素溫和根天至孝友愛
尤篤訓子義方鄉稱頌

諱 世 璠

父以難醫之疾委禱數朔一日願不時桑甚時則壬申十月日也與二弟世寬世璠一宵
九沐禱于桑林忽異香襲人桑甚闌開摘以供進宿痾快祛後數年以天年終臨終斷指
注血有二日之甦丁憂廬墓三年鄉鄰感服咸稱兩代四孝古所
罕有平山金川新溪三郡士林以孝褒狀都正慎璜仁撰孝行錄

諱 胤 模

早失所恃承重至孝以斷指之誠延五日
之壽丁憂求山之時有大虎指示之兆

諱 世 寬

侍湯之日不時桑甚臨終之時斷指回甦丁憂之後廬墓三年兄
弟三人不有差異故三郡士林各有褒狀進士李曹浩撰孝行錄

諱 世 璘

丁外艱之後孝奉偏母有勝於父在之日丁艱廬墓山虎來衛鄉鄰咸曰孝子之門又有
孝子真可謂有是父有是子三郡士林本邑府使次弟有褒狀進士徐潤根撰孝行錄

諱 宗 崙

生有根天之孝長有絕人之志養親
極盡志體奉先快雪冤抑鄉黨稱頌

諱 天 補

性素溫和事親至孝教
子義方有士林褒彰焉

諱 基 永

性至孝鄉里欽歎自
經學院有褒彰焉

諱 亨 權

孝性根天奉養二親
志體無闕鄉里稱頌

諱
元
均

性素孝友勤儉七歲喪母哀號擗踊如老成人事親以誠甘旨不
及丁親喪哀毀踰禮頓絕方蘇三年全廢魚肉酒草不櫛不洗日三
趁哭墓下三年如一
鄉鄰稱頌

孝婦錄

諱仁壽

配昌原黃氏事舅姑至孝舅年九十眇盲不視物惟願水魚黃氏親往沙場號泣旻天一大龜出陸抱歸作湯以供此後眼明實是誠孝所感以此鄉道狀聞特許嘉尚焉

諱琮均

配高靈申氏性貞淑有閨範及嫁奉舅至孝夫嬰疾竭誠救護及喪誓下從而念舅老子幼養育無託強忍治產傭賃縫績不乏甘旨舅以天年終易戚備至鄉里感歎稱孝烈兼全

諱處浣

配加平簡氏早喪所天家甚貧窶上有老姑而不視物下有二孤而年尚幼朝夕供饋無以自資東縫西織以供甘旨姑或出入戶庭則嘗先意而敬以扶持十年如一日可謂無闕志體鄉鄰感服

本邑郡守以孝褒狀

諱崙齊

配密陽朴氏早喪夫欲下從有膝乳故忍痛治產孝奉舅姑誠奉祖先鄉里稱頌

諱采璉

配海州盧氏結縵七載遭夫喪矢欲下從以舅姑力止竟不遂志自擇閨娘勸舅娶妻有子女鄉鄰稱之

諱璟齊

配白川趙氏早喪所天固守貞節誓以栢舟孝奉舅姑極盡志體代供子職遠近稱頌鄉里褒彰

諱周洪

配金寧金氏有柔順婉婉之行事舅姑以孝奉君子以禮舅以眼崇不視物三十餘年每供朝夕極盡甘旨侍側端坐以手援其匙箸出入戶庭則敬以扶持如是者如一日及丁

憂克相君子初終凡百一遵禮制鄉鄰感服郡面洞以孝褒彰

諱仁壽

配昌原黃氏事舅五十年如一日盲目復明有鄉道薦狀秋淵權龍鉉有旌表記

諱 楨 載

配晉州河氏天性至孝事偏姑
四十二年未嘗一夜異室

諱 鎬 一

默齋河貞根
撰孝旌碑

配玄風郭氏及嫁未幾奄曹崩城即欲殉從老姑在堂膝下無育養老奉
先將未無策強忍慰姑以保家業姑以天年終一遵禮制隣里咸稱孝烈

烈行錄

諱龜泓

配晉陽姜氏天性貞淑在家事親以孝成婚未幾奄遭夫喪晝宵抱屍而不覺屍汁之
 淚自飲箕哀忍慟喪葬克遵禮制葬訖之日泣告緒媿叔曰此身之尚保今日以無人主
 亡夫喪也今喪葬已畢死無所恨吾死之後願埋於亡夫之側以伸幽明之寃言訖命殞
 諸媿叔泛聽其言定窆于異麓發鞠之夕門楣忽摧釜鼎忽破牛馬暴斃此實烈感之激
 動人心處也而終不覺悟自後花縣八面連歲枯旱人稱烈婦異窆之所由也大小民員
 等訴于營府營有三石牟題減府有一石租一帖脯一雙燭四升棗粟二封香助祭之需
 令該面率丁合窆成窆之夕一線瑞氣
 連綿於其上甘雨卽降人稱烈婦雨焉

諱大宙

配密陽孫氏天性貞烈既嫁之後事舅姑以孝治閨壺以體一門取法夫有瘡疾不絕甘
 旨幾至三年百藥難醫至誠禱天割股而食之夫疾少差又願食水魚時則嚴冬冰合卽
 往木浦彷徨號泣偶有冰魚躍出持而供之夫疾快瘳其後夫又以痰瘰幾至死境刀圭
 無效夫人親常吮之勿藥自效實是誠烈所致也事實播聞鄉里鄉約長小訥盧相稷以
 褒旌之意具事實
 與鄉士林狀聞焉

諱渙

配全州李氏嫁未幾年夫嬰欲疾家甚貧寒菽水之供藥餌之資皆春賃繼之如是者數
 年而疾尤欲刮以進禱天身代竟至不淑三祥之日溘然欲從以遺孤之故而不忍遂
 志代父訓子以成門戶鄉鄰稱頌事載
 星山誌及寰輿勝覽恭山宋浚弼撰傳

諱炳宇

配慶州李氏夫病長久晝則迎醫夜則祈天割股
 斷指一不秦效竟遭崩城廬墓三年鄉里褒彰焉

諱在龍

配星州李氏生有貞靜之姿長有婉婉之教奉舅姑以孝事君子以禮不幸夫嬰就疾藥不奏效禱天身代斷指刮股無所不臻而不獲天佑竟遭城崩卽欲溘然而上有隆侍下有幼孤未遂素志茹哀忍痛初終祥祭克遵禮制代子奉老代父訓子以成門戶性本勤儉治家以約恤窮接賓用臻其豐遠近稱頌事載嶠南誌及三綱錄

諱辛琰

配平山申氏夫有瘡疾願啖山猪忽有一獵者遂山猪而至得而供之卽愈鄉鄰稱其烈

諱千翼

配蔚珍張氏以烈行有成均館褒彰焉

諱基昊

配坡平尹氏以孝烈士林褒彰焉

諱斗鍾

配蔚山朴氏性素貞淑孝烈根天鄉里褒彰焉

諱元仲

配南原獨孤氏性素貞淑早喪所天固守貞節勤儉治產孝奉舅姑鄉里稱頌

諱南淳

配河林鄭氏夫邁奇疾每夜禱天竟遭天崩誓欲下從一門驚惶萬端說諭幡然改悟誠事舅姑愛育遺孤以昌家聲鄉鄰稱頌

先祖闡揚錄

諱 鎬 瑾

始祖諱鄰與花園先祖 補遺高麗史列傳 登載花園先祖壇所淨化 神道碑謹豎
 高麗大殿配享 御筆閣 景義祠重修 先祖墓碣銘撰 小溪亭重修 文化財保錄
 影堂建立 奇世兩世槁國譯 大邱鄉賢誌序文
 儒林精神文化傳承發展

回文洞祭壇享祀笏記

行奠儀

獻官이하 함취묘 전서림 재배
獻官이하 成就墓前序立再拜 헌관 이하 모두 묘 앞에서 재배하시오.

獻官이하 제집사취관세위관수복위
獻官이하 諸執事就盥洗位盥手復位

헌관 이하 제집사는 관세위에 손을 씻고 닦으시고 제자리로 가시오.

執事陳設 집사는 진설하시오.

初獻官點視陳說 초헌관은 진설을 확인하시오.

訖還復位 끝내고 제자리로 가시오.

降神禮

初獻官詣香案前跪 초헌관 예향안전 跪 초헌관은 향안전에 꿇어앉으시오.

三上香再拜 삼상향재배 향을 세 개 피우고 재배하시오.

執事跪初獻官之左進盞盤 집사께 초헌관 좌좌진잔반 집사는 초헌관 좌측에 꿇어 자를 주시오.

獻官受之 헌관수지 헌관은 잔을 받으시오.

執注者跪右斟酒 집주자께 우집주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獻官盡傾于地 헌관진경우지 헌관은 땅에 비우시오.

授盞盤執事 수잔반집사 집사에게 잔을 주시오.

執事受虛盞奠于墓位前 집사수허잔전우묘위전 집사는 빈 잔을 묘위전에 놓으시오.

獻官俯伏興再拜 헌관부복흥재배 헌관은 엎드려 일어나 재배하시오.

復位 복위 제자리로 가시오.

參神禮

獻官以下在位者皆再拜 헌관 이하 자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初獻禮

初獻官詣香案前跪 初헌관은 향안 전에 꿇으시오.

執事奉考位盞盤 집사는 고위의 잔을 받드시오.

進獻官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獻官受之 헌관은 잔을 받으시오.

執注者跪右斟酒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獻官奉盞盤少傾于地 헌관은 잔을 받들여 기울여 땅에 비우시오.

헌관수잔반집사
獻官授盞盤執事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수잔반전우고위전
執事受盞盤奠于考位前 집사는 잔을 받아 고위 전에 두시오.

집사봉비위잔반
執事奉妣位盞盤 집사는 비위 전에 잔을 받드시오.

진헌관
進獻官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은 잔을 받으시오.

집주자짐주
執注者斟酒 집주자는 술을 따르시오.

헌관봉잔반소경우지
獻官奉盞盤少傾于地 헌관은 잔을 받들어 기울어 땅에 비우시오.

헌관수잔반집사
獻官授盞盤執事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수잔반전우비위전
執事受盞盤奠于妣位前 집사는 잔을 받아 비위 전에 두시오.

집사자잔집우헌관
執事者進肝楨于獻官 집사는 간을 접시에 담아 헌관에게 주시오.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은 받으시오。

헌관봉간접수집사
獻官奉肝楪授執事 헌관은 간을 받들어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수간접전우묘위전
執事受肝楪奠于墓位前 집사자는 간을 받아 묘위전에 두시오。

계반개
啓飯蓋 밥뚜껑을 여시오。

정저
正箸 수저를 바르게 하시오。

헌관이 하개부복
獻官以下皆俯伏 헌관이 하 앞드리시오。

추취헌관좌좌동향계
祝就獻官之左東向跪 축은 헌관의 좌측 동향으로 꿇으시오。

독축
讀祝 축을 읽으시오。

부복자개흥
俯伏者皆興 모두 일어서시오。

헌관재배
獻官再拜 헌관은 두 번 절하시오。

복위
腹位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집사철잔종주
執事撤盞中酒 집사자는 잔을 비우고 술을 준비하시오.

치허잔우고쳐
置虛盞于姑處 빈 잔을 처음처럼 두시오.

아헌례
亞獻禮

아헌관예향안전케
亞獻官詣香案前跪 아헌관은 향안 전에 꿇으시오.

집사봉고위잔반
執事奉考位盞盤 집사는 고위의 잔을 받드시오.

진헌관
進獻官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헌관수지
獻官受之 헌관은 받으시오.

집주자케우집주
執注者跪右斟酒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헌관 봉잔 반소경우지
獻官奉盞盤少傾于地 헌관은 잔을 받들어 기울어 땅에 비우시오.

헌관 수잔 반집사
獻官授盞盤執事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 수잔 반전우고위전
執事受盞盤奠于考位前 집사는 잔을 받아 고위 전에 두시오.

집사 봉비 위잔 반
執事奉妣位盞盤 집사는 비위 전에 잔을 받드시오.

진헌관
進獻官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헌관 수지
獻官受之 헌관은 받으시오.

집주자계우집주
執注者跪右斟酒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헌관 봉잔 반소경우지
獻官奉盞盤少傾于地 헌관은 잔을 받들어 땅에 비우시오.

헌관 수잔 반집사
獻官授盞盤執事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집사 수잔 반전우비위전
執事受盞盤奠于妣位前 집사는 잔을 받아 비위 전에 두시오.

執事者進肉楪于獻官 집사자진육접우헌관 집사는 육을 접시에 담아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受之 헌관수지 헌관은 받으시오.

獻官奉肉楪授執事 헌관봉육접수집사 헌관은 육을 받들어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受肉楪奠于墓位前 집사수육접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육을 받아 묘위 전에 올리시오.

正箸 정저 수저를 바르게 하시오.

獻官再拜 헌관재배 헌관은 두 번 절하시오.

腹位 복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執事撤盞中酒 집사철잔중주 집사자는 잔을 비우고 술을 준비하시오.

置虛盞于姑處 치허잔우고처 빈 잔을 처음처럼 두시오.

終^종獻^헌禮^례

終^종獻^헌官^관詣^예香^향案^안前^전跪^궤 종헌관은 향안 전에 꿇으시오.

執^집事^사奉^봉考^고位^위盞^잔盤^반 집사는 고위의 잔을 받드시오.

進^진獻^헌官^관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獻^헌官^관受^수之^지 헌관은 받으시오.

執^집注^주者^자跪^궤右^우斟^짐酒^주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獻^헌官^관奉^봉盞^잔盤^반少^소傾^경于^우地^지 헌관은 잔을 받들어 기울여 땅에 비우시오.

獻^헌官^관授^수盞^잔盤^반執^집事^사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執^집事^사受^수盞^잔盤^반奠^전于^우考^고位^위前^전 집사는 잔을 받아 고위 전에 두시오.

執事奉妣位盞盤 집사 봉비위잔반 집사는 비위 전에 잔을 받드시오.

進獻官 진헌관 헌관에게 나아가시오.

獻官受之 헌관수지 헌관은 받드시오.

執注者跪右斟酒 집주자 우짐주 집주자는 우측에 꿇어 술을 따르시오.

獻官奉盞盤少傾于地 헌관봉잔반소경우지 헌관은 잔을 받들어 기울여 땅에 비우시오.

獻官授盞盤執事 헌관수잔반집사 헌관은 잔을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受盞盤奠于妣位前 집사수잔반전우비위전 집사는 잔을 받아 비위 전에 두시오.

執事者進魚楪于獻官 집사자진어접우헌관 집사는 육을 접시에 담아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受之 헌관수지 헌관은 받드시오.

獻官奉魚楪授執事 헌관봉어접수집사 헌관은 어를 받들어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受魚楪奠于墓位前 집사수어접전우묘위전 집사자는 어를 받아 묘위전에 올리시오.

正箸 정저 저를 바르게 하시오.

獻官再拜 헌관재배 헌관은 두 번 절하시오.

腹位 복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侑食 유식

初獻官詣香案前跪 초헌관예향안전깨 초헌관은 향안 전에 꿇으시오.

執注者進酒 집주자진주 집주자는 술을 가지고 오시오.

獻官受之 헌관수지 헌관은 받으시오.

獻官奉盞盤授執事 헌관봉잔반수집사 헌관은 잔을 받들고 집사에게 주시오.

執事受盞盤 집사수잔반 짐사는 잔을 받으시오.

進墓位前 진묘위전 묘위전에 나아가시오.

添酌于考妣位盞滿 첨작우고비위잔만 고위 비위 잔에 첨작하시오.

插匙正箸 삽시정저 슬가락을 뒤편에 꽂고 젓가락을 바로하시오.

初獻官再拜 초헌관재배 초헌관은 재배하시오.

腹位 복위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與在位者皆俯伏 여재위자개부복 재위자 모두 부복하시오.

食傾 식경 식사할 시간(예..九번 습설 동안)

祝詣香案前 축예향안전 축은 향안 전에 이르시오.

噫歆三聲 희흠삼성 흠소리를 세번 하시오.

헌관이 하재위자 개흥 헌관이 하재위자 일어서시오.

執事撤羹 집사철갱 집사자는 극그릇을 치우고

進熱水 진열수 물그릇을 올리시오.

三點茶 삼점차 세번 말으시오.

西柄正著 서병정저 손잡이를 서쪽으로 정저하시오.

獻官以下在位者皆鞠躬 헌관이 하재위자 극공하시오.

祝噫歆三聲 축희흠삼성 축은 세번 흠흠하시오.

獻官以下皆平身 헌관이 하평신하시오.

初獻官東階下立 초헌관동계하립 초헌관은 동계 밑에 서시오

祝詣西階下向獻官立 축예서계하향헌관립 축은 서계로 헌관을 향해 서시오.

祝告禮畢而揖 축고예필이음 축은 예필을 고하시오.

獻官及祝咸復位 헌관급축함복위 헌관 축은 제자리로 가시오.

執事下匙箸盥飯盖 집사하시저합반개 집사는 수저를 지우고 반을 덮으시오.

執事復位 집사복위 집사는 제자리로 오시오.

獻官以下皆再拜 헌관이하개재배 헌관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飲福禮 음복례

初獻官詣香案前跪 초헌관예향안전케 초헌관은 향안 전에 꿇으시오.

執事進撤盞盤 집사진철잔반 집사자는 잔을 가지고

祝進減墓位前胙肉 축진감묘위전조육 축은 묘위전 제 지낸 고기를 덜어 담으시오.

祝及執事跪于獻官之左右 祝 및 집사는 헌관 좌우에 꿇으시오.

獻官受之飲福 헌관은 받아 음복을 하시오.

祝降自西階焚祝 祝은 서계로 가서 축문을 사르시오.

祝及執事撤饌 祝 및 집사는 찬을 거두시오.

山神祝

維歲次간지십월모삭초삼일간지
幼學 유학 ○○○

敢昭告于 감소고우

土地之神今爲 토지지신금위 ○○○ 恭修歲事于 공수세사우

顯 (代祖考崇祿大夫左贊成府君 현 대조고승록대부좌찬성부군

顯 (代祖妣貞敬夫人安東權氏之壇 현 대조비정경부인안동권씨지단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유시보우 실뢰신휴 감이주찬

敬伸奠獻 尚饗 경신전헌 상향

祝 축

維歲次간지십월모삭초삼일간지
歲次干支十月某朔初三日干支 () 世孫 세손
○○○

敢昭告于 감소고우

顯 현
() 代祖考崇祿大夫左贊成府君 대조고승록대부좌찬성부군

顯 현
() 代祖妣貞敬夫人安東權氏之壇 대조비정경부인안동권씨지단

禮制有限 예제유한 蒸嘗已替 증상기체 瞻掃封塋 침소봉영 不勝感慕 불승감모

謹以清酌 은이청작 庶羞祗薦 서수지천 歲事 세사 尚饗 상향

기해보 편찬 경과 및 현황(己亥譜編纂經過現況)

◎ 경과(經過)

- 二〇一六년 六月 ~ 八月
기본조사(基本調査)· 족보(族譜)의 구성(構成)、 기존대동보(既存大同譜)、
타문중 족보(他門中族譜)、 족보업체(族譜業體)
- 二〇一六년 十月
계획서(計劃書) 수립(樹立) 이사회(理事會) 결의(決議)
- 二〇一七년 一月
편찬위(編纂委) 구성(構成)
- 二〇一七년 五月 ~ 六月
신문광고(新聞廣告) 三회
- 二〇一七년 八月
족보사(族譜社) 결정(決定)、 프로그램 확정(確定)
- 二〇一七년 十月
구보(舊譜) 입력(入力)

- 二〇一七년十一月
 - 수단(收單) 접수(接手) 등록(登錄) 및 자손록(子孫錄) 수정(修整)
 - 1만(萬)여(餘)건(件)
- 二〇一八年三月
 - 인터넷 족보(族譜) 정식(正式) 구동(驅動)
- 二〇一九년一月
 - 기해보(己亥譜) 보규(譜規) 확정(確定)
- 二〇一八年六月 ~ 二〇一九년七月
 - 문헌록(書·발·영정·화보·유문 열사 참고자료) 보완·보책(譜冊) 편집(編輯) 및 보정(補正)
- 二〇一九년八月 ~ 十月
 - 인쇄(印刷) 제본(製本)
- 二〇一九년十月三十일
 - 고유제(告由祭)
- 二〇一九년十一月
 - 발간(發刊) 배포(配布)

파 (派)	계해보 (1983)	추 가	기해보 (2019)	구 성		
				남자	여자	사위
判尹	960	335	1,295	856	203	176
叅判	7,443	1,250	8,693	6,780	502	1,411
叅議	10,874	3,037	13,911	10,003	1,581	2,327
茅亭	4,042	105	4,147	3,398	49	700
兵使	13,389	3,469	16,858	11,998	1,992	2,868
通德郎	4,605	370	4,975	3,634	243	1,096
其他	2,882	10	2,892	2,892		
합계	44,195	8,576	52,771	39,561	4,570	8,578

◎입보 현황(入譜現況)

※단위:명(名)

구 분	수단금	서책대금	화보대금	합 계
判尹	666	648	60	1,374
叅判	2,491	1,404	150	4,045
叅議	6,004	4,056	645	10,705
兵使	6,878	3,296	535	10,709
通德郎	786	552	75	1,413
茅亭等	226	184	0	410
합계	17,051	10,140	1,465	28,656
(현성금 별첨)	※석대봉위원장 사무실제공(1,200만원)			3,515
총수입				32,171

자료(資料) .. 석권균(石權均) 사무총장(事務總長)

◎ 파종별 등록금(派宗別登錄金)

※ 단위 .. 만원

※ 기해보(己亥譜) 헌성금(獻誠金) 명단(名單)

순	성명	헌성금 (원)	과명	비고
1	석준호	13,300,000	병사	대종회장
2	석균쇠	3,000,000	참판	참판
3	석동현	2,500,000	병사	병사
4	기세 소계공재준 후손	1,000,000	참의	참의
5	석관성	1,000,000	모정	모정
6	석균성	1,000,000	참판	대종손
7	석재덕	1,000,000	통덕	통덕
8	석태극	1,000,000	병사	부산
9	석문수	500,000	병사	고문
10	석 민, 석 흥	500,000	통덕	통덕
11	석윤원	500,000	참판	문방
12	석정태	500,000	모정	모정
13	석호현	500,000	참판	재경회장
14	석권균	300,000	참의	사무총장
15	석길수	300,000	병사	前대종회총무
16	석남수	300,000	병사	홍천
17	석동업	300,000	병사	시랑
18	석상길, 석대길	300,000	참판	울산
19	석정갑	300,000	참판	대구회장
20	석정광	300,000	참의	대종회재무
21	석종길, 석종호	300,000	통덕	서울·부산
22	석종윤	300,000	참의	고문
23	석종택	300,000	병사	성주
24	석지균	300,000	참의	
25	석창식	300,000	모정	편찬위 간사
26	석현덕	300,000	참의	칠원가동 회장
27	석호범	300,000	병사	울산
28	석희곤	300,000	참의	밀양 부회장

순	성명	헌성금 (원)	파명	비고
29	석경애	200,000	통덕	
30	석계성	200,000	참의	대구종친재무
31	석금중	200,000	통덕	영주
32	석도영	200,000	모정	
33	석명자	200,000	통덕	
34	석병언	200,000	병사	前대구회장
35	석상열	200,000	병사	시랑공 총무
36	석용훈	200,000	병사	시랑공 고문
37	석유진	200,000	참의	자인회장
38	석종길	200,000	통덕	
39	석종해	200,000	병사	시랑공 고문
40	석천호	200,000	병사	시랑공 회장
41	석철갑	200,000	참의	칠원가동 총무
42	석태순	200,000	참의	대종회 감사
43	석호열	200,000	병사	성주
44	석희수	200,000	통덕	
45	석종수	150,000	통덕	
46	석동기	100,000	참의	청도
47	석삼수	100,000	병사	성주
48	석성균	100,000	참의	밀양
49	석세관	100,000	참의	대종회 감사
50	석위수	100,000	병사	
51	석종길	100,000	병사	창녕
52	석해균	100,000	참의	
53	석희대	100,000	모정	
54	석희중	100,000	통덕	
55	석병환	50,000	참판	
56	석종호	50,000	병사	
	합계	35,150,000		
57	석대봉	사무실임대 (12,000,000)	통덕	편찬위원장

충주홍주석씨대동보편찬위원회 명단
 (忠州洪州石氏大同譜編纂委員會 名單)

◎ 中央委員會

顧問	參議公派	二十八世	石鍾潤
顧問	兵使公派	二十九世	石文洙
顧問	叅判公派	二十七世	石均成 (大宗孫)
委員長	兵使公派	二十九世	石俊溟 (大宗會長)
委員長	通德郎公派	二十六世	石大鳳 (前會長)
運營諮問委員	兵使公派	三十四世	石東炫
運營諮問委員	通德郎公派	二十八世	石鍾顯
運營諮問委員	叅判公派	二十九世	石泳哲
執行部	茅亭公派	三十三世	石昌植 (幹事)
執行部	叅議公派	二十七世	石權均 (總務(財務)·大宗會事務總長)

◎ 派 宗 別

		判尹公派	
諮問委員	二十八世	石光煥(광주)	
補正委員	二十五世	石 浩(서울)	
編纂委員	二十八世	石翰燮(광주)	
"	二十五世	石正根(광주)	
收單委員	二十八世	石泰燮(광주)	
"	二十五世	石龍鉉(서울)	
"	二十六世	石龍權(서울)	
"	二十六世	石東律(서울)	
參判公派			
諮問委員	二十六世	石楊煥(서울)	
"	二十七世	石均弼(서울)	
"	二十六世	石瑞煥(장호원)	
補正委員	二十七世	石均釗(재미)	
		參判公派	
補正委員	二十八世	石斗星(서울)	
"	二十八世	石虎鉉(수원)	
"	二十八世	石虎鉉(수원)	
"	三十世	石根喆(충주)	
"	三十一世	石潤源(성주)	
編纂委員	二十六世	石致源(서초)	
"	二十六世	石德煥(서울)	
"	二十七世	石均光(서울)	
"	三十世	石根浩(충주)	
"	三十二世	石正甲(대구)	
"	二十七世	石昌燮(의성)	
收單委員	二十七世	石在仁(장호원)	
"	二十八世	石相吉(울산)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編纂委員 "	二十九世 石世觀(대구)	"	二十五世 石同基(청도)	"	二十九世 石昌淳(기세)	"	二十九世 石泰淳(서울)	"	二十六世 石熙珍(밀양)	補正委員 "	二十七世 石海均(창원)	"	二十八世 石容鎭(부산)	"	二十七世 石智均(마산)	"	二十六世 石熙璟(밀양)	諮問委員 "	二十六世 石熙穆(밀양)	叅議公派	"	三十二世 石義浩(성주)	"	三十一世 石泰源(대구)	"	二十九世 石良煥(울산)	收單委員 "	二十七世 石均桂(지동)	叅判公派
	"	二十九世 石啓成(대구)	"	二十五世 石俊植(과천)	"	二十八世 石재민(밀양)	"	二十七世 石昌均(인동)	"	二十八世 石鉉德(밀양)	"	二十九世 石基泰(청도)	"	二十九世 石珠湜(합천)	"	二十七世 石正均(부산)	收單委員 "	二十九世 石昌勳(기세)	"	二十六世 石희근(밀양)		"	二十七世 石相日(경주)	"	二十九世 石鐵甲(창원)	"	二十七世 石尙均(밀양)	編纂委員 "	二十八世 石有津(경산)	

		茅亭公派	
諮問委員	" "	二十七日	石官星(서울)
" "	" "	三十世	石熙善(대전)
補正委員	" "	三十世	石熙大(대전)
編纂委員	" "	二十八世	石鍾燮(대전)
收單委員	" "	三十四世	石泰鎮(일산)
" "	" "	三十三世	石貞太(서울)
兵使公派			
諮問委員	" "	二十六世	石炳彦(대구)
" "	" "	三十二世	石鎬益(서울)
" "	" "	三十四世	石學鎮(서울)
補正委員	" "	三十三世	石世鉉(서울)
" "	" "	二十九世	石溶薰(경기)
" "	" "	二十八世	石元兆(성남)
" "	" "	三十三世	石老洙(여주)
" "	" "	三十三世	石衛洙(창원)
		兵使公派	
補正委員	" "	三十二世	石鎬植(송파)
" "	" "	三十二世	石鍾澤(성주)
編纂委員	" "	二十九世	石泉浩(경기)
" "	" "	二十七世	石正植(대전)
" "	" "	三十世	石鍾根(낙은)
" "	" "	二十八世	石鎬鎮(창녕)
" "	" "	三十世	石吉洙(대구)
" "	" "	三十二世	石祥鳳(경기)
收單委員	" "	二十九世	石泰國(부산)
" "	" "	二十九世	石竣昊(대구)
" "	" "	三十三世	石正洙(부산)
" "	" "	二十九世	石明祐(송파)
" "	" "	二十九世	石鍾泰(창녕)
" "	" "	二十八世	石武賢(안동)
" "	" "	三十三世	石三洙(삼산당)

兵使公派	收單委員	二十九世 石南洙(흥천) 三十二世 石鍾出(성주)
	通德郎公派	
諮問委員	二十六世 石熙昭(상주) 二十七世 石榮均(영주) 二十八世 石鍾世(대구)	補正委員
"	二十六世 石 康(서울) 二十九世 石文永(대구)	"
"	二十六世 石熙琇(서울) 二十六世 石熙仲(인천)	"
"	二十七世 石潤基(서울) 二十七世 石在德(경기)	編纂委員
"	二十七世 石忠基(서울) 二十八世 石東鎭(영주)	"
"	二十七世 石在均(상주)	"
通德郎公派	編纂委員	二十八世 石釘一(양재) 二十八世 石金鍾(영주) 二十八世 石鍾培(상주)
	收單委員	二十七世 石在舜(서울) 二十八世 石鍾碩(영주) 二十八世 石文錫(서울) 二十八世 石鍾吉(상주) 二十九世 石鍾吉(서울) 二十九世 石戊永(대전)

대종회 역대 회장 명단(大宗會歷代會長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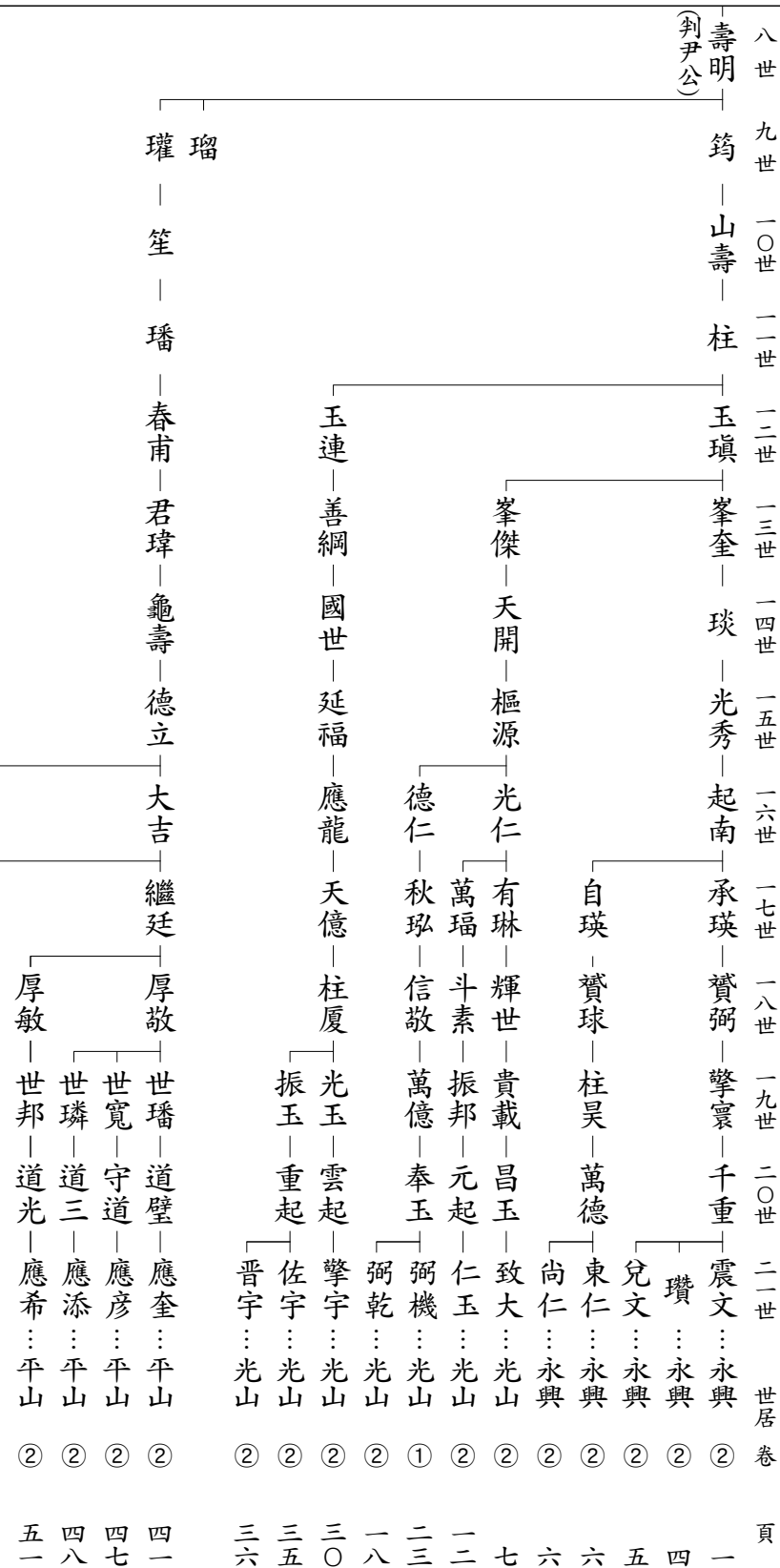
代	在任期間	姓名	主要業績
初代~四代	一九六〇年~一九六九年(九年)	石在琢	화원재실(花園齋室) 화원선조묘단(花園先祖墓壇) 정비(整備)
五代~十一代	一九七〇年~一九八三年(十三年)	石一楨	계축대동보(癸丑大同譜) 발간 전국대종회 조직구성(十九개 지부) 계해세보(癸亥世譜) 편찬 착수
十二代~十四代	一九八四年~一九九一年(七年)	石敬洙	화원재(花園齋) 중건(重建), 계해세보(癸亥世譜) 발간
十五代	一九九二年~一九九五年(三年)	石六均	전국석씨대종회총회 개최 (대구시민회관, 五百名 참석) 종보(宗譜) 발간
十六代~十九代	一九九六年~二〇〇四年(八年)	石鎬瑾	린(鄰)시조·화원선조보유고려사실록 및 열전 등재, 화원선조단소정화, 신도비 근수, 화원선조위패 고려대전 배향
二十代~二十一代	二〇〇四年(四月)~二〇〇八年(四年)	石鎬容	창녕(昌寧) 경의사(景義詞), 어필각(御筆閣) 보수 및 단청공사(丹青工事)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代	在任期間	姓名	主要業績
二十二代~二十三代	二〇〇八年 二〇一二年 (四月) (四年)	石大鳳	린(鄰)시조 위패(位牌) 고려대전 배향, 화원재(花園齋) 어필각(御筆閣) 이전준공 (移轉竣工) 기해대동보(己亥大同譜) 편찬위원장.
二十四代	二〇一二年 二〇一四年 (四月) (二年)	石鍾潤	화원재(花園齋) 위토(位土) 정비(整備), 경의사(景義詞) 선조(先祖) 八위패(位牌) 배향(配享)
二十五代	二〇一四年 二〇一六年 (四月) (二年)	石文洙	경의사(景義詞) 담장바닥 보수, 화원재(花園齋) 단장(丹粧) 지붕 보수, 화원재(花園齋) 경계선 정비
二十六代~二十七代	二〇一六年 現在 (四月)	石俊溟	어필각비 안치보수 왕지(王旨) 기증(寄贈) 전가족보 및 기해대동보(己亥大同譜) 편찬, 대종회 발전기금 조성

忠州洪州石氏世系分派圖

始祖
 二世 靖
 三世 璉
 四世 興國
 五世 道
 六世 良善
 七世 天乙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卷 頁

汝明—文守—正鑑—擎白—環—岫—崇義—懷琛

(系判公)

成玉

天根—景良—東顯—南指—思瑩—陰竹

② ② ② ② ② ②

大屹

繼行—昌河—元瓊—光玉—宗盤—咸安

② ② ② ② ② ②

繼建—厚胤—世珀—光璧—應斗—平山

② ② ② ② ② ②

繼宅—厚珍—世赫—道直—應奇—平山

② ② ② ② ② ②

景圭—東鎮—南徵—思珵—陰竹

② ② ② ② ② ②

天柱—景星—東點—南鶴—思珥—天安

② ② ② ② ② ②

如玉—天繼—之璨—東元—南齊—思默—陰城

② ② ② ② ② ②

東亨—南紀—思英—驪州—思烈—陰城

② ② ② ② ② ②

東運—南奎—思璣—利川—思璣—丹陽

② ② ② ② ② ②

東一—南補—思行—安城—思行—利川

② ② ② ② ② ②

天楹—之璋—東老—南珍—思雲—清原

② ② ② ② ② ②

之重—東基—南得—思詰—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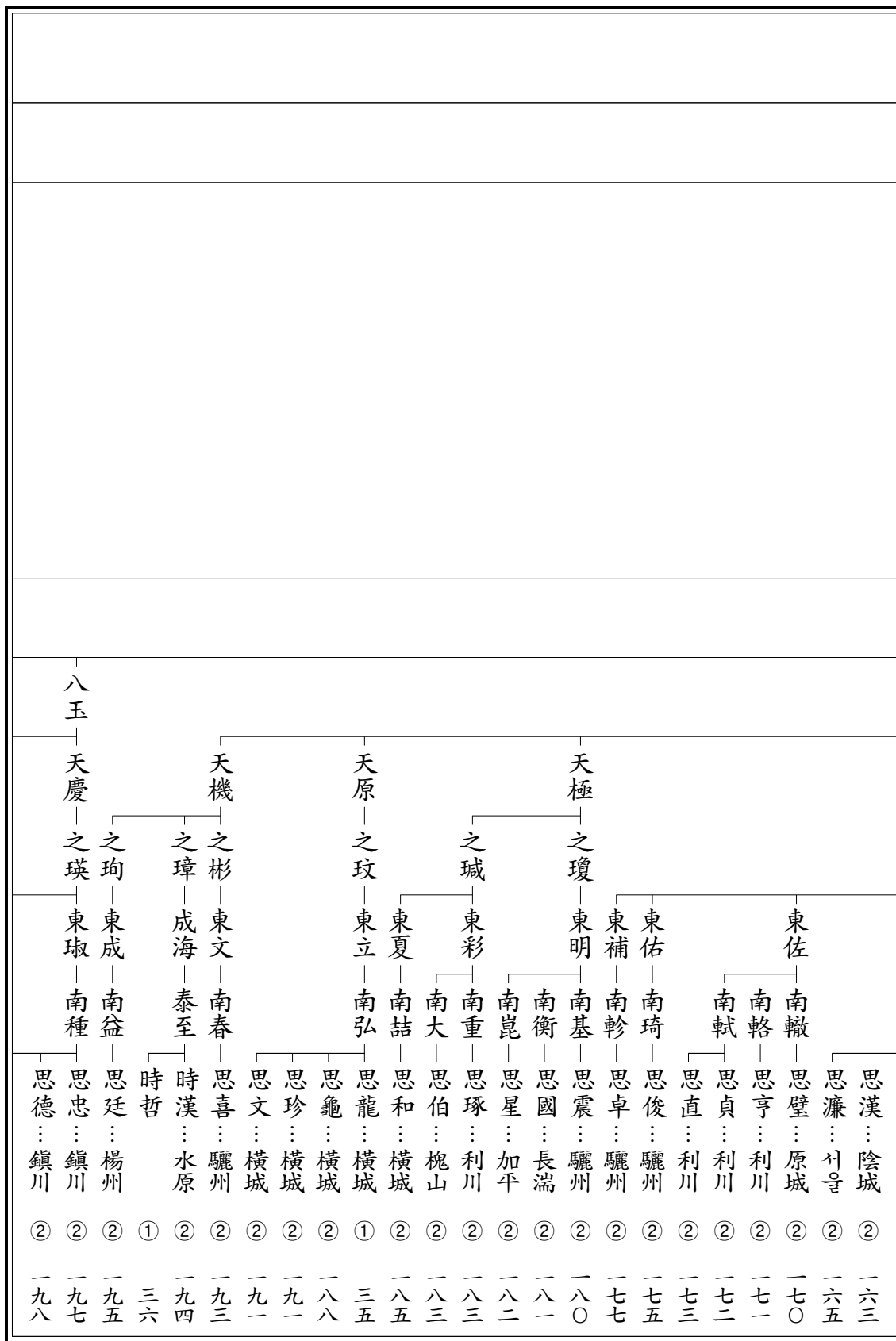
② ② ② ② ②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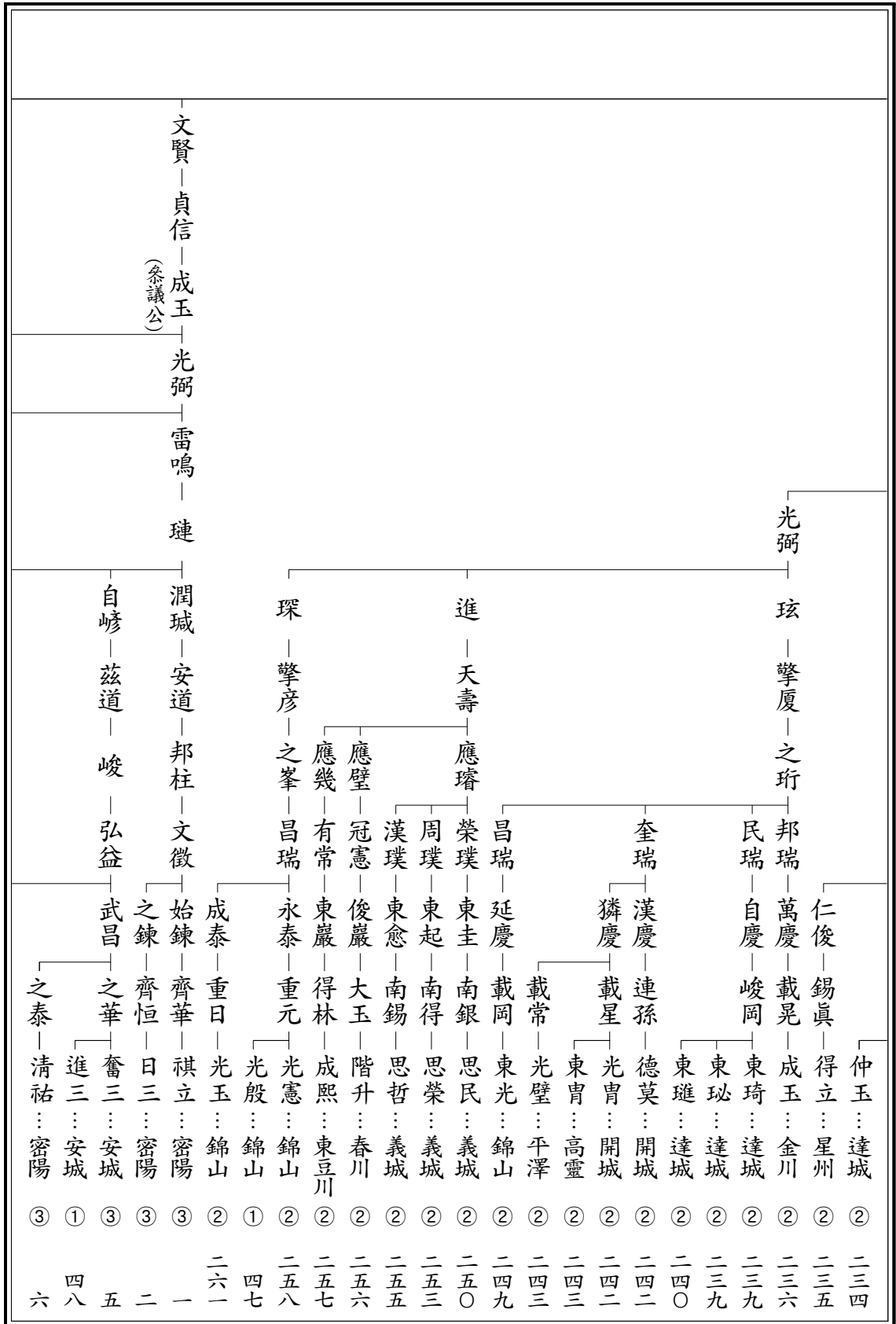
天樞—之琬—東武—南輪—思雷—付音

② ② ② ② ② ②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卷 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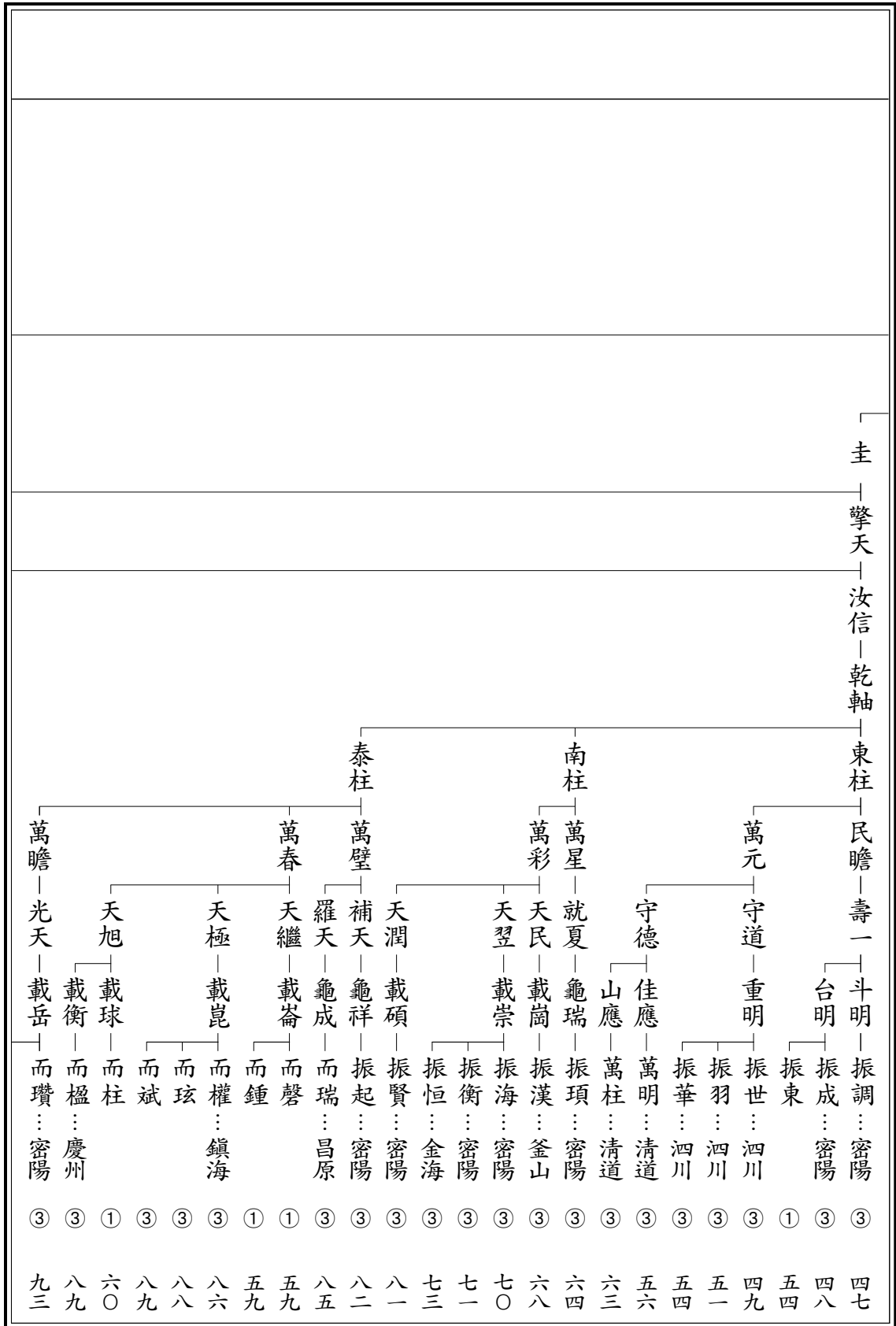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卷 頁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自岍	自岫	自獻	自岫	自岫	自獻	昌祐	昌建	昌義	昌建	昌祐
彦夫	順	宣	順	順	天柱	萬才	萬國	萬柱	萬國	萬才
琰	俊發	天柱	俊發	俊發	文世	日郁	奉明	奉天	奉明	日郁
璿	振伯	文世	振伯	振伯	就鍊	日得	咸安	咸安	咸安	日得
完南	明渭	齊鍊	明渭	明渭	齊鍊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金龍	明楚	齊鍊	明楚	明楚	齊鍊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允	佑天	文柱	佑天	佑天	文柱	奉智	奉智	奉智	奉智	奉智
陝川	啓天	華柱	啓天	啓天	華柱	允甲	允甲	允甲	允甲	允甲
載龍	柱天	之柱	柱天	柱天	之柱	允三	允三	允三	允三	允三
載挺	載夏	奉甲	載夏	載夏	奉甲	奉甲	奉甲	奉甲	奉甲	奉甲
載浩	載珩	密陽	載珩	載珩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載奎	載瑛	密陽	載瑛	載瑛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三五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三五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三五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三一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二八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二八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二三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一九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二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一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一五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〇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一三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〇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〇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〇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五〇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八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四九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七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七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六	清道	密陽	清道	清道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密陽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卷 頁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卷 頁

「文成」仁正
(茅亭公)

「琚」

有珪

崇孫

瀚

仕必

璘昌

希城

璣衡

應珍

寅立

義賢

成川

③ 一一〇八

禮立

泰璜

③ 一一一〇

義俠

泰珽

① 六九

③ 一一一三

③ 一一一四

應璞

之巖

補天

③ 一一一四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應吉

大寬

正淋

③ 一一一八

應老

大義

演澤

③ 一一一六

應老

大立

正淑

③ 一一一六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有琦

三君

成漾

軸

玉振

光壽

殷弼

應老

大秀

正球

③ 一一一五

成浪

瑾

變玉

③ 一一一六

成浪

瑾

變玉

③ 一一一六

有璧

璞玉

信珙

成建

良和

珺鶴

弘立

之英

泰球

景昊

③ 一一三〇

有璧

璞玉

信珙

③ 一一三〇

有璧

璞玉

信珙

③ 一一三〇

有璧

玉堅

玕

朝傑

平

天球

舜福

穆

春男

繼松

③ 一一三三

有璧

玉堅

玕

③ 一一三三

有璧

玉堅

玕

③ 一一三三

有璧

玉堅

玕

朝傑

平

天球

舜民

賢明

正默

任南

③ 一一三四

有璧

玉堅

玕

③ 一一三四

有璧

玉堅

玕

③ 一一三四

有璧

玉堅

玕

朝傑

平

天球

舜民

賢明

正默

任南

③ 一一三四

有璧

玉堅

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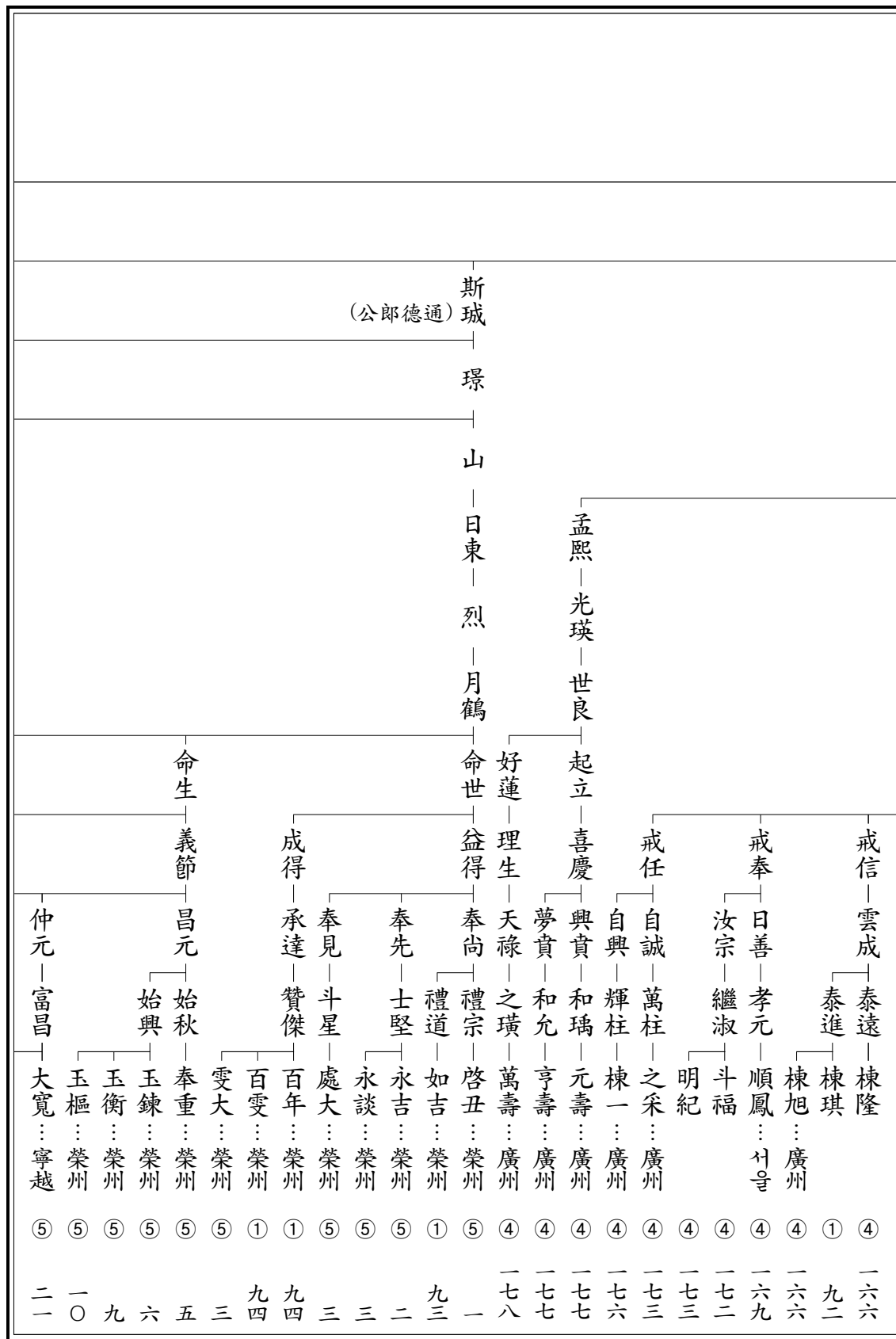
③ 一一三四

有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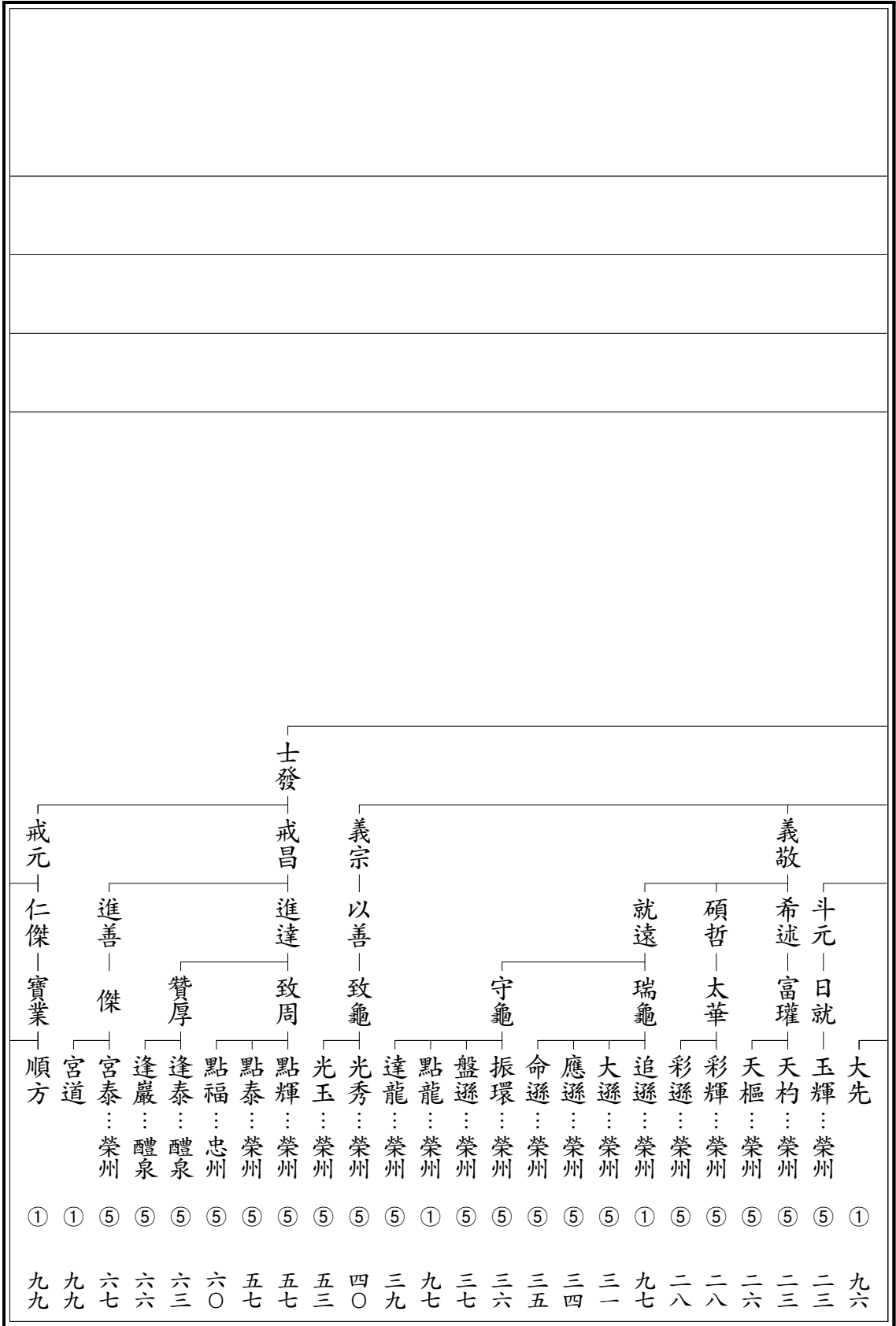
玉堅

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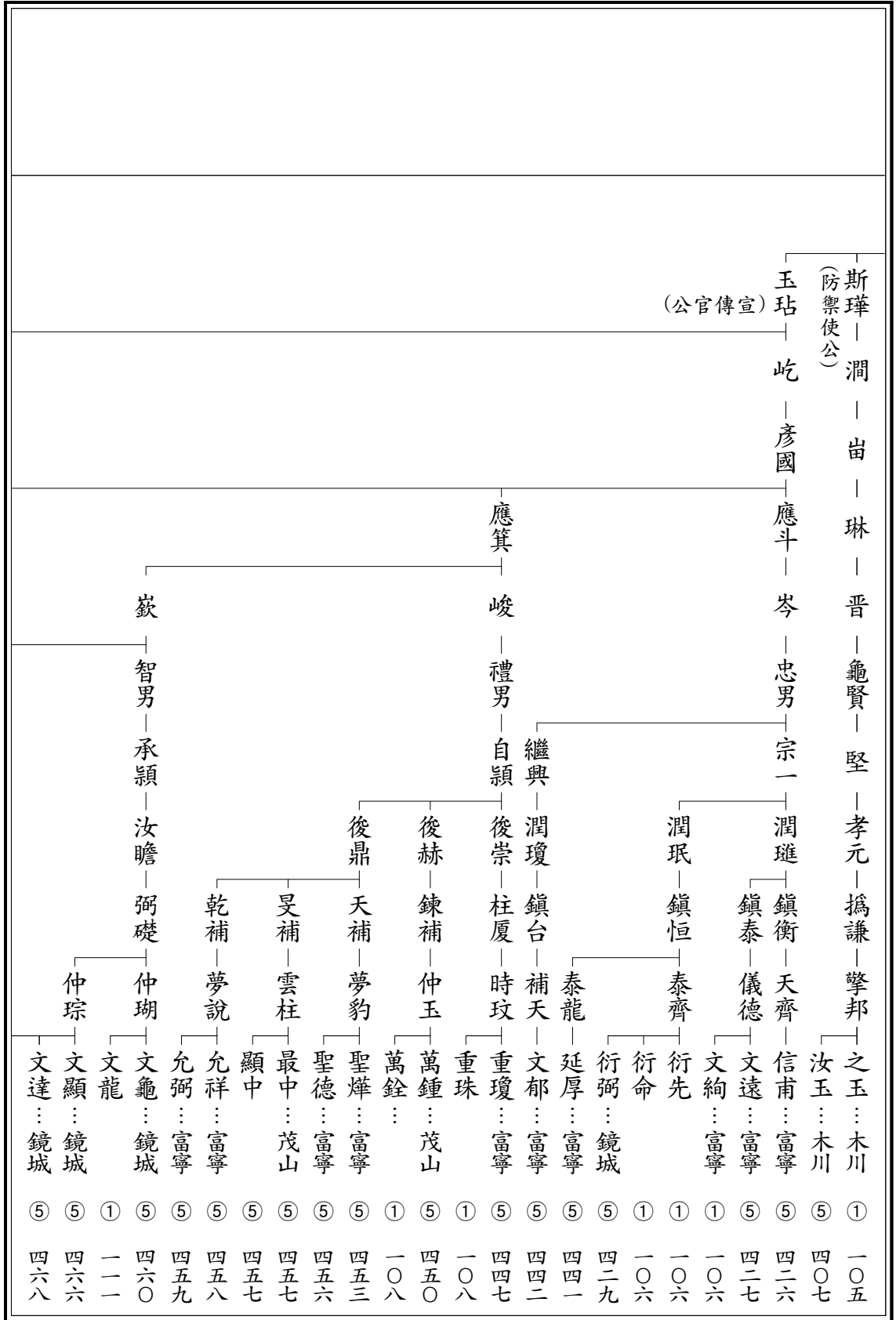
③ 一一三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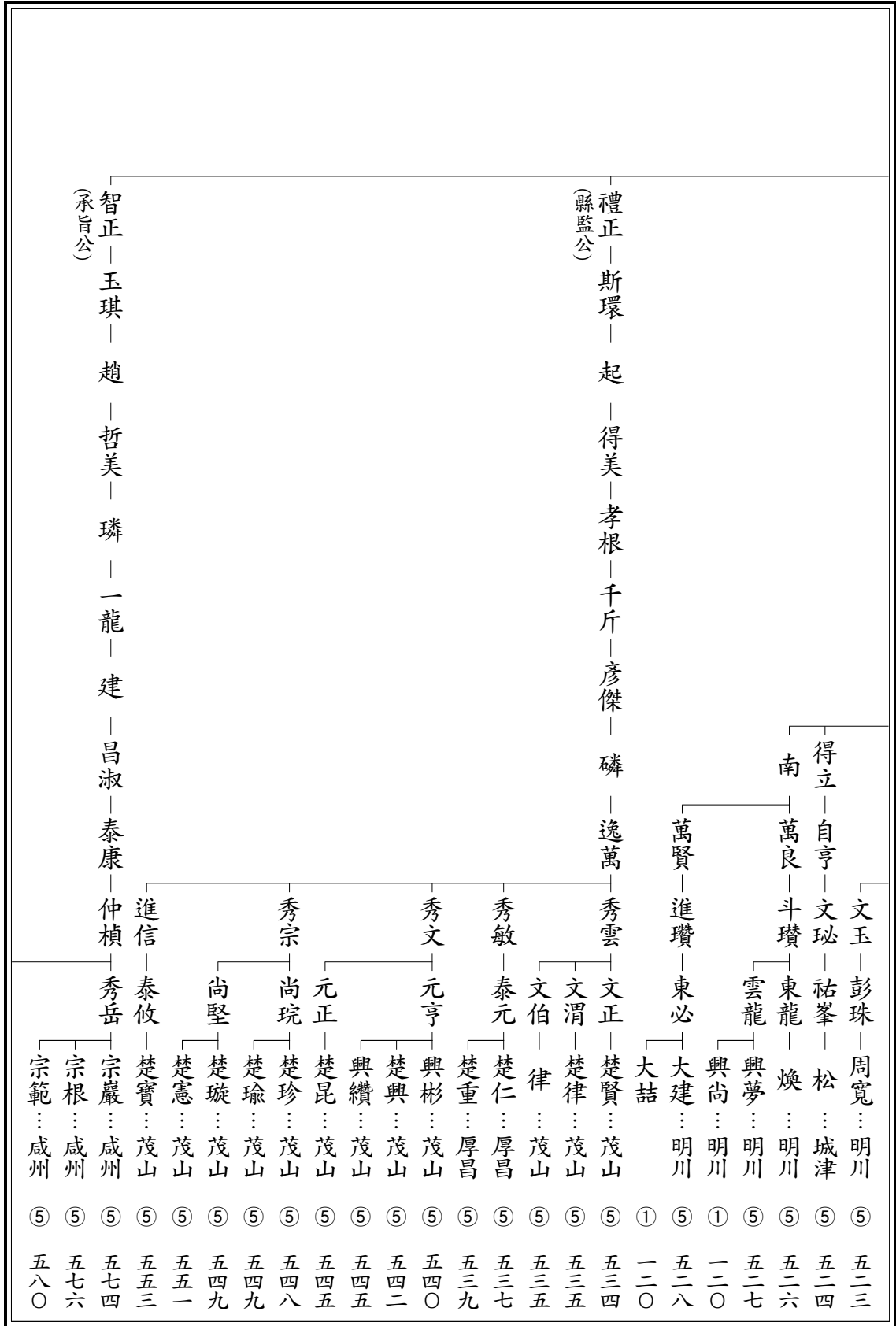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忠州洪州石氏大同譜 卷之一

八世 九世 一〇世 一一世 一二世 一三世 一四世 一五世 一六世 一七世 一八世 一九世 二〇世 二一世 世居 卷 頁

	〔	信正	〕		
		〔	玉琮	〕	
			〔	越	〕
				〔	哲漢
				〕	〕
				〔	元順
				〕	〕
				〔	璉
				〕	〕
				〔	是竟
				〕	〕
				〔	自善
				〕	〕
				〔	英萬
				〕	〕
				〔	致芳
				〕	〕
				〔	德彬
				〕	〕
				〔	和璧
				〕	〕
				〔	和益
				〕	〕
				〔	順興
				〕	〕
				〔	宗厚
				〕	〕
				〔	宗璜
				〕	〕
				〔	咸州
				〕	〕
				〔	秀河
				〕	〕
				〔	宗厚
				〕	〕
				〔	咸州
				〕	〕

①	⑤	⑤	⑤
一一二	五八五	五八三	五八二